

2010년 동남어문학회·한말연구학회

공동학술대회

일시 : 2010년 7월 23일(금요일)

장소 : 평택대학교 대학원동 1층 소강당(제1발표장) / 2층 소강당(제2발표장)

주제 : 21세기 언어와 문학의 방향성-지역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주관 : 평택대학교

주최 : 동남어문학회 · 한말연구학회

후원 :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

개회식		사회 : 구현정(상명대)	
9:30 ~9:50	(등록 및 접수) 개회사 : 리의도(한말연구학회 회장) 류종목(동남어문학회 회장)		
제1부	<제1분과>주제:지방 연구자의 정체성과 연구방법(1)	<제2분과>주제:지방 연구자의 정체성과 연구방법(2)	
	제1발표장 사회: 김영선(동아대)	제2발표장 사회: 김용경(경동대)	
10:00 ~10:40	지역성과 언어 문화 발표: 하치근(동아대) 토론: 조일규(평택대)	국어 교육 내용으로서의 '맥락' 쟁점에 대하여 -맥락은 지식인가, 기능인가, 전략인가 발표: 김슬옹(동국대) 토론: 김혜련(성신여대)	
10:40 ~11:20	조선 8도 설정과 방언의 상관성 발표: 방윤규(평택대) 토론: 최영미(호서대)	한국어 위치동화 현상의 지각에 대한 분석 발표: 박선우(세종대) 토론: 안병섭(고려대)	
11:20 ~12:00	지역방언 연구에 대하여 발표: 김옥영(강릉원주대) 토론: 최중호(동의대)	국어교육에서 '통합'에 대한 관점 발표: 신호철(고려대) 토론: 최대회(건국대)	
12:00 ~12:40	인터넷 토론 게시판 악성댓글의 범위와 유형 발표: 안태형(동아대) 토론: 김병홍(신라대)	고등학교 국어사전에서의 표제항 선정 발표: 서정미(안양대) 토론: 김한샘(국립국어원)	
< 점 심 >			
제2부	<제1분과>주제:지방 연구자의 정체성과 연구방법(3)	<제2분과>주제:21세기 언어실태(1)-공공언어	
	제1발표장 사회: 허만욱(남서울대)	제2발표장 사회: 허원욱(건국대)	
13:50 ~14:30	문학의 형상성과 문화의 편재성-지역연구자의 정체성과 연구방법 모색을 위한 계연 발표: 전동진(전남대) 토론: 전성욱(경성대)	공공언어의 개념과 요건 발표: 김세중(국립국어원) 토론: 허재영(단국대)	
14:30 ~15:10	1950년대 문학 장의 재편과 지역문학의 형성 발표: 김대성(부산대) 토론: 장수희(동아대)	공공언어의 표기와 표현 발표: 정희창(국립국어원) 토론: 박동근(건국대)	
15:10 ~15:50	독본의 사회학과 문화정치 발표: 박형준(부산외대) 토론: 차선일(경희대)	공공언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 방식 발표: 조태린(국립국어원) 토론: 김정호(건국대)	
제3부	<제1분과>주제:지방 연구자의 정체성과 연구방법(4)	<제2분과>주제:21세기 언어실태(2)-다문화사회와 한국어교육	
	제1발표장 사회: 정규식(울산대)	제2발표장 사회: 김홍범(한남대)	
16:00 ~16:40	부산의 지명과 문화 적응에 대한 연구 발표: 엄경흠(신라대) 토론: 심상교(부산교대)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의문문 구조 습득 연구 발표: 정해권(한국외대) 토론: 고경민(건국대)	
16:40 ~17:20	해운대의 풍경과 시적 관념화의 통시적 접근 발표: 권오경(부산외대) 토론: 홍순일(목포대)	교수법에 따른 한국어 문법용어에 대한 영어설명 고찰 발표: 안주호(순천향대) 토론: 박석준(배재대)	
17:20 ~18:00	구비 군왕설화의 유형적 특징과 인식양상 연구-개국시조형을 중심으로- 발표: 박기현(동아대) 토론: 서종원(단국대)	대조 분석을 통한 태국인 학습자의 과거 시제 습득 연구 발표: 박철웅(한국외대) 토론: 김병건(춘천교대)	
< 총 회 >			

차 례

【제1부】

■ 제1분과

하치근(동아대)	지역성과 언어 문화	2
조일규(평택대)	토론	11
방운규(평택대)	조선 8도 설정과 방언의 상관성	13
최영미(호서대)	토론	33
김옥영(강릉원주대)	지역방언 연구에 대하여	34
최중호(동의대)	토론	52
안태영(동아대)	인터넷 토론 게시판 악성 댓글의 범위와 유형	53
김병홍(신라대)	토론	68

■ 제2분과

김슬옹(동국대)	국어 교육 내용으로서의 ‘맥락’ 쟁점에 대하여-맥락은 지식인가, 기능인가, 전략인가	76
김혜련(성신여대)	토론	129
박선우(세종대)	한국어 위치동화 현상의 지각에 대한 분석	131
안병섭(고려대)	토론	148
신호철(고려대)	국어교육에서 ‘통합’에 대한 관점	150
최대희(건국대)	토론	168
서정미(안양대)	고등학교 국어사건에서의 표제항 선정	169
김한샘(국립국어원)	토론	182

【제2부】

■ 제1분과

전동진(전남대)	문학의 형상성과 문화의 편재성-지역연구자의 정체성과 연구방법 모색을 위한 제언	185
전성욱(경성대)	토론	200
김대성(부산대)	1950년대 문학 장의 재편과 지역문학의 형성	202
장수희(동아대)	토론	213
박형준(부산외대)	독본의 사회학과 문화정치	214
차선일(경희대)	토론	224

■ 제2분과

김세중(국립국어원)	공공언어의 개념과 요건	227
허재영(단국대)	토론	239
정희창(국립국어원)	공공언어의 표기와 표현	241
박동근(건국대)	토론	253
조태린(국립국어원)	공공언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 방식	255
김정호(건국대)	토론	271

【제3부】

■ 제1분과

엄경흠(신라대)	부산의 지명과 문화 적층에 대한 연구	273
심상교(부산교대)	토론	293
권오경(부산외대)	해운대의 풍경과 시적 관념화의 통시적 접근	295
홍순일(목포대)	토론	311
박기현(동아대)	구비 군왕설화의 유형적 특징과 인식양상 연구-개국시조형을 중심으로-	314
서종원(단국대)	토론	332

■ 제2분과

정해권(한국외대)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의문문 구조 습득 연구	335
고경민(건국대)	토론	345
안주호(순천향대)	교수법에 따른 한국어 문법용어에 대한 영어설명 고찰	347
박석준(배재대)	토론	362
박철웅(한국외대)	대조 분석을 통한 태국인 학습자의 과거 시제 습득 연구	364
김병건(춘천교대)	토론	374

【 제 1 부 】

■ 제 1 분 과

지역성과 언어 문화

하 치 근 (동아대)

차 례

1. 머리말
 2. 지역성
 - 2.1. 나라 안의 지역성 문제
 - 2.2. 나라 밖의 지역성 문제
 3. 지역성과 언어 문화
 - 3.1. 표준어와 방언
 - 3.2. 표준어와 공통어
 - 3.3. 남북한 언어
 - 3.4. 영어 공용화와 외래어 표기법
 - 3.5. 우리말의 오용 사례
 4. 마무리
- 참고문헌

1. 머리말

사람마다 개성에 차이가 있듯이 우리 삶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데 이런 특성을 지역성이라고 한다. 개성적인 인격체가 모여 건전한 사회공동체를 구성하듯이 다양한 지역성이 상호보완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건전한 문화의 조성이 가능하다. 그런데 요즈음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중앙과 지역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지역성이 소멸해 가는 위기를 맞고 있다.

1일 생활권이 조성되면 지역민이 수도권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런 기회가 일상화 되면 지역 문화의 흐름이 차단되고 중앙집중식의 일방지향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지역성의 소멸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이 가시화 되자 지방자치체를 강화시키려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유네스코 헌장에 국가 간의 문화 교류의 목적을 ‘상호 호혜성’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간의 문화 교류나 나라 밖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문화 교류는 지배적 방식이 아닌 상호 대등한 교류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현실은 지역 문화는 원시적이고 후진적이라고 경시하여 수도권 문화로 대체하고 있으며 서구 이외의 문화는 서구의 문화로 대체하는 것이 현대화와 진보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여기서는 방언의 위상이 표준어 중심의 언어 정책으로 흔들리고, 국제화의 위세로 영어

공용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우리말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 방법을 논의해 보려고 한다.

2. 지역성

2.1. 나라 안의 지역성 문제

지역성이란 각 지방에 따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유한 성질, 곧 기후, 풍토와 같은 환경의 힘을 받아 사회적, 문화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을 가리킨다. 요즈음 우리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수도권 중심으로 바뀌면서 지역성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지방 인구 감소와 경제 위축 등의 악순환을 불러오자, 지역 발전을 위해 고향세를 신설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고향세는 출향 인사들이 자기의 고향에 세금을 내어 열악한 재정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의 세금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고 지역 발전을 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수도권과 지역 간에 상호주의적 방식을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체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자체장들이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을 마음껏 휘둘러 지역성의 붕괴는 더욱 심화되고 지방재정은 더욱 열악해져서 한계에 이르렀다. 현재의 지자체 운용 방식은 중앙 정부의 규제도 없고 내부 견제도 없는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지방 권력을 양산하고 있다. 곧 중앙정부와의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독선적으로 운용되는 지방자치체는 더욱 지역성의 붕괴 및 고립화를 초래할 뿐이다.

상당수 지방 권력이 부패와 비리의 늪에 쉽게 빠져드는 것은 중앙 위주의 일방지향성과 지역 위주의 일방지향성이 상호 충돌하여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정(自淨) 장치가 쉽게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 6·2 지방 선거 당시에 4년 전 뽑은 단체장의 48%가 비리와 위법 혐의로 기소된 사실들이 이런 현실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지역성이 반영된 언어를 방언이라고 한다. 데이비드 크리스탈은 지역 언어는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과 활력을 촉진하고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주며, 지역 공동체에 자신감을 부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했다(재인용, 이상규 2008:72). 그러나 현실은 언어의 분열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지나친 표준어 중심으로 국어 정책을 시행한 결과 방언을 마치 언어 분열의 주범인 것처럼 인식하고 이를 버려야 할 대상으로 여겨 왔다(이상규 2008:72).

언어의 다양성은 때로는 문화적 다양성의 척도가 된다. 한 언어가 절멸하면 그들의 생활 방식도 사라진다는 점에서 언어의 절멸은 매우 불행한 문화 붕괴의 징후라 할 수 있다.

2.2. 나라 밖의 지역성 문제

동양과 서양이라는 구분은 서구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 낸 상상의 자리로 이데올로기보다 더 강력하고 근원적인 틀이었다. 일찍이 일본은 탈아입구(脫亞入歐)를 외치며 구라파의 일원이 되려고 몸부림쳤다. 그리하여 서구권의 일원이 되려고 아예 동양사라는 학문 영역을 만들어 조선과 중국을 동양에 묶고 ‘국사’, ‘동양사’, ‘서양사’라는 분류를 지금껏

해 오고 있다.(임지현, 세계사 편지, 2010) 이와 같은 발상의 저변에는 서구 중심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는 국제화 내지 세계화의 흐름이 요동 치고 있는데 이는 미국식 생활 방식을 닮아 가려는 경향이다. 미국인들이 너무나 잘 살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저마다 미국식 생활 방식, 소위 미국식 문화를 꿈꾸고 있다. 세계 전체 인구의 5% 밖에 안 되는 미국 사람들이 지구 자원의 대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소비하고 있다. 그들이 이 지구상에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의 악순환을 부채질하고 있다. 비서구적인 문화를 원시적이고 후진적이라고 무시하면서 그것을 서구의 언어와 문화로 대체하는 것이 현대화와 진보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 익숙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단 한 가지 언어만을 사용하는 미래를 가장 이상적인 세계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정 언어의 지식을 가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면 클수록 그 언어는 더욱 습득할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세계적인 경제 혜택으로부터 추방당하는 위험에 처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식민 종주국에 특정 언어가 강화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또한 엘리트층은 교육을 통해 지배 언어를 습득하고 그 지식을 이용해서 그 지배 언어를 모르는 대다수의 국민에 대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한다. 조선시대의 한자와 한문이 그러했고, 또 오늘날 영어 사용 능력자가 그러한 엘리트층을 형성하는 사례를 통해서도 이러한 전체의 타당성이 입증된다. 외국어가 물밀 듯이 들어와 지배하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국어는 점점 죽어 가는 언어라고 진단할 수 있다. 특히 외래어나 외국어의 어휘 침식과 영어 공교육 강화 움직임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3. 지역성과 언어 문화

3.1. 표준어와 방언

지난 날 우리는 삶의 편의주의를 위해 모든 것을 표준화함으로써 편리함이라는 것을 손에 쥐었다. 대신 비표준의 것들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절멸의 운명을 맞이해야만 했다. 이 표준화라는 언어 정책의 함정 때문에 지구에 존재하는 종의 다양성이나 인류 문화의 다원성이 무너지는 불균형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이상규 2008:70). 언어의 표준화가 근대 국가주의 이념과 결합하면서 표준어가 지배 언어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변방의 방언은 주변 언어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표준어는 잘 분화되고 규범화된 형태이고 방언은 가치가 떨어지는 하위 변이형으로 잘못 이해해 왔다.¹⁾

표준어를 중심으로 하는 언어 소통의 획일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국어 정책의 결과, 방언이 마치 언어 분열의 주범인 것처럼 인식하고 이를 버려야 할 대상으로 여겨 온 것이다. 현대 서울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많은 방언들을 표준어와 차별해 온 것은 우리 언어 정책의 실패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자연스럽게 진화하는 언어 생태계를 교란시켜 멸종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휘를 절멸시키는 인위적인 언어 살해 행위이다.

우리 어문 정책의 틀은 결국 우리 민족의 언어 자산을 한정된 서울 지역과 교양인으로 묶

1) 오탁번의 『헛똑똑이의 시 읽기』(고려대 출판부, 2008)에서는 “신화적 상상력은 그 민족의 민족어가 지니고 있는 숨과 결에서만 찾아지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표준어가 ‘숨’이라면 방언은 그 빛깔을 살짝 숨기고 있는 ‘결’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 고유의 생활 방식이 깃들어 있는 언어의 숨결은 표준어로만 재단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이상규 2008:76).

어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방언은 표준어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비하하였고 또 공익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 결국 절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표준어를 쓰는 서울 사람들에게 의해 형성된 서울 중심 문화의 대중화를 지방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태어나고 성장한 고장의 토착 언어를 부정하거나 지역 문화의 우수성까지도 무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신중히 재고되어야 한다(이상규 2008:101).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문화와 언어를 단일화하고 획일화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다.

3.2. 표준어와 공통어

표준어란 나라에서 공적 규범어로 정해 쓰도록 하는 말이므로 공적으로 정한 언어라는 뜻의 공용어와 거의 동의어로 보아도 될 것이고 공통어는 공용어로 지정하는 것과 관계없이 어떤 언어 사회가 공통으로 널리 통용하는 현실어를 가리킨다(민현식 1999:315).

수도 인구 20만 시대의 소산물인 표준어가 지역적 측면에서 서울을 내세운 것은 반지역적이고 수도 중심적인 권위적 사고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계층적으로 교양인이란 도 대체 누구를 두고 한 말인가? 따라서 표준어의 기준에서 한 차원 나아가 한 민족 간에 두루 소통되는 공통성이 가장 많은 현대어라는 공통어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이상규 2008:105). 공통어란 한 나라의 어디서나 공통으로 두루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언어다. 곧 한민족 언어[겨레말]의 규범이 되고 잘 다듬어진 말인 표준어의 기반이 되는 공통어는 바로 민족 언어 내에서 방언 간의 공통성을 토대로 한 언어다. 지역 사회 성원 간에 공통성이 많은 방언, 보통 사람이 소통하는데 불편이 없는 말이 공통어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중심과 변두리의 언어가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상적인 관계로 발전될 때 한 민족, 한 언어가 더욱 풍요롭게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을 포괄하는 언어 정책의 역량이 갖추어질 때 진정으로 민족 언어의 통일이라는 소망이 실현될 것이다(이상규 2008:105). 현재와 같은 일방지향적인 국어 규범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공통성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함께 언어의 다원성을 보장할 수 있는 포괄적인 언어 정책의 실천이 필요하다.

3.3. 남북한 언어

북한에서는 1966년 이후 남한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상당한 이질성이 있는 「조선말규범집」을 마련하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일제 시대 조선어학회가 만든 통일안은 과학적인 언어 규범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또 당시의 언어 규범이 서울 지방의 소자산 계급의 말을 기초로 해서 근로 대중의 언어 현실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라의 체제를 갖추고 남한과의 경쟁적 대치 상태에서 무언가 독자성을 확립하자면 서울말을 바탕으로 하는 종래의 표준어, 곧 남한의 표준어로부터 독립된 다른 공통어를 가져야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북한 문화어 태동의 기본적인 발상이다. 북한에서는 「조선말 규범집」을 기초로 하여 지금까지 문화어 운동을 적극적으로 펴 온 결과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 현상이 심해졌다.

- (1) ㄱ. 해방 처녀로 말밥에 올랐는데 아직도 뜨개부부로 살고 있으니 이게 뭐네까?
 ㄴ. 그렇게 오구탕을 치면 어카자는 겁네까. 무슨 구멍수가 나겠지요.

북한 사람이 주고받은 위의 대화는 북한에서 문화어 운동이 적극적으로 이행되면서 어휘 면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생겼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다.²⁾

- (2) ㄱ. 수령, 반동분자, 밥공장, 식량보급소, 공훈배우 ...
- ㄴ. 부동산투기, 선거전, 반상회, 과외공부, 예비군 ...

북한에서 쓰는 (2)ㄱ의 어휘들은 남한 사람에게는 생소하다.

반면 남한에서 쓰고 있는 (2)ㄴ의 어휘들은 북한 사람에게는 생소하다. 이런 차이는 단편적인 어휘의 차이라기보다는 제도상의 차이가 어휘에 영향을 미친 결과이므로 어느 한 쪽 중심의 판단으로 동질성 회복을 꾀하려는 시도는 삼가야 할 것이다.

- (3) ㄱ. 동무 [북] : ① <로동계급의 혁명 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혁명 대오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을 친하게 이르는 말.
- ② 같이 어울리며 사귀는 사람.
- [남] : ① 늘 친하게 어울려 노는 사람.
- ② 뜻을 같이 하고 가깝게 지내는 벗.

- ㄴ. 부자 [북] : ① 낡은 사회에서 <착취와 협잡으로 굶어모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호화롭게 진탕 치며 살아가는 자.
- ② <자기 노력으로 살림을 늘여 매우 넉넉하고 잘 살게 된 형편>을 비겨 이르는 말.
- [남] : 살림이 넉넉한 사람.

위의 예는 낱말의 형태는 동일하지만 의미상 남과 북이 달리 쓰는 말이다. 남한에서는 사전의 뜻풀이를 되도록 어휘 내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 어휘의 역사적, 사회적 요인을 중요하게 다루고 어휘 내적인 의미를 부수적으로 다루고 있다.

문화어가 생긴 이후에 이와 같은 이질화 현상이 남북한 사이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³⁾ 정치성이 강한 어휘일수록 뜻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언어적, 방언적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제도상의 문제나 이념상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긴장 관계로 버터온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를, 표준어의 사생아 또는 인위적으로 왜곡한 표준어의 변종쯤으로 인식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표준어는 외세의 언어에 찌들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주체적인 민족어의 수치로 받아들이는, 남과 북의

2) (1)ㄱ에서 ‘해방처녀’는 ‘미혼모’를, ‘말밥’은 ‘구설수’를, ‘뜨개부부’는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를 뜻하는 말로써 이 대화는 <빨리 결혼식을 올리자>는 뜻이다. 그리고 (1)ㄴ에서 ‘오구탕’은 ‘야단법석’을, ‘구명수’는 ‘돌과구’를 뜻하는 말로써 <급히 서둘러 있느냐?>는 뜻의 (1)ㄱ에 답하는 내용이다.

3) 북한에서는 문화어에 아래와 같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남성우 외 1990:26).

- ① 문화어는 사회주의적 민족어의 전형이다. ② 노동 계급의 계급적 지향과 생활 감정에 맞는 언어이다. ③ 전체 인민이 규범으로 풍부하게 발전시킨 민족어이다. ④ 근로 인민 대중이 목적의식적으로 건설한, 혁명적으로 세련되고 문화적으로 다듬어진 언어이다. ⑤ 당과 수령의 주체적 언어 사상을 구현한 언어이다. ⑥ 혁명의 붉은 수도 평양을 중심지로 하여 발달한 가장 아름다운 언어이다.

차이가 나는 이 언어관의 긴장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를 오히려 공통 민족어의 풍부화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3.4. 영어 공용화와 외래어 표기법

권력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매혹시키고 사로잡아 포로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개는 언어다. 총탄은 육신을 종속시키는 수단이고 언어는 정신적 종속 수단이다(이상규 2008:17). 외국어가 물밑 듯이 들어와 지배하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국어는 점점 죽어가는 언어라고 진단할 수 있다. 특히 외래어와 외국어의 어휘 침식(lexical erosion)과 영어 공교육 강화 움직임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외래어 표기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1985년 12월 28일에 문교부 고시 제85-11호로 현행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하여 원어 발음 중시와 국어 특성 중시라는 두 가지 원리를 제시했다.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므로 외국어일 때의 발음을 가능한 살려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① 원형외래어 : 원어의 음을 유지하거나 약간만 변형되고 뜻만은 원어 뜻을 대체로 유지하는 외래어.

(예) 아이스하키, 라디오, 뉴스 ...

② 한제외래어

ㄱ. 변형외래어: 기존 외래어가 발음, 의미면에서 오용되면서 새로 변형되어 통용

(예) 노다지, 맨션, 콘도 ...

ㄴ. 신조(자생)외래어: 외래어를 재료로 한국인끼리만 통용하도록 한국인이 새로 만든 외래어

(예) 사인북(sign book), 오버센스(oversense), 백넘버(back number) ...

(민현식 1999:359 ~ 362)

현재의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어를 원형외래어 표기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점차 고유어를 밀쳐낸 빈자리에 한글로 표음된 외국어가 가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전문용어를 원음이나 학명 그대로 수입하여 이른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원음을 그대로 표기하여 국어의 일부로 무조건 받아들인다면 글자의 풀은 한글이지만 그 어휘의 본체는 전부 외국어이다. 이런 처사는 우리 스스로가 모국어의 절멸을 자초하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이상규 2008:219).

그간 국어 외래어 연구에서는 원형외래어를 긍정시키고 변형외래어나 신조외래어 같은 한자외래어를 오용 차원에서 부정시하였다. 그러나 한제외래어는 외래어의 자생적 기능을 보여주므로 이들을 국어 어휘부에서 부정시킬 필요가 없고 오히려 긍정적, 창조적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민현식 1999:361).

한제외래어는 현대에는 영미계 외래어에만 나타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한자어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가령 중국 한자와 한자어 외에 우리 조상들은 한국에서만 쓰는 한국 한자와 한국 한자어를 만들었음은 주지의 사실로, 한자를 이용한 자주적인 어휘 창조의 방법이다.

(5) ① 한제 한자 : 嫗, 太, 畚, 甁(돌), 碣(격) ...

② 한제 한자어 : 田畚, 居間, 感氣, 道令, 四柱入字 ...

천년 이상의 중국어아 한문의 영향 아래 있었던 우리말과 글은 중국말을 그대로 원음주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식 발음으로 전환시켜 받아들인 세종대왕의 슬기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았다. 우리말과 글에서 충당할 수 없는 어휘 대신 한자를 수용하되 발음은 우리식으로 전환하여 사용함으로써 모어의 생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21세기에는 최소한 세계 언어의 절반 정도가 절멸해 버릴 수 있다고 한다. 무슨 일 때문에 이 다양한 목소리가 침묵하게 되는 걸까? 지난 세기 서방 유럽의 몇몇 국가의 언어가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유기니, 아메리카에 살던 수많은 원주민들의 토착 언어를 포식했다. 언어의 식민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영어의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국가와 민족 그리고 부족들에 이르기까지 영어가 지배할 기운이 보인다.

3.5. 우리말의 오용 사례

- (6) 'Energy 0(zero) day'
에너지 절약을 시행하기 위한 명칭
- (7) 도전 WBC 챔피언 되기
Walk(걷기), Bus(버스), Cycle(자전거)
- (8) 에너지 3H 프로젝트
어려운 세대(home)에게 에너지를 나누어 줌으로써 행복(happiness)을 추구하고 경제난을 희망(hope)으로 극복하자.
- (9) I - BEST 운동
I(나부터), Basic(기초적이고), Easy(쉽고), Small(작고 간단한 것을), Today(오늘)부터 실천한다.
- (10) 세바퀴<세상을 바꾸는 퀴즈>
ㄱ. 열공<열심히 공부하기>
ㄴ.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
ㄷ. 개빙고<개강을 빙자한 고고미팅>
- (11) 게임병(game兵)<컴퓨터 게임에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병사>
ㄱ. 건숍(gun-shop)<서바이벌 게임용 총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상점>
ㄴ. 끌녀(女)<매력적으로 끌리는 여자>
ㄷ. 몸테크(technology)<몸을 가꾸고 건강을 지키는 일>
ㄹ. 혈공(血工)<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함>
- (12) 리사이클(재활용품)→업사이클(그것을 up 시킨다)
- (13) 힘내自, 중소氣up, 공공구매路
- (14) 時時 call call 걸어 주세요.
- (15) 毛자라다. 多있다. 시원愛
- (16) 충청도로 오셔 you, 즐거워 流.
- (17)

말할이	들을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녕, X 새끼야 	언제 봤다고 안녕이나. X 새끼야. 닥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신 새끼, X 가리에 걸레를 물었구나. 	<p>아, X나 짱나. 뭐 이런 X 새끼가 다 있어? 여기 욕배틀 아닌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 참 짱난다. 	<p>어떻게 하면 욕을 그렇게 잘하냐? X 새야.</p>

4. 마무리

거대한 사회 체제로부터 자신의 언어를 포기하고 지배언어를 습득할 것을 강요받을 때 개인은 그것에 저항하지 못하고 힘없이 항복하게 된다. 다시 생존을 이유로 온 국민이 「방언>표준어>영어」로 상승하려는 꿈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자국어가 소멸된 나라치고 멸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효율적인 언어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이상규(2008), 『등지 밖의 언어』, 생각의 나무.
전정례(2000), 『언어와 문화』, 박이정.
민현식(1999), 『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남성우·정재영(1990), 『북한의 언어 생활』, 고려원.
임지현(2010), 『세계사 편지』, 휴머니스트.
하치근(1996), 『남북한 문법 비교 연구』, 한국문화사.
하치근 외(2009), 『주변의 탐색』, 박이정.

지역성과 언어 문화

조일규(평택대)

1. 건전한 개성은 그 사람이 가진 교양의 다양함과 조화로움이 바탕을 이룰 때 가능하다. 이 건전한 사회는 그 사회가 가진 문화의 다양함과 조화로움이 바탕을 이룰 때 가능하다. 발표자의 이러한 인식은 매우 타당하다.
2. 그리고 우리가 처한 현실 즉 지역성이 가져야 할 문화의 다양함과 조화로움은 사라지고 대신 편리함이나 경제적 이익만을 쫓아 문화가 획일화 되고 중앙 지배적 방식으로 흘러, 나라 안으로부터는 지역성이 소멸될 위기를 맞고 나라 밖으로부터는 우리말이 점점 죽어감으로써 우리 민족이 소멸될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발표자의 진단에 공감한다.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 2000 여년의 유랑 생활에서도 제 민족의 말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다시 민족을 일으켜 세운 것과 이와는 다르게 만주족은 제 민족의 말을 잃어버림으로써 민족마저도 사라지게 된 것을 잘 알고 있다.
3. 발표자는 우리가 처한 현실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을 언어 문화적 측면에서 찾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지역성의 다양함과 조화로움을 위하여 표준어와 차별되어 온 방언을 바르게 살려 쓸 수 있는 언어 정책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과
둘은 우리 민족의 영원성을 위하여 우리말을 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지적이다. 후학들에게 당부의 말씀으로 들린다.
4. 발표자는 3. 하나를 위하여

“우리 어문 정책의 틀은 결국 우리 민족의 언어 자산을 한정된 서울 지역과 교양인으로 묶어 뭉으로써,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방언은 표준어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비하하였고 또 공익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 결국 절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표준어를 쓰는 서울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서울 중심 문화의 대중화를 지방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태어나고 성장한 고장의 토착 언어를 부정하거나 지역 문화의 우수성까지도 무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신중히 재고되어야 한다(이상규 2008:101).”는 이상규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표준어의 기준에서 한 차원 나아가 한 민족 간에 두루 소통되는 공통성이 가장 많은 현대어라는 공통어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공통어의 개념을 확대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사실 이상규(2008:101)에서 지적한 방언의 부정적인 인식은 ‘우리 민족의 언어 자산을 한정된 서울 지역과 교양인으로 묶어 뭉으로써’ 생겼다고 보든 사투리에 대한 표준어 교육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어에는 바다와 관련해서는 부산 방언이 많고 산과 관련해서는 강원도나 경남 등 산악 지대의 방언이 많다. 그런데도 방언은 표준어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렸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은 사투리는

거의가 서울이 아닌 지역 방언이기 때문이다. 표준어 교육에서 ‘이것이 표준어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준어에 대한 사투리는 이것이다’라고 하여 표준어 교육을 사투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문제라 여겨진다.

이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로 ‘어떻게 공통어의 개념을 확대할 것인지’ 더 많은 고민이 요구된다.

5. 발표자는 3. 둘을 위하여 국어 순화와 외래어를 쓸 경우는 우리식 발음으로 바뀐 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우 타당한 것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6.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너무 크고 무겁다는 것을 느끼면서 발표된 것들이 우리 후학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들이기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민다

조선 8도 설정과 방언의 상관성

방운규(평택대)

차 례

1. 머리말
 2. 조선전기 이전의 지방행정조직
 3. 옛지도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산줄기
 4. 방언과 방언구획
 5. 조선 8도의 설정과 방언의 상관성
 6. 맺음말
- 참고문헌

1. 머리말

조선 8도는 태종 13년(1413년)에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설정된 것이다. 지방행정조직으로서 도(道)는 고려시대에 이미 시행되었다. 지방행정체제의 성격은 시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행정구역의 위치와 크기는 변화의 차이가 크지 않다. 조선 8도의 체제는 6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이 도제(道制)가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못 의미심장한 일이다.

조선 8도를 설정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다만 당시에 정사를 간략하게 기술한 『조선왕조실록』에 이에 관한 간단한 기록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여 8도 설정의 근거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에 관련한 여러 가지 문헌 내용과 상황들을 종합하여 추정해 보는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우선 8도가 백두대간의 산줄기와 외형상으로 합치되고, 이 큰 산줄기에 따라 형성된 방언이 8도 방언과 일치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러한 모습은 8도의 설정이 지리적인 요소와 문화적인 요소 두 가지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조선 8도는 인위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자연의 순리에 따른 결정이 아니가 하는 추정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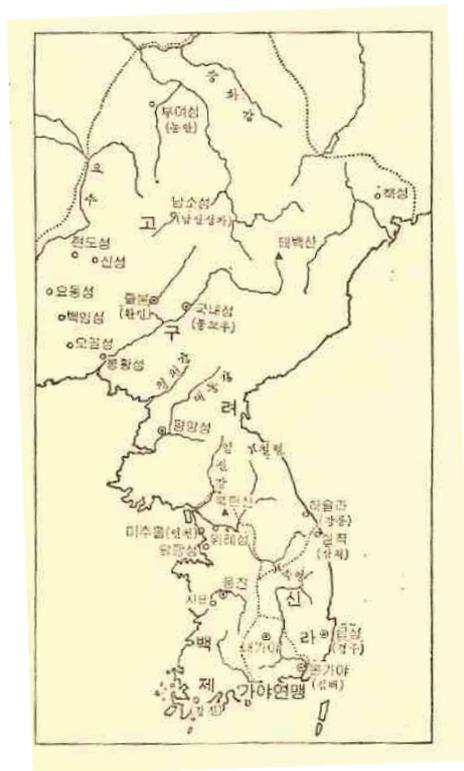
이 연구의 목적은 조선 8도의 설정과 방언의 상관성을 밝혀내는 데 있다. 여기에서는 백두대간의 산줄기와 그에 따라 형성된 방언이 8도 방언과 일치한다는 점을 주시하면서 논의를 펼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지방행정조직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모했는가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우리 나라의 산줄기가 옛지도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4장에서는 방언과 방언구획을 살펴보고 방언과 지리적 요소와의 상관성을 알아본다. 5장에서는 앞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 8도 설정

과 방언의 상관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사료는 한국고전종합DB와 해당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을 검색하여 얻은 것이다.

2. 조선전기 이전의 지방행정조직

2.1. 삼국시대

고대국가체제로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정립한 시기는 대체로 1-4세기 무렵이었다.¹⁾ 이 가운데 고구려는 한수 이북에서 중국 만주 지방까지 아우르는 곳에 대국가를 형성하였으며, 백제는 한강을 경계로 그 서남쪽인 충청도와 전라도에 자리를 잡았으며, 신라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경상도 일대를 영토로 삼았다. 삼국의 정립을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삼국의 정립, 하현강(1991)

2.2. 통일신라시대

신라는 삼국 중에서 가장 후진국이였다. 그럼에도 씨족들의 확고한 단결을 바탕으로 국가의 체제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러한 힘으로 고구려와 백제에 공세를 취하여 통일전쟁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²⁾ 7세기 후반에 신라는 당과 연합전선을 펼쳐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1) 하현강(1991: 45)

2) 하현강, 앞의 책, 47쪽.

멸망시켰다.

당의 한반도 진출야욕과 고구려의 후발인 발해의 건국으로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아니었지만, 신라는 통일 이전보다 국토를 더욱 확장하여 정치체제를 정비하여 나갔다. 신라가 통일 국가로서 안정된 정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한 것은 지방행정조직이었다. 신라는 지방의 최고 행정단위인 9주를 설치하였다. 신라의 옛 땅에는 상주·양주·강주를, 고구려의 옛 땅에는 한주·삭주·명주를, 백제의 옛 땅에는 웅주·전주·무주 등 9주를 설치하였다.



<그림 2> 통일신라의 9주, 하현강(1991)

이들 지방행정구역을 오늘날의 지방행정구역과 비교하면, 한주는 황해도와 경기도 일부에, 삭주는 강원도 영서지방에, 웅주는 충청남도에, 전주는 전라북도에, 무주는 전라남도에, 명주는 강원도 영동지방과 경북지방 일부에, 상주는 경상북도에, 강주는 전라남북도 일부와 경상남북도 일부에, 양주는 경상남도에 각각 해당한다.

2.3. 고려시대

2.3.1. 고려 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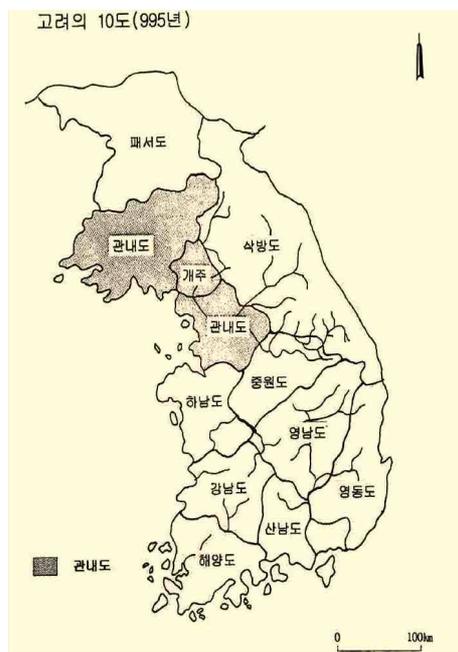
태조 왕건은 혼란스런 후삼국을 통일하여 고려를 세웠다. 통일신라에 이은 새로운 통일왕조가 탄생한 것이다. 개국 초에는 기존의 지방 호족 세력이 광범위하게 정치에 참여하여 개방적인 국가운영체제로 발전할 수 있었다.

고려왕조의 새로운 정치체제는 성종(982-997년) 때에 거의 마련되었다. 지방행정조직은 983년(성종 2년) 전국의 요지에 12목을 설치하여 지방관을 파견한 것이 그 시초였다. 고려

건국 이래 지방은 그 지방호족의 세력 아래 있어서 중앙의 행정력이 직접 침투할 수가 없었다. 그 뒤 점차 왕권이 강화되면서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12목의 설치로 지방조직을 완전히 장악하자 성종은 995년에 전국을 10개 지역으로 나누는 10도제를 실시하였다. 즉 전국을 패서도·관내도·중원도·하남도·강남도·해양도·삭방도·영남도·산남도·영동도 등으로 나누었다. 이것이 우리 나라 도제의 시초였다.

이들 이름 대부분은 행정명칭이 아닌 지형과 지리적인 요소에 따라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관내도(關內道)는 당나라의 '관내도'를 원용한 것으로 보이나,³⁾ 고려시대의 국방의 요충지였던 '철령'(강원도 회양과 함경남도 안변 사이에 있는 험한 고개)의 안쪽에 있었던 지역으로 이 명칭에 지리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원도(中原道)는 고려 중앙부(충청북도)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것은 방위적 특성이 포함된 이름으로 볼 수 있다. 하남도(河南道)는 물의 남쪽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며, 강남도(江南道)는 금강 아래인 지역을 뜻하는 이름이며, 해양도(海陽道)는 바다와 햇볕과 관련된 이름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영남도(嶺南道)는 조령과 죽령과 같은 큰 고갯길의 남쪽에 있는 지역을 뜻하는 이름으로, 영동도(嶺東道)는 그 동쪽에 있는 지역을 뜻하는 이름으로 각각 해석된다. 산남도(山南道)는 지리산 남쪽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해석된다. 패서도(溟西道)는 대동강⁴⁾의 서쪽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며, 삭방도(朔方道)는 '삭방'의 자의로 보아 북녘을 가리킨다.



<그림 3> 고려의 십도, 범선규(2003)

고려시대의 10도를 오늘날과 비교하면, 패서도는 평안남도에, 관내도는 황해도와 경기도 일부가 축소된 것에, 중원도는 충청북도에, 하남도는 충청남도에, 강남도는 전라북도에, 해양도는 전라남도에 각각 해당한다. 삭방도는 확대된 강원도에, 영남도는 경상북도에, 산남도

3) 범선규(2003: 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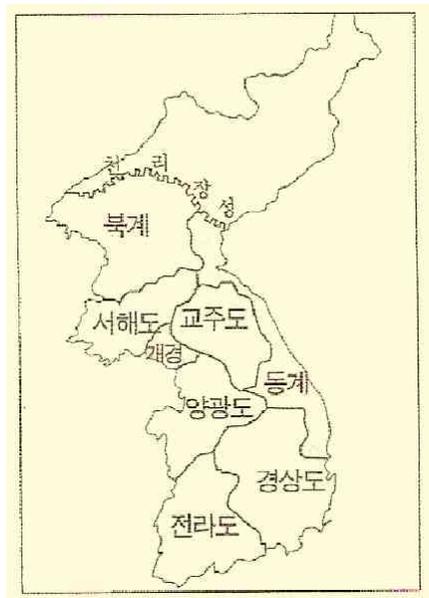
4) 패수(溟水)는 오늘날의 대동강을 말하는데, 이는 고구려 때의 이름이다. 강서영 외 공역(2001: 277).

는 진주를 중심으로 한 경상남도 일부에, 영동도는 경북 일부와 경상남도에 각각 해당한다.

2.3.2. 고려 후기

고려 전기의 10도제는 행정구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각 지역에 도체찰사가 파견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10도제는 일종의 순찰구획이었을 가능성이 높다.⁵⁾

그러던 것이 고려 제8대 왕인 현종(재위:1009년-1031년)에 이르러 10도제는 5도 양계로 바뀌었다. 5도는 일반 행정구역이며 북계와 동계는 그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군사적 행정구역에 해당한다. 5도는 서해도(西海道)·양광도(楊廣道)·전라도(全羅道)·교주도(交州道)·경상도(慶尙道) 등이며, 양계는 북계(北界)와 동계(東界)이다. 서해도는 황해도에, 양광도는 경기도 일부와 충청남북도에, 전라도는 전라남북도에, 교주도는 강원도 영서와 경기도 일부에, 경상도는 경상남북도와 충청도·전라북도 일부에 각각 해당한다. 북계는 평안남도에, 동계는 강원도 영동과 경북 해안 일부에 각각 해당한다.



<그림 4> 고려의 5도 양계, 박천옥(1998)

고려 전기 10도의 이름이 지형과 지리적인 요소들을 바탕으로 지어진 이름인 반면에, 고려 후기의 5도 양계의 이름은 해당 지역의 행정명칭과 지리·방위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은 것으로 보인다. 양광도(楊廣道)는 양주(楊州)와 광주(廣州)를 합쳐 만든 이름이며, 교주도(交州道)는 오늘날 춘천의 옛 이름이다. 전라도(全羅道)는 진주와 나주를 합쳐 만든 이름이며, 경상도(慶尙道)는 경주와 상주를 합쳐 만든 이름으로 이들 이름은 해당 지역의 고유명칭으로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서해도(西海道)는 바다의 서쪽을 뜻하는 행정명칭으로 지리적 특성이 있다. 북계는 국경선의 북쪽 경계를, 동계는 국경선의 동쪽 경계를 가리키므로 방위적 특성이 있다.

5) 박영규(1996: 121).

2.4.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조직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자 새 국가체제가 형성되었다. 뒤이어 조선 제3대 왕으로 오른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과단성 있는 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러한 태종의 노력으로 새 왕조의 국가기반은 안정되었으며 국력도 크게 신장되었다.⁶⁾

태종 13년(1413년)에 지방행정구역을 8도로 설정하였는데, 8도는 경기도·강원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황해도·평안도·함경도 등이다. 이 8도제는 고종 33년(1896년)에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8도 가운데 5개 도가 남·북도로 나누어진 뒤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⁷⁾



<그림 5> 조선 8도, 박천옥(1998)

조선 8도의 명칭은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고려시대와는 달리 해당 지역의 행정명칭으로 이루어졌다. 경기도(京畿道)는 서울의 주변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며, 강원도(江原道)는 '강릉'과 '원주' 두 곳의 행정명칭에서 각각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행정명칭이다. 충청도(忠淸道)는 '충주'와 '청주'의 이름을, 전라도(全羅道)는 '전주'와 '나주'의 이름을, 경상도(慶尙道)는 '경주'와 '상주'의 이름을 각각 따서 만든 것이다. 황해도(黃海道)는 '황주'와 '해주'의 이름을, 평안도는 '평양'과 '안주'의 이름을, 함경도(咸鏡道)는 '함흥'과 '경성'의 이름을 각각 따서 만들었다.

위의 조선 8도도에서 나타난 특이한 점은 이들 8도는 그 지역의 방언권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경기방언을, 충청도는 충청방언을, 전라도는 전라방언을, 경상도는 경상방언을, 황해도는 황해방언을, 강원도는 강원방언을, 평안도는 평안방언을, 함경도는 함경

6) 하현강, 앞의 책, 188-189쪽.

7) 북한은 1954년에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하였는데, 평안북도를 반으로 나누어 그 동북쪽을 자강도로, 함경북도를 반으로 나누어 그 서남쪽을 양강도로, 황해도를 반으로 나누어 황해남도과 황해북도로 각각 만들었다.

방언을 각각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조선 8도는 태종대에 전격적으로 구획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작업은 이미 건국 초부터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을 관련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태조 3년(1394년)에 경기도를 좌·우도로 나누고 양광도·강릉교주도·서해도를 각각 개칭하였다.

도평의사사에서 경기도 각 고을의 쇠하고 성한 것과 넓고 좁은 것에 따라 좌우도로 고치자고 칭하니 양광도(楊廣道)를 충청도로, 강릉교주도(江陵交州道)를 강원도로 고치고, 서해도(西海道)를 풍해도(豊海道)로 고치었다. -한국고전종합DB, 『국역 태조실록』 태조 3년(1394년) 6월 23일-

한편, 태종 7년(1407년)에는 경상도를 좌·우도로 나누기도 하였다.

경상도를 좌·우도로 나누다. 낙동(洛東), 낙서(洛西)를 경계로 삼았다.
-한국고전종합DB, 『국역 태종실록』 태종 7년(1407년) 9월 15일-

태종 13년(1413년) 9월에는 도경계 조정에 관련한 일이 있었다. 당시 경상도에 소속된 일부 지역을 충청도에 이속시켰다. 일종의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경상도 옥주(沃州)에서 보고하였기 때문에 황간(黃澗)·영동(永同)·청산(靑山)을 충청도에 옮겨 예속시키도록 하였다. -한국고전종합DB, 『국역 태종실록』 태종 13년(1413년) 9월 10일-

경상도에 편입되었던 옥주·황간·영동·청산 등지는 오늘날 충북 영동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을 충청도에 이속시킨 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 없으나, 이들 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면 그 까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옥주(지금의 충북 옥천)·황간·영동·청산 등은 백두대간이 뻗어 나가는 지역에 인접하고 있다. 이곳은 태백산(1560m)-소백산(1394m)-월악산(1162m)-조령산(1017m)-속리산(1058m)-황악산(1114m)-덕유산(1614m) 등의 높은 산들로 이어진 산악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이 큰 산줄기 왼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그 오른쪽인 경상도 지역과는 지리적으로 단절된 곳이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으로 볼 때 당시에 경상도에서 이 지역을 통치하기란 지리적인 불편함과 방언의 차이 등 여러 면에서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까닭으로 경상도에 포함된 이들 지역을 충청도에 예속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일련의 도 설정 조정 작업을 마치고 태종 13년(1413년) 10월에 지방행정구역의 명칭을 개정하였다.

각도 각 고을의 이름을 고쳤다. 임금이 하륜(河崙)에게 이르기를, "전주(全州)를 이제 완산부(完山府)라고 고치고서도 오히려 '전라도'라고 칭하고, 경주(慶州)를 이제 계림부(鷄林府)라고 고치고서도 오히려 '경상도'라고 칭하니, 고치는 것이 마땅하겠다."하니, 하윤이 말하기를, "유독 이 곳만이 아니라, 동북면(東北面)·서북면(西北面)도 또한 이름을 고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옳도다."하였다. -한국고전종합DB, 『국역 태종실록』 태종 13년(1413년) 10월 15일-

지금까지 각 시대별 지방행정조직을 살펴보았는데,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행정구역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고려 후기에 전라도 일부가 경상도에 편입되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지리적 조건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둘째, 지방행정구역명칭은 지리·방위적 특성을 고려한 이름과 지역의 고유한 행정명칭을 고려한 이름이 있다. 고려의 10도 명칭이 전자에 해당하며, 조선 8도의 명칭이 후자에 해당한다(경기도 제외).

셋째, 방언권을 고려하여 행정구역을 설정하였다.

넷째, 시대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할 경우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을 통합하기 보다는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을 통합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동서형 통합보다는 남북형 통합이 우세하였다. 이에 속하는 예로 경상도(영남도+영동도), 전라도(강남도+해양도), 양광도(관내도+하남도) 등이 있다.

3. 옛지도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산줄기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대륙에서 남으로 길게 돌출되어 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한반도의 면적은 22.1만km²이며, 이 중에서 산이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산은 북쪽의 백두산(2,750m)을 최고로 하여 여기에 수많은 산들로 이어져 내려 하나의 큰 산줄기를 형성한다. 이 산줄기(백두대간)를 중심으로 그 동쪽으로는 산이 높고, 그 서쪽으로는 산이 낮은, 이른바 동고서저형 산세를 보인다.

우리 민족은 아득한 먼 옛날부터 이 땅에 살아오고 있다. 때로는 산과 강이 우리에게 고난과 좌절을 안겨 주기도 하였지만, 이것을 지혜롭게 극복하였다. 이들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삶을 영위하며 장구한 민족 역사를 이뤄 왔다. 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나라를 세워 통치하였다. 여러 부족국가가 등장하고 이들이 통합되고 통일되어 중앙집권적 국가가 탄생하였다. 강력한 통치력을 갖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에서 필요한 것이 지방행정조직이었다. 이것은 국가의 통치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지방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우선 실시해야 할 것은 행정구역을 설정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산지 국가에서 행정구역 설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구역 설정에 있어서 산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국가 통치에서 산을 매우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산줄기를 무리하게 넘어서 행정구역을 설정하지 않으려 했다.

이 장에서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산지 인식체계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옛지도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산경표』와 「대동여지도」를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⁸⁾

3.1. 『산경표』에서의 산지 인식체계⁹⁾

『산경표』의 '산경(山經)'은 산의 경과, 즉 '산의 흐름'을 말한다. 우리 나라의 산이 어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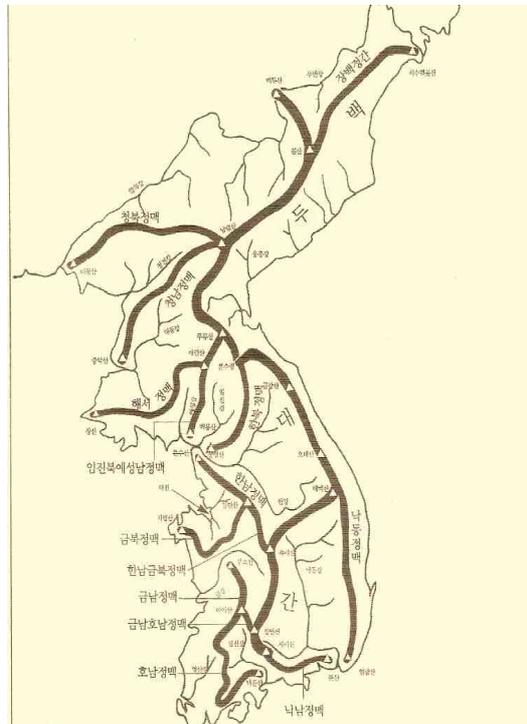
8) 이 두 문헌은 모두 조선 8도가 설정된 1413년 이후에 편찬·간행된 것으로 8도 설정과 시차(時差)가 있다. 그러나 이들 문헌에 나타난 지리관은 선대 조상들의 국토지리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므로 이 논의에 있어서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9) 이에 대한 서술은 현진상(2000)의 논의를 따른 것임.

서 시작하여 어디로 흐르다가 어디에서 끝나는가를 도표로 나타낸 것으로 책이름이기도 하다. 『산경표』에서는 각 산줄기에 명칭을 부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 국토의 산줄기를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오늘날 산줄기 체계 분류와 명칭의 변천 과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¹⁰⁾

『산경표』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 온 태백산맥·소백산맥·장백산맥¹¹⁾ 등과는 전혀 다른 백두대간, 장백정간, 낙남정맥과 같은 산줄기 이름을 사용했다. 여기에서는 백두산으로부터 지리산에 이르는 기동줄기를 백두대간이라 하고 이 기동줄기로부터 뻗어난 결줄기를 정간·정맥으로 분류하고 이름을 붙여 우리 나라의 산줄기를 1대간-1정간(백두대간의 오른쪽 산줄기)-13정맥(백두대간의 왼쪽 산줄기)으로 체계화하였으며, 크고 작은 갈래의 산이름들을 일일이 나열하여 도표로 만들었다. 『산경표』에 나타난 산줄기를 순서대로 나타내면, 백두대간, 장백정간, 청북정맥, 청남정맥, 해서정맥, 임진북예성남정맥, 한북정맥, 낙동정맥, 한남금북정맥, 한남정맥, 금북정맥, 금남호남정맥, 금남정맥, 호남정맥, 낙남정맥이 된다.

『산경표』에서는 편집체제를 마치 족보와 같이 하였는데 백두산을 1세 할아버지로 친다면 지리산은 123세 손이며 가장 길게 뻗어나간 줄기의 마지막 자손은 전남 광양의 백운산으로서 171세 손이 된다.



<그림 6> 『산경표』에서의 우리 나라 산줄기, 현진상(2000)

1800년 경에 누군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산경표』의 서문을 보면 이 책의 간행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¹²⁾

10) 박 문(1996: 65).

11) 우리가 지금까지 '산맥'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산맥명칭은 1903년 일본인 지질학자 고토분지로가 발표한 <조선의 산악론>에 기초하여 일본인 지리학자 야스쇼에이가 집필한 「한국지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산을 지질구조로 분류했다. 현진상(2000: 29).

우리 나라(東方)의 지리지를 살펴보면 산을 논한 것이 많지만 심히 산만하고 계통이 서 있지 않음을 지적하게 된다. 오직 신경준이 지은 『여지고(輿地考)』의 산경(山經)만이 그 줄기(幹)와 갈래(派)의 내력을 제대로 나타내고 있다. 높이 솟아 어느 산을 이루고, 비껴 달리다가 어느 고개에 이르며, 굽이돌아 어느 고을을 둘러싸는지를 상세히 신지 않은 것이 없기에 이야말로 산의 근원을 밝혀 보인 표라 할 만하다.

이 『산경표』는 산경을 바탕으로 삼고 옆에 이수(里數)를 부기하고 있어 이를 펼치면 모든 구역의 경계를 마치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듯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 『산경표』는 그 원전이 되는 산경에 금상첨화(錦花)일 뿐만 아니라 실로 지리 연구가의 지침서(指南)가 될 만하다. -조선광문회본 『산경표』 13)서문-

이러한 서문의 내용을 보면 『산경표』는 산의 형세는 물론이거니와 행정구역의 경계, 지역 간의 거리 등을 알기 쉽게 입체적으로 만든 인문지리학적인 근대지도라고 할 수 있다.

『산경표』에서 산줄기를 이해하는 근본적인 입장은 산줄기는 어떤 경우에도 물을 건너지 않는다는 것, 즉 산줄기는 물줄기로 하여 한 번도 잘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을 만나면 산은 끝나며 산이 끝나는 곳에서 물이 만난다는 우리 선조들의 지리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이 원리에 입각하여 산과 강을 논하고, 지도에도 산은 산대로 이어 그리고 물은 물대로 이어 그었던 것이다.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하고, 물은 산을 넘지 못한다는 자연의 이치를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산경원리인식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닌, 누구나 느끼고 인지하는 지리심성(地理心性)에 바탕을 둔 지극한 생활상식이었다. 삼국시대 이래 그 분할 변천이 이들 산줄기와 무관하지 않다. 문화역사지리 전반에 걸쳐 근원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¹⁴⁾

3.2.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산지 인식 체계¹⁵⁾

「대동여지도」는 고산자 김정호(1804-1866)가 1861에 제작한 우리 나라 대축척 지도이다. 이것은 목판본으로 제작된 것으로 축척은 약 1/160,000이다. 일반지도에서는 지형표시에서 개개의 산지나 평지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나 「대동여지도」에서는 개개의 산보다 산줄기를 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2) 『산경표』에 영향을 준 신경준(1712-1782)의 『산수고(山水考)』에서는 산수의 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하나의 근본에서 만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은 산(山)이요, 만가지 다른 것이 모여서 하나로 합하는 것은 물(水)이다. (우리나라) 山水는 열둘로 나타낼 수 있으니, (산은) 백두산으로부터 12산으로 나누어지며, 12산은 나뉘어 八路(팔도)가 된다. 팔로의 여러 물은 합하여 12수가 되고, 12수는 합하여 바다가 된다. 흐름과 솟음의 형세와 나누어지고 합함의 묘함을 여기에서 가히 볼 수 있다. -양보경(1996: 24)에서 재인용-

13) 조선광문회는 육당 최남선이 주축이 되어 우리 고전의 보존과 보급을 통해 민족문화를 선명할 목적으로 1910년 12월에 만들어진 단체이다. 이 단체가 최성우 소장본을 바탕으로 1913년 2월 활자본으로 간행한 『산경표』를 조선광문회본 『산경표』라 부른다. 현진상(2000: 14).

14) 산림청(1996: 332-337).

15) <Daum 백과> 참조.



<지도 1> 「대동여지도」 전도, 현진상(2000)

「대동여지도」에서는 산줄기를 단순한 선으로만 표시한 것이 아니고 선의 넓고 좁음의 형태를 통하여 산줄기와 산의 모양·크기 및 분수령(分水嶺)과 하천유역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한 일종의 산악투영도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지도에서는 이전의 지도와는 다르게 지도 표시가 매우 자세하다. 교통로 표시, 방위 표시, 지역 간의 내부 연결도로 등을 상세히 표시하였다.

『산경표』에서는 우리 나라의 산줄기를 1개 대간, 1개 정간, 13개 정맥으로 체계화했는데, 이러한 산줄기 개념은 「대동여지도」에 잘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선의 굵기 차이로 산맥의 규모를 표시했는데 제일 굵은 것은 대간, 2번째는 정맥, 3번째는 지맥, 기타는 골짜기를 이루는 작은 산줄기 등으로 나타냈다. 정맥과 정간의 차이는 산줄기를 따라 큰 강이 동반되느냐에 따라 강이 있으면 정맥, 없으면 정간이 되는데 유일한 정간은 장백정간이다.

「대동여지도」는 주체적인 국토관을 기반으로 하여 전통적인 기법으로 제작된 지도 중에서 완성도가 가장 높은 지도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대동여지도」의 산줄기가 『산경표』의 산줄기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것은 오랫동안 형성된 민족의 국토지리관을 존중하려는 김정호의 지리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4. 방언과 방언구획

방언¹⁶⁾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힘들다. 언어학과 방언학의 테두리에서 볼 때 이것은 한 언어를 형성하고 있는 하위단위로서의 언어체계 전반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한국어를 예를 들면 한국어를 이루고 있는 각 지역의 말 하나하나를, 즉 그 지역의 언어체계 전부를 방언이라고 한다.

16) '방언(方言)'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보아 원래 중국인들이 중원(中原)이라고 자칭했던 중국의 주위, 즉 東方, 西方, 南方, 北方 등에 거주하고 있었던 漢民族이 아닌 異民族의 언어, 즉 '地方言語'의 준말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언학회(1991: 9).

17) 이익섭(1984: 12).

언어는 하나의 생명체여서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면서 분열한다. 분열의 작용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형과 교통에 따른 약간의 복잡한 양상을 지닌 채 대지역에서 소지역으로, 소지역에서 또다시 소지역으로 분열을 거듭하게 되면 방언의 수는 시간과 정비례해서 늘어가게 된다.¹⁸⁾

지역 언어인 방언은 그 지역 구성원들이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한다. 방언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상대의 말을 이해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해당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한다. 충청도 문화와 경상도 문화가 다른 까닭은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이 방언은 어느 한 지역의 정체성을 띠는 데 한 몫을 한다. 방언이 소중한 까닭은 이처럼 문화의 다양성을 만들어 준다는 데 있다.

한 언어 안에서의 방언의 분화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다. 하나는 지역이 다르므로 방언이 발생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계층, 성별, 세대차와 같은 사회적 요인으로 방언이 갈리는 경우이다. 두 가지 원인 중 지역의 차이로 형성된 방언을 지역방언이라 한다. 이것은 두 지역 사이에 큰 산줄기나 강, 또는 큰 숲이나 늪 등의 지리적인 장애가 있을 때면 특히 그러하지만, 이러한 뚜렷한 장애물이 없더라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양쪽 지역 주민들 사이의 왕래가 어려워지고 따라서 두 지역의 언어는 점차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가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되는 일이다.¹⁹⁾

그런데 거리가 가까운 두 지역의 언어를 가르는 지리적 장애 요소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산줄기라고 할 수 있다. 산들의 연속체인 산줄기는 두 지역의 교통을 방해하여 교류가 단절된다. 충청북도 보은 지방은 경상북도 상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도 어법이나 성조에 그 영향이 없는 것은 도계(道界)에 속리산(1,057m)이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즉, 큰 산이 언어벽을 형성하고 언어경계선을 이루기 때문이다.²⁰⁾

방언과 방언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일은 어려운 작업이다. 현대 지리언어학적인 입장에서 한국어에 대한 방언구획이 이루어진 것은 19세기 이후이다. 그 이전에는 주로 인상주의적인 어휘적 방언차이에 대한 기록이 전하며, 19세기 이후 비로소 지리언어학적인 방언구획이 시도되었다.²¹⁾

일제 강점기에 오쿠라 신페이, 고노 로쿠로가 주도했던 방언구획은 공식적인 입장에서 개별어휘나 음운사적 주제와 관련이 있는 항목을 언어지도화하여 대강의 방언권을 구획하였다. 지금 가장 널리 쓰이는 방언구획은 오쿠라 신페이 것인데, 이것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²²⁾

- 경상도방언(영남방언, 동남방언)
- 전라도방언(호남방언, 서남방언)
- 함경도방언(관북방언, 동북방언)
- 평안도방언(관서방언, 서북방언)
- 경기도방언(중부방언)
- 제주도방언

이 방언구획은 도 단위로 나눈 것인데, 경기도방언에 강원도방언, 황해도방언이 포함된다.

18) 한국방언학회(1991: 21).

19) 이익섭, 앞의 책, 13쪽.

20) 한국방언학회, 앞의 책, 251-252쪽.

21) 이상규(2003: 435).

22) 이익섭·장소원(2001: 217).

방언차가 있는 충청도방언과 황해도방언을 중부방언에 포함시켜 함께 묶은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방언권을 편의상 8도 행정구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기로 한다.

경기도방언, 황해도방언, 강원도방언
충청도방언, 경상도방언, 전라도방언
평안도방언, 함경도방언

지금까지 조선 8도의 설정과 방언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앞선 논의로 몇 가지를 살펴 보았다. 논의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장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지방행정조직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모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차이는 있지만 지방행정구역은 대체로 지리적 특성, 다시 말해서 산줄기를 고려하여 이루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지방행정구역이 방언권과도 밀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3장에서는 우리 나라의 산줄기가 옛지도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산경표』와 「대동여지도」 두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다. 『산경표』는 백두산으로부터 지리산에 이르는 기동줄기를 백두대간이라 하고 여기에서 뻗어난 곁줄기를 정간·정맥으로 분류하고 이름을 붙여 우리 나라의 산줄기를 1대간-1정간-13정맥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대동여지도」는 전시대의 지도들보다는 지도표시가 세밀하지만, 그 산줄기는 『산경표』의 그것과 거의 일치한다. 이것은 오랫동안 형성된 우리 민족의 국토지리관을 전승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4장에서는 방언과 방언구획을 다루었다. 방언은 한 언어를 이루고 있는 하위단위로서의 언어체계 전반을 의미한다. 방언의 경계를 구분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큰 산(산줄기)은 이에 가장 크게 관여한다. 지리적 폐쇄성은 다른 방언과 차이를 만드는데 이로 말미암아 하나의 방언권(방언구획)이 형성된다.

5. 조선 8도 설정과 방언의 상관성

이 장에서는 앞에서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 8도 설정과 방언의 상관성을 모색하기로 한다.

1413년 태종은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전국을 8도로 나누었다. 이것은 큰 행정조직으로 오늘날의 도와 그 명칭과 경계가 같다. 이 지방행정체제는 6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8도의 행정구역이 변하지 않은 데에는 우리 선조들의 합리적인 설정 기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선 8도 설정에 관련된 근거를 밝혀낼 수 없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에 관련한 단편적인 기록만 있을 뿐이다. 『태종실록』 태종 13년 10월 15일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각도 각 고을의 이름을 고쳤다. 임금이 하륜(河崙)에게 이르기를, "전주(全州)를 이제 완산부(完山府)라고 고치고서도 오히려 '전라도'라고 칭하고, 경주(慶州)를 이제 계림부(鷄林府)라고 고치고서도 오히려 '경상도'라고 칭하니, 고치는 것이 마땅하겠다."하니, 하윤이 말

하기를, "유독 이 곳만이 아니라, 동북면(東北面)·서북면(西北面)도 또한 이름을 고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옳도다." 하였다. -한국고전종합DB, 국역 『국역 태종실록』 태종 13년(1413) 10월 15일-

이에 따르면 각도의 이름을 고쳤다는 기록과 함께 '전라도'와 '경상도' 두 지역 명칭만이 제시되었다. 나머지 다른 도의 명칭은 언급되지 않았다. 1413년에 지방행정조직을 새롭게 개편한 사실로 볼 때, 8도 설정은 이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조선 8도는 태종대에 전격적으로 구획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작업은 이미 건국 초부터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을 문헌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태조 3년(1394년)에 경기도를 좌·우도로 나누고 양광도·강릉교주도·서해도를 개칭하였다.

도평의사사에서 경기도 각 고을의 쇠하고 성한 것과 넓고 좁은 것에 따라 좌우도로 고치고 칭하니 양광도(楊廣道)를 충청도로, 강릉교주도(江陵交州道)를 강원도로 고치고, 서海道(西海道)를 풍海道(豊海道)로 고치었다. -한국고전종합DB, 『국역 태조실록』 태조 3년(1394) 6월 23일-

한편, 태종 7년(1407년)에는 경상도를 좌·우도로 나누기도 하였다. 그 기준은 낙동강으로 추정된다. 낙동강을 기준으로 해서 그 동쪽은 경상좌도로, 그 서쪽은 경상우도로 하였다. 지역이 큰 경상도를 강²³⁾을 기준으로 두 지역으로 나눈 것이다. 낙동강은 강원도 함백산에서 발원하여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여러 지역을 관통하며 경상남도의 합천, 창녕의 군계로 유입되어 남해로 흐르는 강이다. 이러한 낙동강의 흐름은 경상도방언을 분화시키는 구실을 한다.²⁴⁾

경상도를 좌·우도로 나누다. 낙동(洛東), 낙서(洛西)를 경계로 삼았다.
-한국고전종합DB, 『국역 태종실록』 태종 7년(1407년) 9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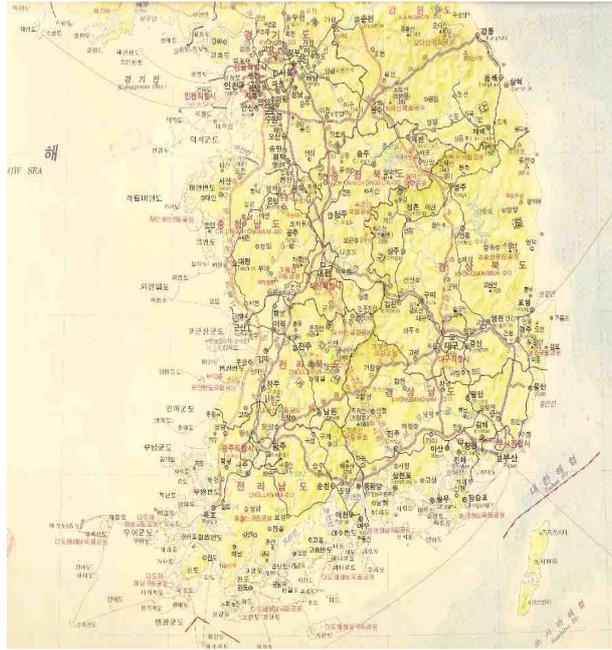
태종 13년(1413) 9월에는 도경계 조정에 관련한 일이 있었다. 당시 경상도에 소속된 일부 지역을 충청도에 이속시켰다. 일종의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상도 옥주(沃州)에서 보고하였기 때문에 황간(黃澗)·영동(永同)·청산(靑山)을 충청도에 옮겨 예속시키도록 하였다. -한국고전종합DB, 『국역 태종실록』 태종 13년(1413) 9월 10일-

경상도에 편입되었던 옥주·황간·영동·청산 등은 오늘날 충북 영동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을 충청도에 이속시킨 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 없으나, 이들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그 까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23) 우리 나라의 경우 강은 지방행정구역을 나누는 데 있어서 산줄기와는 달리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강이 백두대간처럼 북에서 남으로 한반도를 관통하여 길게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섬진강의 경우는 그 하류에서 전라도와 경상도를 분리하는 데 관여하기도 한다.

24) 김택구(2000: 116).



<지도 2> 충남부지도, 원경렬(1993)

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옥주(지금의 충북 옥천)-황간·영동·청산 등은 백두대간이 뺏어 나가는 지역에 인접하고 있다. 이곳은 태백산(1560m)-소백산(1394m)-월악산(1162m)-조령산(1017m)-속리산(1058m)-황악산(1114m)-덕유산(1614m) 등의 높은 산들로 이어진 산악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큰 산줄기 왼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그 오른쪽인 경상도 지역과는 지리적으로 단절된 곳이다.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이 두 지역은 교통로 개설이 힘들어 상호교류도 원활하지 못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이러한 단절은 자연스럽게 두 지역 사이에 언어벽을 형성하여 언어경계선을 이룬다. 지리적 단절과 언어적 단절로 경상도에서 이 지역을 통치하기란 여러모로 힘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경상도에 포함된 이들 지역을 충청도에 예속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가로놓인 큰 산을 무리하게 뛰어넘어 비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기 보다는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지방행정을 원만하게 펼치려는 통치자의 의도가 작용된 예라고 할 수 있다. 자연의 순리에 따른 지방행정구역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조선 8도 경계는 기본적으로 백두대간을 비롯한 여러 정맥에 따라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산경표』의 산줄기의 형세와 조선 8도의 구획은 거의 일치한다. 백두대간은 8도의 중심 구획선이다. 이 큰 산줄기를 따라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가 나누어지고 결줄기인 해서정맥과 한북정맥으로 황해도와 경기도가 나누어진다. 백두대간의 허리인 강원도의 경우 그 동쪽과 서쪽을 나누지 않고 두 지역을 통합하여 하나의 도로 설정하였는데, 이것은 예외적으로 행정구역의 면적, 즉 크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그 동쪽 지역을 하나의 도로 설정하면 동해로 치우친 금강산-설악산-오대산-태백산의 산줄기로 해서 자루처럼 길게 늘어지는 기형적인 형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여 그 서쪽 지역도 함께 묶어 구획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는 산지가 발달한 나라인데, 큰 산들의 연속체인 산줄기가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에 이르기까지 길게 뻗어 있다. 백두대간은 행정구역을 구획하는 데 있어서 중심선이 되

었으며, 동시에 언어벽이 되어 방언을 형성한 것으로 이해된다. 강원도방언, 경상도방언, 충청도방언, 전라도방언이 만들어진 까닭은 이러한 지리적 요인, 즉 큰 산줄기라는 지리적 장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8도의 설정이 지형과 관련되어 있음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조선 8도의 별칭(別稱)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공식적인 행정명칭 이외에 각 지방별칭이 오늘날 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통용되었다. 별칭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선 8도를 대신하는 기호·관동·호서·해서·호남·영남·관서·관북과 강원도의 동쪽과 서쪽을 지칭하는 영동·영서이다. 이 별칭들의 유래는 거의 전부 지형을 비롯한 자연지리적 요소에 그 기준을 두고 있어, 도회지명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공식적인 행정도명과 비교된다.

범선규(2003)에서는 조선 8도의 별칭과 지형의 관련성을 논의했는데, 여기에서는 별칭을 중심으로 별칭 각각의 유래와 의미, 사용 시기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이에 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8도 관련 지방별칭이다.

<도표 1> 8도 관련 지방별칭, 범선규(2003)

별칭	총 횟수	태조 (1392~ 1398)	세종 (1418~ 1450)	세조 (1455~ 1468)	성종 (1469~ 1494)	중종 (1506~ 1544)	명종 1545~ 1567)	선조 (1567~ 1608)	인조 (1623~ 1649)	숙종 (1674~ 1720)	정조 (1776~ 1800)	순조 (1800~ 1834)	철종 (1849~ 1863)	최초기록 즉위년-월. 일
畿湖	95	-	-	-	-	-	-	-	○	◎	●	◎	-	인조 5- 4. 1
關西	1,110	-	○	○	◎	◎	◎	●	●	●	●	●	◎	세종 4- 3.19
關北	205	-	-	-	○	○	○	◎	○	●	●	●	◎	성종 22-12.14
關東	442	○	○	○	-	○	○	●	◎	●	●	●	◎	태조 총서
嶺東	283	-	●	◎	◎	◎	○	●	●	●	●	○	-	세종 2-10.24
嶺西	130	-	●	◎	◎	◎	○	◎	◎	●	●	-	-	세종 4- 8.25
嶺南	1,065	-	○	○	◎	◎	●	●	●	●	●	●	●	세종 32- 1.15
海西	910	-	-	-	◎	○	○	●	●	●	●	●	◎	태종 6- 4.19
湖南	896	-	○	○	◎	◎	●	●	●	●	●	●	◎	세종 29-11.16
湖西	947	-	-	-	-	○	○	●	●	●	○	●	○	중종 15- 4.17

범례: -: 0회, ○: 1~5회, ◎: 6~10회, ◎: 11~20회, ●: 21~50회, ●: 51회 이상. 총 횟수는 전체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는 횟수인데 집계상에 실수로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

조선 8도의 별칭 가운데 '관(關)' 자가 핵심어인 것으로는 관동(關東)·관북(關北)·관서(關西)가 있는데, 이들은 각각 강원도·함경도·평안도의 별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관동은 강원도의 영동지방을 지칭하기도 한다. '관'은 문호(門戶)를 가로질러 잠근 막대기, 국경 또는 요해지(要害地)에 설치하여 여행객이나 화물의 출입을 단속하는 문, 요새지(要塞地) 등의 의미를 가진 글자이다. 관동·관북·관서의 '관'은 역사적으로 볼 때 관방처(關防處) 또는 접경지대를 고려한 별칭일 가능성이 높다. 함흥-영흥-안변-회양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영로(嶺路)가 가장 밀집된 곳이다. 이 구간은 1,200m ~ 1,600m에 이르는 산지가 연속되고 영로가 약 20개에 이르는 고산준령지대이다.

한편 지방별칭 가운데 '영(嶺)' 자가 핵심어로 포함된 것으로 영남(嶺南)·영동(嶺東)·영서(嶺西)가 있다. 이들은 각각 경상도, 강원도 동부, 강원도 서부의 이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영(嶺)' 자의 자의는 도로가 놓인 고개라는 뜻과 함께 연산(連山) 또는 산맥의 뜻으로도 쓰인다. 백두대간 가운데 위치한 철령²⁵(회양-안변), 대관령²⁶(횡계-강릉), 죽령(풍기-단양),

조령(문경-충주) 등과 같은 고개는 강원도, 경상도에서 한양으로 통하던 험한 고개였다. 이런 사실로 보아 '영(嶺)'은 단순한 고갯길로 이해하기 보다는 연속된 산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방별칭 가운데 '호(湖)'나 '해(海)' 자가 포함된 것으로는 호남(湖南), 호서(湖西), 기호(畿湖), 해서(海西)가 있다. 호남은 전라도, 호서는 충청도, 기호는 경기도와 충청도, 해서는 황해도의 별칭으로 받아들여진다. '호(湖)'는 '지(池)'나 소(沼)보다 큰 저수지'의 뜻으로 쓰이는데, 이들 별칭에서 '호'는 금강과 의림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해서(海西)'는 경기만의 서쪽이라는 의미와 함께 해주와 서하(풍천)의 머릿글자를 따왔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 8도의 별칭은 거의 전부 산맥(고개)·하천·호수·바다 등의 자연지리적 요소, 특히 지형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결국 조선시대에 각 지방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자연지리, 특히 지형에 기준을 두었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²⁷⁾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리적 상황과 방언은 아주 밀접하다. 큰 산줄기에 가로막히면 방언이 형성되는데, 한국어의 하위체계 전반인 방언은 아주 먼 옛날에 만들어져 지역 사람들에게 의사소통 수단으로써 공헌하고 있다.

우리 선조들이 방언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언어학·방언학 차원의 지식은 아니더라도 방언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능력도 인간의 본유적인 언어능력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어디 가유?"라는 충청도방언을 쓰는 화자가 "할배, 어데 가노?"라는 경상도방언을 들었다면 충청도 화자는 그 방언의 차이를 직감할 것이다. 이들 방언 사이에서는 어휘와 성조, 특히 성조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성조는 화자가 방언의 다름을 인식하게 하는 핵심적인 방언식별소(方言識別素)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대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통속적으로 방언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라도지방에서 경상도방언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전라도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감지할 수 있으며, 또 반대로 경상도지방에서 전라도방언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경상도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방언으로 지방성을 나타낸다.²⁸⁾

국역 『승정원일기』 고종 11년(1874년) 5월 5일 기록과 동년 11월 12일 기록을 보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25) 이 고개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이항복(1556-1618)의 시조가 있다.

철령 높은 봉에 쉬어 너른 저 구름아
고신원루를 비삼아 띄워다가
넘계신 구중심처에 뿌려본들 어떠리.

26) 이 고개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신사임당(申師任堂, 1504-1551)의 한시가 있다.

「躡大關嶺望親庭」

慈親鶴髮在臨瀛, 身向長安獨去情。
回首北坪時一望, 白雲飛下暮山青。

27) 이와 같이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8도의 별칭은 지금도 일상생활에서 특정 분야에서 자주 쓰이고 있다. 기상예보 때에는 '영동지방·영서지방·영남지방·호남지방' 등과 같은 별칭을, 도로명칭에서는 '영동고속국도·호남고속국도'와 같은 별칭을, 철도노선명칭에서는 '영동선·호남선'과 같은 별칭을 각각 사용하고 있다.

28) 한국방언학회, 앞의 책, 372쪽.

이유원이 아뢰기를, "중국어에도 귀천(貴賤)의 구별이 있는데, 관화(官話)란 바로 관리들의 말입니다. 대저 말의 발음은 지역에 따라 제각기 다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는 영남 방언이 매우 특이하다." 하니, 이유권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영남 말을 들어보니 과연 다른 도와 달랐고, 대구(大邱)가 조금 나왔습니다." 하니,

-한국고전종합DB, 『국역 승정원일기』 고종 11(1874년) 5월 5일-

상이 이르기를, "한어(漢語)는 청어(淸語)와 같지 않은가?" 하니, 이승보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같지 않은 방언이 각각 있으니, 더구나 한어와 청어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 팔도의 성음도 각각 같지 않다."

-한국고전종합DB, 『국역 승정원일기』 고종 11(1874년) 11월 12일-

위 두 기록을 보면 고종과 신하는 방언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영남방언이 매우 특이하며, 이 방언이 다른 방언과 달랐다는 것과 더 나아가 팔도의 성음(성조)이 모두 같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통치자의 방언 인식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예인데, 이러한 방언 인식은 일부 계층만의 의식이 아닐 것이다. 언어 지식이 없었던 일반 계층들도 이와 똑같은 방언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19세기의 사실이지만, 그 당시의 방언 의식을 앞의 어느 시대로 소급한다고 해도 결코 무리한 일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언 의식은 삼국시대에도, 고려시대에도, 그리고 조선초기에도 모두 똑같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조선 8도를 구획함에 있어서 지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방언적 요인도 작용했으리라 추정된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방언의 분포도 충분히 고려하여 지방행정구역을 나누었을 것으로 본다. 방언을 이에 포함시킨 것은 선조들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방언과 그 방언으로 형성된 지역의 고유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선 8도 설정과 방언의 상관성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413년에 조선 8도가 설정되었는데, 이에 관련한 근거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그러나 지방행정구역 분할에 앞서 있었던 몇몇 사례를 분석하면 설정 근거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1413년 9월에 경상도에 속했던 일부지역(옥주·황간·영동·청산)을 충청도로 예속시킨 일은 자못 의미가 크다. 이곳은 백두대간의 큰 산줄기가 지나가는 곳으로 두 지역이 단절되어 교류가 어렵고 방언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지리적 단절과 언어적 단절인 점을 고려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조선 8도의 공식적인 행정명칭이 지형과 관련된 별칭을 사용하고 있음도 주목된다. 조선 8도를 대신하는 기호·관동·관서·관북·영동·영서·영남·호남·호서·해서 등의 별칭의 유래는 지형을 비롯한 자연지리적 요소에 그 기준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자연지리적 요소는 백두대간을 근간으로 한 여러 산줄기로 지방행정구역 설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조선 시대에도 방언에 대한 인식이 일반적으로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각 지역 방언의 성조를 분명하게 인식하였는데, 이러한 방언 의식은 앞의 어느 시대로도 소급할 수 있다.

넷째, 우리 나라 국토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백두대간은 그 자체가 지리적 장벽이며 언어적

장벽이 된다. 지리적 장벽은 방언을 형성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한다. 조선 8도는 산줄기의 지리적 요소와 방언의 인문학적 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설정한 합리적인 지방행정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1413년에 설정된 8도가 6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행정구역으로 건재하고 있음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6. 맺음말

이 연구는 조선 8도의 설정이 방언과 어떠한 상관성을 갖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조선 8도를 설정할 때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선왕조실록』과 여러 관련 문헌의 내용, 상황 등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추정해 보는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8도의 경계가 백두대간의 산줄기와 외형상으로 합치되고, 이 산줄기에 따라 형성된 방언이 8도의 방언과 일치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런 관점에 따라 조선 8도의 설정과 방언의 상관성을 논의했는데, 조선 8도는 지리적 요소와 방언적 요소,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여 구획한 지방행정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전기에 이르기까지 지방행정구역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대체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시대에 따라 행정구역을 개편하거나 조정할 경우 국토의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을 통합하기 보다는 남쪽과 북쪽을 통합하였다. 즉, 동서형 통합보다는 남북형 통합이 우세하였다.

둘째, 『산경표』는 우리 나라의 산줄기에 처음으로 이름을 붙이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지리서이다. 「대동여지도」는 주체적인 국토관을 기반으로 하여 전통적인 기법으로 제작한 지도 중에서 완성도가 가장 높은 지도이다. 『산경표』의 산줄기와 「대동여지도」의 산줄기는 거의 일치하는데, 이들 지리서와 지도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국토지리관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셋째, 방언은 한 언어를 이루고 있는 하위단위로서의 언어체계 전반을 의미한다. 방언의 경계를 구분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큰 산줄기는 이에 가장 크게 관여한다. 지리적 폐쇄성은 다른 방언과의 차이를 만드는데, 이로 말미암아 하나의 방언권(방언구획)이 형성된다.

넷째, 1413년에 조선 8도가 설정되었는데, 이에 관련된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몇몇 사례를 검토하면 8도는 지리적 근거와 방언적 근거로 구획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조선 8도의 공식적인 행정명칭이 지형과 관련된 별칭을 사용한 점과 당시에 방언에 대한 인식이 형성된 점도 이와 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

다섯째, 우리 나라 국토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백두대간은 그 자체가 지리적 장벽이며 언어적 장벽이 된다. 지리적 장벽은 방언을 형성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한다. 조선 8도는 산줄기의 지리적 요소와 방언의 인문학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설정한 합리적인 지방행정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1413년에 설정된 8도가 6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행정구역으로 건재하고 있음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 참고문헌

- 강서영 외 공역(2001), 『대동수경(大東水經)』 (정약용 1814), 북한 과학원 고전연구소, 여강출판사, 277쪽.
- 김두규(2000), 『조선 풍수학인의 생애와 존칭』, 궁리출판.
- 김택구(2000), 『경상남도의 언어지리』, 도서출판 박이정, 116쪽.
- 박기현(2000), 『손에 잡히는 고려 이야기』, 늘푸른소나무.
- 박영규(1996), 『한권으로 읽는 고려왕조실록』, 도서출판 들녘, 121쪽.
- 박용운 외(2007), 『고려시대사의 길잡이』, 일지사.
- 박천옥(1998), 『한 권으로 읽는 독학 국사』, 도서출판 일빛.
- 범선규(2003), 「'조선 8도'의 별칭과 지형의 관련성」, 『대한지리학회지』 제38권 제5호, 대한지리학회, 686-700쪽.
- 산림청(1996), 『백두대간 관련 문헌집』, 332-337쪽.
- 양보경(1996), 「신경준의 『산수고』와 『산경표』-국토의 산천에 대한 체계적 이해-」, 『백두대간 관련 문헌집』 산림청, 24쪽.
- 이상규(2003), 『국어방언학』, 학연사, 435쪽.
- 이익섭(1981), 『영동 영서의 언어 분화』,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익섭(1984), 『방언학』, 민음사, 12쪽.
- 이익섭·장소원(2001), 『국어학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17쪽.
- 이준구·강호성 편저(2006), 『조선의 정승』, 스타북스.
- 최영미(2009), 「정선방언의 성조 체계와 그 역사적 변천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 하현강(1991), 『한국의 역사』, 신구문화사, 45-189쪽.
- 한국방언학회(1991), 『국어방언학』, 형설출판사, 9-252쪽.
- 현진상(2000), 『한글 산경표』, 도서출판 풀빛, 29쪽.

<지도 및 사료>

- 김정호(1861), 「대동여지도」,
한국고전종합DB, 『국역 조선왕조실록』,
한국고전종합DB, 『국역 승정원일기』,
원경렬 편(1993), 「전국도로지도」, 성지문화사.
Daum 백과

□ 토 론 □

조선 8도 설정과 방언의 상관성

최영미(호서대)

방운규 선생님의 “조선 8도 설정과 방언의 상관성”은 조선 8도의 경계가 지리적·언어적 장벽으로 기능하는 백두대간의 산줄기와 외형상으로 합치되고, 그 산줄기를 따라 형성된 방언과 일치한다는 점을 토대로 하여, 조선 8도가 지리적인 요소와 방언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구획된 지방행정조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지리적인 요인(산줄기, 강, 고개)이 사람들의 생활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수용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강원 영동방언(정선, 강릉, 삼척)과 경상 방언의 성조를 비교했을 때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언어 외적인 근거는 <그림-2> 통일신라의 9주와 <그림-4> 고려의 5도에서 “명주”와 “동계”의 지역을 보면, 강원 영동지역과 경상북도 지역이 같은 행정구역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1. 방언구획의 기준 문제.

지역방언 연구의 목표를 언어지도 작성으로 볼 때, 방언구획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 연구는 방언구획 특히, 대방언권을 구분하는 기준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즉, 방언구획의 기준은 선행 연구에서 지리적 요건, 행정적 구획, 화자의 방언의식, 언어적 특징(통시적 특징, 공시적 특징)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참고로, 奥村三雄(1958)은 “언어 특징의 분포를 하나하나 보아가며 그것을 작업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포개어 가는 법”을 제창하고, 필요에 따라서 각 방언의 언어체계를 비교하거나 각 방언화자들의 방언의식과 자연, 인문 지리적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서간행회(1984:119), <방언연구법>에서는 방언의식이나, 행정 구획, 지리적 환경 등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에 따라서 방언구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²⁹⁾

2. 방언차이의 설명에 대해

<국역 승정원 일기> 고종 11년(1874)년 5월 5일 기록과 동년 11월 12일 기록을 인용하여 “방언 차이”에 대한 방언의식을 설명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곳에서 “조선 시대에도 방언에 대한 인식이 일반적으로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각 지역 방언의 성조를 분명하게 인식하였는데, 이러한 방언의식은 앞의 어느 시대로도 소급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만약 앞 시대에서 일반적인 방언차이를 인식했다는 것이라면, 수용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성조 차이”를 앞 시대(신라, 고려)에서부터 사람들이 인식했을 것이라고 본다면, 언어 외적인 근거(19세기의 문헌 기록)를 가지고 언어적 사실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헌만 존재하는 시기의 “방언차이”를 기술하는 바람직한 방법에 대한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9) 방언학회(2001), <방언학 사전>, 태학사, p 126.

지역방언 연구에 대하여

김옥영(강릉원주대)

차 례

1. 머리말
 2. 지역방언 연구의 필요성
 - 2.1. 지역문화의 기록
 - 2.2. 언어현상의 이해
 3. 지역방언의 연구방법론 모색
 - 3.1. 방언자료의 수집과 체계화
 - 3.2. 언어자료의 해석
 4. 맺음말
- 참고문헌

1. 머리말

언어연구는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방언은 특정의 지역 혹은 사회 집단 내에서 구현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의 언어이므로 방언연구도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지적 활동의 하나이다. 그런데 어느 분야의 학문 활동이나 마찬가지로 방언연구 또한 연구자의 눈앞에 펼쳐진 다수의 방언자료와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궁극적 목적 사이의 간극을 체계적·논리적으로 채워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과정은 과거와 현재의 노력을 거시적 측면에서 되짚어 봄으로써 연구방법론적 타당성을 검증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이 논문에서는 국어 지역방언의 연구 필요성과 연구방법론을 강원도 방언의 연구 업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방언’은 넓게는 ‘독자적인 역사와 체계를 가진 한 언어의 지리적 분화체’라 정의되기도 하고 좁게는 ‘표준어가 아닌 지역적 변종’으로 정의되기도 한다(곽충구 2007:193). 후자는 표준어에 대한 상대적 개념을 내포하므로 언어학적 연구에서 방언은 주로 넓은 의미의 것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각 지역의 방언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국어방언학은 공시방언론과 통시방언론으로 분류된다.¹⁾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인 개별 지역방언은 공시방언론에 포함되는데 개별방언론에서는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이 함께 다루어진다. 지역방언이 지리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사회방언은 연령이나 성별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방언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사회방언

1) 이러한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은 ‘국어방언학의 체계’(최명옥 2005:41)를 따른 것이다.

을 제외한 지역방언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지역방언 연구의 필요성과 그 연구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먼저 2장에서는 지역문화의 기록과 언어현상의 이해라는 두 측면에서 개별 지역방언 연구의 필요성을 서술하는데 방언연구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그 현황과 문제점까지 함께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3장에서는 개별 지역방언의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는다. 3.1의 ‘방언자료의 수집과 체계화’에서는 구술발화나 사전의 편찬을, ‘3.2. 언어자료의 해석’에서는 최적성이론의 도입을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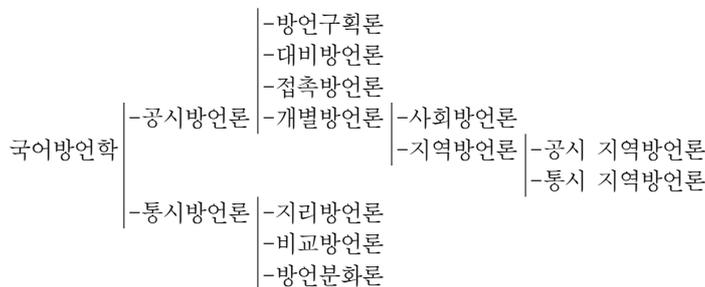
2. 지역방언 연구의 필요성

2.1. 지역문화의 기록

문화는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 등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특정한 시대나 공간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그 시대와 공간에 살았던 구성원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는 공동체의 삶의 방식, 정신적 가치 등을 반영하므로 그 다양성을 논할 수는 있어도 물질적·기술적 측면의 문명과 동일한 기준으로 그 수준을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국사회의 일반 대중이 지역 문화를 다양한 문화현상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고 확인하기는 어렵다. 한국사회에서 지배적인 가치는 중앙의 것, 문명의 발전을 경험한 것, 자본의 가치가 투영된 것에 대한 선망으로 뒤덮여 있다. 이와 같이 획일화된 가치가 팽배한 사회현실 속에서 지역의 문화는 그 존재 자체를 위협 받을 수 있다.

지역의 문화는 대체로 전통적인 물질적·정신적 유산을 포함한다. 과거는 현재의 모태이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의 장이다. 따라서 과거에 대한 이해,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이해는 현재 우리 삶의 기저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과거로부터 구축된 행동양식과 생활양식이 문명의 훼손을 비껴가 그나마 최소한의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실체가 바로 지역문화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만 보아도 지역문화의 보존과 기록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런데 광충구(2007:197)에서 언급했듯이, 언어학적·방언학적 관점에서 지역문화는 곧 그 지역의 언어 특히 어휘에 의해서 표상된다. 사회제도, 가옥구조, 관혼상제, 세시풍속, 농경방식, 복식, 음식, 놀이 등과 관련된 용어나 친족어, 차용어 등에서 방언차가 발견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까닭에 지금까지 나온 방언조사 질문지에는 특정 지역의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방언조사는 방언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질문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언어학적 특징에 대한 조사 내용은 물론 문화양식에 대한 항목까지 포함하고 있는 두 종류의 질문지만 제시하고자 한다.

(1) 가. <한국 방언조사 질문지>(1980)

I. 어휘

농사	음식	가옥	의복
인체	육아	인륜	경제
동물	식물	자연	상태
동작			

나. <지역어 조사 질문지>(2006)

제2편 어휘

농경	음식	가옥	의복
민속	인체	육아	친족
동물	식물	자연	

(1 가)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것이고, (1 나)은 국립국어원에서 지역어 조사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발행한 방언조사 질문지이다. 두 질문지는 전국 단위의 방언조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데 (1)에 제시된 내용은 모두 ‘어휘’편에 포함되어 있다. (1)의 각 항목은 다시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1 가)의 ‘농사’에는 ‘경작, 타작, 도정, 곡물, 소채(蔬菜)’ 등이, ‘음식’에는 ‘부식, 주식, 별식, 그릇, 부엌’ 등이 포함된다. (1 나)의 ‘농경’에는 ‘경작, 타작, 방아 찧기, 곡물, 채소’ 등의 항목이, ‘음식’에는 ‘주식과 부식, 반찬과 별식, 부엌과 그릇’ 등의 항목이 배치되어 (1 가)보다 좀 더 체계화된 양식을 보인다.

(1)에 나타난 두 질문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1 가)에 비해 (1 나)에 ‘민속, 친족’ 등에 대한 항목이 더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즉, (1 가)의 상태(길이·두께, 넓이·높이, 수량·무게, 색채·농도·깊이, 감각·정서, 맛, 성품·인상), 동작(요리, 수혜, 갈무리, 사육, 놀이, 이동, 감각, 교육, 인체) 대신에 (1 나)의 ‘민속’에는 ‘세시 풍속, 농경용품, 생활용품, 친족’ 등이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1 나)이 지역문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언조사 질문지에 의한 어휘항목 조사의 일차적 목적은 지역방언의 다양한 방언형을 수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언 어휘가 곧 지역문화에 대한 반영물이므로 지역방언의 어휘 수집은 곧 지역문화의 전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라져 가는 혹은 위협 받는 지역문화를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의 범위에 포함되는 강원도 방언연구로는 ‘친족, 지명’ 등의 명칭에 관련된 것이 대표적이다. 먼저, 이익섭(1976)은 당시 방언조사 방법의 문제점 즉, 다양하게 분화된 방언형 수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표준어와 방언형의 일대일 대응의 위험성을 언급한 논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제시한 방언형 ‘아재’는 어휘의 측면뿐만 아니라 친족 명칭의 언어 분화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 이익섭(1976:3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재’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꽤 여러 지역에서 상용되는 어휘이면서 지역 간의 방언차를 상당히 예민하게 반영해주는 어휘이다. 이는 동일한 형태에 다양한 의미를 가져서 ‘시동생, 아주머니, 고모, 이모’ 등의 방언으로 실현될 뿐만 아니라 ‘아저씨’나 ‘아주버니’의 낮춤말로도 쓰인다.

그런데 이익섭(1976)에서는 언어 분화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화를 유발시키는 요인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그리고 그 요인 가운데 하나로 ‘통혼권(通婚圈)’과 같은 언어집단 간의

교섭 빈도수를 제시하고 있다. 즉, ‘아재’라는 가족칭호는 통혼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어휘라 짐작하고 있다. 더불어 방언 분화를 기초어휘(basic vocabulary)와 문화어휘(cultural vocabulary)로 분리해서 관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방언연구는 음운, 형태, 의미 등과 관련된 언어학적 논의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지역 사회간의 문화적 교류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 ‘아재’와 같은 친족명칭은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이며 동시에 지역문화간의 교류에 대한 정보이기도 하다.

친족 명칭에 대한 연구는 곽충구(1995)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황해도 및 강원도 북부 지역의 친족명칭에 관한 것이다. 곽충구(1995:326)에서는 한 민족의 친족 호칭어가 그 민족의 역사성·사회성을 반영하는 역사적 산물이라면 친족 호칭어에는 반드시 그러한 요소가 투영되어 있을 것이라 보았다. 특히 방언에는 그러한 과거의 잔재적 양상을 반영하는 요소가 남아 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논문에 따르면 함경도와 인접한 강원 북부의 통천·회양에서는 ‘부’보다 손위의 ‘고모’와 ‘모’보다 손위의 이모는 ‘백모’의 호칭어(큰어머니)와 동일하고,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어는 ‘백부’의 호칭어(큰아버지)와 동일하며, ‘부’의 손아래 누이인 ‘고모’와 ‘모’의 손아래 ‘이모’에 대한 호칭어는 ‘숙모(작은어머니)’의 호칭어와 동일하고,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어 역시 ‘숙부’의 호칭어(작은아버지)와 동일하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매우 앞선 시기의 친족 호칭어는 ‘부계’와 ‘모계’를 구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고모/고모부’와 ‘이모/이모부’의 호칭어가 ‘백모/백부’의 호칭어와 동일한 경우는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의 친족관계가 대등했던 과거 전통사회의 산물로서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상징적으로 대변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부계혈족 중심의 친족관계는 17.8세기 이후에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곽충구 1995:327).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문화적 상황이 친족 호칭어에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친족 명칭을 통해 당대 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친족명칭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의 자연 현상에 대한 명칭도 지역적 특징에 대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박성종(2008:78)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강원도 영동 지역에는 어업을 생계로 하는 사람들의 독특한 어휘들이 많다. 어선과 어업에 관련된 어휘들을 비롯하여, 어장과 고기잡이 도구에 관한 명칭들, 그리고 바람 및 조류와 파도, 물고기와 조개류에 관한 명칭 등 어촌에서만 사용되는 고유한 어휘들이 많다. 다음은 박성종(2008:78)에 제시된 어촌어휘로 영동방언의 풍명(風名)에 관한 것이다. 이 가운데 몇 가지만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영동방언의 풍명

	고성군	속초시	양양 현북	양양 현남	강릉 안인	삼척 정라
북	셋바람	셋바람 급새	셋바람	셋바람	셋바람	셋바람
동	들바람	들바람 서마바람	들바람	들바람	들바람	들바람
남	마파람	마파람	마파람	마파람	마파람	마파람
서	하누바람 하네바람	하누바람	하누바람	하누바람 내바람	하누바람	하늘바람
급새 ²⁾	된바람 셋바람 서마바람 도새	급새 서마바람	서마바람 새마바람	새파람 마파람	새파람 하누바람	을진풍

박성종(2008:79)에서는 바람에 관련된 명칭이 동해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상호 비교해 보면 흥미로울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2)에서 볼 수 있듯이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풍명이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점, 동풍과 북풍의 명칭이 서해안을 비롯한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보고된 바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 등이 관심을 끈다고 하였다.

친족이나 자연 현상에 대한 명칭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의 지명에 대한 연구도 지역문화의 기록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지명연구의 의의와 목적은 이돈주(1998)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는데, 한글학회 편(1966)에서 최현배가 제시한 우리말 지명의 수집 목적을 다시 인용하였다. 그 가운데 특히 지역방언 연구와 관련된 언급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ㄱ)은 문화의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3 ㄴ)은 언어학적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다.

(3) 지명 연구의 의의와 목적(한글학회 편 1966:2, 이돈주 1998:57에서 재인용)

- ㄱ. 우리의 역사·지리·풍속·제도 등 문화 생활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요
- ㄴ. 우리의 옛말, 말소리의 변천, 말의 풀과 뜻의 변천, 배달말의 계통들 언어과학적 연구에 다방면으로 소용될 것이요

강원도 지명 유래에 관련된 예로 김기설(1994)에서는 강릉 지역의 지명유형을 고찰하여 개인형, 관명형, 대립형, 동물형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 가운데 ‘종교형’ 지명은 신앙활동을 위한 건물 또는 신앙활동을 통해 나타난 일정한 지역의 형상을 지명으로 만든 지명 형태라 한다.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4 ㄱ)에는 민속신앙과 관련된 지명을, (4 ㄴ)에는 불교 계통의 지명을 인용하였다.

- | | |
|--------------------|---------------|
| (4) ㄱ. 당골(주문진 교항리) | 서낭거리(강릉 남문동) |
| 성황당골(사천 사기막리) | 장승골(왕산 고단리) |
| 숫대거리(강릉 송정동) | |
| ㄴ. 미륵골(옥계 남양리) | 부처앉은골(구정 어단리) |
| 탑골(성산 관음리) | 절터버당(연곡 퇴곡리) |
| 법당골(사천 산대월리) | |

그런데 이돈주(1998)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지명학(toponymy)은 연구자의 관심과 시각에 따라서는 방언학 외에 지리학, 역사학, 고고학, 민족학, 민속학, 사회학, 정치·경제학, 설화·구비문학 등의 연구자에 이르기까지 빼놓을 수 없는 보조 학문의 자료가 된다. 실제로 강원도 지역의 지명 연구도 방언학보다는 민속학적 관점에서 수집·분석되고 있는 듯하다. 강원도민속학회에서 <강원민속학>을 통해 강원도 지역의 ‘고성, 영월, 양양, 화천’ 등지의 지명 유래를 다룬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지명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의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지역방언 연구는 민속학이나 구비문화 등의 연구와 학문적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수집한 어휘의 정리 작업 또한 시급한데, 앞의 (1)과 같은 질문지를 통해 조사·수집된 방언자료의 체계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개별 논문집이나 자료집에 산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자료만으로는 그 이용에 있어서나 보

2) 급세는 해당 지역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바람으로, 매우 강하고 때로는 해일을 동반하는 바람을 지칭한다(박성종 2008:79).

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자료의 통합, 목록화, 정보화 등 지역문화를 전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론이 논의되어야 한다.

2.2. 언어현상의 이해

지역방언 연구의 필요성은 지역문화의 기록이라는 언어 외적 측면은 물론 특정 지역의 언어현상의 기술과 이해라는 언어 내적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광중구(2005:74)에 따르면 방언학은 각 지역의 방언을 조사한 다음, 변이형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현상을 언어내적 요인과 언어외적 요인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기술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방언학은 방언 간의 비교나 대조에 일차적인 관심을 둔다. 그런데 방언학의 이러한 관심은 독자적 언어 체계로서의 개별 지역방언에 대한 연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개별방언론에서는 연구대상이 되는 특정 지역의 독립적 언어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대상 방언의 언어 내적 특징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지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 (5)와 같다.

(5) ㄱ. <한국 방언조사 질문지>(1980)

II. 문법

대명사, 조사, 경어법, 시제, 사동·피동, 연결어미, 보조용언, 부사

III. 음운

단모음, 이중모음, 음장·성조, 억양, 자음탈락, 불규칙활용, 자음축약, 경음화, 비음절화, 모음조화, 올라우트, 외래어

ㄴ. <지역어 조사 질문지>(2006)

제3편 음운

음운목록(단모음, 이중모음, 장모음·성조)

음운과정(활용, 곡용)

제4편 문법

대명사(인칭대명사, 의문대명사, 그 밖의 의문사, 지시대명사·지시부사)

조사(격조사, 보조사, 문장 뒤 조사)

종결어미(명령법, 청유법, 의문법, 서술법, 반말, -이다, 그 밖의 종결어미)

연결어미, 주체 존대, 시제, 부정, 사동과 피동, 보조용언, 부사, 관용적 표현

(5)에 제시된 두 질문지 모두 언어연구의 하위 분야인 ‘음운’ 및 ‘문법’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두 질문지에서 문법 분야는 조사 항목 및 항목의 배열에 큰 차이가 없다. 다만 (5 ㄱ)에 비해 (5 ㄴ)의 조사항목이 더 다양하게 보충되었다. 그러나 ‘음운’ 분야는 항목 배열의 기준 자체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5 ㄱ)은 자음 탈락이나 불규칙 활용, 자음축약, 경음화 등 특정의 현상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각 현상의 음운 환경에 대한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반해 (5 ㄴ)의 음운 과정은 ‘활용’과 ‘곡용’으로 분류되어 특정의 현상보다는 체언 및 용언에 조사 및 어미가 결합하는 음운 환경이 조사 항목 배열의 기준이 되었다. 김봉국(2005:163)에 따르면 만약 음운 조사에 있어서 그 지역의 특징적인 몇 개의 음운현상만을 다룬다면 전자의 방식으로 조사항목을 배열하는 것이 유효하며, 그 지역의 일반적인 음운현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면 후자의 방식이 유효하다.

곡용과 활용에서 다양한 공시적 음운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5 ㄴ)에는 합성·파생과 같은 형태소 경계에서의 공시적 음운현상에 대한 조사 항목이 빠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 또한 대체로 방언조사를 떠나기 전에 해당 지역에 대한 기

초 자료를 파악하는 것이 방언조사의 순서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5ㄴ)의 질문지는 기존의 방언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의 방언이 조사대상일 때 적절한 방식인 듯하다.

강원도 방언에 나타나는 언어현상에 대한 연구도 대체로 위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지금까지의 논의 가운데 강원도 방언연구의 현황 및 과제는 이상복(1992), 한영균(1992), 박성중(2008) 등을 참조할 수 있다. 그리고 강원도 방언의 전반적 특징을 논의한 대표적인 논저로는 초기의 이익섭(1981), 최근의 방언연구회 편(2001), 박성중(1998, 2008)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논저에서 연구된 바에 따라 강원도 방언의 특징적인 몇몇 현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릉방언에서 ‘외’는 출타하여 집에 없는 사람을 위해 그 사람 몫으로 남겨 두는 밥을 뜻하는 단어이다. 그런데 이중모음 [jɔ]는 오직 이 단어의 경우에만 확인되는 것으로 그것을 이중모음 체계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음운 체계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영동 방언 자음 체계의 ‘ㅎ’ 포함 여부이다. 이는 영동방언에 나타나는 ‘걸고(걸-고, 懸), 걸꼬(걸-고, 步)’와 같은 활용형 때문이다. 이 음소는 표면에서 확인되지 않는 추상음소이기 때문에 음소 설정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강원도 방언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성조’이다.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강원도 방언은 성조에 의해 단어가 변별되는 성조 언어이다. 이 지역어의 성조소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견해가 조금씩 달라서 ‘말(馬)H, 말(斗)L, 말(語)R’과 같이 ‘저조, 고조, 상승조’로 보기도 하고(최명옥 1998, 김봉국 2002b) 그 외에 ‘상승조’를 ‘저장조’ 또는 ‘고장조’로 보기도 한다(이익섭 1981).

이러한 내용은 모두 강원도 내 특정 지역의 음운체계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다. 음소와 초분절 음소를 포함하는 음운체계에 대한 논의는 음운현상과 같은 음운론적 연구의 기초가 된다. 왜냐하면 음운체계는 개별언어의 체계 내에서 의미 변별의 기능을 하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이다. 음성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류에 기반하여 음운 변동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성조는 자·모 체계와 더불어 강원도 방언의 내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요소이다.

음운현상으로는 ‘w’ 활음화 및 축약과 관련된 ‘꾸-어→꼬, 쑈-어→쏘, 주-어→조, 추-어→초’ 등의 현상이나 ‘쓰다→씨다, 쓰레기→씨레기’ 등과 같은 전설모음화, ‘달~닥, 흘~흑, 여덜, 발찌’ 등과 같은 자음군단순화 문제 등 논의해야 할 다수의 현상이 보인다. 문법론과 관련해서는 비자동적 교체를 보이는 ‘가루~값, 자루~잡, 노루~늑’ 해라체 의문형 어미의 영동·영서 분화 ‘-나~니’, 의문형 종결어미 ‘-나’가 절단된 ‘~깐’ 등을 눈여겨 볼 만하다. 그 외에도 ‘줄구다(줄이다), 살구다(살리다)’ 등의 사동접미사 ‘-구-’, ‘바꾸키다(바꾸다), 쏘키다(쏘이다) 신키다(신기다)’ 등의 피동접미사 ‘-키-’ 등과 같은 특징적 현상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강원도 방언연구에서 강원도 방언의 구체적인 언어현상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개별 연구는 그리 다양하지 않다. 강원도 방언의 음운, 문법 등과 관련된 특정의 언어현상을 다룬 주목할 만한 논의로 다음이 있다.

먼저 성조와 같은 운율 자질에 대한 연구로 문효근(1969, 1972), 이익섭(1972a), 김봉국(1998) 등이 있으며 이중모음과 활음화에 대한 연구로 이병근(1973), 김봉국(2000) 등이 대표적이다. 특정의 음운현상에 대한 연구로 ‘-아/-어’계 어미 교체에 대해 다룬 김봉국(2001), 어간말자음군에 대해 다룬 김봉국(2002a)가 있다. 또한 김옥영(2005, 2006)은 탈락 현상을, 김옥영(2008a)는 ‘ㄴ-첨가’ 현상을 다룬 논의이다. 그 외에도 형태론적 절단 현상을 분석한 김옥영(2008b)가 있으며, 이익섭(1974)는 영동방언의 경어법에 대한 연구이다.

강원도 일부 지역의 전반적인 음운현상, 형태음소론적·형태론적 고찰은 김봉국(2002b), 이익섭(1972b), 전성탁(1977)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 논의를 제외한 1970년대 이후의 연구는 대부분 언어현상의 내적 원리에 대한 규명보다는 강원도 각 지역의 음운·문법·어휘 등의 개별 언어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언자료 제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특정 지역방언의 어휘조사를 기초로 한 방언자료집의 성격을 띠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특정 언어현상에 대한 기술과 방언 어휘의 수집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즉 강원도라는 특정 지역에서 실현되는 다양한 언어현상과 어휘목록을 통해 한국어의 지리적 분화체인 강원도 방언의 실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기술은 궁극적으로 다른 지역과의 방언차나 방언분화 등의 연구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의 언어현상에 대한 방언자료와 어휘목록 등에 대한 제시는 자칫 다른 지역과 방언차가 뚜렷한 강원도 방언형만 관심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방언자료에 대한 분석이 방언차나 독특한 어휘에만 국한되어 다루어진다면 강원도 방언의 전반적인 언어체계는 논의될 수 없다. 따라서 강원도 방언의 연구 영역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언어현상에 대한 해석 및 원리 규명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도 있다. 이에 대한 전망과 구체적인 방법론은 다음 3장에서 자세하게 논하고자 한다.

3. 지역방언의 연구방법론 모색

개별 방언에 대한 공시적 연구가 싹트기 시작한 50년대(곽충구2002:425) 이후 국어 방언학의 주요 관심사는 방언자료의 수집, 방언차와 방언분화에 대한 연구, 개별 방언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 등이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좀 더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크게 두 방향 즉, 방언자료의 수집·체계화의 문제와 언어자료 해석의 문제로 나누어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방언자료의 수집과 체계화

방언자료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서는 연구 목적에 걸맞은 방언조사 질문지가 마련되어야 한다. 방언조사자는 이러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현지 제보자로부터 조사 항목과 관련된 언어 정보를 이끌어낸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질문법’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조사자가 표준어를 제시하는 직접 질문법과 우회적으로 조사항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방언형을 얻어내는 간접 질문법이 있다.

그런데 미리 정해진 질문에 의존하다 보면 예정된 조사 항목의 범위를 벗어나는 어휘나 방언형을 얻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다양한 문맥이나 사용 환경 그리고 어휘가 구체적 상황에서 쓰이는 섬세한 의미 등의 파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이기갑 2008:3). 질문법에 의한 방언조사의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조사된 자료가 자연스러운 발화의 과정에서 도출된 방언형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 최근의 조사 방법이 ‘구술 발화’를 통한 조사 방법이다. 구술발화란 제보자가 특정의 주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즉, 조사자가 원하는 방언형을 얻기 위해 제보자에게 각각의 방언형

을 질문법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사자가 던진 질문에 특별한 제약 없이 자신의 이야기
기를 하게 하는 것이다. 다음은 <지역어 조사 질문지>(2006)에 새롭게 첨가된 ‘구술발화’
조사 내용이다.

(6) <지역어 조사 질문지>(2006)

ㄱ. 구성

제1편 구술발화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거주 생활
일생 의례	질병과 민간요법
생업 활동	세시 풍속과 놀이
의생활	특수 지역 생활
식생활	

ㄴ. 질문 내용

이 마을은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주민들은 주로 어떤 성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내력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밭농사로 짓는 곡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길쌈할 때 사용하는 기구들에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밭에서 기르는 채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구술발화의 큰 장점은 가장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발화되는 언어자료를 채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기갑(2008)에서는 이러한 구술발화의 강점을 세 가지로 꼽고 있는데 첫째
새로운 어휘의 발굴이 용이하다는 점, 둘째 한 제보자가 사용하는 다양한 변이형의 빈도를
측정하여 언어 변화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셋째 방언 담화론이라는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술발화에도 문제점은 있는데 조
사자가 연구 대상으로 하는 분야의 체계적인 언어자료를 한꺼번에 얻기 어렵다는 점, 제보
자가 조사자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므로 일률적인 종결어미로 끝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
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제 언어조사에서는 질문법에 의한 조사가 보충되어야
한다.

강원도 지역에 대한 구술발화집으로는 원주와 양양 지역의 언어와 생활을 다룬 김봉국
(2007, 2008)이 있다.³⁾ 이들 자료집은 모두 각 지역의 토박이 화자들이 구술한 내용을 담
고 있다. <지역어 조사 질문지>(2006)의 질문 내용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졌고 표준어 번역
과 주석 그리고 색인을 통하여 다양한 토박이 어휘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구술발화에 의한 방언자료 수집에 이어 또 다른 새로운 방언연구의 경향은 방언자료와 사
전의 만남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논의가 가능한데 하나는 표준어 중심의
국어사전에 방언을 수용하는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특정의 지역어만을 대상으로 사전을
편찬하는 방법이다.

먼저 방언의 사전적 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곽충구(2007)에서 상세하게 정리한 바 있다.
곽충구(2007:194)에서는 방언의 수용 여부나 주석의 문제는 사전 유형론이나 사전의 각종
정보 제시 구조와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지만 국내의 ‘대사전’과 같은 유형
및 규모의 사전에서는 방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즉 한

3) 이 자료집은 국립국어원에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지역어 조사 사업의 하나로 수행된 것이다. 2007년
에 간행된 경기 화성, 강원 원주, 충북 제천, 대전 서구, 전북 남원, 전남 곡성, 경북 상주, 경남 창원, 제주 한
경 지역의 언어와 생활 이후 매년 각 지역별 구술자료가 출판되고 있다.

언어를,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 전체의 구성원이 말하는 역사적·지역적·사회적 변종의 집합으로 이해하고 또 방언을 특정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는 한 언어의 하위 변종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사전에 수용한다고 하면 방언은 표준어와 동등한 자격으로 표제어로 오르게 된다.

방언의 사전적 수용을 위해서는 방언 표제어에 대한 품사정보, 대응 표준어, 분포 지역 등을 나타내는 주석 방식과 표제어의 선정, 표제어의 뜻풀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 (7)은 방언자료를 사전에 올릴 때 표제어 선정, 뜻풀이 등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다.

(7) 방언의 사전적 수용 - 표제어의 위상과 어휘체계(곽충구 2007:210)

- ㄱ. 지역문화와 관련되는 어휘의 경우 방언과 표준어를 변별할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주석을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
- ㄴ. ㄱ의 기준에 따라 선별된 어휘를 사전에 올릴 때에는 그 지역의 어휘체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ㄷ. 뜻풀이는 가급적 전문학자들의 관련 논지를 참고하거나 또는 현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논의해야 할 내용은 특정 지역방언에 대한 사전 편찬 문제이다. 강원도 지역과 관련된 방언사전으로 이경진(2002/2003/2004), 김인기(2004), 박성중·전혜숙(2009) 등이 있다. 이경진(2002/2003/2004)는 방언형을 등재 표제어로 하고 대응 표준어를 제시한 형식이다. 대부분의 방언형에 대한 관련 예문을 포함하고 있다. 김인기(2004)는 표준어를 등재 표제어로 하고 그에 따른 강릉 지역의 방언형을 제시하는 형식에 따른 방언사전이다. 각 방언형의 예는 실제 그것이 사용되는 상황을 ‘구술발화’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개별 방언형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강릉 방언의 다양한 발화자료를 볼 수 있다. 박성중·전혜숙(2009)도 이경진(2002/2003/2004)와 같이 방언형을 등재 표제어로 하고 품사 정보와 대응 표준어를 주석으로 제시한 다음 뜻풀이와 예문을 덧붙였다. 앞의 두 사전에 비해 언어학적 분석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고무래’의 강원도 방언형인 ‘곰배’에 대한 이들 사전의 구체적인 제시 형태는 아래 (8)과 같다.

(8) ㄱ. 이경진(2002/2003/2004),

곰배 고무래. 밭에 씨앗을 뿌리고 묻은 후 땅을 고르거나 흙덩이를 깨는 데 사용하는 농기구로 ㄱ 또는 ㄷ자 형태로 되어 있음. 예)밭에 보리를 뿌린 다음 골을 덮은 후 곰배로 흙디(흙덩이)를 잘게 부쇄(부수어) 편평하게 해야 뿌린 씨앗이 잘 난다.

ㄴ. 김인기(2004)

★ **고무래** =====**고물개1. 고밀개. 곰배1**

*글쎄, 어재[어제] 버강지[부엌아궁이]서 웬늬어 누렁더 누런 금갈기가 먼 사태배기 [사태]지능 그 모냉[모양]이루 나오길래 곰배루 할루 쟁일 끌어냈잖소. 깨구 보니 꿈, 허당이랬잖소[허당이랬잖소].

ㄷ. 박성중·전혜숙(2009)

곰:배 ㅽ 고무래. 곡식을 그러모으거나 널 때, 밭의 흙을 고르거나 불을 땀 다음에 불덩어리나 재를 긁어 널 때 쓰는 ‘ㄷ’자 모양의 기구. ㉞ 고물개·불곰배.

이와 같은 방언의 사전적 수용문제는 방언자료의 ‘정보화’⁴⁾, 지역문화의 기록, 사회·문화

4) 통합적 연구를 위한 말뭉치 구축과 관련된 방언자료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만든 <한국 구비문학 대계>와 한국방언자료집,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지역어 조사, 한국 방언검색 프로그램,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방언 검색 프로그램과 같은 자료 등이 있다(이태영 2008:332).

적 의사소통을 위한 방언의 수용이라는 세 부분을 모두 만족시킨다. 방언에 대한 학계의 관심 이후 수없이 많은 방언자료가 수집되었으나 그것의 체계적 구축 상태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수집된 방언자료가 개별 논문이나 자료집에 정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체계가 일률적이지 않아 자료의 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반해 풍부한 예문을 포함한 방언사전의 편찬은 방언자료의 체계화와 정보화에 기여한다. 또한 방언사전의 편찬은 그 자체가 지역문화의 기록이라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작업이다. 지역문화와 관련된 어휘만 주제별로 묶어서 사전으로 출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방언자료를 국어 사전에 수용하는 문제는 방언의 언어 정책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3.2. 언어자료의 해석

언어학은 기호 체계로서의 언어가 가지는 원리를 규명하고자 한다. 즉 무질서하게 보이는 언어현상에 내재해 있는 언어 원리를 찾는 것이 언어학의 주요 과제이다. 언어학의 하위 분야인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일반화된 원리로 제시될 때 언어학의 궁극적인 목적에 근접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연구는 현상에 대한 치밀한 기술과 언어자료의 체계화는 물론 이러한 자료에 대한 이론적 접근도 필요하다. 방언연구도 이와 마찬가지로 방언자료에 대한 정밀한 기술과 더불어 언어이론을 토대로 한 분석의 가능성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아래 (9)는 1950년 이후 이루어진 방언연구사를 정리한 기준이다. 반세기 동안의 방언연구는 다음의 분류 가운데 하나에 속하게 되며 이는 최근에 진행되는 방언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9) 방언연구사(곽충구 2002)

ㄱ. 방언학적 연구(지리적 연구)

방언차·방언분화	방언분화와 방언구획
언어지리학적 연구	사회방언학
대조방언학	

ㄴ. 일반언어학적 연구(개별 방언연구)

음성·음운
문법
어휘

이러한 연구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세부적인 접근 내용은 다르지만, 방언연구는 방언학적 연구와 일반언어학적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방언연구가 좀 더 완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9 ㄱ)과 (9 ㄴ)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9 ㄴ)과 관련된 방언연구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개별 지역 방언 연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정확한 언어자료의 조사와 그것의 체계화이다. 그러나 언어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을 고려해 볼 때 결국 방언연구도 독자적 언어체계로서의 개별 지역방언에 내재한 언어 원리를 규명해야 한다. 즉 어떤 지역의 특정 언어현상에 대해 논의할 때 그러한 현상과 관련된 방언자료의 정밀한 체계화는 물론 현상의 본질을 언어학적으로 일반화해 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방언자료에 대한 일반언어학적 접근은 개별 방언권 내의 전반적인 언어 특징을 살펴 그것을 보편화하는 방법도 있고, 기존의 이론적 가설을 전제로

방언자료를 해석하는 방법도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개별 방언에 대한 언어학적 접근이 통합적·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실상 어느 한 시점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논자들은 기존의 이론적 배경에 기대게 된다. 즉, 개별 방언연구에 구조주의 언어이론, 변형 생성문법, 그리고 최근의 최적성이론 등의 언어 이론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강원도 방언연구를 살펴보면 그 대부분은 구조주의적인 연구방법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리고 1968년 SPE 이후의 생성문법을 도입한 주목할 만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국어학계의 일반적인 연구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단선적 규칙적용이나 어휘음운론 등을 제외한 복선음운론적 접근은 일부 연구자에 국한되어 이루어진 것이 음운론 분야의 연구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언어 이론의 국내 도입 문제나 과정 등을 살피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넓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최적성이론을 방언연구에 적용할 가능성 즉, 방언연구의 새로운 연구방법론으로서의 적절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Prince/Smolensky(1993/2004)에서 비롯된 최적성이론(Optimality Theory, OT)의 핵심 내용은 위반 가능한 제약에 있다. OT에서 제약은 언어 보편적인 것이어야 하며 개별 언어는 특유의 제약 등급(ranking)을 갖는다. 따라서 한 언어의 문법은 곧 특정의 제약 순위이며 언어 상호간의 차이는 제약 순위의 차이이다. 결국 OT의 설명력은 언어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 타당한 제약의 설정에 있다.⁵⁾

OT에서 제약은 충실성(faithfulness) 제약과 유표성(markedness) 제약의 두 유형으로 분류되며 이들 두 제약의 상호 작용으로 다양한 음운현상을 설명하게 된다. 이 가운데 충실성 제약은 생성부가 제공하는 입력형과 평가부를 거친 실제 출력형 사이의 대응관계에 대한 제약이다. 이에 반해 유표성 제약이란 출력형 자체에 대한 평가를 담게 되므로 언어의 다양한 변이에 대한 설명력은 결국 이 유표성 제약의 타당성에 따라 그 설명력의 정도를 달리하게 된다. 이러한 유표성 제약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제약이 언어 보편적 특징을 드러내었는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설정된 제약이 상이한 음운현상 간의 공모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다음 (10)에 제시한 유표성 제약은 언어 유형론적으로도 보편성을 지닌 것이며 (10 가)은 활음화와 동일모음 탈락현상의, (10 나)은 자음탈락과 모음삽입의 공모 관계도 보여준다.

(10) 유표성 제약의 예

가. ONSET : 모든 음절은 음절 두음을 갖는다.

나. *COMPLEX : 음절은 음절초와 음절말에 최대 한 개의 자음만을 갖는다.

OT의 방법론에 의거한 강원도 방언연구의 예를 통해 이론 도입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김옥영(2005)는 방언차가 두드러지지 않는 개별 지역방언 자료에 대한 OT의 설명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옥영(2005)는 제약 기반의 최적성이론을 중심으로 ‘ㅎ’ 탈락 현상의 내재적 원리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논의 대상이 된 강릉지역어의 ‘ㅎ’ 탈락 현상은 ‘아홉[‘aop’ ~ ‘afop’]’, ‘종-은[čoin], 종-아[čoa]’ 등과 같이 수의적 현상과 필수적 현상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ㅎ’ 탈락 현상은 세 제약 VOP, AGREE(voice), MAX-IO의 대립에 의한 것이며 수의적 현상은 상위의 불완전 제약 순위(partial ranking)에서 비롯되는 것

5) 최적성이론의 핵심 내용은 김무림·김옥영(2009)를 기초로 정리하였다.

으로 분석하였다.⁶⁾

‘ㅎ’ 탈락 현상은 강릉 지역만의 특징이라고는 볼 수 없는 보편성을 띤 음성적·수의적 현상이다. 따라서 특징의 지역어를 논의 대상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이 현상은 한국어의 ‘ㅎ’ 탈락, 또는 탈락 현상 자체의 원리와 관련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에서 제안한 제약들은 한국어의 상위 제약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방언자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의적 현상에 대한 설명적 틀을 마련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방언차가 두드러진 언어현상에 대한 OT의 설명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김옥영(2006)은 최적성이론에 의거해서 강릉지역어의 음운탈락현상을 다룬 논의이다. 논의 대상이 된 음운탈락현상 가운데 자음군단순화는 지역에 따라 방언차가 큰 현상이며, 한 지역 내에서도 수의적 실현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체언에서의 ‘닭’, ‘흙’ 등과 같은 ‘리’의 자음군단순화는 ‘[달]~[닥], [흙]~[흑]’ 등의 실현을 보이는데 이는 방언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지역별 자음군 단순화를 설명하기 위해 김옥영(2006)에서 제시한 제약은 다음과 같다.

(11)*COMPLEX : 음절의 모든 위치는 하나의 분절음에만 연결된다.

MAX(-cor) : 입력부 어간의 [-cor] 자질을 가진 분절음(변자음)은 출력부에 대응하는 [-cor] 자질 분절음(변자음)을 가진다.

MAX(+son) : 입력부 어간의 공명성 분절음은 출력부에 대응하는 공명성 분절음을 가진다.

먼저 음절구조제약인 *COMPLEX는 국어에서 매우 지배적인 제약이므로 이 제약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두 자음 가운데 하나가 탈락하게 된다. 다음으로 제약 MAX(-cor)과 MAX(+son)는 자음군 ‘ㄸ, ㅌ, ㄴㅎ, ㄹ, ㄹㅇ, ㄹㅎ, ㄹㅇ, ㅃ, ㅃㅇ, ㅃㅎ, ㅃㅇ’ 가운데 [-coronal] 및 [+sonorant] 자질과 관련되는 분절음의 탈락금지제약이다.

자음군단순화와 관련되는 위의 제약들은 어떤 자음이 선택되느냐에 따라 제약의 순위가 결정되며 이를 통해 방언차를 살펴볼 수 있다. 다음 (12)처럼 개인 또는 지역에 따른 방언차의 원인을 제약 순위를 통해 알 수 있다.

(12) /닭/ → [달] ~ [닥]

가.

/닭/	*COMPLEX	MAX(+son)	MAX(-cor)	MAX
a. 달			*	*
b. 닥		* !		*
c. 닭	* !			

나.

/닭/	*COMPLEX	MAX(-cor)	MAX(+son)	MAX
a. 달		* !		*
b. 닥			*	*
c. 닭	* !			

세 번째로 OT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본질적 제약의 설정과 관련된 논의를 보도록 하

6) AGREE(voice) : 유성음 사이의 무성음은 유성음이 되어야 한다.

VOP(Voiced Obstruent Prohibition) : 장애음은 유성음이어서는 안 된다.

MAX-IO : 입력부의 모든 분절음은 출력부에 대응 분절음을 가진다.

자. 최적성이론에서의 제약은 언어현상의 동인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제약 기반 이론에 근거한 특정 언어현상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상의 원인이 되는 본질적인 제약을 찾는 것이다. 김옥영(2008a)는 강릉방언의 ㄴ-첨가 현상에 관한 것인데 그 제약 설정의 과정 자체가 ‘ㄴ-첨가’의 형태론적·음운론적 동인에 맞추어져 있다.

먼저 김옥영(2008a)는 ‘ㄴ-첨가’의 형태론적 동인을 ALIGN-R로 설명하고 있다. 이 제약 ALIGN-R(lexical morpheme, Syllable)은 입력부 어휘 형태소의 오른쪽 가장자리는 출력부 음절의 오른쪽 가장자리와 그 끝을 맞추어야 한다는 제약이다. 이 정렬제약 ALIGN-R로 인해 연음 현상이 아닌 자음의 첨가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속잎’이나 ‘봄여름’이 [소깍], [보며름]이 아닌 [송닙], [봄너름] 등으로 실현되는 데에는 이 정렬제약이 작용한다. 복합어의 후행 요소에 첨가되는 /n/은 선행 요소의 어휘 형태를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자음 첨가가 실현되지 않으면 선행 형태소의 음절 말음이 다음 음절 두음에 연음이 되어 그 형태가 바뀌게 된다.

‘ㄴ-첨가’의 음성적·음운론적 동인 즉, 논일[논닐], 막일[망닐], 가락엿[가랑녘] 등에서 첨가되는 자음이 ‘ㄴ’인 이유와 ‘ㄴ’ 첨가의 환경이 후행 요소가 /i, j/로 시작하는 복합어에 국한되는 원인도 제약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ㄴ’보다 공명도가 높은 ‘ㄹ’이 아닌 ‘ㄴ’을 첨가 자음으로 허용하는 이유는 SYLLCON로 설명하였다. SYLLCON는 음절 연결 A\$B에서 B는 A보다 더 큰 공명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제약이다. 또한 ‘ㄴ’ 첨가가 /i, j/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이유는 DEP[-pal]σ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DEP[-pal]σ은 음절 두음과 핵음(nucleus)이 [-palatal]인 음절에 자음이 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약이다. 이 제약은 복합어의 후행 요소가 /i, j/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숨웃, 밤알, 눈웃음, 물오리’ 등이 * [숨논], * [밤날], * [눈누습], * [물로리]’인 이유를 설명해 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이론적 틀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독특한 방언현상을 OT의 방법론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김옥영(2008b)는 강릉 방언의 절단현상을 대응이론으로 설명한 예이다. 강릉 방언에는 활용형의 일부가 잘린 형태와 원래의 어형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있다.

(13) 강원 강릉 방언⁷⁾

- ㄱ. 밥 먹었나?~밥 먹언? (밥 먹었니?)
 밭 다 땀나?~밭 다 맨? (밭을 다 매었니?)
- ㄴ. 혼자 다 하겠나?~혼저 다 하겐? (혼자 다 하겠니?)
 니가 할 수 있겠나?~니가 할 수 있겐? (네가 할 수 있겠니?)
- ㄷ. 맛이 있나?~맛이 인? (맛이 있니?)
 하낙두 읊나~하낙두 음? (하나도 없니?)

(13)은 형태론적 절단 현상으로 보이는 강원도 강릉 지역의 방언자료이다. 제시한 바와 같이 일정한 환경의 선어말 어미나 어간에 해라체의 의문법 종결 어미 ‘-나’가 연결될 때 어미 ‘-나’의 절단이 이루어진다. 초기의 연구에서는 (13)과 같은 현상을 대부분 ‘축약’으로 분석하였다. 그런데 음운론에서 말하는 ‘축약’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분절음이 일정한 음운 환경에서 하나의 분절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만약 ‘ㅅ+나→ㄴ’과 같은 축약 규칙을 설정한다면 ‘밥을 먹었나 보다’와 같은 경우에도 이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음

7) 이 현상은 평안 의주 방언의 ‘먹었네~먹언’, 함북 북부 방언의 ‘없습다(<없습니다)’, 황해도 방언의 ‘받안(<받았니)’ 등과도 관련된다.

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밥을 먹은 보다]와 같은 예는 실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쓰+나→ㄴ’은 축약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음운론적 일반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기존의 방법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의 방언자료는 OT의 대응이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14) 출력형과 절단형의 대응과 제약

ㄱ. 대응 관계

입력형 :	/먹-었-나/
	IO-충실성 제약 ↓
출력형 :	[머건나] ⇔ [머건]
	BT-동일성 제약

ㄴ. 제약

IDENT-BT : 출력부(어기, Base)와 절단형(Truncated Form)의
대응 요소들은 자질 [F]에 대해 같은 값을 가진다.

이러한 형태론적 절단 현상의 원리를 대응이론⁸⁾으로 논의한 결과, 절단형은 출력형과 출력형의 동일성 제약으로 인해 입력형이 아닌 출력형과의 대응 관계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실현된다(Benua 1995)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최적성이론에 따른 방언연구의 몇 가지 시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OT의 방법론에 의해 방언차가 거의 없는 지역방언이나 방언차가 뚜렷한 방언뿐만 아니라, 형태론적 또는 음운론적 동인과 관련된 경우,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독특한 방언현상 등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다. 이와 같이 방언연구는 기존의 이론적 가설을 토대로 한 일반언어학적 접근도 이루어져야 특정 현상의 본질적 동인이나 내부 원리뿐만 아니라 방언차의 원인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 따라서 방언연구는 자료의 구축 및 체계화와 이론적 접근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방언연구에 최적성이론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론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도입하는 과정에는 연구자들이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기 마련이지만 특히 OT와 관련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핵심 과제이다. 첫째, 특정한 언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한 제약이 언어 보편적 측면에서도 적절한 것인지 논증하여야 한다. 이는 한국어 내에서의 다양한 언어 현상, 방언차가 확연한 방언 자료 등은 물론 언어 유형론적으로도 증명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어의 언어현상을 설명하는 데 OT의 방법론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대부분 굴절어를 바탕으로 전개된 외국 이론이 교착어인 한국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나 수정해야 할 사항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4. 맺음말

어느 시대든 그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체계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러한 지배적 가치체계에 항상 역사적·철학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지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고유의 것’, ‘다양한 것’이라기보다는 ‘중양이 아닌, 열등한, 세

8) McCarthy/Prince(1995)에서 비롯된 대응 이론은 최적성이론의 초기 형태에서 좀 더 발전한 이론이다.

련되지 못한' 것이다. 분명 현실의 세계관은 인간 본연의 정신적 가치보다는 자본의 논리에 따르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대중적 인식은 방언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표준어가 아닌', '교육받지 못한', '촌스러운' 등으로 '방언'을 규정한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방언연구자는 언어 연구 대상으로서의 방언뿐만 아니라 지역문화로서의 방언도 연구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한 언어의 독자적 언어체계인 개별 지역방언 연구의 필요성을 논하고, 덧붙여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검토해 보았다. 먼저, 2장에서는 지역문화의 기록과 언어현상의 이해라는 두 관점에서 지역방언 연구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방언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구현되는 본연의 언어 상태임과 더불어 각 지역 특유의 문화현상에 대한 반영물이다. 다음, '3장. 지역방언의 연구방법론 모색'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새롭게 추구 할만한 연구방법론을 생각해 보았다. '3.1. 방언자료의 수집과 체계화'에서는 구술발화집과 사전의 형식으로 방언자료를 구축했을 때의 효율성을 논하였다. 그리고 '3.2. 언어자료의 해석'에서는 최적성이론을 방언자료 해석에 도입했을 때의 설명력을 살펴보았다.

강원도 방언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방언 연구에 대해 살펴본 이 연구는 전국적인 규모의 방언연구 현황까지는 검토하지 못하였다. 또한 개별방언 가운데에서도 사회방언의 영역도 다루지 못하였고, 지역방언이 반영된 문헌자료에 대해서도 논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역방언 연구의 본질적인 의의를 되짚어 봄으로써 지방연구자의 정체성 문제를 숙고하게 되었다. 또한 아직 국어학계에서는 그 수용의 폭이 넓지 못한 최적성이론의 설명력을 검토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 참고문헌

- 곽충구. 1995. 황해도 및 강원도 북부지역 친족명칭의 지리적 분화와 그 역사성, <대동문화 연구> 제30집. 성균관대. pp. 309-332.
- 곽충구. 2002. 방언연구사, <국어국문학회 50년>. 태학사. pp.423-480.
- 곽충구. 2005. 비교방언론, <방언학> 창간호. 한국방언학회. pp.73-102.
- 곽충구. 2007. 방언의 사전적 수용, <국어국문학> 제147호. 국어국문학회. pp.193-219.
- 국립국어원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 2006. <지역어 조사 질문지>. 태학사.
- 김기설. 1994. 강릉지역 지명 유래의 유형 고찰, <강원민속학> 10. 강원도민속학회. pp.43-82.
- 김무림·김옥영. 2009. <국어음운론>. 새문사.
- 김봉국. 1998. 삼척지역어의 성조 연구. 석사학위논문(서울대).
- 김봉국. 2000. 강릉·삼척 지역어의 활음화, <한국문화> 26.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pp.1-33.
- 김봉국. 2001. 강릉·삼척 지역어 ‘-어/-아’계 어미의 교체와 음운현상, <어문연구>(여름호) 29-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71-92.
- 김봉국. 2002a. 강원도 남부지역방언 어간말 자음군의 음운론, <국어학> 39. 국어학회. pp.173-200.
- 김봉국. 2002b. 강원도 남부지역방언의 음운론, 박사학위논문(서울대).
- 김봉국. 2005. 음운 조사 질문지, <방언학> 2. 한국방언학회. pp.139-169.
- 김봉국. 2007. <강원 원주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 김봉국. 2008. <강원 양양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 김옥영. 2005. ‘ㅎ’ 탈락현상 연구: 강릉 지역어를 중심으로, <언어> 30-4. 한국언어학회. pp.631-650.
- 김옥영. 2006. 강릉지역어의 음운탈락현상 연구 -최적성이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서강대).
- 김옥영. 2008a. ㄴ-첨가 현상의 제약: 강릉 지역어를 대상으로,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14-1. 한국음운론학회. pp.53-75.
- 김옥영. 2008b. 형태론적 절단 현상과 대응 이론, <형태론> 10-2. 박이정. pp.335-351.
- 김인기. 2004. <강릉방언총람>. 한림출판사.
- 문효근. 1969. 영동방언의 운율적 자질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 22.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pp.1-17.
- 문효근. 1972. 영동 북부방언의 운율음소, <연세논총> 9-1. 연세대. pp.1-27.
- 박성중. 1998. 강원도 방언의 성격과 특징, <방언학과 국어학>. 태학사.
- 박성중. 2008. <강원도 영동지역의 방언>. 제이앤씨.
- 박성중·전혜숙. 2009. <강릉 방언사전>. 태학사.
- 방언연구회. 2001. <방언학 사전>. 태학사.
- 이경진. 2002/2003/2004. <강원도 영동남부지방 방언>. 예문사.
- 이기갑. 2008. 국어 방언연구의 새로운 길, 구술 발화, <어문론총> 제49호. 한국문학언어학회. pp.1-21.
- 이돈주. 1998. 땅이름(지명)의 자료와 우리말 연구, <지명학> 1. 한국지명학회. pp.55-73.

- 이병근. 1973. 동해안 방언의 이중모음에 대하여, <진단학보> 36. 진단학회. pp.133-147.
- 이상복. 1992. 강원도 방언연구의 현황과 과제, <강원문화연구> 11.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pp.163-170.
- 이익섭. 1972a. 영동방언의 Suprasegmental Phoneme 체계, <동대어문> 2. 동덕여대 국어국문학과.
- 이익섭. 1972b. 강릉방언의 형태음소론적 고찰, <진단학보> 36. 진단학회. pp.97-119.
- 이익섭. 1974. 영동방언의 경어법 연구, <논문집> 6.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pp.49-67.
- 이익섭. 1976. 아재고, <동아문화> 13.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pp. 33-58.
- 이익섭. 1981. <영동 영서의 언어분화-강원도의 언어지리학>. 서울대출판부.
- 이태영. 2008. 한국어 정보화의 방향과 과제, <한글> 282. 한글학회. pp. 317-341.
- 전성탁. 1977. 강릉 방언의 형태론적 고찰, <춘천교대논문집> 17. 춘천교대. pp.61-86.
- 최명옥. 1998. 현대국어의 성조소체계, <국어학> 31. 국어학회. pp.23-52.
- 최명옥. 2005. 국어방언학의 체계, <방언학> 창간호. 한국방언학회. pp.35-7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실. 1980. <한국 방언조사 질문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글학회 편. 1966. <한국 지명 총람>(서울편). 한글학회.
- 한영균. 1992. 강원도 방언연구의 현황과 과제-방언구획과 음운론적 특징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방언연구-그 현황과 과제->. 경운출판사.
- Benua, Laura. 1995. "Identity effects in morphological truncation". In Jill Beckman, Laura Walsh Dickey, and Suzanne Urbanczyk, Amherst, ed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8. MA: GLSA.
- McCarthy, John, and Alan Prince. 1995. "Faithfulness and Reduplicative Identity". In Jill Beckman, Laura Walsh Dickey, and Suzanne Urbanczyk, Amherst, ed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8. MA: GLSA.
- Prince, Alan, and Paul Smolensky. 1993/2004. *Optimality Theory: Constraint Interaction in Generative Grammar*. Oxford: Blackwell.

지역방언 연구에 대하여

최중호(동의대)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역 방언의 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발표문을 잘 읽었습니다. 발표자는 강원 방언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하고 또 앞으로 방언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지역 방언의 새롭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발표문의 제목은 "지역방언 연구에 대하여"입니다. 발표문의 내용은 지금까지 방언 연구의 성과물과 조사 방법론의 정리, 그리고 최적성 이론에 바탕을 둔 해석 문제입니다. 우문이지만 발표문의 제목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발표문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또한 제목에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발표자의 입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발표자가 생각하는 지역방언 연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방언 자료의 체계화를 주로 사전의 활용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의 등재와 표제어 문제에 대해서만 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를 통해 방언의 체계화를 이룰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3. 언어 자료의 해석에서는 거의 최적성 이론을 통해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상 앞에서는 기존 이론의 해석을 주로 하였고, 해석에서는 대부분을 최적성 이론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이 방언 해석에 있어서 최적성 이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의 문제를 논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방언 연구의 전체적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터넷 토론 게시판 악성 댓글의 범위와 유형

안태형(동아대)

차 례

1. 머리말
 2. 악성 댓글의 범위
 3. 악성 댓글의 유형
 4. 맺음말
- 참고문헌

1. 머리말

댓글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개인적인 관심 사안 혹은 사회적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이나 소감을 표현하는 상호작용적·쌍방향적 의사소통방식이다(조국현, 2007). 댓글은 사이버 상의 토론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 건전한 여론을 주도적으로 형성해 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댓글의 이런 긍정적인 기능과 함께 다양한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특히, 상대에 대한 욕설과 비방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성숙하지 못한 댓글 문화로 ‘비판’이 아닌 ‘비난’이 난무하고,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남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댓글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건전한 놀이 공간으로 이용자들에게 즐거움을 주어야 할 인터넷 공간이 악성 댓글 때문에 이용자들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악성 댓글을 줄이고, 올바른 댓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은 악성 댓글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한다. 본 연구는 악성 댓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악성 댓글의 범위를 밝히고, 악성 댓글을 유형별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언어별 특성, 사이트의 특징, 세대/사회적 계층/남녀 차이 등의 여러 변이에 따른 댓글의 대조언어학적-사회언어학적 세부 연구 및 코퍼스언어학적 계량 연구를 시도하기에 앞서, 텍스트 종류로서의 댓글의 특성에 대한 인식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댓글 자료는 3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들머리 사이트(포털 사이트, 시작 사이트) ‘다음, 네이버, 야후’와 인터넷 언론(언론사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및 독자적인 인터넷 언론사)사이트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인스닷컴(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지상파 방송 중 토론 프로그램 방송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 중인 MBC 100분 토론, KBS 심야 토론, SBS 시사토론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류하였다. 이 사이트들은 이용자가 많고, 시사성에 따른 의견 대립이 뚜렷하여 댓글이 많기 때문이다.

2. 악성 댓글의 범위

2.1. 선행연구

악성 댓글에 관한 연구는 악성 댓글을 줄이거나 근절하기 위한 교육적 논의와 악성 댓글을 작성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중 악성 댓글의 범위와 댓글의 유형을 언급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박진애(2006)는 악플의 개념을 인터넷이 상용화·보편화되면서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 쓰이는 신조어로서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려진 자료에 꼬리말을 달 수 있는 경우 악의적인 욕설이나 비방 댓글을 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악성 댓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이들을 ‘악플족’ 혹은 ‘악플러’로 네티즌들이 지칭한다고 언급하였다.

조수선(2007)은 기사 댓글을 중심으로 댓글을 유형화 하였다. 기사 댓글을 댓글 게재의 적극성, 기사 이해도, 상대방의 존중도를 기준으로 삼아 정치적 주장형, 사회적 관찰형, 시민 참여형, 자기 미디어형으로 기사 댓글을 나누었는데, 정치적 주장형과 자기 미디어형은 상대방의 존중도가 낮은 것으로 이들이 악성 댓글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김재중(2007)은 악성 댓글을 욕설이나 모함 등 근거 없는 각종 모욕 또는 명예훼손 행위가 각종 뉴스에 등장하는 개별 사건마다 인터넷이용자들이 댓글의 형태로 제시하는 글이라고 보았다.

김민기 외(2008)는 악플을 타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 사생활 침해, 개인 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폭력이나 사행성 조장, 성매매 알선, 음담패설, 광고, 도배글 등으로 정의하였다.

이성식(2008)은 악성 댓글에 대한 피해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악성 댓글에 대한 개념 정립은 따로 하지 않고, 언어 폭력의 일부로 악성 댓글을 처리하였다. 그리고 악성 댓글의 피해를 유형별로 제시하였다.¹⁾

한성일(2009)은 인터넷 댓글의 실태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인터넷 댓글의 비방성에 관여하는 요인으로 실명여부, 게시판의 특성, 댓글의 수행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악성 댓글의 기준으로 비방성의 유무를 설정하였다.

위의 연구들에서 제시된 악성 댓글의 범위를 살펴보면 욕설, 비방, 사생활 침해, 개인 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폭력, 사행성 조장, 성매매 알선, 음담패설, 광고, 도배글 등을 악성 댓글로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2. 악성 댓글의 범위

악성 댓글²⁾을 줄여 ‘악플’이라 부른다. 악성 댓글(악플)은 국어사전이나 백과사전에는 아

1) 이성식(2008)은 인터넷 게시판의 피해 유형이 단순한 욕설 20.9%, 게시판 도배 12.9%, 명예훼손과 비방 9.2%, 허위사실 유포 6.0%, 인신 공격 또는 협박 3.6% 순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2) ‘댓글’은 사전에 등재된 단어로, 국립국어원 누리집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댓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댓글 : 「명사」 『컴퓨터』 인터넷에 오른 원문에 대하여 짚막하게 답하여 올리는 글. ≒ 답글

댓글을 달다/댓글을 올리다/그 사건에 대한 인터넷 기사가 뜨자마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국립국어원 누리집 표준국어대사전>

※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는 댓글이라 부르는데, ‘덧글’이란 덧붙이는 글을 의미한다. 간혹 리플(reply)을 댓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리플은 두 가지 해석 가능한데, 하나는 ‘덧붙이는 글’이고 다른 하나는 ‘답변하는 글’이다. 즉, 덧붙이는 글은 ‘덧글’로 답변하는 글은 ‘답글’로 보면 된다. ‘댓글’은 덧글과 답글이 합쳐서 된 것이다. 따라서 리플은 ‘덧글’로 순화시켜서 쓰는 것이 좋다

직 등재되지 않은 단어로 들머리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다.

(1) ㄱ. 네이버 백과 사전

악성 댓글(惡性댓글) 또는 악성 리플(惡性reply, 간단히 악플)

상대방이 올린 글에 대한 비방이나 헐담을 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말한다.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을 악플러(←악플+er)라고도 한다.

ㄴ. 다음 국어사전

악플 ←惡+reply <국립 국어원> 2004년 신어 자료집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헐담하는 내용을 담아서 올린 댓글.

* 그러나 이들이 항상 암전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악성 답글(이른바 ‘악플’)로 사진을 올린 상대를 은근 슬쩍 놀려 주기도 하고, 특정 사이트를 집단적으로 공격해 마비시켜 버리는 등 사이버 테러를 감행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출처 : 오마이뉴스. 2002. 12. 23.

* ‘원조 교제’가 아니냐는 비난도 받았지만 점차 연재가 이어지며 드러나는 주인공들의 순수함에 ‘악플’은 싹 들어가 버렸다.

출처 : 동아일보. 2004. 2. 10. C7면

위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악성 댓글은 비방하는 내용이나 헐담하는 내용을 담은 댓글이라 할 수 있다. 다음(Daum)에서 검색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국어원에서 2004년 발행한 신어 자료집에 악플이라는 신어가 등록되어있으며, 그보다 이전인 2002년 오마이 뉴스에서 악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기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아일보에서도 2004년 악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악성 댓글(악플)이란 용어를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악플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2002년 이전부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악성 댓글의 내용과 유형을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1> 사이버 상 언어폭력의 유형(정보통신 윤리위원회, 2002)

유형	내용
욕설	자기와 생각이 맞지 않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나 단순히 재미로 욕설을 하는 경우
비방(명예훼손)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고 헐뜯는 행위, 특히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약점을 헐뜯는 글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
도배	같은 내용의 욕설이나 의미 없는 글들을 연속해서 게시하여 다른 사람이 의견전달을 할 틈을 주지 않는 것
성적 욕설	성에 대한 노골적인 욕설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
유언비어	사실이 아닌 거짓 소문을 퍼뜨려 상대방을 당혹하게 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

<표-1>은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서 2002년 규정한 사이버 상 언어폭력의 유형이다. 언어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유형과 내용을 살펴보면 악성 댓글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들머리 사이트 다음(Daum)의 게시판 운영 원칙과 조선일보 토론 게시판 운영 원칙을 살

피보는 것도 악성 댓글의 범위와 유형을 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2) ㄱ. 다음 게시판 운영 원칙

- 개인정보의 유포
- 확인되지 않은 소문의 유포로 타인의 권리 침해 또는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는 내용
- 범죄 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 욕설, 비속어 사용 및 특정대상을 비하하는 내용
- 상업성 광고글
-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글
- 기사, 사진, 동영상, 음원, 영상물 등 저작권을 보호받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한 경우
-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 토론방 성격이나 원 게시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단순텍스트의 반복적인 게시
- 기타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위배되는 글

ㄴ. 조선일보 토론 게시판 이용 원칙

- 개인 정보(실명, 상호명, 사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유포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 확인되지 않은 소문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범죄 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 되는 내용
- 욕설 또는 게시글 도배 행위, 게시판의 성격과 다른 글로 다른 사용자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경우
- 상업성 광고글(전화번호, 사이트주소, 개인 계좌번호 문구가 있는 경우 포함), 또는 악성 코드나 스크립트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
-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가 직접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경우
-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위에 제시된 사이트를 포함하여 게시판을 운영하는 모든 사이트에는 운영 원칙이 있다. 게시판 운영 원칙은 게시글, 답글을 포함한 모든 게시물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게시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각 사이트의 게시판 운영 원칙과 <표-1>을 참고하여 악성 댓글의 범위와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악성 댓글은 상대를 비방하거나 저주 혹은 협박의 내용이 있는 댓글, 사회 통념에 위배되는 내용(성적 표현)을 담은 댓글, 혹은 게시판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댓글로 다음과 같이 유형화 할 수 있다.

(3) ㄱ. 비방 댓글

- 유언비어, 인신공격 및 비방성 댓글
- 욕설 및 욕을 변형한 단어가 포함된 댓글
- 타인 또는 타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

ㄴ. 저주협박 댓글

- 폭력적인 표현, 상대에 대한 저주 등 혐오감을 주는 댓글
- 상대를 협박하는 댓글

ㄷ. 성적 표현 댓글

- 음란한 표현의 댓글 또는 성적 표현의 댓글

- ㄹ. 게시판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댓글 (게시글과 관련 없는 댓글)
 - 도배 및 전 게시판에 중복해서 올리는 댓글
 - 말이 되지 않는 단어의 조합 및 장난성 댓글
 - 행운의 편지
 - 특정업체 상품소개 및 홍보 댓글
 - 음란 사이트, 윤락행위 홍보 댓글

3. 악성 댓글의 유형

악성 댓글은 댓글의 내용, 비방 대상, 표현 방법을 기준으로 하위 부류로 나눌 수 있다.

3.1. 내용에 따라

악성 댓글을 내용에 따라 나누면 상대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비방 댓글, 상대를 저주하거나 폭력적인 언어로 상대를 위협하는 저주·협박 댓글, 노골적인 표현으로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성적 표현 댓글, 광고나 행운의 편지 등의 게시글과 관련 없는 댓글로 나눌 수 있다.

3.1.1. 비방 댓글

특정 대상에 대한 비방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악성 댓글이다. 비방(誹謗)은 ‘남을 비웃고 헐뜯어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에 대한 욕설, 근거 없는 비난, 폄하, 명예 훼손, 인신 공격, 조롱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비방의 내용은 범위가 넓고, 비방의 정도가 다양하며, 비방성의 유무 판단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댓글을 읽는 이가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글을 비방글로 처리하였다.³⁾

- (4) ㄱ. d : 자살까지도생각? 너 좇나 소심한새끼냐?ㅋㅋㅋㅋ 내참이해가안간다. 니가 아니면 아닌거지 참 바보도아니고;; 70.49.***.*** 17:09
- ㄴ. 양유진 uou*** : 저런 경찰이 바로 한국경찰 본래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조시대부터 일제시대 그리고 지금까지 전통적인 모습이죠..봉사하려는 공권력의 개념이 아니라 서민 뜯어 건수 챙겨먹는 생리를 가지고 있죠. 경찰 수사권 반대하시면 됩니다. 10.03.15 17:32
- ㄷ. 에헤요 juke**** : 이넘은 그저 하루하루 똥만드는 기계일 뿐.. 10.03.15 15:41

(4)ㄱ은 욕설이 들어있는 비방글이다. 댓글의 수집 과정에서 욕설이 포함된 댓글이 많이

3) 한성일(2009)에서는 비방성의 기준을 근거 없는 비난, 비하, 폄하로 제시하였다.

비방성	기준	댓글
있음	근거 없는 비난, 비하, 폄하가 들어 있음	가진 것 개뿔도 없으면서...서민경제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철저한 이기주의 도를 넘는 허영심...잇는척...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한다는 사고방식...고급외제차선호
없음	비난, 비하, 폄하하는 내용 없음	그런날이 빨리와야 에너지절약 몸소실천하는 다수의시민을 볼수있을텐데말이져

발견되었는데, 욕설은 비방글 외의 다른 내용의 댓글에서도 두루 발견되었다. 욕설은 상대에게 불쾌감을 불러 일으키지만, 단순히 욕설이 섞여 있는 것만으로는 악성 댓글이라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친분이 있는 사이에 욕설이 사용될 경우 그것은 악의적인 목적에서 사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일상적으로 욕설을 종종 사용하는 것이기에 욕설만으로 악성 댓글이라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다만, 상대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악성 댓글의 경우 상대를 비난하는 내용과 함께 욕설이 사용된 경우가 많으므로, 비방의 내용 중 욕설이 섞여 있는 것을 악성 댓글로 처리하였다. (4)ㄴ은 경찰을 서민을 착복하는 존재로 표현하여 경찰을 비난하고, 폄하하여 표현하였다. (4)ㄷ은 게시글을 작성한 상대를 인신공격하고 있다.

3.1.2. 저주·협박 댓글

게시글에 등장하는 대상이나 게시글을 작성한 상대를 저주하거나, 협박 또는 위협하는 내용의 악성 댓글도 있다.

- (5) ㄱ. hkfdkd cbd**** : 이런게 과속하고 신호위반하다 가로수 들이박고 전복되면 경찰부러꺼 아니야! 살려 달라고... 애도 공동묘지갈날 얼마 안남은듯...하는 짓거리를 봐서는 올해 2사분기안에... 10.03.15 15:22
- ㄴ. 복당놈 cns**** 난 니네가 정말 싫어. 스티핀공청소기로 짝 빨아들여 종량제 봉투에 털어 넣어 버리고 싶다. 태평양 무인도에 깊이 2km 지하에..... 다시 기어 나올까봐..... 그러니까 이딴글 올리지마. 10.03.19 16:34
- ㄷ. goldmansaks tsy**** : 반대를 누른 인간들 대가리 한번 뽀개보고 싶다 10.03.08 13:32

(5)ㄱ은 교통 경찰의 단속에 걸린 게시글 작성자가 자신을 단속한 경찰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운전자들을 단속하였고, 자신은 함정 단속에 걸린 것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에 달린 댓글이다. 댓글 작성자는 게시글 작성자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의 내용이 담긴 악성 댓글을 작성하였다. (5)ㄴ은 게시글 작성자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땅에 묻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악성 댓글이다. (5)ㄷ은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묻는 토론 게시판에서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내용의 악성 댓글이다.

3.1.3. 성적 표현 댓글

노골적인 성적 표현으로 상대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읽는이가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댓글이다.

- (6) ㄱ. 조신부 : 글쓴분 근데 웬지 업소아가씨같은 느낌... 211.202.***.*** 2010.03.14 02:02
- ㄴ. LOVE IS 1919**** : 젓녀옥은 시집도 못간년이 지가 강간이나 성추행을 당해보고 싶어서 지 탈하고 있는겁니다. 이해해 줍시다. 10.06.21 12:15
- ㄷ. 방랑자 bohemi**** 그래요? 그렇다면 이번엔 신사임당을 창녀로 만들어 볼까요? 신사임당이 온동네 남자들과 성관계를 갖고 율곡은 애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생아 정도로 그려보죠. 당신들의 어머니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그런 상상들을 해 보시구요... 참 재미 있겠습니다. 10.06.05 10:55

(6)ㄱ은 게시글 작성자에게 야간 업소에 다니는 여성의 분위기가 풍긴다고 표현하였다. (6)ㄴ은 정치인의 이름을 변형하여 성적으로 표현하였으며, 강간이나 성추행을 당해보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는 성적 표현을 통해 상대를 비방하고 있다. (6)ㄷ 역시 노골적인 성적 표현으로 읽는이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댓글이다.

3.1.4. 게시글과 관련 없는 댓글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의 댓글도 있다. 이런 댓글은 게시글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게시판의 운영을 방해하고 게시판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이런 악성 댓글에는 특정 업체나 특정 사이트나 업체 광고, 성적 광고, 근거 없는 유언비어 등이 있다.

- (7) ㄱ. 004 예은이빠 : 주말에 심심하신 분 최신영화 공짜로 다운받아보세요!!가입하시면 최신영화 5기가 무료다운!!! <http://fdisk.co.cc>
- ㄴ. S*** : XXX하실 오빠 연락주세요. 22살이구요 아디 사계절 찾아주세요. 7만원에 콜 ^^; 03.10. 23:39
- ㄷ. abc초콜렛 a** : 서해 가지마세요. 기름유출과 중국의 똥물유입으로 수질도 개판이고 사기꾼도 너무 많고요~ 물맑고 사람좋은 동해가 짱입니다 10.03.14 22:14
- ㄹ. erin**** : 나도진짜안믿었는데20분내로다른곳에1번만올리면사랑하는사람에게사귀자고연락음 2010-03-15 16:22:59
- ㅁ 토박이님 |16:49 | : 북측은 6.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앞두고도 남한 당국이 6.15 정신을 부정, 탄압하고 있다며 투쟁으로 맞설 것을 주문하는 내용의 팩스를 종교·사회단체 43곳에 일제히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최근에는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이 정부의 4대강 사업 반대를 선동하는 팩스를 경북 군위군 지보사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앞서 정부의 천안함 대북조치 직후인 5월 말에도 우리 측 천태종, 진각종, 태고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K) 등 종교·사회단체와 대북 교역업체에 천안함 사태가 날조됐다는 주장을 담은 팩스와 이메일을 보냈다!

(7)은 게시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의 댓글들이다. (7)ㄱ은 특정 사이트를 광고하는 댓글이다. (7)ㄴ은 성적 광고를 목적으로 작성된 댓글이다. (7)ㄷ은 게시글과 아무 관련이 없는 댓글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7)ㄹ은 행운의 편지라고 불리는 글이다. 같은 내용을 다른 게시글이나 사이트에 복사하여 올리게 유도하고 있다. (7)ㅁ은 진보 교육감의 정책을 비판하는 게시글에 달린 댓글이다. 대북 관련 사실들을 제시하여 댓글을 작성하였으나 사실이 확인된 내용이 아니고, 게시글과는 관련성이 없다. 이런 유형의 댓글은 특정 기사문이나 자신이 알리고 싶은 내용을 게시글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복사하여 무작위로 댓글을 쓰는 특징을 보인다.

3.2. 비방대상에 따라

악성댓글은 비방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게시글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대상을 비방하는 댓글, 게시글 작성자를 비방하는 댓글, 댓글 작성자를 비방하는 댓글, 게시글 작성자 혹은 댓글 작성자도 아니고, 게시글에 언급되지도 않은 제3의 대상을 비방하는 댓글로 나눌 수 있다.

3.2.1. 게시물에 언급된 대상

게시물에 언급된 인물이나 대상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댓글이다.

- (8) ㄱ. 오마르왕자 hyewons**** : 깡죽계의 1인자 윤도현 2인자 김제동 3인자 장동혁 10.03.08 22:46
- ㄴ. 헤르메스 aug**** : 공무원 비리 떠드는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개그맨들이 방송이라고 함부로 떠드는것 글썬..정작 본인이 공무원 되면 더 할 넘들일걸. 10.03.08 20:32
- ㄷ. 피아문 pia**** : 짤쉐가 야비한 썩기들인줄 몰랐나여? 10.03.15 19:31
- ㄹ. 이은정 peo**** : 그럼 놀러오는 사람은 안 잡고 일하러 오는 사람만 잡으리~~~ 얕튼 개념 씹싸먹은 여자랑 사귀는 개념없는 남자가 올린 글 답다~~~ 10.03.15

(8)ㄱ,ㄴ은 개그 프로에서 교육계의 비리를 풍자한 개그맨에 대한 게시물에 달린 댓글이다. 교육 비리를 풍자한 개그맨을 깡죽계의 0인자라고 조롱하고, 자신이 공무원이 되면 더한 비리를 저지를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게시물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하여 비방하는 댓글이다.

(8)ㄷ,ㄹ은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경찰에게 범칙금을 받은 운전자가 자신이 억울하다고 올린 게시물에 달린 댓글이다. (8)ㄷ은 운전자들이 교통 법규를 잘 지키도록 지도하기 않고, 자신들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단속을 우선시하는 경찰을 비난한 글이다. 반면 (8)ㄹ은 운전자(댓글 작성자)와 같이 동승한 여자 친구가 경찰의 단속을 비난한 발언을 문제 삼아 게시물에 언급된 운전자(댓글 작성자)의 여자 친구를 운전자(댓글 작성자)와 함께 비난하고 있다.

- (8) ㄱ. 호정진 : 조형곤님 덕분에 한나라당 표가 다 날라갈 걸 생각하니 넘 기뻐서 잠이 안옵니다. 화이팅! 2010.03.12 12:56
- ㄴ. 이승진 : 너무 한거 아닙니까? 조형곤씨 같은 동네바보형을 토론자로 내밀고 백분토론 질ئات서 못보겠습니다. 2010.03.12 14:26

(8)ㄱ,ㄴ은 ‘문화방송 100분 토론 한줄 참여 게시판’의 댓글이다. 이 게시판은 게시글이 없고, 각 주별 방송 편에 짧은 댓글을 작성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 주에 방송된 토론 주제가 짧게 소개되어 있는 게시글이 있지만, 토론 내용이나 토론자의 의견은 소개되지 않는다. 게시글만 보고 게시물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비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토론 과정을 시청한 후 게시판에 댓글을 올리기에 TV에서 방영된 토론자들의 토론이 게시글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토론자들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것도 게시물에 등장하는 인물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3.2.2. 게시물 작성자

악성 댓글의 비방 대상이 게시물 작성자인 경우이다.

- (9) ㄱ. 박준석 police**** : 한심하다 못해 불쌍하군요. 선진국에서는 시민이 자원봉사로 횡단보도에 서있기도 합니다. 일시정지 안하고 가면 바로 경찰차가 쫓아와서 단속하구요. 당신이 잘못된걸 무슨 개소리 하는지 모르겠네요. 10.03.15 15:37

- ㄴ. 또치 seowonmed**** : 젠장 왜 써... 잘 못 인정 했 으 면 그 것 으 로 됐 지... 무슨 소리 듣기 원하나...남이 보든 안 보든 신호 잘 지켰으면 돼잖아..... 젊은 자식이 상식 없이...니 학창 시절에 도덕에서 "신독"도 안 배웠냐.... 다음에서 찾아봐.... 짜샤... 담부턴 이런글 쓰면 되진다.
10.03.15 19:00
- ㄷ. emfla dldydr**** : 정의에불타는여걸 서울역 노숙자 생활 많이 해서 머리가 좀 이상해 졌나.. 북한에서 살다가... 넘어온 간첩인가 ... 도대체 무슨 사회에 불만이 그리 많을꼬.... 멀쩡한 정신으로 살아라... 여기 오니까 이상한 놈들 참 많넹... 10.06.21 04:06

(9)ㄱ,ㄴ은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경찰에게 단속된 운전자가 자신이 억울하다고 올린 게시글에 달린 댓글이다. 댓글 작성자들은 게시글 작성자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게시글 작성자가 글을 쓴 의도는 자신이 실수로 법규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의 단속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리려 한 것이었다. 그러나 보기의 댓글들은 게시글 작성자에게 일방적인 비난과 협박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9)ㄷ은 ‘정의에 불타는 여걸’이라는 전자이름을 사용하는 게시글 작성자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자 게시글 작성자를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3.2.3. 댓글 작성자

댓글 작성자를 비방한 댓글도 있다. 게시글을 읽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적는 것이 댓글이다. 이런 댓글을 읽고 댓글을 작성한 사람을 비방하는 경우이다. 게시글의 성격에 따라 댓글에 댓글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 것도 있고, 댓글에는 댓글을 작성하지 못하게 한 게시글도 있다. 동일 기관의 홈페이지이더라도 어떤 게시글은 댓글에 댓글을 작성할 수 있고, 어떤 게시글은 댓글에 댓글을 작성하지 못 하도록 한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4)

- (10) ㄱ. 보통시민 nono**** : 장동혁.. 좌빨때문에 또 죽게 생겼군...사회현상 개그소재로 삼은거 가지고 마치 좌빨과 동지인양 선동해대는 일부 몰지각한 전라도인과 좌빨때문에 아까운 연예인 또하나 가게 생겼다..ㅋㅋㅋ 대학 등록금이 명바기때 갑자기 오른것도 아니고 공교육이 명바기때부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갑자기 그런 것처럼 선동해대는 꼴이 빨갱이라 불릴만하다..
10.03.08 10:50
- ㄴ. Carpe diem : enr*** : 너같이 보통사람 외치던 대통령이 있었지.....결국은 몇천억 해쳐먹고....지금 병원에 있다고 하던데.....내가보기엔 보통은 아닌거 같은데 따나라당 알바신가?
10.03.08 11:24
- ㄷ. 불혹 speed**** : 여기 눈멀고 귀쳐먹은 ㅂ추가요 10.03.08 11:13
- ㄹ. 덴드로 kay**** : 니 머리속에 그 허연건 순두부가 아니란다. 10.03.08 11:04
- ㅁ. 보통시민 nono**** : 아주 발악을 하는구나 빨갱이시킴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0.03.08 12:35

(10)은 개그 프로에서 교육계의 비리를 풍자한 개그맨에 대한 게시글에 달린 댓글들이다.

4) 문화방송 100분 토론 시청자 게시판, 한국방송 심야토론 시청자 게시판, 경인방송 시사토론 시청자 게시판 등은 댓글에 댓글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같은 사이트일지라도 게시판에 따라 상황이 다른데, 문화방송 100분 토론 한줄참여 게시판, 한국방송 심야토론 한줄참여 게시판, 경인방송 시사토론 금주주제 게시판 등은 댓글에 댓글 작성이 불가능하다.

(10)ㄱ은 교육계를 풍자한 개그맨을 지지하는 내용을 쓴 게시글 작성자를 좌빨이라 칭하고, 정부의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한 댓글이다. (10)ㄴ, ㄷ, ㄹ은 (10)ㄱ의 댓글 작성자(보통시민)에 대한 댓글로 작성자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댓글이다. (10)ㄴ은 자신의 글(보통시민)에 비방의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Carpe diem, 불혹, 텐드로)에게 다시금 비방의 글을 올린 것이다. 이들은 댓글 작성자에 대한 비난과 조롱의 악성 댓글을 작성한 사례이다.

3.2.4. 제3의 대상

게시글에 등장하는 인물, 게시글 작성자, 댓글 작성자가 아닌 제3의 대상을 비방하는 댓글이다.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은 있으나 게시글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은 제3의 대상을 비방하는 것이다.

- (11) ㄱ. 놀자 nephili**** : 서울은 잘못된 판단으로 공 전 교육감을 선택을 했지만 경기도는 현명한 선택을 하여 김상곤 교육감을 뽑았네요 이번에는 선택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떨거지당 줄개들이 김상곤 교육감님이 하시는 일에 좀 판지즘 안걸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10.03.08 08:48
- ㄴ. 시민여자 ysda**** : 개곤 잘 봤는데 김제동 쫓아낸 후 개BS 안됩니다 10.03.08 10:00
- ㄷ. 검바위 jp3*** : 반대누르...취색히..5마리.. 10.03.08 09:36
- ㄹ. 빨간 고추밭 dlckdqr**** : 이런 글에 반대 누르는 놈들은 강남의 교장 놈들이냐? 아니면 돈 주고 올라간 장학사 놈들이냐? 아니면 알바 놈들이냐? 도대체 알수가 없네... 10.03.08 15:07

(11)은 개그 프로에서 교육계의 비리를 풍자한 개그맨에 대한 게시글에 달린 댓글이다. (11)ㄱ은 교육계의 비리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특정 정당과 그 정당의 지지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비방의 대상이 게시글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단체가 아니다. 게시글에는 교육계의 비리를 풍자한 개그맨의 이야기만 제시되었지 교육계의 비리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댓글에는 교육계의 비리와 연관된 인사들을 비방하는 것이다. 이는 게시글에 등장하는 대상, 게시글 작성자, 댓글 작성자에 대한 비방이 아닌 제3의 대상을 비방한 것이다. (11)ㄴ도 마찬가지로인데 특정 방송사를 ‘개’라는 접두사를 사용하여 비하하여 표현하였다. 역시 게시글에는 방송사가 언급되지는 않았는데, 댓글 작성자는 특정 방송사를 비방하는 표현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11)ㄷ, ㄹ은 찬성과 반대를 집계하는 토론 게시판에서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의 댓글이다. 일부 게시판은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 찬성자의 수와 반자자의 수가 집계되어 나타나는데, 이런 유형의 게시판에서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비방한 것이다.

3.3 표현방식에 따라

악성 댓글은 상대에 대한 정중성이 적은 글이다. 상대에 대한 정중성은 일반적으로 높임법에 의해 표현된다. 국어의 높임법은 일반적으로 격식체 4등급, 비격식체 2등급으로 알려져 있으나 댓글에서는 비격식적인 사용이 많을 뿐 아니라 ‘습니다’와 ‘요’가 뒤섞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하오체’는 ‘요’의 변형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아 등급을 따로 설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악성 댓글의 표현 방식을 나누는 기준을 높임 표현과 안 높임(반말)⁵⁾ 표현의

사용으로 정하였다. 악성 댓글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적은 글인데,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적은 표현인 비속어의 사용 유무도 표현 방식을 나누는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높임법과 비속어의 사용 유무에 상관없이 도배를 하나의 유형으로 삼았다. 도배는 게시판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댓글로 동일한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려 읽는이에 불편을 주기 때문이다. 도배는 댓글의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성 방법의 문제이기에 악성 댓글의 표현방식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3.3.1. +비속어 +반말

비속어를 사용하고, 상대 높임의 등분 중 비격식체의 해체를 사용하거나 어미를 생략하여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12) ㄱ. 칼잡이발도제 myungk**** : 저런 c방새는 갈아마셔도 시원찮을... 10.03.09 16:14
- ㄴ. goldmansaks tsy**** : 반대를 누른 인간들 대가리 한번 뽐개보고 싶다 10.03.08 13:32
- ㄷ. 사랑하며살자 parkjs**** : 내일은 교대하고 2-3일 있다가 온다고 해라 미틴님 10.03.15 11:28

(12)는 모두 밑줄 그은 비속어와 반말을 사용하여 상대를 비방하거나 불쾌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2)ㄱ은 ‘c방새’라는 비속어의 사용과 어미를 생략한 표현으로 상대를 비방하고 있다. (12)ㄴ은 ‘대가리, 뽐개다’라는 비속어와 반말을 사용하여 댓글을 작성하였다. (12)ㄷ도 ‘미틴님’이라는 비속어와 반말로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들은 모두 비속어와 반말을 사용하여 상대를 비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2. +비속어 -반말

비속어는 사용되되, 종결 표현은 상대 높임의 등분 중 비격식체(반말)을 제외한 나머지 상대 높임 등분을 사용한 댓글이다.

- (13) ㄱ. 항상 행복하세요 arcoiri**** : 만일 그 놈이 아이한테 해꼬지라도 했으면 어쩔뻔 했을까요? 자식있는 부모들은 공감할 겁니다. 그런 씹송들은 갈아마시기도 아깝고 갈아서 물고기 거름으로 줘야합니다. 10.03.09 15:39
- ㄴ. 시민여자 ysda**** : 개콘 잘 봤는데 김제동 쫓아낸 후 개BS 안됩니다 10.03.08 10:00
- ㄷ. social democracy jin**** : 교육계든 정치든 한국은 윗대가리들만 똑바로 하면 됩니다. 10.03.08 02:41
- ㄹ. 박준석 police**** : 한심하다 못해 불쌍하군요. 선진국에서는 시민이 자원봉사로 횡단보도에 서있기도 합니다. 일시정지 안하고 가면 바로 경찰차가 쫓아와서 단속하구요. 당신이 잘못한걸 무슨 개소리 하는지 모르겠네요. 10.03.15 15:37

(13)ㄱ,ㄴ,ㄷ,ㄹ은 비속어를 사용하였으나 반말은 사용하지 않았다. (13)ㄱ은 ‘씹송’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하였지만, ‘했을까요?’, ‘합니다’의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13)ㄴ,ㄷ

5) ‘안 높임’ 표현은 ‘하다체’와 어미 생략 등의 표현으로 높임의 표현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는 편의상 ‘반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도 마찬가지로인데,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이유는 비방의 대상과 글을 읽는 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비방의 대상이 되는 게시글의 등장인물이나 제3의 대상에게는 비속어를 사용하여 비방하였으나, 글을 읽는 이에게는 정중함을 갖추기 위해 반말을 사용하지 않고 높임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반면 (13)은 게시글 작성자를 비방하는 댓글이다. 이 경우 글을 읽는 이는 제3자가 대부분이겠지만, 게시글 작성자도 읽을 수 있다. 게시글 작성자에게 ‘개소리’라는 비속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지만 반말을 사용하지 않고 높임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격식을 갖추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심한 비속어와 반말 표현은 상대를 비방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이미지도 부정적으로 비춰지기 마련이다. (13)은 자신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이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3.3.3. -비속어 + 반말

비속어는 사용하지 않되, 종결 표현은 상대 높임의 등분 중 비격식체(반말)를 사용하거나 어미를 생략한 유형이다.

- (14) ㄱ. 일리 kpo*** : 아왜 팜플렛 네온사인이라도 걸어놓고 단속 합니다 하리?? 신호위반 한 니 운전습관이 잘못된걸 누굴탓해. 그리고 딱지는 놀러온 사람은 바주고 주민만 끈으리? 어디 머리에 서 나오는 개념이나!! 10.03.15 15:04
- ㄴ. puhaha supafi**** : 댁이나 여친이나 유유상종이구만.."오빠 우리 이제 이쪽으로 놀러오지말자 기분 상하게 놀러오는 사람들을 잡냐!!" 놀러오는 사람은 뭐 무법으로 다녀도 된다는 건가?? 10.03.15 12:28
- ㄷ. 박준석 police**** : 이 사람 분명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안볼거야. 세상 바라보는게 딱 뼈딱하거든. 내가 장담할 수 있어 10.03.15 15:47

(14)는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경찰에게 범칙금을 받은 운전자가 자신이 억울하다고 올린 게시글에 달린 댓글이다. (14)ㄱ,ㄴ,ㄷ 모두 비속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반말로 게시글 작성자를 비방하고 있다.

3.3.4. -비속어 -반말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고, 종결 표현도 상대 높임의 등분 중 비격식체(반말)을 제외한 나머지 상대 높임 등분을 사용한 댓글이다.

- (15) ㄱ. 양유진 uou*** : 저런 경찰이 바로 한국경찰 본래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조시대부터 일제시대 그리고 지금까지 전통적인 모습이죠..봉사하려는 공권력의 개념이 아니라 서민 뜯어 건수챙겨먹는 생리를 가지고 있죠. 경찰 수사권 반대하시면 됩니다. 10.03.15 17:32
- ㄴ. 김기범 : 관심끌려고 이런글 올리는 분들이 있죠..인생이 불쌍해서 댓글 하나 달고 갑니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불쌍해서 잠이 안 옵니다. 2010.04.12 10:26
- ㄷ. 이연희 : 조형곤씨는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안될 사람같네요. 차라리 예능쪽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100분 토론 보다가 많이 웃었습니다. 2010.03.12 1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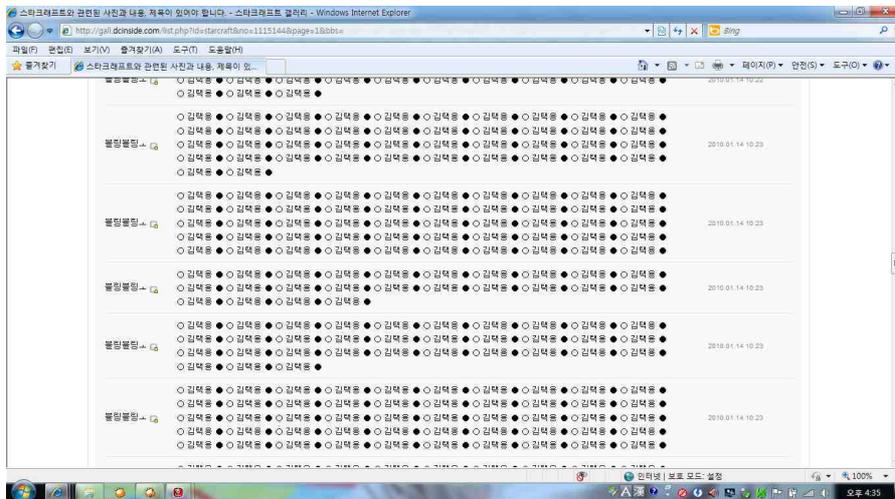
(15)ㄱ,ㄴ,ㄷ은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 높임의 등분 중 비격식체(반말)을 제외한

나머지 상대 높임 등분을 사용하여 상대에 대한 격식을 갖춘 댓글이다. 하지만 그 내용에는 상대에 대한 비하와 비방, 조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15)ㄱ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운전자들을 단속한 경찰을 서민들을 괴롭히는 존재라고 폄하하여 표현하였다. (15)ㄴ은 게시물 작성자를 단순히 관심을 끌려는 의도로 게시글을 작성하는 생각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여 비방하고 있으나 비속어나 반말을 사용하지 않고 비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15)ㄷ은 토론 프로그램에 나온 토론자를 비하한 댓글이다. 직설적으로 비방하지는 않았으나 토론 프로그램에 나올 자질이 되지 못함을 돌려서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3.3.5. 도배

동일한 내용을 복사해서 댓글을 작성하여 올리는 댓글을 일명 ‘도배’라 부른다. 도배글은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관련이 없는 것도 있다. 도배글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기에 게시판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게시판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며, 도배가 심해지면 게시판의 기능이 마비되기도 한다.

(17) ㄱ.



(17)ㄱ은 자신이 지지하는 프로그래머의 이름으로 게시판을 도배한 댓글이다. 이런 도배에는 무의미한 내용을 반복해서 게시하거나 혹은 광고글을 반복해서 게시하는 경우도 있다.

- (18) ㄱ. ksj8**** 천안함 승무원 모두 무사하기를 빕니다 이으세요 416人 2010-03-28 21:28:54
- kr8c**** 천안함 승무원 모두 무사하기를 빕니다 이으세요 415人 2010-03-28 21:18:51
- clsr**** 천안함 승무원 모두 무사하기를 빕니다 이으세요 414人 2010-03-28 21:07:41
- jjj7**** 천안함 승무원 모두 무사하기를 빕니다 이으세요 413人 2010-03-28 21:04:39
- ㄴ. sexy**** 치킨집 아줌마 ㅜ 10人 2010-03-16 21:24:15
- fl**** 치킨집 아줌마 ㅜ 9人 2010-03-16 21:24:03
- aaff**** 치킨집아줌마 ㅜ 8人 2010-03-16 21:23:15
- chls**** 치킨집 아줌마 ㅜ 7人 2010-03-16 21:21:50
- ㄷ. 1빠 : 선리플후감상
- 2빠 : 가문의 영광 ㅋㅋ

아싸!!! : 3등
 히타기의노예 : 4등 대략 수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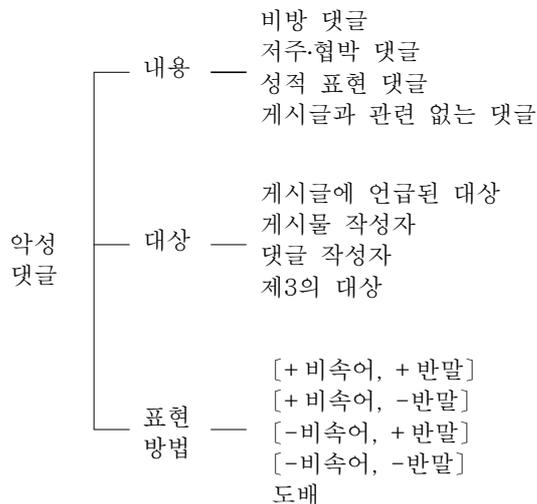
(18)ㄱ은 게시글의 내용과는 무관하지만 자신의 바람이나 기원하는 일, 혹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에 다함께 동참하기를 요구하는 댓글이다. 댓글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작성자가 모두 다르다. (17)ㄴ은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의 댓글이다. 게시글에 언급된 치킨집 아줌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한 것이다. 다만 (17)ㄴ은 게시글과 관련된 댓글이라는 점에서 (18)ㄱ과 차이가 있다.

(18)ㄱ,ㄴ은 한 사람이 동일한 내용을 복사하여 도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도 악의적인 비방이나 비속어가 없기에 악성 댓글로 분류할 수는 없다. 게시판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도배글, 상업적 목적의 광고 도배글 악의적인 도배글 등과의 차이를 보이기 위해 예를 든 것이다. 18(ㄷ)은 순위놀이라고 불리는 댓글이다. 댓글을 작성한 순서로 등수를 작성한 댓글이다. 게시글의 내용과는 무관하지만 악의성이 없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댓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기에 악성 댓글로 보기는 어렵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악성 댓글의 개념과 범위를 살펴보고 유형별로 나누어보았다. 악성 댓글은 줄여서 악플이라 부르는데, 비방적이거나 사회 통념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은 글, 혹은 게시판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댓글을 말한다.

악성 댓글은 내용에 따라 비방글, 저주나 헐박의 글,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글, 게시글과 관련 없는 글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비방대상에 따라 게시글에 언급된 대상, 게시물 작성자, 댓글 작성자, 제3의 대상에 대한 비방 댓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표현 방법에 따라 비속어와 반말이 모두 사용된 댓글, 비속어는 사용하지 않으나 반말은 사용하지 않은 댓글, 비속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반말을 사용한 댓글, 비속어와 반말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댓글, 도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참고문헌

- 구현정. 1997. <대화의 기법>, 한국문화사.
- 권미애. 2008. <악플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특성 비교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기 외. 2008. 인터넷의 공공성과 '악플'에 대한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통권9호, 5-50쪽.
- 김재중. 2007. 스포츠팬, 연예인에 대한 인터넷상 "악플"의 제재방안, <스포츠와 법> 제10권 제3호, 195-195쪽.
- 김현수. 2008. 악성 댓글 문화에 대한 국어교육적 방안, <새국어교육> 제80호, 125-146쪽.
- 박순미. 2009. <초등학생의 사이버 악성댓글의 실태분석을 통한 법교육 개선방안>,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애. 2006. 인터넷에서의 악플에 관한 헌법적 고찰, <연암법학> 23, 33-66쪽
- 백주진. 2007. <인터넷 포털의 '의견 글'과 '댓글'에 관한 분석 연구>,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세모돌. 2003. 인터넷 게시판 글 제목의 욕설/비속어 사용과 익명성의 관계, <텍스트언어학> 15, 169-198쪽.
- 신선경. 2005. <댓글이 아닌 답글 쓰기>,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성식. 2008. 인터넷게시판 악성댓글 피해요인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1호, 67-82쪽.
- 이소영. 2009. <악성 댓글 방지를 위한 웹 기반 토론 콘텐츠 설계 및 구현>,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국현. 2007. 인터넷 '댓글'의 텍스트유형학적 연구, <텍스트언어학> 23, 203-230쪽.
- 조수선. 2007. 온라인 신문 댓글의 내용분석 - 댓글의 유형과 댓글 게시자의 성향, <커뮤니케이션연구> 15, 65-84쪽.
- 주지현. 2008. <인터넷 악플을 다스리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성일. 2009. 인터넷 댓글의 비방성에 대한 연구, <한말연구> 제24호, 287-314쪽.
- MBC 100분토론 시청자 게시판 <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 외
- KBS 심야토론 시청자 게시판 <http://www.kbs.co.kr/1tv/sisa/toron> '미디어법 이후 정국은 어떻게 되나' 외
- SBS 시사토론 시청자 게시판 <http://tv.sbs.co.kr/opinion> '인터넷 여론 재판 논란' 외
- 다음 아고라 <http://agora.media.daum.net> '신혜성, 강인 퇴출'에 대한 토론 외
- 말코리아 <http://malkorea.com> '사교육비에 멎드는 가정 경제' 외
- 한토마 <http://hantoma.hani.co.kr>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입학사정관제와 로스쿨' 외
-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조인스닷컴(중앙일보) <http://www.joins.com>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인터넷 토론 게시판 악성 댓글의 범위와 유형

김병홍(신라대)

논문의 기술은 전적으로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이루어짐을 존중하는 태도로 늘 다른 논문을 읽는 사람으로서, 이 논문의 내용 안에서 논리적 모순과 형식적인 체계를 중심으로 토론을 전개하려 한다. 몇 가지 문제에서 발표자와 토론자의 의견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토론자가 제시하는 의견을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연구가 보다 정치한 연구 결과를 만들기 위해 발표자가 다른 관점의 판단을 참고하여 논문을 기술하기 바라는 뜻으로 몇 가지를 제시한다.

대중매체의 발달, 특히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국어의 가치 훼손이 많은 요즈음을 생각해 보면, 다양하게 실현되는 언어 형태를 언어 연구의 대상으로 살펴본 이 논문은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매우 의의가 큰 연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토론자에게 주어진 의무가 논문의 흠결을 찾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는 학계의 관행을 거부할만한 용기가 없어서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토론자는 이 글이 악성 댓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악성 댓글의 범위를 밝히고, 악성 댓글을 유형별로 분류한 논문으로 이해하였다. 곧, 이용자가 많고, 시사성에 따른 의견 대립이 뚜렷하여 댓글이 많은 사이트('다음, 네이버, 야후'와 인터넷 언론(언론사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및 독자적인 인터넷 언론사)사이트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인스닷컴(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지상파 방송 중 토론 프로그램 방송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 중인 MBC 100분 토론, KBS 심야토론, SBS 시사토론 등)에서 2010년 3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악성 댓글의 범위와 유형을 제시한 글로 이해한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아래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한다.

첫째, 논문 기술의 의의에 대하여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현실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연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연구의 의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논문 어디에서도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의의나 목적을 쉽게 발견하기가 어려워 아쉽다. 아마도 이 연구가 어떤 큰 틀의 연구 가운데 한 부분이라서 그렇다는 생각도 든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의의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연구의 의의가 언어학적인 것이라면 더욱 논문의 가치를 높일 것이다.

둘째, 이 연구의 핵심은 악성 댓글의 언어 자료를 수집하고 그 사용 양상을 분석하여 악성 댓글의 범위와 유형을 제시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실제 기술된 내용은 악성 댓글 사용 양상의 유형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논문의 체계를 유형 연구로 잡고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예컨대, 2장의 내용은 '악성 댓글의 범위'로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내용이 악성 댓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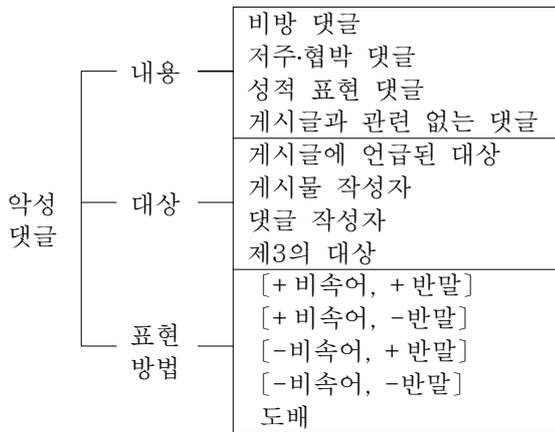
의 기존연구의 성과와 사전적 정의, 그리고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사이버 언어폭력 유형, 각 사이트의 게시판 운영원칙 등을 제시한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악성 댓글의 범위를 “상대를 비방하거나 저주 혹은 협박의 내용이 있는 댓글, 사회 통념에 위배되는 내용(성적 표현)을 담은 댓글, 혹은 게시판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댓글”로 규정하고, 유형을 (3)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1장과 2장을 통합하고, 3장을 부각시키는 것이 훨씬 더 논문의 체계가 탄탄해 보인다.

셋째, 2장의 (3)에서 제시한 악성 댓글의 유형과 3장에서 기술되는 악성 댓글의 유형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3)과 3장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마무리에 정리된 표와도 차이가 있다. 물론 큰 틀에서 (3)은 내용적 유형이고, 마무리의 표는 내용, 대상, 표현방법으로 악성 댓글의 유형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장에서 제시한 내용과 3장에서 풀이한 내용의 상관성이 열린다. 곧, 2장에서 범위를 제시하고 유형화하여 그 설명을 3장에서 하려는 논문 기술 방식 태도에서, 갑자기 유형화에서는 없던 대상, 표현방법에 따른 악성 댓글의 유형을 설명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보충설명을 바란다.

(3) ㄱ. 비방 댓글

- 유언비어, 인신공격 및 비방성 댓글
- 욕설 및 욕을 변형한 단어가 포함된 댓글
- 타인 또는 타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
- ㄴ. 저주·협박 댓글
 - 폭력적인 표현, 상대에 대한 저주 등 혐오감을 주는 댓글
 - 상대를 협박하는 댓글
- ㄷ. 성적 표현 댓글
 - 음란한 표현의 댓글 또는 성적 표현의 댓글
- ㄹ. 게시판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댓글 (게시글과 관련 없는 댓글)
 - 도배 및 전 게시판에 중복해서 올리는 댓글
 - 말이 되지 않는 단어의 조합 및 장난성 댓글
 - 행운의 편지
 - 특정업체 상품소개 및 홍보 댓글
 - 음란 사이트, 윤락행위 홍보 댓글

마무리에 있는 표.



논문을 기술할 때 누구나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체계를 잡는 일일 것이다. 발표자가 이 논문에서 약성 댓글의 유형을 분류하면서 정치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두 가지로 보여주게 된 것도 그 이유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토론자는 위 (3)과 마무리의 표 처럼 나누어져 있는 약성 댓글의 유형을 정리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R. Jakobson이나 Shannon & Weaver가 제시한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활용해 보기를 제안한다.

넷째, 표본 추출의 의미를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3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들머리 사이트(포털 사이트, 시작 사이트) ‘다음, 네이버, 야후’와 인터넷 언론(언론사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및 독자적인 인터넷 언론사)사이트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인스닷컴(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지상파 방송 중 토론 프로그램 방송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 중인 MBC 100분 토론, KBS 심야토론, SBS 시사토론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할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면 좋겠다. 발표자는 “이 사이트들은 이용자가 많고, 시사성에 따른 의견 대립이 뚜렷하여 댓글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특별히 쟁점이 되는 뉴스가 있는 시기였다거나, 수집 대상 사이트들이 어떤 이유로 의견 대립이 뚜렷한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토론프로그램의 사이트에서 댓글은 대립적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의 댓글은 뉴스에 따라 대립각이 다르기 때문에 표본 추출의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댓글의 수가 많아서라고 한다면, 디시인사이드도 못지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논문 기술의 정당성을 위해 이 부분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2010년 3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들머리 사이트(포털 사이트, 시작 사이트) ‘다음, 네이버, 야후’와 인터넷 언론(언론사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및 독자적인 인터넷 언론사)사이트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인스닷컴(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지상파 방송 중 토론 프로그램 방송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 중인 MBC 100분 토론, KBS 심야토론, SBS 시사토론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류”한 연구이다. 따라서 발표자가 수집한 언어 자료를 직접 보지 않고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특히 분류한 자료를 검증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는 연구자의 기술 태도를 존중하는 바이다.

토론자는 학위논문의 심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발표자의 강력한 자기 방어를 희망한다. 토론자의 생각은 대체로 기존의 논문 형식에 얽매어 질문하는 것이다. 새로운 가

치를 추구하는 것이 생명인 논문에서 기존의 방식을 해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지나치게 토론자의 생각에 경도되어 논쟁을 회피하거나 스스로가 힘들게 이루어낸 창의적 생각과 논증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글의 목적은 인터넷 토론 게시판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댓글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과의 대립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살피는 것이다. 이 글의 주제는 현실성과 실용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은 제고의 여지가 있다.

1. ‘2.2 인터넷 토론 게시판의 특징’은 ‘2.2 인터넷 토론 게시판 댓글의 특징’으로 고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2. 2.2의 여덟 가지 특징은 비교 대상이 다른 특징들이 혼재되어 있다.
 - 가. 인터넷의 다른 게시판에 나타나는 댓글과 구별되는 특징
 - 나. 다른 매체와 구별되는 특징
 - 다. 일반적인 토론 규칙과 구별되는 특징특히 ‘넷째’에서는 일반적 토론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토론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지 모호하다.
3. 저자는 3장(9쪽)에서 댓글이 논증이나 근거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사이트의 글자수 제한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보인 ‘인용하기, 자기 경험 이야기 하기, 예를 들어 이야기하기’ 등은 논증이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4. 이 글에서 댓글 논쟁 피하기 전략으로 제시한 ‘인용하기, 자신의 경험 이야기하기, 질문하기, 예를 들어 이야기하기, 가정해서 말하기, 논쟁에서 벗어남 지적하기’는 댓글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매체를 떠나 토론의 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토론에만 보이는 것과 다른 매체의 토론에 나타나는 것을 구분해서 살피는 것이 논의를 더 명확하게 할 것이다. 만약 다른 매체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인터넷에서 다른 기능을 한다면 그 부분을 더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5. 2장 인터넷 토론의 특징과 3장 논쟁 피하기 전략을 연관지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2장의 논의가 필요한지 의구심이 생긴다.

이 논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연구방법과 개념들이 명확히 규정되거나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의 글은 치밀한 분석을 제공하기 보다는 현상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논문은 토론방의 댓글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부분이 논문에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저자는 논문에서 “연구의 대상은 상대의 공격은 피하고, 자신의 댓글을 읽는 제3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는 토론 댓글이다. 인터넷 토론 게시판의 댓글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장인 아고라, 한겨레 신문의 토론 게시판인 한토마, MBC 100분 토론 시청자 게시판, KBS 생방송 심야토론 시청자 게시판, SBS 시사토론 시청자 게시판 등에서 자료를 찾아 분석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논문에서 연구대상을 적시하는 것치고는 상당히 모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왜 “다음의 토론장인 아고라, 한겨레 신문의 토론 게시판인 한토마, MBC 100분 토

론 시청자 게시판, KBS 생방송 심야토론 시청자 게시판, SBS 시사토론 시청자 게시판”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용자 수가 가장 많다거나 가장 유명세가 있다거나 등등의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게시판 선택의 방법론적 정당성이나 타당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음, 그 게시판들 중에서 어떤 댓글들을 취사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한 토론의 댓글들을 선택했는지, 무작위로 선택했는지 등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특정 주제의 댓글이나 무작위 선택이라면 역시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시기의 댓글들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연구자료를 선택한다면 당연히 연구자료를 가져온 장소와 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분석 대상이 된 댓글들을 수집한 기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연구방법의 측면에 있어서도 저자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가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댓글들을 대충 읽고 저자가 생각나는 대로 분류를 했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전혀 제공돼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분량의 댓글들을 읽었으며 그 댓글들을 분류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논문에서 분석대상이 된 댓글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댓글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공격은 피하고, 자신의 댓글을 읽는 제3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는 토론 댓글”

“반대 의견을 지닌 통신 화자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댓글”

“논쟁을 피하기 위한 댓글”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댓글들이 언뜻 보면 동일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피하는 것, 제3자의 지지를 얻는 것, 그리고 논쟁을 피하는 것은 뚜렷이 구분되는 성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세 속성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것처럼 취급합니다.

저자는 “2. 인터넷 토론 게시판의 특징”에서 토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터넷 토론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저자가 명확히 밝히고 있듯이 토론은 기본적으로 논쟁의 성격을 띠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인터넷 토론방에 등장하는 논쟁을 피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댓글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모순적입니다. 토론이 곧 논쟁인데 논쟁을 피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댓글이란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3장에서 저자가 분석하고 있는 논쟁 피하기 전략은 사실은 논쟁피하기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논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나아가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전략이 아닙니까? 따라서 사례로 분류 제시한 모든 댓글들이 상대방과의 대립을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대립을 더 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자가 언급한 전략들은 모두 토론에서의 설득 전략들입니다. 설득 이론과 관련된 논의들을 잘 따라가면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2. 인터넷 토론 게시판의 특징’은 어떤 인용도 없이 기술됐는데 관련된 자료들을 인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문초록도 조금 수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은 인터넷 토론 게시판의 댓글을 대상으로 토론 참여자들이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과의 대립을 피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려고 한 것이다. 통신 언어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 주제의 새로운 연구인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수정 또는 재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보인다. 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 및 재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수정 의견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1. 논문 제목이 “인터넷 토론 게시판 댓글의 논쟁 피하기 전략 연구”이고 논문의 주요 내용인 3장의 제목도 “토론 게시판 댓글의 논쟁 피하기 전략”으로 되어 있는데, 3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략들은 논쟁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효과적인 토론 전략이라고 보아야 한다. 인터넷 기사를 인용하고,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드는 것 등은 토론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지 상대방과의 논쟁이나 충돌을 피하기가 핵심적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토론’에 대한 연구인데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일반 토론과의 차이점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논문 전체의 방향과 내용을 새롭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1장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직접 마주 보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입말이 아닌 글말-엄밀하게 글쇠를 두드려-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주장한다는 점이다. 이런 차이로 인터넷 토론은 일반 토론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의 차이로 인터넷 토론 댓글 작성자는 반대 의견을 지닌 사람과 대립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통신 공간에서는 비대면성과 익명성 때문에 대면 토론의 경우보다 대립과 충돌이 많고 쉽게 일어나는 사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필자가 2장에서 제시한 “또한 실제 얼굴을 보고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쓰는 것이 아니기에 상대에 대한 예를 갖추거나 상대에 대한 존중감이 얼굴을 맞대고 토론을 하는 상황과는 차이가 많다. 이런 이유들로 인터넷 토론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으며, 상대에 대한 비방이나 비난의 내용이 많다”는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3. 2장의 2절에서 인터넷 토론 게시판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여 기술하였는데,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지나친 일반화의 문제가 파악된다. 8가지 특징들이 선행 연구에서 기술된 것인지 필자가 관찰한 결과인지 근거를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 토론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유형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특징을 쉽게 말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인터넷 토론 게시판에서 벌어지는 토론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실시간 토론도 가능하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

4. 결론에서 “이런 전략들을 구사하는 이유는 상대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최대한 예의를 지켜 상대와의 의견 대립을 피하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이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통신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누리꾼들의 언어 사용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상대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쉽게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대립과 충돌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5. 다수의 문장을 문법적인 면에서 수정하면 좋겠다.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이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토론 게시판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댓글이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과의 대립을 피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는 것이다”에서 ‘댓글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어색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토론 게시판에 나타난 댓글을 논쟁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의 ‘토론 게시판에 나타난 댓글을 논쟁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부분은 ‘토론 게시판의 댓글에서 나타나는 논쟁 피하기 전략들을’ 정도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

【 제 1 부 】

■ 제 2 분 과

국어 교육 내용으로서의 ‘맥락’ 쟁점에 대하여

- 맥락은 지식인가, 기능인가, 전략인가¹⁾

김슬옹(동국대)

차 례

1. 맥락 의미의 재개념화를 통해본 맥락의 지식 특성과 전략 특성
 2. 교육과정 내용으로서의 ‘맥락’의 지식과 전략 특성
 - 2.1. ‘맥락’ 범주 설정의 의미
 - 2.2. 교육과정의 ‘맥락’특징과 문제
- 참고문헌

이 논문은 2007 국어과 교육과정의 ‘맥락’ 범주와 관련된 쟁점 가운데 맥락의 지식 특성과 전략 특성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다. 맥락 의미의 재개념화, 2007 교육과정에서의 범주 설정 문제를 집중 검토하기로 한다.

1. 맥락 의미의 재개념화를 통해본 맥락의 지식 특성과 전략 특성

맥락 연구가 아무리 많이 축적되어도 ‘맥락이란 무엇인가(What is context?)'라는 질문은 계속될 것이다. ‘맥락’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도 그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맥락의 복합성, 중층성, 복잡성²⁾ 과 같은 자체 속성과 실제의 역동적인 쓰임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³⁾

그렇다고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없다면 맥락을 어떻게 정확히 사용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인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⁴⁾ 따라서 맥락 논의의 원점으로 돌아가 정의 문제를 사전과 말

1) 이 논문은 현재 심사를 받고 있는 박사 학위 논문인 ‘국어교육 내용으로서의 ‘맥락’ 연구’의 일부임을 밝혀 둡니다. 심사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아직 심사가 안 끝나 실명을 밝히지는 않으며 이 논문의 문제가 있다면 아직 미완의 논문을 발표한 발표자에게 있음을 밝혀 둡니다.

2) 세 말이 비슷하지만 다른 측면도 있다. ‘복합성’은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져 있다는 것이고, ‘복잡성’은 여러 가지 요소가 뒤엉켜 있다는 것이며, ‘중층성’은 여러 가지 요소가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다.

3) 물론 일상생활에서 그 실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만 의미를 정확히 드러낼 수 없는 것은 많다. 이를테면 ‘공기’와 같은 물질과 ‘그리움’과 같은 추상어가 그렇다. ‘공기’를 분명히 인지하고 그 중요성도 알고 있지만 막상 ‘공기가 무엇인가’고 의미를 묻는다면 흔히들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그리움’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단어의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 않는다. ‘맥락’ 또한 이런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4) 학자들의 ‘맥락’사용이나 규정이 혼란스럽다는 Rex 외(1998: 406-407)에서의 보고나, 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맥락 범

뭉치에서부터 천착해 보고자 한다.

이런 접근 이유 외에 사전과 말뭉치(대중적인 언어 사용 자료)에 의한 1차 담론에서 출발하고자 하는 것은 ‘맥락’의 대중적인 사용 양상을 먼저 주목해 보자는 의도이다. 또한 ‘맥락’이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범주로 설정되었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맥락’을 가르쳐야 하는 내용 요소로 보았다는 것이다.⁵⁾ 이는 내용 요소로서의 ‘맥락’과 대중적 사용으로서의 ‘맥락’의 접합 지점을 찾아야 함을 의미한다. 설령 내용 범주로 설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맥락’이 언어 사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르쳐야 할 주요 단어이고 내용 요소이다. 따라서 사전과 말뭉치의 맥락 의미를 분석한 뒤 논자들이 내린 의미도 검토해 보되, 교육과정의 의미도 함께 따지는 접근이 필요하다.⁶⁾

1) 대중 언어 사전과 말뭉치를 통해 본 맥락의 의미

대중들에게 사전은 규범 말뭉치이다. 사전은 사회적 의사소통의 중심에 놓여 있고 규범 역할을 한다. 우리가 끊임없이 사전의 뜻풀이에 주목하고 사전을 준거의 수단으로 삼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만큼 사전의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하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

‘맥락’과 같이 모호하면서도 중요한 단어에 대해서는 더욱 사전에 의존하는 것은 당연할 지도 모른다. 이러한 맥락의 사전 뜻풀이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논의가 초중고 학생들에게 맥락이나 맥락적 태도에 대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전제로 하거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⁷⁾ 사전은 규범 텍스트이면서 교육용 텍스트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대표적인 국어사전 네 개와 영영사전 세 개 내에서 기술하고 있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⁸⁾

주의 내용 요소를 여러 가지로 규정하여 혼란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교육과정의 맥락 규정에 왜 혼란스러운지는 기존 논의에서 많이 언급되어 온 바이지만 이 논문에서도 뒤에서 자세히 논증할 것이다. Rex 외(1998)의 논의는 이재기(2006: 101-102)에서 자세히 소개한 바 있다.

5) 김명순(2008)에서는 ‘맥락’ 범주가 독립된 내용 범주로서의 불안성을 근거로 “맥락 범주의 신설 의도는 실질적으로 교육내용 차원보다 교수학습 차원에서 더 잘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6쪽 주석 3)”고 비평했다. 이는 맥락의 하위 내용 요소인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이 학년별 내용 요소로 제대로 구현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명순은 “맥락 범주가 교육내용으로 사실상 가능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38쪽)”고 보았다.

6) 2007 국어과 교육과정과 관련된 논자들의 ‘맥락’ 의미나 정의는 장경희·최미숙(1999/2008: 231-23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9/2008: 5쇄, 국어교육학 사전), 김재봉(2007: 71), 임천택(2007: 111-115), 오은영(2008: 7), 박창균(2008: 5-9), 황미향(2009), 김혜정(2009) 등에서 정리되었다.

7) ‘맥락적 태도’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맥락의 중요성을 알고 맥락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태도이다. 또 하나는 맥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모른다 하더라도 맥락이 지향하는 일부 내용이나 맥락의 긍정적 가치를 실천하는 태도를 말한다. ‘맥락’이라는 단어를 아예 모른다 하더라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거나 그런 태도로 언어 활동을 하는 태도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8) 기존 연구에서도 사전 뜻풀이를 많이 인용하고 있지만, 사전 선택의 합리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서는 사전의 권위와 가치, 소통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대표성 있는 사전을 주로 뽑았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국가에서 만든 대표 사전이다. 온라인 다음 사전, 네이버 사전도 이 사전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다. 연세한국어 사전은 말뭉치에 의한 최초의 민간 사전이고 보리사전은 아이들용 사전으로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국어교육학 사전’도 있지만 이는 논저에 포함시킨다. 영영 사전의 번역은 연구자.

<표-1> 주요 사전의 ‘맥락’ 의미 기술

사전 갈래[약어]	의미
표준국어대사전[표]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1999: 2085) *온라인판도 같음.
연세한국어사전[연]	글이나 말의 부분들의 뜻이나 내용이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흐름(1998: 679)
동아 연세초등국어사전[연초]	말 글 토론 따위가 일정하게 이어지면서 이루는 내용의 즐기나 흐름.(2007: 401)
보리 국어사전[보]	일이나 내용 앞뒤를 이어주는 즐기나 흐름(2008: 470)
Collins Cobuild(1987/2003) ⁹⁾ [C1, C2]	1. The context of an idea or event is the general situation that relates to it, and which helps it to be understood. (어떤 생각이나 사건과 관련되어 그 생각이나 사건이 이해되도록 도와주는 일반적 상황) 2. The context of a word, sentence, or text consists of the words, sentences, or text before and after it which help to make its meaning clear. (어떤 단어나 문장, 텍스트의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 주는 앞뒤의 단어나 문장, 텍스트)(2003: 302)
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1948/1981)[W1, W2]	1. the parts of discourse that surround a word or passage and can throw light on its meaning(어떤 세계나 구절을 둘러싼 것으로 그것의 의미를 밝혀줄 수 있는 담화의 일부) 2. the interrelated conditions in which something exists or occurs(1981: 245)(어떤 것이 존재하거나 발생하는 관련된 조건)
The New Oxford Dictionary(1478/1978)[O]	Whole structure of connected passage in relation of any of its parts; parts which immediately precede or follow a written or spoken passage and determine its meaning.(1978: 359)(문어나 구어의 어떤 구절 앞뒤에서 의미를 결정해 주는 연관된 구절의 총체적 구조)

위와 같은 사전 풀이를 종합해 보면 서로 다른 풀이 내용 비중이 크다는 측면에서 맥락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과 맥락의 정의 내리기가 단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맥락을 ‘문맥’ 의미로만 풀이한 옥스퍼드 사전을 제외하면 ‘맥락(脈絡)’에 대한 동양(한국)의 뜻풀이 맥락과 'context'에 대한 서양의 뜻풀이가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¹⁰⁾ 한국의 사전들이 ‘관계, 즐기, 흐름’과 같은 맥락의 속성에 주목한 반면, 서양 사전들은 ‘환경, 배경, 텍스트, 조건’ 등 주변 여건이나 인식 조건에 치우쳐 있다.

이런 차이는 두 어휘 사용의 문화적 역사적 전통에서 비롯되었다. 한국 사전들은 ‘맥락’에 대한 동양적 전통을 따른 것이고 서양 사전들은 서양 전통을 따른 것이다. 왜냐하면 문자 어원으로 보면 동양의 ‘脈絡’은 일관성(흐름, 맥)과 연계성(락)을 나타내고, 서양의 ‘context’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그 환경(con-)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의미 전통을 따르다 보니 맥락의 두 계열이 형성된 것이다.¹¹⁾

‘脈絡’이란 용례는 조선왕조실록에 144건의 용례가 나올 만큼 context라는 말이 들어오기 전부터 쓰이던 말이었다. “사람에게 맥락이 있는 것과 같이-고종 3권, 3년(1866 병인 / 청 동치(同治) 5년) 2월 27일(정사) 1번째 기사”처럼 한의학적 용어로도 쓰였지만 오늘날 맥락의 의미로도 다음과 같이 폭넓게 쓰였다.

이번에 저 이명휘(李明徽)의 말은 진실로 윤선거 부자에게서 근본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상소 내용에 말뜻의

9) 네이버 영영 사전은 이 사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검색: 2010.6.10)

10) 맥락 유형에서 다시 자세히 언급하겠으나 논의 진행을 위해 용어 사용 문제를 정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맥락의 대상이 언어인 경우 ‘문맥’은 언어 내적 맥락, 언어에 작용하는 언어 바깥의 맥락을 ‘언어 외적 맥락’, 이런 구별이 없이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맥락일 경우 ‘언어 맥락’이라 부르기로 한다. 또한 맥락의 대상이 언어가 아닌 경우에는 언어에 작용하는 언어 외적 맥락과 구별하기 위해 ‘언어 외 맥락’으로 부르기로 한다.

11) 3장 교육과정 논의에서 보았듯이 교육과정의 맥락 요소는 동양식 맥락 개념과 서양식 맥락 개념이 섞여 있다. 문법 맥락 범주의 ‘국어 의식’, ‘국어 생활 문화’, 문학 맥락의 ‘문학사’ 요소 등은 일관성을 강조한 동양식 맥락 개념을 반영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맥락이 모두 윤선거 부자의 글 속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가 조술하고 전수받은 흔적이 자못 인판(印板)으로 찍어 낸 것과 같습니다.¹²⁾-정조 1권, 즉위년(1776 병신 / 청 건륭(乾隆) 41년) 5월 22일(임진) 2번째기사

다만 오늘날의 ‘맥락’ 의미가 서양식 context 의미로도 쓰이고 있는데 사전 뜻풀이는 전통적 뜻풀이를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사전의 동양식 뜻풀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맥락의 현실적 쓰임새를 더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내 사전에서 기술한 ‘속성’은 ‘관계, 연관, 흐름, 줄기’ 등의 용어를 통해 드러나 있다. 관계도 ‘이어져 있는 관계’라고 하였으므로 ‘연속된 관계’라는 뜻의 ‘연관, 연계’와 같은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흐름’과 ‘줄기’는 연속성이므로 이들 속성에 내포된 의미 자질은 ‘연속성, 관계성’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흐름’과 ‘줄기’는 무언가가 무조건 이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뭔가가 흐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단어는 ‘일관성’이라는 의미 자질이 들어 있다.¹³⁾

세종 표준 말뭉치를 검색해 보면 아래와 같은 용례가 많이 쓰임을 알 수 있다.

(1) 지시 비교 구조: 그런 맥락, 그러한 맥락, 그와 (같은) 맥락, 이런 맥락

가. 문화가 꼭 전쟁이고 상품이며 권력인 것만은 아닌데, 매사에 문화를 그런 맥락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 줄 위에 걸린 빨래의 풍경을 떠올렸다. 내가 이런 맥락에서 좀더 명료하게 볼 수 있을까.

(2) 비교 지시 구조: 같은 맥락/비슷한 맥락, 다른 맥락, 전후 맥락

가. 태양신 헬리오스와 그의 아들 파에톤의 신화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나. 가까운 침략 행위는 문제시되어 마땅하지만 여기의 이사벨라 민족의 정체성과는 다른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신문이 뉴스 전달 매체라는 사실을 잊은 채 전후 맥락의 이해를 독자들에게 아예 맡겨 놓고 있는 제목들이다

위와 같은 ‘맥락’의 쓰임새에서의 ‘맥락’은 일관성의 의미와 연속성이 의미로 함께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연속성에 의해 관계가 구성되고 관계에 의해 연속성이 유지되므로 두 의미 자질은 밀접하고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이어지고 관계를 구성하게 되면 구성 요소들은 관계나 연속성을 부여하는 일정한 기준이나 내용에 의해 총체성을 띠게 된다.

웹스터사전[C1]에서는 생각이나 사건의 이해를 도와주는 조건(상황)으로 나머지는 의미를 밝혀 주거나 명확히 하거나 결정해 주는 조건으로 보았다. 이러한 영어 사전에서는 인식 주체가 어떤 대상을 쉽게 이해하거나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을 도와주는 ‘인식 조건’ 또는 ‘이해 촉진자’라는 메타적 의미 요소를 읽어낼 수 있다. ‘조건’은 어떤 새로운 정보나 지식, 또 다른 상황을 판단해 주는 기준 역할을 한다. 이 때의 기준은 바라보거나 인식하는 관점이다. 맥락은 단지 의미를 명확히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어떤 식으로 드러내느냐는 관점 역할 비중이 더 크다.

‘상황’은 일이나 사건 등의 대상 측면에서 보면 그런 일이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구체

12) 今此明微之言, 實本於宣學父子, 故其疏中語意脈絡, 都自宣學父子書中出來, 而其祖述傳授之跡, 殆若印板_正祖 1卷, 卽位年(1776 丙申 / 청 건륭(乾隆) 41年) 5月 22日(壬辰) 2번째기사

13) 이주섭(2001: 45)에서는 “상황이 구체적인 일의 상태를 가리킨다면, 맥락은 관련성이나 연계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관련성, 연계성’이라는 속성 파악은 적절하지만, 그런 속성을 바탕으로, 상황과 대비시켜 ‘추상적인 개념’으로 한정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상황을 맥락의 구성 요소로 보고 맥락의 실제 쓰임새를 고려하면, 맥락의 개념은 추상적 개념보다는 오히려 구체적 개념 쪽에 가깝다.

적인 모습(형편)을 가리킨다. 이러한 상황은 혼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주관적 정황이 아니라 그 과정과 현상을 함께 인지할 수 있는 정황을 말한다. 그래서 [C1]에서 ‘일반적 상황’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사건의 흐름이라는 속성도 있지만 상황과 관련된 요소에 대한 판단 조건 또는 근거 역할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과정성, 구체성, 근거성, 조건성’ 등의 의미 요소를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속성이나 조건 두 가지가 모두 맥락의 의미를 구성해주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곧 맥락은 속성으로서의 의미와 인식 조건으로서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전 풀이에서는 대부분 맥락을 인지하거나 맥락을 구성하는 ‘주체’ 요소가 빠져 있다. [C1]에서는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이해되는’ 주체를 상정했다. ‘일반적 상황’에서 ‘일반적’이라는 말과 수동 형식(to be understood)의 기술로 볼 때 이 때의 주체는 주어진 맥락(given context)을 인지하는 수준의 ‘수동적 행위자’로서의 주체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면 <표-2>와 같다.

<표-2> 일반 사전을 통해 본 ‘맥락’의 의미 요소

기준	의미 요소
대상	일, 생각, 사건, 사물, 언어
속성	관계성, 연속성, 일관성, 총체성, 과정성, 구체성
내용	내용, 의미
조건	근거성, 이해 촉진자, 인식 조건, 총체적 구조
표상	언어, 상황
주체	소극적 행위자

사전의 뜻풀이를 다양한 기준을 세워 각각의 의미 요소를 복합적으로 구성해 보았지만, 이는 어느 한 사전의 뜻풀이를 대표로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게 한다. 이는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사전들의 뜻풀이를 바탕으로 주요 의미를 모두 포함시킨 맥락의 정의를 다시 내려 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 사건이나 일, 또는 생각이나 언어 행위와 연관된 흐름으로, 누군가가 그런 대상(사건, 일, 생각, 언어 행위)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거나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상황이나 담화

이와 같이 의미의 재구성에 의한 정의내리기는 ‘맥락’의 복합성을 살리면서 ‘맥락’의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곧 이러한 맥락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표-3> 주요 사건의 ‘맥락’ 의미의 재개념화

구조 특성	맥락 대상	맥락 속성	맥락 주체	맥락 기능/역할	맥락 표상
정의 내용	어떤 사건이나 일, 또는 생각이나 언어 행위와	연관된 흐름으로,	누군가가	그런 대상(사건, 일, 생각, 언어 행위)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거나 표현할 수 있게 해 주는	상황(situation)이나 담화(discourse)

이와 같은 정의의 정합성을 따지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세종 말뭉치에서 ‘맥락’으로 검색한 자료를 검증해 보았다.(자료는 부록1) 표준 말뭉치 150개의 사례를 언어 사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예를 통해 검토하기로 한다. 출전 표시는 말뚝치 전문 부록 제 시로 대신한다.

(3) X(적, 의) 구조: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역사적 맥락

가. 관계있는 언어현상들은 언어 형식 자체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며, 상황 맥락이 함께 고려되어야만 정확한 의미해석이 가능해지고, 비로소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나. 웃음의 의미는 사회적 맥락에서 더욱 확실히 인식할 수 있지만, 울음은 개인적인 영역 안에

다. '민중' 개념 자체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그리고 그 역사적 맥락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병행되어야 함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라. 한인 이민과정의 주역이었던 미국인 호레이스 앨런의 역할과, 한국지배라는 큰 맥락 속에서 한인 하와이 이민문제를 이용했던 일본의 정책·역할에 주목한다.

마. 프란츠 파농의 민족 문화론은 적절한 논거를 제공한다. 반식민 투쟁의 맥락에서 파농은 정치인이 실제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행동을

위 예들을 보면, '맥락'이 쓰이는 맥락은 비교적 단순하다. 'X 맥락' 구조가 일반적이다. 'X'는 '그런, 저런'과 같은 지시어와 '상황, 역사적, 사회적'과 같은 특정 단어가 온다. 후자 쪽은 전자 쪽에 비해 '-맥락'과의 결합 양상이 분명하지만, 전자 쪽은 지시어가 무엇을 가리키느냐에 달라지는데 그 무엇이든 모든 것이 다 올 수 있으므로 '맥락'의 의미가 다양성을 넘어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후자 쪽도 '투쟁 맥락, 큰 맥락' 외에, '소유 맥락, 음식 맥락' 등 거의 모든 단어가 올 수 있다.

그 어떤 경우든 분명한 것은 '관계성, 연속성, 일관성, 조건성, 준거성' 등의 의미를 띠는 점이다. 곧 속성으로서의 의미와 인식 조건으로서의 의미를 함께 나타내며 연구자가 재개념화시킨 사전 뜻풀이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다만 사전 뜻풀이에는 일반 용례에서 자주 쓰이는 '사회적, 역사적 맥락'이 나오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국내 사전들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뜻풀이를 하여 '사회적, 역사적 맥락'이 빠진 듯하고, 외국 사전들은 '상황'이나 '조건' 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 듯하다. 그러나 맥락이 실제 쓰이는 양상에서 '사회적, 역사적 맥락'이 중요하므로 사전 뜻풀이는 다음과 같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어떤 사건이나 일, 또는 생각이나 언어 행위와 연관된 흐름으로, 누군가가 그런 대상(사건, 일, 생각, 언어 행위)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황이나 사회문화적 배경 또는 담화

2) 주요 연구자들의 '맥락' 의미와 재개념화¹⁵⁾

사전 뜻풀이 분석을 통해 맥락 정의 내리기는 물리적 속성을 드러내 주는 실체적 정의와

14) 이 밖에 '언어학 사전(2000: 181)에서는 "형식과 장면 사이의 관계(relation), 추상적인 형식을 장면이라는 언어외적 특성과 결합시키는 중간적 층위"로 영어학 사전(신아사, 1990: 274)에서는 "특정 언어 단위의 전후에 위치하여 그 언어 단위의 용법에 제약에 가하거나 의미를 밝혀주는 발화의 한 부분"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언어학 사전에서 '중간층'으로 보는 관점은 매우 독특하지만 '중간'이란 말이 맥락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오히려 방해한다. 영어학 사전은 의미를 밝혀주는 긍정성에만 주목한 일반 언어 사전과 달리 제약 측면도 다루고 있지만 문맥 수준의 풀이를 하고 있다.

15) 김재봉(2007: 72, 각주3)에서는 세 개의 사전 맥락 뜻풀이와 일곱 논자의 맥락 정의를 대비시킨 뒤 국어 교에서는 논자들의 논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자들의 논의가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의도와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고도 비슷한 논지이나 사전 뜻풀이와 논자들의 정의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논자들의 논의는 사전 뜻풀이의 보완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인식 조건을 나타내는 인식적 정의 두 가지로 압축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실체적 정의에 의한 사회나 문화와 같은 환경 또는 배경 맥락을 ‘실체적 맥락’이라 하고, 인식적 정의에 의한 다른 요소의 인지와 판단의 잣대가 되는 조건이나 지식이나 정보는 ‘인식적 맥락’이라 칭하기로 한다.

사전 풀이를 통한 재개념화에서는 인식적 정의를 중심으로 하되, 실체적 정의를 수용하는 통합 방식의 정의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사전식 재개념화는 연구자들의 정의에 의해 보완되어야 할 점도 있겠지만, 연구자들의 정의에 대한 비평 잣대도 될 수 있다. 연구자들의 정의를 되도록 대중적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다.

‘맥락’에 대한 연구사에서 연구자들의 정의도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갖고 있지만, 실체적 정의보다는 인식적 정의로 이동해 왔다.¹⁶⁾ 장경희·최미숙(1999)에서 그런 흐름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언어적 표현은 전후에 또 다른 언어 요소들과 인접하여 존재하는데, 이 때 인접한 언어 요소들로 된 언어적 맥락(이를테면 linguistic context, literary context, co-text, environment 등), 화자, 청자를 포함한 시간 공간 등의 물리적 상황인 상황적 맥락, 그 밖에 언어 표현이 속한 세계의 사회적 맥락, 문화적 맥락 등 여러 유형의 맥락이 있다. 맥락의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이러한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가 바로 맥락으로 인식되었으나, 뒤에 맥락은 이들 요소에 제공되는 해석에 관여하는 정보를 뜻하게 되었다. _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99/2008: 5쇄) 231쪽.

이런 연구의 흐름을 고려하여 기존 정의를 비슷한 유형으로 나눠 보면 <표-4>와 같다.

<표-4> 주요 정의의 대상별 분류

갈래	연구자	정의
배경 이나 환경, 상황	최창렬(1999: 220)	발화된 텍스트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게 해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배경 ¹⁷⁾
	2007 국어과 교육 과정(2008가: 19)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사회·문화적 배경
	박태호(2000가: 63)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비언어적 환경
	Mey, Jacob L(1993: 38)	대화(의사소통)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이 상호작용의 언어적 표현들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 주는 가장 넓은 의미의 환경(이성범 옮김 1996: 43)
	Halliday(1985/1994: 5)	사람이 말하고 또는 쓸 때 관여하는 주변 사건들(번역: 김혜정, 2009: 45)
	Quasthoff(1997: 733)	의사소통 과정에서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형성되는 구체적인 상황적인 틀(번역, 박창균, 2008: 46)
	임천택(2007: 114-115)	말이나 글을 이해하고 표현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 요소나 사회·문화적 요소(또는 관계)
정보 나 지식	김재봉(2007: 75)	텍스트(담화/글)의 표현과 해석에 관여해서 의미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새롭게 텍스트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에 관여하는 이론적이며 심리적인 활성화된 지식
	Clark 과 Carson(1981)	주어진 텍스트를 접한 개인이 그 텍스트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
	Lyons(1977b: 572)	a theoretical construct, in the postulation of which the linguist abstracts from the actual situation and establishes as contextual all the factors which, by

16) 김혜정(2009: 69)에서도 맥락의 정의가 “언어적인 것에서 점차 심리적인 것으로, 그리고 심리 사회적으로 변화”해 왔다고 분석 진단했다.

		virtue of their influence upon the participants in the language-event, systematically determine the form, the appropriateness or the meaning of utterances.
	Lyons(1981)	문법적으로 응집적이고 의미적으로 응결적인 발화를 산출 또는 수용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실제로 말해진 것과 함축된 것 또는 전제된 것을 판단하게 하는 정보 (현대언어학회 역, 1988: 170-171)
	Van Dijk(1978)	어떤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가지는 수많은 자질, 특히 여러 발화를 화행으로서 성공하게끔 하는 조건들의 구성요인 자질의 이론적 재구성(정시호 역, 1995: 133에서 재인용)
복합체	이재기(2005: 103)	텍스트 생산·수용 과정에 작용하는 물리적, 정신적 요소
	장경희 · 최미숙 (1999: 231)	발화의 표현과 해석에 관여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어적·물리적·사회적 문화적 요소(국어교육학 사전)
	Blommaert, J.(2005: 251)	담화가 생산되고, 소통되고 해석되는 조건의 총체성(totality)
심리적 구성체	Figueroa, E.(1994: 150)	지식과 관련을 맺고 있는 심리적 구성
	Sperber, D., and D. Wilson(1986: 15-16)	발화 해석에 영향을 끼치는 세계의 실제 상태라기보다, 그 세계에 대해 청자가 가정한 한 부분으로 일종의 심리적 구성 ¹⁸⁾
	Widdowson(2004: 39-58)	현실에 존재하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이를 투영한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것

맥락 연구사에서 명시적으로 정의 내린 것만 모아 보았다.¹⁹⁾ 맥락을 최종적으로 표상한 것으로 보면 ‘배경이나 환경, 상황’ 등의 실체적 표상으로 본 것과 ‘정보와 지식, 심리구성체’ 등의 심리적 표상으로 본 것으로 대별됨을 알 수 있다. 심리적 표상으로 본 정의는 인식적 정의의 특징을 확연하게 드러내 주지만, 실체적 표상의 정의들은 실체적 정의로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다. 심리적 표상이 인식적 정의 특성이 실체적 표상의 정의보다 더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체적 표상은 인식적 정의 범주 안에 든다는 점이 실체적 정의 쪽의 국내 사전 풀이와 다른 점이다. 왜냐하면 실체적 표상의 환경이나 배경은 맥락의 실체라기보다는 맥락을 인지하거나 도와주는 조건 역할로 설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두 부류 모두 인식적 정의로 볼 수 있고 그 차이는 전자는 인식적 물리 맥락을, 후자 쪽은 인식적 심리 맥락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논하기 전에 인식적 정의로서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인식적 정의로 보는 맥락의 특징은 맥락 인식의 주체를 상정한 점, 주체의 맥락 인지나 적용 과정을 부각시킨 점, 지식이나 정보, 심리구성체로 본 점 등이 그러하다. 물론 이들 정의에는 ‘주체’가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주체의 행위나 태도를 전제로 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행위성 표현이 들어 있으므로 주체를 상정했다고 보았다. 각각을 먼저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17) 텍스트는 배경이 되는 맥락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구체적인 언어 표현을 구현자이며 이러한 텍스트는 다시 모여 새로 발화되어 끼어들어 오는 텍스트에 대한 맥락을 형성한다고 보아 맥락과 텍스트의 상호보완적 관계, 순환적 관계를 강조했다.(최창렬, 1999: 220-221)

18) a psychological construct, a subset of the hearer's assumptions about the world. It is these assumption of course, rather than the actual state of the world, that affect the interpretation of an utterance.

19) 명시적으로 정의는 내리지 않았지만 ‘맥락’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한 연구자들은 꽤 많다. 이들 정의가 맥락 연구사의 대표성을 띤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표-5> 주요 맥락 정의의 주체 속성 갈래

주체 속성		연구자
주체의 적극적 행위 중심	산출과 수용 주체	Lyons(1981)
	생산 수용의 주체	이재기(2005: 103)
	생산 수용 활동 주체	2007 국어과 교육과정(2008a: 19)
	이해와 표현 주체	임천택(2007: 114-115)
	표현과 해석, 의미 구성 주체	김재봉(2007: 75)
주체의 소극적 행위 중심	표현과 해석 주체	장경희·최미숙(1999: 231)
	표현 주체	Halliday(1985/1994: 5)
주체의 구성성 중심	의사소통 상황 주체	Quasthoff(1977: 733), Van Dijk(1979)
	상호작용 주체	Clark과 Carson(1981)
	의미 구성 주체	박태호(2000a)
	심리적 구성 주체	Sperber, D., and D. Wilson(1986: 21-29), Widdowson(2004: 39-58)

주체의 역할에 관한 진술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생산-수용’이라는 어휘군과 ‘표현-이해’의 어휘군은 비슷한 맥락을 담고 있지만, 표현과 이해는 ‘생산과 수용’라는 말보다는 주체의 능동적 태도가 약하다. 주체의 능동적 역할보다는 무엇을 표현하고 이해했는지에 대한 대상 속성이 강하다. ‘생산’이라는 말은 표현하기까지의 과정과 표현을 어떻게 소통시킬 것인가를 함께 고려한 말이다. ‘수용’은 단지 표현물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내면화시킬 것인가의 주체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말이다. 맥락의 역동성과 맥락 고려의 긍정적 효과를 의도하는 것이라면 더 능동적인 실천을 함의하는 ‘생산과 수용’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 따라서 ‘생산과 수용’에 ‘활동’이라는 말을 더 붙인 교육과정의 정의가 가장 능동적인 맥락 접근을 보여 준다.

임천택(2007)에서는 ‘이해-표현’의 어휘를 사용했지만,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능동적 주체를 상정했다. 김재봉(2007)은 ‘활성화된 지식’이라는 표현에서 ‘활성화’라는 말을 통해 맥락은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 만들어가는 주체의 능동성을 드러냈다고 보았다. 장경희·최미숙(1999: 231)에서의 주체는, 김재봉(2007: 74)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맥락을 주어진 것으로 보아 소극적 주체로 보았다.

의사소통 상황이나 상호작용, 의미 구성, 심리적 구성의 주체는 관계 속에서 주체가 구성되는 맥락에는 적절하지만 주체의 능동적 태도나 역할로는 ‘생산과 수용’보다 능동성을 나타내는 맥락적 의미가 부족하다.

이렇게 주체를 문제 삼는 것은 주체의 자리매김과 역할 규정에 따라 맥락의 의미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에 대한 건의문을 단지 표현만 한 주체와 그러한 건의문을 만들어 어떻게 유포시킬 것인가를 함께 고려한 주체는 능동성의 질적 정도가 다르고 그로 인한 건의문의 맥락과 사회적 효과는 사뭇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생산하고 수용하는가?”라는 대상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텍스트나 언어 관련 저술과 관련된 논의이므로 맥락의 대상은 언어와 텍스트로 크게 구별된다. ‘텍스트’라 할 경우는 언어와 언어 외적 요소를 결합한 다양한 복합 자료들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포괄적인 대상 설정의 장점이 있다. 그만큼 맥락의 대상이 모호하고 아직은 대중 용어로 사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언어를 대상으로 할 경우는 맥락의 대상이 명확한 측면은 있으나 텍스트와 같은 대상에 대한 포괄성이 약하다. 다만 교육과정처럼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서”와 같이 언어 단위(담화 글)과 ‘수용과 생산 활동’과

결합하였으므로 ‘활동 과정’에서 언어 외 요소를 결합할 수 있다. 또한 사건은 대개 언어를 통해 소통되므로 교육과정처럼 ‘담화와 글’로 쓰는 것이 대중적으로는 합리적이다.

맥락의 최종 표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6> 주요 정의의 맥락 표상 갈래

표상 갈래		맥락 표상	연구자
단일 표상	물리적 단일 표상	환경(비언어적)	박태호(2000a: 63)
		배경	2007 국어과 교육과정(2008a 19)
		상황	Quasthoff(1977: 733), Van Dijk(1979)
		주변 사건들	Halliday(1985/1994: 5)
		정보	Lyons(1981)
	심리적 단일 표상	지식	김재봉(2007: 75)
	심리적인 것	Sperber, D., and D. Wilson(1986: 21-29), Widdowson(2004: 39-58)	
복합 표상	물리적 복합 표상	상황 요소나 사회·문화적 요소 ²⁰⁾	임천택(2007: 114-115)
		정보 또는 언어적·물리적·사회적 문화적 요소	장경희·최미숙(1999: 231)
	물리적 심리적 복합 표상	정보와 지식	Clark과 Carson(1981)
		물리적, 정신적 요소	이재기(2005: 103)

단일 표상은 그것이 물리적인든 심리적인든 맥락의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환경’과 ‘배경’으로만 보면 구체적 ‘상황’이 드러나지 않아 문제이고 ‘상황’으로 보면 ‘사회문화적 배경’이 드러나지 않아 문제가 된다. ‘주변 사건들’은 환경이나 배경 맥락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다. ‘정보’ 또한 체계적 지식화되지 않은 1차적 자료라는 뜻이므로 맥락적 지식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면서도 맥락의 구체적 변인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문제가 있다.

‘심리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맥락을 결과 위주로 보는 것이며 또한 관념 위주로 보는 것이다. 실제 맥락이 쓰이는 수많은 말뭉치 사례에서 보면, 분명 맥락은 구체적인 근거나 잣대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러한 것이 인식 주체에 의해 추상화되어 심리적인 것으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심리적인 것으로만 한정한다면 심리적 구성체의 구체적 변인이 소거되어 맥락을 지나치게 추상체로 가두는 격이 된다. ²¹⁾

물론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회 문화적 배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객관적 실제의 맥락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인식 주체의 관점이나 전략에 의해 특정한 의미 있는 상황이나 배경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김혜정(2009: 57)에서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은 담화 중에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으로 환기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맥락성을 띠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비로소 맥락으로 ‘인식’된다.”라고 언급하였다. 인지된 맥락이 객관적 실재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심리적 실재’로 보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그런 맥락 관점이 최근의 대세라고 정리한 김혜정(2009: 57)의 다음과 같은 정리와 비평은 일리가 있다. 매우 중요한

20) 끝에 “(또는 관계)”라는 괄호 풀이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21) 최인자(2008: 434)에서 “맥락은 물리적인 사회 문화적 요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시·공간의 사회적 상황에 관한 언어 사용자의 믿음과 가정”으로 보았다. 그 이유를 “물리적 실체가 텍스트의 기호적 세계와 호환성을 가질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술이지만 인용한 두 단락 사이에 논쟁점이 들어 있어 인용해 본다.

예컨대, Mercer et al.(1988: 124. Spivey에서 재인용)는 맥락의 이러한 특성을 토대로 교실 대화를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하나는 대화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맥락에 의존하여야 그 모든 것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맥락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최근 대부분의 연구에서 발견되는 결론들이다.

요컨대, 이들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최근 연구들은 맥락을 개인의 인지적 구성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현상적으로 실재하는 것으로 상정한다는 사실이다. 동시에 그것은 의미 구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동인으로서의 ‘물리적인 것’을 배제하고 ‘심리적인 것’으로 보면, 맥락을 ‘개인의 인지적 구성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 ‘현상적으로 실재’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인 물리적 동인과 그로 인한 심리적 작용을 맥락의 복합적 요소로 함께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김혜정(2009: 69)에서의 최종 결론인, “맥락의 정의는 언어적인 것에서 점차 심리적인 것으로, 그리고 심리 사회적인 것으로 변화해 왔다.”라는 진술과 일치하게 된다. 연구사 정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으로 보는 연구 동향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물리적 복합 표상으로 분류한 임천택(2007: 114-115)에서의 “상황 요소나 사회·문화적 요소”는 엄격히 말하면 복합 표상은 아니다. 두 요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표상이기 때문이다. 복합 표상이라 하더라도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표상할 수 있으므로 잘못된 것은 아니나 모든 맥락 대상이 실제로 어느 한 요소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요소를 선택 구조로 묶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장경희·최미숙(1999: 231)에서의 “정보 또는 언어적·물리적·사회적 문화적 요소”는 언어와 정보를 포함한 복합적 표상으로 본 것은 일리가 있으나, 정작 중요한 상황적 요소가 빠졌다.

이재기(2005)에서의 ‘물리적 정신적 요소’는 물리적인 표상과 심리적인 표상을 함께 드러낸 것은 좋으나, 맥락을 좀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는 정의로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Clark과 Carson(1981)은 1차적 물리적 정보와 주체에 의해 재구성된 ‘지식’을 맥락으로 보았다.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정보’와 ‘지식’은 역시 맥락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전략으로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사전 뜻을 수용하면서 연구자들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김재봉(2007: 73)의 정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텍스트(담화/글)의 표현과 해석에 관여해서 의미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새롭게 텍스트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에 관여하는 이론적이며 심리적인 활성화된 지식

위 정의에서 문제되는 것은 ‘지식’을 ‘이론적 지식’으로 한정시켰다는 점이다. ‘이론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김재봉(2007: 93)에서는 “맥락은 근본적으로 이론적이며 논리적 지식의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맥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맥락’을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지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곧 대중적인 맥락 사용에 거리가 있어 보인다. 지식 자체가 추상성과 체계성을 함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론적 지식’은 지식 가운데서도 극도로 추상화된 지식이다. ‘맥락’이 언어활동에서 차지하는 역동적 사용이나 맥락의 다양성으로 볼 때, 그러한 맥락의 실제 쓰임새에 어긋난다.

물론 김재봉(2007)에서의 이런 전략은 연구자들의 맥락 정의를 수용하는 것이 국어과 교

육에 더 효율적이라고 보아 그렇게 한 것이다. 국어교육은 대중적인 언어 사용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연구자의 연구 결과의 전략적 수용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정의와 연구자들의 정의 사전 뜻풀이를 참조하여 정의를 다음과 같이 재구성해 보았다.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체가 고려해야 할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과 그런 활동을 통해 구성되는 의미 작용과 지식

사전 뜻풀이에서 주요한 의미 자질은 내용 측면에서 ‘의미’였다. 실제 현직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맥락이 왜 중요한가’를 조사한 결과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제일 많았다. 또는 교육과정 뜻풀이를 비롯한 대다수 학자들의 정의는 맥락 적용의 목적이거나 가치는 나와 있지 않다. 곧 “담화나 글의 생산과 수용 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맥락”에서 왜 ‘고려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박태호(2000a)나 김재봉(2007)에서와 같이 ‘의미’를 노출시켜 정의 내려야 한다.

또한 ‘상황’이나 ‘사회 문화적 배경’은 명확하고도 중요한 맥락 변인(요인)이므로 정의에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리고 사전 뜻풀이에서는 약하지만 학자들의 연구 성과로 드러난 인식적 정의도 수용함으로써 사전 뜻풀이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문제는 학자마다 기술이 다른 인식적 정의를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문제다. 학자들마다의 정의가 나름대로 가치와 의의가 있으나 특정 학자의 견해나 정의가 탁월하다고 수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런 활동을 통해 구성되는 의미 작용과 지식”으로 재구성하였다. ‘심리적 구성체’의 실체를 ‘의미 작용’과 ‘지식’으로 보았다. 이를테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안도현 시, 연탄재 전문”라는 시를 독자 입장에서 읽을 때 독자는 연탄이 쓰인 또는 쓰이고 있는 사회적 배경(맥락)을 모르면 이 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어떤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독자가 어떤 상황 맥락에서 이 시를 읽느냐에 따라 의미는 달라진다. 동일 독자(주체)라 하더라도 어떻게 맥락을 고려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를 의미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맥락은 이런 의미 작용까지를 아우른다는 것이 맥락에 대한 인식론적 정의의 흐름이다.

‘맥락’ 자체에 대한 지식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배경이나 상황을 따질 수 있는 지식이 있을 때 이른바 ‘맥락’을 고려한 읽기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의미 작용은 맥락적 지식에 의해 가능하고 의미 작용에 의해 지식은 다시 구성되므로 ‘의미 작용’과 ‘지식’은 상호작용 관계에 놓여 있다. 동일한 선상의 맥락 표상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2. 교육과정 내용으로서의 ‘맥락’의 지식과 전략 특성

국어교육 내용으로서의 ‘맥락’에 대한 총체적 규명에 앞서 2007 국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맥락’ 문제를 짚어 보기로 한다. 특정 교육과정의 맥락 내용의 특징뿐만 아니라 긍정성과 부정성 모두 ‘맥락’ 교육의 내용 설정을 위한 바탕 지식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2007 교육과정에서 ‘맥락’ 내용을 독립된 범주로 설정한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3.1) 그에 따른 세부 내용의 특징과 문제점(3.2.)을 살펴보기로 한다.

교육과정 맥락 논의가 많은 혼란을 주는 이유는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이

함께 교육되고 있는데다가 고등학교의 경우 국민 공통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에서 ‘맥락’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음 <표-7>는 ‘읽기’ 내용 영역을 중심으로 한 통합 비교표로 그러한 문제점을 잘 드러내 준다.

<표-7> ‘읽기’영역과 ‘독서’ 과목 7차와 2007 국어과 교육과정 비교표

<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 ‘읽기’ 공통 과목 >			<2007 국어과 교육과정 ‘읽기’ 공통 과목>	
· 읽기의 본질 - 필요성 - 목적 - 개념 - 방법 - 상황 - 특성	· 읽기의 원리 - 낱말 이해 - 내용 확인 - 추론 - 평가와 감상	· 읽기의 태도 - 동기 - 흥미 - 습관 - 가치	읽기의 실제 - 정보를 전달하는 글 읽기 - 설득하는 글 읽기 - 사회적 상호 작용의 글 읽기 - 정서 표현의 글 읽기	
· 읽기의 실제 - 정보를 전달하는 글 읽기 - 정서 표현의 글 읽기			지식 ○ 소통의 본질 ○ 글의 특성 ○ 매체 특성	기능 ○ 내용 확인 ○ 추론 ○ 평가와 감상
			맥락 ○ 상황 맥락 ○ 사회·문화적 맥락	
<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 ‘독서’ 선택과목 >			<2007 국어과 교육과정 ‘독서’ 선택과목>	
독서의 이론		독서의 실제	지식	글의 유형
(1) 독서의 본질	(가) 독서의 기능과 특성 (나) 독서의 과정 (다) 독서의 방법 (라) 독서의 가치	(1) 정보를 전달하는 글 읽기 (2) 설득하는 글 읽기 (3) 친교의 글 읽기	○ 독서의 특성 ○ 글의 특성 ○ 독서의 과정과 방법 ○ 독서의 맥락 ○ 독서의 역사와 가치	
(2) 독서의 원리	(가) 독서의 준비 (나) 독해 ① 단어, 문장, 문단의 독해 ② 글 전체의 독해 ③ 비판적 독해 ④ 감상적 독해 (다) 독해 과정의 인식 (라) 독서와 학습 방법	(4) 정서 표현의 글 읽기 (5) 인문, 사회 분야의 글 읽기 (6) 과학, 예술 분야의 글 읽기 (7) 사진류 등의 이용 (8) 다매체 시대의 언어 자료	기능 ○ 독서의 준비 ○ 독서의 수행 - 사실적 독해 - 추론적 독해 - 비판적 독해 - 감상적 독해 - 창조적 독해 ○ 독서의 성찰과 조절 ○ 독서의 활용	
(3) 독서의 태도	(가) 독서 동기 및 태도 (나) 독서 습관			○ 목적 : 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 작용, 정서 표현 ○ 주제 : 인문, 사회, 과학, 예술 ○ 시대 : 고대, 중세, 근대 ○ 지역 : 국내외

<표-7>를 보면 가로축은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2007 국어과 교육과정으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세로축은 기본 공통 내용 영역(읽기)에서 심화 선택 과목으로의 변화 내용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2007 국어과 교육과정의 ‘맥락’ 범주의 내용 요소인 ‘상황 맥락’은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읽기의 본질’ 범주의 내용 요소로 설정되어 있었다(‘맥락’이란 말을 직접 쓰지는 않음). 또한 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공통 과목의 ‘맥락’ 범주는 심화 선택 과목에서는 ‘지식’ 범주의 내용 요소로 들어가 있다.

다음은 내용 범주와 내용 요소의 상관 관계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표-8> 내용 범주와 내용 요소의 상관 관계 재구성

내용 범주 갈래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								
상위 범주	실제 범주 - 정보를 전달하는 글 읽기 - 설득하는 글 읽기 - 사회적 상호 작용의 글 읽기 - 정서 표현의 글 읽기	⇨ 성취 기준: 【7-읽-(3)】 건의하는 글을 읽고 주장의 합리성과 수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하위 범주별 내용 요소	<table border="1"> <tr> <td>지식 범주</td> <td>기능 범주</td> </tr> <tr> <td>○소통의 본질 ○글의 특성 ○매체 특성</td> <td>○내용 확인 ○추론 ○평가와 감상</td> </tr> <tr> <td colspan="2">맥락 범주</td> </tr> <tr> <td colspan="2">○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td> </tr> </table>	지식 범주	기능 범주	○소통의 본질 ○글의 특성 ○매체 특성	○내용 확인 ○추론 ○평가와 감상	맥락 범주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p style="text-align: center;">↑ ↓</p> <p>⇨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내용 요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의하는 글의 목적과 특성 이해하기 2. 문제 상황과 요구 사항 파악하기 3. 주장의 합리성과 수용 가능성 판단하기 4.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태도 기르기
지식 범주	기능 범주									
○소통의 본질 ○글의 특성 ○매체 특성	○내용 확인 ○추론 ○평가와 감상									
맥락 범주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표-8>은 내용 범주의 내용 요소와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입체 도표이다. 상위 범주는 내용 요소가 없고 하위 범주는 내용 요소가 설정 되어 있다. 성취 기준은 실제 범주와 맞닿아 있고 하위 범주별 내용 요소는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내용 요소로 구체화되어 있다.

여기서의 ‘내용’은 국어과에서 가르치거나 학습할 교육 내용을 말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가 반드시 학습해야 할 내용 범주로 ‘본질’, ‘원리’, ‘태도’를 제시했다. 내용 범주인 ‘본질’, ‘원리’, ‘태도’에서 선정된 지식, 기능을 학습하면 국어 능력이 신장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선정된 ‘내용’은 특정 담화나 글을 전제하지 않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나 기능들이다. 그러니까 ‘상황 맥락’은 7차 교육과정에서는 실제 내용과는 무관한 보편적 본질적 지식 내용으로 설정되었다가 2007 교육과정에서는 실제 내용과 연관된 맥락 범주의 내용 요소로 바뀐 것이다.²²⁾

‘내용 요소’는 내용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갈래가 있다. 하나는 내용 영역(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에 따른 내용 요소이고 또 하나는 학년별 영역별 특정한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꼭 익혀야 할 내용 요소이다. 곧 “문제 상황과 요구 사항 파악하기”라는 내용 요소는 상황 맥락 내용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 요소이자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 요소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은 맥락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분석과 비판을 위해 기본 문제와 영역을 살펴본 것이다. 그렇다면 2007 교육과정 기본 공통 과목 내용 범주에서 ‘맥락’을 독립된 범주로 설정한 의미와 타당성을 짚어보고 세부 내용을 따져 보기로 한다.

2.1. ‘맥락’ 범주 설정의 의미

‘맥락’ 범주의 특징과 의미를 짚어 보려면, 이와 관련된 용어인 ‘지식, 원리, 기능, 전략’ 등의 의미를 따져 보아야 한다. ‘맥락’은 지식으로서의 속성과 기능으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22) ‘내용 영역’은 국어과 교육 내용을 일정한 기준으로 세워 나눈 것을 말하고 ‘내용 범주’는 내용 체계를 쪼개서 보여주는 내용 분류 기준이자 내용 요소를 일정한 상위 묶음으로 묶어내는 기준을 말한다. 보통 ‘내용 범주’라고 하면 내용을 일정한 기준으로 쪼개 놓은 것을 말하고 ‘내용 요소 범주’라고 하면 여러 요소를 일정한 기준별로 묶어낸 상위 기준을 말한다.

있지만 독립된 범주로 설정한 이유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식, 원리, 기능’은 일상어이면서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범주 용어이다. ‘전략’은 교육과정 범주 용어는 아니지만 교육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용어이다. 이들 용어들은 교육과정 책과 해설서에 빈번하게 나오지만 그 조작적 정의가 불분명한 것도 있고, 분명한 경우도 일반적 사용 의미와 다른 경우가 있어 무척 혼란스러운 용어들이다.²³⁾

‘지식’ 용어는 일반 학술적 의미와 2007 국어과 교육과정의 의미가 사뭇 다르다. 2007 교육과정의 지식 내용은 7차 의미에 비해 훨씬 좁은 의미로 바뀌었다. 일반 학술적 의미로서의 ‘지식’ 차원에서 ‘지식’을 폭넓게 해설하고 있는 7차 교육과정 해설서를 근거로 지식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²⁴⁾

- (1) 개념적, 명제적 지식, 선언적 지식: 대상의 본질에 관해 아는 것으로, ‘knowing what’에 해당한다.
- (2) 원리적 지식, 방법적 지식, 절차적 지식: 대상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해 아는 것으로, ‘knowing how’에 해당한다.
- (3) 맥락적 지식, 조건적 지식, 메타-지식: 지식의 활용 전략에 관해 아는 것으로, ‘knowing why’, 또는 ‘knowing when’에 해당한다.

곧 보통 학술적 ‘지식’은 명제적(본질적, 형식적, 이론적) 지식, 절차적 지식(원리적 지식, 방법적 지식), 맥락적 지식(조건적 지식, 메타 지식) 모두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그러나 2007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용어로서의 ‘지식’은 절차적 지식과 맥락적 지식을 제외한 형식적(본질적, 명제적) 지식만을 가리킨다.

7차 교육과정까지 포함하여 범주 용어와 내용 의미로 보면 더욱 혼란스럽다. 김혜련(2010: 95)에서 다음과 같은 표로 그 흐름을 정리한 바 있다(명주 명칭 추가 재구성).

<표-9> 7차 교육과정과 2007 교육과정의 내용 범주와 의미 비교

7차 교육과정		2007 교육과정	
범주 명칭	의미	범주 명칭	의미
본질	명제적 지식으로 ‘무엇은 무엇이다’와 같이 명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으로 진리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지식	지식	답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서 요구되는 형식적, 본질적, 명제적 지식
원리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지식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와 방법 및 전략에 대한 지식	기능	답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 관여하는 사고나 절차나 과정

7차 교육과정의 ‘본질’ 범주와 2007 교육과정의 ‘지식’ 범주의 지식이 ‘명제적 지식’으로 좁은 의미로 쓰인 것은 같지만, 2007 교육과정에서는 ‘답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이라는 실용적이고도 역동적인 맥락 조건을 제시하여 ‘명제적 지식’으로서의 맥락을 강조했다. 명제적 지식이 추구하는 본질성과 형식성이 고정불변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면, 두 교육과정의 ‘명제적 지식’은 명칭은 같아도 추구하는 지식의 본질은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일반적인 ‘원리’는 “어떤 일의 밑바탕을 이루는 생각이나 이치(보리 국어사전)”를 말한다.

23) 김혜련(2010)은 이러한 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지식’ 문제를 “불안한 위상”으로 정리하고 그 근본 원인을 “지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나 이론의 부재(97쪽)”로 보았다.

24) 교육과정 해설서는 일반 학문 담론을 일정 부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좀더 세밀하게 풀면, ‘작용’이 일어나는 ‘이치’로 좀더 실용적인 방향으로 생성되는 체계화된 틀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의 ‘원리’는 절차적 지식과 전략적 지식을 말한다.

‘기능’은 일반적으로는 원리가 실제에 미치는 작용이나 학습자의 역할을 말하는 것인데 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사고와 절차’로 정의하였다. 이는 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을 강조한 정의다. ‘기능’의 일반 의미가 현상 위주의 개념이라면 교육과정의 ‘기능’은 학습자의 능동적 사고와 절차 중심의 정의다. 사고와 절차는 주체의 합리적 판단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기능’의 의미와 주체의 판단 과정이 중요한 ‘전략’과의 차이가 모호해진 것이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전략’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략은 상황과 맥락에 따른 주체의 판단 능력이 더욱 강조된 용어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너의 전략은 무엇이나.”는 자연스럽지만 “너의 기능은 무엇이나.”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서 ‘전략’은 ‘기능’에 비해 주체 중심의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사전에 기댄 일반적인 ‘전략’의 의미는 “정치, 경제 따위의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책략(표준국어대사전)” 또는 “어떤 일에 대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책(연세한국어사전)” 등을 말한다. 국어교육학 사전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계획 혹은 방법(국어교육학 사전, 663쪽)”으로 설정했다.

일반 사전의 ‘책략, 방책’이란 말이 보여주듯, 다분히 목표지향적이면서도 기능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교육 분야의 전략은 “주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획적이고 능동적인 판단 능력이나 사고 과정”을 말한다.²⁵⁾ 사전의 일반 뜻풀이에 비해 주체의 의지, 사고력에 따른 판단 능력 등이 더 강조되었다.²⁶⁾ 이런 흐름에 따라 2007 교육과정에서의 ‘전략’은 학습자의 기획, 의지, 목표가 반영된 절차적인 언어 능력을 말한다.²⁷⁾ 이를 ‘언어 전략’으로 좀더 보완해보면, “언어 행위 주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황과 맥락에 가장 적절함, 의도적이고 기획적인 언어적 판단”이다.²⁸⁾ ‘전략’은 고등 정신 능력이면서 실용적 능력이다. 이러한 전략의 속성은 다음 다섯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²⁹⁾

1) 전략은 주체의 목적 지향적인 행위이다.

25) 박인기(1995: 75)는 문학교육의 연구 수준을 ‘이론, 모형, 전략, 실제’로 파악했다. 박인기(2001: 217-221)는 이런 틀을 언어 교육 이론으로 발전시켜 “철학(philosophy)-이론(theory)-모형(model)-전략(strategy)-실제(practice)”의 차원으로 나누되, 그 층위는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이론성과 실제성의 동태적 층위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자는 이런 견해에 따라 ‘전략’ 층위가 동태적 층위라고 보았다. 최현섭 외(1996: 45)에서는 박인기(1995)를 참조로 국어교육 현상의 탐구를 “철학/이론 또는 모형/구조, 과정 또는 전략/실제 네 가지 수준으로 나누었다.

26) 교육과정과 관련시킨 ‘전략’연구의 계보는 노명완 외(1988: 26-27), 박수자(1993), 최영환(1995), 천경록(1995), 최영환(1997), 이도영(1998)으로 이어진다. 이도영(2000)을 참조. 이도영(2000)의 전략 논의는 박사학위 논문인 이도영(1998: 125-142)에서의 전략 논의를 확장하여 정리한 것이다.

27) 교육과정과 관련시킨 ‘전략’ 연구의 계보는 박수자(1993), 최영환(1995), 천경록(1995), 최영환(1997), 이도영(1998)으로 이어진다. 이런 계보에 대해서는 이도영(2000)을 참조.

28) 2007 교육과정 해설서에는 “독서 전략, 말하기 전략” 등과 같이 많은 용례가 나오지만 명시적인 의미나 정의는 나오지 않는다.

29) 전략에 대해서는 이도영(1998: 131-132, 2000: 142-172)에서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그 특성을 열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전략은 목적 지향적인 행위이다. 둘째, 전략은 의식적인 행위이다. 셋째, 전략은 의도적인 행위이다. 넷째, 전략은 계획적인 행위이다. 다섯째, 전략은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능력이다. 여섯째, 전략은 많은 양의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곱째, 전략의 사용에는 수준과 위계가 있다. 여덟째, 전략의 사용에는 정의적인 요소가 개입한다. 아홉째, 전략은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있고, 가르치기 어려운 것도 있다. 열째, 전략 사용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목적 달성의 유무이다. - 이도영(2000: 161-162쪽).

위와 같은 열 가지 전략 특징에는 전략의 일반 특성도 있고 전략에 대한 메타적 판단 행위도 있고(10번), 교수법 차원의 특징(9번)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좀더 명징한 속성 구성을 위해 핵심 내용만 다시 재구성해 본 것이다.

- 2) 전략은 충분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 3) 전략은 주체의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판단 능력이다.
- 4) 전략은 주체의 원리와 기능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다.
- 5) 전략은 주체의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능력이다.

곧 전략은 지식과 사고를 바탕으로 기능 능력까지 갖춘 총체적 능력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략’이 국어교육에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첫째, ‘전략’은 언어실천 주체의 능동적인 맥락적, 상위인지적 언어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다. 학습자의 주도적 학습 위주의 통합 교육을 강조하는 7차 교육과정 이후에 ‘전략’ 용어 사용이 급증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³⁰⁾ 둘째, ‘전략’식 접근은 언어 능력 차원에서 학습자에게도 중요하고 교수법 차원에서 교사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표로 정리해 보면 <표-10>과 같다.

<표-10> ‘지식, 원리, 기능, 전략’ 사용역

용어	사용역
지식1	일반적인 지식으로 형식적(본질적, 명제적) 지식, 절차적 지식, 맥락적 지식 모두를 포괄하는 용어
지식2	2007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용어로 절차적 지식과 맥락적 지식을 제외한 형식적 지식
원리1	어떤 일의 밑바탕을 이루는 생각이나 이치(보리 국어사전)
원리2	7차의 내용 체계의 명칭이나, 2007 국어과 교육과정의 ‘기능’과 같은 계열의 단어
기능1	일반적인 ‘기능(function)’으로 하는 구실(역할)이나 작용(표준국어대사전)
기능2	2007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용어로 절차와 사고 또는 그런 지식
전략1	1. 일반적인 ‘전략’으로 “정치, 경제 따위의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책략(표준국어대사전)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계획 혹은 방법(국어교육학 사전, 663쪽)
전략2	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학습자의 기획, 의지, 목표가 반영된 절차적인 언어 능력, 예) 기능과 전략, 원리와 전략,

그렇다면 ‘지식1, 원리2, 기능2, 전략2’의 차이를 따져 보자. 지식은 여러 갈래를 설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고력을 전제로 개념과 체계를 갖춘 내용이나 정신작용을 말한다. ‘원리’는 특정 대상에 대한 체계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생성 가능한 이치로 추상화시킨 것이다. 원리는 다양한 실체로 생성되는 일종의 틀이다. 이러한 ‘원리’를 좀더 구체화시킨 것이 기능이다.

‘기능’이 사고와 절차라는 2007 국어과 교육과정의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전략’은 주체의 기획과 목표 등을 더욱 강조한 것이다.³¹⁾ 이를 다시 정리해 보면 <표-11>과 같다.

<표-11> ‘지식, 원리, 기능, 전략’의 차이

용어	속성	차이
지식 1	개념성, 체계성, 사고성	
원리 2	체계성, 생성성, 일관성, 추상성	지식 바탕, 일관성, 생성성 강조
기능 2	사고, 절차, 구체성	원리 바탕, 절차 강조
전략 2	주체, 목표, 기획, 사고(판단), 절차,	지식, 원리 바탕, 주체성, 총체성 강조

30) 2007 국어과 교육과정 초중고 해설서에서 겹치는 분야를 빼면 모두 68번, 선택과목 해설서에서는 133번이나 나온다.

31) 이삼형(2005: 192)에서 단순 기능과 전략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탈맥락적인 때는 ‘기능’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고, 맥락적인 때는 ‘전략’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밝힌 바 있다. 맥락을 고려하는 행위는 기능으로 보기보다는 전략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로 보면 매우 옳은 지적이다.

그렇다면 ‘맥락’과 ‘전략’의 관계는 무엇인가가 문제다. 맥락은 지식 속성과 기능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전략으로서의 특성이 더욱 강하다. 맥락을 고려하는 전략은 일반 전략을 뛰어 넘는 상위 전략이다. 왜냐하면 맥락을 고려해야 다른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한석봉이야기>를 요약할 경우, 주어진 글을 단순히 줄이는 것은 방법 지식 또는 기능 지식만으로 가능하다. 지식과 결부시킨다면 ‘개념적 지식’만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요약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왜 요약해야 하는가(상황 맥락), 조선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이 이야기를 요약해서 얻는 지식이 지금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사회 맥락)” 등과 같은 맥락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맥락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맥락을 고려하는 전략에 의해 제대로 된 요약 전략이 형성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맥락 전략은 요약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메타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런 메타 전략성 때문에 독립된 범주로 설정할 것이라 볼 수 있다.

김재봉(2007: 87-88)에서는 ‘맥락’ 범주 설정에 회의를 표시하면서도 맥락을 전략으로 접근해야 함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맥락은 지식과 기능(선언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 모두에 관련된다. 자료집에 구체적인 설명은 없으나 언어적 맥락은 이미 텍스트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내용 체계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가 되는 것이 비언어적 맥락이다. 비언어적 맥락은 텍스트에 직접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텍스트의 표현과 해석에 관련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지식과 기능을 신장시키기 위해 비언어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맥락을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맥락 자체를 가르치기보다는 맥락을 활용하여 지식과 기능을 가르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따라서 지식과 기능과 맥락의 관계는 ‘지식과 기능’이 가르쳐야 될 핵심적 요소이고, 맥락을 이들을 위해 지원되는(활용되는) 지식으로 보고자 한다.

맥락을 전략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연구자와 같은 견해이나 맥락을 지식이나 기능 학습의 도구 차원으로 설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맥락 자체를 가르치지 않고 맥락을 활용하게 하는 것은 맥락의 중요성과 가치를 존중하면서 반쪽만 가르치겠다는 이치와 같다. 맥락이 도구나 전략적 성격이 강하다면 오히려 그것에 관한 직접적 교육을 통해 제대로 된 도구나 전략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맥락에 대한 간접 교육 차원에서 맥락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상황이나 사회문화 배경을 따지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용어만 쓰지 않았지 왜 상황을 따져야 하는지 왜 배경을 따져야 하는지는 배워야 할 대상이다.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맥락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의 차이를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교수법의 차이일 뿐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맥락 전략을 익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범주 명칭의 개념 정리를 통한 맥락 범주 설정의 의미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각 범주의 내용 요소의 상관 관계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맥락’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2.2. 교육과정의 ‘맥락’특징과 문제

1) ‘맥락’ 범주 설정의 의미

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맥락’ 범주를 도입한 긍정 취지와 의의를 가장 명확하면서도

강하게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 지식과 기능의 쓰임은 그 자체만으로 적절성을 평가할 수 없다. 이들과 상호 작용하는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적절성이 평가된다. 맥락의 강조는 언어활동에 역사성, 사회성, 윤리성을 부여하고, 언어활동이 갖는 관계성, 소통성, 대화성을 환기시킴으로써 비판적, 성찰적인 언어 학습자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_교육과학기술부(2008a: 6)

첫 두 문장에서 아예 ‘실제, 지식, 기능’ 세 범주는 ‘맥락’ 범주의 도움을 받아야만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맥락과의 관계’라고 했지만, 이 말의 문맥적 또는 맥락적 의미는 “맥락 고려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맥락’ 범주가 다른 범주인 ‘지식’이나 ‘기능’ 범주와 대등한 층위에 있으면서 그 바탕 범주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일컫는다. 이런 이중적 역할과 의미만으로도 ‘맥락’ 범주의 비중과 독자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맥락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역사성, 사회성’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염두에 둔 기술이다. 언어생활의 주체가 맥락을 제대로 고려하는 언어활동을 할 때 역사성과 사회성에 따른 국어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리성’은 문법 영역의 국어 의식, 국어 생활 문화 맥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윤리성’은 개인의 도덕 의식이라기보다 주체성 있는 언어생활을 통한 공동체 기여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문법 선택 과목에서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문화를 창의적으로 발전시킨다.”라는 목표와도 일치한다.

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범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고, 바로 그런 연계성 강화, 곧 통합 구실을 하는 범주가 ‘맥락’이다. 이는 7차 교육과정과의 대비를 통해 잘 드러난다.

2007 국어과 교육과정의 통합 관점에서 보았을 때 7차의 내용 범주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첫째는 ‘본질’, ‘원리’, ‘태도’ 범주에서 선정된 ‘내용’은 특정 담화나 글을 전제하지 않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나 기능들이다. 곧 ‘실제’ 범주와의 통합성이 없어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본질’, ‘원리’, ‘태도’를 독립된 범주로 설정하여 이들 각 범주가 통합적으로 운용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통합은 근본적으로 학생 중심, 활동 중심으로 가야 한다. 7차는 활동 중심의 ‘실제’ 범주가 맨 밑에 있고 교사 중심의 ‘본질’을 앞세운 이상 통합과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있다.

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실제’ 범주를 맨 위로 올린 것은 학생의 언어활동 중심의 통합을 의미하고 이러한 실제 범주의 영향 아래 있는 ‘지식’, ‘기능’, ‘맥락’ 범주의 상호 통합성을 지향한다. 이 때의 통합은 정밀하게 말하면 통합과 교섭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통합’의 의미는 실제 범주를 중심으로 할 때의 의미이다. 곧 ‘실제’ 범주를 통한 국어 활동은 세 범주가 모두 영향을 끼칠 때 제대로 된 활동이 된다. 다시 말하면 세 범주 각각의 특이성을 살리면서 합치는 ‘통합’이다.

교섭은 각각의 범주에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이다. 이를테면 ‘맥락’을 고려한 ‘지식’ 범주, ‘지식’을 고려한 ‘맥락’ 범주와 같이 과정과 전략 차원에서 각각의 특이 요소가 다른 범주에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라면 ‘지식’ 범주의 형식적 지식은 ‘맥락’을 고려하게 되므로, 어떤 ‘형식적 지식’이 왜 필요한가라는 ‘과정적 지식’ 또는 ‘맥락적 지식’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런 맥락 때문에 다음과 같은 비판은 일리가 있다.

맥락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다고 해서 그것을 어울리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은 오히려 그 정체를 더 모호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지식’의 하위 요소를 ‘소통의 본질’, ‘글의 특성’, ‘매체 특성’으로 제한해 놓고, ‘또 다

른 ‘지식’을 ‘맥락’이라는 이름을 붙여 범주화 한 것은 ‘지식’과 ‘기능’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도 논리 상 맞지 않다. 그 동안 노출되었던 문제들이 내용 선정 범주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 범주 정교화의 문제나 구체적 실현의 문제가 아니었는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교육 내용 선정 범주를 전통적인 삼분법인 ‘지식(아는 것)’, ‘기능(하는 것)’, ‘태도(지나는 것)’로 구분하고, 각 범주의 ‘하위 요소’나 ‘내용 요소’에서 ‘맥락’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 _임천택(2007: 124)

그러나 ‘맥락’은 다른 범주의 하위 요소로 보기에는 복잡성이 강하다. 다음과 같은 지적에서 나타난 맥락의 중의성은 오히려 독립된 범주로 봐야 하는 준거가 됨을 알 수 있다.

‘맥락’이 ‘지식’ 및 ‘기능’과 동일한 위상으로 교육 내용 체계표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대상인가이다. 맥락 역시 지식적 속성을 갖고 있는데다가 실제 소통 국면에서는 기능과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_신명선(2008a: 358)

맥락을 어느 한 범주에 소속시키는 것이나 그렇다고 직접적 교육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 모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범주별로 그러한 점을 더 짚어보기로 한다.

2) 다른 범주와의 관계 의미

(1) 실제와 맥락

‘실제’ 범주 명칭은 ‘텍스트’라는 용어 대신에 설정되었다. 따라서 ‘실제’는 텍스트 중심의 언어활동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다만 ‘실제’ 범주의 여러 가치를 분석해 보면, ‘실제’는 ‘텍스트’ 그 자체라기보다는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을 뜻하는 ‘실제=텍스트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표-12>에서 보듯, ‘읽기’ 영역의 경우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텍스트)’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글 읽기’로 되어 있다. ‘-읽기’ 행위가 강조되어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문법과 문학의 경우는 ‘실제’라는 범주 앞에 각각 ‘국어사용의’, ‘작품의 수용과 생산’과 같은 수식어가 붙어 있다. 이들 영역의 실제 범주는 언어 사용 영역과는 달리 구성 요소가 문법 단위, 문학 장르(텍스트)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위와 장르는 사용와 활동의 전략적 단위일 뿐이다. 따라서 ‘실제’ 범주는 ‘텍스트 생산과 수용 범주’ 또는 ‘실제 학생들 활동 맥락에서 설정되는 텍스트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³²⁾

<표-12> ‘실제’ 범주의 내용 요소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문법	문학
<p>실제</p> <p>-정보 전달하는 말 듣기/말 하기/글 읽기/글 쓰기</p> <p>-설득하는 말 듣기/말 하기/글 읽기/글 쓰기</p> <p>-사회적 상호 작용의 말 듣기/말 하기/글 읽기/글 쓰기</p> <p>-정서 표현의 말듣기/말 하기/글 읽기/글 쓰기</p>	<p>국어 사용의 실제</p> <p>- 음운 - 단어 - 문장 - 담화/글</p>	<p>작품의 수용과 생산의 실제</p> <p>- 시(시가) - 소설(이야기)</p> <p>- 극(연극, 영화, 드라마)</p> <p>- 수필·비평</p>

텍스트 중심의 실제 국어활동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이 ‘맥락’ 혹은 ‘텍스트’ 중심이라고 지칭되는 것은 결국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는 다른 용어들로 이해할 수 있다.”는 김혜정(2009: 33)의 평가는 옳다. 그런데 ‘실제’ 범주의 내용 요소와 활동 중심

32) 김도남(2007: 66)에서는 국어과 교육에서 사용하는 ‘실제’를 두 가지 의미로 나눴다. 하나는 학습한 ‘기능/전략’을 적용해 보는 학습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한 내용을 국어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내용 범주로서의 ‘실제’보다는 일반적인 ‘실제’ 의미다.

의 가치는 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강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언어 자료(텍스트) 차원의 교육 내용은 국어 이해와 표현 활동과 관련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실제’라는 범주명을 사용하였는데, ‘실제’라는 용어 대신 ‘사용’, ‘활동’, ‘텍스트’ 등의 용어 사용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국어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 네 가지 범주의 교육 내용은 각 영역별로 교육 내용을 축으로 유기적으로 관련지어 학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실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교육인적자원부(2001: 24쪽, 주석 1번)

‘실제’ 범주의 내용 요소 구성과 그 가치는 7차 교육과정이나 2007 교육과정이나 같다. 차이는 ‘실제’ 범주가 하위 범주에서 상위 범주로 바뀐 것뿐이다. 다시 말하면 7차 교육과정에서 ‘실제’ 범주의 내용 요소와 그 가치가 2007 교육과정과 같다 하더라도 어디에 배치되었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다르다. 그러므로 ‘실제’가 상위 범주로 배치된 것은 ‘실제’ 범주의 교육적 의도를 제대로 실현해 보자는 것이고, ‘맥락’ 범주 도입은 바로 그런 실제 범주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 범주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2) 지식과 맥락

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현대 한국 사회가 정보화·다매체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정보·지식의 습득과 문화생활은 물론 일상적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의 사용과 영향이 급격히 증대되었다.”라고 하여 지식 교육의 시대적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지식의 수용과 생산에 국어교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에서의 ‘지식’은 특정 담화나 글을 전제하지 않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에 머물러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특정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 차원에서는 보편적 지식이 아닌 실용적 지식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지식’ 범주의 ‘지식’은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서 요구되는 형식적, 본질적, 명제적 지식’을 의미한다.”라고 하여 ‘절차적 지식, 맥락적 지식’은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절차적 지식에 가까운 ‘기능’ 범주와 차별성을 두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총론에서의 실용적 지식론과는 거리가 있다. 이런 내용 배치에 대해 김혜련(2010: 97)에서는 목표 규정에서는 지식을 적극적 관점으로 강조하고, 내용 범주에서는 소극적 관점을 보이고 있어, 상반된 관점이 ‘모호하게 공존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렇다면 2007 교육과정에서의 ‘지식’ 범주는 실제로 절차적 지식이나 맥락적 지식은 배제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기능’ 범주는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 관여하는 사고의 절차나 과정’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리고 ‘지식’ 범주와 나머지 세 범주와의 교섭 또는 통합 접근을 강조했다. 따라서 ‘실제’ 언어활동을 위한 지식, ‘기능’ 범주를 도와주는 지식, ‘맥락’을 고려한 지식으로 발전시키면 당연히 절차적 지식, 맥락적 지식이 활성화됨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교수법 진술에서 드러나 있다.

<표-13> 내용 영역의 ‘지식’ 범주 내용 요소 모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소통의 본질 ○담화의 특성 ○매체 특성	○소통의 본질 ○글의 특성 ○매체 특성	○언어의 본질 ○국어의 특징 ○국어의 역사 ○국어의 규범	○문학의 본질과 속성 ○문학의 양식과 갈래 ○한국 문학의 역사		

6개 내용 영역에서 지식 범주의 하위 요소는 [표 13]와 같다. 이에 대하여 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수법 전략은 다음과 같다. ‘읽기, 쓰기’의 경우만 보기로 한다.

‘소통의 본질’, ‘글의 특성’, ‘매체 특성’에 대한 내용을 고루 선정하되, 이와 관련되는 지식은 글을 이해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맥락과 연계하여 제시한다.

- ① ‘소통의 본질’은 읽기 활동이 글을 통한 필자와의 의사소통임을 이해하고 개인적·사회적인 소통 행위로서 읽기를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한다.
- ② ‘글의 특성’은 글의 일반적인 특성과 글의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되, 지나치게 세분화된 유형이나 지역적인 특성보다는 각 유형의 글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정한다. 밑줄 강조 연구자.

‘본질, 속성, 특징’ 등은 2007 국어과 교육과정대로 명제적 지식이 맞다. 다만 “어떤 본질인가, 어떤 속성인가, 어떤 특징인가” 또는 “본질의 맥락은 무엇인가. 속성의 맥락은 무엇인가, 특징의 맥락인가”라고 접근하면 질차적 지식 또는 맥락적 지식이 된다. 또는 그러한 지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로 보면 더욱 지식의 범위는 확장된다.

그리고 ‘지식’ 범주가 본질적 지식으로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 지식 자체에 ‘맥락’이 함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07 국어과 교육과정 고교 독서 선택과목 <독서>에서 ‘소통의 본질’을 “독서는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능동적 사고 행위이며,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의미를 소통하고 창조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맥락에 따른 소통이 소통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독서의 맥락을 고려하고, 독서의 역사를 이해하여 독서의 가치를 내면화하며, 독서의 힘을 실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독서 능력을 더 거시적이고, 역사적이며, 실제 생활과의 연관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내용들을 선정하고 체계화”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독서, 작문’의 경우 ‘맥락’은 ‘지식’ 범주 속에 포함되어 있다. 공통 과정과 마찬가지로 ‘맥락’을 독립된 범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른바 ‘심화’는 공통 과목의 중요한 이론적 틀은 유지하면서 난이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요소를 더 보태는 식이어야 하는데 지금 심화 과목은 기본 틀을 바꾼 셈이다. 물론 ‘맥락’이 지식 범주의 하위 요소로 설정된 의미는 공통 과정의 ‘지식’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표-14> ‘독서’선택 과목 7차와 2007 국어과 교육과정 비교

<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		<2007 국어과 교육과정>	
독서의 이론	독서의 실제	지식	글의 유형
(1) 독서의 본질	(1) 정보를 전달하는 글 읽기 (2) 설득하는 글 읽기 (3) 친교의 글 읽기 (4) 정서 표현의 글 읽기 (5) 인문, 사회 분야의 글 읽기 (6) 과학, 예술 분야의 글 읽기 (7) 사전류 등의 이용 (8) 다매체 시대의 언어 자료	○독서의 특성 ○글의 특성 ○독서의 과정과 방법 ○독서의 맥락 ○독서의 역사와 가치	
(2) 독서의 원리	(가) 독서의 준비 (나) 독해 ① 단어, 문장, 문단의 독해 ② 글 전체의 독해 ③ 비판적 독해 ④ 감상적 독해 (다) 독해 과정의 인식 (라) 독서와 학습 방법	기능 ○독서의 준비 ○독서의 수행 - 사실적 독해 - 추론적 독해 - 비판적 독해 - 감상적 독해 - 창조적 독해 ○독서의 성찰과 조절 ○독서의 활용	
(3) 독서의 태도	(가) 독서 동기 및 태도 (나) 독서 습관		○목적 : 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 작용, 정서 표현 ○제재 :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시대 : 고대, 중세, 근대 ○지역 : 국내외

결국 선택 과목에서는 독서의 본질을 공통 과목의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까지 아울러 아래와 같이 심화시켰다.

<표-15> 2007 독서 선택과목에서의 독서 ‘맥락’ 지식 내용

갈래	맥락 지식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도 전략
상황 맥락	독서는 구체적인 상황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지적 활동이므로 상황 요인에 대한 이해가 바르고 효율적인 독서, 균형 잡힌 독서에 기여한다.	(1) 어떤 성격의 글인가 (2) 내용이 무엇인가 (3) 독서 목적이나 과제에 따라 독서 자료로 선택, 선택된 경우라도 읽는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다. (4) 독자의 성향	(1) 독서에서 여러 상황 요인을 점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독자로서의 학습자 자신에 대한 인식과 점검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사회 문화적 맥락	독서가 일어나는 직접적이고 미시적인 맥락뿐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거시 맥락 역시 독서에 영향을 미친다.	(1) 독서 관련 문화가 학습자들의 독서 태도와 큰 관련성을 갖는다. (2) 사회 제도 또한 독서에 영향을 미친다. (3) 독자가 속해 있는 집단의 시대적 과제, 사회적 관습, 문화적 특성 등도 독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독서 수행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고 독서 수행에 제약을 가하기도 한다.	(1) 내가 처해 있는 독서 관련 문화와 제도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고, 바람직한 지향점을 설계해 보도록 안내한다. (2) 자신 역시 다른 사람의 독서 환경이 되어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독서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한다.

문법 영역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욱 복잡해 보인다. 이런 교육과정의 ‘지식’에 대한 다중성은 박형우(2010: 109)에서와 같은 문제의식을 낳을 수밖에 없다.

발표자(김슬옹)의 논의에서와 같이 순수언어학에서 응용 언어학으로의 연구 영역 확대는 자연스럽게 (주로 상황 맥락이나 사회·문화 맥락과 관련된) ‘맥락’의 문제가 언어학의 탐구 대상에 포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때 논의되는 ‘맥락’을 국어교육의 문법 영역 교육 내용 중 어디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교육과정 개발자들은 이 문제를 ‘지식’의 내용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발표자는 이 맥락 또한 ‘맥락’이라는 교육내용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맥락을 ‘맥락’의 범주가 아니라 ‘지식’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사실 다른 영역, 특히 언어 사용 기능 영역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맥락에 대한 언급을 ‘맥락’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현재는 언어학의 연구 영역 확대로 ‘맥락’ 자체가 언어학의 연구 대상이 된 상태이다. 즉 언어학의 연구 대상에서 ‘맥락’을 분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때의 맥락을 분리하여 ‘맥락’의 영역에 제시한다면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 논의한 ‘지식’ 내의 ‘언어의 본질, 국어의 특질, 국어의 역사, 국어의 규범’ 등은 모두 상황적 맥락이나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되어 응용언어학의 가치를 주장하는 발표자의 입장까지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문법 영역의 지식 범주 내용 요소 가운데 “언어의 본질”은 명제적 지식으로 큰 문제가 없지만, “국어의 특질, 국어의 역사, 국어의 규범”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언어의 특수성 분야가 부각되다보니 ‘지식’을 명제적 지식으로 한정시킨 모순이 더욱 드러난 것이다. 그러다보니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표면상 배제시키고 ‘국어의식, 국어 생활 문화’ 맥락 내용 요소가 문제가 된 것이다.

2007 국어과 교육과정의 구도대로라면, 문법 영역의 경우 “국어의 특질에 대한 명제적 지식, 국어의 역사에 대한 명제적 지식, 국어의 규범에 대한 명제적 지식”으로 최대한 좁혀

‘맥락’ 범주와 연계시켜 지식 영역을 확대하든가, 아니면 위에서와 같이 “본질, 특질, 역사, 규범” 지식 안에 맥락적 지식이 본질적 지식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기능과 맥락

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기능’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쓰인다. 첫째, ‘기능적 문식성’이라는 의미로 ‘언어 기능’라는 말에서 쓰인 ‘기능’을 말한다. 이 때의 의미는 언어 양식에 따른 실용적 언어 사용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국어교육에서는 학습자의 국어 사용 능력 신장을 강조하여 왔다. 이 능력은 기존 지식의 단순 수용이나 표출 능력이 아니라, 언어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사고(의미)와 언어를 연결 지어야 하는 지적 기능으로서의 고등 정신 능력이다. 이 능력은 단순히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기초 기능이 아닌, 의미를 언어화(표현)하고 언어에서 의미를 추출하여 재구성(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맥락의 학습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에 효과적으로 신장되는 능력이다. - 고등학교 해설서

둘째는 위 인용문에서 쓰인 ‘지적 기능’에서의 ‘기능’으로, 이는 고등 정신 능력으로서의 기능을 말한다. 곧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고 있는 창의적, 비판적 국어 사용 능력이다. 이 때의 기능은 지식과 연계되어 실제 언어활동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2007 국어과 교육과정 목표에서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

셋째는 ‘기능’ 범주의 의미로,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 관여하는 사고의 절차나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하였다. 사고의 절차나 과정에서는 ‘맥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표-16> 내용 영역의 ‘기능’ 범주 모음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문법(담구)	문학(수용과 생산)
○내용 확인 ○추론 ○평가와 감상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과 전달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과 고쳐쓰기	○관찰과 분석 ○설명과 일반화 ○판단과 적용	○내용 이해 ○감상과 비평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작품 창작	

세 가지 의미를 함께 고려해 볼 때 이 때의 ‘기능’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맥락을 고려한 기능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표 16]에서 제시한 기능 활동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제대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내용 생성’을 할 수 없으며, ‘관찰과 분석’을 할 수 없고, 문학 작품의 ‘내용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없다.

3) 각 영역별 맥락의 구성 요소 의미와 문제

‘맥락’ 범주는 ‘실제’ 범주의 하위 범주로, ‘지식’과 ‘기능’ 범주와는 대등한 범주로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곧 ‘맥락’ 범주는 ‘실제’ 범주를 ‘실제’ 범주답게 하면서, ‘지식’과 ‘기능’을 연계시켜 ‘실제’ 범주로 이어지게 하는 바탕 범주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바탕 범주’라는 것은 이관규(2007: 59)에서 “개정 교육과정을 가히 실제 중심,

맥락 중심 교육과정”, 김혜정(2009: 33)에서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텍스트’ 혹은 ‘맥락’ 중심 교육과정”으로 규정한 맥락과 같다. 곧 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실제’와 하위 범주와의 통합, ‘지식, 기능, 맥락’ 세 범주끼리의 통합을 강조했는데 그 중심 축에 ‘맥락’ 범주가 있다.

2007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성취 내용으로 나타난 맥락 범주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7> 2007 성취 기준과 내용에 직접 언급된 ‘맥락’의 갈래

갈래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
일반적 맥락	[4-읽-(2)]-② 맥락에 따라 낱말 선택이 달라짐을 이해하기 [6-읽-(4)]-③ 웃음을 유발하는 글의 소통 맥락 이해하기 [7-쓰-(3)]-④ 건의하는 글이 소통되는 일반적인 맥락 이해하기 [7-읽-(1)]-③ 맥락을 고려하면서 글을 읽는 방법 파악하기 [9-쓰-(3)]-④ 서평이 소통되는 맥락 이해하기
상황 맥락	[6-읽-(1)]-④ 글을 쓸 때의 상황 맥락을 파악하여 글쓴이의 관점 평가하기 [6-읽-(2)]-④ 논증이 요구되는 상황 맥락 이해하기 [8-문법-(5)]-⑤ 담화나 글의 의미 해석에 상황 맥락이 관여함을 이해한다. [8-문법-(5)]-① 상황 맥락의 구성 요소 이해하기 [8-문법-(5)]-② 상황 맥락이 담화나 글의 의미 해석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8-문법-(5)]-③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수용 생산 맥락	[9-읽-(1)]-④ 책의 생산·수용 맥락을 고려하여 인기 있는 책의 효용과 폐해 평가하기
사회문화 맥락	[6-듣-(3)]-④ 인사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락을 이해한다. [8-쓰-(3)]-④ 독자의 사고, 가치를 형성한 사회·문화적 맥락 이해하기 [10-쓰-(3)]-④ 시사 문제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해 이해하기 [10-쓰-(5)]-④ 비평문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맥락 이해하기 [10-읽-(1)]-④ 인터넷 시대에 규약문 이해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맥락 이해하기
역사적 맥락	[5-읽-(1)]-④ 역사적 배경, 맥락 등에 비추어 글의 의미를 해석하기

(1) 국어 사용(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의 ‘맥락’ 내용 요소

국어 사용 영역의 하위 내용 요소인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은 부분 요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상황’을 맥락의 하위 요소로 보면서도 상위 범주 명칭(맥락)을 그대로 붙여 마치 같은 층위의 분류 형식을 취하였다. 이는 맥락의 중층성과 맥락 접근의 효율성 때문이다. ‘상황’은 맥락의 하위 요소이면서도 그 자체가 맥락을 표상하기도 한다. 또한 학습자에 대한 맥락 접근이나 설명이 손쉽다는 것이다. “맥락을 따져라.”라고 하면 막연할 수 있지만, “상황 맥락을 따져라.” 또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따져라.”라고 하면 맥락의 구체성 맥락 따지기의 전략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국어 사용’ 영역의 내용 요소에 대해 김혜정(2009)에서는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 (1) 화용적 맥락(pragmatic context)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본질인 언어적 맥락(linguistic context)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됨
- (2) 텍스트 내적 맥락(내용적 맥락)의 중요성 간과

위와 같은 지적은 일리는 있으나 각 범주와의 중복을 피하고 교섭성을 강화시키는 전략에서 언어적 맥락과 텍스트 내적 맥락을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지적한 두 가지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식’ 범주와 ‘기능’ 범주에 내재되어 있고, 더군다나 맥락 범주의 연계성을 통해 위 두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이다. ‘설득하는 글 읽기’ 영역에 적용해 보면 [표 18]와 같이 구성될 수 있다.

<표-18> 설득하는 글 읽기의 범주 내용 요소

읽기의 실제 : 설득하는 글 읽기	
지식	기능
지1. 설득하는 글 읽기를 통한 소통의 본질 지2. 설득하는 글 읽기의 특성 지3. 설득하는 글 읽기의 매체 특성	기1. 설득하는 글의 내용 확인 기2. 설득하는 글의 추론 기3. 설득하는 글의 평가와 감상
맥락	
맥1. 설득하는 글의 상황 맥락(저자 중심), 설득하는 글 읽기의 상황 맥락(독자 중심) 맥2. 설득하는 글의 사회·문화적 맥락(저자 중심), 설득하는 글 읽기의 사회·문화적 맥락(독자 중심)	

위와 같이 보면 ‘기능’ 영역에서 언어 내적 맥락 또는 텍스트 내용 맥락을 따질 수 있으며, ‘지식’ 영역에서도 ‘설득하는 글 읽기를 통한 소통의 본질’은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본질이므로 역시 언어적 맥락, 텍스트간 맥락을 따질 수 있다. 설령 ‘지식’ 범주와 ‘기능’ 범주에서 그런 문제를 놓친다 해도 ‘맥락’ 범주 그 자체에서 언어적 맥락, 텍스트간 맥락은 얼마든지 포함할 수 있다. 곧 “설득하는 글의 상황 맥락(저자 중심), 설득하는 글 읽기의 상황 맥락(독자 중심)”, “설득하는 글의 사회·문화적 맥락(저자 중심), 설득하는 글 읽기의 사회·문화적 맥락(독자 중심)” 등과 같이 구체적인 읽기 행위를 통해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따지면 자연스럽게 언어적 맥락과 텍스트간 맥락을 따질 수 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배경 맥락에는 사회문화적 맥락 외에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배경 맥락을 설정할 수 있는데 교과서의 ‘사회문화’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것이다. 물론 ‘정치, 경제’ 등의 맥락 요소는 ‘사회문화’ 속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특정 용어를 명시적으로 한정하는 문제가 있다. 물론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는 맥락에 대한 교육적 효율성 차원의 제한이라는 긍정성도 있다.

(2) 문법 영역의 ‘맥락’ 내용 요소

문법 영역의 맥락 내용 요소는 “국어 의식, 국어 생활 문화”로 문법 영역의 특이성을 최대한 강하게 드러내려는 의도를 보여 준다. 실제 성취 기준과 그에 따른 내용 요소에는 ‘듣/말/읽/쓰’의 ‘상황 맥락, 사회문화 맥락’이 들어 있음에도 이를 내용 체계에서는 빼고 문법 특수 맥락을 강조했다. 맥락 이외의 범주가 다분히 체계 중심의 근대 언어학에 치우친 반면에 ‘맥락’만큼은 역사언어학, 사회언어학, 화용론 등 역동적인 언어학 시각을 반영했다. 국어 사용의 역사문화적 맥락과 국어 사용 주체의 철저한 국어 의식 맥락을 강조했다.33)

- 국어 생활 문화사: 국어 생활을 통해 형성된 언어 문화사. 말하기·듣기 생활 문화사, 읽기 생활 문화사, 쓰기 생활 문화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것들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음운, 어휘, 통사, 담화나 글 등에 드러난 국어 생활 일반의 공통된 특성을 통시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국어 생활 문화사의 내용이 될 수 있다.
- 국어 의식: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국어에 대한 지식이나 견해나 태도. 학습자의 국어 의식은 시간

33) 신명선(2008a: 375)에서는 이러한 맥락 범주의 취지를 “① 언어 행위 주체와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② 체계적인 지식에 기대지 말고 자신의 국어생활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언어 현상을 기술하라.”라고 파악했다. 매우 적절한 의미 부여이다. 다만 ‘언어 현상을 기술하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언어 행위 주체의 언어관 또는 언어 능력의 목적이거나 태도가 ‘언어 현상 기술’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맥락’은 총체적 언어 능력과 태도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국어에 대한 지식을 강화하고 국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높이고자 하는 문법 교육은 의미를 갖는다. 문법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국어 의식 자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들의 국어 의식의 집합체를 상정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어 의식이 약하다’처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교육과학기술부(2008b), 141쪽.

신명선(2008a: 378)에서는 이러한 ‘국어 의식, 국어 생활 문화’가 ‘맥락’의 적절한 하위 요소인가에 대한 의문을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두 요소 모두 ‘지식’적 속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국어 의식’의 경우 ‘태도’적 속성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여전히 ‘지식’ 영역 및 탐구 영역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혜정(2009: 66)에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1) ‘국어 의식’과 ‘국어 생활 문화’가 정태적이고 유형화될 수 있다는 점과 특정 사고방식에 가깝다는 측면에서 ‘지식(개념)’의 속성을 지님.
- (2) 맥락은 의사소통이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부수적이라기보다는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국어와 관련된 ‘생활문화’는 상황과 관련되어(situated-) 있다기보다는 태도에 가까움.

‘지식’과 ‘태도’와 겹치는 문제는 맞는 지적이지만 적절한 지적은 아니다. 이미 해설서에서 ‘국어 의식’의 경우는 “지식이나 견해나 태도”라고 복합적 성격을 밝혔다. 맥락의 내용 요소는 지식이면서 견해이면서 태도일 수 있다. 그런 복합성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능동적인 언어 주체의 언어 실천 행위를 위해 일종의 전략으로 더욱 강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적극적인 생활 태도로 요구한 것이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지식’의 내용 요소와 혼동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지식 범주에서 다루는 “국어의 특성, 국어의 역사, 국어의 규범” 등에 문법 맥락 구성 요소가 내재되어 있거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박형우(2010: 109-110)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문법 영역의 내용 요소는 지식 범주 내용 요소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10-문법-(1)] 국어의 역사를 이해한다.

……(중략)……

이 성취 기준을 지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옛 선인들의 삶이 살아 숨 쉬는 실제 자료를 읽고 당대 국어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둘째, 국어 생활 과정에서 국어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고 작용했는지를 미시적, 거시적 측면에서 고찰하면서 국어 그 자체를 하나의 동적 실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여기서 미시적 측면의 고찰은 각 자료가 갖고 있는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해당 자료의 특성을 찾는 것을 가리킨 말이다. 해당 자료에 드러난 국어와 국어 생활적 특성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그 구체적인 실례이다. 거시적 측면의 고찰은 해당 자료가 갖고 있는 당대의 국어 및 국어 생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료의 특성 및 의미를 찾는 등의 고찰을 가리킨 말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8),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연구 개발(연구보고서 CRC 2008-8), 92-93쪽)

[10-문법-(5)] 한글 창제의 원리와 한글의 독창성을 안다.

이 성취 기준은 한글 창제의 원리와 한글의 독창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며 국어 의식을 강화하여 국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높이기 위해 설정하였다. ……(중략)……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그동안 문법 영역에 대한 학습을 통해 배우고 깨닫게 된 국어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한글 창제

의 원리와 한글의 독창성을 이해하여 국어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해 설정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국어를 가꾸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태도를 기르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8),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연구 개발(연구보고서 CRC 2008-8)*, 96-97쪽)

위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박형우(2010: 110)에서는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담고 있으므로 길게 인용해 본다.

[10-문법-(1)]에서는 국어사 관련 성취 기준에서 ‘상황 맥락’과 관련해서는 해당 자료에 한정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는 ‘지식적 내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상황 맥락’과 관련한 내용은 ‘문법’ 영역에서는 ‘맥락’ 범주보다는 ‘지식’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문법’ 영역의 ‘맥락’ 범주에서 다루고 있는 ‘국어 생활 문화’는 주로 ‘거시적 측면’에 해당하며 이는 언어학적 관심사에서 확장된 것으로 국어사 자료를 통해 당대의 국어 생활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지금까지 다루어 온 국어사적 지식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국어에 대한 태도나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10-문법-(5)]를 살펴보면 ‘국어 의식’에 대해서는 민족적 자긍심이나 국어에 대한 관심과 사랑 등과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일반적인 언어학적 관점의 ‘맥락’과 차이가 있는 점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즉 이렇게 되면 ‘문법’ 영역의 ‘맥락’ 범주에서 나타나지 않는 상황적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은 ‘지식’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문법’ 영역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일 뿐이고 일반적인 언어학의 탐구 대상이 될 수 없는 ‘국어 의식’과 ‘국어 생활 문화’는 언어학의 탐구 대상은 아니지만 국어교육적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 내용이기 때문에 ‘맥락’의 범주에서 국어과 문법 영역의 내용 체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은 지식 범주에 내재되어 있고, ‘국어 의식 맥락’과 ‘국어 생활 문화 맥락’은 오히려 특수성이 있으므로 맥락 범주로 설정되었다고 보고 있다. 굳이 지식 범주와의 연관성으로 보면 오히려 국어 의식과 국어 생활 문화가 지식 범주의 내용 요소와 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박형우와 같은 지식 영역 강화 논리를 존중한다면 국어 의식과 국어 생활 문화는 지식 영역에서 더욱 부각시키고 언어 기능 영역의 보편 맥락인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똑같이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어 의식’과 ‘국어 생활 문화’가 지향하는 국어 문화의 특수성과 자긍심은 ‘지식’ 범주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길러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문법 교육이 지향하는 특수 맥락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충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표-19> 2007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 범주 수정안(김슬옹, 2010: 98) 재인용

실제	
- 음운 - 단어 - 문장 - 담화/글	
지식	기능(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의 본질 ◦ 국어의 특징 ◦ 국어의 역사 ◦ 국어의 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원리와 규칙 탐구 ◦ 국어 생활 문화 탐구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맥락 ◦ 사회·문화적 맥락 	- 집중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의식 ◦ 국어 생활 문화 	

두 번째 지적에서 국어 생활문화는 태도에 가깝다는 지적도 옳다. 곧 사회문화적 맥락과 같은 성격을 띠면서도 굳이 용어를 달리하는 이유는 국어 생활 문화의 태도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역시 국어 의식에서 주체의 의식은 국어 생활 문화에도 관련되어 있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린 국어 생활 문화를 실천해 나가는 태도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리 있는 설정이라 본다

이런 문법의 특수 맥락 도입 취지는 고등학교 문법 선택 과목 해설서에 더 잘 드러나 있다<표-20>.

<표-20> 고등 선택 ‘문법’ 과목 내용 체계표

국어와 읽 ○언어의 본질 ○국어의 구조
국어와 삶 ○국어와 규범 ○국어와 생활
국어와 열 ○국어의 변천 ○국어의 미래

위 해설 가운데 맥락 범주 구성 요소 관련 해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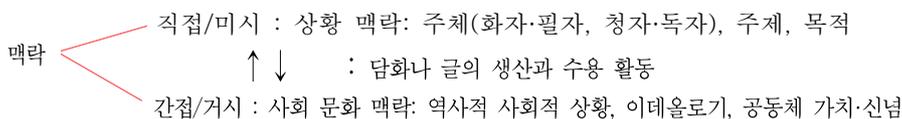
‘국어와 열’ 부분에서 학습자들은 국어 생활 문화의 사적 변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오늘의 **국어 생활 문화**를 되짚어 반성하고 미래의 국어 생활 문화를 발전적으로 모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나의 **국어 의식**’을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게 된다.

‘국어와 읽’ 영역은 ‘국어와 삶’, ‘국어와 열’ 영역 학습의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서, 국어에 관한 기본 지식을 이해하여 정확하고 풍부한 국어 생활을 영위하고 올바른 **국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고교 선택과목 ‘문법’ 해설서(밀줄 연구자)

국어 생활 문화가 거시적인 역사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맥락이라면, 국어 의식은 그러한 역사적 국어 생활 문화 의식을 바탕으로 한 미시적으로 내면화된 ‘국어 의식’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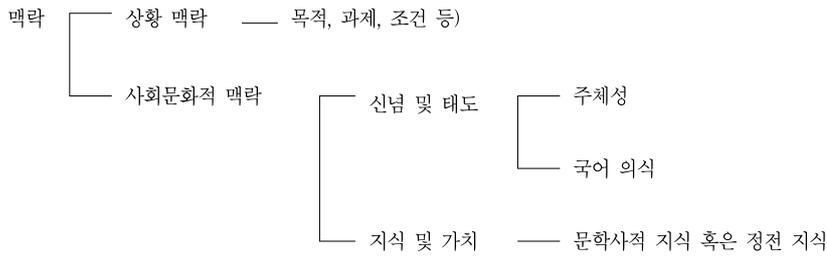
김혜정(2009: 66)에서 ‘국어 의식’과 ‘국어 생활 문화’가 정태적이고 유형화될 수 있다는 점은 옳다. 민족주의나 전통문화로 표상되는 언어문화 이데올로기로 유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언어 문화나 언어생활과의 연계성과 실제 언어생활에서의 그런 의식과 문화의 혼재 현상으로 보아서는 대단히 역동적이다.

[그림 3]과 같은 분류는 문법이나 문학 영역의 맥락 구성 요소를 충분히 포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런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분류한 김혜정(2009)에서의 [그림 4]와 같은 분류는 그런 단점을 보완해 주고 있다.



<그림 1> 2007 개정 국어과 맥락 성격(해설서 내용 재구성)

<그림 3> 김혜정(2009: 67)의 맥락 분류



문법 맥락의 ‘국어 의식’과 문학 맥락의 ‘문학사적 맥락’을 모두 사회문화적 맥락의 하위 요소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교육과정의 맥락 분류를 좀더 체계화시킨 장점은 있지만, 연구자의 관점으로는 좀더 수정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류를 그대로 따를 경우 교육 차원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³⁴⁾ 하나는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신념과 태도’는 상황 맥락과는 상관없는 것인가. 또는 “주체성과 국어 의식은 상황 맥락과 상관없는 것인가, 문학사적 지식은 상황 맥락과는 연계되지 않는가?”라고 물으면 위와 같은 분류의 문제가 드러난다. 충분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비해 상황 맥락이 지나치게 약하게 설정되었다.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제에 기인한 것이므로 두 가지 문제는 서로 맞물려 있다.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거시적 맥락인 사회문화적 맥락에 비해 상황 맥락을 미시적 맥락으로 규정하고 “텍스트의 생산·수용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맥락으로 언어 행위 주체(필자와 독자), 주제, 목적 등이 포함된다.”고 정의하였다. 곧 상황 맥락에서의 핵심은 구체적인 언어활동의 ‘주체’다. 그 주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주체(내용, 의도, 과제)의 언어활동을 했느냐이다. 문제는 목적과 내용을 설정하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이 작용을 한다.

여기서 우리는 상황 맥락에 의한 주체를 ‘미시 주체’,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한 주체를 ‘거시 주체’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미시 주체는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각 개인만의 개성과 욕망을 존중해 주는 주체이고 또 하나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주체이다. 레비나스는 주체의 조건을 타인과의 윤리적 관계를 통해서 찾았다. 그는 주체가 주체로서 의미를 갖는 것은 타인을 수용하고 배려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고 타인에 종속되는 주체가 아니라 자아의 확립과 자기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 설정을 강조했다.(레비나스와의 대담: 1992-1994, 김응권 옮김: 2008)

그렇다고 미시 주체성과 거시 주체성을 대립된 주체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주체성 차원에서 보자는 것이다.³⁵⁾ 누구나 국가나 사회가 부여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거시 정체성)과 자기만의 개성 중심의 미시 정체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34) 이런 분류는 학문적 관점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얼마든지 이런 분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분류 자체가 근본적으로 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것이므로 교육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분류는 모호한 2007 국어과 교육과정 기술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자의 비판은 특정 논자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모호한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35) 근대적 주체 형성 과정과 근대적 주체 문제에 대해서는 양운덕(1997) 참조.

보통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이나 의식, 정신적 실체를 ‘자아’라 하고, 남과 다른 개성이나 인격체를 정체성이라 한다.³⁶⁾ 주체성은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자신이다. 누구나가 정체성은 있지만 주체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정체성을 지녔는가에 의해 주체성이 구성되고 주체성에 의해 능동적인 정체성이 구성되므로 정체성과 주체성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체성’과 ‘국어 의식’은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 양쪽 다 관련되어 있다. 곧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거시 주체성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각 개인으로서의 미시 주체성은 상황 맥락에 관련된다. ‘국어 의식’ 또한 민족주의 차원의 언어 의식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속하지만, 그로 인한 구체적인 언어 행위, 언어 실천을 위한 의식은 상황 맥락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곧 이 때의 ‘국어 의식’은 학습자 개인의 구체적인 언어 능력으로 내면화된 의식으로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도 관련된 의식이기 때문이다. 곧 상황 맥락에 포함되는 ‘국어 의식1’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포함되는 ‘국어 의식2’가 있는 것이다. 상황 맥락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비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맥락으로, 언어활동 주체와 그 주체가 겪은 사건으로서의 언어활동으로서의 상황 맥락을 가리킨다. ‘국어 의식’은 단지 관념으로서의 ‘의식’이 아니라 가시적인 태도로 표현되거나 태도와 직접 연결되는 역동적인 의식이다.

(3) 문학 영역 내용 요소

문학 영역 맥락 내용 요소로는 상황 맥락이 빠진 대신에 ‘수용·생산의 주체 맥락’과 ‘문학사적 맥락’이 특이 맥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용·생산의 주체’는 상황 맥락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문학을 감상하고 생산해 내는 과정을 맥락화함으로써 문학 소통 과정의 구체성을 강조했다. 곧 “섬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고등 선택과목 문학)”하는 문학 능력을 위해 설정한 맥락 요소이다.

‘문학사 맥락’을 강조한 것은 문학의 갈래나 개별 작품은 역사적 산물이므로 그런 흐름을 고려하는 태도를 익히게 하라는 의도로 보인다. 김혜정(2009: 65-66)에서 지적한 문학 영역의 맥락 요소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 문학사적 맥락이라는 것이 지식과 맥락의 성격을 동시에 가졌다는 것에 동의하더라도 학습해야 할 지식(개념)인지, 학습과 관계 없이 독자가 읽기 과정에서 떠올려야 할 맥락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전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이는 지식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됨.

‘지식’ 차원에서는 적절한 지적이지만 ‘문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적이다. 문학사 맥락을 지식 범주로 포함시키기에는 그 비중이 크다. ‘문학사 맥락’도 문법의 ‘국어 의식, 국어 생활 문화 맥락’과 같은 속성을 지녔다. 문학 독서와 문학 생산을 일반 독서와 작품과 같은 맥락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도를 담은 맥락 요소이기 때문이다. 동양의 ‘맥락’ 어원처럼 문학의 수용과 생산에 한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역사문화적 일관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한국 문학의 역사나 전통 의식을 반영한 맥락으로 보면 그것이 설령 지식과 겹친다 하더라도 태도와 연계되고 그만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36) 자아와 정체성을 구별하는 맥락은 에릭슨의 관점을 따른 것이다. Louis Breger(1974)/홍강의·이영식 옮김(1998, 424)에서는 통합적 정체성 차원에서 에릭슨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에릭슨은 ‘정체성’을 ‘자기(self)’나 ‘자아(ego)’의 개념보다 선호하는데, 이는 자아나 자기가 개인이나 인격의 내면적인 면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이다.”

(4) 각 영역 내용 요소의 일관성 문제

그렇다면 이제 각 영역 맥락 구성 요소의 보편성과 특수성 문제를 살펴보자.

맥락의 특수성은 맥락의 보편성을 살릴 때 의미가 있다.³⁷⁾ 문법이라고 해서 상황 맥락이나 사회문화적 배경 맥락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이중 피동형 문장을 쓰는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문법 지식이나 문법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어 의식, 국어 생활 문화’ 맥락에 이러한 맥락이 함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맥락의 기본 틀을 살려 주면서 특정 맥락을 부각시키는 전략이 합리적이다.

실제 성취 기준과 내용에서는 이러한 상황 맥락이 부여되어 있다. 문법 영역의 경우, “[8-문법-(5)]담화나 글의 의미 해석에 상황 맥락이 관여함을 이해한다.”고 되어 있다.³⁸⁾ 문학 영역의 경우, “[8-문학-(4)], [9-문학-(2)]” 두 학년에 걸쳐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

[8-문학-(4)] 문학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행동을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파악한다.

- ① 인물의 행동, 사고방식 이해하기
- ② 인물의 행동과 사회·문화적 상황 관련짓기
- ③ 작품과 사회·문화적 상황의 관계 파악하기

[9-문학-(2)] 문학 작품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창작 동기와 의도를 파악한다.

- ① 작품이 사회·문화적 상황의 산물임을 이해하기
- ② 작가의 창작 동기와 의도 추론하기
- ③ 작품의 창작 의도와 사회·문화적 상황 관련짓기

문학의 경우도 ‘사회·문화적 맥락’만 들어가고 ‘상황 맥락’이 빠질 이유는 없다. 물론 상황 맥락은 ‘수용·생산의 주체’ 맥락으로 대체한 듯하다. 그렇다면 차라리 ‘상황 맥락’에 주체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황 맥락’으로 살리고 ‘수용·생산의 주체’는 ‘작품의 수용·생산 맥락’이라고 바꾸면 좋을 것이다.

맥락의 기본 구도(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를 문법과 문학에서 빼는 것은 일관성이 중요한 교육과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문법과 문학의 ‘맥락’ 특이성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런 특이성은 추가나 집중 방식으로 가야 한다. 일단 여기서는 ‘집중 맥락’이라 이름 붙였다.

<표-21> 2007 내용 ‘맥락’ 범주의 하위 요소 보완 재구성

영역	하위 요소	
	공동 요소	특이 요소(집중맥락)
듣기/말하기/읽기/쓰기	상황 맥락 사회·문화 맥락	듣기 맥락/말하기 맥락/읽기 맥락/쓰기 맥락
문법		국어 의식 맥락 / 국어 생활 문화 맥락
문학		작품의 수용·생산 맥락/문학사적 맥락

37) 김혜정(2009: 66)에서도 각 영역별로 동일하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38) 이러한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내용 요소에도 “① 상황 맥락의 구성 요소 이해하기, ② 상황 맥락이 담화나 글의 의미 해석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③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

<표-21>의 정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탄재(안도현)> 텍스트에 맥락 구현의 발문을 생성해 보면 <표-22>과 같다.

<표-22> <연탄재(안도현)>에 적용한 맥락 구현 발문

맥락 요소/유형	발문/지시 활동('맥락' 비노출)	발문/지시 활동('맥락' 노출)
상황 맥락	- 우리 사회에서 시 속에서 말한 연탄재를 발로 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왜 발로 함부로 찼을까?	- 우리 사회에서 시 속에서 말한 연탄재를 발로 찬 상황 맥락을 따져 보자.
사회문화적 맥락	- 연탄이 서민의 애환을 담은 사회는 어떤 사회였으며 요즘 아이들이 연탄에 담긴 애환을 느낄 수 있을까?	- 연탄이 서민의 애환을 담은 사회적 맥락을 조사해 보고 그런 사회적 맥락을 요즘 사회를 갖대로 따져 보자.
국어 의식 맥락	- '연탄'이란 낱말의 말맛과 '가스'의 말맛은 어떻게 다른가.	- '연탄'이란 말에 담긴 국어 의식은 무엇인가?
듣기 맥락	- 이 시를 누군가가 낭독할 때와 낭송 할 때 듣기의 느낌 차이는 무엇인가	- 이 시를 누군가가 낭독할 때와 낭송 할 때 듣기 맥락의 차이는 무엇인가
말하기 맥락	- 실제로 말하듯이 읽고, 외워서 낭송해 보고 그 차이점을 말해 보자.	- 실제로 말하듯이 읽고, 외워서 낭송해 보고 그 음성 언어 맥락의 차이를 말해 보자.
읽기 맥락	- 두 문장 사이에 깔려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 두 번째 문장의 맥락적 의미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쓰기 맥락	- 음식물 찌꺼기를 소재로 비슷한 유형의 시를 생성해 보자.	- 음식물 찌꺼기를 소재로 비슷한 유형의 시를 생성할 때 고려해야 할 맥락은 무엇인가.
국어 생활 문화 맥락	- 이 시를 존댓말로 바꾸어 보고 반말투와 어떤 전달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자.	- 이 시를 존댓말로 바꾸어 보고 반말투와 어떤 전달 맥락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자.
수용과 생산 주체 맥락	- 저자(생산 주체)는 어떤 의도로 이런 작품을 썼을까?	- 저자(생산 주체)의 작품 집필 맥락을 추론해 보자.
문학사적 맥락	- 안도현 시인은 이 시를 2004년에 발표했다. 문학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 안도현 시인은 이 시를 2004년에 발표했다. 이 시의 문학사 맥락을 조사해 보자.

이 짧은 문학작품에도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맥락이 모두 구현됨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 공통 과목에서 '맥락'을 '지식' 범주도 아니고 '기능' 범주도 아닌 독립된 범주로 설정한 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여 맥락을 전략으로 보는 관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답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사회·문화적 배경"을 맥락으로 본 정의에 충실히 따르고자 함이다. 곧 언어활동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략으로 볼 때 독립 범주로서의 취지도 살릴 수 있고 맥락 도입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교육과정 내용 문제와 결부시켜 보면 매우 복잡한 문제를 담고 있는 쟁점 사항이기에 좀더 깊이 있는 천착과 성찰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맥락을 전략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을 논증할 것이다.

이 문제가 늘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맥락의 복합적인 특성 기능 때문이지만, 교육과정 안의 이에 대한 내용 체계가 논쟁점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맥락'을 국민 공통 과목에서는 독립된 범주로 설정하고 고교 선택 과목에서는 <표-23>와 같이 지식 범주의 하위 내용 요소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23> 고교 선택과목에서의 '맥락'의 자리매김

과목	지식 범주 내용 체계 반영	기타(성격/목표, 다른 범주와 세부 내용)
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의 특성 ○ 글의 특성 ○ 독서의 과정과 방법 ○ 독서의 맥락 ○ 독서의 역사와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격에 반영 * 기능 범주 '독서의 수행' 세부 내용 반영
작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문의 성격 ○ 작문의 과정 ○ 작문의 맥락 ○ 작문의 기능과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 범주 내용 요소로도 반영 ○ 작문 맥락의 파악 ○ 작문에 대한 계획 ○ 작문 내용의 생성 ○ 작문 내용의 조직과 전개(세부 내용 반영) ○ 작문 내용의 표현 (세부 내용 반영) ○ 작문 과정의 재고와 조정(세부 내용 반영)
화법	반영 안 됨(화법의 요소 세부 내용으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법의 성격 ○ 화법의 요소 ○ 화법의 유형 ○ 화법과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법의 요소 ③ 화법에서 시공간 및 사회·문화적 맥락의 기능을 이해한다. * 기능 범주의 '의사소통 전략'의 세부 내용으로 반영 * 담화 유형(면접) 범주 세부 내용 반영 * 목표와 성격에 반영
문법	반영 안 됨	반영 안 됨 * 해설서에서는 언어의 실제 맥락, 의사소통 맥락, 담화 내 맥락, 담화 간 맥락 등을 강조
문학	반영 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활동 범주 수용과 생산 세부 내용 반영 * 교수 학습법, 평가목표와 내용에 반영
매체언어	반영 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격에 반영 * 교수 학습 운용에 반영

독서, 작문 과목에서는 '맥락'을 내용 체계와 세부 내용으로도 설정하고 있다. 화법은 내용 체계는 없지만 세부 내용에 반영하고 있고, 문학과 매체언어는 세부 내용으로 반영하고 있다. 문법은 세부 내용에는 안 나오지만 해설서에서 맥락 관련 내용을 해설하고 있다. 각 교과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맥락의 국어교육적 자리매김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인 것만은 틀림없다.

<표-24> ‘쓰기’ 영역, ‘작문’ 영역 7차와 2007 국어과 교육과정 입체 구성

<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 ‘쓰기’ 공통 과목 >			<2007 국어과 교육과정 ‘쓰기’ 공통 과목>	
쓰기의 본질 - 필요성 - 목적 - 개념 - 방법 - 상황 - 특성	쓰기의 원리 - 글씨 쓰기 - 내용 생성 - 내용 조직 - 표현 - 고쳐쓰기 - 컴퓨터로 글쓰기	쓰기에 대한 태도 - 동기 - 흥미 - 습관 - 가치	쓰기의 실제 -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 설득하는 글 쓰기 - 사회적 상호 작용의 글 쓰기 - 정서 표현의 글 쓰기	
쓰기의 실제 -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 설득하는 글 쓰기 -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 - 친교의 글 쓰기			지식 ○소통의 본질 ○글의 특성 ○매체 특성	기능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과 고쳐쓰기
<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 ‘작문’ 선택과목 >			<2007 국어과 교육과정 ‘작문’ 선택과목>	
작문의 이론		작문의 실제	지식 ○작문의 성격 ○작문의 과정 ○작문의 맥락 ○작문의 기능과 가치 기능 ○작문 맥락의 파악 ○작문에 대한 계획 ○작문 내용의 생성 ○작문 내용의 조직과 전개 ○작문 내용의 표현 ○작문 과정의 재고와 조정	글의 유형 ○목적 : 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 작용, 자기 성찰, 학습 ○제재 :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양식 : 설명, 논증, 서사, 묘사 ○매체 : 인쇄 매체, 다중 매체
(1) 작문의 본질	(가) 작문의 특성 (나) 작문의 상황 (다) 작문 기능의 특성	(1) 정보 전달을 위한 글 쓰기 (2) 설득을 위한 글 쓰기		
(2) 작문의 원리	(가) 작문 맥락 파악 (나) 작문 과정에 대한 계획 (다) 작문 내용 생성 (라) 작문 내용 조직 (마) 작문 내용 표현 (바) 작문 과정에 대한 재고 및 조정	(3) 정서 표현을 위한 글 쓰기 (4) 친교를 위한 글 쓰기 (5) 정보화 사회에서의 글 쓰기		
(3) 작문의 태도	(가) 작문의 동기 (나) 작문의 흥미 (다) 작문의 습관 (라) 작문의 가치			

이상 교육과정의 ‘맥락’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맥락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맥락은 지식, 기능, 전략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전략 속성이 가장 강하다.
- 둘째, 맥락을 고려하는 전략은 다른 언어 전략보다 상위 메타 전략이며 이런 특성 때문에 맥락은 지식의 하위 요소보다는 독립된 범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셋째, 국민 공통 과목의 독립된 맥락 범주의 취지를 고교 선택 과목에서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은 ‘맥락’에 대한 확고한 교육적 인식과 철학이 부족해서이다.
- 넷째, 맥락의 구성 요소가 내용 영역별로 다르게 설정된 것은 긍정 측면보다는 부정 측면이 더 많다.
- 다섯째, 교육과정 내용으로서의 맥락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맥락에 대한 총체적 연구와 규명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사전류 1차 문헌

- 21세기 세종계획(<http://www.sejong.or.k>) 말뭉치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2008).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2002/2007). 동아 연세초등국어사전. 두산동아.
토박이 사전편찬실 엮음(2008). 보리 국어사전. 보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9/2008: 5쇄). 국어교육학 사전. 대교출판.
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1948/1981). G. & C. Merriam.
The New Oxford Dictionary(1478/1978). Oxford University Press.
Collins Cobuild(1987/2003).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HarperCollins Publishers.

- 교육과정 1차 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②국어-.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2008a).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III(국어, 도덕, 사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2008b).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I(국어, 도덕, 사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2008c).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②(국어, 도덕, 사회).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정 2차 문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4a). 국어과 교육내용 적정성 분석 및 평가. 연구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4b). 국어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a). 국어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b).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 연구 자료.
노은희 외(2008).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연구 개발(연구 보고 CRC 2008-8). KICE.

- 고영근 외(2001). 한국 텍스트학의 제 과제, 역략.
고영근(1999). 텍스트이론, 아르케.
고춘화(2008). 사고력 함양을 위한 읽기 쓰기의 통합적 접근 모색-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 연구> 31. 211-240쪽.
권경원(1991). 담화해석과 맥락의 역할에 관한 연구. <어문학연구> 1. 목원대학교 어문학연구소. 53-71쪽.
권순희(2008). 내용 분석과 재구성을 통한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운용 방안. <한국초등국어교육> 36. 박이정. 5-40쪽.
권영문(1996). 맥락과 의미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학위논문.
권재일(1995). 국어학적 관점에서 본 언어 지식 영역의 지도의 내용. <국어교육 연구> 2. 서울 대학교 사범 대학 국어교육 연구소. 159-175쪽.
권정은(2008). 문화교육과 고전시가의 맥락적 정보. <새국어교육> 79호. 5-24. 한국국어교육학회.
김광해(1995). 언어 지식 영역의 교수 학습 방법. <국어교육 연구> 2. 서울 대학교 사범 대학 국어교육 연구소. 209-254쪽.
김국태(2002). 맥락 중심 쓰기 교재 구성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규훈(2008). 공감적 듣기교육 연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대행 외(2006). 하이퍼텍스트의 언어문화 이해교육.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대행(1995). 국어 교과학의 지평.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대행(2002). 내용론을 위하여. <국어교육연구> 10,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7-37쪽.
- 김대행(2005). 수행적 이론의 연구를 위하여. <국어교육학연구> 22. 국어교육학회. 5-29쪽.
- 김대행(2006). 국어생활·국어문화·국어교육. <국어교육>. 119호. 한국어교육학회. 1-30쪽.
- 김대희(2008). 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의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 연구> 33. 국어교육학회. 267-295쪽.
- 김도남(2002). 상호텍스트성을 바탕으로 한 읽기 지도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도남(2002). 텍스트 이해 교육의 접근 관점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15. 국어교육학회. 127-167쪽.
- 김도남(2007). 국어 교과서 개발을 위한 교육내용요소 선정 기준 탐색: 읽기 영역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75호. 한국국어교육학회. 61-89쪽.
- 김동환(2002). 문화 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 15. 국어교육학회. 1-22쪽.
- 김동환(2008). 비평 능력 신장을 위한 문학 독서 교육. <독서연구> 20-2. 독서교육학회. 111-138쪽.
- 김명순(2002). 인성 발달을 돕는 독서 지도 방안. <독서연구> 7. 한국독서학회. 169-202쪽.
- 김명순(2003). 활동의 개념과 국어교육. <청람어문교육> 26. 청람어문교육학회. 109-128쪽.
- 김명순(2004). 독서 작문 통합 지도의 전제와 기본 방향. <독서연구> 11. 한국독서학회. 61-81쪽.
- 김명순(2008).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의 변화와 의미 :읽기 영역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0. 한국국어교육학회. 27-47쪽.
- 김무길(2002). 듀이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관: 교육적 시사. <교육철학> 8권 28호. 1-28쪽.
- 김봉순(2004). 독서와 작문 통합 지도의 전망: 비문학 담화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11. 한국독서학회. 83-122쪽.
- 김봉순(2007). 읽기 교육을 위한 연구 과제. <국어교육> 123, 한국어교육학회. 1-29쪽.
- 김상욱(2009).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속 문학 영역의 비판적 검토. <국어교육> 128호. 한국어교육학회. 47-72쪽.
- 김성도(1999). 로고스에서 뫼토스까지: 소쉬르 사상의 새로운 지평. 한길사.
- 김성도(2007). 소쉬르 사상의 미완성과 불멸성: 소쉬르 사유의 인식론적 스타일에 대하여. <기호학연구> 21, 월인. 129-158쪽.
- 김성태(1997). 언어·신체·주체 - 중국의 형이상학에 나타난 언어와 주체, <철학사상> 7권,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김소영(2006). 건의문 쓰기의 지도 방안 연구. <우리말연구> 19. 357-382쪽.
- 김슬옹(1997). 개념적 의미에 대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하여-왜 개념적 의미는 담론적 의미인가. <담화와 인지> 4권 2호. 담화인지학회. 51-75쪽. 김슬옹(2009). 담론학과 언어분석-맥락·담론·의미-. 한국학술정보(주). 재수록(2부 1장).
- 김슬옹(1998). 언어분석을 위한 맥락설정 이론. <목원어문학> 16.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5-65쪽.
- 김슬옹(2009a). 담론학과 언어분석-맥락·담론·의미-. 한국학술정보(주). 53-107쪽. 재수록(2장 맥락 설정과 언어 분석)
- 김슬옹(2005). 언어 분석 방법론으로서의 담론학 구성 시론. <사회언어학> 13권 2호. 한국사회언어학회. 43-68쪽. 김슬옹(2009). 담론학과 언어분석-맥락·담론·의미-. 한국학술정보(주). 재수록(1부 1장)
- 김슬옹(2008). 세종과 소쉬르의 통합언어학적 비교 연구. <사회언어학> 16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

- 회. 1-23쪽. 김슬옹(2010). <세종대왕과 훈민정음학>. 지식산업사. 5부 11장 (404-439쪽) 재수록.
- 김슬옹(2009).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맥락’ 범주의 핵심 교육 전략. <국어교육학연구> 36. 국어교육학회. 255-286쪽.
- 김슬옹(2010). 2007년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 쟁점에 따른 ‘맥락’ 범주 문제. <[한]국어교육에서 통합적 문법 교육> 한국문법교육학회·고려대 국어소통능력연구센터 공동학술대회(한국문법교육학회 12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문법교육학회. 85-107쪽.
- 박형우(2010). “2007년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영역 쟁점에 따른 ‘맥락’ 범주 문제(김슬옹)”에 대한 토론문. <[한]국어교육에서 통합적 문법 교육> 한국문법교육학회·고려대 국어소통능력연구센터 공동학술대회(한국문법교육학회 12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문법교육학회. 108-110쪽.
- 김시진(2006). 상황맥락을 활용한 어휘력 신장 효과의 연구. 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민(1997). 컨텍스트로, 패턴으로. 문학과지성사.
- 김익환(2003). 맥락의 특성과 언어 사용과의 관계. <영어교육연구> 26호. 한국영어교육연구학회.
- 김재봉(1994). 맥락의 의사소통적 기능1: 맥락의 선택과 맥락효과. <인문과학연구> 16. 조선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1-18쪽.
- 김재봉(2007).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맥락의 수용 문제. <새국어교육> 77호. 한국국어교육학회. 9-97쪽.
- 김정란(2008). 사회적 상호작용 말하기를 위한 언어 사용 외적맥락 고찰. <새국어교육> 78호. 한국국어교육학회. 99-120쪽.
- 김정우(2007).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과 특징. <한말연구> 20호 한말학회. 101-129쪽.
- 김종문 외(2000). 구성주의 교육학. 교육과학사.
- 김태자(1993). 맥락 분석과 의미 탐색. <한글> 219호. 한글학회. 79-113쪽.
- 김현주(2010). 맥락에 기초한 독자의 의미 구성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련(2010). 지식의 개념적 성격에 대한 고찰-‘격물치지론(格物致知론)’을 중심으로. <국어과 교육과정 설계와 학문적 쟁점(한국어교육학회 제269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어교육학회. 93-112쪽.
- 김혜숙(1991). 현대국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국어의 운용실태와 방향. 태학사.
- 김혜숙(2004). 사회언어학 연구의 방법론 고찰. <새국어교육> 67. 한국국어교육학회. 143-172쪽.
- 김혜숙(2004). 사회언어학의 이론과 전개. <사회언어학> 12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95-122쪽.
- 김혜숙(2005). 사회언어학 연구와 국어교육의 연계성. <국어국문학> 141. 국어국문학회. 379-405쪽.
- 김혜숙(2005). 프랑스·독일·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한국언어문화학> 제2권 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39-88쪽.
- 김혜숙(2009). 사회 방언과 국어교육. <42회 국어교육학회 발표집>. 국어교육학회. 재수록: 김혜숙(2009). 사회문화적 의사소통과 국어교육: 사회 방언과 국어교육. <국어교육학 연구> 35. 국어교육학회. 33-63쪽.
- 김혜정(2002). 텍스트 이해의 과정과 전략에 관한 연구: ‘비판적 읽기’ 이론 정립을 위한 학제적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혜정(2004). 읽기 쓰기 통합 활동에서 의미구성의 내용과 이행 과정 연구. <독서연구> 11. 한국독서학회. 141-180쪽.
- 김혜정(2009). 읽기의 맥락과 맥락 읽기. <독서연구> 21. 독서교육학회. 33-79쪽.
- 남정희(2005). 상황맥락을 고려한 말하기 쓰기 교육 방안 연구: 윤홍길 ‘장마’를 대상으로. 한국의외

- 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명완·박영목 외(2008).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 노명완·이차숙(2002). 문식성 연구. 박이정.
- 노은희(1993). 상황 맥락의 도입을 통한 말하기 지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문관식(2005). 상황맥락 탐색 활용을 통한 듣기 말하기 능력 신장 방안. 인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미셸 푸코 외 4인/이정우 편역(1990). 구조주의를 넘어서. 인간사.
- 미카엘 드 생 웨롱/김용권 옮김(2008). 엠마누엘 레비나스와의 대담 1992-1994 : 보록: 레비나스 철학과 유대교 사상 사이에서. 동문서.
- 민현식(2000). 국어교육을 위한 응용국어학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갑수 외 16인(2000). 국어 표현·이해 교육. 집문당.
- 박병학(1986). 발문법 원론. 세광.
- 박상진(2003). 컨텍스트의 이론-데리다와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20, 현대문학이론학회, 197-225쪽.
- 박상철(2006). 통합교과 교육과정, 주요 문제와 개선 방향. <초등교육연구> 19-1. 37-52쪽.
- 박성방(1995). 총체적 언어 학습. 우리교육.
- 박수자(1993). 읽기 전략 지도 교재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학위 논문.
- 박수자(2005). 교과독서의 본질과 과제. <독서연구> 14, 한국독서학회. 35-54쪽.
- 박수자(2007). 구성주의 이론의 국어교육학적 의의. <독서연구> 18호. 한국독서학회. 1-26쪽.
- 박수자(2009). 문맥의 특성과 읽기 지도. <한국초등국어교육> 39. 157-188. 박이정.
- 박영목(2002). 독서 교육 연구에 있어서의 사회·문화적 접근. <독서연구> 7. 한국독서학회. 1-18쪽.
- 박영목(2005). 국어과 교육과정의 새로운 방향.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새로운 교육과정의 방향 설정(국어교육학회 30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국어교육학회. 47-64쪽.
- 박영목·한철우·윤희원(1996). 국어교육학 원론. 교학사.
- 박영민(2004). 문식성 발달 연구를 위한 학제적 방법론. <새국어교육> 67. 한국국어교육학회. 21-42쪽.
- 박영민(2005). 사회구성주의 학습 이론과 독서의 본질. <독서연구> 14. 한국독서학회. 229-248쪽.
- 박영순(2004). 한국어 담화·텍스트론. 한국문화사.
- 박옥화(1992). 지식분류의 역사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3.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5-45쪽.
- 박인기(1997). 국어교육학의 생태학적 지평과 발전 전략. <한국초등국어교육> 13.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박인기(2000).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대한 검토. <한국초등국어교육> 16.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33-55쪽.
- 박인기(2002).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 15. 국어교육학회. 23-47쪽.
- 박인기(2003). 생태학적 국어교육의 현실과 지향.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169-192쪽. 재수록: 박인기(2003). 생태학적 국어교육의 현실과 지향. <한국초등국어교육> 22.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1-36쪽.
- 박인기(2005). 국어교육학 연구의 방향: 재개념화 그리고 가로지르기. <국어교육학연구> 22. 국어교육학회. 37-123쪽.
- 박인기(2006). 국어교육과 타 교과교육의 상호성. <국어교육> 120호. 한국어교육학회. 1-30쪽.
- 박인기(2008). 문화와 문식성의 관계 맺기. 노명완·박영목 외(2008).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78-98쪽.
- 박정진(2008). 국어수업의 질문활동 연구. 한국문화사.

- 박정진·이형래(2009). 읽기 교육에서의 콘텍스트: 의미와 적용. <독서연구> 21호. 한국독서학회. 9-31쪽.
- 박정호·양운덕·이봉재·조광제 엮음(1996). 현대 철학의 흐름. 동녘.
- 박지원/신호열·김명호 옮김(2007). 연압집 [중](5권). 돌베개.
- 박창균(2007). 말하기·듣기 수업에서의 맥락화 유형 분석. <국어교육학연구> 28. 국어교육학회. 361-392쪽.
- 박창균(2008). 듣기·말하기 교육에서 맥락 설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 국어교육과 박사학위 논문.
- 박태호(2000a). 장르 중심 작문 교육의 내용 체계와 교수·학습 원리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태호(2000b). 장르 중심 작문 교수 학습론. 박이정.
- 박형우(2006). 국어 지식 교육 내용의 변천 연구.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431-456쪽.
- 변성기(2009). 이습우화를 활용한 통합적 독서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지능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 교육대학원.
- 변홍규(1994/1995:증보개정). 질문제시의 기법. 교육과학사
- 부산광역시교육청(2009).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 및 운영 사례. 부산: 육일문화사.
- 서혁(2004). 호주의 교육 체제와 자국어 교육과정. <외국의 국어 교육과정 2>. 나라말.
- 손병룡(1998). 의사소통에서 맥락의 역할. <영미어문학연구> 14. 영미어문학회. 373-397쪽.
- 손병룡(1999). 맥락의 종류와 발화 해석. <영미어문학연구> 15집 2호. 영미어문학회. 267-290쪽.
- 손병룡(2001). 정보전달에서 맥락의 역할. 경상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손영애(1986). 국어과교육의 성격과 내용 체계. <선정어문>14·1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76-91쪽.
- 손영애(2007).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몇 가지 소론. <국어교육> 122호. 국어교육학회. 117-144쪽.
- 송현정(2006). 교육과정 개정 시안 문법 영역의 개정 방향과 과제. <문법 교육>제5호. 한국문법교육학회.
- 송현정(2006). 국어과 교육내용 적정성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21호. 한국어교육학회. 25-55쪽.
- 송현정(2006). 국어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연구보고 CRC 2006-17).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 송현정(2006). 문법 교육의 이해와 실제. 한국문화사.
- 손 흠/김진실 옮김(2009). 기호학 입문: 의미와 맥락. 비즈앤비즈.
- 신명선(2003). 지적사고처리어의 특성과 그 국어교육적 필요성에 대한 고찰. <어문학> 81. 한국어문학회. 25-48쪽.
- 신명선(2006). 통합적 문법 교육에 관한 담론 분석.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245-278쪽.
- 신명선(2008a).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 연구> 31. 국어교육학회. 357-392쪽.
- 신명선(2008b). 의미. 텍스트. 교육. 한국문화사.
- 신명선(2009). 문법 교육 내용에 관한 담론 분석. <교과 교육 내용 개선 방안을 위한 워크숍-국어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1-50쪽.
- 신헌재·이재승 편저(1994). 학습자 중심의 국어교육. 서광학술자료사.
- 신호철(2007). 국어교육의 상보적 통합. <문법교육> 7. 한국문법교육학회. 49-72쪽.
- 신호철(2009). 국어교육에서 연계성의 개념과 양상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1. 한국국어교육학회. 183-211쪽.
- 양운덕(1997). 푸코의 권력계보학; 서구의 근대적 주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경제와 사회>

35. 한글.

- 양운덕(2001). 비트겐슈타인은 왜 말놀이판에 나섰을까?. 창작과비평사.
- 오은영(2008). 상황 맥락을 반영한 쓰기 교수·학습 방법-요청하는 글 쓰기를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우한용(1997).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출판부.
- 원진숙(1995). 논술 교육론. 박이정.
- 원진숙(1997). 언어, 언어학 그리고 언어교육. <한국어학> 6. 한국어학회. 19-33쪽.
- 원진숙(2001). 구성주의와 작문. <구성주의와 국어교육>(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전국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83-106쪽. <한국초등국어교육> 18(2001). 81-106쪽. 재수록.
- 원진숙(2009). 지식 기반 정보화 사회의 문식력 신장을 위한 국어교육의 개선 방향. <한국초등교육> 19-2호. 서울교육대학교. 21-32쪽.
- 유광찬(2000). 통합교육의 탐구. 교육과학사.
- 유숙현(2010). 맥락을 활용한 시 교육 방안. 대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재익(1969). contextaul Theory와 Prosodic Phonology에 있어서의 Malinowski와 Firth에 관한 소고. <논문집> 5. 대전공업전문학교. 15-27쪽.
- 유한구·김승호(1998). 초등학교 통합교과 교육론. 교육과학사.
- 이경화 외(2007). 교과 독서와 세상 읽기. 박이정.
- 이경화(2008). 텍스트 이해 과정과 맥락의 소통. <문식성 교육 연구> (노명완, 박영목 외 엮음). 한국문화사. 332-354쪽.
- 이경화·김혜선(2008).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의 상세화 원리 체계화 연구. <국어교육학 연구> 33. 국어교육학회. 525-555쪽.
- 이관규(2007). 2007년 국어과 문법 교육과정의 개정 특징과 문법 교육의 방향. <청람어문교육> 36호. 청람어문교육학회. 53-80쪽.
- 이광우 외(2008).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비전 연구(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8-7-1.
- 이광우 외(2009).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2009-10-1.
- 이도영(1998). 언어 사용 영역의 내용 체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도영(2000). 표현 이해 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 기능, 전략. <국어 표현·이해 교육>(박갑수 외 16인). 집문당. 147-172쪽.
- 이미중(2008). 이론적 지식은 왜 가르쳐야 하는가? :피터즈의 선형적 정당화 논의의 한계와 그 극복 방안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6권 3호. 163-191쪽.
- 이삼형(1994). 국어과 교육 내용 설정의 두 축-내용의 합목적성과 수준.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논문집> 52.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이삼형(2005). 새로운 국어과 교육과정의 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새로운 교육과정의 방향 설정(국어교육학회 30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국어교육학회. 187-199쪽.
- 이상태(1993). 국어교육의 길잡이. 한신문화사.
- 이상태(2007). 국어과 교육의 환원론적 설계. <국어교육연구> 40. 국어교육학회. 191-212쪽.
- 이성만(2010). 텍스트언어학의 계보, 대상 그리고 경향. <언어과학연구> 52. 119-148쪽.
- 이성영(1995). 국어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성영(1995). 언어지식 영역 지도의 필요성과 방향. <국어교육연구>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97-124쪽.
- 이성영(2001). 구성주의적 읽기 교육의 방향. <구성주의와 국어교육>(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전국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55-76쪽. <한국초등국어교육> 18(2001). 57-79쪽. 재수록.
- 이성영(2007a). 구성주의 읽기 평가의 내용과 방법. <독서연구> 18. 한국독서학회. 125-155쪽.
- 이성영(2007b). 2007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성과 문제점. <우리말교육현장연구> 창간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103-128쪽.
- 이성영(2010). '독서' 과목의 구조. <국어교육> 131. 한국어교육학회. 141-168쪽.
- 이성은(1994). 총체적 언어 교육. 창지사.
- 이수진(2007). 국어과 주제중심 통합 단원의 개발 방안 탐색. <국어국문학> 145호. 국어국문학회. 437-465쪽
- 이원표(2001). 담화분석-방법론과 화용 및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실제. 한국문화사.
- 이은희(1994). 언어 영역의 위상과 내용 선정 방식에 관한 연구. <선정어문> 22. 서울대 국어교육과.
- 이은희(2000). 텍스트언어학과 국어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재기(2005). 문식성 교육 담론과 주체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재기(2006). 맥락 중심 문식성 교육 방법론 고찰. <청람어문교육> 34. 청람어문학회. 34-99쪽.
- 이재승(1992). 통합 언어(whole language)의 개념과 국어교육에의 시사점. <국어교육> 79. 한국어교육학회. 73-89쪽.
- 이재승(2002). 언어 기능 통합 지도의 배경과 층위. <한국초등국어교육> 25.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139-162쪽.
- 이재승(2004). 읽기와 쓰기 통합 지도의 방법과 유의점. <독서연구> 11호. 한국독서학회. 275-299쪽.
- 이재승(2006). 통합적 국어교육의 개념과 성격. <한국초등국어교육> 31. 171-192쪽.
- 이재승(2008). 새 국어 교과서 개발의 쟁점. <한국초등국어교육> 38.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373-405쪽.
- 이종열(2003). 국어지식 영역 내용체계의 통합적 재구성 방안. <문학과 언어> 25. 문학과언어연구회. 127-160쪽.
- 이주섭(2001). 상황 맥락을 반영한 말하기·듣기 교육의 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호형(2006). 한국과 호주의 국어교육적 특성 고찰. <대학원논문연구논집> 36. 동국대학교 대학원. 149-196쪽.
- 이환기(1996). 교과통합의 인식론적 기초. <중등 우리교육> 10월호. 우리교육. 152-157쪽.
- 임미성(2002). 통합적 국어교육을 위한 교과서 구성 방안. <한국초등국어교육> 21.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1-38쪽.
- 임선하(1993). 창의성에의 초대. 교보문고.
- 임성우(2005). 맥락과 주변장의 상관관계에 관한 고찰. <독일어문학> 31. 한국독일어문학회. 335-354쪽.
- 임언 외(2008). 미래 사회의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8-7-2.
- 임천택(2007). 새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 범주 '맥락'의 현장 소통 방안. <청람어문교육> 36호. 청람어문교육학회. 109-141쪽.

- 장덕순(2009). 맥락 중심의 자기 질문하기가 설명적 텍스트의 독해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윤경(2003). 맥락 중심 읽기·쓰기 통합 교재 구성 방안 연구.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광숙(2004). 한·미·호 초등 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읽기 영역 비교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덕순(2009). 맥락 중심의 자기 질문하기가 설명적 텍스트의 독해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옥년(2007a). 독서의 정의적 영역과 독자 발달. <독서연구> 17-1. 한국독서학회. 139-180쪽.
- 정옥년(2007b). 글쓰기 위한 읽기의 성격과 전략. <작문연구> 5. 작문교육학회. 75-103쪽.
- 정재찬(2006). 소통과 연대를 위한 국어교육. <국어교육> 120호. 한국어교육학회. 31-70쪽.
- 정혜승(2002). 국어과 교육과정 실행 연구. 박이정.
- 정혜승(2007).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비판적 점검. <우리말 현장연구> 1. 우리말교육현장학회. 163-188쪽.
- 정혜승(2008). 문식성 개념 변화와 교육과정적 함의. 노명완·박영목 외(2008).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169-191쪽.
- 정혜승(2008). 문식성 교육의 쟁점 탐구. <교육과정평가연구> 1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61-185쪽.
- 조희정(2007). 가상 맥락을 도입한 글쓰기 교육 연구. <국어교육학 연구> 30. 국어교육학회. 501-537쪽.
- 주세형(2006). 문법 교육론과 국어학적 지식의 지평 확장. 역락.
- 주세형(2009). 할리데이 언어 이론의 국어교육학적 의미. <국어교육> 130호. 한국어교육학회. 173-204쪽.
- 진선희(2007a). 개정교육과정(2007) 국어과 교육 내용 '맥락'의 교재화 방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 연구> 7-2.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77-308쪽.
- 진선희(2007b). 문학 소통 '맥락'의 교육적 탐색. <문학교육학> 26. 문학교육학회. 220-253쪽.
- 진선희(2009). 국어과 교육 내용 '맥락'의 구현 방향. <국어교육연구> 45. 국어교육학회. 245-286쪽.
- 천경록(1995). 기능, 전략, 능력의 개념 비교. <청람어문학> 13. 청람어문학회. 316-330쪽.
- 최경봉(2006). 문법 교과서의 내용 체계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어국문학> 142. 국어국문학회. 431-463쪽.
- 최규홍(2007). 국어과 교수·학습 모형 연구- 언어 사용 기능을 중심으로 -. <청람어문교육> 35. 청람어문교육학회. 109-128쪽.
- 최명원(2002). 언어와 언어 사용에 있어서 맥락의 의미. <독일어문학> 19. 477-495쪽.
- 최미숙 외(2008).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 최민자(2010). 통섭의 기술. 모시는사람들.
- 최성덕(2006).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연계성'과 '계속성'에 관한 연구. <문법교육> 5. 한국문법교육학회. 137-169쪽.
- 최영환(1995). 언어 능력 신장의 관점에서 본 언어 지식 영역의 지도 내용. <국어교육연구>2.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177-208쪽.
- 최영환(1995). 언어 사용 전략의 자동화와 초인지. <국어교육학 연구> 5. 국어교육학회. 1-22쪽.
- 최영환(1997). 기능과 전략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 방안. <국어교육> 95.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147-173쪽.
- 최인자(2001). 문식성 교육의 사회·문화적 접근. <국어교육연구> 8.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국어교육연구소. 191-220쪽.
- 최인자(2006). 청소년 문학 독서경험의 질적 이해를 위한 맥락의 탐구. <독서연구> 16. 한국독서학회. 163-197쪽.
- 최인자(2008). 문학 독서의 사회·문화적 모델과 맥락 중심 문학교육의 원리. <문학교육학> 25. 한국문학교육학회. 427-449쪽.
- 최창렬(1983). 맥락과 발화의미. <어학> 10. 전북대학교 어학연구소. 51-63쪽.
- 최창렬(1999). 말과 의미. 집문당.
- 최창렬·심재기·성광수(1986). 국어의미론, 개문사.
- 최현섭·최명환·노명완·신헌재·박인기·김창원·최영환(1996). 국어교육학. 삼지원.
- 한민경(2008). 맥락 중심 읽기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 허재영(2006). 국어과 교육의 이해와 탐색, 박이정. 29-40쪽.
- 홍상오(1984). 맥락과 의미결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황기동(2007). 초기 맥락의 형성에 대한 연구. <영미어문학연구> 23-1. 영미어문학회. 5-25쪽.
- 황미향(2009). 국어과 교수·학습 개선 방안-쓰기 '맥락' 체험으로서의 프로젝트 접근법-. <청람어문교육> 39. 343-372쪽.
- 황재웅(2008). 맥락 중심 읽기와 텍스트 유형의 상관성 고찰-비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38. 청람어문교육학회. 309-337쪽.
- Auer. P. (1992). Introduction: John Gumperz'approach to contextualization. In Peter Auer and Aldo DiLuzio(eds.). The Contextualization of Language: 1-37. Amsterdam: John Benjamins.
- Auer, P(1995). Content and contextualization. In Verschueren, J., Ostman, J.-O., and Blommaert,J.(eds.). Handbook of pragmatics. 1-19. Amsterdam: John Benjamins.
- Auer, P., and Di Luzio(1992). The contextualization of Language. Amsterdaum: John Benjamins.
- Austin, J.L.(1962/1965).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University Press. 김영진 옮김(1992). 말과 행위. 서광사.
- Bakhtin, M. & Volosinov, N(1976). Freudianism: A Critical Sketch. (trans.)I.R. Titunik. Univ. of Indiana.
- Bakhtin, M.(1986). Speech Genres and Other Late Essays, (trans.)Caryl Emerson & Michael Holquist. Univ. of Texas.
- Bakhtin, M./전승희·서경희·박유미 역(1992).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 Bakhtin,M. M.(1981). The Dialogic Imagination.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Baron.Naomi S(1994). Do words have meaning? Dictionaries. definitions. and context. New Departures in Linguistics. George Wolf(ed)(1992). New York: Garland(Semiotica 99. 1994. Walter de Gruyter에 재수록).
- Barthes, R. (1957). Mythologies. Paris: Le seuil.
- Beaugrande, R. & W. Dressler(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Longman.김태옥·이현호 역(1991/1995). 텍스트언어학 입문. 한신문화사.
- Benveniste. Emile(1966).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 Gallimard. 황경자 옮

- 김(1992). 일반언어학의 제 문제 I. 민음사.
- Benveniste. Emile(1974).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I. Gallimard. 황경자 옮김(1992). 일반언어학의 제문제 II. 민음사.
- Berns. M.(1990). Contexts of Competence: Social and Cultural Considerations in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London and New York: Plenum Press.
- Betts. G. T.(1991). The Autonomous Learner Model for the Gifted and Talented. in Colangelo N. and Davis Gary A..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 Blass, R.(1990). Relevance Relations in Discourse. Cambridge: Cambridge UP.
- Blommaert,J(2001). Context is/as critique. Critique of Anthropology 21/1: 13-32.(special issue on Discourse and Critique, ed. J. Blommaert, J. Collins, M. Heller, B.Rampon, S. Slembrouck, and J. Verschueren).
- Blommaert,J.(ed.)(1999). Language Ideological Debates. Berlin: Mouton de Gruyter.
- Blommaert,J(2005). Discourse: A Critical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augrande, R & Dressler, W.(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Longman.
- Bourdieu, P(1991). Language and Symbolic Power. Cambridge: Polity.
- Braidotti. Rosi(1994). Toward a New Nomadism Feminist Deleuzian Tracks: or Methaphysics and Metabolism. Gilles Deleuze and the Theater of Philosophy(Edited by Constantin V.Boundas & Dorothea Olkowski). New York: Routledge. 오수원 옮김(1998). 새로운 노마디즘을 위하여: 페미니즘의 들뢰즈적 궤적 혹은 형이상학과 신진대사. 문화과학 15호(가을호).
- Brinker,K(1985). Linguistische Textanalyse. Berlin: E.Schmidt 이성만 역(1994). 텍스트 언어학의 이해. 한국문화사
- Brown, H. Douglas(2001).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NY: Longman. 권오량 김영숙 옮김(2008). 원리에 의한 교수: 언어 교육에의 상호작용적 접근법.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 Cameron. Deborah(1985/1992: second edition). Feminism & Linguistic Theory. Hong Kong: Macmillan. 이기우 옮김(1995). 페미니즘과 언어 이론. 한국문화사.
- Canale & Swain(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ches to Second language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PP.1-47.
- Candice Satchwell and Roz Ivanic(2009). The textual mediation of learning in college contexts. Richard Edwards. Gert Biesta and Mary Thorpe (eds)(2009). Rethinking Contexts for Learning and Teaching : Communities. Activities and network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77-91.
- Catherine Twomey Fosnot 외/조부경 외 옮김(2001). 구성주의 이론, 관점, 그리고 실제. 양서원.

- Chierchia. Gennaro and Sally McConnell-Ginet. 1990. *Meaning and Grammar*. Cambridge: The MIT Press.
- Chomsky, N. (1957). *Syntactic Structures*. The Hague: Mouton/Co. 이승환 이해숙 공역 (1966). *변형-생성문법의 이론*. 범한서적.
- Clark, H. & Carlson, T. (1981). Context for Comprehension. in J. Long and A. Baddeley (Eds.), *Attention and Performance*. NJ: Erlbaum.
- D. Brett King ; Wayne Viney ; Douglas Woody William. 임성택·안범희 옮김 (2009). *심리학사: 사상과 맥락*. 교육과학사.
- David R. Russell. (2009). Texts in contexts: theorizing learning by looking at genre and activity. Richard Edwards, Gert Biesta and Mary Thorpe (eds). (2009). *Rethinking Contexts for Learning and Teaching : Communities, Activities and network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17-30.
- Deleuze, Gilles. (1981). *Difference et repetition*.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김상환 옮김 (2004). *차이와 반복*. 민음사.
- Deleuze, Gilles. (1969). *Logique du sens*. Paris: Editions de Minuit. 이정우 옮김 (1999). *의미의 논리*. 한길사.
- Derrida, Jacques. (1972). *La dissémination. aux éditions du seuil*.
- Dijk, T.A. & Kintsch, W. (1983). *Strategies of Discourse Comprehension*. Academic Press. Inc.
- Duranti, A and Goodwin, C. (eds.) (1992). *Rethinking Contex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agleton, Terry. (1991). *Ideology: An Introduction*. London & New York: Verso 여홍상 옮김 (1994). *이데올로기 개론*. 한신문화사.
- Eco, Umberto. (1984). *Semiotics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Indiana University Press. 서우석·전지호 옮김 (1987 / 1997). *기호학과 언어철학*. 청·하.
- Edward O. Wilson. (1999).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 New York: Vintage Books A Division of Random House, INC. 최재천·장대익 옮김 (2007). *통섭*. 사이언스북스.
- Fairclough, N. (1995). *Critical Discourse Analysis*. London: Longman.
- Fairclough, N. (1995). *Media Discourse*. Edward Arnold. 이원표 역 (2004). *대중매체 담화 분석*. 한국문화사.
- Fairclough, N. (ed.) (1992). *Critical Language Awareness*. London : Longman.
- Fairclough, N. (1989). *Language and Power*.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Figuerola, E. (1994). *Sociolinguistic Metatheory*. Oxford: Pergamon.³⁹⁾
- Firth, J.F. (1957). *Papers in Linguistics 1934-1951*. London: Oxford Up.
- Flower Linda. (1983). *Problem-Solving Strategies for writing*. 원진숙·황정현 공역 (1998). *글쓰기의 문제 해결 전략*. 동문선.
- Foucault, Michel. (1966). *Les mots et les choses*. Paris: Gallimard. 이광래(역) (1987).

39) Figuerola, E. (1990). *Sociolinguistic Metatheory: An Utterance-based Paradig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eorgetown University.

- 말과 사물. 서울: 민음사.
- Foucault. Michel(1969). *L'archeologie du savoir*. Paris: Gallimard. 이정우(유희김)(1992). *지식의 고고학*. 서울: 민음사.
- Foucault. Michel(1971). *L'ordre du discours*. Paris: Gallimard. 이정우(유희김)(1998). *담론의 질서*.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 Freedman, A. & Medway, P.(1994). *New Views of Genre and Their Implications for Education*, in Freedman & Medway eds., *Learning and Teaching Genre*, Boynton/Cook Publishers.
- Gert Biesta(2009). Pragmatism's contribution to understanding learning-in-context. Richard Edwards, Gert Biesta and Mary Thorpe (eds).(2009), *Rethinking Contexts for Learning and Teaching : Communities, Activities and network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61-73.
- Gibbs. Raymond.W.Jr(1994). *The poetics of mi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yle, Gilbert(1994). *Plato's progress*. Bristol: Thommes Press.
- Givon, T.(1989). *Mind, Code and Context. Essays in Pragmatics*.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Goodman, Y. M. (1989). *Roots of the whole-language movement*.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Volume 90.
- Göran Therborn(1980). *The Ideology of Power and the Power of Ideology*. Verso Edition and NLB 괴란 테르본/최종렬 유희김(1994). *권력의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의 권력*. 백의.
- Gumperz, J. (1972). Introduction. In Gumperz,J., and Hymes, D. (eds.), *Directions in Sociolinguistics: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1-25*, London: Blackwell.
- Gumperz, J. (1982). *Discourse Strateg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umperz, J.(1992). Contextualization revisited. In Auer, P., and DiLuzio, A. (eds.), *The Contextualization of Language*. pp.39-53. Amsterdam: John Benjamins.
- Halliday, M.A.K.(1985/1994: 2nd ed).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Edward Arnold.
- Halliday, M.A.K and Hasan,R.(1976). *Cohesion in English.. English Language Series 9*. London: Longman..
- Halliday, M.A.K and Hasan,R.(1989). *Language, Context, and Text: aspects of language in a social-semiotic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 Halliday, M.A.K.(2002/J.Webster ed.). *Linguistic Studies of Text and Discourse*. Continuum: London and New York.
- Halliday, M.A.K.(2003/J.Webster ed.). *On Language and Linguistics*. Continuum: London and New York.
- Halliday, M.A.K.(2007/J.Webster ed.). *Language and Education*. Continuum: London and New York.

- Halliday. M.A.K.(1961). Categories of the Theory of Grammar. WORD 17. pp.241-292.
- Halliday. M.A.K.(1978). Language as Social Semiotic: The social Interpretation of Language and Meaning. London: Edward Arnold.
- Harris. Roy(1990). On redefining linguistics. In The Foundation of Linguistics Theory. N.Love(ed). London: Routledge.
- Havermas, J.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1. Reaso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ociety. London: Heinemann.
- Hayakawa. S. I.(1964 / 1978). Language in Thought and Ac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 Hjelmslev. Louis / Trans by Francis J.Whitfield(1961). Prolegomena to a Theory of Language.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Hunt E.(1994). Problem Solving. in Steinberg R.J. Ed.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London:Academic Press Ltd.
- Hymes, D. (1964). Introduction: Toward ethnographies of communication. In the communication, (eds). J.J.Gumperz and D.Hymes.Washington.D.C: American Anthnopological Association. pp.1-34.
- Hymes, D. (1966). Two types of linguistic relativity (with examples from Amerindian ethnography). In Bright, W. (ed.), Sociolinguistics: Proceedings of the UCLA Sociolinguistics Conference, The Hague: Mouton. pp. 114- 158.
- Hymes, D.(1974). Foundations in Sociolinguistics: An Ethnographic Approach.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Irene C. Fountas, Gay Su Pinnell(2001). Guiding Readers and Writers Grades 3-6. Heinemann.
- James, Paul Gee(2001). Reading as situated language; A Socio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 James, Paul Gee(2002). Discourse and Sociocultural Studies in Reading. Pearson, p David, Handbook of Reading Reasearch. lawrence Erlbaum Associate Inc. Internatonal Reading Associoation.
- Jean-Jacques Lecercle(2002). Deleuze and Language. Newyork: Palgrave Macmillan.
- Joseph. John. · Talbot J.Taylor(1990). Ideologies of Langua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Julia Kristeva(1974). La Révolution Du Langue Poetique. Paris: Editons du Seuil. 김인환 옮김(2000). 시적 언어의 혁명. 동문선.
- Katz. J.J(1972). Semantic Theory. Harper &Row.
- Kempson. R.M(1977). Semantic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허광일 · 이석주 · 박양귀 공역(1980). 의미론. 한신문화사.
- Labov, W. (1966).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English in NewYork. Washington, D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Lakoff. George and Mark Johnson(1980). Metaphors We Live By. The University of

- Chicago Press 노양진·나익주 옮김(1995). *삶으로서의 은유*. 서광사.
- Lakoff, George(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기우 옮김(1994). *인지 의미론*. 한국문화사.
- Leech, Geoffrey(1974 / 1981). *Semantics*. Harmondworth: Penguin Books.
- Lobov, W. (1972). *Sociolinguistic Pattern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Louis Althusser(1965 / 1986). *Pour Marx*. Ed. La Decouverte / 고길환·이화숙 역 (1990 / 1992). *마르크스를 위하여*. 백의 / Trans by Ben Brewster(1977). *For Marx*. London(NLB). The Penguin Press.
- Louis Breger(1974). *From Instinct to Identity: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Prentice-Hall,Inc. 홍강의 이영식 옮김(1998). *인간 발달의 통합적 이해: 본능에서 정체성으로의 발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Lyons. J(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ons. J(1977a). *Semantics*.(1.Vol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ons. J(1977b). *Semantics*.(2.Vol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ons. J(1981). *Language, Meaning and Context*. London: Fontana. 현대언어학회 역(1984). *언어 의미와 상황맥락*. 한신문화사.
- Lyons. J(1995). *Linguistic Semantic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 마페줄리 외/일상생활연구회 옮김(1995).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 M.A.K.Halliday and Ruqaiya Hasan(1989). *Language, Context, and Text: aspects of language in a social-semiotic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 M.K.뮤니츠 / 박영태 옮김(1997). *현대 분석 철학*. 서광사.
- Malinowski, B(1923). *The Problem of Meaning in primitive language*. Appendix to C.K. Ogden and I.A.Richards. *The Meaning of Meaning*. London.: Routledge &Kegan Paul.
- Martin Jonghak Baik(1995). *Language, Ideology, And Power, English Textbook of Two Koreas*. Seoul: Thaehaksa.
- Martin, J. R(1985). *Process and text: two aspects of semiosis*. In Benson, J. and Grevas, W. eds. *Systemic perspectives in discourse*. Vol 1. Norwood, NJ: Ablex, pp. 248-274.
- Martin, J. R(2000). *Close reading: Functional linguistics as a tool for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n Unsworth, L. (ed.), *Researching Language in schools and Communities: Functional Linguistic Perspectives*: 275-302. London: Cassell.
- Michael Polanyi(1958). *Personal Knowledge: Towards a Post-Critical Philosoph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표재명·김봉미 옮김(2001). *개인적 지식*. 아카넷.
- Mary Jett-Simpson. Lauren Leslie(1997). *Association, Authentic Literacy, Wisconsin Reading*. 원진숙 역(2004). *생태학적 문식성 평가*. 한국문화사.

- Mathewson, G. C.(2004). Models of attitude influence upon reading and learning to read. In Ruddel & Unrau(Eds.). Theoretical models and processes of reading(5th).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1431-1461. Newark, DE.
- Max K.Adler(1980). Marxist Linguistic Theory and Communist Practice. Helmut Buske Verlag Hamburg.
- McConnell-Ginet. Sally(1989). The sexual (re)production of meaning: a discourse-based theory. In Frank and Treichler.
- Mey. Jacob L(1993). Pragmatics. Cambridge: Blackwell. 이성범 옮김(1996). 화용론. 한신문화사.
- Michael Polanyi(1958). Personal Knowledge: Towards a Post-Critical Philosoph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표재명·김봉미 옮김(2001). 개인적 지식. 아카넷.
- Michael Toolan(1996). Total Speech: An Integrational Linguistic Approach to Language (Post-Contemporary Interventions). Duke University Press.
- Michel Pêcheux/Trans by Harbans Nagpal(1975). Language. Semantics And Ideology. Francois-Maspero.
- Mills, Sara(1997). Discourse. New York: Routledge. 김부영 역(2001). 담론. 인간사랑.
- Myers, J. W.(1993). Making Sense of Whole Language. Bloomington; Phi Delta Kappa Educational Foundation.
- N.N.Spivey(1997). The constructivist metaphor : reading, writing, and the making of meaning. 신현재 외 옮김(2002/2004: 개정판). 구성주의와 읽기:쓰기, 의미구성의 이론. 박이정
- New Zealand Ministry of Education(2007). The New Zealand Curriculum. Wellington: New Zealand Ministry of Education.
- Nunan. David(1993). Introducing Discourse Analysis. London: Penguin.
- OECD(2003).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DeSeCo). OECD Press.
- Osgood. C.E. Suci. G.J.&Tannenbaum. P(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Palmer. F.R(1981). Semantics(2nd).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현대언어학 연구회 옮김(1984). 의미론. 한신문화사.
- Pêcheux. Michel(1971). La Semantique et La Coupure Saussurienne: Langue. Langue. Discours/Choisis et Presentes Par Denise Maldidier(1990). L'inquietude Du Discours. Editions Des Cendres.
- Pêcheux. Michel(1975). Les verites de La Palice. Francois-Maspero/Trans by Harbans Nagpal.1982. Language. Semantics And Ideology. New York: St. Martin's Press.
- Quasthoff.U.M.(1997). context. In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Educati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Netherland. pp. 730-737
- Quine,W.V.(1960). Words and Objects.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 Rapoport. Anatol(1950). Science and the Goals of Man. Harper & Brothers. 안동환

- 유킴(1977). 과학과 인간의 목표. 한국문화사.
- Rex.L,Green.J,Dixon.C(1998). What Counts When Context Counts?: The Uncommon "Common" Language of Literacy Research, Journal of Literacy Research 30(3). pp. 405-433
- Richard Edwards, Gert Biesta and Mary Thorpe (eds).(2009). Rethinking Contexts for Learning and Teaching: Communities. Activities and network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Richard Edwards.(2009). Introduction: Life as a learning context?. Richard Edwards, Gert Biesta and Mary Thorpe (eds).(2009). Rethinking Contexts for Learning and Teaching : Communities, Activities and network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1-13.
- Robert b.Ruddell, Norman J.Unrau ed(2004). Theoretical Models and Processes of Reading(Fifth Edition) 1-4.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Roberts, Edgar V(1995). Writing about Literature. Prentice-Hall.
- Roland Barthes(1973). Le Plaisir de texte. Paris: Seuil. 김희영(유킴)(1997). 텍스트의 즐거움. 서울: 동문선.
- Roland Barthes(1984). Le bruissement de la langue. Paris: Seuil(Translated by) Richard Howard(1989). The Rustle of Language.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oman Jakobson(1963). Essais de linguistique Générale. Minuit 권재일 유킴(1989/1994). 일반언어학이론. 민음사.
- Rosenblatt, L. M. (1978). The reader, the text, the poem. Carruthers Illinois university Press.
- Ryan, M./나병철 역(1995). 해체론과 변증법. 평민사.
- Saussure /Edited by Bally. Charles and Sechehayé. Albert(1972). Cours de Linguistique Generale. Payot. 최승연 유킴(1990). 일반언어학 강의. 민음사.
- Saussure /Edited by Bally. Charles and Sechehayé. Albert(1972). Cours de Linguistique Generale. Payot. 최승연 유킴(1990). 일반언어학 강의. 민음사.
- Schaff. Adam(1967). Die Sprache und das menschliche Handeln. <Essays über die Philosophie der Sprache> 윤명노 역(1987). 언어와 인간행위. <철학 오늘의 흐름>. 동아일보사.
- Schegloff, E. (1997). Whose text? Whose context? Discourse and Society 8: 165-187.
- Schiffrin. Deborah(1994). Approaches to discourse. Oxford: Blackwell.
- Smith, .P.L: Ragan.T.J.공저/김동식·정옥년·장상필 공역(2002). 교수설계이론의 탐구. 원미사.
- Spencer, L. M. & Spencer, S. M.(1993). Competence at Work: Model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Wiley.
- Sperber, D., and D. Wilson(1986).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Oxford: Blackwell. (Second edition 1995) 김태옥·이현호 유킴(1993/2010). 인지적 화용론-적합성 원리와 커뮤니케이션 . 한신문화사.

- Sternberg, Robert J., ed(1994).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Academic Press.
- Steve Fox.(2009). Contexts of teaching and learning: an actor-network view of the classroom. Richard Edwards, Gert Biesta and Mary Thorpe (eds).(2009), Rethinking Contexts for Learning and Teaching : Communities, Activities and network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31-43.
- Tamsin Haggis.(2009). Beyond 'mutual consitution': looking at learning and context from the perspective of complexity theory. Richard Edwards, Gert Biesta and Mary Thorpe (eds).(2009). Rethinking Contexts for Learning and Teaching : Communities. Activities and network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44-60.
- Taylor. John(1995). Linguistic Categor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조명원·나익주 옮김(1997). 인지언어학이란 무엇인가-언어학과 원형 이론. 한국문화사.
- Terry Eagleton(1991). Ideology: An Introduction. Verso / 여홍상 옮김(1994). 이데올로기 개론. 한신문화사.
- Teun A. van Dijk(1978/1980)⁴⁰/정시호 옮김(1995). 텍스트학. 민음사.
- Tomas, G. P.(1986), Mutual Knowledge: A Theoretical Basis for Analyzing Audience, College English 48.6
- Toolan. M. (1997). What i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d why are people saying such terrible things about it? Language and Literature 6: 83-103.
- V.N.Vološnov(1929). Marksizm I filosofija jazyka. Lenigarad / Trans by Ladislav Matejka and I.R.Titunik(1986). Marxism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Harvald University Press / 송기한 역(1988).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 흔겨레./송기한 옮김(2005). 언어와 이데올로기. 푸른사상.
- Van Dijk, T(1997). What is political discourse analysis? In Blommaert, J., and Bulcaen, C. (eds.). Political Linguistics: 11-52. Amsterdam: John Benjamins.
- Vygotsky, L.S.(1934)/Edited and translated by Eugenia Hanfmann and Certrude Vakar(1962). Though and Language. THE. M.I.T.PRESS.레프 비고츠키 지음/신현정 역(1985). 사고와 언어. 성원사.
- W.Hanks.(2006). Context. Language and linguistics
- Widdowson H. (1995). Discourse analysis: A critical view, Language and Literature 4: 157-172.
- Widdowson H(1996). Reply to Fairclough: Discourse and interpretation: Conjectures and refutations. Language and Literature 5: 57-69.
- Widdowson H(1998). The theory and practice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pplied Linguistics 19: 136-151.
- Widdowson..H.G(1978). Teaching Language as Communi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40) 반다이크가 1978년에 네덜란드어 저술에 대한 독어판(1980)을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정시호 역자 서문)

- Widdowson..H.G(1979). Explorations in Applied Linguis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Widdowson..H.G(2004). Text, Context, Pretext: Critical Issues in Discourse Analysis. Blackwell Publishers.
- Witte, S. P(1992). Context, Text, Intertext: Toward a Constructivist Semiotic of Writing. Written Communication 9(2). 237-308쪽.
- Wolfgang Heinemann·Dieter Viehweger(1991)/백설자 역(2001). 텍스트언어학 입문. 역락.
- 다이안 맥도넬(1992)/임상훈역(2002). 담론이란 무엇인가. 한울.

국어 교육 내용으로서의 ‘맥락’ 쟁점에 대하여

- 맥락은 지식인가, 기능인가, 전략인가

김혜련(성신여대)

발표자의 논문은 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국어교육의 내용 범주로 적극적으로 도입한 ‘맥락’ 범주를 꼼꼼하게 되짚어 국어교육의 내용으로서 맥락을 온전하게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시의적인 주제라는 점에서 토론자 역시 대체로 공감하는 바이기에 연구 의의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연구자로서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발표자의 논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질의하는 형식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1. 먼저 목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토론자가 발표자의 본문을 통해 목차를 정리한 것을 아래와 같이 제시해 봅니다.(목차 숫자와 기호는 발표문 그대로). 발표자의 논문은 크게 맥락의 의미를 재개념화하는 부분과 국어과 교육과정(7차와 2007)에 드러난 ‘맥락’범주 설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제목에 수반된 각주를 통해 이 논문이 발표자가 현재 작성하고 있는 박사논문의 일부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발표자의 의견이 소결(小結)의 형식으로라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통해 발표자가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이 논문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니다. 특히 부제로 설정하고 있는 ‘맥락은 지식인가, 기능인가, 전략인가’에 대해서는 이 발표문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체 논문을 읽지 않은 토론자에게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국어교육의 내용으로서의 ‘맥락’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을 우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맥락 의미의 재개념화를 통해본 맥락의 지식 특성과 전략 특성
 - 1) 대중 언어 사전과 말뭉치를 통해 본 맥락의 의미
 - 2) 주요 연구자들의 ‘맥락’ 의미와 재개념화
2. 교육과정 내용으로서의 ‘맥락’의 지식과 전략 특성
 - 3.1. 범주 용어의 사용역과 ‘맥락’ 범주 설정의 타당성
 - 3.2. 교육과정의 ‘맥락’ 특징과 문제
 - 1) ‘맥락’ 범주 설정의 의미
 - 2) 다른 범주와의 관계 의미
 - 3) 각 영역별 맥락의 구성 요소 의미와 문제

2. 이 논문은 사실 많은 맥락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바, 맥락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맥락에 대한 개념이나 의미에 대한 연구는 일천하다는 맥락 연구의 현 실정에서 맥락과 맥락 연구에 대해 꼼꼼하게 분석하고 정리한 후 그 결과를 통해 재개념화하고자 하는 연구 방식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발표자가 사전과 국어교육 연구자들의 맥락 개념을 분석하여 발표자가 내린 맥락의 개념입니다.

(맥락이란) 담화와 글의 수용·생산 활동에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체가 고려해야 할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과 그런 활동을 통해 구성되는 의미 작용과 지식(14쪽)

이 정의를 수용할 경우 맥락의 하위 개념은 ‘상황’과 ‘사회 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의미 작용’과 ‘지식’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목차의 1절과 2절의 제목 ‘맥락의 지식 특성과 전략 특성’을 통해 추론해 볼 경우에도 발표자는 맥락에 지식 특성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발표자는 2007 교육과정의 ‘지식’범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식’ 범주가 본질적 지식으로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 지식 자체에 ‘맥락’이 함의되어 있다”(26쪽)고 함으로써, ‘지식’에 오히려 ‘맥락’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리고 선택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독서, 작문’의 경우 ‘맥락’은 ‘지식’ 범주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하면서 “공통과정과 마찬가지로 ‘맥락’을 독립된 범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26쪽)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통과정과 선택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토론자 역시 이의가 없으나, 의문나는 것은 ‘맥락’과 ‘지식’의 관계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더욱이 그 부분의 결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기까지 하다.

2007 국어과 교육과정의 구도대로라면, 문법 영역의 경우 “국어의 특질에 대한 명제적 지식, 국어의 역사에 대한 명제적 지식, 국어의 규범에 대한 명제적 지식”으로 최대한 좁혀 ‘맥락’ 범주와 연계시켜 지식 영역을 확대하든가, 아니면 위에서와 같이 “본질, 특질, 역사, 규범” 지식 안에 맥락적 지식이 본질적 지식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발표문, 28쪽)

맥락에 지식의 성격이 내재해 있고, 지식 역시 맥락적 지식을 포함한다는 이러한 진술은 결국 다시 맥락과 지식의 관계에 대한 발표자의 입장이 다소 모호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토론자의 우문일 수도 있지만, 맥락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하겠다는 발표자의 논문에서 오히려 다시 발표자의 혼란스러운 관점이 산견된다는 점입니다. 맥락적 지식이나 본질적 지식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둘째치고, 맥락은 지식과 과연 어떤 관계인 것인지에 관한 발표자의 명확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굳이 본문에서 맥락과 지식의 관계를 문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3. 이번 질의 역시 비슷한 관점입니다. 발표자는 발표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논문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 공통 과목에서 ‘맥락’을 ‘지식’ 범주도 아니고 ‘기능’ 범주도 아닌 독립된 범주로 설정한 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여 맥락을 전략으로 보는 관점을 밝히고자 한다”(41쪽)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여러 연구물들을 통해 맥락은 전략이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발표자의 주장이 이번 연구를 통해 실제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발표문만으로는 맥락과 지식, 기능의 관계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맥락이 결과적으로 지식이어서도 안되고, 기능이어서도 안되고, 전략이어야 한다는 발표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근거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니다. 더욱이 발표문의 마지막에서야 보이는 이와 같은 당위적 주장이 앞에서 제기한 내용과 맥락의 연구사들과 긴밀하게 조응하고 있지 않아, 왜 전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수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니다. 특히, 맥락을 ‘전략’으로 인식할 경우 국어교육의 내용 범주로서 ‘지식’, ‘기능’과 전략으로서의 ‘맥락’의 관계나 위상도 일관성 있게 마련되어야 할 것은 물론입니다. 이상으로 선생님의 육고에 대한 거친 질문을 양해 드리며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국어 위치동화 현상의 지각에 대한 분석

박선우(세종대)

차 례

1. 이론적 배경
 2. 박선우(2008) 검토
 3. 문제제기
 4. 지각실험: 방법과 절차
 5. 지각실험:결과와 논의
 6. 결론
- 참고문헌

이론적 배경 (1)

■ 한국어의 위치동화

○ C V C₁ + C₂ V C (후행자음에 의한 선행자음의 역행동화)



○ 치경음(n, t) + 양순음(m, p, p', p'') → 양순음(m, p) + 양순음

① 폐쇄음: 옷보다 [숄쁘다] ~ [올쁘다] (cf. 오쁘다)

② 비음: 준비 [준비] ~ [준비]

○ 치경음(n, t) + 연구개음(k, k', k'') → 연구개음(g, k) + 연구개음

① 폐쇄음: 손가락 [숄까락] ~ [숙까락] (cf. 수까락)

② 비음: 모든 걸 [모든걸] ~ [모든걸]

○ 양순음(m, p) + 연구개음(k, k', k'') → 연구개음(g, k) + 연구개음

① 폐쇄음: 숭길 [숄길] ~ [숙길] (cf. 수길)

② 비음: 집꾼 [집꾼] ~ [정꾼]

3 / 36

이론적 배경 (2)

■ 언어보편적 비대칭성

○ 순행동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C₂, 음절말음만 동화를 겪는다.)

C V C₁ + C₂ V C (준비 [*준니], 집꾼 [*집뽕])



○ 동화주 C₂가 C₁보다 유표성이 강한 조음위치를 갖는 경우에만 동화된다.

조음위치적 유표성의 언어보편적 경향 (Prince and Smolensky 1993)

치경음 < 양순음 < 연구개음

동화 환경: 치경음+양순음, 치경음+연구개음, 양순음+연구개음

비동화 환경: 양순음+치경음, 연구개음+치경음, 연구개음+양순음

(예) 강물 [*강뽕], 강나무 [*강나무], 감나무 [*감나무]

○ 조음위치에 대한 음향적 정보가 뚜렷한 '마찰음, 음절말 개방이 동반된 폐쇄음'은 음절말음도 동화를 겪지 않는다. (이석재 1999)

4 / 36

이론적 배경 (3)

■ 위치동화의 원인

Browman and Goldstein(1990), Kang(강윤정, 1999)

○ 설정음의 설첨 제스처는 빠르다.

→ 음향적 전이 단서가 짧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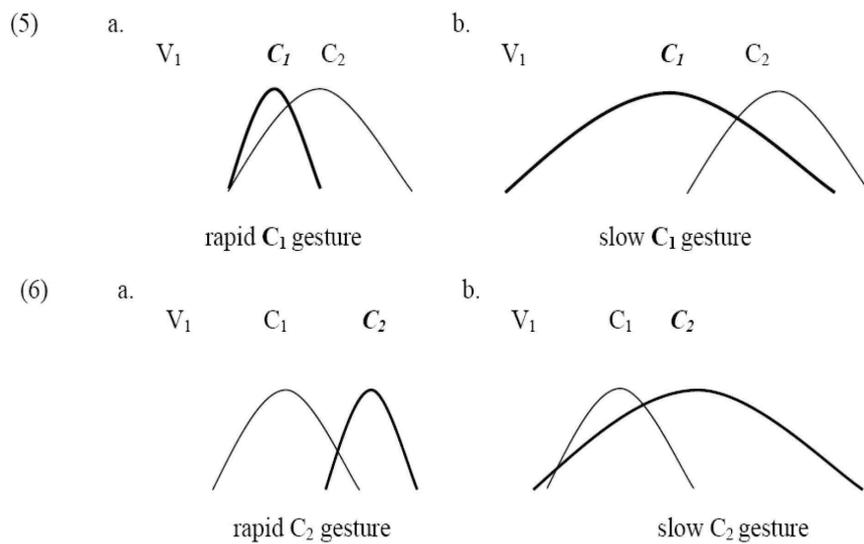
○ 연구개음의 혀뿌리 제스처와 양순음의 입술 제스처는 완만하다.

→ 음향적 전이 단서가 길다.

5 / 36

이론적 배경 (4)

■ 조음 제스처의 속도 비교 (전종호 2004: 63,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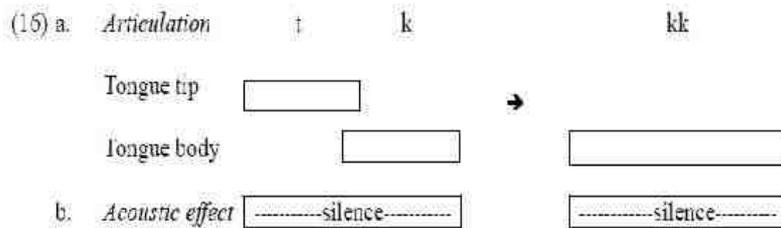
6 / 36

이론적 배경 (5)

■ 위치동화의 원인

- Browman and Goldstein(1990) : 조음 제스처의 중복
- Jun(전종호, 1995), Nolan(1992): 피동화주 조음 제스처의 약화
- Jun(전종호, 2004)
피동화주 조음위치 제스처의 약화 + 동화주 조음위치 제스처의 확장

■ 위치동화 분석: Jun(전종호, 2004:72)



7 / 36

박선우(2008) 산출실험 검토 (1)

■ 박선우(2008)에서 제기한 3가지 문제

- ① 위치동화는 음소의 변동이 일어나는 규칙적인 음운론적 현상인가?
인접 분절음의 영향을 받는 단순한 동시조음 현상인가?
- ② 동화주의 조음위치(양순-연구개)와 발성유형(평음-경음-유기음)
에 따라 동화의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 ③ 화자의 개인차에 따라 동화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8 / 36

박선우(2008) 산출실험 검토 (2)

■ 한국어 비음의 F1과 표준편차 (황연신 2002)

	F1	표준편차
m	239.900Hz	25.983
n	317.833Hz	76.238
ŋ	439.867Hz	93.8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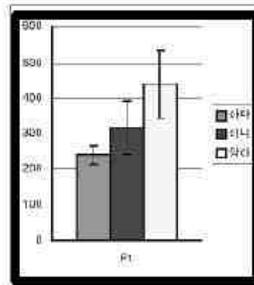


그림 30 세 비음의 F1 비교
(단위: H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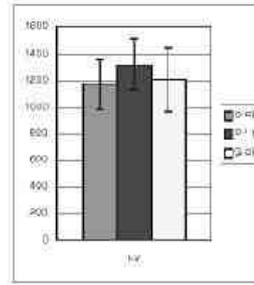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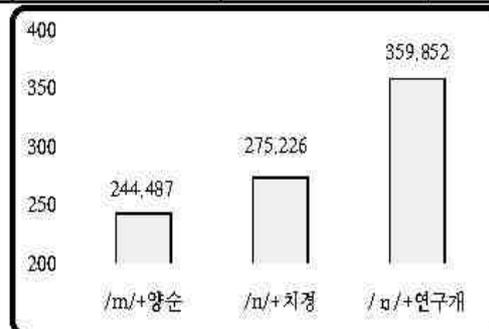
그림 31 세 비음의 F2 비교
(단위: Hz)

9 / 36

박선우(2008) 산출실험 검토 (3)

■ 비음의 조음위치별 F1 (동화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 박선우 2008: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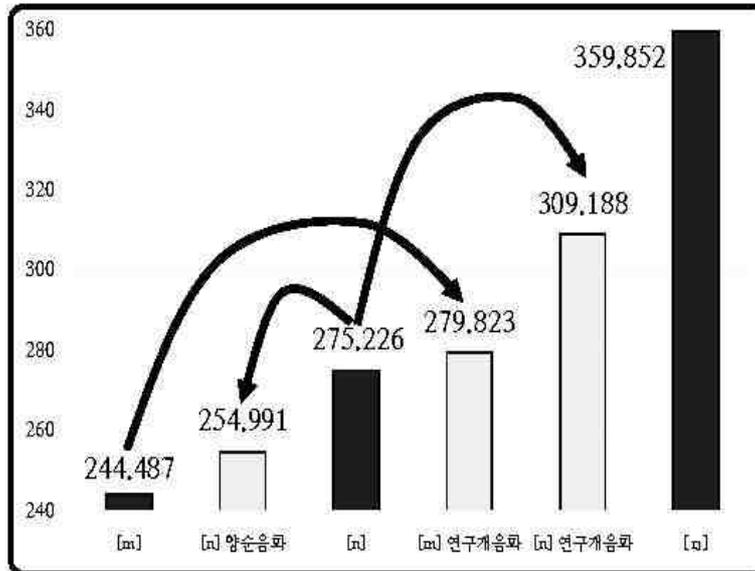
피험자	/m/ + 양순	/n/ + 치경	/ŋ/ + 연구개
SMK	245,792	258,668	349,777
LBW	260,924	293,751	419,179
KTH	242,562	273,517	325,622
KKT	226,860	261,077	379,434
LYJ	246,298	287,117	334,246
평균	244,487	275,226	359,852



10 / 36

박선우(2008) 산출실험 검토 (4)

■ 위치동화 환경에서의 F1의 변화 (박선우 2008: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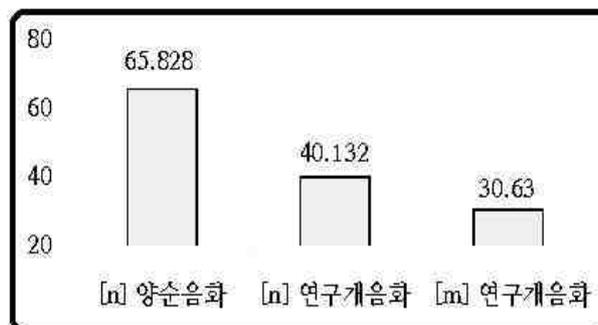
11 / 36

박선우(2008) 산출실험 검토 (5)

■ 백분율로 환산된 위치동화의 정도 (박선우 2008:56-57)

$$\frac{\Delta \{ F1(\text{비동화 환경}) - F1(\text{동화 환경}) \}}{\Delta \{ F1(\text{비동화 환경}) - F1(\text{비동화 환경}) \}} \times 100$$

※ (예) /n/의 양순음화 정도 = $\frac{F1(/n/) - F1(\text{양순음화 } /n/)}{F1(/n/) - F1(/m/)}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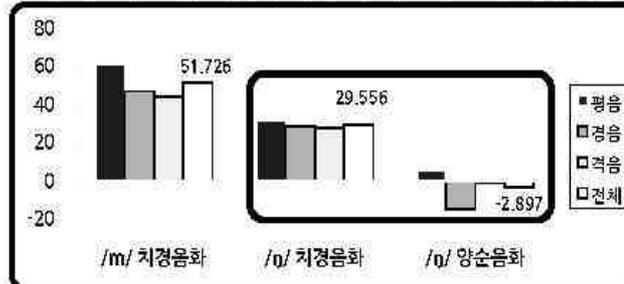


12 /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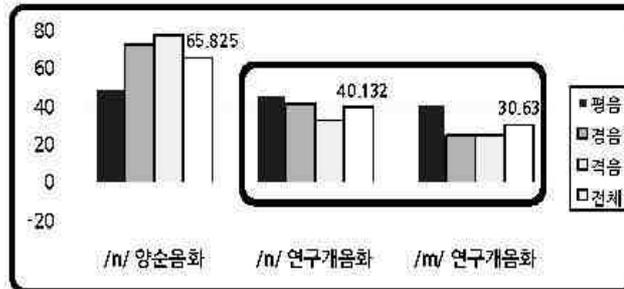
박선우(2008) 산출실험 검토 (6)

① 규칙적 음운현상 vs. 동시조음: 동화환경에서 동시조음보다 심한 변화

<비동화 환경>



<동화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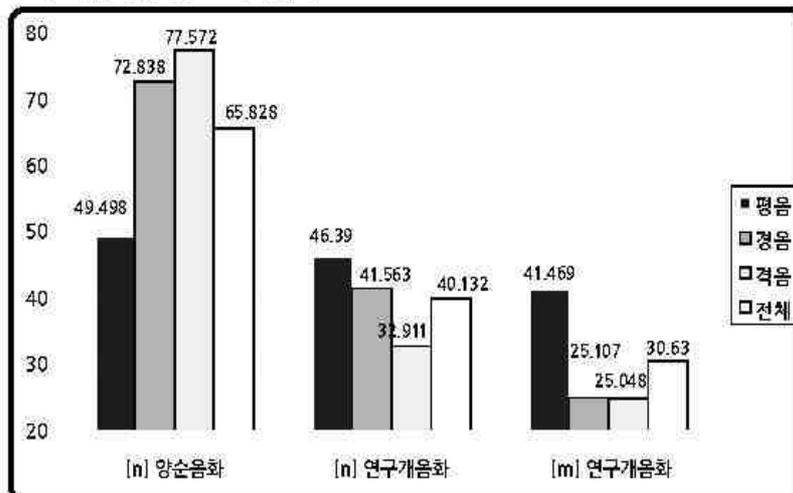


13 / 36

박선우(2008) 산출실험 검토 (7)

② 동화주의 조음위치와 발성유형에 따른 변화 (박선우 2008: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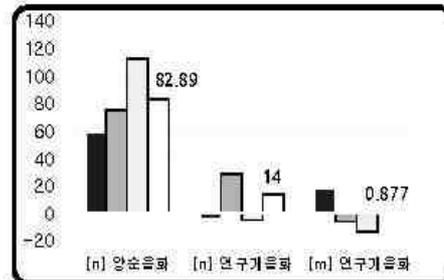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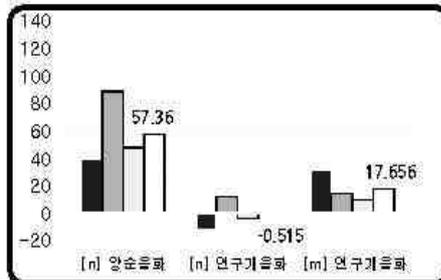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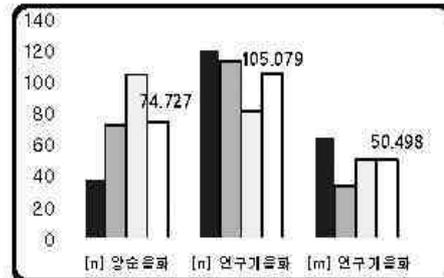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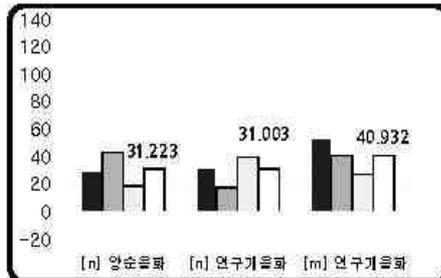
※ /n/ 양순음화가 가장 잘 일어나며 동화주의 발성에 따른 규칙적 동화유형은 발견되지 않음



14 / 36

박선우(2008) 산출실험 검토 (8)

③ 심한 개인차 (상: KTH-LBW, 하: KKT-LYJ)



15 / 36

문제 제기

- ① 피험자들은 비표준적인 현상인 위치동화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 ② 피동화주의 조음위치(치경-양순)와 동화주의 조음위치(양순-연구개)에 따라 동화의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 ③ 동화주의 발성유형(평음-경음-유기음)에 따라 동화의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 ④ 전반적인 경향과 개인별 경향에는 차이가 있는가?
- ⑤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는가?

16 / 36

지각실험: 방법 (1)

■ 자극

- 위치동화의 결과와 동일한 6가지 종류의 무의미 단어
- 박선우(2008)의 산출실험에서 녹음한 것으로서 C1과 C2의 조음위치가 동일한 틀문장을 낭독한 자료

/안바/ : ① [암바] /암가/, /안가/ : ④ [양가]

/안빠/ : ② [암빠] /암까/, /안까/ : ⑤ [양까]

/안파/ : ③ [암파] /암카/, /안카/ : ⑥ [양카]

- 틀문장: 이것을 ___라고 한다.

17 / 36

지각실험: 방법 (2)

■ 자극

- 피험자 1인당 2가지 녹음을 선택: 5명 × 6종류 × 2가지 = 60가지 자극
- 선택기준: 5가지 녹음 가운데 조음위치와 관련된 F1이 평균값에 가까운 녹음 선택 (평균보다 높은 녹음, 낮은 녹음 각각 하나씩 선택)

예) KTH (1인당 6가지 녹음)

F1 평균값	암바 (242,273)	양가 (332,030)	암빠 (246,336)
	암바6 247,149	양가5 332,664	암빠3 251,092
	암바2 240,490	양가2 331,051	암빠6 240,177
F1 평균값	양까 (322,704)	암파 (239,076)	양카 (322,131)
	양까5 323,100	암파1 240,945	양카1 324,919
	양까3 316,828	암파4 235,991	양카5 314,192

18 / 36

지각실험: 방법 (3)

■ 피험자

- 수도권 지역 20대 6명 (남 3명, 여 3명)
- 음성적 훈련을 받은 적이 없으며 발화나 청각 장애 병력이 없음

성별	연령	출생지	성장지	학력
남1	25	인천	인천	대학 재학
남2	27	서울	서울	대학원 재학
남3	27	경기(안양)	경기(안양)	대학 재학
여1	27	서울	경기(구리)	대학 졸업
여2	29	서울	서울	대학 재학
여3	27	경기(수원)	경기(일산)	대학 졸업

19 / 36

지각실험: 방법 (4)

■ 방법과 절차

- Cedrus사의 SuperLab Pro 2.0 프로그램 사용



- ① 모니터를 통하여 '동화가 일어나는 환경'의 단어를 제시의 문장 제시
- ② '동화가 일어난 단어'가 포함된 틀문장 음성파일 2번 반복 재생
- ③ 4등급 기준으로 적합도 판정

- | | |
|-------------|------------------|
| 1점 : 나쁜 발음 | 2점 : 자연스럽게 않은 발음 |
| 3점 : 괜찮은 발음 | 4점 : 좋은 발음 |

20 / 36

지각실험: 방법 (5)

■ 방법과 절차

- 화면과 달리 음성파일은 완전한 동화가 일어난 발음 제시
- 화면

이것을 (안가)라고 한다.

- 1점: 나쁜 발음
- 2점: 자연스럽게 않은 발음
- 3점: 괜찮은 발음
- 4점: 좋은 발음

- 발음

“이것을 [양가]라고 한다.”

21 / 30

지각실험: 방법 (6)

■ 방법과 절차

- 동화가 일어나는 9가지 환경에 대한 적합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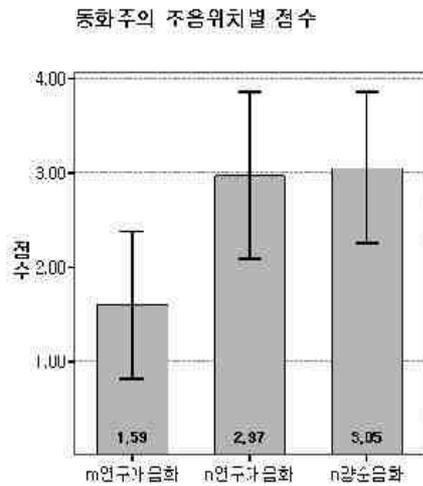
n양순음화	n연구개음화	m연구개음화
화면 - 음성	화면 - 음성	화면 - 음성
/안바/-[암바]	/안가/-[양가]	/암가/-[양가]
/안빠/-[암빠]	/안까/-[양까]	/암까/-[양까]
/안파/-[암파]	/안카/-[양카]	/암카/-[양카]

- 9가지 환경 × 5명의 녹음 = 45번 판정 (1세트)
- 피험자 1인당 2세트 실험 (1인당 90번 판정, 6명 총 540번 판정)
 - 1세트: F1값이 평균보다 낮은 자극
 - 2세트: F1값이 평균보다 높은 자극
- 실험결과는 SPSS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

22 / 30

지각실험: 결과 (1)

■ 동화유형에 따른 결과 (암가-안가-안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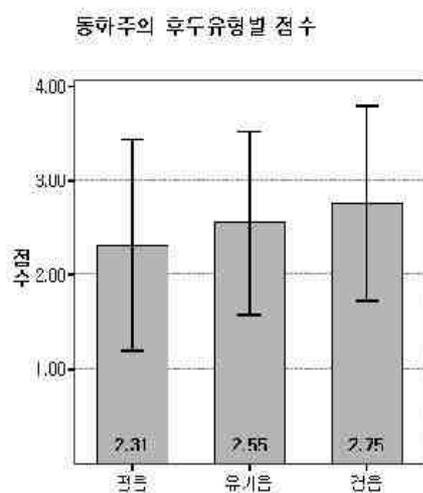


- 'n연구음화'와 'n양순음화'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2.5)
- 'm연구음화'는 부정적 현상으로 인식 ($2.5 > 1.59$)
- 평균점수에 대한 통계적 분석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m연구음화'의 점수는 나머지 두 동화유형과 다른 것으로 분석됨.

23 / 36

지각실험: 결과 (2)

■ 동화주의 후두자질 유형에 따른 결과 (안가-안카-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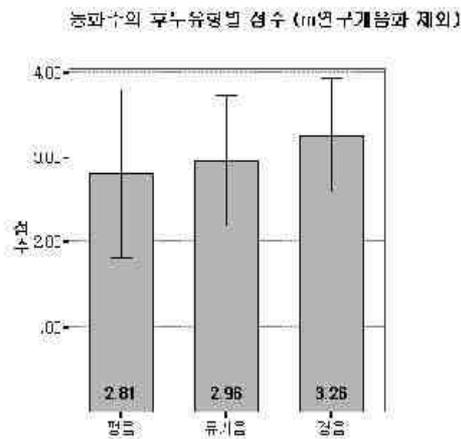


- 점수 차이가 크지 않지만 '평음-유기음-경음'의 순서로 점수가 높음
- 평균점수에 대한 통계적 분석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동화주의 후두유형상 평음과 유기음 사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24 / 36

지각실험: 결과 (3)

■ 동화주의 후두자질 유형에 따른 결과 (n연구개음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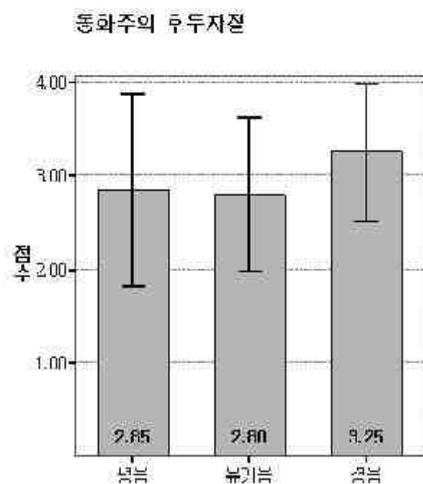


- '평음-유기음-경음'의 순서로 점수가 높음
- 평균점수에 대한 통계적 분석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동화주가 경음인 경우는 나머지 두 가지 유형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25 / 30

지각실험: 결과 (4)

■ n연구개음화 : 동화주의 후두자질 유형 (안가-안카-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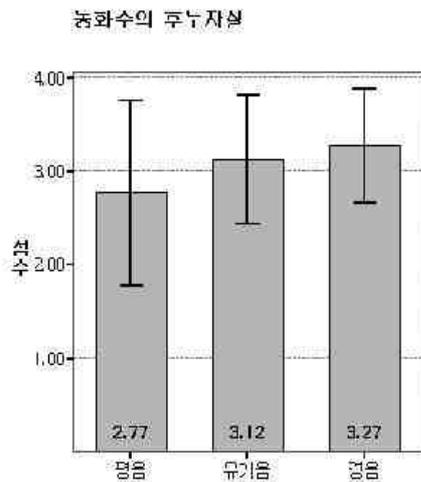


- '유기음-평음-경음'의 순서로 점수가 높으나 '유기음-평음' 사이의 차이는 미미한 편
- 평균점수에 대한 통계적 분석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동화주가 경음인 경우는 나머지 두 가지 유형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26 / 30

지각실험: 결과 (5)

■ n양순음화 : 동화주의 후두자질 유형 (안마-안파-안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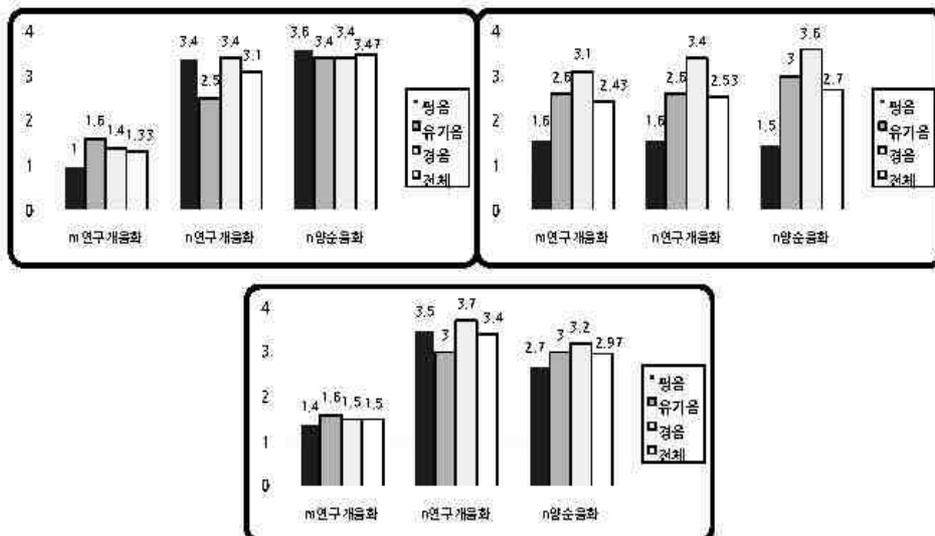


- '평음-유기음-경음'의 순서로 점수가 높음
- 평균점수에 대한 통계적 분석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동화주가 평음인 경우는 나머지 두 가지 유형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27 / 36

지각실험: 결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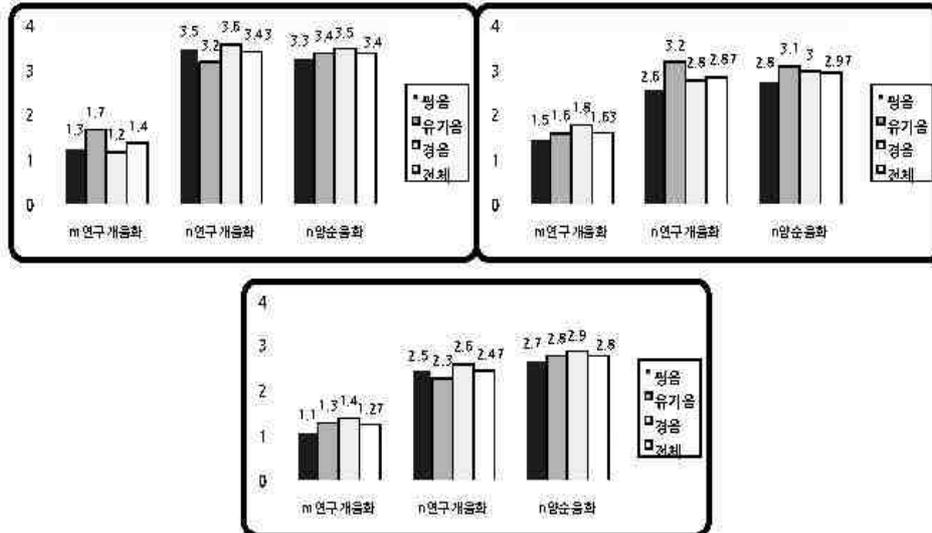
■ 개인별 경향: 남1(左), 남2(右), 남3(下)



28 / 36

지각실험: 결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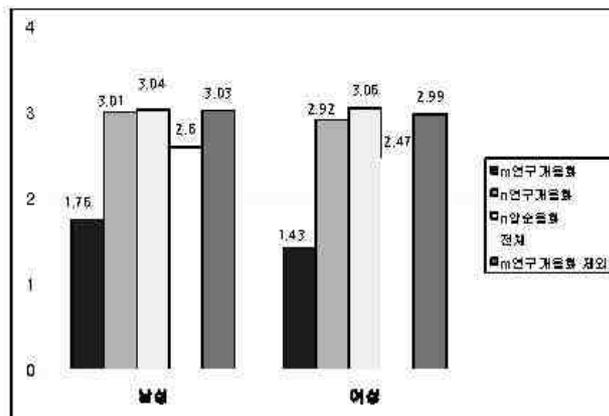
■ 개인별 경향: 여1(左), 여2(右), 여3(下)



29 / 36

지각실험: 결과 (8)

■ 남녀 성별 경향



- 대체로 유사한 경향,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음.
-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남녀의 '전체 평균'과 'm연구개음화를 제외한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로 볼 수 없음 (유의수준 .05 기준)

30 / 36

지각실험: 논의 (1)

■ 조음위치별 위치동화에 대한 평가

- 'm연구음화'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1.59 < 2.5$)
- 'n연구음화, n양순음화'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2.97, 3.05 > 2.5$)
- ☞ 유표성 위계에 대한 재검토
 - (i) 연구개 > 양순음 > 치경음 → (ii) 연구개, 양순음 > 치경음
- 언어보편적으로 (ii)의 유형이 일반적이며 연구개음과 양순음의 위계가 정해지는 (i)의 유형은 한국어가 유일 (전종호 2004:68)

31 / 36

지각실험: 논의 (2)

■ 동화주의 발성유형별 위치동화에 대한 평가

- 동화주가 경음인 경우 점수가 높은 편
- 평가점수가 낮은 'm연구개음화'를 제외한다면 동화주가 경음인 경우의 점수차가 더 높게 나타남.
- ☞ 위치동화의 원인에 대한 논의
 - '조음 제스처의 중복'보다 '조음 제스처의 약화'에 부합되는 결과

32 / 30

지각실험: 논의 (3)

■ 폐쇄음의 폐쇄구간과 VOT 길이 (최성일·전종호 1998: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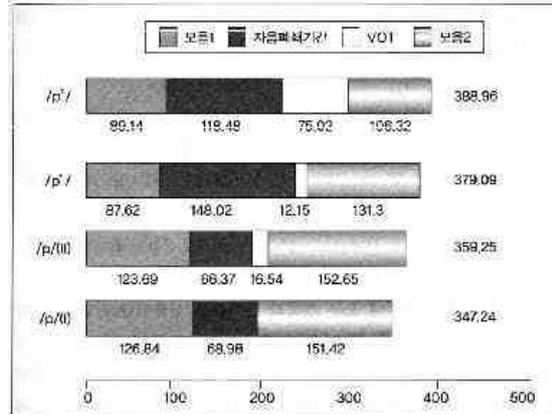


그림 8.3 모음1, 자음폐쇄기간과 VOT와 모음2의 길이

- ☞ 조음 제스처의 중복에 의해 위치동화가 일어난다면 평음이 유기음 나 경음보다 위치동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33 / 36

지각실험: 논의 (4)

■ 전반적인 경향과 개인별 경향

-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나 'n연구개음화'와 'n양순음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 산출실험(박선우 2008)과 비교하여 일관성이 관찰된다.

- ☞ 실험 결과의 신뢰도를 반영

■ 남녀 성별의 차이

- 매우 유사한 경향
- 위치동화는 남녀 성별과 무관한 음운현상

34 / 36

결론: 산출 실험 vs. 지각 실험

<산출 실험>

- 동화의 정도
 - ① /n/ 양순음화
 - ② /n/ 연구개음화
 - ③ /m/ 연구개음화
- 동화주의 발성유형별 차이 관찰되지 않음
- 동화의 정도에 대한 개인차 심한 정도로 관찰됨
- ☞ 위치동화의 성격
개인차가 심하며 불규칙적으로 적용되는 음운현상

<지각 실험>

- 동화의 적합도 평가 결과
 - ① /n/ 연구개음화, /n/ 양순음화
 - ② /m/ 연구개음화
- 동화주의 발성유형별 평가 결과 경음 > 평음, 유기음
- 동화의 정도에 대한 개인차 전반적으로 유사한 유형이 관찰됨
- ☞ 위치동화의 성격
개인차가 있지만 일관된 경향이 관찰되는 음운현상
(조음위치의 언어보편적 유표성)

35 / 36

참고 문헌

- 박선우. 2008. "한국어 위치동화의 실험음성학적 분석." [언어연구] 25-2, 경희대언어연구소, 45-65.
- 이석채. 1999. "계약 SHARE CONDITION: 자음의 조음간격과 위치동화 양상의 상관성." [어학연구] 35-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489-518.
- 최성원·전종호. 1998. "한국어 경음·기음은 중복자음인가." [어학연구] 34-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521-546.
- 황연신. 2002. [한국어 비음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rowman, Catherine P. and Louis M. Goldstein. 1990. Tiers in articulatory phonology, with some implications for casual speech. In John Kingston and Mary E. Beckman (eds.), *Papers in laboratory phonology I: Between the grammar and physics of spee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41-76.
- Jun, Jongho. 1995. Perceptual and Articulatory Factors in Place Assimilation: An Optimality Theoretic Approach. Ph.D. dissertation, UCLA.
- Jun, Jongho. 2004. Place assimilation. In B. Hayes, R. Kirchner and D. Steriade (eds.) *Phonetically Based Phon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58-86.
- Jun, Jongho. 2007. Stem-final variation in Korean verbal paradigm.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언어) 32-2, 265-292.
- Kang, Yoonjung. 1999. The phonetic basis of coronal phonotactics. *WCCFL* 18: 232-45.
- Nolan, F. 1992. The descriptive role of segments: Evidence from assimilation. In G. J. Docherty and D. R. Ladd (eds.) *Papers in laboratory phonology II: Gesture, segment, prosod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61-80.
- Prince, Alan and Paul Smolensky. 1993. *Optimality Theory: Constraint Interaction in Generative Grammar*. Ms. Rutgers University.

36 / 36

한국어 위치동화 현상의 지각에 대한 분석

안병섭(고려대)

본 발표문은 한국어 위치동화 현상의 지각적 경향을 분석하여 위치동화 현상에 대한 음성학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시도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는 한국어 위치동화 현상의 조음 과정상의 경향을 살펴본 박선우(한국어 위치동화의 실험음성학적 분석, 2008) 후속 작업으로서, 한국어 위치동화 현상에 대한 조음과 지각 과정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위치동화에 대한 그동안의 관심이 대부분 음운론적 접근이었다면 이 연구는 음성학적 기반으로 위치동화 현상의 특성을 정밀하게 규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다루기 쉽지 않은 세부적인 주제를 선정했음에도 탄탄한 이론적 배경과 치밀한 지각 실험 방법을 이용해 논지를 입증하는 과정은 탁월해 보입니다. 다만 이 연구가 예비 실험(pilot test)이므로 향후 진행할 작업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와 실험 방법 및 해석 과정에서 생긴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연구자가 제1포먼트를 비음 측정의 방법으로 이용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포먼트 측정 방법은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지만 실험 결과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측정 값이 주요 근거로 제시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발표문을 보면, 본 연구의 측정 방법은 황연신(2002)와 박선우(2008)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측정 방법은 제1포먼트가 제2, 제3 포먼트들에 비해 보다 분명하여 실험자가 측정하기 용이하다는 점, 낮은 표준편차를 보여 그 수치가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1포먼트 측정으로도 비음들의 특징을 밝힐 수 있겠지만 연구 대상이 위치 동화인 만큼 제2포먼트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비음 측정은 일반적으로 제2포먼트를 이용합니다. 특히 위치 동화가 조음 위치의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말소리 현상인 점을 염두에 두면 구강의 개구도를 반영하는 제1포먼트보다 구강의 크기(길이)를 반영하는 제2포먼트를 측정하는 것이 더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제1포먼트 값의 표준편차가 낮은 반면에 변이의 폭이 좁습니다. 따라서 변화의 정도를 더욱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포먼트 변이의 폭이 상대적으로 큰 제2포먼트를 측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조음 제스처의 약화라는 개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조음 제스처가 약화되었다는 것은 조음 방법을 대상으로 하면 그르지 않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유기성의 약화, 비음성의 약화 등을 보면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동화에 의해 조음 위치가 변화된 것을 조음 제스처의 약화로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논리로, 어휘화가 완료되기 이전에 ‘형님’이 ‘성님’이 되는 경우와 ‘길’이 ‘질’이 되는 경우, ‘ㅎ’과 ‘ㄱ’이 각각 활음 ‘j’와 모음 ‘i’에 영향을 받아 조음 위치가 변화하였으므로 이 또한 조음 제스처의 약화로 설명할 수 있겠지요. 조음 제스처의 약화에 대해 발표자가 이해하고 있는 음성학적, 음운론적 견해를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지각실험: 결과 (2)와 (4)는 동일 환경(안가-안카-안까)인데 그 결과에 대한 기술이 다릅니다.

결과 (2)에서는 ‘평음-유기음-경음’의 순서로, 결과 (5)에서는 ‘유기음-평음-경음’ 순서로 점수가 높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결과 (2)와 (4)가 어떤 실험 변인에 대한 기술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어교육에서 ‘통합’에 대한 관점

신호철(고려대)

차 례

1. 머리말
 2. 사상으로서의 관점
 3. 방법으로서의 관점
 4. 원리로서의 관점
 5. 활동으로서의 관점
 6. 맺음말
- 참고문헌

1. 머리말

국어교육 내에서 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이다. 당시 국어교육의 목표를 국어 사용 능력 신장으로 설정하여 국어교육 내의 각 영역들이 국어 사용 능력 신장을 위해 일조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와 동궤(同軌)의 차원에서, 문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급기야 문법 교육의 정체성 문제까지 제기되어 문법 교육에 위기가 닥친 이해 못할 상황도 벌어졌었다. 현재는 국어교육의 목표를 이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통합의 개념을 국어교육에 적용시켜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강조되고 있다. 즉 국어과 내의 한 영역과 타 영역과의 통합이나 영역 내의 내용 요소들 사이의 통합을 주장하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논의들이 제기되었다.

2009년 12월 또 한 번의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변혁의 물결을 맞이하면서 통합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의 의지가 다시금 급부상되었다. 그 이유는 주지하다시피 2009 개정 고교 선택과목 교육과정에서 국어과 선택과목을 <문학>, <독서·문법 1, 2>, <작문·화법 1, 2> 등으로 통합·축소하였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국어교육에서 통합은 하나의 화두(話頭)였는데, 현재의 통합은 국어교육 내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국어교육 연구자들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그 성격이 바뀌었다. 더 이상 화두로서만 두고 고민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 국어교육 연구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통합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해 보았을 것이다. 그러한 연유에서인지 통합의 개념은 연구자마다 각양각색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는 통합에 대한 논의가 각기 다른 지점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학문 공동체의 결과물들이 혼합되어 국어교육에 도입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는 통합이라는 것이 원래가 복잡·다난(多難)하여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미지(未知)의 개념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본 연구자는 마지막의 이유가 통합의 개념을 파악하기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

닌가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민했던 많은 결과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막연한 길을 걸을 수는 없을 것이다.

본 발표문에서는 물론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통합의 문제에 대해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본 연구자의 능력 부족에 있기도 하고 당장에 어떠한 사고 변화의 패러다임이 나타나지 않는 한 통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점을 모색하기란 지난(至難)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발표문을 통하여 현재까지 문법 교육에서 통합에 대한 논의의 흐름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렇게 잠시 쉬어가면서 정리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통합의 본질 밝히기에 대한 과열된 학구열을 식히며 객관적인 시각을 되찾는 자성(自省)의 시간이 되리라 기대한다.

발표문에서는 국어교육에서 통합적 교육의 관점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정리하면서 이를 문법 교육의 입장에서 논의하면서 현재 그 통합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하여 기술한다. 이를 통하여 국어교육에서 통합적 방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현재 통합적 문법 교육의 방법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에 대하여 일각(一覺)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장에서는 문법 교육에서 통합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한다. 통합의 다양한 개념들을 정리하는 가운데 통합의 본유적인 개념 속으로의 접근을 통하여 사상(思想), 방법(方法), 원리(原理), 활동(活動)으로서의 통합에 대한 관점이 존재함을 제시하고, 먼저 사상으로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통합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는 통합의 개념적 출발점이 철학적 사조나 학문적 이론의 사상적 기조로부터 출발하였다는 논의이다.

제3장에서는 ‘방법’이라는 메타적 술어로 정리될 수 있는 통합의 개념에 대하여 논의한다. 여기서의 ‘방법’은 ‘교수법(teaching method)’으로서의 ‘방법’과 통합을 ‘어떻게(How)’ 할 것인가에서 ‘방법(manner)’으로서의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두 가지 방법론적인 관점의 통합에 대하여 고찰한다. 언어 교육에서의 다양한 통합적 교수법들을 민현식(2010)에 따라 소개하면서 통합을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문법 교육에서 통합의 현실적 접근 방법은 영역 간의 통합과 내용 요소 간의 통합이 주된 논의의 대상임을 논의한다.

제4장에서는 통합을 일종의 원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하여 논의한다. 즉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직하는 원리로서 통합을 바라보는 논의이다. Tyler(1949)에서 출발한 통합성의 원리를 통하여 국어과 교육과정에 구조화되고 있는 원리로서의 통합의 양상들을 도출하여 분석해 본다.

제5장에서는 통합을 활동의 관점에서 바라본 시각에 대하여 논의한다. 여기에서는 허재영(2010)의 논의에서 통합의 개념을 ‘활동’으로 분석하여 이를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면서 활동으로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통합의 개념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리고 주로 교과서에 실려 있는 수업 활동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수업 활동에 대하여 통합의 구현 또는 실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과정 중심, 활동 중심의 교과서에 대한 교과서 제작의 지향점들을 중심으로 통합을 활동이라는 차원에서 논의한다.

2. 사상으로서의 관점

어떤 어휘이든지 그에 대한 본유적 개념은 한 가지로부터 출발한다.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어떤 어휘가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의 출발점은 그 어휘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의 의미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통합의 본유적 개

념도 이와 동일하다. 우선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고 ‘통합’의 본유적 개념을 파악해 보자.

- (1) 『표준국어대사전』의 ‘통합(統合)’에 대한 뜻풀이 기술 내용
가.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하나로 합침.
나. 『교육』 아동 및 학생의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학습을 종합하고 통일함. 또는 그런 일.
다. 『심리』 여러 요소들이 조직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룸. 또는 그런 일.
라. 『언어』 언어 요소가 발화될 때, 일정한 순서로 배열됨. 또는 그런 일. ‘아주 좋은 사람’에서 세 단어는 일정한 순서로 배열되는 통합 관계에 있다.

(1)에서 ‘통합’의 의미는 네 가지로 정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본유적 개념은 ‘둘 이상의 대상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이러한 본유적 개념에서 점차 전문 용어로 파생되어 나오면서 그 개념의 폭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개념의 폭과 깊이는 확대되었지만 그 본유적 개념의 속성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변치 않는 본유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통합’이 문법 교육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연구자의 관점에 따른 차이나 연구 방법론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는 관찰자의 눈에서 비롯되어 동일한 통합의 개념이 각기 다른 양상으로 보이거나, 동일한 것을 다른 연구의 틀로 접근하다 보니 각기 다른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각기 다양하게 펼쳐지는 통합의 개념에 대하여 국어교육에서는 어떠한 관점들로 바라보는지를 정리해 본다.

우선 국어교육에서 통합을 바라보는 관점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즉, 사상으로서의 관점, 방법으로서의 관점, 원리로서의 관점, 활동으로서의 관점이다.¹⁾ 이러한 통합에 대한 네 가지 관점들을 장을 달리하여 논의한다.

먼저 통합을 철학적 사상이나 학문적 이론의 토대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주세형(2005:34)에 따르면 통합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려는 시도들은 ‘통합 언어학(integrational linguistics)’과 ‘총체 언어 교육(whole language education)’²⁾이라는 두 가지 이론적 출발점에서부터 갈라진다고 한다. 하나는 언어학적 관점에서 ‘통합(integration)’ 개념으로서의 출발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전체(whole)’ 개념으로서의 출발이다. 양자의 출발점은 이전의 개념인 ‘분절’이나 ‘부분’으로서는 언어에 대한 설명적 한계나 언어 교육에 대한 실행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즉 언어와 언어 교육에 대한 설명과 이해는 더 이상 분석만으로는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는 한계점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공통된 출발점에 의지하여 ‘통합’의 사상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국어교육에서는 이재승(1992)에서 전체 언어에 대한 소개와 국어교육학적 시사점에 대한 연구를 기점으로 시작한다. 이재승(1992:74)에서는 ‘언어의 전체(의미)’를 강조하고 언어 기능의 통합적인 지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통합 언어(whole language)”라는 용어

1) 신호철(2010:71~82)에서는 통합의 특성에 따라 ‘사상으로서의 통합’, ‘방법으로서의 통합’, ‘원리로서의 통합’으로 구분하였다. 발표문에서는 이를 적용하여 국어교육에서 바라보는 통합의 다양한 관점에 대하여 논한다.
2) ‘whole language’에 대한 번역 술어로 ‘통합 언어’, ‘총체적 언어’, ‘전체 언어’라는 술어 등이 사용된다. 발표문에서는 신호철(2010:72)의 논거에 따라 ‘전체 언어’란 용어를 사용한다. 즉, ‘통합’이라는 용어는 ‘integration’으로서의 ‘통합’과 구별이 안 되고, ‘whole’을 ‘총체적’이라 하였을 때 ‘part’에 대당되는 적절한 대응어가 없다. ‘whole-part’는 ‘전체-부분’이라는 용어와 개념으로 대립을 이루는데 반해서, ‘총체적-?’과 같이 적절한 대립어가 없기 때문이다.

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는 몇 가지 전체 언어의 현상을 기술하면서 전체 언어의 개념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다.

(2) 통합 언어는 언어와 학습, 학습자에 대한 하나의 관점과 일련의 신념을 바탕으로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상황에서 구어와 문어가 통합되어 이루어지는 자연적인 언어 교육을 의미한다.(이재승, 1992:83)

이것은 언어 학습자가 실제 언어생활 즉 맥락 속에서 구어와 문어의 구별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언어 교육이라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 속에서 '통합 언어'는 언어 사용 기능(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의 통합적 지도의 필요성과 국어 교과외의 타 교과에 대한 도구적 인식, 언어 교육은 실제 언어활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그러면서 전체는 부분의 단순 총합 그 이상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구분해 놓은 철자, 단어, 음절, 문장 등의 지도 자체를 삼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전체 언어 운동은 현재 분절화 되어 있는 언어 교육의 모습을 언어 본연의 모습으로 복귀하여 실제 언어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언어 교육을 지향하자는 사상적 밑바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적 바탕을 두고 있는 전체 언어 운동에서 문법이나 문학 영역을 배제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전체 언어 운동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근본적인 사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전체'로서의 언어로 돌아가서 실제 언어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언어 교육을 수행한다는 의미는 곧 언어 사용 기능의 강화로 연결되어 문법이나 문학 영역의 소외나 배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엄연하게 세 개의 대영역이 국어교육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영역을 배제한다는 것은 전체 언어의 기본적인 사상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법 교육의 입장에서 전체 언어 운동의 통합은 엄밀하게 분열과 단절의 의미를 가지는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방법으로서의 관점

두 번째 통합에 대한 관점은 방법으로서의 관점이다. 여기서 '방법'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교수법(teaching method)의 개념으로서의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How)'로서의 '방법'이다. 발표문에서는 교수법의 관점으로서의 통합과 '어떻게(How)'의 관점으로서의 통합을 모두 취하여 논의한다.³⁾

통합을 일종의 교수법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민현식(2008, 2010)의 논의가 있다. 물론 이 논의는 통합 교육으로서의 교수법으로 '총체적 언어 교수법', '내용 중심 교수법', '문법 강화 의사소통 중심 교육'을 요약적으로 소개·설명하고 있다. '총체적 언어 교수법(whole language teaching)'⁴⁾은 아동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 기초 능력 함양을 위해 음운과 표

3) 단,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서의 '방법'의 관점으로 취하지 않는다. 이는 '어떻게(How)'로서의 '방법'으로 보이지만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대법주로서 다른 대법주인 성격, 목표, 내용, 평가 등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며 그 속에서 추구하는 목표점으로 기능하는 것이기에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하나의 원리로 간주하고 다음 절에서 논의한다.

4) 앞 절에서 '전체 언어(whole language)'를 '사상'으로 통합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전체 언어 운동이라는 교육적 흐름의 근거에 흐르는 사조로서의 '전체 언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교수법으로서의 '전체 언어 교육'과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동일 현상을 두고 관점에 따라 '사상', '교수법' 등으로 해석이 충분히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곧 통합 개념의 혼란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례라 할 수 있다.

기의 대응 관계를 이해시켜 독서의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고자 고안된 파닉스(phonics) 학습법에 대한 반작용으로 통합적 언어 교수 학습의 선구적인 방법으로 대두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민현식, 2008:263~264). 문법을 요소별로 단계적으로 학습하는 전통적인 문법 교육의 방법으로는 언어 학습이 용이하지 못하고(Goodman:1986), 이야기책이나 읽을거리의 전체를 파악하는 훈련에 중점을 두어 학습하는 것이 언어 학습에 용이하다는 것이다. 즉 ‘총체적 언어 교수법’에서는 모든 언어 기능이 통합적으로 상호의존적으로 습득된다고 보는 것이다.

통합적 교수법으로 ‘내용 중심 교수법’은 ‘내용 중심 교육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네 개의 기능(skill)을 습득하는 것이 언어 학습에서 중요한 수단이라는 하지만 이것에 언어 학습의 목표를 두지 않고 학문 내용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Brown(2007:283~294)의 ‘기능 통합 모형(Model of Skills Integration)’이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교수 모형은 다음과 같다.

(3) 기능 통합 모형(Brown:2007)

- 가. 내용 기반 지도법(Content-Based Instruction)
- 나. 과제 기반 언어 교수법(Task-Based Language Teaching)
- 다. 주제 기반 지도법(Theme-Based Instruction)
- 라. 경험 학습법(Experiential Learning)
- 마. 에피소드 가설(The Episode Hypothesis)

이러한 내용 중심 교수법은 그 활동 속에서도 문법 요소들을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관련되는 문법 요소들을 각각 통합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한다(민현식, 2008:266).

통합 교수법으로서 ‘문법 강화 의사소통 중심 교육’은 의사소통 중심 교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등장한다. 즉 의사소통적 유창성뿐 아니라 문법적 정확성을 함께 학습해야지만 고급 수준의 학문 목적 언어 능력을 습득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의사소통 중심 교육의 장점을 취하면서 문법 교육도 함께 학습하여 언어 교육을 강화하자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법 형식에 초점을 맞추어 언어 학습을 수행하는데 이를 ‘형식 중심(focus on form) 문법 교수법’이라 한다. 민현식(2008:269~270)에서는 형식 중심 문법 교수법으로 11가지의 다양한 교수법을 소개하고 있다.⁵⁾

두 번째 통합에 대한 ‘방법’의 관점은 통합을 교육에 적용할 때 ‘어떻게(How)’ 할 것이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다. 즉 교육 내용 요소 간에 통합을 하는 방법, 교과 영역 간에 통합하는 방법 등 다양한 통합의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통합을 ‘방법’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논의 중 하나가 주세형(2005)이다. 이 논의에서는 통합의 개념 설정에 대한 어려움을 기술하면서 통합과 관련된 언어학적 통합의 논의와 언어교육학적 ‘총체적 언어’ 관점의 논의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통합의 개념에 접근하였다.

5) “입력 포화(input flood), 과제 수행 필수 언어(task-essential language), 입력 강화(input enhancement), 의미 협상(negotiation), 오류 교정용 대체 표현 제시(recast), 출력 강화(output enhancement), 상호작용을 통한 강화(interaction enhancement), 창의적 받아쓰기(dictogloss), 의식 고양(conscious raising), 입력 처리(input processing), 가든 패스(garden path)” 등의 11가지 교수법을 소개하고 있다.

(4)가. ‘통합’의 개념

-실제 모어 화자가 언어를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나. 문법 교육에서 ‘통합’의 성격

-적절한 수준에서의 ‘분절-통합의 균형’을 의미한다.

(4)는 주세형(2005:36)에서 정리한 ‘통합’의 개념과 성격인데, 이 개념을 살펴보면, 앞에서 이재승(1992)에서 설정하고 있는 ‘전체 언어’로서의 전체성의 개념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이재승(1992)에서는 ‘전체 언어’를 방법이나 기술이 아닌 철학이나 학문적 이론의 ‘사상’적 관점으로 설정한 반면에, 주세형(2005)에서는 ‘통합’을 언어 수행의 ‘방식’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문법 교육의 위기라는 시대적 흐름과 맞물린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전체로서의 언어를 지향하면서 실제 언어생활에서 자연스러운 언어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언어 사용 기능의 통합적 수행을 강조한 반면에, 분절적인 문법 요소들에 대한 교육은 실제 언어생활과의 거리만을 증폭시킨다는 이유로 지양하게 되었다. 이에 국어교육 내에서 그 정체성을 의심받아 배제적인 영역으로 전락될 수 있었던 문법 영역을 ‘통합’이라는 방법론으로 실제 언어생활과의 통합을 모색한 것이다.

또한 하나의 ‘언어 수행 방식’ 개념으로서의 ‘통합’은 전체와 부분의 적절한 조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통합의 전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절적인 문법 요소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이들이 통합되어 전체를 이룰 수 있고, 이들이 다시 언어 수행의 기본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전체 언어’에서 분절에 대한 배타성을 질책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체 언어’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통합이 적용되는 양상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기술하고 있다.

(5) 통합의 양상

가. 통합이란 문법 지식과 국어 사용 능력 신장의 통합을 의미한다.

나. ‘부문별’, ‘단위별’로 제시되었던 문법 지식들이 통합 양상을 보인다.

다. 문법 지식과 타 영역의 통합을 의미한다.

(5)는 주세형(2005:36)에서 통합의 양상들을 정리한 것이다. 문법 교육에서 통합은 목표, 내용, 영역 간의 통합으로 요약할 수 있다. (5가)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문법 지식’이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인 ‘국어 사용 능력 신장’과 통합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목표의 통합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5나)에서는 문법 지식 내용들 간의 통합을 이루고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내용 요소 간의 통합으로 볼 수 있다. 내용 요소 간의 통합은 학교 문법에서 분절되어 있는 언어 단위별 지식들이 실제 언어 수행 방식에 따라 통합의 양상을 띠는 것이다. 그리고 (5다)는 문자 그대로 문법 영역과 타 영역과의 통합을 나타내는 것으로 영역간의 통합을 의미한다. 영역 간의 통합은 주세형(2005:37)에서도 “통합은 궁극적으로 영역 통합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그의 궁극적인 통합의 방법은 문법 영역과 기능 영역 간의 통합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 다른 방법의 관점에서 통합을 바라보는 논의가 있다. 바로 이삼형(2000)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도킹’의 통합과 ‘랑데부’의 통합이라는 비유적 술어를 사용하면서 통합의 방법에 대하여 원론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이삼형(2000)에서는 우선적으로 영역 통합에 대한 반성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다. 즉 통합 자체의 타당성이나 통합의 방식에 대해서 재고해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통합의 형식은 우주 공간에서 서로 아무런 관계없는 상태에

있는 두 우주선이 만나는 것과 같은 ‘량데부’ 형식의 통합이 아닌, 두 개의 우주선이 도킹을 하여 별개의 우주선으로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우주선인 것처럼 유영을 하는 ‘도킹’ 형식의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곧 통합의 최종 목표는 ‘량데부’가 아니라 ‘도킹’이라는 것이다. 문학 영역과 말하기 영역의 도킹은 문학 교육을 위해 말하기라는 양식을 채용하거나 말하기 교육을 위해 문학 텍스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 교육의 과정 자체가 말하기, 나아가 대화의 과정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이삼형, 2000:114).

이러한 방법론적인 관점은 전체 언어적인 관점에서의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두 대상이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 통합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도킹’ 형식의 통합은 ‘전체 언어’가 지향하는 최종 목적과 일치한다. 곧 이삼형(2000)의 통합 논의의 기저는 ‘전체 언어’의 사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세형(2005)의 통합 논의의 기저와 이삼형(2000)의 통합 논의의 기저는 서로 다른 기반 위에서 다른 방향으로 출발한 논의라 할 수 있다. 즉, 이삼형(2000)의 통합 논의는 ‘전체 언어’적 관점에서 각 영역의 독자성보다는 전체로서의 국어를 지향하는 것인데 반하여, 주세형(2005)의 통합 논의는 음운, 형태, 단어, 문장, 담화, 의미 등 각 문법 단위들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영역 간의 통합을 지향하는 논의이다.

통합을 방법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논의로 이관규(2009)를 들 수 있다. 이관규(2009)에서는 문법 교육의 교수 학습 방법이라는 점에서 통합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즉 이 논의에서는 ‘통합적 문법 교육’의 의미를 문법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영역의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이관규, 2009:268), 문법 교육의 통합적 방법으로 영역별 통합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즉, 문법 능력 신장을 국어 교육의 최고 목표로 해서 다른 영역, 곧 화법, 독서, 작문, 문학 영역을 하위로 놓는 통합 방법, 문법과 작문, 문법과 화법, 문법과 독서, 문법과 문학과 통합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 문법 교육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국어를 아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어떻게 교수 학습이 일어나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관규(2009)에서 논의하고 있는 통합적 문법 교육 방법은 교수 학습 방법의 차원이라기 보다는 발표문의 분류에 따르면 ‘어떻게(How)’의 차원으로 볼 수 있고, 결국은 국어과의 각 영역 간의 통합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로 볼 수 있다. 통합의 관점을 ‘어떻게(How)’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통합의 주체 즉 두 영역에서 중심 영역과 보조 영역의 설정 문제에서 문법 영역이 중심 영역이 되고 작문, 화법, 독서, 문학 영역이 문법을 교수 학습하는 데 있어서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민현식(2010)의 논의도 최근 2009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선택과목 교육과정에 따른 <독서와 문법> 과목에서 독서 과목과 문법 과목의 통합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통합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함께 독서와 문법의 통합 근거, 독서와 문법의 통합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어교육에서 영역별 통합이 가능한 11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6) 국어교육에서 영역 간의 통합 가능성(민현식, 2010:6)

문학과 독서, 문학과 작문, 문학과 화법, 문학과 문법, 화법(말하기/듣기)와 독서, 화법과 작문, 화법과 문법, 독서와 작문, 독서와 문법, 작문과 화법

(6)과 같이 국어교육에서 다양한 영역 간의 통합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은 그만큼 국어교육에서 통합에 대한 여러 관점 중 영역에 대한 통합이 가장 흔한 통합의 방법론적

인 관점임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외에도 영역 간의 통합이라는 방법론적 입장에서 통합을 바라보는 논의들이 다수 있다.6) 통합을 방법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논의가 아마도 국어교육에서 통합을 바라보는 관점 중 가장 흔한 관점이 아닐까 한다. 이는 방법이라는 개념의 폭이 넓기 때문일 텐데, 발표문에서는 교수법(teaching method)과 ‘어떻게(How)’의 두 가지 ‘방법’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분류·정리해 보았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7) 방법으로서의 관점

가. ‘교수·학습 방법론(teaching method)’: ‘총체적 언어 교수법’, ‘내용 중심 교수법’, ‘문법 강화 의사소통 중심 교육’

나. ‘어떻게(How)’: 내용 간의 통합, 영역 간의 통합, 과목 간의 통합, 교과 간의 통합

(7)과 같이 두 가지 ‘방법’의 개념으로 통합에 대한 방법으로서의 관점을 정리하였는데, (6나)에 제시하고 있는 ‘어떻게(How)’의 방법으로는 내용, 영역 외에도 과목 간의 통합, 교과 간의 통합 등 다양한 ‘어떻게(How)’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4. 원리로서의 관점

통합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은 원리로서의 통합을 바라보는 입장이다. 즉, 교육과정의 내용 조직의 원리 가운데 하나로서의 ‘통합’이다. 이렇게 내용 조직 원리로서의 통합을 제시한 것은 바로 Tyler(1949)이다. Tyler(1949:95)에서 교과 내용을 조직하는 세 번째 원리로 ‘통합성(integration)’을 제시하였다. 그가 말하는 ‘통합성’의 원리는 학습 경험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점차로 내면적으로 통합된 견해를 갖도록 도와주고, 기존 요소들과 관련해서 학습자의 행동을 통합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각 교과 영역 사이의 학습 내용 요소를 서로 연관시켜 하나의 ‘통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Tyler(1949)는 통합성의 원리 외에도 ‘계속성, 계열성’의 원리를 제안하였다.7) 이들 세 원리는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조직하는데 필수적인 개념으로 출발한 것으로 교육과정의 학습 경험을 조직하는 기본 원리가 되는 것이다. Tyler(1949)에서 ‘계속성(continuity)’은 교육과정의 요소들이 수직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회 교과에서 사회 교과 자료를 읽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 목표라면, 이러한 기술이 실행되고 개발되는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여러 시간에 걸쳐 동일한 기술이 계속해서 수행되는 것을 의미한다(진영은 역, 1996:95). 즉, 교육과정에서 학습 경험의 중요한 요소가 여러 학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계열성(sequence)’은 주된 교육과정 요소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동일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6) 손영애(1986), 윤희원(1988), 이성영(1995) 등에서는 문법 영역을 국어 사용 능력 신장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문법 영역을 기능 영역의 보조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지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배타적인 논리로 타 영역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논의는 더 이상의 언급을 피하려 한다. 이는 국어교육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산물이며, 국어교육이라는 학문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배타적(排他的) 통합’이 아닌 ‘상보적(相補的) 통합’(신호철:2007)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7) 원래 Tyler(1949)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의 내용 조직 원리는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이렇게 세 가지인데, 신호철(2009:187~191)에서는 이들을 묶어 ‘연계성’이라 하여 상위 범주화하였다.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습의 요소가 반복될 때 후속 학습 경험이 이전 단계의 학습 경험보다 더 심도 있고 확장되도록 심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열성’은 중복이 아니라 각각의 연속적인 학습 경험을 수반한 더 높은 수준의 교수·학습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이 Tyler(1949)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의 내용 조직의 원리로서의 통합은 그 이후 교육과정 제작의 고전적인 원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통합을 하나의 원리로 바라보는 관점은 조병영(2002)에서도 제시된다. 조병영(2002:155~156)은 교과과정 내용을 조직하는 원리로 ‘통합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교과과정 내용 조직 원리로 ‘범위(scope), 통합성(integration), 연계성(articulation), 계속성(continuity), 계열성(sequence), 균형(balance), 응집성(coherence), 위계성(hierarchy)’ 등 여덟 가지를 제시하였다. ‘통합성’은 교육과정 내용들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상호 강화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으로, 수평적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원리로 정의하고 있다(조병영, 2002:155). 학습의 궁극적인 통합은 학생의 내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통합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내용별로 의도하는 목적이 유사할 경우에는 몇 개의 내용을 묶어 제시함으로써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Tyler(1949)의 통합성의 개념과 합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직하는 원리로서 통합을 바라보는 관점은 실제 국어과 교육과정에 적용되어 나타난다. 물론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실제 내용 요소 간의 관련성과 통합성을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통합이 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현 국어과 교육과정 전체에서 통합에 대한 논리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나 2009 개정 국어과 고등학교 선택과목 교육과정의 성격,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각 범주 별로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기술이 자주 등장한다.

(8)가.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성격’

국어 교과목의 교수·학습은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활동, 국어의 발전, 그리고 국어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기르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이 유기적으로 **통합**되게 운용한다.

나. 2009 개정 고등학교 선택과목 교육과정 <독서와 문법1>의 ‘성격’

국어 문법은 국어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국어를 **통합**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국어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한다. 문법 능력은 국어 능력의 토대로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등과 관련을 맺으며, 국어의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우고 국어 의식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

(8)은 각각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 범주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다. (8가)는 국어와 관련된 지식과 실제 국어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기능이 서로 통합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8나)는 문법 과목의 성격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국어 문법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말과 글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국어 사랑, 국어 의식 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국어의 통합적 사용에 대한 성격 기술 부분이다.

(9) 2007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서 59쪽

2. 실제와 내용 요소 간의 관련성, 내용 요소 간의 **통합성** 강조

내용 요소 간의 **통합**과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본질, 원리,

태도가 독립적·분절적으로 인식되고 학습된 이유는 이들의 **통합**과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가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실제’를 중심에 놓음으로써, 구체적인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 속에서 다양한 지식, 기능, 맥락이 서로 **통합**되고 교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범주에서는 모든 학년별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배열되도록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내용에 직접적으로 통합이라는 언급은 없다. 하지만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전체적으로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내용 요소 간의 관련성과 통합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교육과정 내용 범주의 전체에 걸쳐 구조화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과정 해설서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 (9)의 예이다.

(10)가. 2007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교수·학습 계획’ 68~69쪽

- (3) 국어 활동의 총체성을 고려하여 영역 간, 영역 내의 학습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계획한다.
 - (가) 각 영역에서 해당 영역의 고유성이 반영되어 있는 학습 요소와 **통합**이 가능한 학습 요소를 구분하여 지도하되,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① 국어 표현과 이해의 원리와 과정을 고려하여, 말하기와 쓰기를 **통합**하고, 듣기와 읽기를 **통합**한다.
 - ② 국어 활동에서 사용되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를 **통합**한다.
 - ③ 문법이나 문학과 관련된 담화 또는 글과 문학 작품을 읽거나 듣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문법 및 문학 영역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을 **통합**한다.
 - (나) 동일 영역의 내용 요소 중에서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적합한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한다.
 - (다) 매체 관련 내용 요소를 지도할 때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과의 **통합**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 (라) 여러 영역을 **통합**하여 지도하기 위해 자료를 개발할 때에는 교육 내용과 학습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한다.
 - ①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조직한다.
 - ② 다양한 상황을 중심으로 관련되는 내용 요소를 **통합**하여 조직한다.
 - ③ 종합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 요소를 **통합**하여 조직한다.
 - ④ 다양한 담화 또는 글을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통합**하여 조직한다.

나. 2007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교수·학습 운용’ 71쪽

- (3) 영역 간, 영역 내의 학습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가) 둘 이상의 영역을 **통합**하여 지도할 때에는 학습자의 학습 활동이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 (나) 영역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통합**적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인다.
 - (다) 학습자가 한 영역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른 영역에 적용하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 (라) 학습 요소의 **통합** 취지에 알맞은 방법으로 교수·학습을 전개한다.

(10)은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범주에 실려 있는 ‘교수·학습 계획’과 ‘교수·학습 운용’ 부분에 실려 있는 ‘통합’에 대한 언급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교수·학습 방법 범주에 가장 많은 수효의 ‘통합’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이는 앞에서 기술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방법으로서의 관점으로 통합을 바라보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통합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그것이 교수법 차원이든, ‘어떻게(How)’의 차원이든-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합에 대한 주된 관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범주에 기술되어 있는 ‘통합’은 교수법의 차원도 아니고 ‘어떻게(How)’의 차원도 아닌 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성하는 원리의 차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물론 교육과정의 기술 내용을 앞에서 기술한 다양한 방법으로서 ‘어떻게(How)’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기술 내용이 통합을 ‘어떻게(How)’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기술하여 그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으로서의 관점이라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11)가. 2007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평가-평가 계획’ 72쪽.

(㉔) 국어 사용의 실제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평가 상황을 설정하고, 영역을 **통합**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나. 2007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평가-평가 목표와 내용’ 73쪽.

(㉔) 평가 내용은 국어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과 이 요인이 **통합**적으로 실현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선정한다.

다. 2007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평가-평가 방법’ 73쪽.

(5) 평가 목표와 내용, 평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방법을 **통합**하여 활용한다.

(11)은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평가 범주에 기술되어 있는 통합 내용이다. 평가 계획, 평가 목표와 내용, 평가 방법 등에서 통합에 대한 언급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위의 각 범주에서 기술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평가 원리로서의 ‘통합’과 관련된 내용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즉 평가는 각 영역별로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국어 능력을 평가할 때 그 하위 구성 요소들이 서로 통합되어 실현되는 능력을 평가하라는 내용이며, 평가 방법을 통합하라는 대원칙들을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어과 교육과정의 본문에 있는 ‘통합’ 관련 기술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국어과 교육과정 내에서 ‘통합’은 교수 학습 내용이나 각 영역 간 또는 교수 학습 방법상에서 통합이라는 하나의 대원칙이나 원리로서 이해하고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통합을 원리로서 바라보는 입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통합 자체를 원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의견과 달리 몇몇 논의에서는 통합의 원리라 하여 통합하는 방법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논의들이 있다. 이지호(1998)에서는 통합의 원리로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즉 ‘종합의 원리, 유추의 원리, 인접성의 원리’가 바로 그것인데, ‘종합의 원리’는 하위 교과라고 판단되는 교과나 교육 내용을 상위 교과로 통합하자는 원리이고, ‘유추의 원리’는 서로 다른 교과에 속하더라도 그 지식 구조가 유사하다면 유추를 적용하여 통합할 수 있다는 원리이며, ‘인접성의 원리’는 시공간적이나 논리적으로 이웃되어 있으면 통합할 수 있다는 원리이다. 임미성(2002)에서도 영역 통합적 교과서 단원 구성의 원리로 ‘국어적 사고 요소의 통합성 원리, 국어 활동의 통합성 원리, 학습 계열에 따른 반복과 심화의 원리, 학습 제재의 공유 원리’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신호철(2007:66~67)에서도 통합의 원리로 ‘의도성(intention)’과 ‘정도성(Degree)’을 제시하고 있다. 의도성은 어떤 교과든 영역이든 관계없이, 어떤 한 부분이 하나의 현상을 표현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의 설명력과 예시(例示)가 필요할 때, 다른 부분의 그것을 필요한 만큼만 의도적으로 가져와 자신의 부분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정도성’은 ‘의도성’에 수반되는 원리로서, 한 영역이 다른 영역의 설명력과 예시적(例示的) 도움이 필요해서 다른

영역의 설명력과 예시적 도움을 가져 올 때, 타 영역의 보조적 도움을 어느 정도의 선에서 가져 올 것인가를 측정하는 원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의 원리들은 통합이 원리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이라는 방법을 구현하는 데에 요구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통합을 원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통합을 방법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관점이라 할 수 있다.

5. 활동으로서의 관점

끝으로 통합을 활동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견해도 있다. 허재영(2010)의 논의가 바로 통합의 개념을 ‘활동’의 개념으로 분석한 것이다. 허재영(2010:323)에서는 통합의 개념을 ‘학습 요소를 합쳐 국어 활동의 총체성을 담아내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는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의 ‘교수·학습 계획’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12) 교수·학습 방법⁸⁾

가. 교수·학습 계획

1)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습자가 의미 있는 국어 학습 경험을 하여 창조적인 국어 능력이 향상되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학습 목표는 교육과정의 ‘3. 내용’에 제시되어 있는 학년별, 영역별 ‘답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관되도록 한다.

나) 학습 내용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각 영역별 특성을 살려 학습 목표 달성에 적합하게 선정하되, 특히 영역별 내용 간의 관련성, 학년별 내용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다) 국어 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이러한 학습 경험을 통해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1) 학습자가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과 실제적인 국어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관시킨다. (중략)

(5)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학습 경험은 난이도와 통합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중략)

마) 국어 능력이 일상생활이나 다른 교과 학습에도 중요함을 강조하여, 학습자가 국어 교수·학습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1) 교수·학습 과정에서 성취한 국어 능력을 학습자 스스로 일상생활이나 다른 교과의 학습에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중략)

3) 국어 활동의 총체성을 고려하여 영역 간, 영역 내의 학습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계획한다.

허재영(2010)에서는 (12)의 교육과정 기술 내용에 의거하여, 국어과에서의 통합이라는 용어는 ‘영역의 유기적 연관성’ 또는 ‘학년 간의 연계성’과 대등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하고, ‘유기적 연관성’이나 ‘연계성’, 또는 ‘다른 교과의 학습에 적극 활용’ 등의 개념은 근대 이후로 나타난 ‘연쇄(連鎖)’, ‘연락(聯絡)’ 등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문제는 ‘통합’이라는 말에 있는데, (12) 예의 ‘3’을 고려하면 통합이라는 말 속에는 ‘학습 요소’를

8) (12)의 교육과정 내용은 허재영(2010:322~323)에서 인용한 것(밑줄 포함)을 그대로 재인용한 것임.

합쳐 ‘국어 활동의 총체성’을 담아내는 활동을 의미하는 셈이라고 논의하였다. 즉 그는 통합의 개념을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의 바탕도 역시 문법과 문학 영역 간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두 영역의 통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습 요소’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국어 활동’을 통하여 두 영역의 통합을 구현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과정의 기술 내용을 바탕으로 영역 간의 통합의 근거를 탐색하고 그 근거를 통하여 통합을 활동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통합을 활동으로 간주하고 이를 영역의 통합의 근거로 하는 논의도 있는 반면에 수업 활동을 통하여 교육의 통합을 추구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활동의 관점에서의 통합이 국어교육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부분이 바로 수업 활동이다. 교수·학습의 성취 효과를 확인하고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수업 활동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수업 활동이 교과서 내에 어떠한 형태로 실려 있는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또 다른 활동으로서의 통합을 의미한다. 현 국어 교과서에는 다양한 수업 활동 문제들이 실려 있다. 교과서 제작이 활동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무수히 많은 학습 활동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 중에서 문법 교과서에 실려 있는 몇 예들을 살펴보면 통합의 관점에서 활동의 형식을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⁹⁾ 즉 단일 활동과 통합 활동이다. 단일 활동은 수업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해당 수업 영역의 방법론으로 활동을 수행하게끔 하는 것이고, 통합 활동은 수업 내용과 유관된 내용이나 타 영역의 학습법, 자료 등을 혼합해 가면서 하는 수업 활동이라 할 수 있다.

(13)가. 단일 활동의 예(고등학교 『문법』 84쪽)

탐구

1 다음 예를 통하여 단어의 형성을 탐구하여 보자.

시부모, 첫날밤, 공부하다, 코웃음, 평화적, 학교, 나무

- 위 단어들을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여 보자.
- 위 단어들을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로 나누어 보자.

2 다음 단어를 바탕으로 단어의 형성 문제를 더 생각하여 보자.

새콤달콤하다

- 위 단어를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여 보자.
- 위 단어는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 말하여 보자.

9) 물론 다양한 관점에서 수업 활동의 유형을 정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상에 따라, 개별 활동과 모둠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 이해 학습과 적용 학습으로 구분할 수 있고, 수준에 따라 일반 학습과 심화 학습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나. 통합 활동의 예(고등학교 『문법』 204쪽)

2 다음 자료로 단어의 반사적 의미를 탐구하여 보자.

“이름을 바꿔 주세요” 개명 신청 봇물

최근 법원에 잘못된 이름을 바꿔 줄 것을 요구하는 개명 허가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개명 신청은 출생 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하였거나 의미가 지속한 것을 연상하는 이름, 또는 발음이 부자연스러워 놀림의 대상이 되는 이름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순 우리말도 있다. 순 우리말인 ‘포근하다’는 뜻으로 이름지어진 ‘강포근’ 군은 그 발음 때문에 ‘포주’나 ‘포약’ 같은 엉뚱한 뜻을 불러일으키자 개명을 신청

하였다. 또 ‘분녀’, ‘하막내’, ‘백발녀’ 등도 그 발음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말 이름짓기 유행에 따라 지은 ‘메미’ 등 동식물의 이름을 다시 찬자로 개명하겠다는 요구도 있었다.

진주 지법 관계자는 “잘못 지어진 이름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 질서와 공익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적절히 개명을 허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문(2000. 3. 16.)

● 위 기사는 특정한 ‘이름’이 불러일으키는 반사적 의미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문제를 보도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예를 더 찾아보자.

(13)의 예는 현 고등학교 『문법』에 제시되어 있는 단일 활동과 통합 활동에 해당하는 예를 제시한 것이다. (13가)는 단일 활동의 예로서 단어를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거나 단어를 종류별로 구분해 보는 직접적이고 단순한 문법 교수법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 내용에는 문법 과목에서만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교수 방법, 언어 자료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단일 활동으로 지목한 것이다. (13나)는 신문 기사를 제시하고 그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고 그 내용 속에서 반사적 의미를 찾아내는 통합 활동의 예이다. 우선적으로 독서 영역과 통합될 수 있는데, 이는 읽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자료를 읽고 자료의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통합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통합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수업 활동을 제시하고 학습자에게 수행하도록 하여 통합적 교수·학습을 구현한다는 관점에서 통합을 활동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교과서를 통합적 구성한다는 의미가 활동뿐 아니라 구성이나 단원 체제, 체제 등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통합 교과서라고 칭하겠지만, 통합적인 활동을 구성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이다. 이러한 활동으로서의 통합이 실제 교과서에서 다양하게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 교과서라는 명칭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합을 활동으로 보는 관점 또한 방법으로서의 관점에 못지않게 일반적인 통합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6. 맺음말

그동안 통합은 대다수 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이었으면서도 그 개념 정의나 본질 파악은 무

척이나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발표문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갈라졌던 논의의 문제점을 통합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 출발점의 차이에 두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의 다양성을 정리해 보면서 통합의 본유적 속성에 접근하려는 의도에서 본 논의를 출발하였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논의의 편의상 국어교육에서 통합에 대한 입장을 네 가지의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사상, 방법, 원리, 활동’이라는 메타언어를 사용하여 네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제2장은 통합에 대한 사상으로서의 관점에 대한 논의였다. 사상으로서의 관점이란 통합을 철학적 기초나 학문적 이론의 사상적 기반으로 간주하는 논의이다. 주로 언어학과 언어 교육에서 분절된 이론과 교육 실행에서 오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나로서의 언어, 자연으로의 언어라는 사상적 기반 아래 진행되었던 ‘전체 언어 운동’이나 ‘통합 언어학’의 사상적 기초로 정리된다. 이러한 기초에서 출발한 몇몇 논의들은 언어 사용 기능을 기반으로 하여 전체 언어 교육을 수행하려다 보니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국어과의 타 영역을 배제하는 논의들도 있었다.

제3장은 통합을 방법으로서의 바라보는 입장에 대한 논의였다. 국어교육에서 통합과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들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의 ‘방법’은 ‘교수법(teaching method)’으로서의 방법과 ‘어떻게(how)’로서의 방법으로 나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논의들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 속에는 다양한 교수법(‘총체적 언어 교수법’, ‘내용 중심 교수법’, ‘문법 강화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 등)과 내용 요소 간의 통합, 영역 간의 통합, 과목 간의 통합, 교과 간의 통합 등 다양한 방법론으로서의 통합에 대한 논의들이 있다. 이들을 묶어 ‘방법’의 관점에서 통합 논의라 하였다.

제4장은 통합을 원리로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논의였다. 여기서의 원리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직하는 원리를 지칭한다. Tyler(1949)에서 주장한 ‘통합성(integration)’의 원리를 교육과정 제작에 기본 원리 중 하나로 두어 교육과정을 구조화할 때 이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로서의 통합이 국어과 교육과정에 구조화되어 있는 양상들을 분석해 보고 성격,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각 범주에 어떠한 양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 그 실례들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기존 논의 중 통합의 원리고 제시하고 있는 원리들은 통합을 실현할 때의 원칙이나 원리로 통합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에 이는 크게 본다면 방법으로서의 통합의 하위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을 논의하였다.

제5장은 통합을 활동으로 보는 관점에 대한 논의이다. 허재영(2010)에서는 문법과 문학 영역의 통합 근거로 교육과정에 기술되어 있는 교수·학습 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 요소’를 합쳐 ‘국어 활동의 총체성을 담아내는’ 활동을 통합의 기본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그래서 두 영역의 학습 요소를 바탕으로 이들이 국어 활동으로 구현되는 것을 통합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 개념을 수업 활동의 차원에서, 국어과의 수많은 교과서에 실려 있는 수업 활동을 해당 과목의 고유한 교수법이나 자료만을 가지고 수업 활동을 수행하는 단일 활동과 타 영역의 교수법이나 자료 등을 함께 이용하여 수업 활동을 수행하는 통합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통합적인 수업 활동은 결국 통합적 교수 학습의 구현이나 실행의 차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통합의 적극적인 실현이라 할 수 있다.

통합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사상, 방법, 원리, 활동이라는 다소 메타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통합을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다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미시적 방법을 통하여 접근하여 들어간다면 통합의 구체적인 실체는 드러날 것으로 기대

한다. 발표문에서는 통합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만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논의는 피하였다. 특히 방법으로서의 관점에서 현재 국어교육의 주된 논의 대상인 내용 요소 간의 통합과 영역 간의 통합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두 통합의 방법이 바로 국어교육이 처해 있는 통합의 현실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김광혜(1997), 『국어지식 교육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민현식(1999), 『국어 문법 연구』, 도서출판 역락.
- 민현식(2008),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법 기반 언어 기능의 통합 교육과정 구조화 방법론 연구, 『국어교육연구』2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61~334쪽.
- 민현식(2010), 통합적 문법 교육의 의의와 방향, 『문법 교육』12, 한국문법교육학회, 1~38쪽.
- 손영애(1986), 국어과교육의 성격과 내용 체계, 『선칭어문』14·1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76~91쪽.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2), 『고등학교 문법』, 교육인적자원부.
- 신호철(2007), 국어교육의 상보적 통합, 『문법 교육』7, 한국문법교육학회, 49~72쪽.
- 신호철(2009), 국어교육에서 연계성의 개념과 양상, 『새국어교육』81, 한국국어교육학회, 183~211쪽.
- 신호철(2010), 국어과 문법 영역의 연계성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 윤희원(1988), 문법 교육 강좌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논문집』33, 한국국어교육학회, 1047~1078쪽.
- 이관규(1997), 문법의 위상과 문법 교과서, 『우리어문연구』10, 우리어문학회, 517~550쪽.
- 이관규(2008), 『학교 문법 교육론』,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이관규(2009), 통합적 문법 교육의 의의와 방법, 『문법 교육』11, 한국문법교육학회, 259~282쪽.
- 이삼형(2000), 문학과 말하기의 랑테부와 도킹, 『문학과 교육』11, 문학과교육연구회, 105~117쪽.
- 이삼형(2010), ‘문법’영역과 ‘작문’영역의 통합 문제, 『문법 교육』12, 한국문법교육학회, 65~86쪽.
- 이성영(1995), 언어지식 영역 지도의 필요성과 방향, 『국어교육연구』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97~124쪽.
- 이재승(1992), 통합 언어(whole language)의 개념과 국어 교육에의 시사점, 『국어교육』79, 한국어교육학회, 73~89쪽.
- 이재승(2002), 언어 기능 통합 지도의 배경과 층위, 『한국초등국어교육』25,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139~162쪽.
- 이종열(2003), 국어지식 영역 내용체계의 통합적 재구성 방안, 『문학과 언어』25, 문학과 언어연구회, 127~160쪽.
- 이지호(1998), 국어과 통합 교육의 논리, 『국어교육』98, 한국어교육학회, 57~74쪽.
- 임규홍(2010), ‘문법’과 ‘독서’의 통합성, 『문법 교육』12, 한국문법교육학회, 39~64쪽.
- 임미성(2002), 통합적 국어교육을 위한 교과서 구성 방안, 『한국초등국어교육』21,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1~38쪽.
- 전은주(2010), 화법과 문법의 통합 교육 내용 구성, 『문법 교육』12, 한국문법교육학회, 87~116쪽.
- 조병영(2002),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조직과 진술에 관한 연구-미국, 영국, 일본의 자국어 교육과정 검토를 중심으로, 『국어교육』109, 한국어교육학회, 147~194쪽.

- 주세형(2005), 통합적 문법 교육 내용의 원리와 실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학위 논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8),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연구 개발』, 연구보고서.
- 허재영(2010), 국어과에서 문법과 문학의 통합, 한국문법교육학회 제12차 전국학술대회 발표지, 321~334쪽.
- Brown, H. Douglas(2007),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Longman.
- Goodman, K.(1986), *What's wholes in whole language*, Portsmouth, NH: Heinemann Educational Books.
- Goodman, Yetta M.(1989), Roots of the Whole-Language Movement,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Volume 90.
- Tyler, R. W.(1949),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진영은 옮김(1996), 『Tyler의 교육과정과 수업 지도의 기본 원리』, 양서원.

국어 교육에서 ‘통합’에 대한 관점

최대회(건국대)

먼저, 이 논문을 읽고, 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의미가 있었고, 특히, 국어 교육에서 ‘통합’의 여러 관점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신 신호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어 교육 과정은 교육 목표에 따라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는데, 국어 교육에서 ‘통합’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이후 대두되었고, 현재에 와서 2009년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과 더불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 듯합니다. 이렇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통합’과 관련된 여러 논의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 ‘통합’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논문을 읽었는데, 선생님의 본질적인 의도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자로서 임무를 다하기 위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머리말에서, 다룰 내용에 대해 “국어교육에서 통합적 교육의 관점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정리하면서 이를 문법 교육의 입장에서 논의하면서 현재 그 통합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하여 기술한다. 이를 통하여 국어교육에서 통합적 방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현재 통합적 문법 교육의 방법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에 대하여 일각(一覺)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밑줄 그은 부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은 듯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국어 교육에서 통합적 교육의 관점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사상, 방법, 원리, 활동’이라는 네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였는데, 하나씩 검토해 보면, 궁극적으로 4가지 관점이 추구하는 바가 ‘내용 요소의 통합’ 또는 ‘영역간의 통합’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즉,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가의 방법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4가지 관점을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발표문의 내용과는 별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통합 교육이 중요시 되고 있는 만큼, 통합 교육이 교육 목표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2009 개정 고교 선택과목 교육과정에서 국어과 선택과목 중, <독서·문법 1, 2>가 있는데, ‘독서’와 ‘문법’이 잘 연계되어 수업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통합’ 교육을 했을 경우,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국어사전에서의 표제항 선정

서정미(안양대)

차 례

1. 머리말
 2. 표제항의 선정 기준
 3. 표제항 선정
 4. 고등학교 교과서 말뭉치 가공
 5. 바람직한 고등학교 국어사전 기술 실례
 6. 맺음말 및 제언
- 참고문헌

1. 머리말

본 연구는 고등학교 국어사전의 편찬에 필요한 사전의 형식과 내용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전 편찬 작업은 사전에 수록할 어휘소를 수집하고, 각 어휘소의 형태 및 문법 정보를 기술하고, 어휘소의 의미를 기술하고, 각 어휘소가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인 예를 기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사전 편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편찬자는 사전 편찬의 목적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사전의 이용자가 누구인가도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수록 어휘나 설명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어사전들은 구태의연한 사전 구조의 기술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사전 이용자의 입장에서 편찬한 사전이 아니므로 사전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사전 수요량은 편찬자의 기대 밖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고등학교 학습자를 도와 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고등학생만을 위한 고등학교 국어사전을 편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서정미, 2007 참고).¹⁾

특정한 사용자를 위해서는 사전이 사전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효용성을 제공해야 한다. 그만큼 사전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혹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얼마나 많이 주느냐 또 용이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가 중요하다. 특정한 사용자를 위해서는 사전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구성을 해야 한다.

배현주(1998)에서는 상업계 고등학교의 필수 교과인 ‘경영대요’, ‘자료처리’, ‘상업디자인

1) 고등학생 학습자가 사회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휘 중에서 ‘교외화, 기지화, 노령화, 등질화, 밀집화, 인구변화, 재사회화, 적정화, 준평원화’ 등은 ‘표준국어대사전’(1999)에 표제항으로 선정되어 있지 않고,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1992)의 경우에도 ‘교외화’를 제외하고는 표제항으로 선정되어 있지 않다.

일반'과 같은 전문서적에 실린 어휘를 분석한 것으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어휘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연어휘수 109,677개와 개별 어휘수 10,435개의 어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국어사전 작업에 활용될 수 있는 어휘들과 관련된 연구로는 김광해(2003), 박형익(2005) 등을 들 수 있다. 김광해(2003)에서는 기존의 어휘들을 계량화하여 국어에서 사용되는 총 어휘 목록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국어 교육용과 한국어 교육용으로 구분하여 다시 국어 교육용은 1등급 기초어휘, 2등급 정규 교육 이전, 3등급 정규 교육 개시, 4등급 사춘기 이후로 한국어 교육용은 4구분(6구분)인 초급(1), 중급(2), 상급(3,4), 고급(5,6)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결국 국어 교육용과 한국어 교육용이 일치하고 있다. 5등급 전문화된 지적 성장 단계, 6등급은 대학 이상, 7 등급은 앞의 등급에서 누락된 분야별 전문어로 세 개의 등급은 국어 교육용과 한국어 교육용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각 등급의 개념을 나눈 등급 구분 기준을 잘 알 수 없었다.

박형익(2005)에서는 「보통학교 조선어사전」이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인을 위한 조선어 학습 사전임을 증명했고 이 사전이 학습 사전으로서 실용성을 내세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쉬운 어휘들 6,106개를 표제어로 선정하여 보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어휘들을 모두 표제항으로 선정하여 출처를 밝히고 또 신문이나 잡지에서 수집한 일상어휘를 수록한 사전임을 보여 주고 있다. 위의 두 연구들은 사전 편찬에 있어 표제어와 관련된 말뭉치 구축의 토대가 되는 어휘 연구들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필자가 편찬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국어사전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의 자료들을 분석, 종합하여 고등학교 국어사전에 등재할 수 있는 표제항과 용례 정보를 제시한다. 표제항과 용례 정보를 얻기 위하여 고등학교 교과서 말뭉치²⁾를 구축하여 기존 언어 사전들의 표제항의 선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고등학교 국어사전의 표제항의 선정과 국어사전의 바람직한 기술 방향을 모색하기로 한다.

2. 표제항의 선정 기준

사전 편찬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 중의 또 다른 하나는 어떤 단어를 사전에 실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인데(조재수, 1984) 이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서 말뭉치를 이용한 단어의 빈도수를 이용하는 경우를 최근 사전의 편찬 경향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말뭉치를 구축하고 그 말뭉치에서 단어의 빈도를 내어 표제항의 선정 기준을 제시한 사전에는 「연세 한국어사전」(1998)이 있다.

2)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과서 말뭉치'는 필자가 직접 구축한 말뭉치이다. 고등학생 학습자가 사용하는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로만 한정한다. 국정 교과서 22책을 선택하였는데 학교급별로 과목명을 보면, 일반계 국어(상), 국어(하), 문법, 도덕, 시민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윤리, 생활과 과학, 국사,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해양과학, 교련 13과목(아랍어 I, II를 제외)을, 체육계는 스포츠 과학, 농업계는 축산, 공업계는 전기 일반, 상업에는 사무자동화 일반과 사무자동화 일반 부록, 수산해운계는 수산생물, 가사실업계에는 식품과 영양, 과학계는 과학사, 2:1 체제는 기계일반이다. 검정 교과서는 모두 542책 중에서 56책을 과목명당 한 권씩 선택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국정 교과서 22책과 무작위로 선택한 검정 교과서 56책을 합하여 모두 78책을 선택하였는데, 본 연구의 용례만으로 제시된 8책의 서지 사항만을 참고문헌에 제시하였다.

단어의 빈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 말을 이루고 있는 낱말들이 사람들에게 의하여 얼마나 자주 쓰이는가를 나타내 주는 지표로서 그 말의 어휘 구조,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말 사용 습관, 의식구조, 사회적 관습 등과 같은 매우 복합적인 정보를 반영한다는 것이다(정찬섭 외, 1990: 1).

현용 5개 국어 사전은 ‘일러두기’에서 각 사전의 표제항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일러두기’에서 나타나는 표제어 선정 기준의 유무와 내용을 <표 1>에 제시하였다.

각 사전의 일러두기를 살펴보면 「조선말사전」(1990)에서는 ‘표제항’ 대신 ‘올림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표제항의 선정 기준은 없지만 단어, 단어 결합, 성구, 속담 등과 같은 올림말 선택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새우리말 큰사전」(1992)에서는 ‘어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중요성, 영구성, 빈도수 등으로 고찰하여 최대한으로 널리 망라해서 골라 실었다고는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연세 한국어사전」(1998)의 경우는 ‘연세 말뭉치’에서 사용 빈도가 14번 이상이라는 표제어의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표제어에 대한 설명 이전에 ‘편찬 방침’을 제시하면서 사전 편찬의 목적과 용례의 선별, 표제어의 뜻을 보이고 사전의 편찬 체계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 표에 나타나는 4개의 다른 국어 사전과 차이가 있었다. 한편,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우리말 큰사전」(1992)은 일반적인 단어의 범위(표준어, 방언, 옛말, 전문어 등)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었다.

<표-55> ‘일러두기’에 나타난 표제어 선정 기준의 유무

사 전 명	표준국어대사전 ³⁾	연세 한국어사전	우리말 큰사전	새우리말 큰사전	조선말사전 ⁴⁾
표제어의 선정 기준	-	+	-	+	-
표제어의 선정 내용	표제어의 수록 범위 언급	사용 빈도가 14번 이상	올림말의 범위	중요성, 영구성, 빈도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없다

3. 표제항의 선정

표제어의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연세 한국어사전」(1998)과 우리나라의 규범 사전이라 할 수 있는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중형 사전이라 하는 「동아 새국어사전」(2004)들의 표제어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를 중심으로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 지 살펴보았다.

제7차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고등학교 교과서 말뭉치 중 문학(상)에 수록된 어휘들이다. 이 어휘들을 「표준국어대사전」(1999)와 「연세 한국어사전」(1998)과 약 15만 표제어의 「동아 새국어사전」⁵⁾(2004)에서 등재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3) ‘표준’에서만 수록 범위에 ‘북한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4) 올림말의 선택과 배열에서 보면 1에서 4가지에 걸쳐 올림말의 선택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으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5에서는 수록하지 않는 올림말에 대해서 네 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6에서 8까지는 올림말의 배열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가경, 곱배팔, 극대, 기서, 꺼삐딴, 내지인, 뇌진, 도하, 둔한, 등걸, 땅뽕, 라마,
 라이, 만수향, 물고, 미감, 미어, 보구, 비소, 속한, 실조, 십선, 우매, 유위, 일말,
 입길, 주근, 지만, 차탄, 취처, 침석, 탐조등, 투전, 평량립, 폐포, 허청, 후로
 「문학(상)」

위의 단어들을 각각의 사전에서 찾아본 결과 각각의 사전들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어휘들이 있었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에는 ‘꺼삐딴’, ‘내지인’이 수록되어 있지 않았고 「연세한국어사전」(1998)에는 ‘가경’, ‘기서’, ‘꺼삐딴’, ‘내지인’, ‘뇌진’, ‘둔한’, ‘땅뽕’, ‘라마’, ‘라이’, ‘만수향’, ‘물고’, ‘미어’, ‘보구’, ‘속한’, ‘십선’, ‘우매’, ‘유위’, ‘입길’, ‘주근’, ‘지만’, ‘차탄’, ‘취처’, ‘침석’, ‘평량립’, ‘폐포’, ‘허청’, ‘후로’ 등이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동아 새국어사전」(2004)에서는 ‘꺼삐딴’, ‘내지인’, ‘라이’, ‘지만’의 네 개의 표제어만이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연세 한국어사전」(1998)의 경우에는 빈도수 14라는 명확한 선정 기준에 따른 선정 방법으로 한국어의 기본 어휘라는 표제항을 정리하는데는 용이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전 편찬 목적에서 나타나는 ‘7천만 우리겨레’에 포함되는 우리나라 일반 사전 사용자나 고등학생 정도의 학습자가 궁금해 하는 표제항을 그 사전에서 찾았을 경우에, ‘학습’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의심스럽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은 규범적인 성격이 강하고 다른 사전에 비하여 앞으로 나올 다른 사전에도 모범이 되면서 일반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데 용이해야 한다는 편찬 목적을 보이고 있는데 정작 특정한 사전 사용자인 고등학교 학습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학습자는 가장 많은 표제항을 가지고 있고 국가를 대표하는 사전을 신뢰할 텐데 그 많은 표제항이 있음에도 정작 고등학생 학습자가 「문학(상)」을 공부할 때 부득이하게 ‘꺼삐딴’이라는 어휘의 뜻을 찾으려고 한다면 찾을 수 없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경우에는 「연세 한국어사전」(1998)과 「동아 새국어사전」(2004)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표제항을 선정하고 있지만 참고하려고 해도 위의 예시처럼 나오지 않는 어휘가 있는 것이다.

「동아 새국어사전」(2004)에서는 「연세 한국어사전」(1998)에서보다는 고등학교 교과서 어휘가 더 실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일러두기 부분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학」과 관련한 어휘가 빠져 있는 결과가 나와 이상하게 생각이 되었다. 그 사항은 ‘국어 국문학 관계 사항’에 있어서는 선별 수록한다고 하는 내용이다.

‘꺼삐딴’이라는 특이한 어휘임을 감안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규범 사전인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중형 사전인 「동아 새국어사전」(2004)에서 표제어 선정 방법에서 고등학교 교과서 어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연세 한국어사전」(1998)도 결국 고등학생 학습자가 사용하기에는 빠진 어휘가 많다.

4. 고등학교 교과서 말뭉치 가공

‘3. 표제항의 선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사전들은 정작 고등학생이 찾고자 하는 정보를 모두 알려줄 수 없다. 이와 같은 불충분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표제항의 선정과 풍부

5) 동아 새국어사전(2004)은 제4판으로 표제어 개수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어 필자가 100쪽마다 상위표제어의 개수를 세워 평균을 낸 후 2702쪽을 곱하여 추정된 표제어 개수이다.

한 용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고등학교 교과서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고등학교 교과서 말뭉치에서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감사’가 들어간 문장들을 뽑아보았다. ‘감사’가 문장들을 교과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교과서 75책 중 11책에 ‘감사’라는 어휘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11책에는 「기업 경영」, 「정치」, 「국어(하)」, 「전통 윤리」, 「상업 경제」, 「인간사회와 환경」, 「기술·가정」, 「화법」, 「문학(하)」, 「사회」, 「경영 대요」가 해당한다.

기업은 자신이 사회적 책임을 어느 정도 수행했는지를 사회 **감사**를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경영대요>21

1. 사회 **감사** <경영대요>21

사회 **감사**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경영대요>21

사회 **감사**를 통하여 기업은 자신의 활동이 사회의 요구에 얼마나 잘 부응하였는지를 평가하게 된다.<경영대요>21

구체적으로 기업은 사회 **감사**를 통하여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도덕적 책임, 자발적 책임 등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평가받게 된다.<경영대요>21

사회 **감사**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의 단체나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경영대요>21

NGO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소액 주주 운동, 재벌 경제력 집중 분산 활동, 환경 감시 활동 등은 외부 단체에 의한 사회 **감사** 활동의 예이다.<경영대요>21

사회 **감사** 등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정도를 기업 자신이 스스로 평가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 책임은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무시하는 기업도 있다.<경영대요>21

허생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가 버렸다.<국어(하)> 9

특히, 아등은 가사일에 협조함으로써 타인을 돕는 방법, 타인에게 **감사하는** 마음, 일의 가치 등을 배울 수 있다.<기술 가정> 26

사원 총회는 회사의 설립 및 해산, 이사·**감사**의 선임,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결한다.<기업 경영> 9

감사는 임의 기관이므로 반드시 두어야 할 필요는 없다. <기업 경영>9

주식 회사의 기관에는 상설 기관으로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주주 총회, 업무 집행 기관인 이사회와 대표 이사, 감독 기관인 **감사** 등이 있다. <기업 경영>11

주주 총회는 정관의 변경, 자본의 증감 등 회사 내부의 의사 결정이 주된 임무이며, 이사와 **감사**의 선임, 결산의 승인 등과 같은 권한도 가지고 있다. <기업 경영>11

·**감사** : **감사**는 회사의 회계 **감사** 및 업무 집행을 **감사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상설 기관이며 주주 총회에서 선임한다. <기업 경영>12 _4번

감사는 직무상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특히 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주주 및 회사 채권자의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직무 권한을 확대하여 **감사**의 업무 **감사권**을 인정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기업 경영>12 _2번

예산과 관계 없는 통제 방법으로는 순익 분기점 분석과 내부 **감사**가 있다. <기업 경영>77

2. 내부 **감사** <기업 경영>77

내부 **감사**는 업무 **감사** 또는 자체 **감사**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조직의 내부 구성원, 즉 내부 **감사** 스태프나 재무 회계 담당자에 의해서 경영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기업 경영>77

(라) 회계 **감사** <기업 경영>88

기업 활동에 관한 회계 정보인 재무 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는 기업과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공인된 회계 전문가인 공인 회계사(CPA)가, 기업의 재무 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는 제도가 회계 **감사**이다.<기업 경영>88

(나)는 <평양 **감사** 부임도>라는 열 폭짜리 병풍 가운데 둘째 폭으로, '모홍갑'이라는 명창(名唱)이 대동강 능라도에서 소리를 하는 부분이다.<문학(하)> 1

이제 당신이 모두 실천하였으니 내 **감사**의 뜻을 아끼지 않으리다. <문학(하)>42

단기 제 해골이 아직 그 곳에 들어져 있사오니, 은혜를 거듭 베푸시어 사체(死體)를 거두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나이다**.<문학(하)>42

팔역(八域)이 정비(鼎沸)하되 국채 보상(國債報償) 열심(熱心)하야 지금(至今)도 육속(陸續)하니 애국성(愛國誠)이 **감사(感謝)하다**.<문학(하)>65

그런 노래 하는 아이들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하는 노래이나, 듣는 사람들은 불가사리라 하는 것이 **감사**를 지목한 말이라 한다. <문학(하)>69

거짓말일지라도 옛날에 불가사리라 하는 물건하나 생겨나더니 어데든지 뛰어다니면서 쇠란 쇠는 다 집어먹은 일이 있었다 하는데, **감사**가 내려와서 강원도 돈을 싹싹 훔아먹으려 드는 고로 그 동요가 생

졌다 하는지라.<문학(하)> 69

이 때 동요는 고사하고 진남문 밖에 익명서가 한 달에 몇 번씩 걸려도 **감사**는 모르는 체하고 저 할 일만 한다.<문학(하)>69

상전이라 하면 강원 **감사**가 남의 집에 문서 있는 종이 아니라 무서워하기를 상전같이 알고 믿기를 상전같이 믿고 섬기기를 상전같이 섬기는데 그 상전에게 등을 대고 만만한 사람을 죽여 내는 판이라.<문학(하)>69

이 때 강원 **감사**가 그 일을 썩 쉽게 잘하는 사람인데 또 믿을 만한 상전도 많은지라.<문학(하)>69
그 상전의 힘으로 **감사**도 얻어 하고 그 상전의 힘을 믿고 백성의 돈을 불한당질하는데, 그 불한당 밑에 줄개 도적은 즐남생이 따르듯 하였더라.<문학(하)>70

5. 국정 **감사** 의정 평가 활동<사회> 73

국정 **감사** 의정 평가 활동이 시작된 처음에는 평가 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회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방청이 일부 제한되었다.<사회> 73

주식 회사의 기관에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주주 총회, 업무 집행 기관인 이사회 및 대표 이사, 회계 감사 기관인 **감사** 등의 상설 기관이 있다.<상업경제> 8

「**감사** 행차냐? 길 중간을 잡고 오게. 빨리 저리 비켜라!」<인간사회와 환경> 5

해당 문항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사회와 환경>13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사회와 환경>24

명절이나 기일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자손들의 마음 속에 부모와 조상들을 영원히 잊지 않고, 그 은덕에 **감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전통윤리> 13

우리가 흔히 고마운 분을 만났을 때,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덕택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덕을 나누어 받은 결과, 지금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는 **감사**의 마음을 나타낸다. <전통윤리>82

우리가 덕을 베풀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웃과 사이 좋게 지낼 수 있게 된다.<전통윤리>82

이것은 모두가 생명을 부여하고 그 성장과 소멸을 주관하는 자연의 힘에 대한 경외와 **감사**, 그리고 주어진 생명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며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의례이다. <전통윤리>106

제례는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조상 숭배 사상과 합치되어 고대로부터 생겨난 의례 행위로, 그 기본 정신은 공경과 **감사**에 있다.<전통윤리>106

제례는 자신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 준 근본, 즉 생명의 근원인 자연과 자신의 뿌리인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의 표현이며, 자신의 근원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보본 의식을 담고 있다.<전통윤리>106

또, 제사를 지낼 때 정성과 예를 다하도록 하는 이유는 아무렇게나 편한 대로 제사를 지내면 경건함이 사라져 자신을 삼가고 절제하는 자세를 잃어버리며, 더 나아가 조상을 추모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전통윤리>106

이는 제례의 기본 정신인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지키려는 것이었다. <전통윤리>108

이러한 천인 합일의 사상은 생명력을 부여해 준 자연에 대한 **감사**와 보답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과 타존재에 대한 도덕적 대우와 사랑을 의미한다. <전통윤리>136

한편,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 기관의 감청 및 도청과 관련하여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정 **감사**를 벌인 적이 있다. <정치> 31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인권 위원회 법을 제정하고 인권과 관련된 국정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32

이상으로 월요일 아침 '명상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화법> 9

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와 같이 명상에 잠기는 시간을 가져 건강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화법>63

이젠 노다지에 대한 궁금증이 모두 풀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법>64

이 세상에서 가장 순진하고 의리가 있는 정 박사의 생일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법>68

그럼, 이상으로 제3회 한국어 심포지엄 '오늘의 한국어 성찰과 모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토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법>77

당국에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을 수렴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를 바라며, 포럼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법>79

말씀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법>85

이것으로 오늘 토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화법>85

·면담할 사람을 만나면 **감사** 인사를 한 뒤에 면담하기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한다.<화법>103

면담을 마친 뒤에는 정중히 감사의 뜻을 표한다.<화법>103

·상담을 위한 면담이 끝나면 정중히 감사의 인사를 한다.<화법>103

위의 말뭉치에서 ‘감사’라는 어휘가 포함되어 나타나는 문장의 경우를 분석해 보면, 감사는 70개, 감사원은 4개, 감사권 2개, 감사장, 1개, 감사제 1개, 감사드리다 1개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감사’라는 동형어를 의미상 4개 정도로 분류할 수 있겠다. 우선,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형어는 15개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참고하면, 일반 어휘로서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와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전문 어휘로서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가 ‘감사(監査)’의 ‘감독하고 검사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표제항과 둘째가 ‘감사(監事)’의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직책, 또는 그 직책에 있는 사람’과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를 감사하는 상설 기관, 또는 그런 사람’으로 마지막으로 ‘감사(監司)’의 ‘관찰사’로 정리할 수 있겠다.

파생어로는 일반 어휘로서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의 뜻을 가진 ‘감사하다’와 ‘감사드리다’ 또한 ‘감사(監査)’의 ‘감독하고 검사함’의 ‘감사하다’로 볼 수 있다. 관련 어휘의 경우에는 ‘국정감사[國政監査], 내부감사[內部監査], 사회감사[社會監査], 회계감사[會計監査]’ 등의 어휘를 정리할 수 있다.

5. 바람직한 고등학교 국어사전의 기술 실례

필자가 편찬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국어사전의 편찬 목적은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교과서를 ‘학습’할 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교과서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어휘들을 표제항으로 제시하고 그 표제항의 항목 정보를 되도록 교과서 말뭉치에서 추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목의 어휘만을 제시하므로 사전에서 제시하는 표제항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수준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정도의 ‘고등학교 교과서 어휘’이다.

그 외에 고등학교 국어사전의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국어사전이라서 방언 및 고어, 외국어 등 동일한 언어 내에서 다루어질 여러 표제항에 대한 설정은 하지 않고 단지 흔히 통용되는 표준어를 표제항으로 삼아 이에 대한 설명을 한다. 물론 부득이하게 교과서에서 출현하는 고어나 방언들이 학습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표제항에 부가적으로 수록한다.

새로 편찬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국어사전은 고등학교 교과서 말뭉치를 기술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문어체 사전의 특징을 갖는다. 또한 말뭉치에 기반을 둔(corpus-based) 사전과 기술자의 직관에 의존한 일반 사전의 성격을 함께 갖는다. 하지만 최근의 사전 편찬 작업에 주로 많이 활용되는 형식으로서 언어 자료들을 수집하여 말뭉치를 구축한 후 이에 대한 일정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편찬하는 작업이 주가 되었다.

감사1 (感謝) [감 : 사] 명

1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면담할 사람을 만나면 감사 인사를 한 뒤에 면담하기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한다.<화법>103

2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

이제 당신이 모두 실천하였으니 내 감사의 뜻을 아끼지 않으리다. <문학(하)>42/면담을 마친 뒤에는 정중히 감사의 뜻을 표한다.<화법>103/우리가 흔히 고마운 분을 만났을 때,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덕택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덕을 나누어 받은 결과, 지금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는 감사의 마음을 나타낸다. <전통윤리>82/상담을 위한 면담이 끝나면 정중히 감사의 인사를 한다.<화법>103/제례는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조상 숭배 사상과 합치되어 고대로부터 생겨난 의례 행위로, 그 기본 정신은 공경과 감사에 있다.<전통윤리>106

파생어 보기

감사-하다1[감 : —] 동

— [문법](‘…에’나 ‘…을’ 대신에 ‘…에 대하여’가 쓰이기도 한다) 「…에게 …에」, 「…에게 …을」, 「…에게 -음을」

허생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가 버렸다.<국어(하)> 9/특히, 아동은 가사일에 협조함으로써 타인을 돕는 방법, 타인에게 감사하는 마음, 일의 가치 등을 배울 수 있다.<기술 가정> 26/명절이나 기일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자손들의 마음 속에 부모와 조상들을 영원히 잊지 않고, 그 은덕에 감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전통윤리> 13/

감사드리다 말씀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법>85

감사-하다1[감 : —] 형

— [문법](‘…이’가 쓰이지 않을 때는 ‘-어서’, ‘-으면’ 따위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 「…이」

단지 제 해골이 아직 그 곳에 들어져 있사오니, 은혜를 거듭 베푸시어 사체(死體)를 거두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나이다.<문학(하)>42/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사회와 환경>24/

관련어 보기

감사장[感謝狀]

감사의 뜻을 적어 인사로 주는 글.

감사제[感謝祭]

유대 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뜻으로 지내는 제사.

감사2 (監査) 명

감독하고 검사함. ‘지도 검사’로 순화.

사회 감사를 통하여 기업은 자신의 활동이 사회의 요구에 얼마나 잘 부응하였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경영대요>21/예산과 관계 없는 통제 방법으로는 손익 분기점 분석과 내부 감사가 있다. <기업 경영>77/내부 감사는 업무 감사 또는 자체 감사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조직의 내부 구성원, 즉 내부 감사 스태프나 재무 회계 담당자에 의해서 경영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기업 경영>77/국정 감사 의정 평가 활동이 시작된 처음에는 평가 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회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방청이 일부 제한되었다.<사회> 73/주식 회사의 기관에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주주 총회, 업무 집행 기관인 이사회 및 대표 이사, 회계 감사 기관인 감사 등의 상설 기관이 있다.<상업경제> 8/인권 위원회 법을 제정하고 인권과 관련된 국정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32

파생어 보기

감사-하다2 동

— (ㄱ) 「...을」

감사는 회사의 회계 감사 및 업무 집행을 감사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상설 기관이며 주주 총회에서 선임한다. <기업 경영>12

관련어 보기

감사권

감사원 [監査院]

대통령 직속의 헌법 기관의 하나. 국가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주 임무로 한다.

감사기관 [監査機關]

1 다른 행정 기관이 행하는 행정 사무의 처리를 감시하고 검사하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 하급 행정 기관에 대한 보통 감사 기관과 감사원과 같이 특정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 감사 기관이 있다.

국정감사 [國政監査]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하여 행하는 감사.

내부감사 [內部監査]

기업 내부의 감사 기관이 행하는 감사. 회계나 업무에 있어서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하거나 방지하고 경영 관리 제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한다.

사회감사 [社會監査]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어느 정도 수행했는가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

회계감사 [會計監査]

제삼자가 특정 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황이 실제대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감사하는 일.

감사3 (監事) 명

1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직책. 또는 그 직책에 있는 사람.

2 [법률]법인의 재산이나 업무를 감사하는 상설 기관. 또는 그런 사람.

사원 총회는 회사의 설립 및 해산, 이사·감사의 선임,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결한다.<기업 경영> 9/주주 총회는 정관의 변경, 자본의 증감 등 회사 내부의 의사 결정이 주된 임무이며, 이사와 감사의 선임, 결산의 승인 등과 같은 권한도 가지고 있다. <기업 경영>11/감사는 직무상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특히 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주주 및 회사 채권자의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직무 권한을 확대하여 감사의 업무 감사권을 인정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기업 경영>12

감사는 임의 기관이므로 반드시 두어야 할 필요는 없다. <기업 경영>9/주식 회사의 기관에는 상설 기관으로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주주 총회, 업무 집행 기관인 이사회와 대표 이사, 감독 기관인 감사 등이 있다. <기업 경영>11/감사는 회사의 회계 감사 및 업무 집행을 감사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상설 기관이며 주주 총회에서 선임한다. <기업 경영>12/ 주식 회사의 기관에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주주 총회, 업무 집행 기관인 이사회 및 대표 이사, 회계 감사 기관인 감사 등의 상설 기관이 있다.<상업경제> 8

감사4 (監司) 명

같은 말 : 관찰사

(나)는 <평양 감사 부임도>라는 열 폭짜리 병풍 가운데 둘째 폭으로, '모홍갑'이라는 명창(名唱)이 대동강 능라도에서 소리를 하는 부분이다.<문학(하)> 1/그런 노래 하는 아이들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하는 노래이나, 듣는 사람들은 불가사리라 하는 것이 감사를 지목한 말이라 한다. <문학(하)>69/거짓

말일지라도 옛날에 불가사리라 하는 물건하나 생겨나더니 어데든지 뛰어다니면서 쇠란 쇠는 다 집어 먹은 일이 있었다 하는데, 감사가 내려와서 강원도 돈을 싹싹 훔아먹으려 드는 고로 그 동요가 생겼다 하는지라.<문학(하)> 69/이 때 동요는 고사하고 진남문 밖에 익명서가 한 달에 몇 번씩 걸려도 감사는 모르는 체하고 저 할 일만 한다<문학(하)>69/상전이라 하면 강원 감사가 남의 집에 문서 있는 종이 아니라 무서워하기를 상전같이 알고 믿기를 상전같이 믿고 섬기기를 상전같이 섬기는데 그 상전에게 등을 대고 만만한 사람을 죽여 내는 판이라.<문학(하)>69/이 때 강원 감사가 그 일을 썩 쉽게 잘하는 사람인데 또 믿을 만한 상전도 많은지라.<문학(하)>69/그 상전의 힘으로 감사도 얻어 하고 그 상전의 힘을 믿고 백성의 돈을 불한당질하는데, 그 불한당 밑에 줄게 도적은 줄남생이 따르듯 하였더라.<문학(하)>70/「감사 행차냐? 길 중간을 잡고 오게. 빨리 저리 비켜라!」<인간사회와 환경> 5

관용구 및 속담

[속담] 감사 덕분에 비장 나리 호사한다

윗사람 덕분에 아랫사람이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는다는 뜻으로, 남의 덕분에 영똥한 사람이 호강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속담] 감사가 행차하면 사또만 죽어난다

같은 속담 : 사또 행차엔 비장이 죽어난다

6. 맺음말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생 학습자가 교과서를 학습하는 중에 모르는 어휘의 뜻이나 용례를 참고하기에 적합한 국어사전을 제작하기 위한 요구에서 출발하였다. 제7 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과서를 학습하다가 모르는 어휘를 찾고 정보를 탐색하기에 기존 국어사전을 이용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교과서의 어휘가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심지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어휘가 있었고, 한편으론 고등학교 교과서 어휘를 공부하는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동형어의 많은 개수는 필요한 어휘를 찾기에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다.

둘째는 교과서의 어휘를 찾더라도 그 용례를 알 수 없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사전에서 표제항의 용례정보를 풍부히 알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고등학교 교과서 말뭉치를 참고하여 ‘감사’라는 어휘가 쓰인 모든 문장을 제시하였다. 그 어휘가 쓰인 문장들을 분석하여 크게 4가지로 동형어 처리하였다. 표제어에서 파생되는 표제어를 제시하고 표제어와 관련 있는 관련어도 제시를 하였다. 표제어, 파생어와 관련어 모두 말뭉치를 참고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각 표제어와 파생어에 해당하는 용례를 말뭉치에서 해당 문장을 뽑아 풍부한 용례를 들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본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고등학교 말뭉치를 참고하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만 쓰인 표제어와 파생어, 그리고 관련어를 제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용례를 들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본 연구자의 고등학교 교과서 말뭉치는 제7 차 고등학교 교과서 검인정 교과서 모두를 다룬 것도 아니며, 또한 그 밖의 고등학생이 접할 수 있는 문학, 비문학, 시사 등과 관련한 자료는 제외된 것이 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고등학교 국어사전을 편찬할 경우 되도록 빠지는 어휘가 없도록 표제항을 선정하여야 한다. 기존의 대규모의 균형 잡힌 문헌 자료 말뭉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말뭉치 목록을 참고하건대 그 말뭉치에는 제7 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교과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고등학생들이 교재로 쓰고 있는 교과서가 모두 말뭉치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며, 문학작품, 신문, 잡지, 비문학작품 등 고등학생이 접하는 자료와 고등학생들이 직접 쓴 논술, 일기, 감상문, 과제물 등의 문어 자료와 실제 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구어 자료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어 교육용 단계별 어휘 선정의 결과가 표제항의 선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현화, 2000. 코퍼스를 중심으로 한 전문 용어 사전, 「한국어 정보학」 제2집, 서울: 한국문화사.
- 교육부 고시, 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총론-, 서울: 교육 인적 자원부.
- 국립국어연구원, 2000.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백서」,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 2000.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Ⅰ,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 2000.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Ⅱ,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 2001. 「한국 어문 규정집」,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 2002. 「표준국어대사전 연구 분석」,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김광해, 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서울: 집문당.
- , 2003.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서울: 박이정.
- 김정남, 2003. 학습자용 활용형 사전을 위한 제안, 「한국사전학」 제2호, 서울: 한국사전학회.
- 김한샘, 2003. 「한국현대소설의 어휘조사 연구」,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김화영, 2001. 초등학생용 국어사전에 관한 비판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교육대학교.
- 박동근, 2005. 우리말 중사전 표제어 설정의 문제점, 한글학회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 박형익, 2004. 「한국의 사전과 사전학」, 서울: 월인.
- , 2005. 「신어사전의 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 , 2005. 「심의린 편찬 보통학교 조선어사전」, 서울: 태학사.
- 서정미, 1994. 현대 한국어 접두 파생어, 석사학위논문, 서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서정미, 2007. 말뭉치를 활용한 고등학교 국어사전의 편찬을 위한 기초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이인제 외, 2005.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서울: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 이희자, 2000. 말뭉치(corpus) 기반 국어 어휘 의미 기술에 대하여, 「사전 편찬학 연구」 제10집, 서울: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 정순기·리기원, 1984. 「사전 편찬 이론 연구」, 서울: 사회과학출판사.
- 조남호, 2000. 규범 사전 편찬의 제 문제, 「사전 편찬학 연구」 제10집, 서울: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 조남호 외, 2005. 「한국어 학습자용 말뭉치의 구축과 활용」, 서울: 태학사.
- 조재수, 1984. 「국어사전 편찬론」, 서울: 과학사.
- Hartmann, R. R. K., 1998. Dictionary of Lexicography, Routledge
- Hartmann, R. R. K. 2001. Teaching and Researching Lexicography, Pearson education Ltd.

<국어사전>

- 「동아 새국어사전」, 2004, 두산동아 사서편집국, 서울: 두산동아
- 「새우리말 큰사전」, 1992, 신기철·신용철, 서울: 삼성출판사.
- 「새우리말 큰사전」, 1992, 한글학회, 서울: 어문각.
- 「표준국어대사전」, 1999, 국립국어연구원, 서울: 두산동아.
- 「연세초등국어사전」, 2000,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편, 서울: 두산동아.
- 「연세 한국어사전」 1998,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원 편, 서울: 두산동아.
- 「조선말사전」 1990, 동광출판사 편집부, 서울: 동광출판사.

<교과서>

- 곽수근 외, 2006, 「기업 경영」, 서울: (주)교학사, 234p.
김왕근 외, 2006, 「정치」, 법문사, 271p.
서울 대학교 국어 교육 연구소, 2006, 「국어(하)」, 교육인적자원부, 373p.
서울 대학교 사범 대학 국정 도서 편찬 위원회, 2006, 「전통 윤리」, 교육인적자원부, 267p.
안광순 외, 2006, 「상업 경제」, 서울: (주)교학사, 238p.
옥한석 외, 2006, 「인간사회와 환경」, 서울: 대한교과서(주), 170p.
이봉구 외, 2006, 「기술·가정」, 서울: (주)금성출판사, 237p.
이주행 외, 2006, 「화법」, 서울: (주)금성출판사, 247p.
조남현 외, 2006, 「문학(하)」, 서울: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375p.
최병모 외, 2006, 「사회」, 서울: 대한교과서(주) 327p.
황장규 외, 2006, 「경영 대요」, 서울: (주)교학사, 223p.

고등학교 국어사전에서의 표제항 선정

김한샘(국립국어원)

이 발표문은 ‘고등학생’이라는 특정 사용자 집단을 고려한 맞춤형 사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표제항을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학습자를 고려하여 교과서의 어휘를 적극적으로 수록하고 용례, 관련어 등을 꼼꼼하게 기술해야 한다는 논문의 핵심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토론을 통해 함께 의견을 나눴던 주제와 궁금한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겠습니다.

1. 고등학생만을 위한 국어사전이 따로 필요한가?

학습자가 많으므로 사전의 수요가 안정적인 영어 사전의 경우 고등학생용 사전을 따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Princeton Review에서 나온 'High School Dictionary'는 75,000항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the American Heritage High School dictionary(Houghton Mifflin Company)'도 국내 고등학생들을 위한 사전입니다. 한편 'Longman Active Study Dictionary'처럼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을 합쳐 ‘중급자’로 보고 사전을 편찬한 예도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국어사전 활용도가 높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후자처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으로 학습하는 것은 불가능한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개발은 기획, 편찬, 출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과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일입니다. 발표문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한 것처럼 단지 교과서의 어휘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 작품, 신문, 잡지, 비문학 작품, 고등학생 과제물과 구어 자료까지 모두 포함하려면 대규모 사업이 될 텐데 오히려 현재 고등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국어사전의 내용과 사용자 요구 사항을 분석하여 보완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2008년에 공개한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에는 초판에 누락되었던 교과서 어휘가 추가되었습니다.

만약 고등학생만을 위한 국어사전을 만든다면 문학 작품, 신문, 잡지, 비문학 작품, 고등학생 과제물과 구어 자료 등으로 구성될 말뭉치를 어떤 구성으로 얼마나 구축하여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발표문의 핵심 내용처럼 교과서 어휘를 모두 수록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사전 표제항 중 교과서 어휘 이외의 부분은 어떻게 구성할지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2. 교과서 어휘는 꼭 모두 수록되어야 하나?

학습의 기본이 되는 교과서에 등장하는 어휘가 모두 사전에 수록되어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고등학생 정도라면 단어를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거나 문맥을 통해 어휘 의미를 유추할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었을 것이므로 핵심 어휘와 생산성이 높은 접사를 함께 실어 여러 개의 어휘를 수록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표문에서 표준국어대사전에 누락되었다고 지적한 ‘내지인’의 경우 ‘내지’와 ‘-인’이 모두 수록되어 있으므로 고등학생 수준이라면 의미를 파악하여 학습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듯합니다. 또 발표자가 동형어가 많으면 필요한 어휘를 찾는 데에 불편하다고 한 것이나 고어나 방언이 필요하다면 부가적으로 수록한다는 것은 발표문의 핵심 내용인 ‘교과서 어휘의 전체 수록’과 대립되는 내용이므로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연세초등사전’은 발표문에서 제안한 방식대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어휘를 표제어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여 편찬하였습니다.

3. 기타

- 1) 3장 ‘표제항의 선정’ 부분에서 기존 사전 등재 여부를 확인한 문학(상) 수록 어휘들은 어떤 기준으로 추출한 것인지, 표제어 수의 규모가 50만(표준국어대사전), 15만(동아 새국어사전), 5만(연세한국어사전)으로 전혀 다른 사전들에서의 등재 여부를 확인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2) 4장의 제목과 내용이 어울리지 않으므로 ‘고등학교 교과서 말뭉치 가공’이라는 제목을 살린다면 내용에 구체적으로 말뭉치의 어휘 의미 주석을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밝히고, 내용을 살린다면 제목을 ‘고등학교 교과서 말뭉치의 어휘 의미 분석’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합니다. 발표자가 구축한 78책의 고등학교 교과서 말뭉치를 분석하여 얻은 어휘의 종수가 얼마나 되는지, 기존 사전의 표제항과 얼마나 겹치는지도 궁금합니다.
- 3) 5장에서, ‘감사장’, ‘감사제’는 ‘감사’의 파생어인데 ‘감사하다, 감사드리다’ 등의 파생어와는 다르게 관련어로 보기를 든 이유는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관련어로 기술하는 동의어, 반의어 등의 정보는 어떤 식으로 제시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어로 기술한다 해도 품사 정보 등의 기본 정보는 보여야 할 것입니다.

【 제 2 부 】

■ 제 1 분 과

문학의 형상성과 문화의 편재성

- 지역연구자의 정체성과 연구방법 모색을 위한 제언

전동진(전남대)

차 례

1. 머리말
 2. 두 개의 바람통
 3. 문학과 문학의 관계 모형
 4. 세 가지 시향(視向)
 5. 맺음말
- 참고문헌

1. 머리말

문화백가쟁명(文化百家爭鳴)의 시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정도로 많은 문화 관련 담론들이 펼쳐지고 있다. 다채롭게 펼쳐지는 문화적인 것들의 향연은 빠르고 감각적이다. 지각을 넘어 상상력의 공간에 하나의 형상으로 자리할 시간과 여백을 허락지 않을 정도다. 그러니 문화의 핵심을 자처했던 문학가(文學家)들에게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향연의 주연은커녕 객의 신세마저도 위협받는 지경에 처했다.

위기 의식은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책을 모색하게 했다. 하나는 여전히 문학과 문학적 가치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문학연구에서 문화연구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¹⁾ 전자의 경우는 문학의 형상성이 갖는 위의(威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는 문화의 편재성을 바탕으로 삼아 문학의 독자적 영역을 새롭게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물론 좀 더 급진적으로 문학을 해체하려는 시도들도 있다. 이들은 '문학'이 지배적 제도와 담론에 의해 역사적으로 구성된 문화적 산물이라고 본다. 텍스트 내부에는 미적인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문학의 '외부'로 나가 문학에 부여된 특권적 가치가 특정제도 속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에게는 문학연구에서 문화연구로 나가는 데 그 어떤 것도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는다.²⁾

상황이 이렇다보니 문학연구는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인문학 역시 학문 중의 학문이라는 프라이드를 가진 신성한 성전이 더 이상 아님을 상기하면서 김성곤은 인문학자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어 말하고 있다. 그는 '주위의

1) 김용규, 『문학에서 문화로』, 소명출판, 2004, 21쪽.

2) 김용규, 같은 책, 234쪽.

변화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인문학의 위기는 인정하지만 여전히 인문학의 특권과 신성성을 내세우며 스스로 인문학의 수호자로 나서는 것’, ‘인문학의 위기만 강조하고 되풀이하다가 결국에는 위기의식 속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무력해지는 경우’를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그는 인문학의 위기는 전통과 관습의 고수로 대항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포용하는 적극적인 태도 전환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다.³⁾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기에는 우리의 문학연구가 처해있는 현실이 그리 낙담치 않아 보인다. 문학연구의 중심은 중심대로, 주변부는 주변부대로 이중·삼중의 어려움과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문학 속에서 한국문학의 위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예로 이상의 문학을 조명하면서 ‘세계사적 시선 속에서 바라보기가 이상 문학의 지방성 극복의 과제’⁴⁾라고 말하는 한 연구자의 견해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문학의 세계적 보편성 획득을 위해서는 당연히 문학의 내부로 천착해 들어가야 한다. ‘이상 문학을 개인사적 전기적 측면에서 분리시킬 필요’⁵⁾를 역설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일 것이다.

다른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 문화와 문학의 창조적인 통섭을 문학의 내부에서 고민해야 할 과제가 주어져 있다. 발 빠르게 문학의 외부에서 문학을 보려는 시도들도 있다. 이들에게 문학은 더 이상 지고의 가치를 지닌, 고고한 예술 장르가 아니다. TV 광고, 드라마, 한 편의 영화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문화의 산물 중 하나일 뿐이다. 이와 같은 이중고 그리고 지역까지 아울러야 하는 삼중고 속에 놓여 있는 것이 문학의 연구의 중심을 자처하는 연구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다.

지역의 문학연구자들은 세계와 한국, 그리고 지역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다. 문학연구만을 지향할 때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을 연구의 중심에 놓는 것은 서울에서 주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구자들에 비해 일정한 성과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 지역의 출신의 작가들을 주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연구의 대상은 대단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지역의 연구자들은 세계문학의 보편성과 한국문학의 특수성 사이에서 놓여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국문학의 보편성과 지역 문학의 특수성 사이에서 놓여 있기도 하다. 시선의 지향점을 제대로 상정할 수 없었던 것이 지역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고충이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 문학 연구가 문화연구와 자주 통섭을 하고 있다. 문화연구가 그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사정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많은 지자체들이 문화 산업에 앞다투어 투자하면서 지역의 문학 연구자들은 ‘스토리텔링 관련 연구사업’, ‘문학관 건립 사업’,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 ‘지역 R&D 사업’ 등으로 그 연구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연구의 확장이 연구자들의 내적 역량의 확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외부적인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 글은 문학연구와 문화연구의 적극적인 통섭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쓰였다. 그러나 문학이 문학 외부의 시선에 의해 여러 문화적 산물 중 하나로 규정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문학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기 위해서는 토대가 튼실해야 한다. 이 토대는 물론 언어로 구성되어 있음은 자명하다. 그 동안 언어의 구성 원리로서 상징이 깊어졌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부터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은 출발한다. 이 짐을 알레고리가

3) 김성곤, 『문화연구와 인문학의 미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67~69쪽.

4) 김윤식, 「이상 문학과 지방성 극복의 과제」, 『이상문학 연구 60년』, 문학사상사, 1998, 48쪽.

5) 김윤식, 같은 글, 48쪽.

나누어 가짐으로써 문학과 문화 사이의 경계는 더욱 넓어지고 탄탄해 질 것으로 본다.

2. 두 개의 바람통

우리는 매순간 선택의 기로에 처한다. 주체의 선택은 드물게 합리적 이성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생활세계에서의 선택은 이성보다는 기분이 크게 좌우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기분은 감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정조’라고 부를 수 있다. 정조는 정서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서정시의 사전적 의미는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현한 시’이다. 보편적 이성의 바깥에, 삶의 기저에 정조의 개념을 두고자 했던 하이데거가 ‘서정시’에 매료되었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던 셈이다.

생활세계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다. 그러나 이성과 감성은 ‘따로’인 것일까? 순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일까? 동시에 이성적이면서 감성적인 것은 아닐까? 이런 가장 진지하고도 엄밀한 답을 제시한 철학자가 후설이다. 그는 데카르트의 합리적 인식과 딜타이의 생철학 사이에 노에시스와 노에마라는 통로, ‘현상학’의 관거(貫渠)를 놓는다.

‘구조’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성은 무의식의 영역을 포괄하지 못한다.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발생’의 관점에서 보자면 감성은 의식(인식)의 영역까지 그 영향력을 펼칠 수 없다. 약동하는 생명의 에너지가 구조적으로 고정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체에게 이성은 인식의 영역으로만 개방된 모나드이며, 감성은 주로 무의식의 영역으로 문이 열린 모나드였던 셈이다.

후설은 감성과 오성을 포함하는 ‘보편적 이성’을 앞세워 이성의 막힌 문을 열게 된다. 그 과정이 곧 ‘판단중지’, ‘현상학적 환원’, ‘본질 직관’이 현상학적 방법론이다. 후설의 현상학은 이 방법 자체이다. 끊임없는 ‘환원’이 의도하는 것은 본질이나 어떤 선험적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돌아섬은 통로를 내는 작업이다. 이 의식과 무의식의 소통의 통로가 ‘노에시스(Noesis)’와 ‘노에마(Noema)’인 것이다.

‘노에시스’와 ‘노에마’는 학문의 엄밀성, 다시 말해 이성적 사유의 엄밀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후설의 최선의 선택이었던 셈이다. 이성을 양 쪽을 모두 개방한 후설의 공로는 인정받아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후설은 ‘현대의 고전’이라는 비아냥거리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연구 조교였던 란트그레버(L. Landgrebe)와 핑크(E. Fink)는 그의 사후에 선험적 현상학에 대한 회의를 표명했다. 1928년 프라이부르크 대학을 은퇴하면서 그의 교수직을 넘겨준 하이데거가 행한 후설 현상학의 부정은 후설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평가는 그가 주체를 ‘선험적(a priori)’이라고 규정한 데서 기인한다. 보편적 이성을 ‘신적(神的)’, 혹은 ‘도(道)의 경지’로 삼았기에 그는 모든 비판을 감수하고서도 끝내 선험적 주체에 대한 믿음을 철회하지 않았던 것이다. 후설의 『시간의식』을 번역한 이종훈은 다음과 같이 후설 현상학의 의의를 피력하고 있다.

후설 현상학의 의의는 선명하게 부각된다. 언어로 표현되기 이전의 보다 근원적인 생생한 경험의 지평구조를 통해 소박한 일상의 경험이나 실증과학의 경험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깊고 풍부한 의미의 세계를 드러내주고, 철저한 자기 성찰과 궁극적 자기 책임에 입각해서 자기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부단히 새롭게 형성해나갈 인격적 주체로서의 선험적 자아를 강조하기 때문이다.⁶⁾

6) 김중훈, 「현상학적 이성비판」, 에드문트 후설, 『시간의식』(한길사, 1998), p.40.

후설의 과학문명 비판과 그 극복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하고 오히려 절실하게 요청되는 측면⁷⁾이었다면 그의 선형적 주체 개념은 굳이 해체하고 부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그 맞은편에 보편적 이성에 상응하는 또 하나의 가능한 통로를 모색해 보는 것을 어떨까? 비약을 무릅쓰는다면, 그의 제자 하이데거가 그의 사유의 핵심으로 ‘정조’를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에서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이데거는 철학적 사유의 근저에 이성이 아니라 특수한 감정의 상태가 깔려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이는 그동안 철학적 사유에서 하찮게 취급되던 감정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효과를 낳았다는 평가⁸⁾를 받는다. 그가 서정시를 예술의 궁극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서정시가 언어의 예술이면서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후설이 천착했던 ‘논리’와 하이데거가 깊은 관심을 보였던 ‘시적 글쓰기’는 양극단을 이루는 양식인가? 아니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갖게 된다. 데리다의 글쓰기에서 하나의 영감을 얻을 수 있다. 데리다는 「과를 수풀레」에서 ‘글쓰기란 모두 허튼 소리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 아르토의 글을 분석하고 있다. 이 글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붙어 있다. 이 구절은 「과를 수풀레」의 일부분이면서 이 글의 바깥에 자리하고 있기도 하다.

*이 텍스트를 쓰고 오랜 후에 나는 아르토가 P. 로엵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의 글귀를 읽는다

“존재하지 않았던……

힘의

두 개의 바람통 사이의 공동(空洞)의 이 구멍.⁹⁾

아르토에게 글쓰기는 ‘똥’이다. ‘사과’와 ‘배’와 ‘굴’과 ‘딸기’ 등등 무수한 색과 향과 맛을 가진 것들이 몸을 통과하면 가장 흙에 가까워진다. 모든 의미를 지움으로써 다시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 ‘똥’, ‘흙’이다. 글쓰기는 스스로의 위의(威儀)를 깨뜨림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기호의 새로운 쓰임이나 낯선 쓰임이 아니다. 자기를 이루는 모든 것을 산산이 부순 이후에 맞은 진정한 자유, 만신창이의 자유를 누리하고자 했던 아르토에게도 ‘구멍’은 있었던 것이다.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수식하고 있는 말은 ‘힘’이 아니라 ‘구멍’일 것이다. 이 존재의 영역이나 인식의 영역에서 이 구멍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구멍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인식될 수 없다.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이 구멍은 다만 ‘두 개의 바람통’ 사이일 뿐이다. 그렇다면 탐색해야할 것은 ‘바람통’이다. 그 바람통이 두 개일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가능성으로 남게 된다.

합리적 이성의 폐기나 포기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극단은 지평으로 펼쳐질 수 없다. 우리의 모든 것은 ‘현재의 지평(텍스트)’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 지평의 개념을 평면에서 입체로 확장하기 위해서 후설은 시간의 지향성 개념을, 하이데거는 ‘정조’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대입한다. 입체로 확장된 현존재의 거처인 ‘현재’가 ‘지평’이 아니라 ‘폼’을 갖게 될 때 후설이나 하이데거가 지향했던 세계는 좀 더 자유롭게 생활세계에서도 진동할 수 있을 것이다.

7) 김종훈, 위의 글, p.40.

8) 이성적, 「이상문학의 세계감」, 『반교어문연구』 26(반교어문학회, 2009), p.439.

9) 자크 데리다, 『글쓰기와 차이』(동문선,2004), p.310

선에서 지평으로 다시 입체로 현재의 지평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이성과 감성의 위상이다. 이성과 감성을 서로의 이면(裏面)으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성이 도드라지는 경우에는 감성이 감춰진다. 그 반대의 경우도 하나의 빛은 다른 하나의 그림자를 전제로 한다. 이것은 이분법적 사유에 기반하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둘은 언제나 하나라는 점에서 어떤 신적 경지로도 읽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두 개의 바람통의 지향은 결국 구멍을 지우는 것이 될 것이다.

다른 이분법적인 사유도 있다. 감성과 이성을 선적(linear)으로 파악하는 경우다. 감성이 끝나는 곳에서 이성이 시작되거나 그 반대로 이성이 끝나는 지점에서 감성이 시작되는 식의 이분법은 불가능하다. 한 끝은 강렬도 100의 이성으로 다른 한 끝은 강렬도 100의 감성으로 놓고 그 사이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견해이다. 정신분석적 비평은 이러한 사유를 기반으로 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아르토의 ‘구멍’은 애초부터 만들어질 수 없다.

이성과 감성을 앎과 삶을 견인해가는 두 개의 레일(Rail)로 볼 수도 있겠다. 이성과 감성의 팽팽한 긴장과 조화가 우리의 생활세계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하나의 목표로 이끌고 갈 것이라는 낙관이 담겨 있다. 모든 낙관은 허위라는 것을 역사는 충분히 보여주었다. 역사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글쓰기가 허위로 판명이 났다. 동일한 강렬도를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가는 레일은 불가능하며 가능해서도 안 된다. 인류의 삶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자유’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성과 감성을 지향성을 달리하는 두 통로로 상정해 볼 수 있다. 현재를 구성하는 기대와 기억을 후설은 유성의 꼬리에 비유한 적이 있다. 기억은 과거를 향해 사라지면서 그 긴꼬리를 현재에 드리운다. 기대는 그 머리를 미래에 두고 긴 꼬리를 예감의 이름으로 현재에 드리운다. 기대와 기억의 꼬리가 만들어낸 지평(통로)이 곧 후설의 ‘살아 있는 현재’이다.

감성과 이성은 두 개의 바람통이다. 그 두 개의 바람통 사이, 지평에서 인간의 앎과 삶은 구성된다. 이 두 바람통은 두 개의 레일이 아니라 유성의 긴 꼬리와도 같다. 감성이 잃어버린 낙원을 찾아 기원을 탐색할 때, 이성은 낙원의 도래를 위해 그 시선을 미래로 향한다. 감성이 자기 구원을 위해 신의 자리를 지향할 때 이성은 가장 비루한 인간의 본성은 지향한다. 이 지향성이 길게 드리워진 바람통의 사이에서 우리의 삶과 사유와 텍스트는 구성되었다.

이성과 감성이 우리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두 개의 단자(Monad)라면 이성은 노에마와 노에시스를 두 개의 바람통으로 삼는다. 그렇다면 감성은 어떤 바람통들 사이에서 그 정조를 구성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멜랑콜리와 알레고리, 아마도 이 물음에 가정 근사치의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알레고리와 멜랑콜리에 새로운 위상 정립을 통해 우리는 문학과 문화의 통섭을 좀 더 다양하게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문화와 문학의 관계 모형

우리의 몸은 두 개의 바깥 사이에 놓여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역시 이성과 감성이라는 두 개의 바람통 사이에 놓여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좀 더 확장하여 문화와 문학의 관계 모형을 제시하는 데 응용해 보고자 한다.

‘텍스트 바깥은 없다’는 데리다의 전언은 ‘문화 바깥은 없다’라는 말로 대치해도 전혀 어

색하지 않다. 문화는 실로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것 같다. 그 안에서 문학은 문화의 바깥을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문화의 핵심에 자리하고자 한다. 또 한 쪽에서는 문화의 일개 요소임을 인정하고 다양한 통섭, 착종, 혼종을 시도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문화의 핵심에 문학을 배치하고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그러나 문학의 핵심은 예전처럼 형상성을 통해 이미지로 충만한 상태는 아니다. 총체성을 내재한 상징의 언어가 아니라 기존의 의미를 모두 지운 파편화된 알레고리의 언어가 유평하는 텅빈 공간이다. 문학은 문화의 가장 깊은 곳에 ‘텅빈 바람통’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에 해당하는 문화 역시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화의 언어로 이루어진 텍스트는 세계와 인식 사이에 상징의 언어로 바깥과의 구분선을 친다. 이 상징의 언어는 세계 쪽으로는 노에마(의식 대상)가, 의식 쪽으로는 노에시스(의식 작용)가 더 강렬하게 작용한다.

우리의 의식은 하나의 원천으로 작동한다. 그런데 이 원천은 무엇이 발생한 곳으로서의 과거적 의미를 띠고 있는 원천이 아니다. 원천은 생겨난 것의 과거가 아니라 오히려 생성과 소멸에서 생겨나는 현재의 의미이다. ‘원천은 생성의 흐름 속에 소용돌이로서 있으며, 그 리듬 속으로 발생과정 속에 있는 자료 즉 노에마들 그리고 노에시스까지도 끊임없이 끌어당긴다.’¹⁰⁾

상징의 언어의 건너편 그러나 한 끝은 세계 속에서 조우하는 자리에 알레고리의 언어가 자리한다. 벤야민은 알레고리와 상징을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오늘날에도 사물적인 것이 인격적인 것에 대해, 파편적인 것이 총체적인 것에 대해 갖는 우위성 속에 알레고리가 상징의 반대 극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막강하게 맞선다는 점은 자명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알레고리적 의인화 작업은, 사물적인 것을 의인화하기보다 오히려 인물로 꾸미는 일을 통해 사물적인 것을 더욱 더 당당하게 형상화하는 것이 그 과제라는 점을 늘 기만해 왔다.¹¹⁾

벤야민은 알레고리가 상징과 대등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상징이 추구하는 의미의 총체성은 인간주의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알레고리가 인간주의에서 벗어나 사물 자체를 지향할 때 인간들 역시 알레고리를 통해 다른 해방의 길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네오-휴머니즘의 한 원리가 상징이 아니라 알레고리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를 꼭지점으로 삼아서 의식과 세계를 잇는 경계를 상징의 언어로 보았다. 그리고 그 이웃에 대응되는 또 하나의 경계를 알레고리의 언어로 규정했다. 이제 남은 마지막 하나의 경계는 의식과 주체를 잇는 길 위에 놓인 언어이다. 우리들은 사랑의 강도(強度), 미움의 감정을 어찌할 수 없다. 슬픔을 자유자재로 조절하고 구가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의식과 주체는 하나의 몸에 있지만 한번도 마주한 적이 없다. 늘 함께를 꿈꾸지만 그 시선은 늘 엇갈린다. 의식과 주체는 단속적으로 이어지는 데 이것이 곧 멜랑콜리의 언어이다.

서로를 지나치는 시선 속에서는 주체의 의미심장한 의미가 의식의 측면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의식의 처연함에 주체는 별로 상관을 하지 않는다. 아니 상관할 수가 없다. 주체와 의식은 단속성을 그 특성으로 삼는다. 둘은 서로를 보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은 지나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침묵과 다르지 않다. 상징의 언어와 알레고리의 언어 그리고 침묵, 그 침묵의 언어가 멜랑콜리의 언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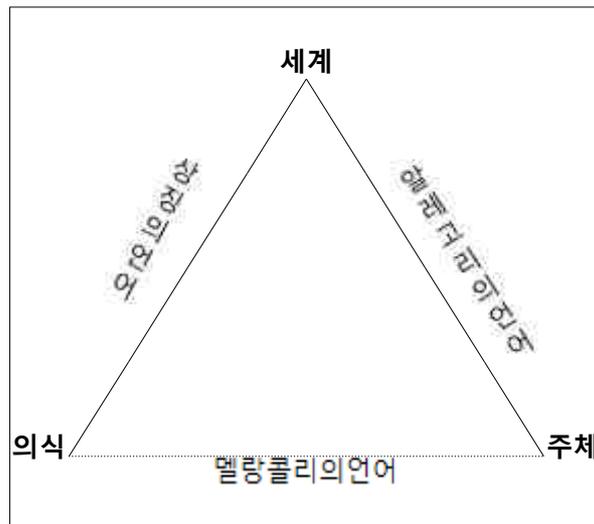
10) 발터 벤야민, 최성만·김유동 옮김, 『독일비애극의 원천』, 한길사, 2009, 62쪽.

11) 발터 벤야민, 같은 책, 278쪽.

왜냐하면 살아본 적이 없는 모든 것은 구원받지 못한 채 지혜의 말이 오직 기만적으로 유령처럼 떠도는 공간 속에서 쇠퇴해가기 때문이다.¹²⁾

‘지혜의 말’까지도 유령처럼 떠도는 공간이 곧 멜랑콜리의 시선, 그 시선 속에 펼쳐지는 공간인 것이다. 벤야민은 자아의 표지, 자아의 위대함을 보증하는 인장이자 자아의 허약함을 나타내는 증표가 자아가 침묵하는 것¹³⁾이라고 역설한다.

의식과 주체 그리고 세계의 상호주관성을 통해 문화적 텍스트의 장은 열린다. 이 의미의 삼각형의 변은 각각 상징의 언어, 알레고리의 언어, 멜랑콜리의 언어로 상징해 볼 수 있다. 이를 도식화시키면 아래와 같다.



이렇게 펼쳐진 문화의 장(場)의 핵심에 문학의 영역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놓고 하나의 삼각형을 그려 넣을 수 있겠다. 바깥의 삼각형이 언어의 형성 원리를 나타낸다면 안쪽의 삼각형은 수사를 대표하는 세 언어를 변으로 삼아 그려진다.

언어 일반의 의미 구성 원리로서 상징의 맞은편에는 ‘상징’이 자리한다. 수사적 측면의 ‘상징’에서 일상의 피조물들은 언제나 부재의 현전(죽음)이라는 불안 속에 놓인다. 따라서 주체는 끊임없이 상징적 이미지를 섭취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그 이미지는 상징의 언어(문화)의 반영일 뿐이기 때문에 언제나 결핍이거나 과잉이다. 총체성으로서의 상징은 실현되지 못하고 이미지 단계에서 지연되고 연기된다.

멜랑콜리의 언어의 맞은편에는 ‘은유’가 놓인다. 세계 속에서 은유는 그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유사성의 충일성 속에 둔다. 둘은 하나의 총체적 이미지를 구성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의미와 이미지를 창출’¹⁴⁾한다. 그 맞은편의 멜랑콜리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자발적으로 상실한 언어이다. 멜랑콜리의 언어는 따라서 ‘밑도끝도없는’ 언어이다. 자발적으로 언어를 포기한 언어, 모든 언어들이 제 손으로 의미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바라보는 시선 자체다. 멜랑콜리의 언어는 시선으로서의 언어이다.

그래서 멜랑콜리의 언어의 특기는 독창적 이미지를 언어로 빚어내는 것이다. ‘보통의 상식

12) 발터 벤야민, 같은 책, 23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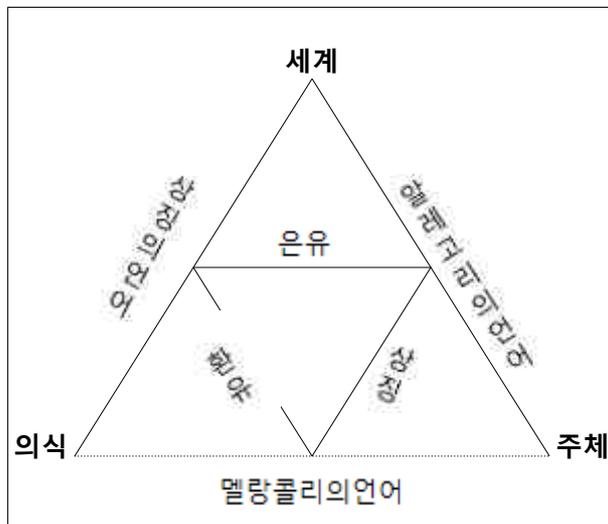
13) 발터 벤야민, 같은 책, 161쪽.

14) 김동규, 「하이데거의 멜랑콜리 해석」, 『해석학연구』 제21집, 한국해석학회, 2008, 141쪽.

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사태와 사태, 인접불가능하게만 여겨지던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 은유제작 능력, 그런 상상력의 비상 능력을 멜랑콜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¹⁵⁾

마지막으로 알레고리의 언어와 마주하고 있는 수사의 언어는 ‘환유’이다. 기의와 기표가 끊임없이 전이되는 것은 환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알레고리는 흔적과 파편들을 유기적으로 꿰매어 역사의 동질성 속으로 편입하기보다 “원자화된 물질적 파편들을 의미의 무한하고 인과적 동기가 없는 성좌의 형태속으로 끌어들이는 글쓰기 실천 그 자체”¹⁶⁾로 평가받고 있다. 도미노는 알레고리와 환유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놀이(현상)이다. 꼬리의 꼬리를 무는 인접성이 환유의 특징이라면,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를 최후에 드러내는 것이 알레고리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문화적 텍스트의 의미의 장은 상징의 언어, 알레고리의 언어, 멜랑콜리의 언어를 통해 ‘없는 바깥’과 경계를 가름한다. 문화가 열어놓은 의미의 장 심처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침묵의 언어들’이다. 형상 직전, 이미지가 되기 직전의 언어들인 파편으로 유명하고 있는 문학 바깥의 장은 상징, 은유, 환유의 수사적 언어가 경계를 이룬다.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텅빈 중심의 공간에 성좌가 되기 전의 별들과 같은 언어들에 섞여 문학가, 비평가는 자리한다. 여기에서 시향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지향되는 의미는 다르다. 총체성이라는 글레서 벗어났다면 시향은 더욱 자유롭다. 은유를 거쳐 세계를 지향할 때 정치성의 발현으로, 상징을 거쳐 주체를 지향할 때는 ‘자기 윤리성’의 구성으로, 환유를 거쳐 의식을 지향할 때 ‘예술성’의 모색으로 문화적 역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5) 김동규, 같은 논문, 144쪽.

16) 김용규, 같은 책, 299쪽.

4. 세 가지 시향(視向)

문화는 ‘무(無)’인 외부와 문학이 스스로를 비워내면서 마련한 내부의 ‘무(無)’ 사이에서 진동한다. 이 진동은 문화의 편재성들이 다채로운 의미를 발산하게 해주는 동력학의 에너지를 제공한다. 스스로 비워낸 문학이, 그러므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진정한 부재’이다.

단 한번도 소유해 본 적이 없기에 상실한 적도 없는 대상을 이러한 부정적인 방식으로 소유하는 우울자에게, 진정한 소유의 대상은 바로 상실감 그 자체이다. 그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그리하여, 상실된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의 부재이며, 이 대상이 현존하지 않은 한에서 그것은 늘 점유를 향한 우울자를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한다.¹⁷⁾

능동성의 부재를 통해 문학이 의도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문화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문화의 한 산물로 편재되는 것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화 내에서 형상성의 역능, 이미지의 역동적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문학은 독자적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 속에서 문학의 정체성이 확보될 때 ‘문학의 ‘외부’에 위치한다는 것과 문학의 내부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 문학 형성을 본질화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문학 외부와 어떻게 관계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때, 문학의 제도구성론은 계속적으로 공소한 주장만 보여주거나 문화연구로 옮겨갈 수밖에 없게 될 것¹⁸⁾이라는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이 스스로 비워낸 자리는 침묵의 것이다. 그런데 이 침묵은 조금 특별한 침묵이다. 다른 맥락이기는 하지만 침묵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해석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궁극적으로는 침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과제가 된다. 끊임없이 말하게 만드는 작업이 바로 글쓰기이다. 여기서 침묵은 글쓰기 이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의 움직임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그것은 우리가 말하기를 계속해야 하는 대상인 어떤 것이 표출을 기다리는 행위에 관련된다고 말할 수 있다. 침묵은 아직 논리 정연한 말로 표현되지 않은 끊임없는 증언거림을 내포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¹⁹⁾

확자지결한 침묵의 언어는 글쓰기를 통해 더욱 깊어진다. ‘글쓰기란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에 관련되기보다는 침묵 속의 말의 폭발과 더욱 관련을 가진다. 글쓰기는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말을 하도록 하는 것’²⁰⁾이라는 견해는 매우 설득력이 있다. 이 침묵의 글쓰기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문학 연구자의 시선은 ‘사회’와 ‘자기’와 ‘예술’에 닿는다.

4.1 정치성

문학과 정치는 타자를 지향하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문학의 경우 타자의 자리에 ‘나’를 놓을 때 내적 모더니티가 획득된다. 반대로 타인을 놓을 때는 계몽의 문학이 되든지, 프로파간다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 역시 문학 내부의 시선이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에 있어서는 특별한 반성의 계기로 작용하는 것 같지 않다.

17) 김홍중, 「멜랑콜리와 모더니티-문학적 모더니티의 세계감 분석」, 『한국사회학』 제40집, 한국사회학회, 2006, 20쪽.

18) 김용규, 같은 책, 382쪽.

19) 박규현, 「블랑쇼, 비(非)-현전으로서의 책의 문제」, 『비교문학』 제30집, 한국비교문학회, 2003, 322쪽.

20) 박규현, 같은 논문, 322쪽.

계몽의 문학이나 ‘찌라시’, ‘빠라’와 구별이 되지 않는 문학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정치 현실에서 요구되는 이념의 언어와는 다르다.

정치적 관점에서 문학의 언어의 과제는 어떤 보이는 무엇에 대한 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기준들을 정립하는 데 있지 않고, 반대로 모든 보이지 않는 함께-있음을 작품을 통해 제시하는 데에, 실현하는 데 있다.²¹⁾

정치의 언어가 실현 가능한 공동체를 지향한다면 문학의 언어는 밝힐 수 없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문학의 언어는 보이는 ‘무엇’이 현실에서 절대화될 때, 현실 배후에 놓여 있는 너무나 명백하고 까발려진 언어인 이념을 검증하고 감시하는 침묵의 언어, 음악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²²⁾는 견해는 타견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문학의 정치성은 흔히 말하는 현실 정치와는 구별해야 한다. 그것은 시선의 지향과 기만의 방식에서 특히 구별 된다. 현실 정치에서는 주체의 시선이 타자에게 일방적으로 향한다. 시선의 작동 원리는 타자를 자기화하는 투사의 방식이다. 반면 문학의 정치성에서 시선은 ‘반보기의 시선’²³⁾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는 타자를 향해 자기를 벗으며 간다. 타자 역시 스스로 대상성을 탈각하면서 주체어로 다가온다. 미메시스의 방식으로 시선이 작동하는 것이다. 주체와 타자 모두 스스로를 떠났음으로 의미는 현실에서 구성되지 않고 허구 속에서 구성되는 것은 당연하다.

주체와 타자, 주체와 자기의 관계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맺어진다. 기만을 구성하는 두 개의 핵심적인 향이 ‘진실’과 ‘거짓’이다. 이 핵심향을 공유하기 때문에 정치는 ‘서정성’을, 문학은 ‘정치성’을 하나의 특성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그 지향점은 전혀 다르다. 정치는 ‘거짓된 진실’, ‘위선(偽善)’을 지향한다. 반면 문학은 ‘진실된 거짓’, ‘위악(偽惡)’을 지향한다. 정치는 타인을 기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문학은 ‘자기 기만’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문학의 정치성은 궁극적으로 ‘자기 정치성’일 수밖에 없다.²⁴⁾

다채로운 ‘앎’이 다양한 형태의 ‘힘’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그 통로(과정)가 여럿이어야 한다. 그런데 후기산업사회는 이 통로를 교환가치로 일원화하고 있다. 유일하게 문학은 교환가치를 거부함으로써 교환가치를 획득한다. 스스로 ‘상품’이기를 거부함으로써 ‘상품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현실의 불합리에 대한 발언을 문학의 담론은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 문학이 놓인 아이러니 자체가 현실 내부에서 반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학은 태생적으로 다양성, 다성성을 지향한다. 문학과 정치를 논할 때 문학은 그 자체 속에 정치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때 문학의 정치성은 문학의 본질적 특성은 아닌 것 같다. 문학 외적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효과이자 정치의 규정력을 일컫는 것이겠다.

물론 이것은 정치의 통치의 개념으로 보는 데서 비롯된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다. 정치를 공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모든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것 역시 문학보다는 현실 정치와 더 깊은 연관성을 보인다. 문학의 정치성은 현실을 넘어서는 밝힐 수 없는 공동체, 바깥에 관한 발언과 관련된다.²⁵⁾

21) 박준상, 『바깥에서』, 인간사랑, 2003, 193쪽.

22) 박준상, 같은 책, 194쪽.

23) 반보기는 서로 멀리 떨어져 살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척 부인네들이 두 집 사이의 중간쯤 되는 산이나 시냇가 등지에서 만나 장만하여 온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하루를 즐기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24) 전동진, 「문학의 정치성 연구 - <오월시 동인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70집, 한국언어학회, 2009, 380쪽.

25) 전동진(2009), 같은 논문, 381쪽.

4.2. 자기 윤리성

자기 윤리는 타자의 자리에 자기를 놓음으로써 형성된다. 자기와의 관계맺음에 작용하는 가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윤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복수의 ‘자기’가 필요하다. 이때 복수의 주체를 ‘분열’로 볼 경우에는 정신병리적 현상으로 왜곡될 수 있다. ‘자기’는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자기’이다.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알레고리적 침잠’이 선행되어 한다.

알레고리적 침잠은 객관적인 것의 마지막 환영을 떨쳐내야만 하고 전적으로 자기자신에 의지한 채 더 이상 지상의 사물세계에 유희로서가 아니라 하늘 아래서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게 한다.²⁶⁾

이렇게 재발견된 ‘자기’와 관계맺는 방식이 자기윤리인 것이다. 더구나 자기 윤리는 수치스러운 현실태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문제와도 연결된다.²⁷⁾ 자기 자신의 무엇인가를 해방하는 것은 자기 정치의 과제다. 자기로부터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해방하는 것, 그것을 언어로 포착하는 것이 문학의 역할이다.

이것은 실천의 문제와도 결부된다. 문학의 언어로 이 해방의 과정을 포착하는 것은 자기 배려에 입각해서 수치스럽지 않은 자기를 생각하는 절차와 실천에 닿아 있는 것²⁸⁾이라고 푸코는 말하고 있다. 이 실천의 핵심에는 단 한번도 되어본 적이 없는 자기가 되기²⁹⁾라는 중심 테마가 자리하고 있다.

자기 윤리의 핵심 구성 인자는 ‘언어와 권력’이다. 정치적 범주에서의 권력은 언제나 과거에 존재했던 것에 접근한다.³⁰⁾ 정치인을 판단하는 것은 그의 현재나 미래가 아니라 과거다. 자기 윤리에서 권력은 현재적이다. ‘현재가 지닌 힘’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과거도 미래도 하나의 재료로 가져다 쓸 수 있다.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적 틀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적인 발전은 이미 상실되었다. 결핍, 소유, 쾌락, 고통 같은 인간학적인 범주로 상실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래서 유일한 행복의 순간을 과거나 미래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오로지 ‘언제나 현재적인 것만이 지속하는 상태’³¹⁾라는 견해도 있다.

현재에 새로운 힘을 끊임없이 부여하기 위해서는 ‘산책자의 시선’과 ‘상승의 시선’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산책자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재발견하게 된다. 상승의 시선을 통해 언어를 새롭게 배치할 수 있게 된다.

산책자의 시선을 견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과거를 불러오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익숙한 경험의 영역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벗어나는 데에 있다. 과거가 하나로 굳어지지 않고, 언제든지 마치 처음 대하는 것 같은 새로운, 생소함이 산책자가 추구하는 본질인 것³²⁾이다. 따라서 산책자의 시선이 머무는 것은 풍경이 아니다. 풍경을 지나친 시선을 통해 새로운 ‘자기’가 걸어들어 오게 된다.

26) 발터 벤야민, 같은 책, 349쪽.

27) 전동진, 「윤동주의의 탈근대성 연구」, 『한국시학연구』 제 23호, 한국시학회, 2008, 337쪽.

28) 미셸 푸코, 심세광 옮김, 『주체의 해석학』, 동문선, 2007, 28쪽.

29) 미셸 푸코, 같은 책, 132쪽.

30) 홍준기, 「변증법적 이미지, 알레고리적 이미지, 멜랑콜리 그리고 도시 - 벤야민 미학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고찰」, 『라캵과 현대정신분석』 제10집, 2권, 한국라캵과 현대정신분석학회, 2008, 36쪽.

31) 최문규, 「“바로크”와 알레고리-발터벤야민의 언어이론」, 『뫼히너와 현대문학』 제16권 1호, 한국뫼히너학회, 2001, 214쪽.

32) 김길웅, 「시간과 멜랑콜리: 1930년대 근대도시 베를린과 경성에서의 산책 모티프를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제36집, 한국독일언어문학회, 2007, 263쪽.

이렇게 재발견된 자신을 배려한다는 것은 자신의 시선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말하자면 시선을 외부로부터 내부로 이동시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³³⁾ 사람들이 자기 배려를 하는 이유를 푸코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이고,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갖기 때문이라고 말한다.³⁴⁾

산책과 자기배려는 언어를 통해서, 언어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인간은 인간이기 위해서 스스로를 언어의 감옥에 유폐한 존재들이다. 이 ‘언어의 감옥’으로부터의 도피처는 없다³⁵⁾고 말한다. 그래서 언어의 진폭을 키우는 것이 감옥에서의 자유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벤야민은 언어가 자신의 본질을 가장 낮은 존재에서 인간을 거쳐 신에게 이르기까지 전 자연을 관통하며 부단하게 전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³⁶⁾ 산책자의 시선을 통해 발견된 자기는 ‘가장 낮은 존재’와 ‘신’ 사이에 놓인 모든 언어를 타며 상승하고 하강한다. 가장 깊이 있는, 그러면서 가장 넓은 품을 가진 언어 속에서 주체는 같은 자기를 반복할 겨를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스스로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 ‘유한성 내에서의 승고’³⁷⁾에서의 최대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자기 윤리성의 핵심에 자리하는 것이다.

4.3. 예술성

문학을 포함해서 예술이 당면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적·공적 영역에서 그 미적 역능을 현저히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술은 아우라의 상실, 본래적 가치를 상실했음은 물론 사용 가치, 교환가치에 의해 값이 매겨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화산업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가 되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예술의 각 영역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헤치면서까지 비예술적 영역과의 혼종, 착종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문화’는 예술을 떼어내고 ‘산업’과 짝을 이루었다. ‘문화예술’이라는 말보다는 ‘문화산업’이라는 말이 훨씬 자연스럽게 들릴 정도이다.

현실 사회에서 극단적으로 예술성만을 추구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산업쪽으로 기우는 것만큼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예술 간의 상호 소통을 통해 예술 전반과 미학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토대를 서둘러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다원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은 허위로 판명난 지 오래다. 파편적인 삶이 모여 하나의 전인적인 삶을 재구성할 수 있을 거라는 낭만주의적 시선들은 여전히 예술성의 한 극단을 탐색하고 있다. 좀더 주체의 능동적인 삶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다른 ‘파편들’로의 자발적인 전이를 강조한다.

파편화된 삶으로의 자발적 지향은 자신의 삶의 전과정을 알레고리로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예술 역시 자기 정체성, 자기 존재의 논리적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상징이 아니라 알레고리이다. 예술을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역시 알레

33) 미셸 푸코, 같은 책, 53쪽.

34) 미셸 푸코, 같은 책, 118쪽.

35) 리처드 윌슨, 「신역사주의의 역사화」, 『신역사주의론』, 한신문화사, 1994, 6쪽.

36) 김유동, 「“순수언어”에 대한 기억」, 『뫼히너와 현대문학』 제33집, 한국뫼히너학회, 2009, 275쪽.

37) 김동훈, 「발터벤야민의 승고론 - 예술비평, 번역, 알레고리, 아우라 개념을 중심으로」, 『미학』 제52집, 한국미학회, 2007, 96쪽.

고리의 방식이다.

현실에서 대부분의 새로움은 예술적 창조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 의해 기획되고 실현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자본의 위력이 이리하다 보니 ‘보편적 세계의 존재’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의 보편성이 상실되는 것과 궤를 같이하여 예술의 특수성에 대해 배려해 주거나 살피주었던 시선 또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새로움이라는 특수성에서 자기 정체성을, 존재감을 획득할 수 없게 된 예술에는 이제 자기 본연에 대한 탐구, 존재의 깊이에 대한 탐구의 영역이 남겨졌다. 예술성에의 지향 역시 스스로 비워낸 ‘무(無)의 텍스트’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예술이 인간을 자신의 근거로서 인식하는 대신 자신의 현상을 만들고, 인간을 자신의 창조자로서가 아니라, 그의 현존을 자신의 형성의 영원한 소재로 인식할 정도로 예술이 현존재의 중심을 차지하는 곳에서 냉정한 성찰은 사라진다.³⁸⁾

따라서 예술 작품의 존재 의의는 감각적 대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영원한 것은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없기 때문에 작품 자체 안에서 발견되어야 한다.³⁹⁾ 그렇다고 예술은 자신 안에 자신의 존재 의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시선의 지향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예술에 대한 종합적 성찰을 통과한 언어는 기호의 언어에서 이미지의 언어로의 전환이 가능해 진다. 다양한 장르와 문학의 통섭은 이미지의 언어로의 전환에 많은 영감과 소재를 제공해 줄 것이다. 언어는 이미지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 맺음말

괴테는 알레고리를 규정하면서 ‘시인이 보편적인 것을 위해 특수한 것을 찾는지 아니면 특수한 것 속에서 보편적인 것을 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전자의 방식에서 알레고리가 생겨난다고 보았다. 스스로 문학 연구의 중심을 지향하는 이들에게 남겨진 과제는 대표적으로 둘을 들 수 있다. 하나는 괴테가 말한 수사적 의미의 알레고리적 방식으로 문학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때 연구자들은 제반 문학적 현상들을 통해 문학의 본질을 구현하고자 할 것이다. 후자의 방식은 상징에 가깝다. 이것은 한국문학의 세계적 보편성 획득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한국문학 연구의 핵심에는 이렇게 지역성을 탈피하려는 노력이 자리잡고 있다. 그 핵심의 외곽지역에는 또다른 지역성을 탈피하는 데 노력을 쏟고 있는 연구자들이 있다. 이들은 이중의 ‘지역성’이라는 굴레를 쓰고 있는 셈이다.

이 이중고를 ‘두 겹의 즐거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시선의 전회가 필요하다. 문학에서 문화로, 상징에서 이미지로, 이미지를 통해 알레고리로, 멜랑콜리로 주체의 존재 기반을 옮겨가는 것이다. 그때 보편과 특수 개념은 실천의 이념으로 녹아들게 된다.

38) 발터 벤야민, 같은 책, 153쪽.

39) 김동훈, 같은 논문, 75-76쪽.

기존의 질서에 위반을 시도하는 시선의 전회는 ‘나머지’, ‘타자’였던 것들의 엄밀성을 확보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 지적 영역에서 가장 난감한 것이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이때 감성은 합리성의 또다른 이름이며 이미 엄밀성을 획득한 이성의 타자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문화의 편재성 속에서는 좀 더 강렬하게 ‘감성’에 호소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감성은 합리적인 대신 감동적이어야 한다. 물론 ‘엄밀성’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 전제가 될 것이다.

여백이 없는 곳, 그곳이 중심이라면 더더욱 종합적인 시선을 견지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 시선을 하나로 모아 ‘문학의 형상성’을 직시하게 된다. 이 형상성의 시선은 날카로운 시선, 꿰뚫는 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편재성의 시선은 종잡을 수 없는 시선이면서 입체성의 시선을 지향한다. 가장자리에서의 시선이 중심처럼 작동하고자 한다면 아무리 잘 보아도 반쪽밖에 볼 수 없게 된다. 산책과 상승을 통해 시선을 자유롭게 풀어주면 아주 멀리까지 볼 수 있다. 그렇게 넓고 높아진 시선으로서의 ‘가상의 시선’이라면 전체를 관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문학의 형상성과 문화의 편재성이 역동적으로 교직하고 교섭하고 통합할 때, 문화로서의 텍스트는 좀 더 많은 미지의 것들을 언어로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역으로 기존의 것들도 미지의 것들로 자유롭게 풀어놓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길용. 2007. 시간과 멜랑콜리:1930년대 근대도시 베를린과 경성에서의 산책 모티프를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36. 한국독일언어문학회.
- 김동규. 2008. 하이데거의 멜랑콜리 해석. <해석학연구> 21. 한국해석학회.
- 김동훈. 2007. 발터 벤야민의 숭고론 - 예술비평, 번역, 알레고리, 아우라 개념을 중심으로. <미학> 52. 한국미학회.
- 김성곤. 2003. <문화연구와 인문학의 미래>.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용규. 2004. <문학에서 문화로>. 소명출판.
- 김유동. 2009. “순수언어”에 대한 기억. <뫼히너와현대문학> 33. 한국뫼히너학회.
- 김윤식. 1998. 이상문학과 지방성 극복의 과제, <이상문학연구 100년>. 문학사상사.
- 김홍중. 2006. 멜랑콜리와 모더니티-문화적 모더니티의 세계감 분석. <한국사회학> 40. 한국사회학회.
- 리처드 윌슨. 1994. 신역사주의의 역사화. <신역사주의론>. 한신문화사.
- 미셸 푸코. 2007. 심세광 옮김. <주체의 해석학>. 동문선.
- 박규현. 2003. 불량쇼, 비(非)-현전으로서의 책의 문제. <비교문학> 30. 한국비교문학회.
- 박준상. 2003. <바깥에서>. 인간사랑.
- 발터 벤야민. 최성만·김유동 옮김. 2009. <독일비애극의 원치>. 한길사.
- 에드문트 후설, 김종훈 옮김. 1998. <시간의식>. 한길사.
- 이성적. 이상문학의 세계감. <반교어문연구> 26. 반교어문학회.
- 자크 데리다. 2004. <글쓰기와 차이>. 동문선.
- 전동진. 2008. 율동주시의 탈근대성 연구. <한국시학연구>. 한국시학회.
- 전동진. 2009. 문학의 정치성연구 - <오월시동인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70. 한국언어문학회.
- 최문규. 2001. “바로크”와 알레고리-발터 벤야민 언어이론. <뫼히너와 현대문학> 16-1. 한국뫼히너학회.
- 홍준기. 변증법적 이미지, 알레고리적 이미지, 멜랑콜리 그리고 도시-벤야민 미학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고찰. <라깡과 정신분석> 10-2. 한국라깡과정신분석학회.

문학의 형상성과 문화의 편재성

-지역연구자의 정체성과 연구방법 모색을 위한 제언

전성욱(경성대)

이 논문은 지역에서 문학을 연구한다는 것에 대한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자의식 속에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제기가 담겨 있습니다. 문학연구라는 것이 문화주의의 파고 속에서 주변화되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지역연구자의 한계를 토로합니다. 그리하여 이 논문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논문의 독자들은 그 문제제기가 얼마나 정당하며, 또 그 해결책(대안)의 내용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바로 그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1. 먼저 이 논문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제기의 내용에 대해 묻습니다.

“문학연구만을 지향할 때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을 연구의 중심에 놓는 것은 서울에서 주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구자들에 비해 일정한 성과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 지역의 출신의 작가들을 주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에 대한 연구가 서울과 여타 지역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어떤 질적인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만약 그런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 논문은 그것을 논리적으로 해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이런 구절도 대단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연구자들은 세계문학의 보편성과 한국문학의 특수성 사이에서 놓여 있다. 그러면 서 동시에 한국문학의 보편성과 지역 문학의 특수성 사이에서 놓여 있기도 하다.”

세계, 한국, 지역이라는 범주는 학문적으로 엄격하게 정의되어야 하는데 상식적인 차원에서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단지 범주의 크기 순으로 나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계문학의 보편성과 한국문학의 특수성, 한국문학의 보편성과 지역 문학의 특수성이라는 대립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분류야말로 관념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식의 이항분류는 각각의 대상이 가진 차이와 이질성을 억압함으로써 하나의 폭력적인 보편을 관철시킵니다. 따라서 이 분류엔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위에서 정리한 분류체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표자께서는 ‘문학연구와 문화연구의 올바른

통섭’, 그러니까 ‘문학의 형상성과 문화의 편재성’의 통섭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문학에서 문화로, 상징에서 이미지로, 이미지를 통해 알레고리로, 멜랑콜리로 주체의 존재 기반을 옮겨 가는 것이다. 그때 보편과 특수 개념은 실천의 이념으로 녹아들게 된다.”

바로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후설과 하이데거, 벤야민과 미셸 푸코 등의 사상과 철학을 장황하게 정리하고 계신데, 과연 그 정리가 얼마나 타당한가의 문제를 떠나 그것이 정말 ‘문학의 형상성과 문화의 편재성’의 통섭이라는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성을 갖고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이 논문은 구체적인 논의 대상이 없이 너무 이론적인 논의로 일관함으로써 관념적 성격을 진하게 노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50년대 문학 장의 재편과 지역문학의 형성

김대성(부산대)

차 례

1. 폐허와 신생 : 한국전쟁, 국문학, 그리고 ‘문학들’
2. 냉전 서사로서의 ‘피난문단’과 그 역설
3. 냉전체제와 세계화 사이의 지역문학
4. 결론을 대신하여 : 로컬리티에 대한 사유와 냉전의 서사를 넘는 방법

1. 폐허와 신생 : 한국전쟁, 국문학, 그리고 ‘문학들’

한국문학에 있어 1950년대라는 시기가 담고 있는 의미는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1950년대 한국 문학에 대한 연구사의 흐름은 ‘전후’가 지닌 양면성, 즉 모든 것을 파괴되어 버린 폐허로서의 전후의 의미에 초점을 두는 경향과, 그 폐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구성의 동학을 재평가하는 경향으로 크게 대별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후문학’에 대한 기존의 주요 연구들은 주로 폐허라는 전후의 성격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전쟁 경험과 문학적 형상화의 관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많은 논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1950년대를 문학은 ‘한국전쟁’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이는 “50년대 소설의 성격을 구명할 때, 이와 불가분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전쟁의 경험과 영향력”이었으며 “50년 이래 한국 현대 소설의 제반 내용과 구조는 6·25의 전쟁 체험과 영향의 삼투적 성격과 기능을 배제해 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이재선의 언급⁴⁰⁾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전쟁이라는 물리적 사건과 소설이라는 예술적 범주와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이재선의 언급은 1950년대 문학을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의 역할을 한다. 김윤식과 정호웅 또한 한국전쟁을 빼놓고 1950년대 문학을 이야기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나 관심의 대상은 한국전쟁을 다룬 소설들의 문학적 성과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이재선의 논의와 차이를 가진다. 그는 “6·25를 다룬 우리 소설의 대부분은 전쟁의 압도적 압력에 휩쓸려 한갓 비극적 순간의 포착에 머무르거나, 또는 설익은 고발이나 소박한 휴머니즘의 수준에 맴돌았으며, 아니면 이념적 이분법의 틀에 갇혀 경색된 추상적 관념의 세계를 구성하는 데 그쳤다”⁴¹⁾거나 휴머니즘과 반공 이데올로

40)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81쪽.

기라는 두 개념향으로 1950년대 소설이 이해가능하기에 일상적 삶의 세계는 도외시되거나 부차적으로 취급되어 불구의 형식을 낳았다는 비교적 인색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를 ‘추상적 무시간성의 형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바 이 시기의 소설이 대개 사회·역사적 계기들과 개인적 계기들의 구체적·유기적 연관과는 무관하게 ‘전쟁 일반’, ‘인간 일반’이란 추상적 범주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김현이 지적한 “사고와 표현의 괴리 현상”⁴²⁾에서도 확인된다.

김현의 논의는 김윤식과 마찬가지로 50년대 문학이 ‘추상적 무시간성의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공유하면서도 이를 전후세대의 (언어적) 정체성, 즉 이중언어자로서의 ‘전후 세대’라는 통찰과 결부시키고 있다.⁴³⁾ 김현에 의하면 전후세대는 언어를 둘러싼 자신들의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이념의 발견과 한국어의 발견을 지향하고자 했으나 “전자는 이념에 상응하는 실체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후자는 표현을 넘어서는 이념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언어의 혼란과 감정의 극대화라는 현상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존주의’에 의탁해 새로운 휴머니즘으로 한국사회를 그려내 보이려고 한 전후세대들의 문학적 욕망은 ‘한국적 상황’이라는 역사적·사회적 구체성은 휘발되고 보편적인 인류라는 추상성만 남게 된다는 김현의 평가는 김윤식·정호웅의 ‘추상적 무시간성 형식’과 공명하고 있는 셈이다.⁴⁴⁾ 1950년대를 “오문(謬文)과 악문(惡文)의 범람 시대”⁴⁵⁾로 규정하고 있는 유종호의 평가까지 가세할 때 이들을 어렵지 않게 ‘한글세대’로 범주화해볼 수 있다. 이들에게 1950년대는 4·19를 기점으로 출현하는 1960년대 세대를 예비하기 위한 혼란기일 따름이며 이는 이들의 문학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에 반해 고은은 1950년대를 새로운 문학이 출현한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요한다. 그는 “1950년대 문학이 전쟁 또는 전후문학이라는 소재주의로 단정하면 그만이거나 그것이 다른 시대에 대질되어서 논의되는 것을 끝날 일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6·25 문학이야말로 한국문학의 가능성에 대한 보편적이 진단이 될 수 있다”⁴⁶⁾고 주장한다. 그가 1950년대를 ‘제 2의 개화기’로 규정하는 것은 한국전쟁 전까지의 문학은 성황당문학이라는 입장에서부터 연유한다. 한국전쟁 전까지의 한국문학은 민속문학으로 재래적 향토주의를 강요함으로써 문학이 사회적 역사적 기능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글세대’들의 주장이 전쟁 이후를 예비하는 것이라면 고은의 주장은 전쟁 이전과의 차별성을 근간으로 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하는 1950년대 한국문학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전후(아프레 게르 apres guerre)’라는 시대적 상황을 담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후’는 모든 것의 파괴와 함께 새로운 것의 탄생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많

41)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354쪽

42) 김현, 「테러리즘의 문학-50년대 문학 小考」, 《문학과지성》 1971년 여름호(『현대 한국문학의 이론/사회와 윤리』(김현문학전집 2), 문학과지성사, 1991, 241쪽)

43) 이중언어라는 전후세대의 언어적 정체성과 주체 구성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한수영, 「전후세대의 문학과 언어적 정체성」, 임형택 외, 『흔들리는 언어들-언어의 근대와 국민국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8을 참조.

44) “작가들은 모국어의 자유로운 구사 능력을 갖추지 못한 ‘모국어 감각의 불구상태’에 놓여 있던 것이다.”(김윤식·정호웅, 앞의 책, 349쪽)라는 대목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능하다. 김윤식은 이러한 추상적 무시간성의 극복이 1960년대에 들어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평한다. “전쟁의 충격이 워낙 컸기에 전후소설은 대체로 서사양식 미달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의 객체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인데, 전후소설이 배태하고 있던 가능성의 싹들이 발아, 결실되는 것은 60년대에 들어서이다” 앞의 책, 379-380쪽.

45) 유종호, 「소외와 허무」, 『한국현대문학전집』26, 삼성출판사, 1981, 450쪽

46) 고은, 『1950년대-그 폐허의 문학과 인간』, 향연, 2005, 15쪽

은 것들이 사라지고 또 많은 것들이 새롭게 창궐하는 시기가 바로 1950년대라는 점에서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 시기를 해석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분화될 수밖에 없다.

최근의 연구들은 한국 전쟁과 냉전 체제로의 유입을 1950년대 문학장의 변화와 ‘국문학’의 창출이라는 지점과 관련하여 규명하고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차 대전의 종전, 해방, 한국 전쟁과 휴전, 분단의 과정은 세계 체제의 재편과 이에 따른 한반도의 정치 경제적 질서 재편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그러나 이 과정은 동시에 “국문학”이라고 하는 것, 혹은 문학이라는 것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장의 편성에도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아니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국문학, 문학 등의 범주, 함의, 제도적 토대를 논하기 위해서, 이차대전과 한국 전쟁이라는 두개의 전쟁과 ‘전후’를 경유해야만 한다. 기존 논의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국문학’이라는 용어는 정치적 해방에 상응하는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國’의 본래 개념을 회복하고 나아가 본격적으로 정립된 것이다. 국문학이라는 명명 방식이 국민국가 이념을 공고히 하는 국가주의로부터 비롯된다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기의 한국문학은 ‘국가(國)’의 재건과 상호 밀접한 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⁴⁷⁾

1950년대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문학 장의 재편은 한국전쟁이라는 세계사적인 사건과 긴밀한 연관 속에 놓여 있다. 한국이라는 국가 좌표의 변경은 지식인들의 변경된 자기 표상 방식과 무관하지 않으며 반공국가 체제를 통해 폐허가 된 국가를 재건하는 당위와 궤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전세계의 권력 구도의 재편과 냉전시대의 개시라는 세계사적 자장 속에 한국이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증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은 냉전체계의 범세계적 고착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세력 팽창을 위해 기획된 세계사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민족간의 전쟁은 열강 아시아에 대한 권력의 재분할을 위한 대리전적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대외적 자기 정체화의 구조에도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한국전쟁이 반공국가의 자기 정당성 확보에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블록화된 세계 무대에 ‘전투’ 주체로서 참여했다는 데서 국가 정당성을 찾아낸 지식인들은 한국을 냉전 세계지도의 한가운데로 갖다 놓기에 이른다.⁴⁸⁾ 이와 같은 국가적 위치 이동은 휴전 후 논단에서 “세계건설”, “세계문제”, “세계인류 구원”, “세계평화”라는 보편주의적 어사를 동원해 냉전의 서사를 쓰고 한국전쟁의 의의를 역설하는 경우로 나타난다.⁴⁹⁾

한국전쟁으로 인해 한국이 세계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지식인의 인식 속에는 해방정국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거나 일제시대에 대한 정리기획이 채 실행되지 못한 상황에 놓인 남북한의 1950년대를 관통하고 60년대와 70년대의 전지구적 냉전체계의 서막으로서, 그리고 분단의 고착화가 생산해내는 각종의 민족 모순의 서두로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 문학사에 있어 하나의 뚜렷한 흔적과 같은 것으로 남아 있다.⁵⁰⁾

1950년대 문학 및 문화·예술의 제도적 변화 추이에 대해서는 이봉범의 논의를 참조해볼 수 있다.⁵¹⁾ 전후문학 장의 재편에 관한 이봉범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권위주의

47) 1950년대 국문학 연구의 형성과 논리를 <국어국문학회>를 중심으로 하는 학문 세대와 관련하여 제도사적인 맥락에서 규명한 논의로 박연희, 「1950년대 ‘국문학 연구’의 논리」, 《사이間SAI》 2호, 2007를 참조.

48) 이와 관해서는李建鎬·金基錫·趙奎東·梁秉植 共著, 『1952年』을 참조.

49) 김예림, 「냉전기 아시아 상상과 반공 정체성의 위상학」,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편,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1, 현실문화, 2008, 104쪽. 김예림은 이 논문에서 해방기부터 한국전쟁 전후에 이르는 시기를 대상으로 한국의 냉전적 아시아 상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탐색하고 있다.

50) 정영화, 「1950년대 소설 연구—선우회와 손창섭을 중심으로」, 《語文論集》 30輯, 2002, 348쪽

51) 이봉범, 「전후 문학 장의 재편과 잡지 『문학예술』」, 《상허학보》 20, 2007

적 정치체제의 확립에 따른 국가주도의 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왜곡된 형태로나마 근대적인 문화제도의 골격이 형성된다. 특히 교육과 문화정책 전반을 관장하고 있던 문교부가 중심이 되어 입안·시행한 각종 제도와 정책 속에서 뚜렷이 나타나는데, 의무교육제도, 문명퇴치운동, 외국도서번역사업, 문화보호법에 의한 학술원 및 예술원의 창설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정책은 냉전적 반공주의를 문화적으로 확대 강화해 국민국가 형성의 문화적 기초를 조성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예술계에 획기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1950년대 문단 재편은 ‘국가 만들기’ 프로젝트와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전쟁을 거치면서 국가권력과 유착-종속을 강화해 재생산기반을 굳건히 확보했던 우익문단 내부의 이권 투쟁에 다름 아니었다. ‘문화보호법’ 공포(1952. 8. 7), ‘문화인등록령’ 공포(1953. 4. 14), 예술원 선거(1954. 3. 25)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무엇보다 문화예술을 국가권력에 종속시키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이봉범은 1950년대를 ‘창조적 변혁의 전환기’로 재규정하는 움직임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학사에서 1950년대를 정체, 퇴영, 반동의 시대로 규정하는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전후 문학 장의 재편은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조건과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단의 분열 및 대립의 차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전후 문학 장의 재편이 담고 있는 풍부한 가능성과 의미를 놓치게 된다고 말한다.

전후문학 장의 재편을 통한 국문학과 국가의 상호관련성, 문단권력의 재편과 스스로의 존재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세대론적 투쟁 등의 분투 등의 대문자 ‘문학’의 틈바구니에서 발화하기 시작하는 소문자 ‘문학들’의 출현을 발견하게 된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1950년대 한국문학 장의 재편이 가지는 의미보다 ‘폐허와 신생’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출현하는 ‘문학들’의 양상에 있다. 가령 전시기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여성잡지나 학생 잡지의 광범위한 보급과 과장 효과는 기왕의 주체들과 변별되는 새로운 주체들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의 의미를 가진다. 물론 이 시기의 여성을 지칭하는 ‘아프레 걸’이 분방하고 일체의 도덕적인 관념에 구애되지 않고 구속받기를 잊어버린 여성들을 뜻하는 성정 방종이라는 의미로 편향된 호명 방식인 터라 새로운 주체란 곧 오염된 주체, 교정 및 계도를 통해 개량되어야 하는 부류로 규정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은 전시기부터 긴 시간동안 초유의 판매고를 올린 《학원》을 필두로 하는 학생들의 상황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국가 시스템에 포섭되어야 할 대상,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것으로 규정된 이들이 ‘국민’이라는 범주로 간단히 환원될 수는 없다. 그것은 《여원》이나 《학원》 등의 여성 잡지, 학생 잡지의 심급에 대문자 ‘문학’이나 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놓여 있었다고 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1950년대라는 중층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출현한 다양한 주체들의 양상을 살피고 그것이 함의하는 바를 밝히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50년대라는 시기에 주목해야 하는 영역은 바로 지역문학의 비약적 성장이라는 지점이다. 1950년대와 ‘지역문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피난문단’이라는 지점에서 다뤄졌다. 이는 지역문학이라는 범주가 형성될 수 있었던 물리적인 토대가 한국전쟁이라는 비상상태로 인해 이른바 ‘중앙’의 문단, 문인, 출판사 등과 같은 인프라 등이 지방으로 이동함에 따라 여기서 파생된 여러 활동들이 지역 문학 형성의 근거지가 되었던 사실과 관련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피난문단이라는 것의 역사적 경험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특히 이른바 피난문단을 ‘환도’ 이후 회상하는 ‘중앙문단’ 문인들의 해석과 지역 문인의 회상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또 서울 지역에서의 문학장 재편을

중심으로 1950년대 문학장의 역학을 논의하는 방식들에서는 지역 문학의 형성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회고와 해석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시선과 입장의 차이를 비교해봄으로써 한국 전쟁과 문학장의 재편, 그리고 지역 문학의 형성과 그 역학을 살펴보기 위해서 검토해야할 주요한 의제들로 제시하고자 한다.

2. 냉전 서사로서의 ‘피난문단’과 그 역설

이른바 ‘중앙 문단’의 문인들에게 피난문단이란 ‘땅끝’으로 내몰려진 체험에 다름 아니었다는 것은 많은 논의들에서 자주 거론되어 왔다. 먼저 이러한 종류의 논의들은 주로 피난에 대한 회고들을 통해서 토로된다. 피난문단에 대한 기록 대부분이 회고류에 가까운 것은 ‘문단’이라고 부를 만한 제도적 기반이 파괴되어버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전시 기에도 미약하게나마 각종 잡지의 발간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상당수가 ‘중군작가단’이라는 단체를 통해 수행된 것인 터라 국가주의와 애국주의의 고취 및 선양이라는 목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전쟁이라는 비상상태에 대한 실존 감각은 대개 휴전이 선언된 후 사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피난문인들의 심상지리를 명확하게 포착하고 있는 문학적 기록으로 자연스레 김동리의 「밀다윈시대」(《현대문학》 4호, 1955. 4)를 떠올려볼 수 있겠다.⁵²⁾ 이 작품에서 우리는 ‘땅끝’까지 떠밀려왔다는 피난문인의 현실 인식과 전망부재라는 역사인식이 절망감과 허무감의 구조 아래 고스란히 드러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설의 주요 공간이자 제목이기도 한 부산 광복동에 소재하고 있는 ‘밀다윈 다방’에 몰려 있는 <문충> 소속의 작가들이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기에 그 시기 피난문인들의 면면과 피난문단의 양상을 대략적이거나 유추해볼 수 있다. 실제로 ‘밀다윈 다방’의 1층은 <문충> 사무실로 운영된 터라 김동리의 묘사가 마냥 허구적인 것만은 아니라 하겠다. 피난문단을 기록하고 있는 많은 기록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대개는 김동리가 「밀다윈시대」에서 보여준 절망감과 허무감이라는 정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① 그러나 避難 三年에 南道 釜山에서 빚어졌던 文壇의인 理想은 이와 같은 文學理論을 根幹으로 하는 討論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고, 기껏 한다는 것이 거리의 고심을 延長시킨 個人攻撃을 일삼는 一群의 新進들의 장난으로 그쳤다.

따라서 還都가 가져올 文壇의인 動向은 좀더 다른 意味에서 建設性을 지녀야 되겠고, 理論으로써 自己의 퍼붓는 것으로써 文壇 계게모니를 掌握할 수 있는 것 같이 夢想하는 野卑한 處身을 삼가야 할 것이다. …(중략)… 이런 流波의인 問題를 왜 還都와 結付를 시켜야 되는나는 것은 避難都市의 生活樣相이 無意識中에 如上의 形態를 만들어 놓은 以上, 우리는 還都와 더불어 自己自身을 돌아보아 아름답지 못했던 것을 씻어 버리는 契機를 삼자는 것이다.

—곽중원, 「환도 후에 나타날 문화계의 분포도」⁵³⁾

52) 김동리의 「밀다윈시대」 속에서 부산이라는 공간의 의미가 타자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박훈하가 적실하게 논파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의 공간생산과 근대적 주체 형성과정」, 《오늘의문예비평》 44, 2002 ; 「문학적 기록으로서의 1950년대 ‘부산’과 기억의 현상학—시선의 역사와 지역의 탄생」, 《한국문학논총》 40집, 2005를 참조.

53) 이봉구, 「피난부산문단」, 한국문인협회, 『해방문학 20년』, 정음사, 1971, 106~107쪽, 재인용.

② 이제 지난날의 그곳에 불과했다. 사과와 한약의 거리였다. 그렇게도 괴롭고 즐거웠던 문단은 떠나가고 지방 작가들만 초라한 모습으로 남겨졌다. 썰물이 빠진 갯가였다. 사실상 호남 지방에는 서정주가 그 지역의 젊은 지방 자를 추천해서 많은 작가를 만들었지만, 대구는 겨우 허만하 하나가 문단에 데뷔했을 뿐 피난문단의 혜택은 없었다. …(중략)… 부산. 그러나 등 뒤에 남겨진 그곳의 애환과 회로애락이 등을 뜨겁게 하면서 돌아다보게 했다. 길고 좁은 급경사의 바닷가 도시. 그것은 마치 떠나가는 기차의 레일처럼 길게 부산 자체의 내부로 깊숙하게 뻗어 있고 그 내부에서 전쟁 3년의 피난문단은 쓸모없는 잡초로 우거져 있었던 것이다.

—고은, 앞의 책, 387~389쪽

인용 ①에 따르면 부산에 형성된 피난문단은 파벌로 쪼개져 소모적인 싸움만을 일삼았을 뿐이다. 피난문단은 환도 이후 청산되어야 할 것, “自己自身을 돌아보아 아름답지 못했던 것을 씻어 버리는 契機”에 불과하다. 고은 또한 환도 후의 피난문단을 “사과와 한약의 거리” 이거나 “썰물 빠진 갯가”에 불과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서정주가 있던 호남을 예외적인 곳으로 언급하고는 있지만 고작해야 추천을 통해 중앙문단에 데뷔한 작가들이 몇 명 더 있었을 따름일 것이다.⁵⁴⁾ 피난문단 경험을 통해 지역은 ‘쓸모없는 잡초로 우거진’ 타자화된 공간으로 각인된다. 지역은 중앙의 시선에 포획되어 원시적이고 결여된 공간이라는 표상으로부터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⁵⁵⁾

이 기록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난문단에 대한 문인들의 회고 속에 내장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읽어낼 필요가 있다는 데 있다. ‘피난 시절’의 힘겨운 체험에 대한 반복적 진술은 명백히 ‘전후 재건’이라는 구도 속에서 체계모니를 장악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피난문단의 회고는 ‘고난의 극화’를 통해 전쟁의 비참함을 반복함으로써 보수문인들의 문단 장악을 정당화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회고가 냉전 서사의 반복에 다름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피난문단의 회고는 단순히 중앙/지방이라는 위계의 창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냉전의 서사가 어떻게 지역을 타자화된 공간으로 생산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 준다는 데 있다. 따라서 1950년대 피난문단과 지역문단의 관련성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지방의 위계가 냉전 서사의 반복을 통해 정당화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문단의 물적 기반이 와해되어버린 전시기가 피난문인들에게 있어 지위버리고 싶은 시간이었던 것과 달리 지역문단에 있어서는 ‘부흥’이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흥미로운 사실에서 확인된다. 한국전쟁 당시 지역 문단, 특히 피난문인들이 대거 몰렸던 부산과 대구의 문단은 한시적인 것이기는 했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문충> 본부가 임시정부를 따라 부산으로 이동했으며 대구 또한 <중군작가단>의 근거지로 이 시기에 발간되는 대부분의 문학·문화 잡지의 발행처의 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이후 연구자들에게 ‘한국전쟁기 한국문학은 부산문학이라 규

54) 이러한 사정은 계용목이 머물던 제주 또한 다르지 않다. 한국전쟁 당시 제주의 문단에 대해 김동윤은 “전쟁으로 인해 계용목·장수철 등이 제주에 체류한 것을 계기로 침체 상태에 있던 제주문학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또한 전쟁기 한국문학의 양상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을 제기”(「한국전쟁기의 제주문학」, 《지역문학연구》 6, 불휘, 2000, 110쪽)하는 것이라는 적극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 성과는 계용목이 피난시기 제주에 머물면서 한시적으로 펴낸 동인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동인지의 의미가 제주지역 문학사에 중요한 지점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제주도에서 간행된 첫 문학동인지 《흑산도》가 단 1회 발간에 그쳤다는 점, 게다가 재수록 작품이 많았으며 창작 주체가 제주 사람이 아닌 피난문인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결과물은 미약했다고 하겠다.

55) 박훈하, 「문학적 기록으로서의 1950년대 ‘부산’과 기억의 현상학—시선의 역사와 지역의 탄생」, 《한국문학논총》 40집, 2005

정할 수 있다⁵⁶⁾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은 “경인전쟁기는 한국 근대문학사에 지역문학의 문제를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각인, 심화시킨 시기였다”는 박태일의 견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⁵⁷⁾

이순옥은 한국전쟁기가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문단의 지역 재편이 두드러졌던 까닭에 지역 문학의 위상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주장한다. 특히 한국전쟁기 부산은 피난문단의 형성과 문학적 분위기에 힘입어 훗날 경남·부산 지역문학을 성장시키는 주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비록 피난문단이 한시성을 노출했다고는 해도 부산시단 내부의 독자적인 동인활동, 학생 동인 집단의 활발한 활동, 피난문단의 형성으로 새로운 시인들의 대거 등장을 거론하며 부산 지역문학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성장 토대를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피난문단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앞서 살펴본 중앙문인들의 관점과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지역 연구자들이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황국명은 부산지역 문예지의 현황과 특성을 해명하면서 1950년대의 부산문학의 현실을 소수의 헌신적인 문인들에 의해 가까스로 유지되었다고 평가하며 이 시기 부산지역 문예지 활동에 있어 동인지가 압도적이고 대체로 단명했다는 통계를 제시한다. 이는 피난문단에 의해 형성된 피난문단의 한시성과 연관된다. 물론 이 시기 문학청년 혹은 학생문단의 형성과 활발한 활동이 부산 지역 문학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언급을 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1950년대 부산문단을 비활성화된 시기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⁸⁾ 1950년대 부산문단의 미약함은 “전 시시국에 있어서 수도로서의 역할이란 문화나 정치의 중심으로서의 기능보다는 형식상 모양만 갖춘 꼴이었다. 이런 와중에 이 시기 부산 문학은 따로 존재할 수 없었다. …(중략)… 이 전부터 부산을 삶의 터로 잡고 있던 문학인들은 이들 피난 온 문학인들의 잠잘 곳을 마련해주는 일이나 무엇이든 도와주는 일에 바빴다.”⁵⁹⁾라는 김중하의 논의에서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부산 문인들이 종군작가단에서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도 삶의 터를 잡고 있었다는 점, 단체에 가담할 정도로 문명(文名)을 떨치고 있는 작가들이 적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비교적 객관적인 위치에서 피난문단기 부산문단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김중하의 논의는 해석의 과잉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일말의 설득력을 획득한다. 그러나 전쟁기 부산 지역 문학의 다변성과 역동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순옥의 지적⁶⁰⁾과 다른 맥락에서 김중하의 논의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전시기 부산문단의 미미함에 대한 견해의 대개가 피난문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봉래의 자살이 부산문단의 추함으로부터 연유했을 것이라는 이봉구의 논의⁶¹⁾를 무비판적으로 받아 쓰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며 “타지역에서 왔던 문학인들이 빠져 나간 부산문단은 한마디로 말해 묘목들을 뽑아 버린 묘판장처럼 황량한 모습이었다”⁶²⁾는 견해 또한 피난문단

56) 이순옥, 「한국전쟁기 부산지역 시문학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27, 2006 ; 「한국전쟁기 문단 재편과 피난문단」, 《동남어문논집》 24, 2007. 이순옥은 위 논문들에서 부산 지역에서 간행되었던 신문·잡지 매체와 단행본 시집, 동인지 매체를 꼼꼼한 실증적 작업을 통해 정리함으로써 부산 문학의 역동성을 규명해내고 있다.

57) 박태일의 이러한 주장은 한국전쟁기 간행 시집 문헌지를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일별하는 작업에 의해 최소한의 근거를 획득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박태일, 『한국근대문학의 실증과 방법』, 소명출판, 2004을 참조.

58) 부산지역 문예지의 태동과 성장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황국명, 「부산지역 문예지의 지형학적 연구」, 《한국문학논총》 37집, 2004를 참조

59) 김중하, 「문학」, 부산직할시, 『부산시사』 4권, 1991, 151쪽

60) 이순옥, 「한국전쟁기 부산지역 시문학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27, 2006, 257~258쪽

61) 이봉구, 앞의 글, 109쪽.

기를 회상하는 중앙문단의 논자들과 별다른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이처럼 피난문단기 지역문단에 대한 견해들은 제각각의 입장에서 상반된 논의를 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별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계열의 논의가 특정한 관점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김중하 또한 피난문단기의 경험이 훗날 부산문학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으로 1950년대를 갈무리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문학 연구자들에게 있어 지역문단의 형성이 대개 ‘한국전쟁 특수’라는 입장 위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문단’이라는 기준을 그대로 지역문단을 기술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문학을 일국적 체제 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 바꿔 말할 수 있겠다. 위 논자들은 ‘문단’이라는 제도적 범주에 대해 회의하지 않는다. 이는 부산으로 피난 온 ‘문단’이 국가정책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기관이며(<문충>이 임시정부의 동선을 좇고 있다는 점, <중군작가단>의 활동이 국가 시스템의 논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그 범위가 서울이라는 국지적인 공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역문단이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단’이라는 기준을 회의하지 않는 한 지역문단은 결코 대표성을 가질 수 없으며 중앙의 종속적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피난문단=부산문단’이라는 도식은 중앙 기구의 이동으로부터 파생된 일시적인 부산물에 불과한 것인 셈이다. ‘문단’이라는 말 자체가 중앙 집권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지역문단은 결여되고 미성숙의 위치를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 기껏해야 ‘부족하지만 꼴을 갖추고 있는 상태’ 이상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단’은 국가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에 그 기준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지역문학의 특이성에 대해 논하는 작업은 요원한 것일 수밖에 없다.

3. 냉전체제와 세계화 사이의 지역문학

전시기 피난문단에 관한 앞선 논자들과 조금은 다른 지점에서 박훈하는 1950년대의 문학 속에서 반영된 부산이 ‘아직까지는’ 자신을 정의 내리고자 하는 자의식조차 생성되지 않은 자율적인 공간이라고 주장한다. 지역을 생산하는 보다 근본적인 기제는 국토분할을 기능적으로 가속화시킨 1960년대 군사정권의 폭력적인 경제정책이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시장에 포섭됨으로써 ‘능동적으로’ 구성된 포드주의적 인간형이 세계를 자기화 하려는 재구조화 과정, 즉 문학, 예술을 포함한 일련의 문화적 실천 속에서 생성 확정된다는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으며 기왕의 ‘지역문학’ 논의와 변별되는 관점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논의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냉전체제로의 진입이라는 세계사적 맥락과 함께 한국전쟁이라는 비상상태로부터 초래된 대규모의 이동과 그로부터 지역이 재배치되는 맥락을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있다는 점을 언급해둘 필요가 있겠다.⁶³⁾

그럼에도 이 논의가 중요한 것은 ‘지역’을 일국적인 범주가 아닌 세계체제와의 연동 관계 속에서 고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을 일국적 단위에서 중앙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관계가 아닌 “지방적인 것-지역적인 것-세계적인 것의 중층적인 연관에서 사고하면서 세계화 시대에 상응하는 지역문학론을 새롭게 구성”⁶⁴⁾하려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펼

62) 김중하, 앞의 글, 155쪽.

63) 박훈하, 「문학적 기록으로서의 1950년대 ‘부산’과 기억의 현상학」, 앞의 글.

64) 구모룡, 「장소와 공간의 지역문학-지역문학의 문화론」, 《어문론총》 51, 2009, 355쪽.

치고 있는 구모룡의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모룡의 지역문학론은 “지역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한 나라는 물론 세계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맥락을 찾아내는 노력”⁶⁵⁾이라는 문장으로 거칠게나마 요약해볼 수 있겠다. 이러한 입장은 1950년대 피난기 부산 문학에 대한 논의에서도 앞선 논자들과는 다른 접근법을 보여준다. 한국전쟁이 부산이라는 지역 공간을 문학사적인 전체 공간으로 변화시켰다는 주장은 앞서 살펴본 논자들과 비슷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가 주목하는 것은 부산이라는 지역이 참혹한 전장의 언어들을 통해내는 실존의 정거장이었다는 점, 따라서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상황이 부산을 일약 보편성의 공간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지역문학이 일국문학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세계문학과 만나는 점을 목격할 수 있다는 데 있다.⁶⁶⁾ 이러한 입장의 구체성은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찾을 수 있다.

1950년대의 한국전쟁은 부산이라는 지역 공간을 문학사적인 전체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이것은 먼저 전쟁기간 동안 부산이 임시수도였다는 외적 사실에서 찾아지고 부산에 모든 문화적인 집약이 이루어졌다는 내적인 사실에서도 찾아진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단순한 내전의 성격을 넘어서 세계사적인 전쟁이라는 점에서 부산문학이 어떠한 형태로든 세계성마저 획득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계기들을 종합한다면, 시사적인 문맥에서 부산시학의 패러다임의 형성은 1950년대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전쟁이 가져다준 희안한 선물이다.

—구모룡, 『제유의 시학』, 좋은날, 2000, 284-285쪽.

구모룡이 말하는 1950년대의 부산문학의 활성화, 다시 말해 “전쟁이 가져다준 희안한 선물”은 피난문단이라는 제도의 중심축의 이동으로부터 한시적으로 획득되는 부산 문단의 제도적 확대가 아닌 시학의 패러다임 형성이라는 미학적 범주의 형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1950년대 지역문학을 논의하는 여타의 논자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이는 지역문학이 기존의 전체 문학사의 체계를 수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할 때 지역문학은 중앙문단의 종속적인 위치를 벗어날 수 있게 되며 새로운 미학적 범주의 형성을 통해 일국적 시스템 속에서 형성된 ‘문학성’이라는 가치 기준을 회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구모룡은 한국전쟁이 끼친 문학적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피난문단=부산문단’이라는 도식을 반복하지 않고 한국전쟁의 경험이 제도적인 층위의 변화뿐만 아니라 문학 내적인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탐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논자들과의 차별성을 가진다.⁶⁷⁾

1950년대 피난기 부산을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기반을 획득하게 된 시기로 규정하지 않고 새로운 미학적 범주가 창출된 시기로 인지하는 구모룡의 논의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임에 분명하다. 그렇지만 1950년대 부산 지역 문학을 세계문학과 관계 속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그의 주장에 위험한 요소가 내장되어 있음을 지적해줄 필요가 있겠다. 물론 구모룡

65) 구모룡, 「감성과 윤리」, 산지니, 2009, 296쪽. 그렇다고 구모룡이 지역을 무조건적인 대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다음과 같은 언급은 그의 지역론이 지역적 정실주의나 향토애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층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역들이 중심부 서울보다 창발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지역이 경제영역의 특성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문화적 생산력과 중심부 문화자본에 의한 지역의 사물화와 대상화 등의 요인으로 문화적 활력들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지역에 바탕을 둔 문화자본은 중심부 문화산업에 흡수되거나 중심부 유행장르들을 모방하며 또 다른 경우 박제된 지역성, 지역의 박물관 기술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책, 297쪽.

66) 구모룡, 「지역문학과 주변부적 시각」, 신생, 2005, 29쪽.

67) 이는 “부산시학은 한국전쟁을 통하여 그 패러다임의 하나로 시적 모더니티를 지니게 된 것이다.”(『제유의 시학』, 285)는 언급과 함께 조향과 고석규의 시를 검토함으로써 논의의 구체성을 획득한다.

에게 있어 지역문학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모태적인 공간은 1980년대 후반, 군부정권에 의한 계간지의 강제 폐간으로 인해 지역에서 무크지를 발간함으로써 지역문학의 실질적인 동력을 가지게 되었던 시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겠으나 1950년대 지역문학을 세계문학과 같은 보편적 층위에서 논하는 그의 논의는 전후 헤게모니를 획득하기 위해 한국전쟁을 세계사적 지평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헤게모니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했던 우파 지식인 그룹에서 주장하던 보편성 논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전쟁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국이 세계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1950년대 우익 지식인들의 주장에서 ‘한국’을 지우고 그 자리에 ‘지역’을 가져다 놓게 될 때 이 둘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쉽게 구분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구모퉁이 이론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비판적 지역주의(critical localism)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냉전 서사를 어떻게 타개해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4. 결론을 대신하여 : 로컬리티에 대한 사유와 냉전의 서사를 넘는 방법

고은은 피난문단의 근거지였던 부산에 거주하고 있던 문인들을 ‘부산의 원주민들’이라고 지칭했다. 이때의 ‘원주민’이라는 호명 방식의 함의를 탈식민주의 이론이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린 지금의 용법으로 독해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이지만 “이제는 부산이 수도다. 부산이 중앙문단이고 서울의 너희들은 피난민들이다”라고 한 모더니스트 조향의 주장을 결코 실현될 수 없는 ‘토착적 스캔들’로 규정해버린 태도는 1950년대 피난문단과 지역문단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전시기 피난을 내려오는 문인들에게 자신의 집을 내주어야 하는 ‘문학동인적 의무’가 싫어 집을 팔아버린 조향의 태도를 “해피한 문단 배타론”으로 간주하고 조향의 반대편에 중앙문단의 작가들을 위해 방 5, 6개를 확보해두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오영수를 세워둠으로써 “6·25야말로 이북 이남, 영남 호남 따위의 도별 의식이나 지역감정이 극도로 배제된 상태로 통어된 인간주의 사회를 이루었다.”(219쪽)는 주장을 이끌어내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은 또한 전쟁의 경험을 통해 ‘휴머니즘’이라는 보편적인 정신의 창출과 연결 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향의 태도를 이기적인 것이나 망상적 스캔들로 만든 고은의 관점은 이 시기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아무리 ‘문학동인의 의무’라는 수사로 위장한다고 해도 ‘지배-종속’ 관계의 다른 판본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한다. 중요한 것은 피난기라는 어려움을 이겨낸 체험을 반복적으로 진술함으로써 ‘휴머니즘’이라는 보편적 정신을 선취하는 데 있을 것이다. ‘휴머니즘’이라는 보편적 정신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피난기의 고난 체험을 특권화하는 고은의 회상에서 우리는 냉전 서사를 읽어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냉전의 서사를 가능케 하는 동력으로 타자화된 지역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전시기 중앙과 지방의 이러한 종속적 관계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출발하기 시작한 ‘지역연구(local studies)’의 맥락과 상통한다. 지역연구는 멀리 떨어진 외국과 외국의 언어를 대학의 교육 과정에 도입하기 위한 방편으로 출발했으며 주요 대학에서 지역학이 조직적으로 자리 잡게 된 것 역시, 냉전이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적을 새롭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거대한 기획의 일환이었다. 이때 지역연구라는 신생 분야의 설립은 서구가 전쟁의 경험을 통해 유럽 외부세계에 대한 믿을 만 정보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깨달은 뒤 취한 반응 중 하나였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연구가 미국과 미국정부와 기업, 심지어 외국정부를 위해 기

여하는, 정교하게 분할된 지식노동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런 특징은 해당 지역에 대한 통합된 학문적 논의를 좌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역연구를 계속해서 분할하고 과편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데 있다.⁶⁸⁾

냉전체제로부터 그 필요성이 요청된 ‘지역연구’와 1950년대 피난문단과 지역문단의 역학관계는 묘하게 닮아 있다. 전자의 지역연구가 미국이라는 국가를 중심에 두고 그 필요성에 맞게 재단되어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후자의 경우 외려 지역문학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주체들로부터 수행되는 연구가 국민문학이라는 범주와 구별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의 기준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반복을 추동하는 동력은 냉전체제로부터 비롯된다. 지역문학이든 지역문단이든 어떤 표준(기준)을 상정해두고 그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것, 지역문학이 국민(민족)문학으로 수렴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냉전체제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이 가지는 가치와 지역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경험 가능한 삶을 인식의 중간에 세우는 ‘지역구심주의’가 가지는 중요성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이때의 지역성 강조가 ‘민족’이라는 범주로 수렴된다는 점, 요컨대 지역성이 담지해야 하는 최종 심급에 민족이 놓여 있기에 “문학의 로컬리티는 궁극적으로 민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⁶⁹⁾는 유의미한 문제의식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역을 ‘로컬리티’라는 새로운 개념적 틀을 통해 서둘러 가치부여를 하기 전에 종식되었다고 간주하고 있는 냉전체제가 어떻게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로컬리티’를 고착화되고 특권화된 의식이 아니라 특정 로컬이 나타내는 장소성, 역사성 그리고 다양한 현상과 관계성의 총체이며, 추상적인 인간의 인식을 경계지우는 주변성을 포함한 확대된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논의가 현실의 장에서 구체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냉전체제가 어떻게 한국문학 장에서 구현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그런 점에서 1950년대 한국문학은 냉전체제와 국민문학이 맺고 있는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문학의 형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공간임에 틀림없다. 이 글은 그러한 연구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1950대를 해석하는 여러 논자들의 관점을 정리하고 그 속에서 이 시기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보다 심층적인 연구는 후속작업을 통해 수행할 예정이다.

68) 해리 하르투니언, 윤영실·서정은 옮김, 『역사의 요동—근대성, 문화 그리고 일상생활』, 휴머니스트, 2006, 86~93쪽.

69) 문재원, 「지역문학 담론에 대한 비판적 재고」,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로컬리티,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 혜안, 2009, 208쪽

1950년대 문학 장의 재편과 지역문학의 형성

장수희(동아대)

선생님의 논문은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로 재편되는 과정과 한국 문학장에서 지역문학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그리고 지역문학의 형성을 보여주는 장으로서의 1950년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어 흥미로운 논문이었습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몇 가지 궁금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논문의 제목은 “지역문학의 형성”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1950년대 지역문학의 형성이기 보다는 이미 있어왔던 지역문학이 논의의 장에 떠오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 당시 잠깐 동안 문단 헤게모니를 장악했었던 경험, 환도 이후 지역의 문단을 형성했다고 하는 평가는 기존의 지역 문단을 무화하는 중앙 문단의 시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지역문학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지역문학’의 형성은 한국 전쟁 당시의 피란의 경험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1950년대 문학장이라는 틀은 너무 큰 것은 아닐까요?

2. 선생님은 구모룡을 인용하면서 “지역문학이 중앙 문단의 종속적인 위치를 벗어날 수 있게 되며 새로운 미학적 범주의 형성을 통해 일국적 시스템 속에서 형성된 ‘문학성’이라는 가치기준을 회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모룡의 “1950년대의 한국전쟁은 부산이라는 지역 공간을 문학사적인 전체 공간으로 변화시켰다”는 시각, “부산문학이 어떠한 형태로든 세계성마저 획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시각이야말로, 지역이 끊임없이 한국문학사의 헤게모니를 장악하여 “대표자”가 되려는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논자가 비판하고 있는 피란문단=부산문단이라는 시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피란문단=중앙문단, 중앙-지방의 대립이라는 도식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요? 오히려 이러한 도식을 균열시키기 위해서는 피란문단 내부의 타지역 문인, 타지역 문단의 구성원들을 발굴하고 부각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선생님은 마지막 장에서 1950년대 문학을 민족문학이나 국문학이 아닌 특별히 ‘국민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인지,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독본의 사회학과 문화정치

박형준(부산외대)

차 례

1. 머리말
 2. 독본의 사회학과 문학독본
 3. 문학독본의 매체 전략과 문화정치
 4. 맺음말
- 참고문헌

1. 머리말 : 문학·문학교육·문학독본

문학은 문학제도만이 아니라 문학교육제도라는 사회구조적 관계망 속에서 유지·존속된다. 문학교육제도는 문학제도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학교육제도가 문학제도의 자율적인 테크놀로지에 일방적으로 수렴되는 것은 아니다. 문학 텍스트를 통해 문학의 미학적·사회적 기능을 전수하는 것이 문학교육이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오히려 문학교육을 통해 문학의 미학적·정치적 심급이 결정되고 강화된다면 어떠할까? 문학교육이 문학 작품이라는 완결된 형식의 미적 성취물을 전유하거나, 사회적 의사소통을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것, 이와 같은 통념에서 탈피하는 것은 문학교육제도가 일종의 “사회적 통제 기제”이며, “그 전수의 기제는 제도화된 세계의 합리화 과정과 그에 따른 내면화 과정”¹⁾이라는 반성적 성찰에서부터 시작된다.

문학교육제도에 대한 관심은 문학교육 현상을 ‘문학+ 교육’이라는 산술 구조로 환원하고자 하는 지식구조로부터 벗어난 학문적 지향이다. 이른바 문학교육학은 문학교육을 학교 단위에서 실행되는 교육 현상의 일부분으로 괄호치거나, 문학이라는 대상의 교수·학습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에서 벗어난 메타학이다. 문학교육학이라 명명할 만한 논의들이 문학교육의 역사적 맥락을 탐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즉 문학교육 현상의 역사를 고증하고, 한국 문학교육 장의 내적 논리와 담론 효과를 분석하는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문학교육 장의 형성과정과 이데올로기 비판의 많은 부분은 ‘문학정전’²⁾ 논의에 할애되고 있다.

1) 정재찬, 『문학교육의 사회학을 위하여』, 역락, 2003, 10쪽.

2) 최지현, 「한국 현대시 교육의 담론 분석」,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4 ; 정재찬, 「현대시 교육의 지배적 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6 ; 최지현, 「문학교육에서 정전과 학습자의 정서체험이 갖는 위계적 구조에 관한 연구」, 『문학교육학』 제5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0. ; 박용찬, 「문학교과서와 정전의 문제」, 『국어교육연구』 제38호,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05 ; 문영진, 「김동인 소설의 정전화에 관한 몇 가

문학교육제도에 대한 연구가 ‘문학정전’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은 문학제도와 문학교육제도의 관계망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 작업과 방법론 마련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교육 현상에 대한 사회·역사학적 접근 방식이 교육사 안쪽의 논리에 머물러거나, 문학사 자체의 논리에 포획되어 유지되는 방식 자체는 문제적이다.³⁾ 근대적 형식의 학제가 마련되기 시작한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문학교육 현상을 조망할 수 있는 자료 조사와 체계화 작업, 그리고 연구 방법론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⁴⁾ 문학교육제도라는 렌즈를 통해 문학 현상을 이해하고, 문학제도라는 렌즈를 통해 문학교육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까닭이다.

문학제도와 문학교육제도의 관계망을 잘 포착해 낼 수 있는 현상학적 텍스트는 교육과정 문건, 교과서, 참고서, 교육매체 등이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⁵⁾, 국정 국어교과서, 검인정 문학교과서는 문학장의 내적 논리를 반영하거나 담론을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동된다. 특히, 한국 문학교육 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해방공간에는 그 스펙트럼이 더욱 넓다. 초등학교 국정 국어교과서의 보급률이 1/30, 중등학교 국정 국어교과서의 보급률이 1/50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해방 직후의 출판 상황을 고려하면, 다양한 형태의 문학 교재—국정 국어교과서, 검인정 문학교과서, 자유발행 형식의 국어교과서와 문학교과서 등—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⁶⁾ 특히, 문학교육 장의 형성 배경이 되는 해방공간과 1950년대에는 ‘독본’이라는 형식의 문학교과서를 주목해야 한다. 문학독본은 하나의 현상이자 이념이며 문학교육제도의 역사적·다층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렌즈이다. 독본이라는 형식의 문학교과서는 체계적인 검인정 시스템이 작동하기 이전부터 문학제도와 문학교육제도의 관계망 속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체계적인 검인정 시스템 이후에도 제도교육의 문학교과서로 그 위치를 분명히 하였다.⁷⁾

필자는 이미 국어학자이자 교육자인 방종현·김형규의 『文學讀本』을 중심으로 문학독본의

-
- 지 문제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2006 ; 박용찬, 「해방기의 시조 담론과 시조 문학교재의 양상」, 『시조학논총』 제29집, 한국시조학회, 2008 등을 들 수 있다.
- 3) 우한용은 『한국 근대문학교육사 연구』에서 ‘문학교육사 연구’와 ‘문학교육사 서술’을 분리하여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문학교육사 연구/서술을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는 서술의 관점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학교육 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 마련과 토대 작업(자료 조사, 체계화)이 선행되어야 했다. 공식적 교육과정과 실제적 교육과정을 불일치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출판문화 현상과 문학계의 문화정치적 맥락이 중층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결점이다. 각론에서 교육사/문학사의 지식이 어정쩡하게 통합되고 충돌하는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우한용, 『한국 근대문학교육사 연구』, 서울대출판부, 2008, 1-15쪽 참조.
 - 4) 소설교육사, 시조문학교육사 등 각론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여 아동문학교육사, 한국 근대문학교육사 등의 통사가 집필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자료 해석과 문학교육사 서술에 대한 시각과 방법론이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현섭, 『한국 소설교육사 연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9 ; 김선배, 『시조문학교육의 통시적 연구』, 박이정, 1996 ; 우한용, 『한국 근대문학교육사 연구』, 서울대출판부, 2008 ; 박영기, 『한국 근대 아동문학 교육사』, 한국문화사, 2009 참조. 물론 ‘국어’라는 언어문화 현상을 통사적으로 조망해 보고자 한 이응백, 『국어교육사연구』, 신구문화사, 1975 ; 박봉배, 『국어교육전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7 ; 윤여탁 외, 『국어교육 100년』 1·2, 서울대출판부, 2006 등의 연구에서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 5) 그러나 국가 수준의 ‘공식적 교육과정’과 학교 현장의 ‘실제적 교육과정’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공식적 교육과정 문건만으로는 학교 현장의 문학교육 현상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었던 실제적 교육과정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한데, 필자는 앞선 작업에서 이에 대한 실증적 작업을 시도한바 있다. 박형준·민병욱, 「1950년대 문학교육의 지형학」, 『문학교육학』 제24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147-156쪽.
 - 6) 박형준, 「유인본 국어교과서의 발견과 해석」, 『국어교육연구』 제45집, 국어교육학회, 2009, 67쪽.
 - 7) 박형준, 「문학독본과 選의 정치학 : 방종현·김형규의 『文學讀本』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제37집, 국어교육학회, 2009, 395쪽.

이념적 성격과 형식을 간략히 살펴본바 있다. 편저자의 성격으로 볼 때, 방중현·김형규가 편찬한 『文學讀本』은 당시의 문단 현실과는 어느 정도 거리두기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 교육자로서 문단의 현실정치에 깊이 개입해 있지 않았고, 당대의 문학적 이념을 실천하는 것보다 교육적 가치를 더 중요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단의 정치적 상황과 문학적 이념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시인, 소설가, 비평가 등의 ‘전문 문사’(문인)가 편찬한 문학독본은 그 성격과 입장이 확연하게 구분된다.

이 논문에서는 해방 이후 한국 문단의 현실정치를 주도하였던 서정주, 김동리, 조연현, 조지훈, 박목월, 모운숙 등이 1950년대 초반—문학교육의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정부수립 전후 시기와 제1차 국어과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1956년까지는 이념적·구조적 연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이른바 문협 정통과의 문단 정치가 본격화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에 편찬한 문학독본을 중심으로 문학제도와 문학교육제도의 접변 양상을 본격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독본의 사회학과 문학독본

독본(讀本)은 다양한 성격의 텍스트를 수렴하고 있는 제도적 양식이다. 독본이 “교과서 형태로 등장한 근대적 텍스트”⁸⁾, 즉 구한말을 거쳐 일제강점기에 생산·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지만, 독본의 생산과 유통망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부터이다. 해방 직후, 사회적 문식력(literacy) 향상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교육제도 안쪽에서는 이와 같은 열망을 모두 감당할 수 없었다.⁹⁾ 당시의 출판 상황이 워낙 열악하였기 때문에 ‘국정(國定)’이라는 공식적인 생산 과정을 통해 형성된 교과서의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1) 방금 남조선에는 출판문화의 일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38선 이남지구는 본래부터 펄프재의 생산지가 아니어서 종래에 있어서도 用紙는 일본이나 북조선에 의뢰하여 사용하던 바 해방이후 38장벽인 생겨 물자의 교류가 두절되고 대외무역도 안되어 건국을 앞두고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문서운동은 현재 총 소요량의 1할도 안되는 휴지를 원료로 하는 몇개의 재생제지공장의 생산품에 매달려 허덕이고 있어 서울만을 단위로 하고 따져 보아도 2백여 대소 출판사가 총휴업에 빠져 있고 6백 인쇄소도 용지가 없어 인쇄를 못하고 있는 기막힌 현상에 있으며 따라서 이 용지 기근은 각 학교 교육에 막대한 불편을 주어 소학 중학 전문대학 등의 교과서를 못만들고 또 학용지 구입난으로 거의 수업 불가능 상태에서 학교당국은 임시교과서 용지와 학용지 구득에 동분서주하는 현상이라 한다.¹⁰⁾

(2) 조선교육연합에서는 제2세 국민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가 되어 있는 것이 교과서 부족으로 현재 항간에서는 사이비의 교과서와 80여 종의 신문·잡지 등이 간행되고 있음에도

8) 구자황, 「‘독본’을 통해 본 근대적 텍스트의 형성과 변화」, 『상허학보』 제13집, 상허학회, 2004, 214쪽.

9) 이것은 학교와 학교 밖에 경우가 다르지 않았다. ‘글 읽는 소리도 朗朗, 힘과 빛이 가득찬 校庭’과 ‘우리 역사와 역사를 집에서도 가르치자’라는 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 가르쳐 보내는 그것 외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국문』(한글)과 조선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문과 조선 역사를 다만 학교선생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다. 우리들 학부모 자신이 보충하여 하로라도 빨리 국문을 깨치고 하로라도 빨리 조선 역사를 알아 반만년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겠습니까.” 『조선일보』, 1945. 11. 24. ; 『조선일보』, 1945. 11. 26.

10) 『조선일보』, 1946. 12. 10.

불구하고 용지난 출판난으로 교과서 출판은 실로 참담할 정도로 부족하다는 요지의 진정서를 26일 군정장관 민정장관 문교부장 상무부장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한다. 이에 의하면 현재 남조선에 국민학교 아동수는 3백36만6천292명으로 교과서 종류는 41종인데 적어도 발행 필요권수가 2천3백3십8만2천6십2원이나 되건만 해방 후 3년간 발행권수는 1백십6만9천1백3권으로 필요권수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 중등학교도 생도수 22만6천2백5명으로 필요한 교과서 권수가 3백60만5천1백34권인데 불과 7만2천1백3권밖에 발행되지 않아 필요권수의 약 50분의 1 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밖에 공민학교의 생도수는 3백30여 만이나 되나 전연 교과서가 없는 터로 참혹한 상태라고 한다. >崔奎東談:교과서 편찬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애도 많이 쓰는 모양이나 용지난 출판난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다. 항간에 범람한 교과서 답지도 못한 교과서와 80여 종의 신문 잡지와 또는 없어도 무방할 간행물이 많은데 이를 적당히 통제하면 교과서난을 타재할 수도 있을 것 같다.¹¹⁾

(1)과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시의 출판 상황은 “전연 교과서가 없는 참혹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과서를 유인본 혹은 등사본 형식으로 자체 발행되거나¹²⁾, 부교재 형식의 독본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다양한 형식의 독본이 교육제도 바깥에서 제도 안쪽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이것은 교과서의 검인정의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한 1949년 8월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 정부 수립 직후에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교과서 출판과 보급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방 직후의 출판문화 현상은 독본의 생산을 가속화시키는 사회적 조건의 하나로 작동하였다.

해방 이후의 출판문화 현상과 함께 독본의 유통을 확대시킨 또 다른 사회적 조건은 ‘이념’이었다. 잘 알다시피, 해방공간은 좌·우 이념의 갈등이 첨예화되었던 시기, 즉 ‘사상 투쟁’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정부 수립 이후, 표면적으로는 좌·우 이념 대결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한국전쟁이라는 사상전(思想戰) 속에서 이념은 다시 호출되고 재생산되게 된다. 사회·문화·정치·경제·문학·예술 등에서 표준-‘본(本)’이 되는 이념을 합리적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교과서 형식이 독본이었다.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텍스트가 도덕과의 교과서인 『도의생활』, 『애국생활』, 『반공독본』, 『애국독본』 등이다. 이들 독본이 국민국가의 ‘도의(道義)’적 주체 형성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늘의 우리 국가가 당면한 긴급한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 가운데에 서로 중대한 문제의 하나는 국민 도덕의 타락이라 하겠다. 파괴된 경제를 재건함이 어찌 급하지 않으며 기회만 노리고 있는 외적을 막음이 어찌 급하지 않으며 또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의 완수가 어찌 급하지 않으리 오만 이 위대한 사업들을 완수하는데의 원동력은 국민 도의의 양양에 있음을 알 때에 우리는 새삼스럽게 국민 도덕의 타락을 걱정하는 바이다. 국민 도덕의 타락을 구제하는 길이 많을 것이로되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제 이세 국민의 교육에 있어 이면이 강조되지 못한다면 이 국가 민족의 앞날이 야말로 우려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다. 여기에 본 “도의생활”의 발간이 때와 뜻을 같이 하여 우리나라 어린이의 도덕심을 바로 잡고 양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굳게 믿는 바이다.¹³⁾

11) 《서울신문》, 1948. 1. 28.

12) 이에 대한 연구로는 김준형, 「1946년 謄寫本『國語讀本』의 출현과 교육적 의미」, 『국어문학』 제47집, 국어국문학회, 2009 ; 박형준, 「유인본 국어교과서의 발견과 해석」, 『국어교육연구』 제45집, 국어교육학회, 2009 등을 참조. 김준형은 “謄寫本『國語讀本』의 출현”이라고 하였으나, “출현”이라고 말할 만한 근거와 사회적 배경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國語讀本』의 발행처를 “광주광역시 어느 중학교”라고 제시하여 자료 고증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13) 한국교육문화협회 지음, 『(문교부 추천 도의 교육독본) 도의생활 4』, 문화교육출판사, 1954, 3쪽.

이른바 ‘반공독본’, 혹은 ‘도의독본’-왜냐하면 1950년대의 ‘도의’는 ‘반공’이라는 사상적 근거 아래 구축될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다-이라 명명할 수 있는 독본이다. “도의생활 발간”이 “국민의 교육에 있”으며, 그것은 “국민 도의 양양”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어린 사공-한국 전쟁 이야기’를 제1장에 배치하여 ‘도의’의 출발점을 ‘반공’으로 제시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문교부 ‘인정’, 혹은 ‘추천’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도의(반공)독본’은 교육제도의 ‘바깥’에서 ‘안’으로 투입하여 수용자를 내면화하는 기제로 작동하였던 것이다. 1950년대의 독본의 생산이 ‘반공’이라는 이념적 주제와 ‘반공=도의’라는 등식 구조를 반복·재생산하는 데 일조하였으며,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헌장”¹⁴⁾으로서의 “국민 정신”¹⁵⁾ 형성에 ‘본(本)-표준’이 되는 지침서 기능을 하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1950년대의 독본이 이념 전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독본은 계몽적 기능을 내재적 속성으로 하는 교육적 텍스트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매체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담당하였는데, 문교부에서 발행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교육 독본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농사일이 바빠지고 집안 일에도 쫓깁니다만, 위생에 힘쓰고 부업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여성으로서 알아 두어야 할 일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다음 몇 가지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가족계획’입니다. ‘가족계획’이라면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 아이를 알맞게 낳아 기르자는 것입니다. (중략) 둘째는 낳은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중략) 셋째는 여름 철에 들어서서 알아 두어야 할 문제입니다. 모기, 파리, 그리고 변소, 우물 등 좀 더 잘 알아보고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합시다.¹⁶⁾

이처럼 1950년대 전후의 독본은 ‘출산’¹⁷⁾, ‘위생’¹⁸⁾, ‘결혼’¹⁹⁾ 등의 담론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회교육 매체로 기능하기도 하였으며, 성인교육을 목적으로 한 ‘국문 교육’²⁰⁾을 설계하고, 실용적 목적에 바탕한 생활 정보²¹⁾와 사회적 상식²²⁾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상적인 가족계획”²³⁾을 하나의 표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부독본』에서 근대적 사고에 바탕한 ‘성 담론’²⁴⁾과 ‘가족’ 통제의 기획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의 계획은 ‘국가’의 기획이며, 이것은 소수집단의 압축성장을 목표로 전진하는 근대 국민국가 프로젝트에 바탕하고 있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1950년대의 독본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표면화하는 것처럼 이념 전달의 교화 수단이 될 수도 있으며, 사회생활을 위한 행동지침과 문화적 가치 등을 전수하는 사회적 매체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주제의 독본 중에서 문학독본이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는 것은 전자와 후자의 맥락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직접적인 교화 방식

14) 문교부, 『국민교육헌장독본』, 동아출판사, 1969.

15) 오천석, 『국민정신무장독본』,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8.

16) 문교부, 「이 책에는 무엇이 실렸나?」, 『주부독본 : 사회교육문고 14』, 문교부(비매품), 1962.

17) 승정연, 『妊娠과 解産讀本 : 婦人 七月号 別冊附錄』, 부인사, 1949.

18) 조선생활개선협회, 『新郎新婦의 衛生讀本』, 건국사, 1947.

19) 래스리 티씨아트 저, 안동민 역, 『完全한 結婚讀本』, 진명문화사, 1957.

20) 문교부, 『국문독본 (국문교육반 용)』, 문교부 합동도서주식회사, 1954.

21) 김경호, 『生活의 常識 家庭藥讀本 : 女苑 4月号 附錄』, 여원사, 1960.

22) 오수옥 외, 『國民常識讀本 (經濟編)』, 대한교학주식회사, 1957.

23) 문교부, 「이상적인 가족 계획」, 『주부독본 : 사회교육문고 14』, 문교부(비매품), 1962, 12쪽.

24) 김치향, 『性教育讀本』, 문창사, 1952.

을 취하지 않고, 문학이라는 매개를 통해 수용자의 내면화를 추동하는 힘을 지녔다는 점 때문이다.

문학독본은 ‘문학(文學)’을 주제로 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문학독본(文學讀本)’, ‘문예독본(文藝讀本)’, ‘문학선(文學選)’, ‘문학정수(文學精髓)’²⁵⁾ 등의 표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문학의 ‘정수(精髓)’로 평가할 만한 텍스트를 선별하여 읽기의 ‘본(本)–표준’ 텍스트로 제시한 것이다. 즉, 문학독본의 구성 방식은 텍스트 선별의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편저자의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별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은 문학독본의 ‘유형’과 ‘성격’, 그리고 문학적, 교육적, 문화적 의미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하겠다.

문학독본은 문학 작품에 대한 편저자 개인의 미적 취향과 이념적 성향, 그리고 사회적 이념과 미적 경향성 등이 반영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작가의 작품을 배제/선별하게 된다. 이 선별 과정의 내적 논리를 분석하고, 선별된 텍스트가 반복·재생산되는 맥락을 분석하는 작업이 ‘문학정전’ 형성 과정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나 1950년대 초반의 문학독본 생산 환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학정전’ 논의로 손쉽게 환원하기 어려운 결절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기이자, 본격적인 검인정 시스템이 작동되기 시작한 1949년 9월 전후의 문학교육제도 안과 바깥의 조망함으로써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다.

3. 문학독본의 매체 전략과 문화정치: 『소학생 문예독본』을 중심으로

정부 수립과 동시에 문학 장이 획일적 구조로 재편되면서—물론 그것은 예술원 파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내적 갈등을 내포한 것이었으나²⁶⁾—, 문학교육 장의 지형도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교육·문화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문교부의 출범과 편제 개편²⁷⁾이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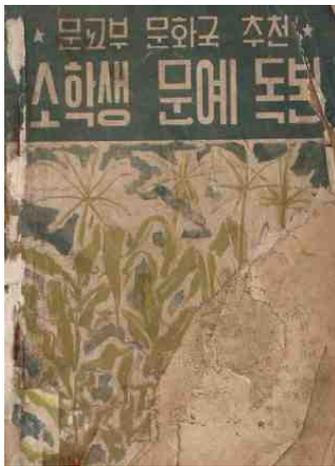
25)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까지의 문학독본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자료조사가 이루어진바 있으나, 독본에 대한 시각과 체계적 분류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서정주, 『현대조선명시선』, 온문사, 1950 ; 이태준, 『尙虛文學讀本』, 백양당, 1946 ; 정지용, 『지용문학독본』, 박문출판사, 1948 등은 시문학독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교육용 목적이 적은 ‘시선집’, ‘문학선집’ 등은 제외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 작업은 후고를 기약하고, 우선 작문독본(문장독본)을 제외한 후 간략히 그 목록을 일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방중현·김형규, 『文學讀本』, 동성사, 1946 ; 이석훈, 『文學鑑賞讀本』, 백민문화사, 1947 ; 박장희, 『國文學選』, 대동사, 1946 ; 이하윤, 『現代國文學精髓』, 중앙문화협회, 1946 ; 방중현·김형규, 『新訂 文學讀本』, 연학사, 1949 ; 서정주 외 엮음, 『소학생 문예독본』 1-6, 아동예술원, 1949 ; 김광주, 『中等文藝讀本』, 대덕출판사, 1951 ; 장만영 엮음, 『중학생 문예독본』, 대양출판사, 1952 ; 장만영 엮음, 『고등 문예독본』, 대양출판사, 1952 ; 노천명, 『여성서간문독본』, 박문출판사, 1951 ; 박목월, 『여학생문학독본』, 영웅출판사, 1953 ; 김동리·조연현 편, 『현대문예독본』, 정음사, 1953. 그리고 ‘문학독본’ 중에서 ‘고전’을 중심으로 구성한 독본으로 김종식, 『時調讀本』, 백영사, 1947 ; 양주동, 『詳註 國文學古典讀本』, 박문서관, 1948 ; 손락범·최창국, 『고등국문선』, 형실문화사, 1955 ; 장지영, 『가려뽑은 옛글』, 정음사, 1957 ; 국어교육연구회, 『우리옛글』, 한국검인정주식회사, 1958 ; 구자균·김사엽, 『옛글』, 사조사, 1960 ; 어문학회 엮음, 『바른옛글』, 동일문화사, 1960 ; 양주동 엮음, 『고전독본』, 탐구당, 1961 ; 이병기·정인승, 『표준옛글』, 신구문화사, 1961 ; 임현도, 『古文敎本』, 정연사, 1961 ; 교육국어연구회, 『高等 現代文選』, 흥문관, 1964 등이 있다.

26) 남원진, 「반공국가의 법적 장치와 <예술원>의 성립 과정 연구」, 『겨레어문학』 제38집, 겨레어문학회, 2007, 212쪽.

27) 1948년 11월 4일 대통령령 제22호로 ‘문교부 직제’가 공포되었다. 문화국에는 성인교육과·생활개선과·교도과·예술과·체육과가 있었으며, 편수국에는 편수과·번역과·발행과를 두었다. 《서울신문》, 1948. 10. 7.

시발점이 되었다 하겠다. 정부 수립 직후 문교부는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교육, 과학, 기술, 예술, 체육, 출판저작권, 영화검열 등의 문화행정을 관장하게 되었다.²⁸⁾ 문교부 편수국의 대대적인 교과서 정비²⁹⁾와 문교부 문화국의 영화·연극검열³⁰⁾이 실시되는데, 이것은 교육과 예술·문화의 내셔널리즘적 내면화 과정을 보여준다.

문교부 편수국의 교과서 정비 과정에서 “국책 추진에 방해가 되는 교재”³¹⁾의 허가 취소와 “검인정교과서에서 좌익작가의 작품은 삭제”³²⁾ 조치됨으로써 문학교육 장의 구조 변동이 가속화되었다. 문교행정이라는 합법적 장치를 통해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의 이념 배제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교과서 검인정령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1949년 8월 이후에도 문학독본의 생산과 유통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과서 출판 상황이 개선되지 못한 이유가 하나이고³³⁾, 좌·우의 이념적 갈등을 은폐하고 지배 이데올로기의 문화적 내용을 합리적으로 전수하기 위해서 문학적 표준안—‘본(本)’을 창안하는 것이 다른 하나였다.



아동예술원에서 발행한 『소학생 문예독본』(1949, 판형은 국판148mm×210mm)³⁴⁾이라는 문학독본을 통해 문교행정이라는 교육제도의 관리 체제와 문학인이라는 인적 네트워크가 결속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영인본 『한국 아동문학 총서』(2010)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소학생 문예독본』의 책표지에는 “문교부 문화국 추천”이라는 상징적 담화표지(discourse mark)가 있다.³⁵⁾ 가볍게 넘겨버릴 수 있는 것이지만, “문교부 문화부 추천”이라는 문구를 출판 전략의 일부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 앞에서 언급한 반공독본, 도의독본에 “문교부 추천”이라는 상징적 담화표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보자. 국정 교과서의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리고 정부의 이념적 지향에 의해 교과서 재검정이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문교부 문화국 추천”이라는 담화표지는 『소학생 문

28) 손인수, 『한국교육운동사 1』, 문음사, 1994, 46-48쪽.

29) 《한성일보》, 1949. 11. 11.

30) 작년 11월 11일에 내무부·공보처·문교부 3장관회의에 의하여 한국은행취체규정에 관한 일체 흥행취체 관계 사무는 문교부로 이관하게 되었는데 동 법령 제25조에 의하여 10일부터 연극 각본의 검열을 실시하게 되어 일반업자는 금후부터 연극 각본을 문교부 예술과에 제출하여야 되게 되었다. 이 검열제도 실시에 대하여 徐(인용자 : 서정주) 문교부 문화국 예술과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남로당계열의 사상적 모략과 최근 아름답지 못한 미국 풍속에 저촉되어 한국 고유의 미풍을 무시하는 등 민족사상을 혼란케 하는 공연을 미연에 방지하며 아울러 연극의 저속화를 방지할 의도에서 실시케 된 것이다. 이제 도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학무국에서 각 지방에서는 각 지방 도청 학무국에서 실시할 터이며 전국적인 것은 문교부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동아일보》, 1949. 3. 1.

31) 《한성일보》, 1949. 11. 11.

32) 《한성일보》, 1949. 10. 5.

33) “4287년(1954년 : 인용자) 2월 17일 정부 직제 개정에 따라 동년 3월 30일자로 보통 간행물 관계 행정 사무가 공보실에서 문교부에 이관되어 왔어도, 문교부 역시 국내 출판계가 봉착한 애로를 타계해 줄 길을 찾지 못했다.” 문교부, 『문교개관』, 문교부, 1958, 449쪽.

34) 아동예술원에서 발행한 『소학생 문예독본』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동문학독본이다. 최근에 발행한 원종한 편, 『한국 아동문학 총서』 21권, 역락, 2010에 2, 3, 4, 6권이 수록되어 있다. 현재 1권과 5권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표지가 복사되어 있지 않은 영인본만으로는 문교부 문화국 예술과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

35) 박목월 엮음, 『소학생 문예독본』 2권, 아동예술원, 1949. ; 서정주 엮음, 『소학생 문예독본』 6권, 아동예술원, 1949.

예독본』이 허가된 교재이며, 이 독본에 수록된 텍스트와 지식이 공식적인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교행정의 한 가운데에 문교부 문화국 초대 예술과장 서정주가 있다. 서정주는 문교행정에 깊숙하게 개입하는 한편³⁶⁾, 문화 전선 구축에도 적극적이었다. 문교행정이 문화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과정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³⁷⁾ 1949년 2월 문교부 내에 설치된 예술위원회의 위원 명단³⁸⁾과 1949년 3월 새롭게 선정된 서울시 문화위원회의 위원 선정 결과³⁹⁾를 확인해 보면, 그 연관 맥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학독본은 편저자의 제재 선별 논리가 직접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이념성을 선명하게 표방하는 교육문화적 텍스트이다. 문단의 현실 정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던 구성원들이 문학독본을 엮는 과정에서 다시 결속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소학생 문예독본』 1-6권은 각 권마다 ‘엮은이 대표’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2권의 엮은이 대표는 박목월, 3권의 엮은이 대표는 윤복진, 4권의 엮은이 대표는 조지훈, 6권의 엮은이 대표는 서정주이다. 해방 이후 한국 문단의 현실정치를 주도하였던 서정주, 박목월, 조지훈 등이 문학독본의 편저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또한 아동문학가를 제외하고 나면, 『소학생 문예독본』에 수록된 필진의 성격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은 문학교육제도의 안쪽에서 바깥의 논리—문학제도 안쪽의 논리를 환기할 수 있으며, 양자의 관계망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문학독본의 제재는 ‘선(選)’이라는 형식을 통해 구성된다. 선택된 제재는 발화되지 않은 것처럼 은폐되어 있는 발화이며, 편저자의 담론 표출 전략이며 담론 실천이다. 『소학생 문예독본』에 수록된 제재를 분석해 보면, 순수한 일상과 서정의 세계, 그리고 전통의 탐구라는 산문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와 ‘우리 것’에 대해 과도할 정도의 서사를 풀어놓고 있는 구성 방식이 그러하다. 예들 들어,

이러한 신화란 것은 사실 이야기가 아니라, 옛 사람의 지식으로 믿는 바를 풀이해서, 꾸며 놓은 이야기입니다. 옛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는 데는 보통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했으

36) 조연현은 이를 “정부기구 속에 들어가서 문화인으로서 정책수립과 그 집행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기한 문학적 욕구를 국가적 시책을 통해서 구현시켜 보려는 움직임이었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 속에는 신생한 조국의 권력 구조 속에 자신을 맡겨보자는 개인적 욕망도 전혀 무시된 것은 아니었다고 볼 것이지만 구태여 그것을 불미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군정 말기부터 공보부의 국장으로 있었던 시인 김광섭씨가 대통령 비서실로, 오종식씨가 사회부 차관으로, 서정시인 김영랑씨가 공보부의 국장으로, 서정주씨가 문교부 예술과장으로(서정주씨의 뒤를 이어 설창수씨가 그 자리를 잠시 맡기도 했다)”라고 회고하였다. 조연현, 「내가 살아온 문단」, 『조연현문학전집』 1권, 어문각, 1977, 238쪽.

37) 이것은 조지훈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조지훈은 “문화이념의 확립을 위해 신생정부의 시정기구는 민족정신 양양의 입장에서 문화부문을 중추로 하고 안으로 내무, 기획 밖으로 사회시책, 공보 등이 그 독자적 의의를 살림으로써 유기적 의의를 자각하는 데서만이 발전과 남북통일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기정된 문교부를 물론 나는 문화교육부의 약칭으로 해석해주려 하거니와 이의 顧問기관으로서 문화건설위원회(가칭)를 문교부안에 상설하고 민족을 위한 식견있고 열의있는 문화인의 협조를 얻기 전에는 소기의 사업을 성취하기는 곤란할 것이다.”라고 하여 문교행정을 ‘문화’와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동아일보》, 1948. 10. 12.

38) “앞서 발표된 바 문교부 내에 설치된 예술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와 같은 바 그 구성인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계 명사의 총망라에서 그들의 앞으로의 활약에 문화예술 관계자는 기대하는 바 크다. 문학위원 : 朴鍾和 梁柱東 金永郎 吳河潤 金晉燮 李軒求 金玼燮 金光洲 柳致環 金東里 趙芝薰” 등이다. 《경향신문》, 1949. 2. 19.

39) 《경향신문》, 1949. 3. 24. “서울시 예술위원회의 해산의 뒤를 이어 4월 1일부터 신발족하는 서울시 文化委員會의 최초의 위원회는 21일 열리었는데 당일 선정된 동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문학부 : 朴鍾和 廉尙燮 金晉燮 李軒求 金永郎 金玼燮 吳河潤 金東里 徐廷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 어느 나라에도 이러한 신화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늘 사람과 곰아가씨 사이에, 그 민족의 위대한 영웅이 탄생했다는 이야기는 가까운 중국에도 있고, 멀리 회랍의 신화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사람의 자손이라 하여 자랑할 것도 없고, 곰의 자손이라 해서,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어째서 이러한 신화가 생겼는가를 연구하는 것을 신화학이라 해서 하나의 과학적 학문이 된 오늘, 외국 사람도 우리 단군 신화를 연구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야 될 일이겠습니까.⁴⁰⁾

조지훈은 “우리 단군 신화”에 대해 몰라서야 되겠냐며, 민족 공동체의 에스프리를 공부하는 데 소홀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해방 직후, 문교부의 교육이념이 ‘홍익인간’으로 제정된 데서 알 수 있듯이, ‘단군’은 단일민족의 서사를 유지시켜주는 이념적 시원이었기 때문이다. “문화이념의 확립이” “민족정신 양양”(각주 37 참조)을 통해 가능하다는 조지훈의 입장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하겠다. 서정주는 각 권에서 「세종대왕」, 「을지문덕」, 「김유신 장군」 등 민족의 영웅을 호출함으로써, 서구 근대를 극복해야 할 대타적 존재로 설정하였다. ‘우리 것’, 즉 ‘조선적인 것’의 실체를 역사적 인물과 영웅전설에 찾고, 서구 근대와 대결하고자 하는 서정주의 ‘엮음’ 전략은 불완전한 국가의 정체성을 문학적 기획으로 해소하고자 했던 반근대주의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단일민족의 신화와 역사성이라는 교육적 순수성은 어떠한 갈등도 전제하지 않는 비정치성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정치성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정치성을 획득하게 되는 역설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소학생 문예독본』을 비롯한 문학독본은 이와 같은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교과서 형식이였다. 문학독본이라는 교과서 형식은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가 제시하는 학습 내용을 선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의 통제가 가능한 ‘표준안’이자,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선택 기능을 부여받는 듯한 오인에 사로잡힐 수 있는 효율적인 배제 양식인 셈이다. 문학독본은 수록 텍스트의 이념적 분류 과정을 통해 형성된 제도적 양식인 것이다.

4. 맺음말

(생략)

40) 조지훈, 「단군신화의 꼬리말」, 『소학생 문예독본』 2권, 아동예술원, 1949, 51쪽.

■ 참고문헌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독본의 사회학과 문화정치

차선일(경희대)

박형준 선생님의 논문 「독본의 사회학과 문화정치」는 해방 이후 근대 문학교육의 형성과 그 이데올로기를 문학제도와 문학교육제도의 관계양상을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문학정전에 대한 분석과 비판에만 집중하는 기존 연구의 순문학중심주의와 텍스트중심주의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본의 사회학과 문화정치」는 문학제도와 문학교육제도의 두 영역이 교차적 접점을 이루는 텍스트들 가운데 해방공간과 1950년대에 등장한 ‘독본’이라는 교과서 형식에 주목합니다. ‘독본’, 특히 ‘문학독본’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국가의 수립과 제도교육의 성립 이전부터 표준적인 문학교과서로 통용되는 한편 제도교육의 체계적인 검인정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도 공인된 문학교과서의 지위를 점유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학독본’은 근대 문학교육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문학제도와 문학교육제도가 상호침투하며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소 거칠게 논문의 문제의식을 요약해보았습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질문을 드리면서 박형준 선생님의 보충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1. 이 논문이 제기한 핵심적 과제는 ‘문학독본’의 문화정치적 독해를 통해 문학제도와 문학교육제도의 이데올로기적 관련 양상을 실증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논의는 특정한 문학작품을 정전으로 선별하고 배제하는 문학권력의 배후논리를 읽어내는 ‘문학정전’ 중심의 기존 논의를 탈피하고 보완하는 성격을 지닙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소학생 문예독본』(전 6권)의 ‘엮은이 편제’를 거론하면서 이를 근거로 소위 서정주 중심의 문협정통파의 문단권력의 구조가 그대로 문학교육제도로 편입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정전의 선별 배후의 권력의 작동논리를 읽어내는 기존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논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이 기존 논의와 차별화되기 위해 스스로 제기한 과제는 문학제도와 문학교육제도를 연결하는 권력의 논리적 동일성에 대한 독해가 아니라 그 관계에 문학권력이 개입하는 양상을 제도적 차원에서 실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학생 문예독본』을 제시하고 있지만, 분석의 실증성을 뒷받침하기에는 제시된 자료나 논거가 너무 소략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학생 문예독본』 외에 다른 문인들의 ‘문학독본’의 존재는 없는지 간단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이 논문은 핵심 연구대상인 ‘문학독본’뿐만 아니라 ‘독본 일반’에 대한 논의에도 상당한 비중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독본’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독본의 사회학’에 대한 논의는 따로 독립적인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덩치가 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과묵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독본의 사회학’에 대한 체계적인 연

구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소개한 독본들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독본들이 해방 이후 등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종류의 독본들을 구별하고 분류하는 ‘독본의 유형학’과 같은 이론적 틀이 마련되어야 ‘독본의 사회학’에 대한 논의가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문학독본’의 고유한 특성도 ‘독본의 유형학’이라는 체계 속에서 다른 독본들과의 비교를 통해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학독본’의 특성, “문학이라는 매개를 통해 수용자의 내면화를 추동하는 힘을 지녔다”라는 규정은 문학 일반의 속성을 단지 독본에 부여한 산술적인 규정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마지막 질문은 잘 이해되지 않는 대목에 대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3장 마지막 문단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문학독본이라는 교과서 형식은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가 제시하는 학습 내용을 선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의 통제가 가능한 ‘표준안’이자,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선택 기능을 부여받는 듯한 오인에 사로잡힐 수 있는 효율적인 배제 양식인 셈이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탓인지는 몰라도, 이 문장에서 말하는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학습 내용이나 제재를 선별할 수 있는 독본의 형식과 관련해서 어떤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서술하신 것인지 추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제 2 부 】

■ 제 2 분 과

공공언어의 개념과 요건

김세중(국립국어원)

차 례

1. 공공언어의 개념과 범위
 - 1.1. 공공언어의 정의에 관한 제설
 - 1.2. 공공언어의 개념
 - 1.3. 공공언어의 범위
 2. 공공언어의 요건
 - 2.1. 전달
 - 2.2. 도덕과 규범
 3. 맺음말
- 참고문헌

1. 공공언어의 개념과 범위

공공언어는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일까? 성립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공공언어라는 표현이 사용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그래서 논자들마다 공공언어를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국립국어원이 2009년 조직 개편을 하면서 하부 조직으로 공공언어지원단을 설치하면서 공공언어는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국립국어원은 공공언어의 발전에 주력해야 한다는 뜻에서 공공언어지원단을 두게 되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공공언어인지에 대해서는 뚜렷이 정의되지도 않았거니와 합의된 바도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언어라는 개념이 근거없는, 따라서 불필요한 개념이라는 뜻은 아니다. 가령 헌법을 비롯한 법령문의 언어는 개인의 일기나 메모와는 명확히 구별된다. 법령문의 언어는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어로 엄격히 문법을 지켜서 써야 하지만 개인의 일기나 메모는 반드시 문법을 지킬 필요도 없으며 굳이 표준어로 써야 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극단적인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공공언어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선명히 구별되지만 어느 쪽에 가까운지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게 존재함을 볼 때에 공공언어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이에 따라 공공언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문제가 된다. 공공언어의 개념과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은 앞으로 공공언어에 관한 정책을 펼 때에 무엇을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1.1. 공공언어의 정의에 관한 제설

1.1.1. 국내 학자들의 논의

김정수(2009)는 공공언어를 ‘개인이나 소수 집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성원을 상대한 언어’로 보고 사용 주체를 ‘정부의 공공기관이거나 민간의 공공단체’라 하였다. 이인제(2009)는 공공언어를 ‘국가나 사회 구성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언어’로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회 구성원인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국가 정책 또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명, 설득, 규제를 목적으로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언어’라고 정의하였다. 이광석(2009)은 공공언어란 ‘공공이 쓰는 언어’이며 ‘공공의 장에서 쓰는 언어’라 하였다. 또한 공공언어에 대한 논의는 정책으로 바뀔 수 있는 내용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남영신(2009)은 공공언어를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언어를 포함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하는 언어’ 즉 ‘일반인이 듣고 볼 것을 전제로 한 언어’라고 하였다. 민현식(2010)은 공공언어를 ‘공공적 기관이 생산하는 언어’로 정의하고 공공언어와 별도로 ‘공개언어’라는 개념이 필요함을 제안하면서 공개언어를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개적인 각종 언어 행위까지 포함하는 언어’로 보았다. 박창원(2010)은 공공언어의 조건으로 화자의 공개성, 청자의 비제한성, 환경과 상황의 공공성, 내용과 형식의 대중성, 내용의 충실성과 정보성, 문장 형식의 정확성과 문법성, 표현 방식의 다양성 및 창의성, 화자의 품위성과 교양성을 들었다.

이상의 논의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공공언어의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언급이다. 공공언어의 생산자로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을 꼽고 있고 민간의 공공단체가 언급되기도 하였다. 공공언어의 소비자로서는 ‘사회 전체의 구성원’, ‘일반인’ 등이 지적되었다. 다만, 이광석(2009)은 ‘공공이 쓰는 언어’라고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구별하지 않고 공공언어를 정의하였다.

이광석(2009)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공공언어를 논의함은 정책으로 바뀔 수 있는 내용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한 부분이다. 방송언어를 공공언어라 할 수 있겠으나 정부의 정책으로 방송언어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방송언어는 공공언어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와 비슷한 주장은 허철구(2009)도 피력하였다. 허철구(2009)는 신문, 방송, 출판 등의 언어는 공공언어의 성격을 갖지만 그 생산자가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효율적이 아니며 따라서 비정부 기관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지원, 홍보, 교육 등의 지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민간 부문의 공공언어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되 궁극적으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이미 출판 분야는 언어의 시장경제 원리가 잘 작동되고 있음도 지적하였다.

허철구(2009)는 공공언어를 정부가 생산자인 공공언어와 민간이 생산자인 공공언어로 나누었는데 이는 공공언어의 정의에 대한 주목할 만한 견해로 보인다. 공공언어의 생산자를 정부나 공공기관으로 보는 견해가 보통인데 민간 부문의 공공언어가 따로 성립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정수(2009)도 공공언어의 생산 주체를 ‘정부의 공공기관이거나 민간의 공공단체’라고 한 바가 있는데 이때의 ‘민간의 공공단체’가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는 않다. 이와 관련해서 남영신(2009)도 단지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언어만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

상으로 하여 사용하는 언어는 모두 공공언어라고 봄으로써 그 주체가 정부기관만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1.1.2. 외국의 공공언어 개선에 관한 활동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8년 6월 1일 연방 공무원들에게 보낸 교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연방정부의 문서는 평이한 말을 써야 한다. 평이한 말을 씀으로써 우리는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정부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관해 분명히 전달할 수 있다. 평이한 언어는 정부와 민간 부문의 시간과 노력, 돈을 절약해준다.

평이한 언어에 대한 요구는 문서를 읽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 평이한 언어로 된 문서는 논리적 조직과 읽기 쉬운 디자인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을 사용한다.

-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단어(꼭 필요한 전문적 술어를 제외하고)
- "you"와 그밖의 다른 대명사
- 능동태
- 짧은 문장

평이한 언어 사용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나는 다음 사항을 지시한다.

- 1998년 10월 1일까지 이익이나 서비스를 받는 방법을 설명하거나 정부가 부과하는 요구를 어떻게 따를 것인지를 설명하는 모든 새로운 문서를 평이한 언어로 쓸 것. 예를 들어 서신, 서식, 공고, 지시 등을 포함함

- 2002년 1월까지 1998년 10월 1일 이전에 작성된 모든 그런 문서를 평이한 언어로 써야 함.

- 1999년 1월 1일까지 연방관보에 게시되는 모든 법령문을 평이한 언어로 쓸 것. 기존 규정을 평이한 언어로 다시 쓸 것을 검토하기 바람.

이상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평이한 언어로 쓰도록 지시한 문서는 연방정부가 국민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쓴 모든 글임을 알 수 있다. 공공언어(public language)라는 말 대신에 연방정부 문서(Federal Government's writing)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힘이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연방정부 문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는 민간 단체인 '평이한 영어 운동(Plain English Campaign)'의 활동 덕택에 영국 정부의 문서가 평이하게 변모하였다. 이 단체의 노력에 대해 영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몇 사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평이한 영어 운동'은 공공단체와 시민 사이의 소통 방식을 개선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할 여지가 많다. 그래서 이 단체가 할 일은 아직 많다. (토니 블레어 전 수상)

모든 정치인들은 어려운 용어를 쓰는 잘못을 저지른다. 우리 모두는 '평이한 영어 운동'으로부터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니셜로 된 복잡한 말, 딱딱한 전문용어, 자기들의 자존

심을 내세우기 위해 괜히 복잡하게 표현하는 것들은 정부와 국민 사이의 장벽을 만드는 것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 당수)

가장 복잡한 정책과 결정조차도 분명하고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다. 때로 공공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잊고 있는데 ‘평이한 영어 운동’이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는 언어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이 작업을 계속하기 바란다. (잭 매코널, 전 스코틀랜드 제1장관)

우리는 공식 문서 - 사회 보장 형식부터 백서에 이르기까지 -가 유용하고 이해 가능해야 함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평이한 영어 운동’은 이것이 실현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왔다. (존 메이저 전 수상)

인간 관계는 소통에 의존한다. 나쁜 글은 소통에 장애가 된다. 정부 같은 거대 조직이 거리의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할 때에 오해의 범위는 엄청나다. 쉽고 간명함보다는 장황한 말, 긴 문장, 끝없이 긴 문단이 더 많이 보인다.

우리 모두가 평이한 영어를 쓴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더 쉽고 효율적이겠는가. 평이한 영어가 좋은 정부의 근본적 도구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화려한 언어와 복잡한 문장을 지적 능력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잘못됐다. 위대한 소통자들은 간명한 표현을 신봉하는 사람들이다.

공공 서비스와 공공 행정은 최근 평이한 영어 사용에 큰 발전을 이루었다. 어려운 용어와 공식적 어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사라져 가고 있다. 나는 영원히 이런 말들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평이한 영어는 정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돼야 한다. (대처 전 수상)

영국의 유명한 정치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쉬운 영어, 대중과 소통이 잘 되는 영어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말하는 언어가 쉬워야 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용어 사용을 지양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평이한 영어 운동’의 활동 영역은 단지 정부의 언어만에 그치지 않는다. 이 단체를 1979년 설립하였으며 지금도 이끌고 있는 크리스 마허 여사는 정부의 문서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제약회사 그밖의 여러 회사의 문서들도 쉽게 바꾸어 주는 일을 주도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연금 관련 문건을 쉽게 바꾸는 일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요컨대 영국의 대표적인 공공언어 개선 운동 단체인 ‘평이한 영어 운동’이 힘을 쏟고 있는 대상은 단지 정부 기관의 언어만이 아니며 대중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체의 언어도 포함된다. ‘평이한 영어 운동’은 그 언어의 생산 주체가 누구냐이기보다 그 언어를 보고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더 관심이 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문서라면 모두가 그들의 관심 대상이다. 정부 기관뿐 아니라 민간 사기업들의 언어에도 ‘평이한 영어 운동’이 관심을 쏟는 것은 ‘평이한 영어 운동’ 자체가 정부 기관이 아니고 민간단체이기 때문일 것이다. ‘평이한 영어 운동’은 또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필요하고 수입을 얻기 위해 유료로 언어 교정을 해줄 수밖에 없으며 그런 이상 민간 기업의 언어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어의 ‘공공언어’에 대응할 만한 영어 표현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공공언어’의 가장 유사한 영어 번역은 public language일텐데 public language라는 표

현을 ‘평이한 영어 운동’ 단체가 쓰는 것 같지는 않다.

영어에서 public language라는 표현은 official language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는 있어도 정부 기관이 공중을 대상으로 쓰는 언어를 뜻하는 말로는 쓰이지 않는 것 같다. 즉 public language라는 표현을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영어와 스페인어가 다 쓰일 때에 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쓰이는 경우는 있다. 미국의 마이애미는 쿠바에서 망명한 쿠바계가 많이 살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이들의 처우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마이애미에서는 스페인어가 public language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로스앤젤레스는 원래 백인들만 사는 도시였다가 정치적 망명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멕시코계 사람들이 급증했기 때문에 스페인어는 여전히 주류 언어가 아니고 영어가 public language라는 것이다. 즉 이때의 public language는 영어냐 스페인어냐의 문제이지 한 언어의 특정 상황에서의 사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1.2. 공공언어의 개념

이상의 국내외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공공언어를 정의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공공언어나 아니냐는 공공언어 생산의 주체와 발화 상대의 두 축을 가지고 논할 수 있다. 그밖에 형태가 문어나 구어나, 그 단위가 단어 차원이나 단어에 국한되지 않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공공언어나 아니냐는 문어나 구어나에 상관없다고 할 수 있고 단위의 경우에, 단어에 국한되어야 할 이유가 없음은 명백해 보인다.

결국 공공언어 생산의 주체와 발화 상대만이 문제가 되는데 생산의 주체의 경우에 정부기관과 이에 준하는 단체가 생산하는 언어만이 공공언어나 그렇지 않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영국의 ‘평이한 영어 운동’ 단체의 활동에서 보았듯이 정부기관이 생산한 언어만이 공공언어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 점은 남영신(2009)에서도 이미 지적되었다. 남영신(2009)은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언어를 포함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언어이면 공공언어로 보았던 것이다. 허철구(2009)도 정부가 생산하는 공공언어와 민간 부문의 공공언어로 나뉘므로써 공공언어는 반드시 정부가 사용하는 언어만이 아님을 밝혔다.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공공언어를 사용한다면 공공언어나 아니냐는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생산 주체로써 공공언어를 한정할 수 없다면 결국 공공언어냐의 여부는 발화 상대로써 한정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해 남영신(2009)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하는 언어’, ‘일반인이 듣고 볼 것을 전제로 한 언어’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남영신(2009)을 받아들여 ‘일반인’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일반인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바가 분명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반인’을 대신할 표현으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회 구성원’, ‘공중’, ‘불특정 다수’ 등이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중에서 ‘공중’을 최선으로 보고 공공언어를 정의하고자 한다. ‘불특정 다수’는 유력한 후보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방송 뉴스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발화되지만 교사가 학교 수업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공공언어이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교사는 온 국민을 상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불과 수십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칠 뿐이지만 교사의 교육 언어는 공공언어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공공언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공공언어 : 공중을 상대로 발화되는 언어

공공언어를 이렇게 정의하면 그 생산자가 정부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또는 개인이든 공중을 상대로 발화하는 것이면 모두 공공언어가 된다. 정부기관의 언어행위는 대체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당연히 공공언어에 속한다. 기업이 소비자에게 사용한 언어 표현도 공공언어이다. 광고, 약관, 제품설명서가 이에 속한다. 개인도 공공언어 사용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정치적 주장을 담은 구호를 지하철역 담벼락에 썼다고 친다면 공공언어가 될 수 있을까? 공공언어를 ‘공중을 상대로 발화되는 언어’라고 정의한다면 이를 공공언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인터넷 포털의 토론 광장에서 개인들이 올리는 글도 마찬가지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읽을 것을 가정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글이라면 공공언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창원(2010)은 공공언어의 요건으로 ‘화자의 공개성’을 들면서 익명의 사람이 한 발화는 공공언어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익명이든 아니든 공중으로 상대로 한 발화는 공공언어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공공언어를 ‘공중을 상대로 발화되는 언어’라고 하더라도 어떤 언어 표현이 공공언어에 해당되는지가 늘 명쾌하게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공중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협회, 시민단체, 노동조합, 학회 같은 집단의 회칙이나 회원을 상대로 한 안내문은 공공언어인가, 아닌가. 또,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동호회, 친목회, 팬클럽 같은 집단의 경우는 또 어떠한가.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각 포털에 만들어진 수많은 카페의 경우는 또 어떠한가.

국가도 하나의 사회이고 국가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언어가 공공언어이듯이 협회나 단체, 조합, 학회 같은 특정인들로 이루어진 사회 내에서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언어 역시 일종의 공공언어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위에 열거한 집단들 중에는 회원이 수만 명이 되는 대규모 집단도 있을 것이고 불과 수 명만으로 된 규모가 작은 집단도 있을 텐데 규모가 어떠한지를 떠나서 어떤 목적을 지닌 조직을 구성하였다면 공적 단체라 할 것이고 그 속에서 공중을 상대로 이뤄지는 언어 행위는 공공언어라 할 것이다.

즉, 공공언어는 헌법이나 법령처럼 국가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언어뿐만 아니라 국가 구성원 중에서 어떤 공통적인 속성을 가진 사람들로만 된 집단 안에서의 언어도 포함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공언어는 그 발화되는 대상의 규모에 따라 공공언어의 성격이나 정도성이 달라진다. 헌법이나 법령 또는 도로표지판의 문안 따위는 모든 국민이 읽을 것을 전제하지만 특정 단체 내부의 회칙이나 공지문의 경우는 그 단체의 구성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문안이어서 공공언어로서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매우 약화된다. 다시 말해 공공언어는 공공언어 아닌 언어와 개념상 구별될 수 있기는 하지만 공공언어라 이를 수 있는 것들도 공공언어의 정도성에서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언어라면 그에 맞추어 갖추어야 할 요건이 엄격할 것이고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공공언어라면 그에 요구되는 요건은 덜 엄격할 것이다.

한 예를 들어, 어떤 향우회가 회합을 가졌다고 했을 때에 국회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국민을 상대로 표준어를 써서 발언해야 하는 것만큼 향우회 회장이 회원들을 상대로 표준어를 써서 발언해야 할까. 특정 지역의 향우회에서는 회장이 회원들을 상대로 연설하면서 향토 방언을 쓴다고 지적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1.3. 공공언어의 범위

1.2.의 공공언어의 정의에 따라 공중을 상대로 발화되는 언어는 모두 공공언어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공공언어에 포함될 수 있는 언어를 열거해 보고자 한다.

□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공공언어

- . 법령문(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공고, 고시 등)
- . 공문
- . 보고서
- . 보도자료
- . 안내문
- . 담화문
- . 홍보물
- . 민원서류
- . 도로표지판
- . 현수막, 포스터

공공기관의 범위가 또한 문제가 된다. 정부기관은 당연히 공공기관인데 그밖에 어디까지가 공공기관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대학, 은행 등은 공공적 성격이 강하여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공공기관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될 것이다. 입법부에서는 의사록이, 사법부에서는 판결문, 등기서류 등이 중요한 공공언어에 속한다.

행정부의 경우 각 부처마다 특유한 공공언어가 있을 수 있다. 검찰청의 공소장, 논고문, 경찰청의 조서, 특허청의 특허심결문, 문화재청의 문화재 안내문, 기상청의 기상예보문 등이 그러하다.

□ 매체언어

- . 신문기사
- . 방송프로그램
- . 인터넷

매체언어에 속하는 신문과 방송은 매우 다른 양상을 띤다. 신문은 크게 기사와 광고로 나뉘고 기사는 다시 보도기사, 분석기사, 칼럼 등으로 분류되며 그밖에 일기예보, 방송프로그램 소개, 연재소설 등이 있다. 연재소설을 제외한다면 모두 독자를 상대로 사실과 견해를 전달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러나 방송은 신문에 비해 매우 다양한 형식을 지닌다. 뉴스와 교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시청자에게 주로 정보를 직접 전달하지만 드라마나 예능, 토론 프로그램은 단순하지 않다. 토크쇼나 토론 등에서는 출연자들끼리 대화를 하고 드라마의 경우는 실제 상황이 아니라 출연자들끼리 대본에 따라 연기를 한다. 특히 드라마는 실제 상황이 아니고 극중 상황이므로 출연자들끼리 반말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러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보라고 하는 언어행위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공언어로서의 요건이

있게 된다.

인터넷은 방송보다 더 복잡하다. 개인이 공중을 향해서 발언할 수도 있고 개인이 개인을 향해 발언하지만 공중에 노출된다는 점 때문에 공공언어적 성격을 지닐 수도 있다.

□ 교육언어

- . 교과서
- . 수업

교과서는 교육의 핵심적 수단으로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 교과서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되어야 교육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교과서 언어는 중요한 공공언어라 할 수 있다.

□ 출판물 언어

- . 단행본
- . 잡지(대중잡지/학술지)
- . 만화

출판물은 대중이 지식을 쌓고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출판물은 문학 작품과 비문학 작품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문학 작품은 예술 창작물이기 때문에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제약을 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의 언어 표현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예술 창작물 역시 공공 질서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 공연언어, 게임물언어

- . 영화, 연극의 대사, 자막
- . 가요의 가사
- . 게임언어

영화, 연극, 가요 등도 출판물과 마찬가지로 공공언어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규범이 있고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심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사기업이 생산하는 공공언어

- . 광고문
- . 설명서
- . 계약서, 약관
- . 상호, 간판

기업은 소비자를 상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제품에 대한 홍보, 사용 안내가 그런 것들인데 이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할 때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는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면 궁극적으로는 기업에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사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생산하는 언어는 그 언어를 생산하는 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니라 사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언어의 범주에서 제외하기 쉽다. 그러나 기업 활동은 특정 개

인이 아니라 공중을 상대로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기업 활동 중에 사용하는 언어도 공공언어에 포함시켜야 마땅할 것이다.

다만 정부기관이 생산하는 언어와 차이는 있다. 정부기관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이 선택할 여지가 없는 반면에 기업은 경쟁을 하는 게 보통이므로 소비자인 국민이 선택할 수 있다. 헌법이나 법률은 하나밖에 없고 그것이 온 국민에 영향을 미치지만 상품 설명서는 특정 제품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그런 점에서 정부기관이 생산하는 공공언어보다 기업이 생산하는 언어는 영향력 면에서 떨어진다는 차이가 있다.

□ 단체, 모임이 생산하는 공공언어

- . 회칙
- . 공지문, 게시문

각종 협회, 시민단체, 노동조합, 학회,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동호회, 친목회 그리고 인터넷의 카페 등의 단체나 모임은 규모가 매우 다양한데 폐쇄된 집단이라는 점에서 단체나 모임 안에서의 언어행위는 공공언어로서의 성격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단체나 모임도 역시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 안에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발화되는 언어는 역시 공공언어라 할 수 있다고 본다.

□ 개인이 생산하는 공공언어

- . 게시글
- . 댓글

개인이 인터넷에서 게시글이나 댓글을 통해 공중에게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은 공공언어라 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즉 공중이 그 글을 읽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생산하는 공공언어는 공공언어 중에서는 가장 주변적인 경우이다. 저명인사, 인기 연예인, 파워블로거의 경우 그들이 쓴 글이 대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만 평범한 일반인의 발언은 그것을 읽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 글에 대중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공공언어에 속할 수 있는 언어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정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언론사, 출판사, 사기업, 단체, 개인 등이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공공언어는 정부기관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생산 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영역에 걸쳐 정부가 공공언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 부문의 공공언어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맡긴다든가 해서 자율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해야 하고, 정부기관이 생산하는 공공언어에 대해서는 언어정책 부서에서 그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함은 당연하다.

2. 공공언어의 요건

이상에서 공공언어의 개념과 이에 따른 공공언어의 범위를 살펴보았다. 그럼 공공언어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 보기로 한다.

공공언어가 지녀야 할 요건은 공공언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공공언어의 종류는 공공언어를 생산하는 주체, 그 언어를 읽고 볼 대상, 그리고 전달되는 내용의 성격에 따라 구분된다. 본고에서는 공공언어에 속하는 다양한 유형의 개별적인 요건을 기술하는 대신에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적 요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고자 한다.

2.1. 전달

공공언어는 공중에 대한 전달이 일차적 목적이므로 전달이 잘 되지 않으면 안 된다.

(1) 문법

문법을 지키지 못한 표현은 이해를 가로막는다. 공공언어는 공중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데 읽는 공중이 이해를 잘 하지 못한다면 실패한 사례가 된다.

(2) 표준어

표준어를 쓸 때에 최대 다수가 이해할 수 있다. 특정 지역의 언어는 그 지역 사람들만이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적절한 단어

궁벽진 한자어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외국어를 쓸 경우 이해하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고 공공언어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물론 모든 경우에 다 쉬운 단어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 집단끼리 소통하는 상황에서는 그에 필요한 전문용어를 쓰는 것은 당연하다. 언어 사용 맥락에 맞는 어휘를 선택해야 한다.

2.2. 도덕과 규범

공공언어는 개인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을 향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공중도덕을 지켜야 한다.

(1) 품위

방송드라마는 시청자를 상대로 하는 말이 아니고 극중 인물들간의 대화이다. 시청자를 상대로 하는 말이 아니더라도 비속어, 폭력적 언어, 차별적 언어 사용에 대해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는 불편을 느낀다. 방송드라마를 비롯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언어, 신문의 언어는 품위를 지켜야 한다.

국회에서 의원들의 발언은 의사록에 남을 뿐 아니라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기도 한다. 의원들끼리 또는 의원들이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하는 발언이지만 일반 국민들이 듣고 볼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발언은 욕설, 반말, 비속어 사용이 금기시된다. 요컨대

공공언어는 품위를 지켜서 말할 것이 요구된다.

(2) 풍속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은 공공언어에서 금기로 간주된다. 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을 담아 출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는 영화, 연극, 가요 등도 마찬가지이다.

(3) 개인의 명예, 국가이념

출판물에 의해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어떤 언어행위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이념에 반하는 내용을 말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3. 맺음말

공공언어가 최근 자주 논의에 오르게 되었지만 공공언어의 개념, 범위에 대해서는 그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공공언어를 ‘공중을 상대로 발화되는 언어’로 정의함으로써 공공언어가 주체에 의해 정의되기보다는 그 말이 향해지는 상대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주체가 정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그것을 비롯하여 사기업, 민간단체, 사적인 모임, 그리고 심지어 개인도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공공언어의 범위를 이렇게 넓게 본다고 해서 이 모든 공공언어에 대해 정부가 정책을 미쳐야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사기업의 광고, 홍보 등의 언어에 대해서는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하며 민간단체나 개인이 생산하는 공공언어 역시 생산 주체가 스스로 언어를 정제해야 한다. 정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언어는 그 언어가 미치는 대상이 기업이나 단체, 개인의 그것보다 광범위하고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언어정책기관이 나서서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한다.

공공언어의 요건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 정확한 전달이 그 하나이고 도덕과 규범의 준수가 다른 하나이다. 공공언어는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는 문법이 잘 지켜져야 하며 표준어로 말해야 하며 적절한 단어를 써야 한다. 도덕과 규범의 준수와 관련해서는 품위를 지켜서 말해야 하며 사회적 풍속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의 명예와 국가이념을 보호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세중(2010) 공공언어 정책의 방향과 계획,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이정현 국회의원 주최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 김정수(2009) 공공기관의 언어, 국립국어원 공공언어 관련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 남영신(2009) 공공언어 순화 추진과 제도 확립 방안, 국립국어원 공공언어 관련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 남영신(2010)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추진 체계
- 민현식(2010) 암호화하는 공공언어 해결 방안의 모색,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이정현 국회의
원 주최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토론문
- 박창원(2010) 공공언어 정비를 위한 중장기 계획,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이정현 국회의원
주최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 이광석(2009) 토론문, 국립국어원 공공언어 관련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 이인제(2009) 공공언어로서 교육 언어의 사용 실상과 개선 정책, 국립국어원 공공언어 관련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 허철구(2009) 공공언어를 위한 정부의 역할, 국립국어원 공공언어 관련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http://contexts.org/thickculture/2009/01/28/the-public-language/>

http://www.mrm.mms.gov/laws_r_d/FRNotices/PDFDocs/31885.pdf

<http://www.plainenglish.co.uk/>

<http://www.plainlanguage.gov/>

<http://www.plainlanguagenetwork.org/>

공공언어의 개념과 요건

허재영(단국대)

먼저 좋은 발표를 맡아 주신 김세중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공공언어’라는 용어의 개념을 정립하는 일은 간단한 듯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행 연구자들의 여러 가지 논리를 종합하더라도 명쾌한 개념을 정립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점에서 이번 발표는 개념과 범위를 살핀 뒤, 공공언어의 요건을 규명하고자 한 시도로 보입니다. 이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 (1) 공공언어의 개념: 공중을 상대로 발화되는 언어
- (2) 공공언어의 범위: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공공언어 이외의 일곱 가지 유형(모두 8가지)
- (3) 요건: 전달, 도덕과 규범

이처럼 개념과 범위, 요건을 확정하고자 한 것은 공공언어가 국가의 언어정책의 주요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언어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서 이 논문은 국가의 언어정책의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다만 공공언어에 대한 학술적 규명에서는 개념이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공공언어 정책의 필요성을 먼저 규명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언어정책은 언어 공동체의 언어 문제에 대한 국가나 정부(또는 어떠한 단체)의 정책적인 접근을 의미하는데, 이를 고려할 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공공기관의 언어’ 또는 ‘공중을 대상으로 한 언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공공언어 정책이 입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1.2.’의 외국의 공공언어 개선에 관한 활동과 같이 우리의 공공언어 개선의 필요성을 살펴 가면 귀납적인 방법에 따라 공공언어의 개념이나 범위 등도 좀 더 쉽게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발표자께서 어느 정도 해답을 갖고 있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2010년 3월 국립국어원 누리집에는 다음과 같은 알림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알림글은 아마도 공공언어에 대한 정부 정책의 핵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논문 발표를 해 주신 김세중 부장님의 생각도 적절히 녹아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립국어원은 공공언어의 품질을 높이는 일에 더욱 힘을 쏟고자 2009년 5월 조직 개편 때에 공공언어지원단을 만들었고, 올해부터는 공공언어 지원 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하기 위해 이 누리집을 개설하였습니다.

공공언어는 국민과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로서 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공공언어는 개인들 사이의 언어와 달리 다수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언

어인 만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바르고 쉽고 정확해야 합니다.

국립국어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이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책 용어와 문장을 쓸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이 누리집을 통해 각 기관에서 다듬고 싶은 말을 알려 주시면 어떻게 바꾸어 쓰는 것이 좋을지 국립국어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널리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공공언어가 정부의 언어 정책의 주요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공공’이라는 말이 이미 ‘사적인 것’을 배제하고 있음을 전제로 할 때 지극히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국가의 공적 언어 정책의 필요성을 논리화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방송언어’나 ‘인터넷 언어’가 공공언어인가 아닌가의 규명보다는 그에 대한 국가의 언어정책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규명하는 일이 우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이들 분야의 어문생활에서도 국가의 계도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훌륭한 발표를 듣게 해 주신 발표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공공언어의 표기와 표현

-교과서의 표기·표현을 중심으로

정희창(국립국어원)

차 례

1. 공공언어와 교과서
 2. 교과서의 표기 문제
 3. 교과서의 표현 문제
 4. 결론
- 참고문헌

1. 공공언어와 교과서

‘공공언어’란 무엇일까? 공공언어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공개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언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적 영역이 포함된 것은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적인 언어 행위가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고 유통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통신, 블로그, 트위터 등을 매개로 하는 언어 행위는 다수를 대상으로 유통되고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사적인 언어 행위라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언어의 영역에 속하는 언어 형식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범위	출현 형식
①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	법률, 공문서, 관보, 고시문, 보도자료, 판결문, 안내문, 게시문, 표지판, 민원 서식, 담화문, 연결문 등
②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기사, 사설, 칼럼, 뉴스, 교양 프로그램, 예능·오락 프로그램, 인터넷 기사, 공개 정보, 토론방, 댓글
③계약, 판매, 구매, 광고 등 경제 활동에서 사용하는 언어	계약서, 약관, 견적서, 영수증, 상품명, 사용설명서, 원재료명, 함량 표시, 광고, 간판, 홍보물 등
④출판, 연극, 영화, 음악 등 문화 활동에서 사용하는 언어	교양서적, 대사, 자막, 가사 등
⑤각급 학교, 학계 등 교육 및 학술 활동에서 사용하는 언어	교과서, 강의, 강연, 전문 서적, 전문 용어 등

본고에서는 이중에서 다섯 번째, 교육 및 학술 활동에서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서의 표기와 표현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교과서 표기·표현의 분석 기준은 무엇인가?
나. 교과서 표기·표현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은 무엇인가?

교과서의 표기·표현 영역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표기: 표기법의 영역
 - 1)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장 부호
 - 2) 띄어쓰기
- 표현: 문법의 영역
 - 1) 어휘
 - 2) 문법

‘표기’는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포함되고 ‘표현’은 어휘와 문법이 포함된다. 한글 맞춤법은 ‘쏟니피바라메흔날리고이썸요’와 같이 쓰지 않고 ‘꽃잎이바람에흔날리고있어요’와 같이 쓰는 것을 말하고 띄어쓰기는 ‘꽃잎이바람에흔날리고있어요’를 ‘꽃잎이 바람에 흔날리고 있어요’와 같이 단어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을 말한다.

- 쏟니피바라메흔날리고이썸요
- 꽃잎이바람에흔날리고있어요
- 꽃잎이 바람에 흔날리고 있어요

‘표현’의 ‘어휘’는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 우리 가족의 손때가 어린 우리 집 대문을 (이현우 1999)
- 우리 학교 농구 팀은 월등한 신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패했다.

위의 ‘손때가 어리다’에서 ‘손때’는 구체적인 흔적이므로 ‘어리다’보다는 ‘묻다’가 적절하다. 또한 ‘월등한 신장의 열세’에서 ‘월등하다’는 ‘뛰어나다’는 뜻이므로 ‘열세’라는 어휘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현저한 신장의 열세’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문법’은 문장 성분 간의 호응, 연결, 조사와 어미의 사용, 문장 구조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노비는 일종의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었다.

위 문장의 핵심은 ‘노비는 ~ 대상이었다’이다. ‘대상이었다’의 ‘이-’는 학교 문법의 ‘서술

격조사'인데 이러한 구조에서는 논리적으로 '노비≤대상'이라는 관계가 성립한다. '코끼리는 동물이다'에서 '코끼리≤동물'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데 위 문장에서 나타내하고자 하는 것은 '노비≤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상이었다'를 '대상이 되었다'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 이상의 문장이 연결된 구성에서는 문장 성분 간의 문법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 자라한테 벌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동물들이 언제 또 이런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위의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지 않으면'으로 수정해야 한다. '벌을 주다'가 동사이므로 대용할 때도 역시 동사인 '그러다'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형용사이므로 동사를 대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교과서의 표기·표현을 분석하기 위한 분류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내용은 교과서 표기·표현 분석을 위한 시안으로 실제로 활용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 표기

1. 맞춤법, 2. 띄어쓰기, 3. 비표준어, 4. 외래어 표기, 5. 로마자 표기, 6. 문장 부호, 7. 오자, 8. 탈자, 9. 표기 기타

- 표현

1. 부적절한 호응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문법적으로 잘못된 경우)
2. 부적절한 문장 성분 (①필요한 문장 성분이 없음 ②구조적으로 불필요한 문장 성분이 있음)
3. 부적절한 어순
4. 부적절한 시제
5. 부적절한 사동
6. 부적절한 피동
7. 부적절한 높임
8. 부적절한 조사 (필요한 조사가 생략된 경우도 포함)
9. 부적절한 어미
10. 부적절한 접속 (①하나의 문장 안에서 접속 관계가 잘못됨 ②접속부사가 잘못 쓰임)
11. 장황한 표현 (①문장에 불필요한 내용이 많아 간결하게 수정해야 함 ②문장이 지나치게 길)
12. 부적절한 문장 연결 (문장 사이의 내용 연결이 부자연스러움)
13. 부적절한 어휘
- 13-1. 외래어 오남용, 13-2. 번역투, 13-3. 어려운 한자, 13-4. 의미 오류
- 13-5. 어휘 선택, 13-6. 기타

14. 기타(1.~13.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기타’라고 적음)

15. 의미상 호응이 안 되는 문장은 ‘어휘 선택’으로 씀.

예) 역할 분담을 나눌 때 → 역할 분담을 할 때(역할을 분담할 때, 역할을 나눌 때)

2. 교과서의 표기 문제

교과서의 표기는 한글 맞춤법을 비롯한 어문 규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규범이나 규범을 반영한 사전에 따라 교과서의 표기가 결정된다.

- 말아톤, 난쟁이가 쓰아 올린 작은 공

교과서의 표기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규범, 국어사전 외에 ‘편수 자료’를 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교과서의 표기 문제는 본격적인 규범 사전이¹⁾ 출현함으로써 전기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전의 불완전한 표기 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규범의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세부적인 부분까지 일관된 표기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아래는 사전을 통해 일반화된 규범의 예들이다.²⁾

- 가. 아니오(→아니요), 슛을(→슛틀), 그리고 나서(→그러고 나서)
나. 윗줄(→위 줄), 하룻동안(→하루 동안), 손윗누이(→손위 누이)
다. 자리 수보다(→자릿수보다), 어제밤(→어젯밤), 꼭지점(→꼭짓점)
르. 윗층(→위층), 햇팔(→해팔)
미. 부모의 반대에 부딪치는(→부딪히는)
비. 그 색이에요(→색이에요), 그게 아니예요(→아니예요)

또한 사전에서는 띄어쓰기와 관련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교과서의 띄어쓰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가. 우리 나라(→우리나라), 우리 말(→우리말)
나. 동명성왕(→동명 성왕), 세종대왕(→세종 대왕), 쿠푸왕(→쿠푸 왕)
다. 충청 남도(→충청남도), 태백 산맥(→태백산맥), 알프스산맥(→알프스 산맥)
르. 얼굴이 예쁜데다가(→예쁜 데다가), 더울 뿐더러(→더울뿐더러)
미. 어떻게 할 지 모르겠다(→할지), 십년만의 재회(→십 년 만의)
비. 홍길동 씨, 홍 씨, 길동 씨(씨, 군, 양, 님, 옹)
시. 사과를 먹었음직하다(→먹었음 직하다), 크기가 송아지만하다(→송아지만 하다)

1)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말한다. 앞으로 ‘사전’이라고 약칭한다.

2) 여기에 제시한 예들의 구체적인 해석은 정희창(2003, 2007, 2010a, 2010b)를 참조할 수 있다.

○. 예뻐 지다(→예뻐지다), 고마워 하다(→고마워하다)

그런데 사전은 모든 규범을 제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사전은 기본적으로 표제어를 통해 규범을 보여 주기 때문에 표제어화하기 어려운 내용은 사전에서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한 예로 아래와 같이 ‘-감’으로 끝나지만 사전에 올라 있는 것과 올라 있지 않은 것들의 처리를 들 수 있다.

- ㄱ. 사윗감, 장군감, 신랑감, 신붓감, 구경감, 놀림감, 빨랫감, 안줏감, 한복감
ㄱ' 회장감, 대통령감, 총리감, 반장감
- ㄴ. 옷감, 책감, 밥감, 떡감, 물감, 술감
- ㄴ' 기름감, 물건감, 신문감, 음식감, 변숫감, 분석감, 위상감, 저항감

(ㄱ)은 사전에 등재되었지만 (ㄱ')는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말이다. 사전에 따르면 사전에 등재된 것은 한 단어지만 사전에 오르지 않은 것은 한 단어가 아니다. 그렇지만 이 둘은 동일한 구성이므로 이들을 달리 처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ㄱ')가 사전에 오르지 않은 것은 모든 합성어를 사전에 표제어화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ㄴ, ㄴ')의 ‘-감’ 또한 마찬가지다. 사전에서는 이들의 일관된 처리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감 「명」 ~ 「2」 (옷을 뜻하는 명사 뒤에 붙어) ‘옷을 만드는 재료’의 뜻을 나타내는 말. ◻한복감/양복감 ~ 「4」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자격을 갖춘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말. ◻신랑감/며느릿감 ~ 「5」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대상이 되는 도구, 사물, 사람, 재료의 뜻’을 나타내는 말. ◻구경감/놀림감/땀감 ~

위는 ‘X+ 감’의 형식을 취하는 합성어의 띄어쓰기를 보여 주는 방식으로 합성어에서 선행하는 요소의 범주와 만들어지는 합성어의 의미를 제한함으로써 규범의 내용을 표시한다. ‘X+ 감’의 띄어쓰기에 대한 판단 결과는 ‘X+ 감’의 합성어에 대한 판단과 동일하다. 위의 내용을 근거로 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작업복을 만드는 데 적합한 옷감’의 띄어쓰기는 ‘작업복감’으로 결정할 수 있다.³⁾

3. 교과서의 표현 문제⁴⁾

1) 어휘의 적절성

- 의미가 통하는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3)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희창(2010b)를 참조할 수 있다.

4) 여기에 제시하는 내용은 정희창(2010a)와 기본적인 논지는 동일하다.

세계적으로 눈이 많이 분포하는 곳은 겨울 기온이 낮은 냉대와 한대 기후 지역이다

‘눈이 분포하다’는 이상하다. ‘눈이 많이 내리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막걸리를 가열하여 증기를 냉각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주를 만들기도 하였다.

밑줄 친 ‘과정을 통하여’라는 표현이 모호하다. ‘과정을 거쳐’가 좀 더 분명한 표현이다.

- 문법 관계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아무리 서둘러도 지각을 할 시각이었다.

‘아무리’는 주로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온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다’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서둘러도 지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각이었다.’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음뿐만 아니라 글자꼴도 비슷해서 헛갈리는 사람들도 있지요.

‘글자꼴이 비슷해서 사람들이 헛갈린다’는 적절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헛갈려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

-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세계 기아 문제를 돕기 위해 자선 바자회 개최를 위한 포스터를 만들어 봅시다.

밑줄 친 부분은 ‘바자회 개최 포스터’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문법의 적절성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적절한지 유의하면서 글을 쓴다.

정보와 자료 수집에 있어서는 되도록 정확한 것을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은 ‘정보와 자료는’으로 수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하려는’의 주어가 없으므로 ‘그것을’을 보충해야 한다. 그리고 ‘노력은’은 ‘노력이’로 수정한다.

지구 표면의 4분의3 정도가 물로 덮여 있지만, 대부분 염분의 함유량이 높은 바닷물입니다.

밑줄 친 ‘대부분’은 명사와 부사로 모두 쓰이므로 ‘대부분 바닷물이다’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 그럴 경우 주어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을 ‘대부분은’으로 수정하여 주어를 분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교실에서 나가거나 들어갈 때에는 줄을 서서 차례를 지킵니다.

‘교실에서 나가다’는 적절하지만 ‘교실에서 들어가다’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교실에 들어갈 때에는’으로 수정한다.

정상을 정복했을 때의 희열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와 같은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위 문장은 ‘희열이 보람을 느낀다’의 구조이다. ‘희열은 보람과 비슷하다’ 정도로 고쳐야 올바른 문장이 된다.

맞장구치는 말은 상대방이 말할 때 기분 좋게 받아 주는 말입니다.

위 문장에서는 ‘받아 주는’에 호응하는 말이 없다. ‘상대방이 말할 때’를 ‘상대방의 말을’ 정도로 바꾸어야 한다.

문단이란 하나의 주제(topic)에 밀접하게 관련된 일련의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글입니다.

‘문단’은 글의 하위 단위이므로 ‘문단은 ~ 글이다’와 같은 정의는 적절하지 않다. ‘문단이란 ~ 구성된 것을 말한다’ 정도로 수정한다.

• **과도하게 생략된 성분은 없는지 유의하면서 글을 쓴다.**

2004년 4월 ‘텔레비전 끄기 주간’에는 미국 전역에서 약 760만 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텔레비전 끄기 주간’에 동참할 수는 없으므로 ‘이 캠페인’ 정도를 보충해 넣어야 한다.

사포닌은 인삼의 주요 성분으로 정신 장애, 학습, 기억 및 감각기능의 개선에 효능이 있다.

빠진 내용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사포닌은 인삼의 주요 성분으로 정신 장애 치유, 학습 능력 향상, 기억 및 감각기능의 개선에 효능이 있다.’ 정도로 수정한다.

• 어순이 적절한지 유의하면서 글을 쓴다.

영화를 보기 위하여 극장에 가면 좌석 배열을 복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좌석 배열을 나타낸 평면도를 볼 수 있다.

첫 번째 ‘좌석 배열’의 순서를 ‘복도에서’ 뒤로 옮기면 뒤의 ‘좌석 배열을 나타낸’을 ‘한’으로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다.

지형적으로는 서쪽은 대체로 높고 동쪽은 낮은 편입니다.

부사 ‘대체로’가 전체를 수식하도록 ‘서쪽은 ~ ’ 앞으로 이동한다.

• 어미와 조사의 선택에 유의하면서 글을 쓴다.

골프공의 표면은 축구공이나 배구공처럼 표면이 매끈하지 않다.

위 문장은 ‘축구공, 배구공’의 표면이 매끈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조사 ‘배구공처럼’을 ‘배구공과 달리’로 수정해야 한다.

내 주변에 잘 아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입니다.

‘내 주변의 잘 아는 사람’으로 고쳐야 한다. ‘명사구’와 ‘명사구’가 연결되는 구조이므로 ‘에’는 쓰일 수 없다. 애국가의 ‘남산 위에 저 소나무’도 ‘남산 위의 저 소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남산 위에 (있는) 저 소나무’처럼 ‘있는’과 같은 요소를 보충해서 이해하는 것은 ‘있는’이 구조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므로 적절하다고 하기 어렵다.

정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는 같거나 세 각의 크기는 같다.

문장의 주제가 ‘정삼각형’이므로 ‘정삼각형은’으로 수정한다. 이에 맞춰 ‘길이는, 크기는’은 ‘길이가’, ‘크기가’로 수정한다.

비록 실패했지만 거기에 들인 노력은 가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다.

안긴문장의 주어는 ‘이/가’로 표현해야 한다.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의 ‘비가’를 ‘비는’으로 바꾸면 “농부들은 비는 오기를 기다렸다’처럼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우리만의 시각으로 비도덕적이라고, 또는 예절에 어긋난다고 비난한 적이 있지는 않

은가?

‘사람에게 비난하다’는 올바르지 않다. ‘사람을/누군가를 비난하다’로 수정해야 한다.

옥사나는 발견되었을 때 개처럼 짖거나 네 발로 뛰어다니는 등 동물의 특성을 보였다.

‘짖거나 ~ 뛰어다니는’을 ‘짖고 ~ 뛰어다니는’으로 수정해야 한다.

• 능동과 피동 표현에 유의하면서 글을 쓴다.

정부는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점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데, 정부의 강제력 행사가 자의적이 되지 못하도록 권력을 분립시키고 있다. (임동훈 2003)

위 문장은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는 ~행사하다’와 ‘정부의 ~ 권력을 분립시키고 있다’이다. 그런데 주어가 다른데도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아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밑줄 친 부분을 ‘권력이 분립되어 있다’처럼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세히 검토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체가 서로 다르다. 뒤 문장을 ‘건의 내용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그녀의 맨발의 자유로운 춤은 무용에 대한 인식을 바뀌게 하였고, 무용 세계에 혁명을 일으켰다

‘자유로운 춤은 인식을 바꾸었고 혁명을 일으켰다’로 수정해야 올바른 문장이 된다.

• 시제와 서법, 높임법에 유의하면서 글을 쓴다.

폐지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후각이 아주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다.

‘두드러지는’은 적절하지 않다. ‘두드러진’으로 수정한다.

두 선수 A, B가 동시에 한 과녁을 향하여 화살을 쏠 때, 골드에 화살이 꽃혀 있을 확률을 구하여라.

‘화살을 쏠 때 꽃혀 있을’보다는 ‘화살을 쏠 때 꽃힐’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욕심꾸러기 농부는 사또께 송아지를 선물로 바쳤습니다.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상황이므로 ‘사또께’와 같은 존칭의 조사를 사용하여 ‘사또’를 높일 필요가 없다.

- 수식하는 말에 유의하면서 글을 쓴다.

만화책에는 비교육적인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이 많아 정서에 좋지 않다.

‘비교육적, 자극적, 폭력적’이 모두 ‘내용’을 수식하지만 이들 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논리적으로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이 비교육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만화책에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이 많아 비교육적이며 정서에도 좋지 않다’로 수정한다.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 계획’으로 수정해야 한다. 문법적인 비문이 아니라 해도 의미적으로 명확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 문장 간의 연결이 적절한지 유의하면서 글을 쓴다.

또 책의 내용을 소개할 때, 감명 깊게 읽은 구절을 인용하면 듣는 이가 대상을 더욱 인상 깊게 기억하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위 문장은 ‘구절을 인용하면 듣는 이가 기억하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다’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는 문법적으로 통하지 않는 문장이다. 밑줄 친 ‘인용하면’이 주어가 되도록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하면 전체적으로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 전체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글을 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를 꼭 가져야 한다는 가치관의 변화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밑줄 친 부분은 ‘아이를 꼭 가져야 한다’가 ‘가치관’과 동의 관계일 수도 있고, ‘가치관의 변화’와 동의 관계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문장이 중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아이를 꼭 가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변화한 것’으로 수정한다.

광고에서는 사람의 이야기보다 사물이나 자연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먼저 ‘사람의 이야기’에 맞춰 ‘사물이나 자연의 입장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사물이나 자연의 이야기’로 수정한 다음 ‘사람의 이야기’가 다소 모호하므로 ‘사람에 관한 이야기’, ‘사물이나 자연에 관한 이야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 외국어투의 표현이 아닌지 유의하면서 글을 쓴다.

지나친 개발과 산업화를 통하여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지나친 개발과 산업화로 공기가 오염되고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와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서운해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셔서’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長: ‘길다’는 뜻 외에 ‘성장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무생물인 글자가 행동주가 될 수 없으므로 밑줄 친 부분을 ‘뜻도 있다’로 수정한다.

전자 현미경은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까지도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

‘전자 현미경’이 주어인데 국어에서는 무생물이 행동주가 되지 않으므로 ‘전자 현미경을 이용하면 ~ 관찰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4. 결론

■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1999), “교과서 문장 실태 연구1”,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2000), “교과서 문장 실태 연구2”,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2000), “교과서 문장 실태 연구3”, 국립국어연구원
김세중(2003), “신문 문장 분석”, 국립국어연구원
김한샘(2009), 국정 교과서 표기·표현 개선의 실제, “문법교육 11”, 한국문법교육학회, 173~199쪽.
- 배수찬(2006),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 과정 연구”, 서울대 박사 학위 논문
양명희·이영숙·정희창(2006), 초등학교용 쓰기 교재 개발 방안 연구, “작문연구2”, 한국작문학회.
- 양철훈·정희창 외(2008), 방송 뉴스 쓰기, 랜덤하우스
이광호(1985), 문법 요소, “현대 구어 문장의 실태 분석”, 정신문화연구원
이지수(2010), 문장 구성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이지호(1997), “글쓰기와 글쓰기 교육”,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현우(1999), 교과서의 문장 실태, “새국어생활 9-4”, 국립국어연구원
임동훈(2003), 바른 문장 쓰기, “바른 국어생활”, 국립국어연구원
장경희(1999), 바른 글쓰기, “새국어생활 9-4”, 국립국어연구원
장소원 외(2001), “글쓰기의 기초”, 한국방송통신대출판부
정희창(2003), 교과서의 표현과 표기, 교과서연구 40호, 교과서연구재단.
정희창(2007), “우리말 맞춤법, 띄어쓰기”, 랜덤하우스.
정희창(2010a), 글쓰기의 국어학적 분석, “반교어문연구28”, 반교어문학회. 57~85쪽
정희창(2010b), ‘규범, 사전, 문법’의 관계와 내용 구성, “한국어학 47”, 한국어학회. 235~260쪽
정희창(2010c), ‘요/이요’의 교체 원리 “한글 288”, 한글학회. 73~89쪽
허철구(1999), 한국인의 글쓰기에 나타나는 단어와 문장의 오류, “새국어생활 9-4”, 국립국어연구원
- Knapp & Watkins(2005), Genre, TEXT, grammar, UNSW Press. Australia. [주세형 외역(2007), 장르, 텍스트, 문법, 박이정]

공공언어의 표기와 표현

박동근(건국대)

교과서는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교재라는 점에서, 교과서 표기·표현의 정확성 문제를 점검하는 것은 다른 공공언어 텍스트와는 또 다른 중요성을 가집니다. 더욱이 교과서의 문장은 어문규범과 국어사전과 함께 규범적인 문장의 기준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어 관련 교과 외에도 수 많은 교과서들이 있으며, 이들이 모두 정확한 표기와 표현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교과서의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은 궁극적으로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핵심적인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발표하신 교과서 표기·표현의 오류 유형과 사례 분석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글쓰기 교육을 하면서 오늘 발표하신 오류 유형들을 기본적으로 다루기는 하지만, 막상 교수자의 입장에서 주어진 문장의 잘잘못이 언뜻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리 발표 요지를 읽어 나가면서 마치 학생의 입장에서 오류문을 풀어나가는 심정으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제 자신도 평소 주의하지 못했던 오류 표현들이 적지 않았음을 실감했고, 오류 사례집을 통해 다양한 전공의 교과서 집필자들이 가능한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제시 방법에 있어 사소한 이견이 있어 이 자리를 빌려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발표자께서는 교과서의 표기·표현 영역을 표기법의 영역과 표현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피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표기·표현 분석을 위한 시안으로 제시한 분류 항목을 보면 ‘표기’의 영역은 주로 어문규범과 관련한 것이며, 표현은 규범 문법과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대분류와 제안하신 소검토 항목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4대 어문규범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어문 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표준 화법’이 있습니다. 표준 화법의 문제는 대부분 어휘 선택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발표하신 내용 가운데 표준 화법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표준 화법의 문제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또한 표현과 관련해서 최근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공공언어의 차별적 표현과 관련한 표현 문제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 어문규범과 관련된 표기 항목은 명백히 잘잘못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 항목의 검토에서는 명백히 잘못된 것과 상대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잘못된 문장 성분의 호응이나, 어미나 조사 사용의 잘못과 같이 규범 문법 안에서 명백한 오류가 있는 반면 사피동의 선택이나, 외래어 사용, 번역투 문장, 한자 선택에 대해서는 글쓴이에 따라 적절성의 정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나친’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는 있지만, 선택에 대한 지나친 제한 또한 다채로운 표현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셋째, 합성어의 띄어쓰기 문제는 늘 고민스럽습니다. 단어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이 있지만, 실제 띄어쓰기에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합성어와 구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어사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발표자께서는 사전에 모든 합성어가 수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 등재 여부와 관계 없이 ‘사회감-회장감’, ‘옷값-기름값’ 등은 동일한 구성이므로 이들을 달리 처리할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모두 붙여 씀)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합성어 판단의 최후 보루인 사전의 중요한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X-감’이나, ‘X-값’의 ‘감’이나 ‘값’에 대해 국어사전에서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라는 부가 정보를 달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구조의 ‘함흥냉면, 평양냉면, 옥천냉면’의 경우 ‘함흥냉면’과 ‘평양냉면’은 국어사전에 있지만 ‘옥천냉면’은 사전에 없는데 발표자의 견해라면 이들도 달리 처리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전주비빔밥’은 국어사전에 있지만 ‘춘천막국수’는 국어사전에 없는 말인데, 결국 ‘지명 + 음식’ 구성의 ‘구’ 역시 달리 처리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국어사전에 ‘우리-X’ 합성어는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글’ 딱 세 개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없는 ‘우리 음악(국악)’, ‘우리 옷(한복)’, ‘우리 민족(한민족)’도 같은 맥락이라면 일관되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니어서 오늘 발표자께서는 어떤 합리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공언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 방식

조태린(국립국어원)

차 례

1. 머리말
 2. 공공언어의 정의와 유형
 3. 공공언어 문제의 종류와 특성
 - 3.1. 어려운 공공언어 사용
 - 3.2. 부정확한 공공언어 사용
 - 3.3. 지속한 공공언어 사용
 - 3.4. 차별적 공공언어 사용
 4. 공공언어 문제와 정책적 개입 방식
 - 4.1. 공공언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 방식 세 가지
 - 4.2. 공공언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현황
 - 4.3. 공공언어 문제에 대한 효과적 개입 방식
 5. 맺음말
- 참고문헌

1. 머리말

이 글은 공공언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 방식으로 어떠한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개입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공언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유형은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공공언어 문제의 종류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를 통해 공공언어의 유형과 공공언어 문제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언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 방식을 세 가지로 나누어 비교하고 각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공공언어의 유형과 문제 종류를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공공언어의 정의와 유형

‘공공언어’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아직까지 사용되거나 논의된 바가 많지 않

은 상당히 새로운 개념이다. 국립국어원은 2009년 5월 직제 개편과 함께 ‘공공언어지원단’을 설치한 이후부터 ‘공공(公共)’과 ‘언어(言語)’의 연쇄 표현인 ‘공공 언어’에서 더 나아가 하나의 합성어인 ‘공공언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공공언어’가 아직 표제어로 올라있지 않다. 공공언어를 영어로 번역하자면 ‘public language’가 가장 적절한 텐데, 이를 합성어로 올린 사전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사회언어학 또는 언어정책론 관련 각종 서적이나 논문에서도 그러한 표현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최근에는 이러한 공공언어를 학문적인 개념으로 정립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언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公共, public)’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 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영어 사전에서는 ‘보통 사람들의(of ordinary people), 모두를 위한(for everyone), 정부의(of government), 사람들에게 보이고 들리는(seen/heard by people), 많은 사람과 관계된(with many people)’ 등의 복합적인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를 좀 더 학문적인 개념으로 정교화한다면 ‘공공’은 “관청은 물론이고 공원, 은행, 학교, 종교 등의 시설이나 조직처럼 누구든지 공식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사사로이 점유되거나 배타적으로 소유되지 않는 사회 제도나 영역 혹은 기관과 관련되는 것”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김하수 2009: 1).

‘공공언어’는 바로 이러한 공공의 개념을 바탕으로 성립될 수 있을 텐데, “개인이나 소수 집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성원을 상대한 언어”(김정수 2009: 1), “정부나 공공 기관이 사회 구성원인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국가 정책 또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명, 설득, 규제를 목적으로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언어”(이인제 2009: 30),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언어와 민간에서 사용하는 언어라도 일반인이 듣고 볼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하는 언어”(남영신 2009: 69) 등의 정의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공언어의 정의들에서는 미묘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정의에서는 언어 사용의 주체가 아예 명시되지 않고 ‘사회 전체의 구성원’이라는 대상만이 부각되고 있다. 반면에 두 번째 정의에서는 언어 사용의 주체를 ‘정부나 공공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세 번째 정의에서는 언어 사용의 주체로 민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공공언어는 언어 사용의 대상만을 고려한다면 “대중을 향해 쓰이는 언어”(김세중 2010: 83)라는 포괄적 정의가 가능할 것이지만, 언어 사용의 주체를 고려한다면 두세 가지의 서로 다른 정의가 나올 수 있다. 심지어는 정부 기관만이 아니라 민간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언어도 공공언어로 정의하던 필자마저도 상황과 필요에 따라 공공언어 사용의 주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등의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기도 한다(남영신 2010: 65).

한편 공공언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공언어에 비해 사회언어학 등의 학술적 논의에서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공용어(公用語, official language)’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공용어는 “법정, 정부, 방송 등과 같은 공공 분야에서 사용되는 언어”(Crystal 1999: 227), “특정한 정치적 영토 내에서 정치적, 법적, 행정적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언

어”(Swann et al. 2004: 227), “일정 수준의 정치·행정적 기능을 갖춘 권력 당국이 그 지위를 인정하고 그 사용을 보장하는 언어”(조태린 2006b: 377) 등으로 정의되곤 하는데, 이러한 정의들은 공공언어와 공용어 사이에 적지 않은 개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공공언어가 언어 사용의 주체와 대상에 주목하고 있는 개념이라면 공용어는 언어 자체의 기능이나 지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개념인 것이다. 또한 공공언어는 기본적으로 공용어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공용어로 이루어진 언어 사용을 모두 공공언어라고 할 수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개인이 사적으로 보내는 전자우편의 언어가 우리나라의 공용어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공공언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글에서는 ‘공공언어’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라고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 정의는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이 정의는 기존의 정의들에서 문제가 되었던 공공언어의 사용 주체의 문제를 사용 영역의 문제로 대치하고 있다. 이러한 대치는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대중 매체나 민간 기업 등 다양한 모습의 공공언어 사용 주체를 모두 포괄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이 정의는 공공언어의 사용 대상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상황의 실제 인원수보다는 그러한 상황이 다수에게로 확장될 가능성에 더 주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찰청이 한 명의 개인에게 발송하는 출두 명령서는 다른 상황에서 다른 개인에게 유사하게 재생산될 수 있는 것라는 점에서 공공언어라고 볼 수 있고, 특정 개인의 블로그에 실린 글에 대한 댓글은 기본적으로 블로그의 주인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겠지만 그 블로그에 들어오는 불특정 다수도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역시 공공언어로 간주된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공공언어의 영역과 유형, 그리고 유형별 구체적 출현 형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공공언어의 영역, 유형, 출현 형식

영역	유형	출현 형식
↑공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업무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유형 1]	법률, 공문서, 관보, 고시문, 판결문, 명령서, 고지서, 보도자료, 안내문, 게시문, 표지판, 민원 서식, 증명서 등
	각급 학교의 교육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유형 2]	교과서, 수업, 강의, 시험 문제 등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대중 매체의 제작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유형 3]	기사/보도, 논설, 칼럼, 지식/교양, 예능/오락 등
	계약, 투자, 판매, 구매, 광고 등 민간 차원의 경제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유형 4]	계약서, 약관, 견적서, 영수증, 상품 설명서, 사용 설명서, 광고 홍보물 등
	출판, 연극, 영화, 음악 등의문화 예술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유형 5]	교양서적, 대사, 자막, 가사 등
	학계, 산업계 등 전문 분야의 학술 및 연구·개발·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유형 6]	강연, 발표, 토론, 회의, 논문, 전문서적 등
↓사적	인터넷, 휴대전화 등 가상공간의 개인적 표현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유형 7]	개인 누리집, 블로그, 댓글, 트위터 등

3. 공공언어 문제의 종류와 특성

공공언어의 정의와 유형에 대한 앞 절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절에서는 이러한 공공언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공공언어 문제의 종류는 크게 ‘어려운 공공언어 사용’, ‘부정확한 공공언어 사용’, ‘저속한 공공언어 사용’, ‘차별적 공공언어 사용’ 등의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어려운 공공언어 사용’과 ‘부정확한 공공언어 사용’이 사회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는 문제라면, ‘저속한 공공언어 사용’과 ‘차별적 공공언어 사용’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과 품격을 떨어뜨리는 문제일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공공언어 문제의 개선 방향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명백하다. 사회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쉽고 정확한’ 공공언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며,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과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저속하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공공언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언어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 또한 이러한 공공언어 문제가 앞서 살펴본 공공언어의 유형들 중 어떤 유형에서 주로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3.1. 어려운 공공언어 사용

다수가 이해하기 어려운 공공언어의 사용은 사회구성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장애가 된다는 점에서 공공언어의 여러 문제 중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문제이다. 물론 공공언어라고 해서 무조건 쉬운 단어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장 적절하고 꼭 필요하다면 어려운 단어라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남영신 2009: 71). 특히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를 남용하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누리집에서 발견되는 ‘위요하다’, ‘지장물’, ‘취락’ 등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러우며, 이를 ‘둘러싸다’, ‘장애물/걸림돌’, ‘마을’ 등의 쉬운 표현으로 바꾸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조태린 2006a). 또한 공공기관의 서식·문서에서 나타나는 ‘견양’, ‘병과되는’, ‘사이렌 취명’, ‘재가여성장애인’은 ‘표본/본보기’, ‘함께 부과되는’, ‘사이렌 울림’, ‘외출이 어려운 여성 장애인’ 등으로 쉽게 바꾸면 더 많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민현식 2009).

최근에는 어려운 한자어의 사용보다 더 많이 눈에 띄는 것이 외국어의 남용이다. 2009년 9월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지원단에서 진행한 9개 중앙부처 행정용어 순화 결과를 살펴보면, ‘합의/의견 일치’, ‘출장 요리’, ‘박물관 복합단지’, ‘녹색 기반 시설’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이 ‘컨센서스’, ‘케이터링’, ‘뮤지엄 콤플렉스’, ‘그린 인프라’ 등의 외국어로 표현되고

있다. 같은 해 10월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지원단에서 진행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행정용어 순화 결과에서도 ‘바우처’, ‘어메니티’, ‘메세나’, ‘매칭 펀드’, ‘인랜드 포트’ 등의 외국어가 ‘복지 상품권’, ‘캐적’, ‘문예 후원’, ‘대응 자금’, ‘내륙항’ 등의 좀 더 쉬운 표현을 놓아두고 사용되고 있다.

외국어 남용은 공공언어 유형 1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언어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대중 매체 언어(유형 3)의 하나인 방송 언어를 보면, 최근에는 외국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댓츠 베리 쿨”, “판타스틱 나이스 웨더”, “크리에티브한 핑킹” 등과 같이 구 또는 문장 단위의 외국어 표현들이 자주 발견되며, 심지어는 한국어 구문 구조에 외국어 어휘를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 유 교포?”, “은어 머스트 컴 백 홈.” 등과 같이 외국어 구문 구조에 한국어 어휘를 삽입하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조태린 2009b). 방송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세대 및 계층의 이해를 전제로 한다고 할 때, 방송에서의 외국어 표현 남용은 세대 및 계층 간의 소통을 방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고유한 형식과 아름다움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경제 언어(유형 4), 문화 예술 언어(유형 5), 학술 전문 언어(유형 6) 등에서도 외국어의 남용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주식 투자를 하거나 작은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고자 해도 ‘더블 딥’, ‘포이즌 필’, ‘데드 크로스’, ‘로스 리더’, ‘리볼빙’, ‘모기지 론’, ‘모라토리엄’, ‘캐시 카우’, ‘프랜차이즈’ 등의 용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업무를 내기 어렵다. 이제는 책이나 영화, 연극의 제목이 외국어로만 된 것이 낯설지 않으며, 최근에 나오는 가요 중에는 영어 한두 마디 들어가지 않은 것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대학 등에서 사용되는 많은 전공 학술 서적에서 대부분의 외래 전문 용어들이 번역되지 않고 음차만 되어 한글로 쓰이거나 심지어는 한글도 아닌 원어(주로 영어) 문자 그대로 쓰이고 있어 토씨와 어미를 빼면 외국어만 남는다는 자조적인 말이 농담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이처럼 어려운 공공언어의 사용은 특히 공공언어의 유형 1과 4에서 나타날 때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이다. 공공기관의 업무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와 민간 차원의 경제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는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어렵다면 행정적 불편을 겪거나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구성원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¹⁾

유형 1과 4와 관련한 어려운 공공언어 사용의 문제는 당연히 강조되어야 하겠지만, 유형 3, 5, 6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어려운 공공언어의 사용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이다. 대중매체 언어나 문화 예술 언어가 어려우면 사회·문화적 소외감을 느끼는 사회구성원이 증가할 수 있고 이는 사회구성원 간의 이해 부족과 소통 단절로 귀결될 수 있다. 학계나 산업계에서 한국어로 된 전문 용어의 사용을 포기하는 것도 외국의 학문과 기술에 대한 종속을 강화하고 창조적인 학문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에 문제가 된다.

반면에 교육 언어(유형 2)와 가상공간 언어(유형 7)에서는 어려운 공공언어의 사용이 거

1) 공공기관의 어려운 행정용어로 인해 연간 170억원이 낭비되며 낯선 외국어로 된 정책 명칭으로 인해 연간 114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장후석 2010)는 어려운 공공언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의 나타나지 않는다. 유형 2는 교육 단계에 따른 어휘나 표현의 선정이 비교적 체계화되어 있는 편이며, 유형 7은 가상공간이 기본적으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의 사용이 특별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중 가상공간에서 많이 발견되는 신조어나 은어 표현들을 어려운 공공언어의 사용이라고 지적할지도 모르겠으나, 그것은 애초에 다른 집단이나 계층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만 소통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하는 언어 사용이라는 점에서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어려운 공공언어 사용’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3.2. 부정확한 공공언어 사용

부정확한 공공언어의 사용이 사회구성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여기서 ‘부정확하다’는 것은 규범이나 문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과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비규범적인 공공언어 사용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표현과 표기를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특히 한글 맞춤법과 관련해서는 ‘-로써’와 ‘-로써’의 구별, ‘-을’과 ‘-를’의 구별, 사이시옷 표기, 두음법칙 등에서의 잘못이 많았으며, 띄어쓰기와 관련해서는 의존명사나 관형사, 부사를 붙여서 쓰기, 조사나 어미를 띄어서 쓰기, 단위를 나타내는 말을 붙여서 쓰기, 접미사 ‘-하다’, ‘-되다’ 등을 띄어서 쓰기 등의 잘못이 많았다(조태린 2006a). 이처럼 비규범적인 공공언어의 사용은 앞서 살펴본 일곱 가지의 공공언어 유형 모두에서 발견되는 문제다.²⁾

다음으로 비문법적인 공공언어 사용으로는 주어와 서술어 사이 또는 목적어와 서술어 사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접속 구성에서 명사구와 절이 부적절하게 호응하는 등의 잘못된 호응 관계, 중요한 성분의 생략이나 불필요한 성분의 중복, 잘못된 피동과 사동의 사용, 명사구 구성의 남용 등을 지적할 수 있다(조태린 2006a). 비문법적 공공언어 사용 역시 앞서 살펴본 일곱 가지의 공공언어 유형 모두에서 발견되는 일반화된 문제다.

마지막으로 모호한 공공언어 사용은 규범적으로나 문법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그 의미가 뚜렷하지 못한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제2항 내지 제4항”은 ‘제2항 또는 제4항 가운데 하나’인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셋’인지 모호하며, “지방 채무 및 채권 관리”는 ‘지방 채무’와 ‘채권 관리’의 접속인지 ‘지방 채무와 채권’의 관리인지 분명하지 않고, “처와 부의 혈족 아닌 그 직계 비속”은 ‘처’와 ‘부의 혈족 아닌 그 직계 비속’의 접속인지 ‘처와 부’의 혈족 아닌 그 직계 비속인지 헷갈릴 수 있다(김정수 2009). 이렇게 모호한 공공언어

2) 공공언어의 유형 3에 해당하는 방송 언어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표준 발음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장소원 2009). 하지만 방송 언어의 발음 문제로 지적되는 장단음의 혼란장기-장:기), 외래어에서의 경음 발음(가스-까쓰), 특정 접속사나 연결 어미 발음의 고모음화(먹고-먹구), 불필요한 경음화(소주-쏘주) 등이 과연 사회구성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이러한 발음을 표준 발음대로 하는 것은 언어 사용자의 품격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용 문제도 공공언어의 일곱 가지 유형 모두에서 발견된다.

3.3. 저속한 공공언어 사용

‘저속한 공공언어 사용’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과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될 수 있다. 여기서 ‘저속하다’는 것은 비속어, 욕설, 막말 등의 표현적 측면과 외모 비하, 사적인 이야기,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이야기 등의 내용적 측면 둘 다와 관계되는 것이다(장소원 2009, 손병우 2009). 얼마 전부터는 특히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의 저속한 공공언어 사용에 대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많아졌고 이는 서적, 연극·영화, 드라마, 음악 등의 분야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될 만큼 확산되어 있다.

이처럼 저속한 공공언어 사용 문제는 공공언어의 유형 3에 해당하는 대중매체 언어와 유형 5에 해당하는 문화 예술 언어, 그리고 유형 7에 해당하는 가상공간 언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반면, 유형 1, 2, 4, 6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교육, 경제, 학술 등과 관련한 공공언어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3.4. 차별적 공공언어 사용

‘차별적 공공언어 사용’ 역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과 품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차별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먼저 성별, 신체, 인종, 국적, 지역, 직업, 사회 등과 관련한 언어 표현에서 한쪽을 높이거나 강조하고 다른 쪽을 낮추거나 무시하는 의미가 나타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성별과 관련한 차별적 표현으로는 남녀 관계에 대한 특정한 가치가 반영된 ‘미혼모’, ‘미망인’, ‘바깥어른’ 등이 있으며, 신체와 관련한 차별적 표현으로는 장애인 외모를 비하하는 ‘귀머거리’, ‘병어리’, ‘똥보’, ‘숯다리’ 등과 불필요하게 외모를 강조하거나 묘사하는 ‘몸짱’, ‘섹시’, ‘에스라인’ 등이 있고, 특정 직업인에 대한 부적절한 호칭인 ‘간호원’, ‘청소부’ 등이나 특정한 출생을 비하하는 ‘사생아’, ‘미숙아’ 등도 있다(조태린 2006c). 두 번째 ‘차별적’의 의미는 언어적 소수자가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언어적 인권(linguistic human right)’의 문제와 관련된다(Skutnabb-Kangas & Phillipson 1995).

전자의 차별적 공공언어 사용은 일반적으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공공언어 유형에서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공기관 언어처럼 매우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유형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특히 유형 3의 대중매체 언어에서는 상당히 자주 발견된다. 후자의 차별적 공공언어 사용 또한 대부분의 (예비) 다중 언어 사회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다. 따라서 차별적 공공언어 사용 문제는 정도와 성격의 차이는 있지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일곱 가지의 공공언어 유형 모두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공공언어 문제와 정책적 개입 방식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렵고 부정확하며 저속하고 차별적인 공공언어 사용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그러한 문제를 최대한 다수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조태린 2010: 129). 그런데 그러한 정책적 개입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공언어의 유형과 공공언어 문제의 종류를 살펴보고 그 조건과 특성에 알맞은 개입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절에서는 먼저 공공언어 문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공언어 문제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적 개입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의의와 한계를 짚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언어의 유형과 공공언어 문제의 종류를 고려하면서 각각에 가장 효과적 개입 방식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4.1. 공공언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 방식 세 가지

공공언어 문제의 구체적인 조건과 특성에 따라 그에 대한 정책적 개입 방식은 매우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개입의 태도를 기준으로 ‘적극적 개입’과 ‘소극적 개입’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허철구 2009: 85-86). 그런데 이처럼 개입의 태도만을 기준으로 정책적 개입 방식을 분류할 경우에는 매우 다른 성격의 두 가지 개입 방식, 즉 법과 제도에 의한 규제 중심의 직접적 개입과 지원, 홍보, 교육 중심의 간접적 개입을 모두 적극적 개입 방식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정책적 개입 방식을 개입의 태도만이 아니라 그 성격까지 고려하여 ‘강력한 개입’, ‘중도적 개입’, ‘우회적 개입’ 등의 세 가지로 나누어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공공언어 문제에 대한 ‘강력한 개입’은 법과 제도에 의한 강제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한다. 공공언어 문제에 대한 법의 제정은 그 법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을 수반하기 마련이고, 그러한 법과 제도에 반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규제 조치까지 취하게 되는 개입 방식이다. 언어 사용자의 자발성과 창조성, 그리고 자유를 억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면(조태린 2009a: 254), 공공언어를 포함하는 언어 문제에 대한 법적 개입은 언어 정책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³⁾

3) 투리(Turi 1995)는 언어 관련 법률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공용어 관련 법(official language legislation), 민간 분야의 언어 사용 제도화 관련 법(institutionalizing language legislation), 언어 표준화 관련 법(standardizing language legislation), 언어 권리 관련 법(liberal language legislation) 등이 그것이다. 또한 키비(Kibbee 1998)는 언어 문제에 대한 법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을 교육, 직장, 사법, 상업 등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하는데, 특히 이중 언어 교육, 직장에서의 업무 언어 선택, 법원에서의 통역, 계약이나 광고에서의 언어 선택 등의 문제에 대한 법적 개입에 주목한다.

두 번째로 공공언어 문제에 대한 ‘중도적 개입’은 자율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유도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절충적이고 간접적인 개입을 의미한다. 여기서 ‘자율 규제’는 특정 유형의 공공언어를 생산하는 주체가 스스로 문제점을 느끼고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자발적인 규제를 의미하며, ‘사회적 규제’는 광고주가 공공언어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체의 광고를 중단하거나 시민 사회 단체가 지속적인 감시와 지적을 통해 비판적 여론을 조성하여 공공언어 문제의 발생을 위축시키는 활동 등을 의미한다(주정민 2010: 29).

세 번째로 공공언어 문제에 대한 ‘우회적 개입’은 교육, 홍보, 지원 등에 의한 자연스럽게 보조적인 개입을 의미한다. 이는 공공언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규제나 강제 의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언어 생산 주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언어 생산 주체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다. 중도적 개입과 우회적 개입을 ‘간접적 개입’으로 묶을 수도 있지만, 중도적 개입에서는 자율적이고 사회적이라고 해도 규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에 우회적 개입에서는 규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가지 개입 방식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개입 방식이 모두 배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일방적인 포함 관계에 있을 뿐이다. 즉 강력한 개입이 가능하다면 중도적 개입과 우회적 개입이 모두 가능하고 중도적 개입이 가능하다면 우회적 개입도 가능하지만, 중도적 개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강력한 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우회적 개입이 가능하다고 해도 강력한 개입이나 중도적 개입은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개입 방식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은 물론 개입의 대상이 되는 공공언어의 유형과 공공언어 문제의 종류가 무엇인가일 것이다. 공공언어의 유형에 따라 강력한 개입이 빠른 정책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개입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반발과 저항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특정 유형에 대해서는 강력한 개입을 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우회적 개입을 하기에는 부족한 경우도 있다. 공공언어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력한 개입이 그 정당성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종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종류가 있다. 공공언어의 유형, 공공언어 문제의 종류, 그리고 공공언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 방식 간의 합리적 관계에 대해서는 4.3절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4.2. 공공언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현황

공공언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에도 공공언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강력한 개입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국어의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어기본법’이다.

이 법에서 공공언어 문제에 대한 개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제4조 제2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는 제10조 제1항,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는 제14조 제1항,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제15조 제2항,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는 제17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는 제18조 등 모두 여섯 개다.

위에서 제4조 제2항은 차별적 공공언어 사용 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은 공공언어의 첫 번째 유형인 공공기관 언어와 관련된 것이며, 제15조 제2항은 공공언어의 세 번째 유형인 대중매체 언어와 관련된다. 또한 제17조가 공공언어의 유형 6에 해당하는 학술 전문 언어와 관련된다면, 제18조는 공공언어의 유형 2에 해당하는 교육 언어와 관련된다. 이상의 조항들은 모두 어려운 공공언어 사용 문제나 부정확한 공공언어 사용 문제에 대한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 외에도 공공언어 문제에 대한 개입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들이 있는데,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공공언어 유형 1과 관련하여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유사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들이다. 공문서 일반의 작성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무관리규정’ 제10조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나 법원의 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규칙’ 제11조 제1항, ‘법원 사무관리규칙’ 제10조 제1항 등에서는 모두 문서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어려운 공공언어 사용 문제와 부정확한 공공언어 사용 문제에 대해 동시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입법 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과 “적용 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도 그러한 두 가지 문제에 개입하고 있으며,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법’ 제36조 제1항도 어려운 공공언어 사용 문제에 대한 개입이다.

공공언어 유형 4와 관련하여 어려운 공공언어 사용 문제와 부정확한 공공언어 사용 문제에 대한 개입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도 적지 않다.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및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할 것을 규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반드시 기재·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제표준명칭을

외국어와 병행 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화장품법’ 제11조,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글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기기법’ 제22조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공공언어 유형 3에 속하는 방송 언어와 관련해서는 3절에서 살펴본 공공언어 문제의 네 가지 종류 모두에 대한 법적 개입을 확인할 수 있다.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언어 순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방송법’ 제6조 제8항과 제33조나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고정 진행자는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은 외국어를 사용할 때는 국어순화의 차원에서 신중하여야 하며, 사투리를 사용할 때는 인물의 고정유형을 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조항을 차례로 명시하고 있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와 제52조가 그것이다. 이 조항들은 공공언어 유형 1이나 4와 관련된 법적 개입과는 달리 어렵거나 부정확한 공공언어 사용 문제만이 아니라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공공언어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법적 개입들을 공공언어 문제에 대한 ‘강력한 개입’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위의 법률 대부분이 공공언어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 또는 기준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한 조항의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가 제대로 없기 때문이다. 국어기본법은 물론이고 공공언어 유형 1과 관련한 어떤 법률에도 언어 관련 조항 위반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가 없다. 공공언어 유형 4와 관련해서도 위에서 언급한 법률 대부분이 언어 관련 조항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으며, 그나마 제재 조치를 명시하고 있는 ‘의료기기법’ 제45조의 경우에도 제22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제재 조치로서의 법적 효력이 떨어진다.

반면에 공공언어 유형 3의 방송 언어 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구체적인 편이다.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르면, 언어 순화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 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 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 편성 책임자·해당 방송 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 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제재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같은 조 제3항은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인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이 두 배(1억 원 이하)로 증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이상과 같은 “과징금 처분 또는 제재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 사항 전문을 방송하고, 제재 조치 명령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언어 순화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며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가 대부분 가장 약한 주의 또는 경고 수준

에 머무르는 것이 현실이지만, 법의 규정 자체만을 본다면 공공언어 문제에 대한 강력한 개입의 예라고 할 만하다.

공공언어 생산 주체의 자율 규제와 관련 집단의 비판이나 압력에 의한 사회적 규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중도적 개입’의 모습은 지금까지 찾아보기 어려웠다. 자율적 규제의 대표적 예로는 2009년 12월 1일 한국방송에서 발표한 ‘방송의 소재 및 표현에 관한 예능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을 들 수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비속어, 은어, 인터넷조어, 혐오어 등을 자막으로 표기해 강조하는 표현,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비하하거나 편견을 갖게 하는 표현, 배설물이나 욕설 등 민망한 소재, 출연자간 지나친 인신 공격적 표현 및 상대방에 대한 비하 등이 예능 프로그램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과 상습적인 막말, 비속어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주의 처분, 2회 위반 시 경고 처분, 3회 위반 시 프로그램 퇴출 등의 방식으로 규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유도된 것은 아니었으며, 이후에도 이러한 자율적 규제를 지지하고 지원하거나 다른 방송사 등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사회적 규제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도 정책적인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는데, 시민 사회 단체에서 실시하는 공공언어 사용에 대한 관찰 및 감시 활동이 문제 있는 공공언어 생산 주체에 대한 실질적인 압력 또는 규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방송언어와 관련해서는 저속한 언어 사용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 사회 단체의 관찰 및 감시 활동이 이미 자발적이지만 산발적인 모습으로 있어 왔는데, 그러한 활동이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문제 프로그램 안 보기 운동이나 청정 프로그램 인증제 등으로 발전하여 실질적인 사회적 규제가 되도록 유도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사회적 규제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경제적, 제도적 지원 역시 부족했다.

공공언어 생산 주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생산 주체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우회적 개입’은 ‘강력한 개입’이나 ‘중도적 개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취해진 개입 방식이다. 국립국어원에서 진행된 사업에만 한정하더라도 공무원이나 교사를 대상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국어문화학교, 어문 규범에 맞는 교과서 표현·표기에 대한 감수 지원, 방송사나 신문사와의 매체 언어 공동 연구 및 개선 사업, 제품 설명서의 문장 실태 연구 및 개선안 보급, 문화 예술 분야 관계자에 대한 국어 특강, 학계와 산업계의 전문 용어 표준화 지원, 통신 공간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등 상당히 다양하다.

이러한 우회적 개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많은 공공언어 문제의 점진적 개선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공공언어의 중요성과 공공언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좀 더 빠르고 효과적인 정책적 개입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우회적 개입에서도 그 규모를 늘리고 효과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더디게만 느껴지는 우회적 개입이 많은 경우에서 언어 사용의 창조성과 자유를 억압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부작용을 일으키지도 않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4.3. 공공언어 문제에 대한 효과적 개입 방식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공언어의 유형과 공공언어 문제의 종류를 고려하여 각각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정책적 개입 방식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어려운 공공언어	부정확한 공공언어	저속한 공공언어	차별적 공공언어
유형 1 공공기관 언어				
유형 2 교육 언어				
유형 3 대중매체 언어				
유형 4 경제 언어				
유형 5 문화 예술 언어				
유형 6 학술 전문 언어				
유형 7 가상공간 언어				

(강력한 개입 중도적 개입 우회적 개입 개입 불필요)

<표 2> 공공언어의 유형과 문제의 종류, 개입 방식 간의 관계

먼저 공공언어의 유형 1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언어는 공공언어 문제를 개선하려는 정책 주체의 언어와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 사실 공공기관 언어는 정책 집행자의 언어이기에 강력한 개입을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개입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공적 영역에 있다. 따라서 어렵거나 부정확한 공공언어의 사용을 개선하기 위한 법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수정·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공공기관 언어는 가장 공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라는 점에서 저속한 공공언어 사용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개입은 아예 불필요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도 아직까지 차별적 공공언어 사용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역시 법적 규정과 제재 조치를 포함하는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

공공언어의 유형 2에 해당하는 교육 언어도 부정확한 공공언어 사용 문제나 차별적 공공언어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2006년 5월 18일에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립국어원이 체결한 업무 협정은 부정확한 교육 언어 사용에 대한 강력한 개입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교과서의 표기·표현에 대한 국립국어원의 전문 감수제를 도입하여 교과서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간의 표기 차이를 후자를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업무 협정에 따라 현재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교과서들은 모두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치면서 더 이상 어문 규범과 다른 표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 반면에 교육 언어는 교육 단계에 따른 어휘나 표현의 선정이 비교적 체계화되어 있는 편이어서 어려운 공공언어 사용 문제나 저속한 공공언어 사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에 대한 개입도 불필요하다.

공공언어의 유형 3에 해당하는 대중매체 언어와 유형 5에 해당하는 문화 예술 언어는 언어 사용 주체의 창조성과 자유가 중요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법과 제도에 의한 강력한 개입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행 방송법 등은 방송 언어 사용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한 법적 규정과 제재 조치를 담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적용되더라도 적용 기준 모호, 현실의 반영,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논리에 근거한 반발과 저항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중매체 언어나 문화 예술 언어와 관련해서는 생산 주체에 의한 자율적 규제와 수용 주체의 사회적 규제를 유도하고 활성화시키는 중도적 개입이 더 효과적이다.

공공언어의 유형 4에 해당하는 경제 언어는 대중매체 언어에 비해 사적 영역의 성격이 더 강하지만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누구나 어려움 없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공공언어 사용 문제나 부정확한 공공언어 사용 문제에 대한 강력한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 언어가 너무 어렵거나 잘못 이해될 수 있다면 그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 구성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경제 언어는 저속한 공공언어 사용 문제와는 거의 관련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개입도 아예 불필요하지만, 공공기관 언어 등의 공적인 영역에서 발견되는 차별적 언어 사용이 경제 언어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는 역시 법적 규정과 제재 조치를 포함하는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공언어의 유형 6에 해당하는 학술 전문 언어와 유형 7에 해당하는 가상공간 언어는 그 생산 및 수용 주체가 매우 다양한 집단으로 한정되거나 개인적이어서 모든 문제에 대한 강력한 개입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며 개입하더라도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술 전문 언어와 가상공간 언어와 관련해서는 언어 생산 주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언어 생산 주체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우회적 개입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다만 학술 전문 언어에서는 저속한 공공언어 사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가상공간 언어에서는 어려운 공공언어의 사용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으므로 그에 대한 개입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5. 맺음말

■ 참고문헌

- 강정희(2010), “생태 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와 공공언어 정책”,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등 주최, 2010.3.5. 국회도서관)』, 103-113쪽.
- 김세중(2010), “공공언어 정책의 방향과 계획”,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등 주최, 2010.3.5. 국회도서관)』, 83-88쪽.
- 김정수(2009), “공공기관의 언어”, 『“공공언어, 어떻게 할 것인가”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국립국어원 주최, 2009.9.15. 한글학회)』, 1-8쪽.
- 김하수(2009), “공공언어의 개념과 기능”, 『“공공언어, 어떻게 할 것인가”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국립국어원 주최, 2009.9.15. 한글학회)』, 별첨 유인물.
- 남영신(2009), “공공언어 순화 추진과 제도 확립 방안”, 『“공공언어, 어떻게 할 것인가”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국립국어원 주최, 2009.9.15. 한글학회)』, 67-83쪽.
- 남영신(2010),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추진 체계”,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등 주최, 2010.3.5. 국회도서관)』, 65-81쪽.
- 민현식(2009), 『공공기관 서식·문서의 국어 사용 실태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 박창원(2010), “공공언어 정비를 위한 중장기 계획”,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등 주최, 2010.3.5. 국회도서관)』, 89-101쪽.
- 손병우(2009), “방송의 사담화, 혹은 비어 방송의 배경과 그 판단에 대하여”, 『방송 언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최, 2009.7.2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8쪽.
- 이광석(2006), “정책학의 관점에서 본 국어 정책의 의미와 방향”, 『한글』 271, 161-204쪽.
- 이인제(2009), “공공언어로서 교육 언어의 사용 실상과 개선 정책”, 『“공공언어, 어떻게 할 것인가”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국립국어원 주최, 2009.9.15. 한글학회)』, 27-65쪽.
- 이정훈(2010), “공공언어 인지도 조사 보고”,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등 주최, 2010.3.5. 국회도서관)』, 1-8쪽.
- 장소원(2009), “방송언어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제언”, 『“공공언어, 어떻게 할 것인가”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국립국어원 주최, 2009.9.15. 한글학회)』, 9-25쪽.
- 장후석(2010), 『공공언어 개선의 정책 효과 분석』, 서울: 국립국어원.
- 조태린(2006a), 『공공기관 누리집의 언어 사용 실태』, 서울: 국립국어원.
- 조태린(2006b), “‘국어’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학』 48, 365-394쪽.
- 조태린(2006c), 『차별적, 비객관적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 조태린(2009a), “언어 정책에서 법적 규정의 의미와 한계”, 『한말연구』 24, 241-265쪽.
- 조태린(2009b), “방송에서의 외래어·외국어 사용 지침 마련을 위한 시론”, 『방송에서의 외래어·외국어 사용 실태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에스비에스.
- 조태린(2010), “언어정책이란 무엇인가”, 『새국어생활』 20(2), 117-131쪽.

- 주정민(2010), “방송의 품격 향상을 위한 개선 방향”, 『방송의 품격 향상을 위한 토론회 “우리 안방극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자료집(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주최, 2010.2.9. 국회도서관)』, 10-32쪽.
- 허철구(2009), “공공언어를 위한 정부의 역할”, 『“공공언어, 어떻게 할 것인가”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국립국어원 주최, 2009.9.15. 한글학회)』, 85-93쪽.

Crystal, D.(1999), *The penguin dictionary of language*, Harmondsworth: Penguin books.

Kibbee, D.A.(1998), Legal and linguistic perspectives on language legislation, In D.A. Kibbee(ed.), *Language legislation and linguistic right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23.

Swann, J. et al.(2004), *A dictionary of sociolinguistic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Skutnabb-Kangas, T. & Phillipson, R.(ed)(1995), *Linguistic human rights: overcoming linguistic discrimination*, 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Turi, J.-G.(1995), Typology of language legislation, In T. Skutnabb-Kangas & R. Phillipson(ed), *Linguistic human rights: overcoming linguistic discrimination*, 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111-119.

공공언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 방식

김정호(건국대)

조태린 선생님의 논문 잘 읽었습니다. 이 논문은 공공언어의 유형과 공공언어 문제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후, 각각의 공공언어 문제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적 개입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공언어의 유형과 공공언어 문제, 가능한 정책적 개입 방식을 매우 세분화하여 논의하여 어떤 정책적 개입이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논문을 읽는 과정에서 생긴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1. 이 논문에서는 공공언어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정의하고, 이 정의를 바탕으로 공공언어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유형 안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언어 활동의 양상을 구분해내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유형 3에서 ‘기사/보도, 논설, 칼럼’ 등의 언어 활동 양상은 ‘예능/오락’의 그것과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기사/보도’ 등에서는 저급한 언어 사용의 문제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 반면, ‘예능/오락’에서는 어려운 언어 사용의 문제가 나타나기 힘듭니다.

2. 이 논문에서는 공공언어의 문제를 어려운 사용, 부정확한 사용, 저급한 사용, 차별적 사용의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어려운 사용, 부정확한 사용, 차별적 사용의 경우는 문제가 되는 언어 사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구분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급한 사용의 문제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판단 주체의 주관에 따라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3. 마지막으로 공공언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형 1과 2의 경우는 국가 기관의 언어 활동이라는 점에서 국가 기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다른 유형의 언어 사용에 대한 국가 기관의 정책적 개입은 그것이 강력한 개입이건 중도적 개입이건 규제를 전제로 한 개입이라는 점에서 위험한 발상입니다. 조태린 선생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언어 사용자의 자발성과 창조성, 그리고 자유를 억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압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규제한다는 것은 결국 억압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논문이 선생님의 오랜 고민의 결과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토론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한 질문들이 선생님의 노고에 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제 3 부 】

■ 제 1 분 과

부산의 지명과 문화 적층에 대한 연구

엄경흠(신라대)

차 례

1. 머리말
2. 부산의 지명과 유사 전국 지명의 분포
 - 2.1. 분포수별 분류
3. 부산의 특징을 담은 지명
 - 3.1. 자연과 관련된 지명
 - 3.2. 생활 및 역사와 관련이 있는 지명
4. 결론

1. 머리말

지명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들이 간직되어 있다. 부산 문화의 정체성은 자연과 생활에서 찾을 수 있 것이다. 필자는 부산 고유의 지명에서 이러한 정체성을 찾는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지명을 생활과 역사 및 자연으로 분류하였다. 이 원고는 이후에 필자가 이루어나갈 지명을 통한 부산 문화의 이해에 대한 기본 자료로서 활용될 것임을 밝혀둔다.

2. 부산의 지명과 유사 전국 지명의 분포

부산의 지명과 유사한 전국의 지명을 분포수별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지명의 특성을 살펴본다. 이는 부산의 지명과 전국의 지명을 비교하여 부산 지명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준비이다.

부산 지명과 같거나 유사한 전국의 지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

1) ()는 전국적 분포 숫자이며, 표는 분포수 순으로 나열한다. 단, 숫자가 갑자기 커진 경우는 예를 들어 ‘용호’와 ‘용호동’이 있을 때 각각의 숫자로 보아서는 앞뒤의 것들보다 적지만 합했을 경우 많아진 것이다. 표 안의 ()는 부산에 분포하는 동일 지명의 숫자다. 이 통계 숫자는 통시적인 지명의 변화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지역의 다른 지명을 함께 인정한 숫자임을 밝혀둔다.

이 가운데 5개 이하는 부산 지역에서만도 동일한 지명이 5개 이상 분포된 것도 있으므로 보편적인 지명이라기보다 부산 지역의 특징을 갖춘 지명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산의 문화적 특징을 간직한 것이라고 하여도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도표를 분석하여 특징들을 살펴보자.

2.1. 분포수별 분류

1) 1000개 이상

지명	분포수	지명	분포수	지명	분포수	지명	분포수
큰골	1995(2)	새터	1485(2)	절골	1326(2)	뒷골	955(2)

표에서 보듯이 큰 골짜기 또는 큰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의 ‘큰골’이라는 지명은 거의 2000개에 육박하고 있다. 여기에 유사 지명을 합한다면 그 숫자는 훨씬 많아질 것이다. 대평(79), 큰마을(54), 큰갓(54), 대리(동 : 51) 등이 이와 유사한 유래를 가진 지명이다. 따라서 큰 마을, 또는 큰 골짜기라는 뜻의 지명은 이 정도의 분포만 보아도 2300개 가량이나 된다.

또한 ‘새터’ 즉 새로 마련된 마을 터라는 뜻의 지명은 이상의 표에서 보듯이 1500개 가량이다. 그러나 이 또한 유사한 유래의 지명을 합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분포를 차지하게 된다. ‘신촌(838)’, ‘신기(801)’, ‘새말(486)’, ‘신평(동 : 183)’, ‘신리(159)’, ‘새마을(158)’, ‘새뜸(126)’, ‘신흥(125)’, ‘신동(106)’, ‘신전(리 : 105)’, ‘새동네(61)’, ‘새실(35)’ 등이 이에 속하는데, 이러한 숫자를 합한다면 새로운 마을, 또는 새로 생긴 터라는 뜻의 지명은 4700개에 가까운 엄청난 분포도를 가진다.

그리고 절이 있던 곳이거나 절이 있는 곳이라는 뜻의 ‘절골’이라는 지명은 1400개 정도의 분포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이와 유사한 지명을 더해보면, ‘불당골(434)’, ‘절터(380)’, ‘절텃골(195)’, ‘탑동(104)’, ‘용화사(46)’, ‘오층석탑(44)’, ‘관음사(36)’, ‘사리(32)’ 등으로 모두 2700개에 가깝다. 종교적 유래를 가진 지명으로는 절골, 장승배기, 당산나무, 용바우, 용소, 산제당, 당산, 당리, 당골, 절텃골, 용암, 용쏘, 탑동, 용두, 당곡, 당산등, 당산곡, 당산골, 용굴, 용화사, 오층석탑, 용당, 용당거렁, 칠성암, 용호, 관음사, 용당곡, 용당골, 약수암, 당집, 용소골, 영당, 당산숲 등이 있다.

뒤쪽에 있는 골짜기 또는 마을이라는 뜻의 ‘뒷골’이라는 지명은 분명히 900개 단위에 속하지만 거의 1000개에 육박하므로 여기에서 다룬다. ‘뒷골’과 유사한 지명을 찾아보면, ‘뒷들(462)’, ‘후곡(110)’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합하면 1600개에 가깝다.

이상의 분포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명은 대부분 마을의 위치나 크기, 생성 시기에 가장 크게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마을은 큰 들이나 골짜기를 중심으로 먼저 발달하였고, 이 마을을 중심으로 앞뒤의 마을이 형성되어 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새로 생긴 마을이 눈에 띄는 특징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의 지명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러한 위치 가운데 종교적인 유래를 가진 지명이 다른 유래의 지명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얼마나 많은 종교 문화에 노출되어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특히 ‘불당골’, ‘절터’, ‘절텃골’, ‘탑동’ 등에서는 불교문화의 영향을, 당산, 당리, 용소 등의 지명에서는 무속 및 자연물 숭배사상을 확인할 수 있다.

2)800개 이상

지명	분포수	지명	분포수	지명	분포수	지명	분포수
안골	883(3)	장구배미	841(2)	신촌	838(6)	신기	801(2)

안쪽에 있는 골짜기 또는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의 ‘안골’은 표에서 보듯이 900개에 육박한다. 이와 유사한 지명을 살펴보면 ‘안산(733)’, ‘안말(348)’, ‘내동(313)’, ‘내리(51)’, ‘안동네(42)’, ‘안산골(36)’ 등으로 합하면 모두 2500개에 가깝다. 이러한 지명은 우리나라에는 산지가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구처럼 생긴 논이라는 뜻의 ‘장구배미’는 841곳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영세 농업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경지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산골짜기 구석구석까지 논으로 개발했던 실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 ‘신촌’, ‘신기’는 앞에서 보았던 새로운 터전이라는 의미의 ‘새터’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3)700개 이상

지명	분포수	지명	분포수
안산	733(2)	진(긴)등	762(2)

안산은 안쪽의 산이라는 뜻으로 쓴 것과, 안산(安山) 등 한자로 쓰인 것으로 나뉘어야 하겠다. 안쪽 산이라는 뜻의 안산은 앞에서 보았던 안골과 다를 바 없는 지명일 것이다. 그리고 한자로 쓰인 것은 한자에 따라 다르게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진등’은 길게 변어있는 산등성이라는 의미로 이 또한 산자락에 이어진 구릉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붙은 지명으로 보인다.

여기에서의 지명들 또한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에서 유래한 것들로서 우리의 전통적인 주거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지명들이다.

4)400개 이상

지명	분포수	지명	분포수	지명	분포수	지명	분포수	지명	분포수
앞들	491(6)	새말	486	장승(성)배기(터)	465(3)	중보	482	뒷들	462
정자나무	447(8)	불당골	434						

‘앞들’은 마을 앞에 있는 들이다.

‘새말’은 ‘새터’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중보’는 가운데 있는 보(洑)라는 뜻으로 농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전통적 산업 구조에서 유래한 것이다.

‘장승(성)배기(터)’는 장승이 서 있었거나 있는 곳으로 이 또한 우리의 종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지명들이다.

‘뒷들’은 ‘앞들’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정자나무’는 마을 앞의 쉼터로서의 나무이거나 신목을 말하는 것이다.

‘불당골’은 ‘절골’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한다.

여기에서도 상당히 많은 종교문화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5)300개 이상

지명	분포수	지명	분포수	지명	분포수	지명	분포수
매봉	398	남산	396(3)	절터	380	작은골	374
굴바(방)우(위)	389	용소(쏘)	386	갓골	374	범바(방)우	368
새보	364	삼거리	357(2)	장터	354(2)	성짓(지)골(곡)	352
동바우(위)	349	안말	348	내동	313	당산나무	303(3)

‘매봉’이라는 것은 매의 모양을 닮은 봉우리라는 뜻이다. 이와 유사한 지명으로는 ‘매봉산(176)’, ‘응봉(175)’, ‘응봉산(51)’ 등이 있다.

‘남산’은 남쪽에 있는 산이라는 뜻이다.

‘절터’는 절골에서 다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작은골’은 ‘큰골’의 반대로 작은 골짜기나 작은 골짜기의 마을이다. 이와 유사 지명으로는 ‘소곡(29)’이 있다.

‘갓골’은 갓처럼 생긴 골짜기이거나 마을이라는 의미가 가장 크다.

‘새보’는 새로 생긴 보(洑)가 있는 곳이거나 있던 곳으로 이 또한 농업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산업구조를 읽을 수 있는 지명이다.

‘장승(성)배기’는 장승이 서있던 곳이다.

‘삼거리’는 세 갈래로 난 길이다.

‘장터’는 장이 있는 곳 또는 있었던 곳이다. 이와 유사한 지명으로는 ‘구시장(23)’, ‘장태(18)’, ‘장곡(92)’ 정도인데, 이 가운데 ‘장곡’은 ‘노루골[獐谷]’, ‘장골’, ‘장고개’, ‘긴골짜기[長谷]’ 등으로 여러 유래를 가진다.

‘안말’은 앞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범바(방)우’는 범을 닮은 바위다. 이와 유사한 지명으로는 ‘호암(146)’ 등이 있다.

‘내동’은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앞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당산나무’는 신성시하며 마을에서 보호하는 나무로서 이처럼 당산과 관련된 지명으로는 ‘산제당(225)’, ‘당산(216)’, ‘당리(205)’, ‘당골(205)’, ‘땅골(곡 : 150)’, ‘당곡(88)’, ‘원당골

(75), ‘당산등(57)’, ‘당산곡(골 : 50)’, ‘제당(29)’, ‘당집(26)’ 등으로 1700개 정도의 분포를 보인다. 이러한 숫자는 지명은 각각 다르지만 동일한 유래를 보여주는 것으로는 가장 많은 것 가운데 하나이며, 우리나라의 전통적 종교문화의 모습들을 그대로 간직한 지명이다.

‘농바우(위)’는 농처럼 생긴 바위나 이것이 있는 마을을 뜻한다.

‘굴바(방)우(위)’는 굴이 뚫려 있는 바위다.

‘용소’는 용이 있다가 승천했다는 전설을 간직한 지명이다. 이렇게 용과 관련이 있는 지명으로는 ‘용바우(270)’, ‘용암’(168), ‘용쏘(143)’, ‘용두(101)’, ‘용못(71)’, ‘용호(동 : 64)’, ‘용굴(56)’, ‘용두산(54)’, ‘용화사(46)’, ‘용당거렁(40)’, ‘용당(동 : 40)’, ‘용담(38)’, ‘용당곡(골 : 34)’, ‘용소굴(26)’ 등이다. 이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적 종교문화 가운데 용 신앙을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다.

‘성짓(지)골(곡)’은 성자(聖者)가 살았거나 날 것이라고 예언을 들었던 골짜기, 성이 있거나 있던 골짜기, 당집 또는 절이 있었던 골짜기 등의 의미를 가진다.

이상의 지명들을 살펴보면, 봉우리나 바위 등의 지명은 대부분 생긴 모양을 보고 지은 것이다. 여기에서 산업 구조를 반영한 것은 ‘보(湫)’나 ‘장터’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여전히 종교와 관련된 지명들이 대단히 우세하다.

6)300개 이하

지명	분포수	지명	분포수	지명	분포수	지명	분포수
삼밭골	297(4)	중리	295(9)	못골	295(1)	장고개	277(2)
송정(동)	272(4)	배나못골	271	용바우	270	비석결(거리)	252
중촌	250	대밭골	237(2)	성재	232	골말	230
두리산(봉)	225	산제당	225(3)	당산	216(7)	당리	205(3)
당골	205(2)	탕건바우(구, 방우)	202				

이상은 200개에서 300개 사이의 분포를 보이는 지명이다.

삼을 심었던 골짜기이거나 현재 삼 농사를 짓고 있다는 의미의 ‘삼밭골’은 유사 지명으로 ‘삼박골(86)’이 있으나 이는 ‘삼밭골’의 음이 다르게 발음된 것이 가장 많지만, ‘바가지처럼 생긴 골’, ‘박씨 세 집이 살던 골’이라는 뜻처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상당수 있다.

‘중리’는 가운데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못골’은 못이 있거나 있었던 마을이다.

‘장고개’는 장을 보러 다니던 고개 또는 긴 고개라는 뜻이다.

‘배나못골’은 배나무가 있거나 있었던 고개라는 뜻이다.

‘송정’은 소나무 정자가 있거나 있었던 곳 또는 큰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던 곳이라는 뜻이다.

‘비석걸(거리)’은 비석이 있었거나 있는 거리를 말한다.
 ‘중촌’은 어떠한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거나 들 가운데 있는 마을을 말한다.
 ‘대밭골’은 대밭이 있거나 있었던 마을이다.
 ‘성재’는 성이 있던 고개라는 뜻이다.
 ‘골말’은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두리산(봉)’은 둥그렇게 생긴 산을 말한다.
 ‘산제당’, ‘당산’, ‘당리’, ‘당골’은 ‘당산나무’에서 다루었다.
 ‘탕건바우(구, 방우)’은 탕건처럼 생긴 바위나 들을 말한다.

						절텃골	195
큰보	193	셋골	193	갈미봉	187	신평(동)	183(3)
부곡(동,리)	181	상리	178(7)	매봉산	176	응봉	175
용암	168	사(네)거리	168	덧들	167	못안	166(2)
각골	166	참새미	164(2)	교동	163(2)	문바우	162
성산	162	도둑골	160(2)	신리	159(4)	새마을	158(4)
금곡(동,리)	158	장자골	155	오산	153	땅골(곡)	150
북바우(구,위)	150	찬새미	147	칼바우(위,구)	146	호암	146
양지	146	노적봉	144	중붓들	143	성안	143(2)
용소	143	원동	138	상동	137	말바우	137
매바우	136	하리	134(8)	밤나뭇골	132	딱밭골	130
옥터	128	하보	126	새뜸	126	신흥	125
솔고개	120	동헌터	119	도둑골	119	명에배미	119
봉화산	118(3)	은행나무	116(2)	도룡곡(골)	116	서촌	113
후곡	110	성터	109(2)	베락바우	109	신통	106
탑동	104	중들	104	선바위	102	용두	101

‘절텃골’은 ‘절골’에서 다뤘다.
 ‘큰보’는 큰 보(洑)를 말한다.
 ‘셋골’은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는 골짜기 또는 마을을 말한다.
 ‘갈미봉’은 갈모처럼 생긴 봉우리를 말한다.
 ‘상리’는 가장 위쪽 또는 상대적으로 위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지명으로는 ‘상동(137)이 있다.
 ‘매봉산’은 ‘매봉’에서 다뤘다.
 ‘신평(동)’은 ‘새터’에서 다뤘다.
 ‘응봉’은 ‘매봉’에서 다뤘다.
 ‘용암’은 ‘용소’에서 다뤘다.
 ‘덧들’은 마을 뒤쪽에 있는 들이다.
 ‘못안’은 못 뒤편에 있는 마을 또는 들을 말한다.
 ‘각골’은 대부분 달팽이나 용뿔처럼 생긴 지형이다.

‘참새미’은 물이 차가운 우물이거나 그 우물이 있는 마을을 말한다. 유사 지명으로는 ‘찬새미(147)’, ‘냉천(62)’, ‘냉정(59)’, ‘찬물새미(37)’ 등이 있다.
 ‘교동’은 대부분 향교가 있거나 있었던 마을이다. 유사 지명으로는 교리(17) 등이 있다.
 ‘문바우’는 문처럼 생긴 바위나 그 바위가 있는 마을이다.
 ‘성산’은 대부분 성터가 있는 산이나 마을이다.
 ‘도독골’은 도독이 숨어 살았거나 숨기에 알맞은 골짜기를 말한다. 이와 유사한 지명은 도독골(119) 등이 있다.
 ‘신리’와 ‘새마을’은 ‘새터’에서 다뤘다.
 ‘금곡(동, 리)’은 대부분 쇠가 많이 난 지역이다.
 ‘장자골’은 장자(부자)가 살았던 골짜기다.
 ‘오산’은 대부분 자라처럼 생긴 산이나 그 아래 마을을 말한다.
 ‘땅골(곡)’은 ‘당산나무’에서 다뤘다.
 ‘북바우(구, 위)’는 북처럼 생겼거나 두드리면 북소리가 난다는 바위다.
 ‘찬새미’는 ‘참새미’에서 다뤘다.
 ‘칼바우(위, 구)’는 칼처럼 생긴 바위다.
 ‘호암’은 ‘범바우’에서 다뤘다.
 ‘양지’는 대부분 해가 잘 드는 양지바른 곳에 있는 마을이다.
 ‘노적봉’은 노적거리처럼 생긴 봉우리다.
 ‘중봇들’은 상보와 하보 사이 중보에 있는 들이다.
 ‘성안’은 현재 존재하거나 과거에 있었던 성의 안에 있는 마을이다.
 ‘용쏘’는 ‘용소’에서 다뤘다.
 ‘원동’은 대부분 驛院이나 書院이 있던 곳이다.
 ‘상동’은 ‘상리’에서 다뤘다.
 ‘말바우’는 말처럼 생긴 바위다.
 ‘매바우’는 매처럼 생긴 바위다.
 ‘하리’는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밤나뭇골’은 밤나무가 있었거나 있는 골짜기다.
 ‘부곡(동, 리)’은 가마골[釜谷]이거나 部谷이다.
 ‘딱발골’은 딱나무가 많았던 곳이다.
 ‘옥터’는 감옥이 있던 곳이다.
 ‘하보’는 가장 아래쪽에 있던 沓다.
 ‘새뜸’은 ‘새터’에서 다뤘다.
 ‘사(네)거리’는 네 갈래 길이 있는 길 또는 마을이다.
 ‘신흥’은 새터에서 다뤘다.
 ‘술고개’는 소나무가 많이 있는 고개다.
 ‘동헌터’는 東軒이 있던 곳이다.
 ‘도독골’은 ‘도독골’에서 다뤘다.

- ‘멍에배미’는 멍에처럼 생긴 논을 말한다.
- ‘봉화산’은 봉화대가 있었던 산이다.
- ‘도롱곡(골)’은 대부분 지형이 동그랗게 돌아가는 형곡으로 감싸 안고 있는 골짜기다.
- ‘서촌’은 대부분 어떤 지점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 ‘후곡’은 ‘뒷골’에서 다뤘다.
- ‘성터’는 성이 있던 터다.
- ‘벼락바우’는 벼락을 맞은 바위다.
- ‘신동’은 ‘새터’에서 다뤘다.
- ‘답동’은 ‘절골’에서 다뤘다.
- ‘중들’은 가운데 있는 들이다.
- ‘선바위’는 우뚝 서 있는 바위다.
- ‘용두’는 ‘용소’에서 다뤘다.

이상 100개 이상의 것을 다루면서 아래의 것들은 많은 부분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상의 것으로 분석한다.

				큰등	98(2)	죽전	98(2)
연동	96	금산	96	치 마 바 우 (구, 위)	95	양지뜸	95
감나못골	94	통새미	93	벼락바우	92	거북바우	92
장곡	92	노루목	91	중동	91	지곡	90
셋들	89	송산	89	구산	89	당곡	88
신 선 바 우 (위)	87(3)	죽도	87(6)	새각단	86	청룡	86
삼박골	86	송곡	86	사직단터	85	이곡	84
대섬	82(2)	장항	81	답안	79	대평	79
죽림	78	동매	78(2)	통샘	78	산성(리)	97
오봉산	76	원당골	75	한천	74	국수봉	74
용못	71	산짓골	70	송도	70	신전(리)	105
사천	69	사장터(태)	68(2)	송정리	68	수곡	66(2)
죽동(리)	73	역진	65(2)	신천(리)	86(3)	큰새미	64(4)
지내	64	율리	63(2)	연화동(리)	80(3)	속골	63
장산	62(2)	읍달	62	냉천	62	새동네	61
밤나무골	60	피밭골	60	장전(동)	70(2)	본동	59(7)
대골	59	냉정	59	천마산	59	연화봉	58
솔섬	58	숲안	57	당산등	57	향꽃골	57
연못	57	큰다리	57	용굴	56	죽곡	56
선암	55(3)	못안골	55	소바우	55	응암	55
너더리	54	약수터	54(2)	토골	54	용두산	54
성곡	54	큰마을	54	큰갓	54	화전(리)	72

말골	53	동리	53	서산	52	한내	52
옥골	52	도화동	52	서산	52	이현	52
동산리	51	응봉산	51	앞골	51	선창(리)	57
내리	51(2)	가매소	51(3)	주산	51	돌빼기	51
선창	51	사정	50	신덕	50	호곡	50
당산곡(골)	50	연지					
			49	숫고개	48	서당터	48

대천	48(2)	대터	48	양달	48	동부(동)	58
반송(동)	53	진보	47	송곳바우	47	가매골	46
금천	46(2)	상곡	46	회동	46	용화사	46
할미바우(구)	46	괴정	45	까막골	45	배고개	45
서원	45	대리(동)	51(3)	물랑들	44	오층석탑	44
서동	44	아리랑고개	43(3)	장사바우	43(2)	명동	43
선동	43	멧돌바우(구)	43	안동네	42(4)	동문터	42
산막	42	가자골	42	상신	41	관곡	41
석산(리)	48	용당거렁	40	용당	40(2)	서부	40
백동	40	조동(리)	48			애기바구(우, 위)	40
중앙동	40	용호(동)	64	칠성암	39	신선대	39(2)
채봉골	39(2)	상산	39	섭안	39	용담	38
췌질바우(위)	38(2)	향교터	38	소정	38(2)	야시골	38(2)
찬물새미	37	수리덤	37	노리목	37	와룡	37
화정	37	하신	37	연곡	37	구봉산	37
대바우(구)	37	본리	36(2)	구곡	36	안산골	36
청룡들	36	관음사	36(2)	숲골	36(2)	남천(동)	41
툃(토)곡(골)	35	문필봉	35	새실	35	연못골	35
백산	35	용당곡(골)	34(2)	대밭	34	남문밖	34
물통골	34	불맷골	34	봉대산	34	와우산	34
봉대산	34	토성	34	신암	33(4)	가덕	33
범방우	33	새내	33	송산리	33	성밑	32
개안	32(2)	사리	32	투구방(바)우(위)	32	날끝	31
우암	31	옷각단	31	동천	31(2)	영천	31
두룽배미	31	진목(리)	43	원리	31	탕근바우	30
남산동	30	박실	30	진동	30	남문터	30
조항	30	구평	30	박곡	30	소곡	29

아미산	29	띠밭등	29	봉림	29	죽림리	29
약수암	29	제당	29(2)	동암	29	여제단터	29
엄나뭇(나무)골	29	신포	29	대사(리)	49	새섬	28
아릿각단	28	북문터	27	병풍암	27	산성골(곡)	27
수정골(곡)	27	참나무정 이	27	솔개	27	동메	27
성고개	27	동문안	27	달밭	27	고정	26
북문안	26	당집	26	양정(동)	32	신선암	26(2)
용소골	26	큰섬	26	사자바(방) 위(우)	26	흔들바(방) 우(구, 위)	26
매방우	26	목넘	26	대교	26	큰내	26
관골	26	사포	26	화장골	25(2)	화촌	25
범의골	26						
북섬	25	성터	25	녹동	25	조암	25
성북	24	덧갓	24(2)	감천	24	문바웃골	23
연지동	23	밭등	23	가갓골	23	활배미	23
월포	23	새밭	23(2)	탄현	23(2)	감골	23
석포	23	신방	23	황새말	23	구시장	23
남문거리	23	하봇들	22	부산	22	양지골(곡)	22
군기고터	22	삼도	22	압실	22	웃마실	22
방아들	22	상보들	22	베틀골	22	솔배기	22
까치고개	22(2)	사암	22	금사동	22	강성대	22
남밖	22	남문안	22	화현	22	월전	21
관산	21	번덕	21	감동	21	장바우	21
영당	21	함박등	21	두류산(봉)	21	새모실	21
서암	21	문현	21	포전	20	대문바우 (구, 위)	20
효자비	20	양산골	20	죽림동	20	대천리	20
토현	20	새동내	20	조도	20	장군산	20
동상동(리)	20	새목	19	압곡	19	대흥	19
가야(동, 골)	34(2)	연정	19	고지	19	호현	19
우동	19	서제골	19	새마실	18(2)	진산	18
안개	18	수내	18	서곡	18	수정	18(2)
북문	18(2)	중곡	18(2)	장태	18	남포	18
중보평	18	노하	18	온천	18	상룡	18
남포	18	당산숲	18	공숫골	18	동밖	18
도룡골	17	산저	17	금호	17	뱃머리	17
교리	17(2)	상덕	17	흑암	17	동대	17
박촌	17	북문밖	17	서천	17	성밖	17
태평동	17	처녀바우 (위)	17	골안골	17	외양골	16

덕포	16(2)	배산	16	남천교	16	사직동	16
수문	16	수문	16	용성	16	동문외	16
낭끝	16	신현	16	대내	16	작은섬	16
큰도랑	16	탕간바(방) 우(위)	16	청학(동)	23	상현	16
조밭골	16	구지	15	후리	15(2)	대지	15
오현	15	남양	15	작은다리	15	충렬사	15
전포	15	옥포	15	수현	15	안못	15
관촌	15	소전거리	15	무지개	15	구곡산	15
광암	15	은점골	15	산양	15	자래(라)목	15
취섬	14	나룻가	14	선덕	14	내룻골	14
아릿마실	14	앞등	14	서호	14	논새미	14
학소대	14	봉밖	14	고리안	14	옥천사	14
아릿마실	14	금정골	14	바지배미	14	진변	13
동쪽	13	삼섬	13	양전	13	동매산	13(3)
영감바우	13(2)	상방	13	원각사	13	하정	13
수정동	13	대평동	13	갯마	13	지 사 (리 , 동)	23
서부리	13	새여	13	구절봉	12	봉림리	12
문수암	12	하현	12(2)	청룡동	12	고깔산	12
구강	12	동부리	12	까막바(방) 우	12	사리골	12
돌개	12	살고개	12	구포(동)	18	홍교	12
성포	12	보현사	12	서도	12	수도암	12
신도	12	땅등	12	강대바우	12(3)	계명봉(산)	12
염창	12	토도	11	호도	11	대천교	11
고동골	11	성북리	11	원마	11	개방우	11
용등	11	찬새밋들	11	굴밀	11	비행장	11
소통골	11	덕계	11	못골짜	11	고대	11
밭골짜	11			두실	11	정수암	11
안골짜	11(2)	조봉	11	고래바우	10	국수당	10
질갓	10	외술배기	10	배오개	10(2)	시천	10
독도	10	감실	10	대룡골	10	산신당	10
일산봉	10	광성리	10	서쪽	10	চিত등	10
무실	10	새못골	10	큰골	10	배오개	10
수정산	10	무곡	10	섬밭	10	목너매	10
챙이골	10	묘봉	10	산지	10	깨진방(바) 우(구)	10
망터	10	제석골	10	사기	10	중신	10
장대산	10	갈미산	10	개논들	10	금성동	10
줄방우(구)	10	신창동	10	가야산	10	개발	10
도도리	9	마미곡(골)	9	장지	9	샘터	9
상대골	9	남평	9(2)	초빙(빈)골	9	하마정	9
납구	9	봉래산	9	공수	9	암골	9

뒤들	9	서중	9	신선동	9	동평동(리)	9
부암동(리)	9	성개	9	가마고개 (재)	18	농막	9(2)
하마	9	골새	9	대마등	9	봉화대터	9(2)
봉오골	9	원효암	9	어산	9	소전	9
북정(리, 동)	17	용두암	9	생이집거리 (걸)	9	산젯골	9
포교당	9	참새미골	9	사시골	9	대신동	9
나무섬	9	동문고개	9	호천	9	북문내	9
선암산	8	외성	8	덕두(리)	14	원동교	8
동문내	8	읍성터	8	솔말	8	조산거리	8
서재터	8	갈마봉	8	왜성	8(2)	정거장	8
대항	8	청운교	8	검정다리	8	홍국사	8
구렁이	8	굴암산	8	배곡	8	북정	8
상덕리	8	새별	8	사라(동)	16	박실고개	8
토성터	8(2)	상작	8	사리곡	8	평성	8
미륵암	8(2)	감정	8	산성고개	8	중섬들	8
용당산	8	구남동	8	집너매	8	대조	8
처녀골	8	대밭골못	8	엄골	8	작지	8
신평동	8	거북섬	8	봉산재	7	신희(리)	14
염막	7	해척	7	빙고등	7	꼬끄랑바 (방)우	7
동계당	7	내리골	7	여암	7	마안산	7
사두	7	강선암	7	당산곶	7	선암사	7
큰목	7	동물	7	시령	7	연대봉	7
배들	7	향교마	7	보개산	7	감내	7
안각단	7	범바웃들	7	명륜동	7	좌동	7
금단	7	대죽도	7	봉황사	7	질매곡(골)	7
질매고개	7	청학	7	미륵등	7	새모기	7
녹산	7	대내곡(골)	7	봉화곡	7	천지산	7
금강암	7	한짓골	6	광대논	6	구포동	6
수영동	6	활터	6	통새미골	6	활터	6
하천들	6(2)	양달산	6	청량사	6	새직골	6
가포	6(2)	양정동	6	삼거리들	6	송림산	6(2)
봉하	6	척화비	6(3)	섯골	6	금수암	6
등구	6	덕두리	6	곡리	6	상마전	6
맥도	6	충무동	6	팔송정	6	병마골	6
선창리	6	북바웃골	6	당산바우 (위)	6	감나무	6
화엄사	6	대리동	6	영강	6	영장골(곡)	6
대창동	6	옥샘	6	대마도	6	운봉산	6
오금동	6	명지동	6	명장	6	오목고개	6
장군새미	6(2)	묵논	6	선리	6	서구지	6
지동바우	6	갯마을	6	내당	6	신금리	6

(구)							
신소	6	석사	6	콩콩바(방) 우(위)	6	만리산	6
서문리	6	석대	6	역답	6		

3. 부산의 특징을 담은 지명

앞 장에서는 부산의 지명으로서 전국적 분포를 가진 것 가운데 100개 이상의 것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5개 이하는 100개 이상의 분포로 보면 미미한 것이므로 이러한 지명은 부산의 특징을 가진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부산의 지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가운데 분포수가 5개 이하인 것과, 부산에 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명을 확인하고,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²⁾

부산 유일의 지명이거나 전국적 분포가 미미한 것들 가운데에는 실제로 분포율이 높은 것과 다를 바 없으나 방언의 차이 때문에 구분된 것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것은 전국적 분포에 포함시켜 부산의 특징을 가진 것에서 제외한다.

3.1. 자연과 관련된 지명

1)강과 관련이 있는 지명(102)

부산에 형성되어 강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사실상 낙동강 뿐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강과 관련되어 있는 지명은 부산의 서부권과 북부권이다. 이 지역은 강과 관련된 지명들이 형성되어 왔으니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강가에 형성된 마을

부산, 특히 강동구나 강서구는 낙동강을 끼고 형성된 마을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가달(加達 : 3)은 부산 강서구 생곡동(生谷洞)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서 강가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이 외에도 강가에 형성된 지형이라는 뜻이기는 하지만 강가를 대표하는 식물인 갈대와 관련된 지명들도 발달되어 있으니, 가리사(1)는 부산 강서구 범방동(凡方洞) 모래구지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서 가이사, 가리세라고도 하며 이전에 갈밭이 있었기 때문에 붙었던 지명이다.

2) 판치(7)는 북구 강동동 식만에 있는 마을이나 모래톱 또는 들이다. 中沙島라고도 한다. 모래로 되어 있다. 이는 7개나 되지만 부산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부산만의 고유 지명으로 보아야 한다.

(2)나루터

강을 중심으로 한 생활 터전으로 형성된 마을을 상호 연결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던 곳으로 큰 의미가 있다. 부산의 대표적인 나루터 지명으로는 사하구 하단동의 강나루(1)가 있다. 계목나루터(1)는 부산 북구 江東洞의 中谷에서 鳳林里로 건너가는 나루터로서 濟島渡船場이라고도 한다.

(3)섬

이후로 토지 사업이나 다리의 건설로 하나가 되었으나 당시 섬이었던 지역은 또 다른 특수 지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의 섬은 바다에 형성된 섬이 아니라 주로 대저를 중심으로 한 河中島들이다. 예를 들면 건너섬(4)은 북구 嚴弓洞 서쪽 낙동강에 있는 섬이다. 고름도(1)는 강서구 蔚滿洞 雪滿 남쪽에 있는 들로서 전에 갈밭이 있었다 한다.

(4)강둑

강둑이 형성된 곳은 농업을 비롯해 많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화되었다. 예를 들면 龜浦둑(1)은 북구 구포 앞 낙동강 둑으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5)다리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놓인 주변 또한 교류가 원활해 교통과 상업의 중심이 된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龜浦橋(1)은 북구 구포에서 대저 쪽으로 건너가는 다리로서 이 주변은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장시 문화가 대단히 발달을 하게 된다.

2)바다와 관련이 있는 지명(156)

(1)바닷가에 형성된 마을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어 바닷가에 마을이 많이 형성되었고, 지명에도 이러한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바닷가의 이름에는 주로 개, 포, 불, 말, 꽃 등의 접미사가 붙게 되는데, 이는 모두 바닷가 모랫벌이거나 바다를 감싸거나 바다 쪽으로 벌어나간 지형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靑沙(4)는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마을. 남쪽 바닷가다. 靑沙浦라고도 한다.

(2)부두

부산은 오랜 세월 일본을 비롯해 수많은 국가 및 지역과의 교류를 중개하는 항구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부두 및 나루터로서의 기능을 행하고 있는 지명이 많이 남아 있다. 물론 이러한 항구로서의 기능으로는 일반적인 교류 외에도 군사항으로서의 역할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중앙부두(1)는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두. 南部外航(1)은 영도구 南港洞 앞에 있는 항구다.

(3)대(臺)

대(臺)는 물가의 언덕을 뜻하는 것으로 부산은 강과 바다가 함께 하는 지형상 대가 대단히 많다. 太宗臺(2)는 영도구 동삼동 하리 남쪽 바닷가에 있는 대. 신라 태종무열왕이 삼국을 통일한 후 궁인과 시종을 거느리고 이곳에서 놀았다 한다. 조선조에는 기우제를 지냈다. 子城臺(1)는 동구 범일동에 있는 대. 義妓臺(1)는 남구 용당동 신선대에 있는 대. 임진왜란 때 왜적의 화를 피하여 기생들이 이곳에 바다로 뛰어 들었다 한다. 花孫臺(1)는 사하구 다대동 물운대 동쪽에 있는 대. 野望臺(1)는 사하구 다대동 다대포와 낮개 사이에 있는 대.

侍郎臺(2)는 기장군 시랑 공수 동북쪽 동해 바닷가에 있는 대. 조선 영조 9년(1733)에 현감 權檣이 이조 참의가 되어 이곳에 와서 시랑대 세 글자를 새겼다고 한다. 예부터 영험하다고 하여 삼월과 시월에 용왕제를 지내며, 날이 가물면 기우제도 지낸다. 駕鵞臺라고도 한다. 屏風臺(1)는 남구 용당동 신선대 남서쪽에 있는 대. 이곳의 절경을 즐겨 찾아왔던 풍류객이 새긴 글과 글씨가 많고 신라 때 최치원이 남긴 신선대라는 진필 각자가 있었다고 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대에는 수많은 전설이 깃들여 있다. 이는 대가 주는 신비로운 이미지 또한 이를 형성하는데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4)등대

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의 특징적인 지명이다. 예를 들면, 影島燈臺(1)는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등대. 紅燈臺(1)는 영도구 영선동 앞에 있는 등대 등이 있다. 특히 가덕등대(加德燈臺 : 1)는 가덕도에 있는 등대이다. 가덕(加德)이라는 지명은 전국에 4곳이 있으나 등대는 유일하다.

(5)섬

부산의 바다 섬은 영도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거주하는 섬이 없다. 따라서 사람들의 거주에 의한 문화의 형성보다는 경관으로서, 어업의 전진기로서, 전설의 모티브로서의 역할이 더욱 크다. 예를 들면 농바우섬(1)은 강서구 놀차 대항 남서쪽에 있는 섬으로 농처럼 생겼

다.

달빙이섬(1)은 강서구 놀차 대항 서쪽 3키로 지점에 있는 섬으로 달팽이처럼 생겼다. 대가리섬(1)은 서구 암남동 남쪽 바다에 있는 섬. 대가리처럼 생겼다. 頭島라고도 한다. 그리고 내동섬(1)은 강서구 놀차 대항 남서쪽 내동섬 및 그곳의 어장으로서 송어잡이로 유명하다. 이섬(1)은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섬으로 동이 또는 주전자처럼 생겼다고 한다. 어부가 이 섬에서 불을 피우거나 대변을 보면 하루종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어구를 전부 잃어버린다 한다. 生섬. 生島, 주전자섬, 鑪盆島라고도 한다. 이 가운데 특별한 것으로 古智島(1)는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섬으로, 아치섬, 꽃이섬, 臥幟島, 朝島, 臥幟섬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한국해양대학이 자리하고 있다. 동

(6)해수욕장

해수욕장의 발달은 대단히 복잡한 해안선의 변화를 가져왔다. 예를 들면, 多大浦海水浴場(1)은 사하구 다대동 새목에 있는 해수욕장, 백산해수욕장(1)은 남구 민락동 백산 남쪽에 있는 해수욕장, 松島海水浴場(3)은 서구 암남동에 있는 해수욕장, 松亭海水浴場(1)은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해수욕장, 水營海水浴場(1)은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1)은 해운대구에 있는 해수욕장.

3)고개와 관련이 있는 지명(342)

부산은 바다와 산과 함께,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수많은 산들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고유한 고개나 산에 대한 지명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이의 명칭들은 그 모양, 특별한 산물, 사찰 등 주변의 환경이나 기능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예를 들면, 可牟嶺(1)은 감고개, 柿嶺, 가마고개, 釜嶺 등으로 불리며, 부산 동구 수정동 고관에서 부산진구 가야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다. 감나무가 많았던 고개이다. 개구리산(4)은 부산 蓮堤區 巨堤洞에 있는 산이다. 화지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산등성이의 구릉으로 도심의 동산에 해당한다. 개구리처럼 생겼다. 멧등(3)은 북구 명지동 동리 남쪽에 있는 등성이. 무덤이 많다. 문현동고개(1)는 남구 문현동에서 대연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다. 찌깁골고개라고도 한다.

4)식물과 관련이 있는 지명(33)

식물과 관련이 있는 지명은 그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생산물, 또는 대표적인 식물 등에 의해 지명이 형성된 곳이다. 이는 강, 바다, 고개 등의 자연 환경과는 달리 생활의 바탕이 되기도 하는 자연 환경이기에 달리 분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포푸라마찌(1)는 북구 감전동에 있는 마을. 一木亭(1)은 강서구 놀차 외늘 동쪽에 있는 소나무. 아랫마전(3)은 금정구 청룡동 서쪽에 있는 마을. 옷마전 아래쪽이며 삼밭이 있었다. 下麻, 下馬田, 下馬

田里라고도 한다. 새실골(5)은 동래구 명륜동 새실 뒤쪽에 있는 마을. 시시골, 시실골이라고도 한다. 배옥곡(3)은 사하구 당리 신평동 배고개 밑에 있는 마을. 배곡,梨谷이라고도 한다. 개곶이(1)는 부산 부산진구 開琴洞의 다른 이름이다. 개금은 전국의 유사 지명인 개금밭골, 개금밭, 개금떨 등의 지명이 개금나무(개암나무)가 많은 골짜기라는 뜻인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의미로 보인다.

3.2. 생활 및 역사와 관련이 있는 지명

1) 생활과 관련이 있는 지명(382)

주거지를 중심으로 발달된 생활 환경에 의해 지명이 형성된 곳들이다. 이는 생활의 형태가 다양한 만큼 대단히 다양한 예들이 보인다. 예를 들면, 龜浦排水場(1)은 북구 구포동 龜明洞에 있는 배수장. 火葬墓(1)은 동구 수정동에 있는 마을. 옛날 이곳에 화장막이 있었다 한다. 紅門間(1)은 기장군 교리 향교터 남쪽에 있는 발 기장향교의 홍살문이 있었다. 해운대역(1)은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역. 해운대온천(1)은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온천. 학장거렁(1)은 북구 학장 앞에 있는 내. 河川(3)은 북구 대저동 울만 소덕리에 있는 수로. 淸館(2)은 중구 영주동에 있는 중국인 마을. 화교학교가 있다. 철도수원지(1)는 동구 수정동 대래비산에 있는 수원지. 1936년 철도국에서 설치하였다. 天主教墓地(2)는 남구 용호동에 있는 천주교 공동묘지. 천성공동묘지(1)는 강서구 천성 서중 동북쪽에 있는 공동묘지. 影島變電所(1)는 영도구 대평동에 있는 변전소. 安樂洞(3)은 동래구에 속한다. 안락서원이 있다. 書院, 院洞, 院里라고도 한다. 水營飛行場터(1)는 해운대구 佑洞에 있는 비행장 터. 石炭庫(1)는 영도구 청학동 일산봉 서북쪽에 있는 마을. 전에 석탄 창고가 있었다. 생교동(2)은 강서구 동선 가덕 동쪽에 있는 마을. 전에 향교가 있었다. 校洞이라고도 한다. 생이집골(4)은 기장군 내리에 있는 골짜기. 생이집거래라고도 한다. 생이집(상엿집)이 있었다. 새양터(1)는 남구 대연동에 있는 사장터. 射場터, 활터라고도 한다. 社稷洞池(1)은 기장군 대라리 새마지에 있는 못. 새마지못, 새집골못이라고도 한다. 병마끝(1)은 북구 대저동 신장로 북동쪽에 있는 마을로 일제 때 장티푸스 환자를 수용하던 집이 있었다. 동쪽새미(2)는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우물. 둔치도양수장(1)은 강서구 봉림 둔치도 북쪽에 있는 양수장이다. 야수박빨래터(1)는 남구 용당동 야수박골의 빨래터. 고라진(1)은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빨래터다.

2) 종교와 관련이 있는 지명(219)

부산은 바다와 강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서 종교적인 행위와 관련된 지명이 대단히 많다. 예를 들면, 彌勒石佛像(1)은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미륵상. 각시당(4)은 부산 남구 龍湖洞에 있는 海女의 神堂이다. 골목할마시제당(1)은 남구 용호동에 있는 제당이다. 關皇廟(1)는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관운장의 사당으로 1933년 동래부사 朴濟寬이 세웠다고 한다. 龍塘洞

(5)은 남구에 속한다. 용제를 지내는 신당이 있었으므로 용당이라고 하였다.

3)산업과 관련이 있는 지명(214)

부산은 다양한 산업의 발달이 있었던 곳으로 지명에도 이러한 흔적들이 남아 있다.

(1)농업

농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이었기 때문에 부산에도 이와 관련된 논, 밭, 들, 농장 등의 지명이 가장 많이 남아 있다. 예를 들면, 화원농장(2)은 북구 대저동 대지 남쪽에 있는 농장. 下坪田(1)은 강서구 봉림 오봉산 너머에 있는 밭. 가족골논(1)은 부산 기장군 大羅里에 있는 논으로 가재가 많았다고 한다.

(2)축산

농업에서 활용하기도 하지만 소를 비롯한 가축은 먹을거리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지명 또한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소정그래(1)는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네 갈래 길. 옛날 소전이 있었다. 소전거리, 소전, 사거리라고도 한다. 소고마을(1)은 동구 범일동에 있는 마을. 옛날 이곳에서 소를 많이 쳤다고 한다. 대지막거리(1)는 동구 범일동에 있는 마을로서 돼지를 많이 쳤다고 한다. 고리장터(2)는 영도구 瀛仙洞과 신선동 경계에 있는 마장터로서 고리와 같이 말목을 빙 둘러 박아서 그 안에 말을 방목하였다 한다. 環場터라고도 한다.

(3)공업 및 서비스업

전통적인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지명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大同工業村(1)은 해운대구 중동에 있던 대동공업사 자리. 大東運輸村(1)은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대동운수 자리.

(4)어업 및 양식업

바다를 중심으로 한 삶은 부산의 특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지명 또한 대단히 많다. 예를 들면, 꾸무장이양식장(1)은 강서구 녹산동 노적봉 동쪽에 있는 양식장. 1967년에 만들었다. 깔마까지(1)는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어장이다. 네바위염전(1)은 강서구 화진 네바위 동북쪽에 있는 염전 터.

(5)상업

장사는 생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부산 또한 이러한 장시 문화가 많이 발달하였음을 지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해바지(1)는 혹은 동래에서 부산진장에 갔다가 늦어지면 가족들이 횃불을 들고 이곳까지 마중을 나왔다고도 한다. 한편 조선 후기의 店이나 店村은 일반적으로 수공업장이나 수공업을 하는 마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지명은 수공업 장인의 상점이 있던 곳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³⁾ 골목장(1)은 동구 범일동 부산진시장이자 부산장, 부산진공설시장이라고도 한다. 임진왜란 전부터 있었다 한다. 槐亭舊市場(1)은 사하구 괴정1동에 있는 시장이다.

4)역사와 관련이 있는 지명(212)

부산은 일본과의 관계나 한국전쟁 등의 역사적 사건 등 큰 변화에 의해 형성된 지명이 많이 있다. 오랜 역사 속에 인물들이나 행정기관에 의해 형성된 지명 또한 부산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바탕이 된다. 예를 들면, 해운대터(2)는 해운대구 우동 동백섬에 있는 해운대 터. 최치원이 단을 쌓고 노닐었다고 한다. 피난촌(2)은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마을. 6.25 때 피난민이 많이 산다. 平壤村(3)은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마을. 대동운수촌 동남쪽으로 6.25 때 피난 온 평양 사람이 많이 산다. 通房(1)은 기장군 동부 서쪽에 있는 마을. 옛 기장현 관아의 통방이 있었다. 甌臺山城(1)은 동구 좌천동에 있는 성. 釜山日本城, 凡川甌臺山城이라고도 한다. 靖遠樓터(2)는 동래구 수안동 동래구청 본관 서쪽에 있는 정원루터. 중종 7년(1512)에 목사 김석철이 옛 문루를 고쳐 세우고 정원루라 명명하였으며, 강위의 기가 있다. 이곳에서 임진왜란 때 교수 盧蓋邦이 자결하였다. 鄭公壇(1)은 동구 좌천동 부산진성에 있는 단. 釜山僉使 鄭撥의 충절을 기리고 있음. 忠壯壇이라고도 한다. 정가정(1)은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정서의 유적. 鄭瓜亭이다. 戰船廠터(1)는 기장군 대변 동쪽 바닷가에 있는 터. 본래 울산에 있던 것을 인조 9년(1631)에 이곳에 옮겨 수군과 전선을 두고 방비했다. 舟師廠이라고도 한다. 장관청(4)은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고적으로 문화재 8호로 지정. 章臺谷(2)은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마을. 장대골, 쟁대골이라고도 한다. 옛날 사형 집행과 무과 시험을 행하였던 章臺터가 있는 곳이다. 원래 적의 동정을 살피는 將臺가 있던 곳이었다. 이곳에서 1868년 천주교 신도의 참수형이 행해졌다. 유엔묘지(1)는 남구 대연동에 있는 유엔군 묘지. 古館(1)은 동구 水晶洞에 있는 마을로 舊館이라고도 하며, 옛 豆毛浦倭館이 있던 곳이다.

5)기타(702)

이상의 지명 외에 전국적인 분포를 가진 지명과 마찬가지로 위치, 형상 등을 바탕으로 이

3)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부산지명총람, 제6권 연제구·수영구·사상구편, 2000 참조.

루어진 마을의 명칭과 행정 구역의 변화에 따라 바뀐 지명, 골짜기, 재실터, 성씨 유래와 관련된 지명, 폭포, 길, 묘, 소 등이 있다. 三姓臺(2)는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마을. 옛날 부곡 시대에 白, 金, 玉 세 성이 살았다고 한다. 선암폭포(1)는 부산진구 부암동 선암사 뒤에 있는 폭포. 細山(4)은 강서구 녹산 미음 동쪽에 있는 마을로 뒷산이 쥐 모양이다. 鼠山이라고도 한다. 아랫농막(1)은 남구 문현동 농막 아래쪽 마을. 앞길(3)은 북구 대저동 사덕 신촌 앞에 있는 길. 鄭氏墓(2)는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鄭文道の 묘. 화지산 기슭에 있는데, 범이 었드려 있는 형국이라 한다. 갈쏘(1)는 부산 기장군 시랑리 동암 동북쪽에 있는 소.

4. 맺음말

필자는 이후 이를 다시 부산의 지역별로 분류하여 각 지역의 문화적인 요소를 구분하고, 이를 다시 보편적인 부산 문화의 적층을 이루어나가는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부산의 지명과 문화 적층에 대한 연구

심상교(부산교대)

부산지역 지명에 대한 치밀한 조사와 학문적 성찰이 담긴 발표라 생각한다. 지역학연구의 관점은 여러 가지로 다양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지명에 관한 연구는 다른 여러 관점의 근간이 되는 기반적 연구로 생각한다. 지명에는 그 지역의 지형, 문화, 역사, 유래 등의 내력과 특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발표는 부산지역학연구에 있어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학 연구의 모태적 성격까지를 포괄한다. 이 발표문과 이어지는 후속 연구가 부산지역학 연구를 꽃피우는 공고한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

지명에 관한 연구에 문외한이지만 부산지역의 전통문화에 한 점 관심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토론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한다. 이 질문은 발표주제에 대한 토론자의 이해 부족에서 연유한 것이다.

첫째, 발표문 12쪽(쪽수는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기준 함)에 '부산에 형성되어 강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사실상 낙동강 뿐이다.'라고 하였다. 낙동강이 부산을 상징하는 강이고 낙동강에 인접한 지역은 문화적으로 낙동강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렇지만, 낙동강만큼 부산인의 삶과 밀접한 다른 강 혹은 천(川)은 지명과 관련되어 언급될 가치는 없는가?

둘째, 발표문 12쪽에 '가달(加達 : 3)은 부산 강서구 생곡동(生谷洞)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서 강가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라고 했는데 가달이라는 말이 강가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 된 과정을 설명해 주면 좋겠다. 어원이나 한자의 뜻에서 강가의 마을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를 부연설명해 주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

'강가를 대표하는 식물인 갈대와 관련된 지명'으로 '가리사', '가이사', '가리세'라는 곳의 예도 들었다. 어원이라 근거를 설명해 주면 좋겠다.

셋째, 14쪽에 '可牟嶺(1)은 감고개, 柿嶺, 가마고개, 釜嶺 등으로' 불린다고 했다. 이 경우 감고개라는 지명이 먼저 생기고 후에 可牟嶺, 柿嶺이라는 표기가 생겼는지 궁금하다. 可牟嶺은 감고개의 이두식 표기처럼 보이고 柿嶺은 감고개의 의미를 한자로 옮긴 표기로 보인다. 可牟嶺 표기가 먼저라면 감고개의 감이 柿가 아닌 다른 의미였을 수도 있다. 감고개 주변에 감나무가 많다고 했는데, 감나무는 후대에 우연히 심어졌고 可牟嶺으로 표기된 감고개는 감나무와 무관한 고개일 수도 있다. '찌깽골고개'의 '찌깽'은 무슨 의미인지 부연설명 부탁한다.

넷째, 15쪽에 '社稷洞池(1)은 기장군 대라리 새마지에 있는 못. 새마지못, 새집골못'이라고 했다. '새마지못'과 '새집골못'이라는 지명과 '社稷洞池'라는 지명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 생긴 것인지? 한자표기가 나중의 것이라면 '새마지'와 '새집'에 社稷의 뜻은 없어 보이는데, 새마지와 새집을 社稷으로 표기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란다. 같은 15쪽에 '새실골(5)은 동래구 명륜동 새실 뒤쪽에 있는 마을. 시시골, 시실골이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다. 새실골, 시시골, 시실골의 의미는 무엇인지?

다섯째, 16쪽 '下坪田(1)은 강서구 봉림 오봉산 너머에 있는 밭'이라고 했는데 '하평전'을 한자로 표기하기 전에는 어떤 이름으로 불렸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같은 쪽에 '가죽골논(1)은 부산 기장군 大羅里에 있는 논으로 가재가 많았다'고 했다. 가죽골과 大羅里, 가재의 관계에 긴밀성이 없어 보인다. 가재를 가죽이라고도 했는 지 궁금하다.

여섯째, 부산의 지명은 산과 강, 바다, 현대적 요소인 산업화의 특성을 모두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과 강, 바다, 현대적 요소는 우리나라 대부분 지명에도 녹아 있지만 부산만의 특성을 드러낸 것을 정리했다. 이런 정리를 통해 발표자가 느끼신 부산지역만의 문화적 특성과 독특한 상상력이 발견되었다면 무엇인지 설명해 주기 바란다.

급하게 생긴 개인사정으로 학회토론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동남어문학회장님과 학회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운대의 풍경과 시적 관념화의 통시적 접근

권오경(부산외대)

차 례

1. 연구의 목적과 방향
 2. 한시에서의 해운대의 풍경과 시적 관념화
 - 2.1. 풍경의 서정화와 관련 소재
 - 2.2. 풍경의 선계(仙界) 관념화와 관련 소재
 3. 현대시에서의 해운대의 풍경과 시적 관념화
 - 3.1. 해운대 개념의 확장과 시적 소재의 다양성
 - 3.2. 이미지 중심으로 본 주제의 다양화
 4. 맺음말
- 참고문헌

1. 연구의 목적과 방향

1) 목적

- 소박한 동기유발로서의 해운대 감상법: 옛날 사람들은 해운대를 어떻게 보았는가? 그리고 그 시적 전통이 현대시에 어떻게 계승, 혹은 변화하였는가.
- 지역문학은 일반 문학 연구의 초석이 됨과 동시에 다시 돌아와야 할 고향과도 같은 대상
- 역사를 관류하면서 해운대 및 일대의 풍경을 대상으로 역대 사대부, 시인묵객들이 느끼고 표현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 통시적으로 관류하는 문학 코드는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것은 해운대의 본질이고, 계승의 핵이자 씨앗이 될 것이다.

2) 방법 및 내용

- 소재 전통(stoff tradition) 중심 접근 : ‘해운대’ 관련 시 중심
- 고려말에서 조선조에 걸쳐 이루어진 海雲臺 관련 한시(題詠集景詩)를 탐색, 분석함
- 현대시 중에서 해운대 대상 시를 탐색, 분석함으로써 통시적 접근을 지향함
(이 글에서는 해운대문인협회의 시문학지 『해운대문학』(1-17집)을 대상으로 함)

3) 연구 의의

- 지역문학을 좀 더 정치하게 살피고 본질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것을 계승의 핵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 타진, 지역문화 창조의 토대를 구축함.
- * 해운대를 소재로 쓰여진 시는 해운대의 역사임, 왜냐하면 해운대 풍광과 역사, 문학

창작의 배경지식과 이념의 융합 속에서 새로운 해운대 이미지가 탄생하기 때문.

-부산에 소재하는 물운대, 태종대, 신선대, 이기대, 소하정, 적취헌, 영가대, 정과정 등도 같은 시각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그리고 향후 논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4) 선행연구

-정경주(경성대), 『해운대 천년의 서정 : 海雲臺를 찾은 先人들의 詩文選集』(해운대구청, 1994)

-정경주, 『해운대』(경성대학교출판부, 1998)

: 이 두 책은 동일 저자가 해운대구청의 요청으로 해운대를 대상으로 쓴 시를 찾고 그들의 작품(고려말-조선조의 시 48수)을 해제함. 뒤의 책은 앞의 책을 보완하고 주제적으로 다시 분류, 서술한 것임. 해운대 대상 한시의 존재양상을 처음으로 규명했다는 의의를 지님.

-한시에서 신선사상을 추출하는 대표적인 작업은, 李演載, 『고려시와 신선사상의 이해』(아세아문화사, 1989)이 있음. 이 책에서는 1)고려조 한시의 仙的 주제 양상¹⁾ 분석, 2)신선사상의 題詠이 가지는 특징²⁾ 분석을 다룸

-향후 더 많은 자료 수집, 보충, 분석, 현대시와의 비교 분석이 요구됨

-본고에서 다룬 작품: 해운대 제영 한시 146수, 현대시 50수. 『해운대문학』(1-17집)소재 작품 중 해운대 관련 시 대상)

5) 이 글의 한계

계승 현황 분석을 위한 비교 대상이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음

-사대부 시인들(남성 중심: 도학의 이념) 對 일반 시인(현대 자유 개성 시풍 소유)

-해운대 유람인(타지 유학자가 대부분) 對 해운대 거주민

2. 한시에서의 해운대의 풍경과 시적 관념화

* 시적 관념화: 대상을 마주할 때 실물로서의 대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사실은 개인마다 느끼는 감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물로서의 대상은 주관적으로 존재한다. 결국 대상은 관념화된 것이라 한다면 대상을 마주한다는 것은 ‘관념 대 관념’의 대응이라 볼 수 있다. 더욱이 해운대처럼 실물로 존재하지 않는 누대(樓臺), 바다가 큰 바위로서의 성격이라면 대상으로서의 해운대는 더욱 감각적 차이를 가져오고 관념화되기 쉽다. 해운대의 절경이 시인마다 다르게 형상화되는 것은 이러한 시적 관념화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사용하는 ‘풍경의 서정화’ 역시 실물로서의 풍경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변화체이고, 그에 따라 각각 다른 감각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감응되는 시적 대상과 표현

- 1) 1. 仙의 추구(불로장생의 회원-장수의 기원, 불로의 회구, 仙化의 욕망), 이상향의 동경-선향의 동경, 仙跡의 동경, 仙人의 동경),
2. 無爲自然(자연합일의 교감-沒我적合一, 관념적 합일). 仙적 逍遙의 表象-자연적 소요, 인위적 소요), 仙化 욕구의 표출-주관적 선화, 객관적 선화,
3. 超世의 지향(超世의 飄逸의 自適-표일 지향, 선경 표일, 羨仙 표일, 자연친화의 淸澹-청담지향, 선경 청담)
4. 현실의 선적 극복(불만의 선적 토로-생활 불만, 관로 불만, 세태불만), 욕구의 선적 충족-서정적 충족, 세태적 충족, 울분의 선적 승화-소외울분, 환란 울분)
- 2) 서경적인 특징, 연상적인 특징, 즉흥적인 특징, 낭만적인 특징: '인간이 승경을 대하고 보면 곧 선경을 연상하게 되고 신선을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장생불사의 욕망이 간절하여 질 것이며, 이 장생불사의 욕망은 마냥 즐거운 상상을 불러 일으키면서 낭만적으로 음영되었을 것'. 이연재, 270쪽.

되는 정서 사이에 감응, 감동이 발생하여 전혀 새로운 ‘관념화된 풍경’을 만들어 낸다.

2.1 풍경의 서정화와 관련 소재

(1) 해운대의 지리·문화적 모습

海雲臺는 (동래)현의 동쪽 18리에 있다. 산의 절벽이 바닷속에 잠겨 있어 그 형상이 누에의 머리(잠두)와 같으며, 그 위에는 온통 동백나무와 두충나무, 소나무, 전나무 등으로 덮여 있어 싱싱하고 푸르러 사철 한결같다. 이른 봄철이면 동백꽃 잎이 땅에 쌓여 노는 사람들의 말굽에 차이로 밟히는 것이 3·4치나 되며, 남쪽으로는 대마도가 아주 가깝게 바라다 보인다. 신라 때 최치원(崔致遠)이 일찍이 대를 쌓고 놀았다 하는데, 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³⁾

들리는 말로 동래현은 아득히 치우친 외진 곳이라 교룡이 뿜는 안개는 낮은 땅 휘감고 고래가 노는 바다는 뜬 하늘 박찬다지⁴⁾

바다의 파도가 하늘에 닿아 시야가 끝이 없고, 부상(扶桑)과 일본이 좌우에서 골몰(汨沒)하고, 물고기와 자라와 교룡(蛟龍)이 앞뒤에서 황홀하여 드디어 혼탁한 속세의 그물에서 벗어나고 곤봉(鯤鵬)의 세계에서 소요(逍遙)하여 신선계의 일월이 곧바로 몸 밖의 삼광(三光)과 더불어 항상 서로 맞닿는 것에 이르러서는 해운대가 으뜸일 것이다.⁵⁾

초여름에 절월(節鉞)을 나눠 받아 삼복(三伏) 동안을 바닷가 치원대(致遠臺)에서 읊조리며 지냈다.⁶⁾

: 해운대는 동래부 東面에 소속되었다. 외진 곳에 있었지만 최고운의 자취가 남아있는 승경지였다. 또한 차츰 무역, 군사, 온천관광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그래서 동래부사를 포함한 각종 목민관은 물론이고 일본통신사, 유람하는 사대부, 시인들이 해운대를 찾았다.

해운대는 탁 트인 바다, 안개와 구름, 기암괴석에 부딪히는 파도, 청송과 백운이 어울려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내기 때문에 선계로 묘사된다. 대마도를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안향(1243~1306)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운대는 일찍이 피서지, 유람지로 유명했다. 이 모든 점들이 해운대를 찾고 시를 남긴 이유이다.

(2) 주요 소재의 전통적 이미지

가) 최치원

① 최치원 자신의 작품과 선계의 동향:

3) 『東國輿地勝覽』, 海雲臺 在縣東十八里。有山陡入海中若蠶頭。其上皆冬柏杜沖。每春冬之交。冬柏花積地。遊人馬蹄蹴踏三四寸。新羅崔致遠嘗築臺遊賞。遺迹尙存

4) 이행(李荇), 용재집(容齋集) 容齋先生集卷之五 謫居錄 弘治甲子夏四月。謫忠州以後作。聞說東萊縣 茫茫是一隄 蜺煙籠地墊 鯨海蹴天浮

5) 남효온(南孝溫), 유해운대서(遊海雲臺序), 추강집 제4권 서(序)

6) 안향(安珦),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8권 경상도(慶尙道)성주목(星州牧), [甲午秋自鎮邊歸道次京山府示太守李東庵]

-浮世의 榮華는 꿈속의 꿈/ 白雲 深處에 安身함이 좋다7)

②작품 속의 최치원: 儒仙, 海雲之仙, 詩仙, 崔學士, 新羅學士, 崔翁, 海雲御史, 崔仙曾 등

③작품 속의 최치원의 이미지:

㉠신선, 선유로서 존승함

㉡시를 잘 지었음을 존경하고 부러워함

-고운학사는 시선이라8)

-해운어사는 시로써 이름을 알렸다.9)

㉢돌아올 것을 기대함

-해운의 신선은 내가 온 걸 기쁘게 여기어/고운이여 고운이여 그는 바로 유선인데10)

-봉황피리 울릴 적에 붉은 놀 가늘어지고 / 아마도 유선은 오늘 저녁 돌아오리11)

-채색 구름 한점 하늘에서 내려오니 / 알겠네, 최고운이 피리 들고 오는구나12)

-신라 유선 최해운 지금도 난설처럼 맑은 향기 가득해13)

-최선승은 이 가운데 배회하네14)

㉣떠난 사람의 자취 뒤에 자연만 남은 것에 대한 애상

-유선은 훌쩍 가고, 구름과 연기만이 오래 되고,

요동(遼東)의 학은 천 년 만에 돌아오니 세월이 차다15)

-당시 최학사 자취만 남고 작은 대는 비었다.16)

(나) 해운대

①海雲臺는 현재 구체적 건축물이 남아있지 않음17),

경우에 따라서는 절벽 위의 큰 바위 그 자체가 海雲臺

②작품 속의 해운대의 이미지:

㉠無址有名: 실물로서의 臺는 없지만 이름은 갈수록 더 부각됨

-터조차 없어진 황무한 대를 저기가 해운대라고 알려주네18)

-천년의 고적 臺는 황폐해졌는데 동백은 안개 중에 피어나도다19)

㉡神仙鄉: 선계에 온 듯한 환상에 빠짐

-인간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곳이라20)

-내 일찍이 역마 타고 경쾌히 한번 올라보니

황홀함이 마치 나를 신선향에 앓힌 듯했네21)

7) 최치원, 太平通載

8) 서거정: <夢遊鷄林. 訪崔學士致遠> 孤雲學士是詩仙

9) 정공권: <東萊懷古> 海雲御史詩鳴者

10) 서거정: <海雲臺行 送柳斯文之東萊> 海雲之仙喜我來, 孤雲孤雲是儒仙,

11) 홍성민: <次左水營板上韻> 鳳管鬧時霞液細 儒仙今夕當歸來

12) 정권: <海雲臺> 彩雲一點從空下 知是崔翁聽笛來

13) 고경명: <聞護送官朴正字東善遊海雲臺有感> 羅季儒仙字海雲 至今蘭雪洒清芬

14) 박상: <贈別朴都事亨鱗 赴山南韓相公幕> 崔仙曾此重徘徊

15) 유효인: 너계집(潘谿集) 潘谿集卷之六 <登東萊海雲臺> 儒仙一去雲煙老. 遼鶴千年歲月寒

16) 권상일: <海雲臺> 當時崔學士 遺躅小臺空

17) 臺는 누정의 일부, 누정시에 해당, 樓亭(題詠)詩-누정을 대상으로 작시, 연작시가 많음
集景詩-누정 주변의 풍경을 대상, 제목에 -景, -詠이 없음

18) 정포(鄭誦), 동문선 제9권, 동래 잡시(東萊雜詩), 荒臺漫無址 猶說海雲名,

19) 홍위(洪葢), 청계집(淸溪集) 淸溪先生集卷之二 海雲臺, 千秋古蹟荒臺在. 冬柏花開煙雨中.

20) 윤순지: <萊山謾占> 點化人間第一奇

㉔신선의 자취 서린 곳에서 취흥함

- 듣자하니, 옛날 신선의 대가 있다기에 호리병 차고 해운대에 오르고파²²⁾
- 인간세상 귀한 것 전혀 흥미가 없어 미친 노래 좇으며 취하여 누었다²³⁾
- 홀로 선대(仙臺)를 향하여 가며 술을 마신다.²⁴⁾
- 작은 배로 바다를 저어가니 바다는 넘실넘실
다시 선대에 오르니 흥이 그치질 않네²⁵⁾

(다) 동백섬

①동백섬 모양: 누에 머리, 자라 머리, 거북이 머리 등으로 표현된다. 오두(龍頭), 오배(鰐背), 오봉(鰐峯), 금오(金鰐) 등. 요즘은 다리미섬(火斗, 蔚斗山)으로 불리기도 한다.

자라 머리는 신선계를 상징하는 금오(金鰐)와 의미가 통하여 동백섬이 선계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 이곳은 진정 소봉래라할 터인데 자라 등처럼 평평한 곳 일백척 높은 대라
천년 세월 바닷가 자라 등(언덕)에 대가 남아 있으니²⁶⁾
- 취해서 금오에 오르며 읊조림 그치지 않는데, 신선의 통소 소리 바다속에 울려 가네²⁷⁾

②시인이 그리는 동백섬의 이미지:

㉑仙界로 묘사됨

㉒동백꽃(山茶花)이 활짝 피어 온 섬이 붉고 화려하다.

- 바다 위에 높게 솟은 대 위로 석풍이 불고 중춘 호시절에 동백 피어 만산이 붉다²⁸⁾
- 내 일찍이 해운대에 올라 먼 데를 바라보니
선달에 산다꽃이 나무 가득 피어 있었네²⁹⁾
- 바위 위의 소나무는 늙어가고 학은 바람을 쓸고 있는데
아름다운 이곳에 동백꽃은 피어 바다를 붉게 비추네³⁰⁾
- 만 가지 동백이 화려하게 피어나니 기녀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천 가지 소나무가 악기를 희롱하니 악사들이 할 일이 없네³¹⁾

㉓바다와 하늘이 열린 곳

- 홍진 세상 이십년에 이름 오래 들었지만 자라 봉에 올라보니 눈이 홀연 푸르러진다³²⁾
- 자라 머리에 해 밝으니 삼신산이 가깝다 학의 뒤로는 푸른 하늘, 만리가 차갑다³³⁾

(라) 대마도:

①작품 속의 대마도의 이미지:

-
- 21) 서거정: <海雲臺行 送柳斯文之東萊> 我曾飛翺快一登 恍然坐我神仙鄉
 - 22) 홍귀달 (洪貴達) 허백정집(虛白亭集)卷之二 見說仙眞舊有臺 携壺欲上海雲臺
 - 23) 유희인: <登東萊海雲臺> 人間簿領無多興 從使狂歌臥醉鄉
 - 24) 이원진: <海雲臺> 獨向仙臺吹玉壺
 - 25) 신익황: 극재집(克齋集 海雲臺 蘭舟截海漫漫漫 更上仙臺興未闌
 - 26) 홍성민, <次左水營板上韻> 此區眞可小蓬萊 鰐背平蟠百尺臺/ 千秋鰐背有遺臺
 - 27) 최항: (崔恒). 태허정집(太虛亭集) 太虛亭詩集卷之一 <次海雲臺韻> 醉踏金鰐吟未已 紫簫聲徹海雲中
 - 28) 조태억: 겸재집(謙齋集) 謙齋集卷之十五 <海雲臺次黃莊武公韻> 海上高臺日夕風 仲春春栢滿山紅
 - 29) 서거정: 사가집(四佳集) 제45권 海雲臺行。<寄東萊嚴太守> 憶曾登眺海雲臺 臘月山茶滿樹開,
 - 30) 황준량: <次東萊海雲臺及東軒巖頭松老鶴梳風> 繡地山茶照海紅
 - 31) 주세붕: 무릉잡고(武陵雜稿) 卷之四 <登海雲臺> 萬栢凝粧何用妓 千松弄瑟解娛人
 - 32) 조위: 매계집(梅溪集) 梅溪先生文集卷之二 紅塵廿載久聞名。<東萊海雲臺> 一躡鰐峯眼忽青
 - 33) 신익황: <海雲臺> 鰐頭白日三山近。鶴背青天萬里寒

㉑ 바다 너머 있는 멀고 작은 존재

- 대마도 푸른 산은 외로운 갈매기 너머에, 부상의 붉은 해는 상서로운 구름 끝³⁴⁾
- 하늘 끝의 산 대마도가 보이고, 문 앞에는 무한의 바다가 있다.³⁵⁾
- 대마도는 눈썹같이 푸르게 보이는데, 크나큰 하늘땅이 가슴속에 들어오네.³⁶⁾
- 대마도 봉우리 색이 비취빛 눈썹 마냥 가로질렀다.³⁷⁾
- 부상에 해 뜨니 지척인 듯, 대마도는 구름에 묻혀 터럭만 하구나³⁸⁾
- 대마도를 굽어보니 가마득히 작은 덮개 같네.³⁹⁾

㉒ 왜구의 본거지로서 적개심의 대상

- 험한 저 산 거꾸러뜨려 바다를 메운다면 작은 오랑캐 섬 밟아놓고 오련마는⁴⁰⁾
- 바위 씻는 미친 파도 대마도를 삼킬 듯, 부상에 돋은 해는 간비오에 비친다.⁴¹⁾
- 龍氣時成雨。鵬濤半化雲。蠻洲拳碎足。遺恨李將軍⁴²⁾。

(마) 기타:

*풍경의 주변 소재로 기능함

① 구름, 무지개: 경이로운 경관을 자아내는 소재

- 옥색 공기와 짙은 놀에 길을 잃고 취하여 붓을 드니 채색 구름이 그 가운데 있네⁴³⁾
- 쌍무지개가 푸른 하늘을 끄네.⁴⁴⁾

② 달: 시심을 유발하는 소재

- 오늘 밤 달 밝으면 그 빛으로 돌아가련다.⁴⁵⁾
- 해운대의 밝은 달이 희고도 희다⁴⁶⁾
- 해운대 위의 달을 그윽히 생각하니 잔 잡아 감회 따라 시를 상기하네⁴⁷⁾

③ 바다(파도): 경관으로서의 파도, 마음을 씻어주는 소재

- 자는 물결 거울 같아 바람 한점 없고 부상에 지는 붉은 해를 앉아서 바라보면⁴⁸⁾
- 동해의 노한 파도 통채로 기울여서 내 평생 가슴의 돌덩어리 다 씻어내고⁴⁹⁾
- 구름 아직 어두운데 노하여 덮치는 파도 물결 자신이 놀란다.⁵⁰⁾
- 우뢰치고 땅이 파이는 듯 파도가 웅장하고
구름은 하늘 끝에 닿아 높은 산을 돌아오네⁵¹⁾

34) 강혼: <東萊驛還樓> 對馬青山孤雁外。扶桑紅日霽雲端。

35) 황준량: <海雲臺 次李相季雅> 天末有山看馬島。眼前無地俯滄溟

36) 권반: <海雲臺> 馬島如眉青一抹 乾坤納納胸中

37) 이현경: (艮翁集) 艮翁先生文集卷之五 馬州峯色翠眉橫

38) 성현: <海雲臺> 日出扶桑如尺咫。雲埋馬島少秋毫

39) 신정, <海雲臺> 平臨馬州山。汾厓遺稿) 卷二, 朝往海雲臺。望見對馬島。隱隱如小蓋。煙波極目

40) 김지남: 『東萊府誌』, 擬倒屣顏填海渤 彈丸夷島踏殘廻 (정경주 역, 『해운대』, 159쪽)

41) 이원진: 漱石狂濤吹對馬 扶桑瑞旭射飛鳥, ‘비오’는 해운대 장산 봉화대가 있는 ‘干飛鳥’를 말함.

42) 추재집(秋齋集) 秋齋集卷之四 漢陽趙秀三芝園著 詩 海雲臺 **조수삼 (趙秀三)**

43) 황준량: 금계집(錦溪集) 錦溪先生文集卷之四 外集, <次東萊海雲臺及東軒> 縹氣籠霞迷去路。醉來揮筆彩雲中

44) 김석주(金錫胄: 息庵先生遺稿卷之三 擬往海雲臺。雙虹掣碧空

45) 이병현, 遊海雲臺, 秋晚歸筇催不得 願乘今夜月明還

46) 구봉령(具鳳齡), 백담집(栢潭集) 栢潭先生文集卷之四 送李修撰如晦赴東萊任, 海雲明月白漫漫

47) 유계(俞棨), 시남집(市南集) 市南先生文集卷之五 寄東萊使君尹汝望, 遙想海雲臺上月。把杯應有憶吾詩

48) 권반: 波恬鏡面淨無風 左見扶桑日浴紅

49) 이안눌: 東岳先生集卷之八 萊山錄 <海雲臺次斗峯韻> 欲傾東海怒濤洶。洗我平生磊胸胸

50) 황준량: <海雲臺> 次李相季雅晴開白日雲猶暗。怒捲銀山浪自驚

51) 김복(金功): 栢巖先生文集卷之一 <郭彥慶誦海雲臺一詩>。雷奔地窟潮頭壯。雲拍天根巖面回

④오륙도: 경관을 구성하는 소재

-망망한 바다 앞에 오륙도가 있고, 뗏목 타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네.⁵²⁾

* 동래부지(1740년 편찬) 기록: 五六島 在絶影島東 峰巒奇古 列立海中 自東觀之 則爲六峰 自西觀之 則爲五峰 故名之以此 第三峰 有 唐 將萬世德碑

⑤ ‘해운대’ 석각: 인생의 짧음에 대비되는 자연의 일부로서의 석각

-구름은 가고 돌에 새긴 이름은 남아 완연히 평생을 보여주는 듯
세상 잊자는 뜻은 진실했지만 남긴 자취는 갈수록 분명하네.⁵³⁾

-천고토록 우리 사문 하나의 심인이 찍힌 자리

해운대 선인의 자취 가장 볼 만하리로다⁵⁴⁾

<현대시>

-튼튼한 바위 위에 새겨둔 글귀/ 해운대는 새까맣게/어둠이 깔았아 있고
반짝 반짝 옛일 떠올리는 /별빛을 애써 파도가 지워대네⁵⁵⁾

-바닷바람 비린 갯가/ 술발섬 거닐면서/ 동백꽃 꺾어안고

붉은 마음 달래더니/ 바위에 이름 석자 새겨/ 해운대라 불렀던가⁵⁶⁾

2) 풍경의 선계 관념화와 관련 소재

* 시적 관념화 방법(대상을 관념화하는 방법)

-의미와 정서의 환기

-통찰을 통한 서경과 서정의 폭과 깊이 더하기

-실제적 자연풍광의 상념적 세계화

* 관념화 하기의 실제

-보이는 풍경을 통해 보이지 않는 풍경 상상하기-주체화하기

-실재하는 풍경 속에 시인 자신을 내면화하기-주체화하기

* 전통 시대의 해운대 관념 사례

-또 동쪽에는 해운대(海雲臺)가 있으니 옛날 신선이 놀며 즐기던 곳이요, 북쪽에는 온천이 있으니 역대의 임금들이 온탕에서 목욕하던 곳이며, 기타 선경(仙境)으로 유명한 곳도 8·9개 지역이나 되는데, 지금 모두 없어지고 말았으니⁵⁷⁾

(1) 仙界의 주체화⁵⁸⁾

* 해운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선경으로 비유하여 묘사함으로써 해운대가 최고운과 관련하여 지니는 신선의 이미지 및 절경지로서의 아름다움을 드러냄

52) 조태억(趙泰億: 1675~1728), 겸재집(謙齋集) 謙齋集卷之十五, 茫茫五六峰前水。尙記乘槎過此中

53) 신오(1714-1786): <海雲臺> 雲去石留名 宛然如一生 果於忘世志 遺蹟去猶明

54) 이식: 택당선생 속집(澤堂先生續集) 제6권 <送別東萊黃使君屣詩>, 千古斯文一心印 海雲仙蹟最堪觀

55) 이병석: <최치원 선생 동상 앞에서>, 해운대문학 3집, 해운대문인회, 1999.

56) 동옥균: 해운대-고운 선생 생각하며, 해운대문학 3집, 해운대문인회, 1999.

57) 이첨(李詹), 동문선 제77권, 기(記), 동래성기(東萊城記)

58) 앞서 이연재는 고려조 제영시를 살피면서 선의 추구, 이상향의 동경, 無爲自然, 超世의 지향 등을 선계와 관련된다 하였다. 해운대 대상 한시에서도 이와 같은 류의 작품을 두루 찾을 수 있다.

①선경을 드러냄

-균천과 광약⁵⁹⁾이 봉래산에 올리더니 열두 누각 어연간에 화성으로 변한 듯
 멀리 북극 향해 자미성 쳐다보고 남두성 함께 끼고 푸른 바다 되었구나
 춤추는 소매, 노래하는 부채, 흐느끼는 인어, 철채로 곤현을 치니 바람마저 놀라구나
 대붕처럼 폭풍을 타고 만리 하늘 날아올라 동쪽 끝 해가 밝는 약목까지 가 보았으면⁶⁰⁾
 -취해서 금오(金鰲 삼신산)에 오르며 읊조림 그치지 않는데, 신선의 통소소리 바다속에
 울려 가네.⁶¹⁾

②신선을 노래함

-호탕한 바람 물결은 천만리, 흰구름 하늘가에서 해운대로 내려앉네.
 부상 새벽에 해는 붉고 선인이 학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겠네⁶²⁾
 -해운대라 아득히 멀어 신선이 내려오네⁶³⁾
 -천고토록 우리 사문 하나의 심인이 찍힌 자리 해운대 선인의 자취 가장 불만하리로
 다⁶⁴⁾

(2) 仙界의 주체화

현실적 처지와 풍광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그 풍경 속에 끌어 들임으로써 정서를 환기시
 킨다. 이 때 표출되는 정서로는 신비, 황홀감, 감회(해운대와 최고운의 자취를 찾은 것에 대
 한 기쁨), 君恩, 답답한 마음의 세탁, 유흥, 신명, 취흥, 호기, 世路·세파·세정의 비웃음 등이
 있다.

시인은 수많은 풍경과의 융합 과정을 거치면서 역사와 자연을 이해하고, 모방, 승화를 꿈
 꾀한다.

해운대는 신화로 숨쉬는 곳. 시인은 신화로 전승되고 해석되는 대상(해운대)을 통하여 새
 로운 신화세계를 꿈꾸며 그 가운데 기쁨 혹은 슬픈 향연을 펼친다.

①고운선생과의 조우를 기대하며 취함

-나는 때로 북두 견우의 사이를 배회하며 왼쪽 오른쪽으로 황학 백구를 불러대니
 해운의 신선은 내가 온 걸 기쁘게 여기어 선달의 추운 날에 경각화를 활짝 피우고
 고양의 진인은 옥설 같은 깨끗한 피부로 선공의 좋은 술을 황금잔에 부어 주는데
 나는 천고의 시름을 깨끗이 씻으려 하거니 고래처럼 마시는 걸 어찌 그만둘 수 있으랴⁶⁵⁾
 -가인들이 양춘곡을 다시 부르니 고운선생을 이곳에 다시 오게함인가.⁶⁶⁾

②고운선생을 닮아 신선이 되고자 함

59) 鈞天廣樂은 옥황상제가 있는 궁궐에서 연주하는 천상의 음악
 60) 유희인: 潘谿集卷之六 <登東萊海雲臺> 鈞天廣樂殷蓬瀛。十二樓臺認化城 / 遙向北辰瞻紫極。騰携南斗酌蒼溟 / 舞衫歌扇鮫人泣。鐵撥鷗絃鷗母驚。倘借扶搖鵬萬里 / 東窮若木日邊明
 61) 최항(崔恒): 태허정집(太虛亭集) 太虛亭詩集卷之一 次海雲臺韻
 62) 이춘원(李春元): 구원집(九畹集) 九畹先生集卷之一 次萊州雜詠, 浩蕩風濤千萬里。白雲天半沒孤臺。扶藜曉日車輪赤。常見仙人駕鶴來。 右沒雲臺,
 63) 김성일(金誠一): 학봉일고(鶴峯逸稿) 제2권, <즉석에서 정원루(靖遠樓)에 걸려 있는 조태허(曹太虛)의 시 운을 차운하여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치다.> 海雲臺迴降仙靈,
 64) 이식(李植): 澤堂先生續集 제6권 <동래(東萊) 황사군(黃使君) 호(尿)를 송별한 시> 千古斯文一心印 海雲仙蹟最堪觀,
 65) 서거정(徐居正): 사가집(四佳集) 제46권 해운대행(海雲臺行). 我時徘徊斗牛間 左招黃鶴右白鷗 海雲之仙喜我來 臘月頃刻花滿開 姑射真人玉雪膚 紫霞瓊液黃金壘 我欲滌蕩千古愁 鯨吞雷飲那復休
 66) 문경동(文敬全): 창계집(滄溪集) 滄溪先生文集卷之一 海雲臺 三首, 佳人更唱陽春曲。爲要孤雲下帝鄉

-안개 어린 달빛은 시 짓는 재료, 자리 가득 풍류는 지상의 신선⁶⁷⁾

③선계 속에서 깨달음을 얻음

-천고의 최고운은 물색을 구분했는데 그의 높은 자취 따르려해도 절뚝걸음 어이하리⁶⁸⁾

④선계를 즐김

-인간 세상 온갖 잡무 흥이 많지 않은데 미친 노래 부르며 취향에 누웠도다⁶⁹⁾

-부상의 일월은 짙은 가랑비에 묻히고 봉래섬은 자옥한 연기와 안개 사이에 있다
평생토록 상쾌한 느낌 오늘 같은 적 없어 마음 중의 모든 근심이 한 순간에 사라진다.⁷⁰⁾

⑤선계를 통한 세상 보기: 호기, 취흥, 균은, 世情

-멀리 유람하면 세상 좁은 줄 알거니와 눈을 높이 들수록 씩씩한 기상 더한다. 천년 세월 고운은 아름다운 자취 남겼으니 옛 생각에 봄 탁주로 취함도 무방하리.⁷¹⁾

-조잘대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어린애 울고 길게 줄 신 화장한 여인들 무수히 많네. 하늘에 기대어 크게 외치고 칼춤을 추는데 머리 돌려 언덕을 보니 개미집 만 하네⁷²⁾

-동해바다를 기울일 듯 파도가 세차게 일어 내 평생 가슴의 돌덩어리 다 씻어낸다.⁷³⁾

-악부의 노래 여운 지금도 들리는데 장대에 걸린 밝은 달도 임금의 은혜로다 잔을 던져 맹서하노니 파도는 가이없고 봄 동백 꽃 옆에 옥절(왕명으로 내린 장수의 신표)이 필력이다.⁷⁴⁾

-세상 풍파는 유별나게 모질어서, 氷炭처럼 용납을 못해 가슴 조이는 이 몇몇인가⁷⁵⁾

(3) 선계 관념화의 중심 소재

①이상세계(선계): 부상, 봉래 삼신산, 삼주 십도⁷⁶⁾, 五城⁷⁷⁾

②이상계 동식물: 청학, 황학, 遼鶴, 백구, 난새⁷⁸⁾

③이상계의 음악: 균천, 광악; 가야금⁷⁹⁾, 거문고⁸⁰⁾, 통소⁸¹⁾, 옥피리, 생황⁸²⁾, 곤현⁸³⁾

67) 유호인: <登東萊海雲臺> 方煙月吟中料。四座風流地上仙。

68) 강훈: 木溪先生逸稿卷之一 東萊驛還樓 千古儒仙分物色。欲追高步柰蹒跚,

69) 유호인: 上同, 人間簿領無多興。從使狂歌臥醉鄉

70) 최석항(崔錫恒): 損窩先生遺稿卷之四 <海雲臺口號>, 扶桑日月鴻濛裏 蓬島烟霞杳靄間 (중략) 平生快意今朝最 頓覺胸中百慮刪

71) 遠遊自覺寔區隘。壯氣多增眼界高 千載孤雲留勝跡。不妨懷古醉春醪。 성현(成倪): 虛白堂詩集卷之五 <海雲臺>

72) 김안국(金安國): 慕齋先生集卷之一 與李節度泓, 朴正郎臣, 朴進士衡。登海雲臺。嘈嘈歌管嬰孩瓜。百隊紅粧 渺蟻蝨。倚天大號提劍舞。回首青丘若蟻垤

73) 이안눌(李安訥): “동악집(東岳集), 海雲臺次斗峯韻 欲傾東海怒濤洶。洗我平生磊隗胸

74) 樂府遺音今尙闕。一竿明月亦君恩。

投杯欲誓波無際。春柏花邊玉節飜 (홍성민, <해운대취음>)

75) 世路風波特地洶 幾人氷炭戰心胸 (이안눌)

76) 김안국: <次海雲臺韻> 三洲十島知何處。都在遊人指顧中。 삼주십도가 어딘가 모두가 노는 사람 손가락 가리키는 곳에 있는 것을. 삼주는 삼도(봉래, 영주, 방장), 십주는 동방삭이 지은 해내십주기에 나오는 신선이 산다는 섬(조주, 영주, 현주, 염주, 장주, 원주, 유주, 생주, 봉린주, 취굴주)

77) 황준량: 誰言弱水隔蓬瀛 身馭冷風到五城, 오성은 곤륜산 위의 신선이 산다는 곳. 황제가 오성십이루를 지었다 하여 오성십이루라 함. 해운대 위의 경치를 비유한 것임(정경주, 56쪽)

78) 학을 타고 난새 물뿔 상계로 오르고: 鶴騎鸞驂超上界(이안눌: <海雲臺 次俞潘溪韻>), 조위: 구름이 트이니 난새와 학들은 삼신산에 깃들고, 하늘이 광활하니 곤계(鵷鷖)와 봉새는 큰 바다 위에 훨훨 난다.

79) 바다위 외로운 구름 하얀 옷인 듯, 선인이 가고 난 뒤 정녕 서글퍼, 바람결에 물결이 바위 씻으면 가야금 열두줄 그 소리 들리는 듯. 海上孤雲似白衣 仙人一去政依依 長風澎湃水灘石 如聽伽椰十二徽(윤환, 해운대)

80) 조위(曹偉): <東萊海雲臺> 應須鼓瑟感湘靈 북과 거문고 소리에 바다의 혼이 감응한다.

81) 천년의 선인이 놀던 곳을 내가 방문하니 구름 사이에 통소 소리 들리는 듯 千載仙遊吾欲訪。雲間髣髴聽簫聲 (김안국 <次海雲臺韻>), 세간의 흥진을 씻어내는 통소소리: 통소소리는 무위자연의 장자사상, 신선사상의 반영이다. 통소는 빈 대나무에서 무한의 소리를 내지만 그 소리는 다시 허공으로 돌아가 사라진다.

-선계의 음악소리, 선계의 존재물을 놀라게 하는 음악, 최치원을 상징하는 음악
㉔이상적인 음식: 단약(丹藥)⁸⁴, 금액(金液)⁸⁵

3. 현대시에서의 해운대 풍경과 시적 관념화

3.1. 해운대 개념의 확장과 시적 소재의 다양성

동백섬과 그 안의 해운대의 개념에서 해운대구의 개념으로 확대,

: 해운대, 동백섬 이외에 해수욕장, 와우산 달맞이고개, 청사포, 송정, 기장, 장산 등으로 영역적 개념의 확장 현상이 일어남

-달맞이고개가 석양을 내더니/ 꾸역꾸역 어둠을 먹더니/ 싹빨건 달 띄우네// 청사포 파도소리 끓이더니/ 물마루 받쳐들고/ 쪽빛 깊이 싹빨건 달 띄우네// 해수바람 여기 와우산을/ 장구 장단 돌아/ 해월정 뚜-땅-땅 싹빨건 달 띄우네(하략)⁸⁶

: 일반적으로 보는 해운대 8경: 五六歸帆, 春川躍魚, 牛山落照, 養雲瀑布, 海雲臺上, 萇旨流水, 烽火點火, 白沙青松, 이 중에서 현재까지 유지되는 경치는 五六歸帆, 牛山落照, 養雲瀑布, 海雲臺上, 白沙青松 정도. 본고의 연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五六歸帆, 海雲臺上, 白沙青松이다. 해운대 제영시의 경우, 海雲臺上에서의 바다 조망, 동백섬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 대부분임

: 현대문화로서의 해운대 소재: APEC, 불꽃놀이 요트, 윈드서핑 등

3.2. 이미지 중심으로 본 주제의 다양화

-해운대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해운대의 풍경과 그 풍경의 시적 관념화 분석, 이는 타지, 혹은 타인의 입장에서 일회적으로 바라보는 해운대와는 다른 이미지와 의미로 형상화된다.

-더욱이 근대 이전의 시인은 대개 선비, 사대부 관료들이 대부분이었음에 비하여 현대 해운대 시인은 그야말로 해운대 주민일 뿐, 신분적 권력이나 유교로 사유의 관념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일상의 사람들이다.

* 전통시대는 주민이 폄박 받았던 흔적이 많다. 이주자가 많아 주민이 줄어들어 생활터전으로서의 조건 상실.

(1) 역사, 전통 이미지의 계승

①일반적인 해운대 풍경의 이미지 처리

-맑은 날 해운대 바다는 / 청옥색으로 늘 부풀어 있다.⁸⁷

82) 문경동: 滄溪先生文集卷之二〇續集 <次俞潘溪海雲臺韻> 笙傳水府驚蛟夢。地近蓬萊喚海仙。

83) 유희인: 潘谿集卷之六 <登東萊海雲臺> 舞衫歌扇鮫人泣。鐵撥鷓鴣絃鷗母驚

84) 그 언제 영단(靈丹) 이루어져 긴 나래 달고 날아 볼까 (조위: 丹成何日插脩翎)

85) 금액을 못 이룬 채 머리엔 서리만 가득 옛 대에서 공연히 흰 구름만 바라보네. 金液未成霜滿鬢 高臺空望白雲鄉 (이안눌, 海雲臺 次俞潘溪韻)

86) 김광자, <달맞이 사랑>, 『박하향 설경(雪徑)』, 문학아카데미 시선 145. 2001.

-수평선 너머로 피고 지는 흰 구름 / 구름 따라 바람 따라 고운선생 갔어도 / 소나무 푸른 잎마다 일렁이는 천년 숨결⁸⁸⁾

②최고운의 회상

-고고한 뜻과 빼어난 경륜/ 절로 세상의 스승이 되고/ 귀신 얽맨 글기에/ 황소가 벌벌 떨었네// 고국 그리워 돌아왔으나/ 즈믄 해의 찬란한 문화를 등에 지고/ 서라벌은 줄곧 뒤숭숭한 곳으로만 /굴러 갈뿐,/ 온갖 것 다 벌고 난 빈 하늘엔/ 외로운 구름(孤雲) 홀로 떠돌았네// 가랑잎 배 띄워/ 이 섬에 오르니/ 외로움은 넘실 넓은 물결에 실려가고/ 즐거이 바닷구름(海雲) 등실 떠 놀았네// 든든한 바위 위에 새겨둔 글귀/ 해운대는 새까맣게 /어둠이 깔아 있고/ 반짝 반짝 옛일 떠올리는 / 별빛을 애써 파도가 지워대네⁸⁹⁾

-신라인 외길 마음/ 난세에도 못바꾸고/ 내던진 벼슬 대신/ 대지팡이 짚으면서/ 몸 하나 들 곳이 없어/ 구름처럼 떠돌았네.// 인적 드문 숲에 들면/ 나무 짙어 정자 매고/ 집도 짓고 꽃도 심어/ 책 베고 줄음 청하며/ 신선처럼 다니던 님// 바닷바람 비린 갯가/ 술맡섬 거닐면서 /동백꽃 꺾어안고/ 붉은 마음 달래더니/ 바위에 이름 석자 새겨/ 해운대라 불렀던가⁹⁰⁾

③최고운의 행적을 따라 선계를 추구함

-오-/바다여,/쉬지않고 너는 가야금 소리를 하는구나/ 먼-먼 가야금 소리를 하는구나// 바다여, /너와 나의 사이 하염없는/그림자가 아조 사라질 때까지⁹¹⁾

: 바다와 시적 자아의 일체를 회구하는 시. 가야금소리는 최고운을 상징하고 최고운이 자연과 일체되는 선계를 노래했음을 들추어 시적 자아도 그러한 세계를 추구함

-바다는 구름을 피웠다가/ 구름은 바다를 깨워내는 / 海雲臺 !⁹²⁾

: 바다와 구름의 불가피한 상관관계를 노래함. 전통 한시에서 하늘과 구름의 일치를 주로 노래했다면 이 시는 바다와 구름의 관계에 주목함. 물아, 주객의 일치를 주제화 함

(2) 전통적 소재의 현대화, 혹은 개인화

①개인적 삶의 반영

-어부 아비 바다된 혼불 그리며 / 다리미산 봉우리 올라 / 망부 찾는 울음들이 피울음 되어 / 동백 동백 동백꽃 / 망울져 있네⁹³⁾

: 이 시의 경우, 동백꽃의 붉음을 아름답게 노래한 전통성 대신에 피눈물나는 개인적 삶의 시련을 상징하는 핏빛으로 소재화하고 있다.

②전통성의 현대적 가치 부여

-푸른 기상과 패기를 뺏어내며 / 오류도를 응시하는 그 눈길 /향긋한 숨결에 / 피톤치드, 불포화탄화수소를 / 마구 쏟아내는 고마움을 마시리⁹⁴⁾

: 동백섬의 생태적 우수성을 전통 한시에서의 호기, 신명과 연결시키고자 노력한 작품이다.

③주변 소재의 중심화:

87) 조남순, 해운대 바다, 장산문학 9집, 해운대문인협회, 2003.

88) 주장식, 해운대 동백섬, 해운대 문예, 창간호, 해운대문인회, 1999.

89) 이병석, 최치원 선생 동상 앞에서, 해운대문학 3집, 해운대문인회, 1999.

90) 동옥균, 해운대-고운 선생 생각하며, 해운대문학 3집, 해운대문인회, 1999.

91) 구연식, 해운대에서, 해운대문학 3집, 해운대문인회, 1999.

92) 김광자, 海雲臺, 해운대문학 창간호, 해운대문인협회, 1997.겨울.

93) 김광자, 해운대 10경-동백섬-, -옛 다리미 섬(火斗, 蔚斗山), 해운대문학 7집, 해운대문학문인회, 2003.

94) 이길자., 동백섬, 장산문학 9집, 해운대문인협회, 2003.

㉠인어의 경우-

-동백섬 늘어진 허리를 붙들고 / 알몸되어 서 있는 황옥공주는 / 전생에 무슨 죄가 그리 많은지 / 밤새 검푸른 파도에 부대끼며 /차가운 바닷물을 뒤집어써야만 했을까95)

-<동백섬 인어-황옥공주 전설>

1. 처음 하늘 열리고 땅 굳을 적 해운대 「無窮」이라는 나라 있었네 하늘에서 상자 하나 내렸었는데 그 속에 황금알 들어 있었네 십여 일 지나 알속에서 무궁왕이 나왔는데 하늘 은혜 입었다고 은혜왕(恩惠王)이라 하였다네 그래서 왕비감 역시 하늘 향해 소원했네
2. 그때 멀리 「나란다」 나라에 첫 공주가 태어나 외가인 「水晶國」에 이름을 지어 와야 했네 물 속의 수정국 사람들 몸 아래에는 지느러미 다리여서 속옷깊이 오래도록 감추고 살았네
3. 아기공주 이름 받을 거북사신 보냈는데 그 거북 용왕의 병 고치려던 토끼 잡아 놓친 일 있어 수정국에 쫓겨난 거북(별주부)이었다네 수정국 대왕대비 아기 이름 ‘황옥공주’라 지어 거북에게 주어 돌아가게 했으나 거북은 그만 황옥공주 애모하게 되어 바다로 돌아갈 일 잊어버리고 지금도 동백섬 맴돌고 있다네
4. 황옥공주 무럭무럭 연꽃처럼 자라 부모의 꿈 그대로 은혜왕을 신랑으로 맞아 나란다국 인어공주, 황옥황비로 가례 올리고 화려한 궁궐에서 무궁토록 행복하니 그 궁궐 거북섬, 동백섬일세
5. 황옥공주 시집갈 때 외할머니 이른 귀엣말대로 왕비되어 첩첩이 감은 속치마 벗어 산신령께 바치니 서산녘 놀이 찬란하게 빛나더니 홀연히 바람기둥 휘말려가서 지느러미 사라지고 옥같은 발 나타났네96)

: 전통 한시에서 인어는 바다 속에 살고 있는 겁이 많고 수줍은 존재이며 신비한 세계를 표현하는 소재로 사용되었다.

-춤추고 노래하고 교인(인어)이 흐느끼고 철채로 곤현을 치니 바람마저 놀라네.97)

-생활소리 수궁에 닿으니 꿈꾸던 교인이 놀라네. 笙傳水府驚蛟夢. 육지 가까운 봉래에서 선인을 부르네.98)

-바다를 뚫듯 눈을 높이 드니 교인이 놀라고,99)

-외로운 섬 하늘, 물결이 넘실대고 인어가 만든 신기루 담백한 놀이 졌다.100)

김광자 시는 해운대 동백섬 해안가에 위치하는 인어 조각상을 소재로, 해운대에 전해오는 황옥공주(인어) 설화를 시화한 것이다. 지역 역사를 소재로 작품 활동한 결과물인데, 설화가 김수로왕의 허황후 이야기와 많이 닮았다.

(3) 해운대의 현대적 주제

㉠사랑의 이미지:

-백사장에 귀를 묻고 / 오래된 이름을 부르면 / ‘오-오’하며 달려오는 그 사람

95) 김무영, 동백섬에서, 해운대문학 17집, 해운대문인협회, 2009.
 96) 김광자, 동백섬 인어-황옥공주 전설, 해운대문학 8집, 해운대문학문인회, 2004.
 97) 舞衫歌扇鮫人泣。鐵撥鸚絃颯母驚。(유호인: 너계집(潘谿集) 登萊海雲臺)
 98) 地近蓬萊喚海仙。(문경동: 창계집(滄溪集) 次俞潘溪海雲臺韻)
 99) 穿海眼高鮫婦怯。懷仙曾鬱祝融堆。(김득: 백암집(柏巖集) 郭彦慶誦海雲臺一詩)
 100) 孤島浮天巨浪凌。蜃樓鮫織淡霞蒸。(이인상: 능호집(凌壺集) 海雲臺)

내 사랑 해운대.101)

: 현지 주민이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해운대의 이미지. 전통 한시에서 보여준 타지인으로 서 대면한 해운대의 경치와, 그 경치에 대한 사랑의 거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시.

-멋과 낭만을 심어주는 / 모나지 않는 동백섬에 앉아 / 시심으로 가득 차오르는/ 가난한 마음 몰고 오는 바람102)

: 한시에서도 채색빛 아름다운 동백섬 경관에 빠져 붓을 휘두른다는, 시심 유발, 작시 동기와 관련한 시103)가 있다.

㉠그리움, 이별의 이미지:

-고운 물결 소리없이 스쳐가는 그리움이 / 하얀 가슴을 적셔도 / 동백꽃 필 때마다 철썩이는 저 파도 소리여!104)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오건만/ 달빛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 하얀 이별만 출렁인다. / 격랑이 칼날같이 휘몰아치던/ 젊음의 뒀안길에는/ 진실만이/ 다시 찾아와 파아란 / 그리움의 물결로 일렁인다.105)

-망부석 바라보이는 산 들녘에 핀 / 한 묶음의 오색 꽃다발 / 청포도 빛 웃음 줄줄이 밀려오는 / 해운대 달빛 속에 일어서는 / 푸른 그리움 한 울 / 용서하라, 사랑하라, 참회하라106)

: 해운대가 주는 젊음과 낭만, 사랑과 이별, 그리고 그리움의 서정이 묘사된 시들. 전통 한시에서는 최고운으로 집약되는 그리움, 부귀를 버리고 물계를 벗어난 세계로의 귀향을 그리워한 것과 비교하면 대상이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파도와 달빛이 그리운 서정을 유발하는 소재로 활용됨은 현대의 모습이다. 전통 한시에서는 은은히 들려오는 통소소리는 선계의 표상이고, 고요한 듯 광포하는 파도는 호기와 기상, 웅혼함의 표상이었다.

㉡고향, 어머니의 이미지:

-까닭없이 내달리는 달을질 따라 / 동백꽃으로 붉게 피고 / 세월 내내 묶어 두었던 못 사연이 / 까치놀 되어 나부끼는/ 해운대 초저녁 바다/ 그 물마루 바라보며107)

-어머니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바다가 떠오르고 / 양버들 길게 선 먼저 나는 신작로와 유년의 꽃밭이 바다위에 떠 있습니다108)

-푸른 달빛을 / 명주 이불로 덮고 / 면사포 같은 파도를 / 자장가처럼 / 배고 자던 유년의 고향바다109)

-기억 속 / 층계 위를 오르면 / 어디선가 / 풀피리 소리 들린다 / 보이는 것으로부터 / 가려진 저 너머 / 세계를 보듯 / 내 손거울 안으로 / 새파랗게 부서져 내리는 / 유년의 뜨락110)

: 해운대는 낭만과 사랑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지역민에게는 삶이 고스란히 베어 있는 곳이

101) 김광자, 해운대, 해운대문학14집, 해운대문인협회, 2006.

102) 강문숙, 해운대에서, 해운대문학 13집, 해운대문인협회, 2005

103) 황준량(黃俊良) : 錦溪先生文集卷之四 外集 <次東萊海雲臺及東軒>

바위 위의 소나무는 늙어가고 학은 바람을 쓸고 있는데 아름다운 이곳에 동백꽃은 피어 바다를 붉게 비추네 옥색
공기와 짙은 놀에 길을 잃고 취하여 붓을 드니 채색 구름이 그 가운데 있네

巖頭松老鶴梳風。繡地山茶照海紅。縹氣籠霞迷去路。醉來揮筆彩雲中。

104) 김무영, 봄이 오는 바닷가, 해운대문학 창간호, 해운대문인협회, 1997.겨울.

105) 박석현, 여름바다, 해운대문학 16집, 해운대문인협회, 2008.

106) 강문숙, 해운대에서, 해운대문학 13집, 해운대문인협회, 2005

107) 김광자, 해운대 초저녁 바다, 해운대문학 창간호, 해운대문인협회, 1997.겨울.

108) 배교윤, 바다 위의 꽃밭, 해운대문학 8집, 해운대문학문인회, 2004.

109) 배교윤, 바다, 그대에게 북두칠성 환하게 빛나는, 해운대문학 8집, 해운대문학문인회, 2004.

110) 이문걸, 다시 바다에서, 해운대 문예, 2호, 해운대문인회, 2001.

기도 하다. 아버지의 아버지가 고기잡고, 어머니의 어머니가 그물 손질하고, 관리들의 등살에 녹아나는 삶을 살았던 곳. 그러나 현대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집중 부각시키지 않고 살며시 감추는 듯 드러낸다.

㊟육정적 육화 혹은 건강한 생명성

-사춘기 아들과 영화제 시상식 티브이 본다 / 달빛 터지는 동백공원 동백꽃길 클로즈업 된다. / 한 그루 동백나무 지나칠 때마다 / 팔짱걸이 여배우 월궁항아처럼 걸어 나온다 / 출렁 출렁한다.(중략) / 남우주연상 발표하는 속살 고운 저 여배우 / 이름만 대면 다 아는 / 특-하고 떨어질 것 같은 저 알젓¹¹¹⁾

: 동백섬의 동백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모습이 여배우의 모습과 클로즈업되었다.

-무섭도록 짙은 검푸른 바다와 하늘 / 한 몸 되어 애욕의 몸짓으로 요동치며 / 흰 거품 물고 미소 짓네¹¹²⁾

-농밀한 색정으로 / 명멸하는 불빛들이 / 과도의 / 억센 근육질을 / 연신 풀어놓는다. / 열기 찬 줄다리기 / 별자리가 기울어 / 심해 자궁으로 / 가라앉는 밤의 체액¹¹³⁾

-남색 치맛다락 사이로/ 살짝살짝 드러나는 하이얀 속치마 / 그 춤사위 한 번/참 곱기도 하구나// 질푸른 하늘 아래/ 한없이 너울대는 현란한 자태// 추저없이 건네는 환호에/ 넘실 넘실 화답을 하고// 더욱 화려한 여흥으로 /발길을 잡는 널/ 정말/사랑하지 않을 수 없구나¹¹⁴⁾

: 하늘과 바다의 일체감으로 검푸른 색깔이 빛나고 애욕의 결정체로 파도가 흰 포말 일으키며 밀려오는 모습을 여인의 사랑스런 모습으로 형상화.

4. 맺음말

1. 해운대 이미지

<대표성>

1. 움직임과 고요함 / 유무와 허실 / 정지와 순환

-자연미의 발견인 동시에 추구해야 할 동경의 세계를 관념화함

2. 歸根: 天命의 본성을 깨닫고 배우기

-살다 죽기, 피다 시들기, 왔다 가기, 떠났다 돌아오기, 가득찼다 비우기

-명예와 권력을 구하다 귀근을 잊고 만다. 해운대는 그러한 천명을 깨닫게 해주는 곳

<전통성>

1. 선계는 詩鄉인 동시에 돌아가야 할 고향, 이것이 중세사회의 관념적 詩作 문법

2. 역사의 현장 회고, 物界에서 物外를 동경함

3 자연의 응혼함, 순수 허정함을 배우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봄,

4. 호연 기개를 펼치고 무애(無碍)의 기상을 배움

111) 이원도, 백동백, 해운대문학 15집, 해운대문인협회, 2007.

112) 이길자, 해운대 여름바다, 장산문학 9집, 해운대문인협회, 2003.

113) 정해송, 해운대, 장산문학 9집, 해운대문인협회, 2003.

114) 최미화, 파도, 해운대문학 16집, 해운대문인협회, 2008.

5. 절경 감상에서 오는 신명과 취흥

<현대성>

6. 거주민이 가지는 향토 사랑과 고달픈 개인적 삶의 여정이 묻어있는 곳
7. 시심을 자아내고, 無私, 無邪의 세계로 인도하는 곳
8. 멋과 낭만, 젊음과 육정적 사랑이 생명처럼 어우러지는 곳
9. 추억을 생각하고 사랑이 그리움이 자라는 곳

2. 남은 과제

13세기말-21세기에 걸친 해운대 소재 시의 주제적 흐름을 더욱 정치하게 살필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작가의 작시 동기(배경)와 시대를 자세히 고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대시 중에서 분석 대상의 시를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지인이 해운대를 대상으로 작시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진으로 보는) 해운대 백년사』, 199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리고장 해운대』, 1996.
李演載, 『고려시와 신선사상의 이해』(아세아문화사, 1989)
정경주, 『해운대 천년의서정: 海雲臺를 찾은 先人들의 詩文選集』, 1994.
정경주, 『해운대』, 경성대학교출판부, 1998.
편찬위원회, 『東萊와 海雲臺』, 1980.
해운대구 편찬 위원회, 『海雲臺鄉土誌』, 1989.
해운대구, 『(海雲臺의 옛모습이 담긴)東下面古文書: 譯注 影印』, 1994.
해운대문인협회, 『해운대 문학』, 창간호-17집(1997-2009)

해운대의 풍경과 시적 관념화의 통시적 접근

홍순일(목포대)

발표자 권오경 님은 해운대의 풍경을 통시적인 접근에서 관련 시(한시(題詠集景詩)와 현대 시)의 소재 전통(stoff tradition) 중심을 살피되, 지리, 전통문화 등 통합의 선계(仙界)의 시적 관념화 즉 주제화 내지 주체화에 초점을 두는 동시에 개념의 확장과 소재의 다양성 등 현사회에서 이미지의 위상을 살폈다.

그 결과 발표자는 해운대에서 첫째 움직임과 고요함 / 유무와 허실 / 정지와 순환, 歸根: 天命의 본성을 깨닫고 배우기 등의 대표성, 둘째 선계는 詩鄉인 동시에 돌아가야 할 고향, 이것이 중세사회의 관념적 詩作 문법, 역사의 현장 회고, 物界에서 物外를 동경함, 자연의 응혼함, 순수 허정함을 배우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봄, 호연 기개를 펼치고 무애(無碍)의 기상을 배움, 절경 감상에서 오는 신명과 취흥 등의 현대성, 그리고 셋째 거주민이 가지는 향토 사랑과 고달픈 개인적 삶의 여정이 묻어있는 곳, 시심을 자아내고, 無私, 無邪의 세계로 인도하는 곳, 멋과 낭만, 젊음과 육정적 사랑이 생명처럼 어우러지는 곳, 추억을 생각하고 사랑이 그리움이 자라는 곳 등의 전통성이라는 세 가지 이미지를 추출했다.

덧붙여 13세기말-21세기에 걸친 해운대 소재 시의 주제적 흐름을 더욱 정치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작가의 작시 동기(배경)와 시대를 자세히 고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현대시 중에서 분석 대상의 시를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외지인이 해운대를 대상으로 작시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논지에 동의하는 토론자는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의문점만 제기하여 토론거기로 삼기로 하겠다.

1. 해운대의 갈래적 내포·외연에 대하여

발표자는 [1장 연구의 목적과 방향 3절 연구 의의]에서 “* 해운대를 소재로 쓰여진 시는 해운대의 역사임, 왜냐하면 해운대 풍광과 역사, 문학 창작의 배경지식과 이념의 융합 속에서 새로운 해운대 이미지가 탄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질문) ‘시는 역사’라는 명제가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역사는 문학이 언어로 이루어진 예술이며, 예술이 형상과 인식의 복합체라 해도 좋다(조동일 1989 제2판:15)는 말보다는 비문학적인 일정한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사가 선택하는 문학의 갈래는 시보다는 서사이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역사는 문학이 형상이라는 점에서 일상생활에 쓰는 실용적인 말과 구별되고, 인식이라는 점에서는 단순한 말장난과도 구별된다(조동일 1989 제2판:16)는 사실을 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2. 표현·변형면에서 인식과 표현의 모순에 대하여

발표자는 [2장 한시에서의 해운대의 풍경과 시적 관념화]에서 “대상을 마주할 때 실물로서의 대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사실은 개인마다 느끼는 감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물로서의 대상은 주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했다.

인식은 사회적 성격을 가지는 표현과는 달리, 개인의 두뇌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사적인 성격을 가진다(홍순일 2009.12:286).

(질문)이러한 표현·변형면에서 인식과 표현의 모순은 역사적인 지역문화로서 해운대가 풍경으로 특성화되고, 사회적인 문화권역으로서 해운대가 시적 관념화로 전개되는 면을 살필 때(홍순일 2009.12:287)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사적인 인식의 성격이 해운대의 풍경을 시적 관념화하여 표현할 통시적 접근의 손실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공시적 접근의 이익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덧붙여 영화 <해운대>에 나타난 인식은 시나리오작가의 사적 성격의 강화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를 이와 관련지어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3. 해역사관에 따른 해운대의 이미지 추출에 대하여

발표자는 이 논문(특히 4장 결론에서 요약되어 있음)에서 해운대에 나타난 대표성, 현대성, 전통성 등의 이미지를 추출했다.

(질문)여기에서 해운대의 이미지를 해역사관에 따라 추출하되, 육지문화와 해양문화 등의 정도를 고려하여 성격화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이다.

해역/지역문화가 지니는 한국적 개별성과 세계적 일반성에 주목하여, 역사적으로 지역문화가 특성화되고, 사회적으로 문화권역이 전개되는 면을 살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홍순일 2009.12:287).

가령, 해양도서[섬]·연안문화와 강·들[평야]·산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민속>과 관련된, 지역민의 생명성을 기본으로 한 문화적 생태성(생명의 생태문화), 지역민의 적응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자연성(적응의 자연문화), 지역민의 다양성을 토대로 한 문화적 개방성(다양의 개방문화), 지역민의 의식성을 기초로 한 문화적 진취성(의식의 진취문화)을 성격화시키는 것이다.

4. 또 다른 논의의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이 논문은 동남어문학회·한말연구학회 2010-7월 공동학술대회 『제3부 제1분과: 지방 연구자의 정체성과 연구방법』, 『전체: 21세기 언어와 문학의 방향성 -지역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로 기획되었다.

(질문) 그렇다면 이러한 방향의 내용은 단선뿐인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하나의 내용도 고려할 수 있는 복선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문학도 디자인에 따라 예술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삶의 의문은 곧 언어와 문학의 내용이고, 여기서 예술로 디자인될 때 21세기 언어와 문학의 방향

은 정해질 수 있다. 즉 새롭게 기능이 환기되고, 의미가 부여된다. 21세기 언어와 문학의 방향은 지역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이러한 지방 연구자의 정체성과 연구방법을 재고하는 데에서 그 내용이 찾아져야 한다.

따라서 해운대의 풍경과 시적 관념화의 통시적 접근을 통해 부산지역의 문학 현장과 계승 현황을 검토하는 일은 21세기의 시대정신인 ‘창의와 혁신’을 미래사회의 언어와 문학의 이념으로 전망하고, 인정해 나가는 것이므로, 지역의 토대 위에 문학의 기초와 그 예술의 외연을 확장하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구비 군왕설화의 유형적 특징과 인식양상 연구

-개국시조형을 중심으로

박기현(동아대)

차 례

1. 머리말
 2. 구비 군왕설화의 전승양상과 유형적 특징
 - 2.1. 군왕의 탄생
 - 2.2. 군왕의 창업과정
 - 2.3. 군왕의 좌절과 죽음
 3. 구비 군왕설화의 인식양상과 의미
 4. 맺음말
- 참고문헌

1. 머리말

한 편의 설화 속에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전승자들의 사고와 인식이 담겨 있으며, 이는 그들이 처한 현실과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을 다른 설화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한 편의 인물 설화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것은 설화 전승자들이 가진 사고와 인식의 역동성을 찾아내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설화의 대상이 되는 인물 중에서도 군왕(群王)은 일반적인 인물설화의 주인공들과 달리 최상층의 신분을 가진 절대적 지배자이며, 그 지위 자체가 상징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인물이 갖는 영향력과 설화의 전승범위 또한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만 그치지 않고,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전승자들이 설화 속 인물에 대해 가지는 거리나 인식, 설화가 담고 있는 의미 등에서 일반적인 인물설화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군왕에 대한 설화는 매우 다양한데, 전승 수단에 따라서는 구비와 문헌 군왕설화로 나눌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군왕의 성격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분류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전승되며, 잘 알려진 설화는 국가를 창업한 시조를 대상으로 하는 설화들일 것이다. 창업시조에 대한 설화 중 대표적인 것은 『삼국유사(三國遺事)』 등의 문헌에 전하는 건국신화(建國神話)이다. 신화시대에는 군왕이 질서를 수립한 하나의 천체, 또는 영웅의 혈통을 이어 받은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군왕은 단순한 인간이 아닌 신의 성질을 분유(分有)한 자¹⁾이며,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였기 때문에 건국신화 속에 나타나는 군왕은 천상의 힘을

위임받은 자로서 지상의 생활을 지배하기에 충분한 정당성과 능력을 가진 존재로 그려졌다. 그러나 문헌에 전하는 건국신화가 아닌 구비설화 속에 나타나는 군왕의 모습은 또 다르다. 신화적 흔적을 유지하고 있는 이야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구비설화 속 군왕은 일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군왕이 주변 인물들과 맺는 관계나 그들이 군왕을 대하는 태도 역시 매우 현실적이다. 군왕도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러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좌절과 죽음을 맞기도 한다. 구비설화 속에서 군왕이 보여주는 현실적 한계는 구비설화의 전승집단이 군왕을 신화적이며, 초월적 존재가 아닌 하나의 역사적 인간으로 인식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가를 창업한 시조를 다룬 설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대부분 건국신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에서는 군왕을 역사적 인간이 아닌 신화적 존재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건국주(建國主)의 초월적이고, 영웅적인 면모에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는 신화의 전승체계나 계통을 탐색하고, 제의와의 관련성을 살피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관심을 확장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²⁾ 그러나 건국신화에 대한 논의가 이처럼 활발한 데 비해 창업 시조를 대상으로 한 구비 군왕설화의 연구는 아직 미미한 편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부분 구비 군왕설화가 가지는 여러 성격 중 신화적 일면에 관심을 기울여 신화와의 유사성을 찾는 데 관심을 두거나, 특정 군왕이나 지역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왔다.³⁾ 물론 이들은 모두 중요한 성과이며, 개별적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만으로는 구비 군왕설화의 전체적인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기는 힘들며, 특정 연구 목적에만 한정된 결과라는 한계를 갖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문헌으로 전승되는 건국신화와 차별성을 드러내고, 구비 군왕설화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에 따라 구비 군왕설화 중 개국시조형⁴⁾ 설화의 전체적인 전승양상과 유형적 특징을 살피고 그 속에 내재된 전승집단의 인식양상과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구비 군왕설화의 유형적 개별성을 밝히고, 그 의의를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구비설화 자료는 『한국구비문학대계』⁵⁾에 수록된 61편의 설화이다.

1)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2』, 동아출판사, 1996, 545쪽 참조.

2) 대표적인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열규, 『한국의 신화』, 일조각, 1976 ; 나경수, 『한국의 신화 연구』, 교문사, 1993 ; 이지영, 「한국신화의 신격 유래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4 ; 조현설, 「건국신화의 형성과 재편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1998. ; 이지영, 『한국신화의 신격 유래에 관한 연구』, 1995 ;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 윤혜신, 「한국신화의 입사의례적 탄생담 연구」, 연세대 대학원, 2002 ; 한미옥, 「백제건국신화의 계통과 전승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2003 ; 오세정, 「한국 신화의 제의적 서사 규약과 소통 원리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2003 ; 이선행,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역철학적 해석」, 충남대 박사논문, 2009.

3) 유영대, 「설화와 역사인식-이성계 전승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1981 ; 박현국, 「건원설화고」, 『중앙민속학』 3, 중앙대 한국민속학연구소, 1991 ; 정상진, 「건원설화 재고」, 『도남학보』 15, 도남학회, 1996 ; 이태문, 「이성계 전설의 인물인식과 특징」, 『구비문학연구』 4집, 한국구비문학회, 1997 ; 라인정, 「건원설화의 구비전승상의 변이와 특성」,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학회, 2000 ; 유경환, 「왕건 신화의 원형적 상징성-영웅 출현 원리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62, 한국국어교육학회, 2001 ; 김태희, 「이물감응 탄생설화 연구 : 역사인물의 탄생담과 행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 이영수, 「‘궁예설화’의 전승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민속학』 43집, 2006 ; 송명신, 「이성계 설화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 오세정, 「전설의 서술방식과 역사적 상상력」,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3,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4) 본고에서는 국가를 창업한 시조를 대상으로 하는 군왕설화 중 문헌에 전승되는 건국신화와 대비되는 구비설화를 ‘개국시조형 구비 군왕설화’로 칭한다. 개국시조형은 나라를 건국한 시조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건국시조형(建國始祖形)’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건국신화라는 명칭과의 차별성 및 유형적 개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개국시조형(開國始祖形)’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2. 구비 군왕설화의 전승양상과 유형적 특징

개국시조형 구비 군왕설화는 궁예와 견훤, 왕건, 이성계 등 실제로 국가를 창업한 인물들에 대한 설화이다. 이들은 개국시조의 탄생이나 신이한 행적 또는 영웅적 활약상을 다루고 있고, 영웅의 일생⁶⁾이라는 전통적 구조에 부합하는 설화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고대 건국신화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반대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실제 설화를 살펴보면 각 단계에서 보여주는 군왕의 신성성이나 초월적 면모는 상당히 축소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영웅 일대기 구조 역시 유형의 흔적만을 유지할 뿐 실제 설화 속에 드러나는 군왕의 형상은 신화적 영웅이 아닌 현실적이고 역사적 인물에 가깝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각 군왕이 창업을 이룬 역사적 시간대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개국시조형 구비 군왕설화는 다시 시조의 탄생과 관련된 설화와 창업 과정에 대한 설화, 좌절과 죽음에 대한 설화로 나눌 수 있다.

2.1. 군왕의 탄생

고대 건국신화의 주인공들은 국가를 창건한 시조로서 그 신성성을 인정받는 인물들이다. 따라서 신화에서는 혈통적 신성성과 탄생의 신이한 징조, 거룩한 업적을 내세운다. 그러나 구비 군왕설화 속 군왕들은 실제 창업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영웅적 위업을 달성하기는 하지만 건국신화의 주인공과 같은 초월적 존재는 아니다. 개국시조형 가운데 군왕의 탄생을 다루는 이야기는 모두 15편⁷⁾으로 탄생 과정에 신성성의 표지가 드러나더라도 건국신화에 비해 축소되거나 한계를 가지고 나타나며, 왕족으로서의 현실적 혈통 등을 강조하기도 한다.

1. 어느 한 가정에 과부가 있어 날마다 길쌈을 했다.
2. 밤마다 어딘가에서 용모가 뛰어난 선비가 찾아왔다.
3. 과부가 선비의 정체를 물었으나 선비는 대답이 없었다.
4. 세월이 흘러 여자가 선비의 아이를 낳자 마을에 소문이 났다.
5. 과부는 선비의 종적을 알기 위해 길쌈하던 실꾸러미를 선비의 옷에 달았다.
6. 다음날 아침 가보니 실이 장독대로 들어가 있었다.
7. 과부가 장독대 뒤의 땅을 파보니 큰 지렁이가 나왔다.
8. 과부가 낳은 아이는 지렁이의 소생으로 후백제의 시조가 되었다.

<견훤은 지렁이 소생>⁸⁾

5) 조동일 외,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8~1989.

6) 조동일, 『민중영웅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12~24쪽.

7) 서대석, 한국구비문학대계 1-2, <이성계 이야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182~185쪽.

- 이하 '대계'로 표기.

대계 1-7, <왕건 이야기(1)>, 919~921쪽; 대계 1-7, <왕건 이야기(2)>, 921~925쪽; 대계 1-7, <궁예 이야기>, 925~928쪽; 대계 2-4, <이성계 선대의 묘 자리>, 693~698쪽; 대계 5-1, <견훤이는 천상에서 귀양온 지네 아들>, 145~149쪽; 대계 5-4, <견훤은 지렁이 소생>, 693~695쪽; 대계 5-6, <견훤의 탄생>, 657~667쪽; 대계 6-2, <견훤과 지렁이>, 755~756쪽; 대계 6-11, <왕건이 용왕의 외손자로 태어난 내력>, 107~108쪽; 대계 7-15, <태조 왕건의 탄생 유래>, 513~515쪽; 대계 7-3, <이성계의 출생 때문에 살아난 사람>, 705~708쪽; 대계 7-8, <견훤 전설>, 984~991쪽; 대계 7-8, <지렁이의 아들 견훤>, 926~927쪽; 대계 7-9, <지렁이 자손 견훤>, 843~844쪽; <견훤의 후백제 건국>, 『도시전승 설화자료집성』 3권, 민속원, 2009, 115~117쪽.

위의 설화는 후백제를 개국한 견훤의 탄생과 그 혈통에 대한 이야기로 일종의 이물교혼(異物交婚)담이며, 일명 야래자(夜來者)설화에 속하는 이야기이다. 설화에는 신화적 성격과 설화적 성격, 역사적 성격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는데, 특히 혈통적 신성성이 상당부분 축소되어 있어서 고대 건국신화 속 주인공들과 차별성을 보여준다.

설화 속 탄생의 과정에서 지렁이는 출생을 통해 견훤에게 혈통적 비범성을 부여하는 존재이며, 과부는 선비로 변한 지렁이를 받아들여 견훤을 낳는 인간적 존재이다. 그러나 과부는 결과적으로 실꾸러미를 지렁이에게 달아 정체를 폭로하는 적대적 존재이기도 하다. 위의 설화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견훤의 탄생담에서는 군왕을 탄생시키는 주체의 지위와 능력이 약화되며, 한계를 지닌다는 점이 특징이다.⁹⁾ 견훤의 탄생에 대해서는 <삼국사기>¹⁰⁾나 <삼국유사>¹¹⁾에도 위와 유사한 이야기가 전한다. 그러나 구비설화에서는 부계뿐만이 아닌 모계에서도 이러한 지위 약화가 나타난다. 위의 설화에서 모계는 홀로 사는 ‘과부’이며, 그 탄생도 사람들 사이에 좋지 못한 소문으로 퍼지게 된다. 이는 군왕의 탄생이 신성함이 아닌 비일상적이고 부정한 것으로 격하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렁이와 합방하여 견훤을 낳은 과부가 설화의 결말에서는 반대로 지렁이를 파국으로 이끌어 간다. 시조를 탄생시킨 근원이자 부계(父系)가 탄생담의 결말에서 모계(母系)나 인간에게 죽음을 맞는 이러한 구조는 건국신화의 주인공과 달리 신성성이 제거된 구비 군왕설화 속 개국시조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고려를 개국한 왕건의 탄생과 관련된 설화이다.

1. 왕건의 아버지가 총각 때 산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2. 밥을 하기 위해 샘에서 물을 길다가 잉어를 잡아와 물동이에 넣어두었다.
3. 그날부터 날마다 누군가가 몰래 집안일을 해주었다.
4. 이상하게 여긴 왕건의 아버지가 몰래 엿보니 물동이에서 처녀가 나와 밥을 하고 있었다.
5. 처녀를 뒤에서 안으니 자신은 용왕의 딸이라고 했다.
6. 처녀는 용왕의 명을 받아 왕을 낳기 위해 나왔다고 했다.
7. 그 길로 잉태를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왕건이었다.
8. 왕건을 낳고 난 뒤 처녀는 사라지고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왕건이 용왕의 외손자로 태어난 내력>¹²⁾

『고려사(高麗史)』¹³⁾에는 김관의(金寬毅)의 <편년통록(編年通錄)>에 전한다는 태조 왕건의 3대조와 선대 6조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 존재한다. 그러나 구비설화에는 왕건의 선대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이 없고, 직접적인 부모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8) 대계 5-4, <견훤은 지렁이 소생>, 693~695쪽.

9) 견훤의 탄생담에서 야래자(夜來者)의 정체가 처음부터 ‘지렁이’가 아니었으리라는 추측이 있다. 처음에는 ‘용’이나 다른 존재였으나 후대에 와서 견훤을 폄하하기 위하여 또는 실패로 인해 견훤에 대한 기대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렁이’와 같은 존재로 격하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노성환, 「후백제 견훤설화에 대한 회의」, 『비교민속학보』 3집, 비교민속학회, 1985, 18쪽. ; 정병현, 「백제 용신설화의 성격과 전개양상」, 『구비문학연구』 제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1994, 212쪽).

10) 『三國史記』 列傳 甄萱 條.

11) 『三國遺事』 後百濟 甄萱 條.

12) 대계 6-11, <왕건이 용왕의 외손자로 태어난 내력>, 107~108쪽.

13) 『高麗史』 高麗世系.

위의 설화는 견훤의 탄생담과 달리 처음부터 신성한 존재인 용왕에 의해 모든 일이 의도된다. ‘잉어’로 나타나는 모계의 출신에서는 ‘용왕의 딸’이라는 신성한 혈통적 배경이 강조되며, 이후 벌어지는 혼인과 출산도 특별한 문제없이 순탄하게 이루어진다. 고대 건국신화의 주인공이 혈통을 배경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듯이 왕건 역시 용왕의 외손자라는 혈통적 신성성이 설화를 통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설화 내용을 보면 용왕의 딸이 왕건의 아버지를 만나는 과정은 잘 알려진 <우렁각시> 이야기와 동일한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신화적이라기보다 전설적이고 민담적인 세계에 가깝다. 또 혈통의 신성성은 부계와 모계 양쪽으로부터가 아닌 모계를 통해서만 일방적으로 부각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그리고 신성한 모계의 역할이 왕건의 출산 자체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출산 이후 간 곳을 모르게 사라지는 식으로 정리된다는 점도 고대 건국신화에 비해 단순화되고, 약화된 신화적 인식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왕건의 탄생담이 앞에서 살펴본 견훤의 탄생담과 달리 대상의 신화적 신성성을 확립하려는 의도를 일정부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각 인물의 역할을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왕건의 아버지는 용왕의 딸이 요구하는 대로 수동적으로만 대응하는 지극히 단순화된 존재로 나타난다. 설화는 시작부터 결말까지 신성한 존재인 용왕과 딸의 역할을 강조하며 그들의 의도와 요구에 의한 일정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은 궁예의 탄생과 관련된 설화이다.

1. 신라에 동생인 설화공주와 언니인 선화공주 자매가 있었다.
2. 설화공주의 아들인 궁예가 세자가 되자 선화공주가 궁예를 죽이려 했다.
3. 유모는 딸에게 남복을 입혀 내어준 뒤 궁예를 업고 도망쳤다.
4. 유모를 쫓던 병사들이 쏜 활이 궁예의 눈에 맞아 외눈이 되었다.

- 이후 생략 -

<궁예 이야기>14)

궁예의 탄생담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혈통적 배경과 적대자의 성격이다. 앞서 살펴본 다른 탄생담들과 달리 궁예는 어머니의 신분이 왕족인 공주일 뿐 비밀상적이거나 초월적 존재가 아닌 지극히 현실적인 존재이다. 또한 등장하는 적대자 역시 세자가 된 궁예가 신라의 왕위를 잇지 못하게 하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보니 문제 해결 역시 고대 건국신화와 달리 유모의 딸에게 남복을 입혀 도망시키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다. 또 서사 전개 과정에서 군왕에 대한 적대자의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건국신화에서는 적대자가 아예 등장하지 않거나 등장하더라도 군왕의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탄생담의 대상은 국가를 건국한 신성한 개국시조이고, 탄생담의 존재 목적이자 중심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설화에서 대상인 군왕은 적대자가 보낸 병사들의 활에 의해 한쪽 눈을 잃는다. 이는 구비 군왕설화를 전승하는 집단의 인식이 건국신화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는 또 초월적인 신성성이나 혈통적 배경이 아닌 자신의 능력만으로 헤쳐가야 할 구비 군왕설화 속 시조인 궁예의 창업과정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14) 대계 1-7, <궁예 이야기>, 925~926쪽.

2.2. 군왕의 창업 과정

개국에 이르기까지 군왕이 겪는 여러 사건들은 군왕의 탄생과 더불어 개국시조형 구비 군왕설화의 핵심적 내용을 이룬다. 구비 군왕설화에서는 고대 건국신화나 문헌 군왕설화와 달리 창업 과정에서 군왕이 겪는 사건의 종류와 편폭이 매우 다양하며, 묘사 역시 상세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개국시조형 중 탄생 후 창업 과정을 다룬 설화는 모두 42편¹⁵⁾으로 창업과정에서 군왕이 보여주는 모습은 신화적 영웅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장수전설의 주인공과 유사한 면모로 나타난다. 창업은 초월적 능력이 아닌 현실적인 능력과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위업을 이루는 과정에서 군왕의 영웅적 면모를 부각시키기보다 한계를 강조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때로는 군왕이 아기장수와 같은 민중적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며, 반대로 민중적 영웅과 적대 관계가 되어 대결을 벌이기도 한다. 창업 과정에서 군왕의 비범성을 직접 드러내기보다 주변 인물과 관련된 삽화나 흥미 위주의 부차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구비 군왕설화의 특징이다.

여기서는 창업 과정을 다룬 설화 중 대표적인 예로 왕건과 이성계의 설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1. 왕건이 일곱 살 때 한 도승이 찾아와 시주를 부탁했다.
2. 도승은 이상하게도 목탁을 꼭 여덟 번씩 쳤다.
3. 날이 저물자 왕건의 아버지는 도승을 집에서 쉬어 가도록 했다.
4. 도승이 집터를 보더니 한 자국만 내려쓰면 자제가 크게 된다고 했다.
5. 도승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왕건이라 짓도록 했다.
6. 왕건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등 재주가 뛰어났다.
7. 십 년 후 도승이 찾아와 왕건을 데려가려 하였으나 나이가 어려 칠년을 더 기다리기로 했다.
8. 그 도승은 서산대사로 왕건이 열일곱 되는 해에 다시 찾아왔다.
9. 대사는 삼 년을 가르치기로 하고, 왕건을 데려갔다.
10. 삼 년간 무예를 가르친 대사는 왕건에게 지도를 주며 삼국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왕건 이야기(2)〉¹⁶⁾

15) 대계 1-2, <이성계와 통두란>, 528~530쪽 ; 대계 1-3, <주원장과 이성계 이야기>, 311~314쪽 ; 대계 1-4, <이성계의 회군>, 899~901쪽 ; 대계 1-4, <이성계 사적>, 901~904쪽 ; 대계 1-6, <이성계 일화>, 673~678쪽 ; 대계 1-7, <왕건 이야기(2)>, 921~925쪽 ; 대계 1-7, <궁예 이야기>, 925~928쪽 ; 대계 1-7, <왕건 이야기(3)>, 928~931쪽 ; 대계 1-7, <왕건 이야기(4)>, 931~933쪽 ; 대계 1-7, <이성계와 통지란>, 909~911쪽 ; 대계 1-7, <이태조 등극>, 911~912쪽 ; 대계 1-8, <이성계의 등극>, 179~191쪽 ; 대계 1-8, <이성계 일화>, 382~386쪽 ; 대계 2-2, <이성계와 주원장>, 669~673쪽 ; 대계 2-3, <무학대사와 이성계의 개국>, 75~81쪽 ; 대계 2-7, <정감록과 이성계>, 163~167쪽 ; 대계 2-7, <이성계와 말무덤>, 176~177쪽 ; 대계 2-7, <이성계와 통두란>, 168~169쪽 ; 대계 2-8, <이성계와 주재명>, 742~743쪽 ; 대계 3-2, <산신이 도와준 이성계의 목숨>, 495~499쪽 ; 대계 3-4, <지리산을 귀양 보낸 이성계>, 399~402쪽 ; 대계 4-4, <이성계의 해몽>, 592~595쪽 ; 대계 4-5, <이성계의 산신제 치성>, 228~231쪽 ; 대계 5-1, <이성계와 변시열 장군>, 580~581쪽 ; 대계 5-1, <이성계와 지리산 산신령과 우뚜리>, 591~594쪽 ; 대계 5-1, <이성계와 아지밭도>, 415~416쪽 ; 대계 5-1, <지리산 산신령과 이성계>, 144~145쪽 ; 대계 5-1, <이성계와 호랑이>, 585~586쪽 ; 대계 5-3, <이성계와 반대로 나무끼는 것발>, 585~586쪽 ; 대계 5-3, <이성계가 산제 지내고 등극하다>, 586~592쪽 ; 대계 5-4, <통두란과 이성계>, 657~667쪽 ; 대계 6-11, <이태조 이야기>, 435~437쪽 ; 대계 5-7, <이성계의 등극>, 637~640쪽 ; 대계 6-8, <굴에서 나와 산 이성계 일화>, 644~646쪽 ; 대계 6-8, <강원도에 사냥간 이성계>, 371~373쪽 ; 대계 7-13, <이성계가 임금된 내력>, 140~146쪽 ; 대계 7-15, <삼처 거느린 왕건>, 550~554쪽 ; 대계 7-16, <이성계가 왕이 된 내력>, 599~608쪽 ; 대계 7-1, <임금과 거지>, 433~434쪽 ; 대계 7-8, <견훤 전설>, 984~991쪽 ; 대계 7-8, <무학대사와 이성계>, 308~311쪽 ; 대계 8-13, <이태조가 조선 왕이 된 사연>, 301~303쪽 ; 대계 8-14, <이성계와 불가사리>, 189~190쪽 ; 대계 8-14, <이성계와 무학대사>, 562~565쪽.

위의 설화는 고려를 개국한 왕건이 창업을 이루기 위해 역량을 갖추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수련 과정은 장수설화에 등장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¹⁷⁾ 설화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주인공인 왕건보다 왕건이 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수련시키는 스승인 서산대사의 역할이 주도적이라는 점이다. 설화의 서사전개 과정 중 핵심적 부분에서는 모두 주인공인 군왕이 아닌 원조자인 서산대사가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며, 왕건은 그의 의도대로 이끌려가는 수동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대 건국신화의 주인공들은 신성한 혈통을 바탕으로 날 때부터 타고난 역량을 소유한다. 그들은 건국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 초월적 이적을 보이고, 창업을 달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조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그 역할이 부수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구비 군왕설화의 주인공은 비범한 특성을 일정부분 가지고 있더라도 어디까지나 역사적 인간이다. 따라서 건국신화 속 주인공과 달리 구비 군왕설화의 주인공에게는 장수설화와 유사하게 창업을 위한 역량 갖추기가 필수적인 과정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는 고대 건국신화와 다른 구비 군왕설화가 보여주는 특징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군왕의 창업 과정에 대한 관심은 수련이나 투쟁 같은 직접적인 영웅적 행위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군왕과 관련된 주변 사건들이나 인물들과의 관계로도 확장되어 나타난다.

1. 왕건의 첫째 부인은 유화로 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2. 하루는 유화의 아버지가 딸에게 우물가에서 왕건을 유인해 오라고 했다.
3. 왕건이 군대를 몰아가다 목이 말라 우물가에서 물 길는 처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다.
4. 처녀는 대답도 없이 바가지에 버드나무 이파리를 띄워 주었다.
5. 이유를 묻자, 체할까 염려되어 잎을 띄웠다고 했다.
6. 왕건은 보통 여자가 아니라 생각하고 부모를 만나러 갔다.
7. 유화의 아버지는 왕건이 올 것을 미리 알고, 마중을 나와 있었다.
8. 유화와 왕건은 그날 저녁 예를 올렸다.
9. 왕건이 백제를 치러 나갔다가 또 한 부인을 만났는데 이름이 오장화이고, 아버지는 오달윤이었다.
10. 오달윤 역시 보통 인물이 아니어서 딸에게 왕건을 유인해 오도록 했다.
11. 하루는 왕건이 말을 타고 지나는데 예쁜 여자가 빨래를 하고 있어서 이상히 여기고 집을 물었다.
12. 여자는 왕건이 올 줄 미리 알고 있었다며, 집으로 안내했다.
13. 여자의 아버지는 왕건에게 장가를 갔느냐고 물었다.
14. 왕건은 이미 장가를 갔다고 했으나 이처도 가능하다며 그날로 장가들게 했다.

<왕건 이야기(3)>¹⁸⁾

위의 설화는 왕건이 창업에 이르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세 부인들 중 두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된 연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설화에서 주목할 부분은 혼인의 목적과 그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신화에서 남녀주인공의 결합은 신성한 결합, 즉 일종의 신성혼(hierogamy)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위의 설화에 나타나는 혼인 양상은 군왕과 배우자의 결합 목적이 신성한 존재끼리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세계 창조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혼인을 통해 군왕은 그를

16) 대계 1-7, <왕건 이야기(2)>, 925~927쪽.

17) 장수설화에는 주인공의 영웅적 성격을 결정하는 다양한 성장삽화가 등장하는데, 대사를 스승으로 맞이해서 무업을 수련하는 것은 대표적인 형태이다(강현모, 『장수설화의 구조와 의미』, 2004, 145~148참조).

18) 대계 1-7, <왕건 이야기(3)>, 928~931쪽.

듣는 원조자를 확보하고, 창업을 위한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다. 실제로 위의 이야기 속 오장화와 오달윤은 다른 설화에서 단순한 부인과 장인이 아닌 견훤과 싸우는 왕건을 돕는 원조자이자 동지로 등장한다.¹⁹⁾ 설화 속에서 군왕의 독자적인 능력만을 강조하지 않고, 원조자와 같은 주변 인물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수련과정에 대한 설화와도 유사한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군왕을 신화적 영웅이 아닌 현실적 역사 영웅의 모습으로 보이도록 한다.

왕건과 달리 이성계와 관련된 설화에서는 군왕의 창업 과정이 아래와 같은 양상으로 변화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조선을 창업한 태조 이성계는 앞의 군왕들과 비교해 역사적으로 가장 후대이자, 설화의 전승집단에 가장 근접한 시간적 거리를 가진 인물이다.

1. 태조는 모친이 용과 결합해 태어난 자손으로 조실부모해 이모 집에서 자랐다.
2. 하루는 원님놀이에서 사또가 되어 모임 시간을 어긴 사람을 군법으로 다스리겠다고 했다.
4. 다음 날 한 아이가 시간을 어기자 냇으로 목을 잘랐다.
5. 태조는 북으로 달아났는데, 언 강을 건너자 얼음이 녹아 아이의 부모는 쫓아오지 못했다.
6. 비가 억수같이 내려 바위 밑에 들어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비를 피하고 있었다.
7.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 바위 밑을 노려보자 각자 의복을 벗어 나갈 사람을 뽑기로 했다.
8. 호랑이가 태조의 옷을 물어 밖으로 나가니, 바위가 무너져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9. 귀주사 주지의 꿈에 신령이 나타나 초동이 지나가면 공부를 시키고 양육하라고 했다.
10. 태조는 귀주사에서 공부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와 집을 짓고 살았다.
11. 산에서 내려와 활쏘기를 배우게 된 태조는 용마 얻기를 바랐다.
12. 마침 군개에서 용마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경을 갔다.
13. 사람을 보면 물속으로 달아나는 용마를 잡기 위해 허수아비로 피를 써 용마 를 잡았다.
14. 하루는 태조가 화살을 쏘아 용마가 화살보다 느리면 목을 베겠다고 했다.
15. 과녁을 향해 활을 쏘고 달려가 보니 이미 화살이 박혀 있었다.
16. 용마를 죽이고 나서야 과녁에 있던 화살이 전날 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성계 일화>²⁰⁾

설화에 따르면 태조는 그의 모친이 용과 결합해 태어난 자손으로 신성한 혈통을 타고난 인물이다. 또한 6~8까지의 내용은 김관의(金寬毅)의 <편년통록(編年通錄)>에 기록된 고려 태조 왕건의 조상인 ‘호경’의 이야기와 동일하다.²¹⁾ 이는 개국시조로 운명 지어진 이성계의 비범성을 강조하기 위해 차용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화의 전체내용을 살펴보면 설화가 단지 개국시조로서 이성계의 영웅적 면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태조가 귀주사에서 수련을 하게 되는 것은 귀주사 주지의 꿈에 신령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주지의 도움으로 개국을 위한 준비를 한다는 점은 앞의 설화들과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태조는 공부를 마친 뒤에도 바로 산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산 밑에 집을 짓고 살면서 계속해서 수련에 힘쓴다. 이는 태조가 개국을 위해 충분한 역량을 갖추려면 앞의 설화들과 같은 단순한 수련만으로는 부족함을 말해준다.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태조는 활쏘기를

19) 대계 1-7, <이태조 등극>, 931~933쪽.
 20) 대계 1-6, <이성계 일화>, 673~678쪽.
 21) 『高麗史』 高麗世系 ‘虎景’.

익히고, 용마 얻기를 바란다. 이 과정은 앞의 설화들처럼 특정한 초월적 존재에 의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태조 스스로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수련 과정에서 태조는 자신의 실수로 용마를 죽이게 된다. 태조는 의지와 욕망은 가지고 있으나, 스스로의 역량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존재이다. 설화는 단순히 출생의 특이성만으로는 문제 해결을 보장받을 수 없는 구비 군왕설화 속 시조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설화에서 이성계는 한계를 지닌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선을 개국한 역사적 인물인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성계 설화에서는 혈통적 배경이 아닌 몽조(夢兆)를 통해 창업의 당위성이 다시 확인되기도 한다.

1. 이성계가 막대기 세 개를 썰어지고 쇠 갓을 쓰는 꿈을 꾸었다.
2. 꿈을 해몽하기 위해 해몽을 잘하는 부인을 찾아갔다.
3. 마침 해몽 잘하는 부인은 없고 부인의 딸만 있었다.
4. 딸에게 꿈 이야기를 하자 죽을 꿈이라고 했다.
5. 화가 난 이성계가 돌아가려다가 부인을 만났다.
6. 부인은 꿈 이야기를 듣더니 왕이 될 꿈이라 했다.
7. 이성계가 등극한 이후 부인에게 상으로 많은 땅을 내렸다.
8. 지금도 논산군 부적면 부인리에서는 부인의 당제를 지낸다.

<이성계의 해몽>²²⁾

위의 설화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 세 개의 막대기 또는 서까래를 썰어진 모습이 왕(王)자를 상징하므로 장차 이성계가 창업을 이룰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성계는 원조자인 부인의 도움에 의해 자신의 꿈이 창업을 이룰 몽조(夢兆)임을 알게 된다. 설화 속에 직접 나타나지는 않으나 어떤 초월적 존재나 정해진 운명이 이성계에게 꿈을 꾸게 하고, 부인으로 하여금 늦지 않게 꿈을 해몽하게 한다. 꿈은 장수설화나 여러 고전작품들에서 앞으로의 운명을 예고하고, 필연성을 강조하는 장치로 자주 사용되는 것이다.

이성계의 창업 과정에 드러나는 한계와 특이성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1. 이성계가 불공을 드리러 함경도의 한 산을 찾아갔다.
2. 불공 터에는 띠꺼머리 총각이 먼저와 불공을 드리고 있었다.
3. 백일기도를 하고 대국으로 천자를 하러 가는 길에 주막에 들렀다.
4. 술을 달라고 하자 천 냥짜리와 만 냥짜리 술을 택하라고 했다.
5. 이성계는 그냥 천 냥짜리 술을 택하고, 총각은 만 냥짜리 술을 달라고 했다.
7. 노파가 띠꺼머리 총각에게 먼저 술을 주자 이성계가 화가 났다.
8. 노파에게 따지자 총각은 일국의 천자상이고 이성계는 왕후지상이라고 했다.
9. 이성계가 창검으로 내치고 보니, 허허 별판이었다.
10. 산신이 노파로 변한 것이었다.
11. 총각에게 대국으로 들어가 천자를 하라하고, 자신은 돌아와 도움을 댈겠다고 헤어졌다.

<이성계와 주원장>²³⁾

22) 대계 4-4, <이성계의 악몽>, 592~595쪽.

23) 대계 2-2, <이성계와 주원장>, 669~670쪽.

이성계는 원래 대국의 천자 자리에 오르길 원했지만 처음부터 왕후지상(王侯之相)만을 타고났기 때문에 천자가 못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위의 설화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앞서 살펴본 설화들과 달리 이성계를 돕는 원조자가 없는 대신 명확한 대립인물, 즉 적대자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설화에서 이성계는 적대자로 인해 자신의 한계를 노출하고, 결국 패배하게 된다. 이는 대립 인물과의 투쟁을 거쳐 승리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건국에 이르는 고대 건국 신화의 주인공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또한 설화 속 세계를 주관하는 초월적 존재가 주인공에게 이미 한계를 정해놓고 있으며, 반(反)주체인 총각 즉, 주원장과 함께 한다는 점은 군왕에 대한 설화 전승자들의 인식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이성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통두란과 관련된 다음 설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1. 통지란은 중국에서 망명해 백두산으로 왔다.
2. 통지란은 사냥을 하다 태조를 만나 의형제를 맺었다.
3. 이성계가 나이가 많아 형이 되고, 통지란은 동생이 되었다.
4. 어느날 어머니가 두 사람에게 활쏘기 시합을 하도록 했다.
5. 물독에 활을 쏘아 구멍을 뚫고 막아 승부를 겨루기로 했다.
6. 통지란은 물이 한 방울도 안 떨어지게 막았으나 이성계는 물이 한 방울 떨어 졌다.
7. 공민왕 때 적이 쳐들어오자 이성계는 통지란과 함께 많은 공을 세웠다.
8. 이성계는 통지란이 야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 결국 죽여버렸다.

<이성계와 통지란>²⁴⁾

위의 설화에 등장하는 통두란(통지란)은 공민왕 때 부하를 이끌고 고려에 귀화한 인물로 ‘이두란(李豆蘭)’ 또는 ‘이지란(李之蘭)’으로 불린 인물이다. 이성계와는 결의형제를 맺었고, 이성계의 편장으로서 왜구를 무찔렀으며, 조선에 와서는 이성계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한 공훈으로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에 오르고, 보조좌명개국일등공신(補祚佐命開國一等功臣) 청해군(靑海君)에 봉해진 인물이다. 통두란은 태조가 영흥으로 은퇴한 이후에는 풍양(豐壤)에 은거하면서 전장에서 많은 살상을 한 것을 뉘우쳐 불교에 귀의했다고 한다.²⁵⁾ 그러나 설화는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전승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허구적 세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설화 속에 나타나는 통두란과 이성계와의 관계는 실제 역사와는 사뭇 다르다. 위의 설화에서 형제 관계를 결정하는 계기는 능력이 아닌 나이 순이었으며, 실제 두 사람의 능력 대결에서는 통두란이 이성계를 능가한다. 통두란은 이성계를 도와 많은 적을 물리쳤지만 창업의 목적으로 하는 이성계에게는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통두란이 적대적 존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국 이성계는 통두란의 반역을 염려해 그를 죽이고 마는 어리석은 인물로 그려진다. 이성계가 가진 한계와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타 설화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이성계는 산신에게 개국을 허락받으려 했으나 끝내 산신이 허락을 해주지 않자 등극 후 산신을 귀양보낸다거나,²⁶⁾ 비밀을 지키기 위해 산신의 이야기를 전해 준 소금장수를 죽이기도 한다.²⁷⁾

이성계는 전왕조인 고려에 대해서는 반역을 일으킨 역적이며, 조선에 대해서는 역성혁명

24) 대계 1-7, <이성계와 통지란>, 909~911쪽.

2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8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255쪽.

26) 대계 3-4, <지리산을 귀양 보낸 이성계>, 399~402쪽.

27) 대계 4-5, <이성계의 산신제 치성>, 228~231쪽.

으로 새로운 국가를 개국한 시조이다. 또한 왕위 등극 과정과 퇴위 이후 불행한 행적 등 이 설화 전승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설화의 전승자들은 인물에 대한 평가와 이해에 따라 서로 상반되거나 다양화된 인식을 갖기 마련이며, 위의 설화들에서도 이성계는 개국시조로서의 영웅적 면모와 한계를 동시에 지닌 인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창업을 이룬 전대 군왕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양상으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창업이라는 신성하고 영웅적인 사건과 군왕에 대한 인식의 변화상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3. 군왕의 좌절과 죽음

구비 군왕설화 가운데 군왕의 좌절과 죽음을 다룬 설화는 모두 4편²⁸⁾으로 그 수가 적은 편이지만 이들 설화에서 이야기되는 내용은 고대 건국신화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신화 속 주인공들의 최후는 단군신화나 고구려 건국신화, 신라 건국신화에서처럼 건국을 완성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 한 뒤 혈통적 근원인 천상으로 회귀하거나 산신으로 좌절하는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궁예나 견훤 같은 인물들은 창업을 이루는 데까지는 일단 성공하지만 결국 국가의 패망과 함께 좌절을 겪게 되며, 불행한 죽음을 맞게 된다. 이러한 개국시조의 최후는 역사적 존재인 구비 군왕설화 속 주인공들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아래는 지령이의 자식으로 태어난 견훤의 최후를 이야기하는 설화이다.

1. 견훤이 난을 일으켜 안동으로 오자 신라 삼태사가 견훤을 막기로 모의했다.
2. 견훤은 가수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힘을 내었다.
3. 삼태사의 참모들이 이를 눈치 채고, 강물에 소금을 뿌니 견훤은 물속에서 나와 강변에 누워 텅굴었다.

<견훤을 물리친 삼태사>²⁹⁾

위의 설화에 따르면 후백제를 개국한 견훤은 국가의 패망과 함께 안동에서 신라의 삼태사에게 죽음을 맞게 된다. 견훤은 앞의 탄생담에서 보았듯이 지령이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므로 처음부터 그 혈통적 신성성에 한계를 지닌 인물이다. 따라서 적대자인 삼태사에 의한 죽음 역시 태생적으로 예견되었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혈통적 한계와 역사적 인식의 영향을 받는 군왕의 죽음은 다음과 같은 궁예 관련 설화에도 나타난다.

1. 신라와 백제를 친 궁예는 개성에 도움을 했다.
2. 궁예가 원주로 옮겨가면서 왕건에게 개성을 맡겼다.
3. 궁예는 미처서 부처를 위한다고 부인과 아들들을 죽였다.
4. 숨어있던 궁예를 왕건이 가서 잡아 죽였다.

<궁예 이야기>³⁰⁾

28) 대계 1-7, <궁예 이야기>, 925~928쪽 ; 대계 7-8, <견훤 전설>, 984~991쪽 ; 대계 7-9, <견훤을 물리친 삼태사>, 52~54쪽 ; 대계 7-9, <견훤을 막은 삼태사>, 777~779쪽.

29) 대계 7-9, <견훤을 물리친 삼태사>, 52~54쪽.

30) 대계 1-7, <궁예 이야기>, 925~928쪽.

궁예는 앞의 개국시조들과 달리 신라의 왕자라는 현실적 출생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그 최후 역시 견훤과 같은 비밀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 자신이 스스로 미쳐서 부인과 자식들을 죽이고, 결국 왕건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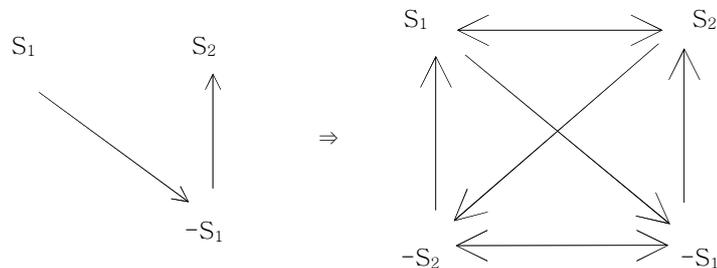
왕건이나 이성계와 달리 궁예나 견훤은 결국 개국에 실패한 군왕으로 인식된 존재들이다. 따라서 역사적 결과가 설화 속 인물의 형상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국시조형 구비 군왕설화에 나타나는 군왕의 좌절이나 죽음에는 고대 건국신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비밀상성이나 신이성이 사라지거나 약화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은 설화의 전승자들이 군왕을 인간적이고 역사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3. 구비 군왕설화의 인식양상과 의미

한 편의 설화 속에 존재하는 의미는 설화의 분석을 통해 찾아지는 것이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설화의 방향을 결정하고 만들어낸 것은 집단의 인식체계, 즉 문화적 의미구조이다. 따라서 설화를 살펴보는 것은 집단의 문화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므로 설화의 인식 기반, 즉 의미구조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본 전승양상과 유형적 특징을 바탕으로 설화에 작용하는 기본적인 인식 범주를 찾아보고, 그것을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³¹⁾에 배치시켜 구비 군왕설화가 가지는 인식적 특성과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인 설화의 전개과정과 마찬가지로 구비 군왕설화 속에 나타나는 문제 해결 양상과 서사전개 과정 역시 대립되는 각 가치가 어느 한쪽으로 통합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설화 속에 존재하는 가치체계를 기호 사각형을 이용해 드러내고, 그 변화의 방향을 살펴본다면 구비 군왕설화의 전승자들이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유형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의 설화 속에는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주제적 요소가 동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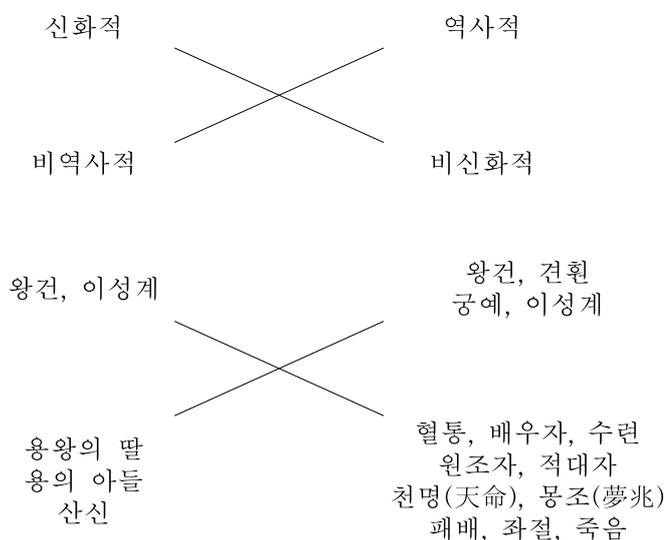
31)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은 의미 작용의 기본 구조를 표상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대립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의미의 논리적 분절을 가지적으로 표상한 모형이다. 설화의 심층적 차원에서는 설화의 표면에 드러나는 특정한 주체의 구체적 형상이나 행위가 아닌 추상화되고 일반화된 보편적 가치 체계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기호사각형은 설화의 심층에 내재한 문화적, 인식론적 체계를 살펴보는 데 유용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레마스에 의하면 인식이 보편적인 객관성을 지니게 되는 것은 그것이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으로 형성되는 경우이다. S라는 요소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일단 그것을 부정해보고, 또 그것의 반대되는 것을 찾아 인식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부정을 $S_1(-S_1)$, 반대를 S_2 라고 할 때 $S_1 \rightarrow -S_1 \rightarrow S_2$ 에 이르는 하나의 결과가 생기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왼쪽의 그림과 같이 된다.



왼쪽의 그림에서 S_1 과 $-S_1$ 은 모순 관계를 이루고 $-S_1$ 과 S_2 는 포용관계를 형성하며, 전자는 부정에 의해 성립되고 후자는 긍정에 의해 성립된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생겨난 S_2 는 S_1 과 반대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형은 동일한 방식으로 S_2 로부터 S_1 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 두 도형을 합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오른쪽의 기호사각형이다(그레마스/김성도 편역, 『의미에 관하여』, 인간사랑, 1997, 180~188쪽 참조).

에 존재한다. 이들은 각각 하나의 작은 인식범주라 할 수 있는데, 설화가 가진 전체적 의미를 밝히려면 먼저 이들 인식범주들을 살펴보고, 그들 간의 관계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개국시조형 구비 군왕설화에서는 설화의 의미를 결정짓는 몇 개의 중요한 인식범주를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세계에 대한 인식 양상이며, 두 번째는 인물들의 정치적 관계에 대한 인식, 세 번째는 설화 속 인물들의 행위에 대한 가치 평가이다. 여기서는 이들 각각의 인식범주를 기호사각형으로 나타낸 설화 속 각 군왕들을 기호사각형에 배치시켜 설화가 가진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세계에 대한 인식 양상, 즉 신화적 인식과 역사적 인식간의 대립 양상을 기호사각형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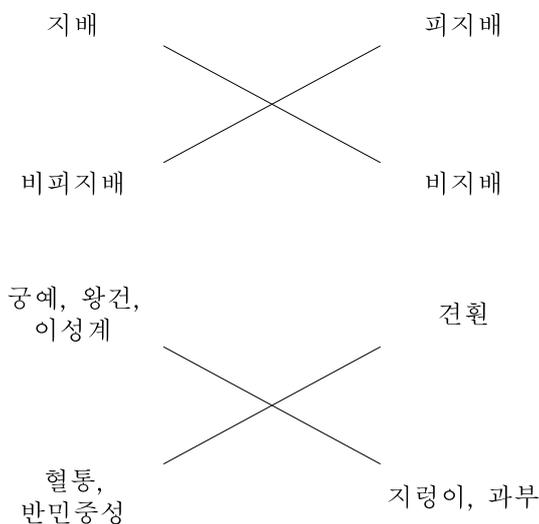
위의 그림은 설화 속 인식범주를 기호사각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아래는 이렇게 나타낸 기호사각형에 설화 속에 나타나는 각 인물과 구성요소를 배치시킨 것이다. 구비 군왕설화는 전체적으로 군왕을 신화적 영웅이 아닌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존재에 가깝게 그리고 있다. 따라서 군왕을 초월적 존재로 그리는 건국신화와 달리 역사적 인식의 영향이 두드러지는 설화들이다. 그러나 주인공인 군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설화 속 세계에 대한 인식 양상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왕건은 어머니가 용왕의 딸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신성성을 갖춘 인물이며, 고대 건국신화의 주인공과 비교적 가까운 인물이다. 따라서 비역사적인 존재의 중재에 의한 신화적 면모가 일부 드러난다. 그러나 신성한 혈통은 어머니로부터만 이어 받은 것이며, 개국 과정에서는 초월적 면모보다 수련이나 원조자들의 도움이 강조된다. 또 배우자 찾기 등의 현실적, 인간적 면모가 집중적으로 부각되기도 한다. 따라서 구비 군왕설화 속에 나타나는 왕건은 혈통에서는 역사적 한계를 벗어난 신화적 모습을 보이지만 창업과정에서는 역사적 존재에 가깝게 나타나는 이중적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왕건과 달리 견훤은 출생부터 신성성보다는 역사성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다. 견훤은 지렁이와 과부가 결합으로 태어난다. 따라서 출생 과정이 비밀상적이지만 혈통적 신성성은 약화된 인물이다. 궁예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탄생 과정부터 그는 왕족이라는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명확히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특히 견훤과 궁예 설화에는 왕건이나 이성계 설화에서 발견할 수 없는 패배와 죽음의 과정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설화를 전승

하는 집단의 인식이 역사적 인식 쪽으로 통합되는 중재적 양상³²⁾을 잘 보여준다.

이성계의 경우 일부 설화에서는 모친이 용과 결합해 태어난 자손으로 이야기 된다. 또 창업 과정에서 산신의 허락을 구하거나 구미호 등 비역사적 존재의 도움을 받기도 하므로 신화적 인식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반대로 그를 제약하는 천명(天命)이나 몽조(夢兆) 등 비신화적 요소가 혈통적 신성성을 대체하고, 창업 과정에 수련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 역사적인 적대자와 대결하거나, 원조자의 주도적 역할이 두드러지는 등 역사적인 인식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이성계는 앞에서 살펴본 왕건처럼 신화와 역사, 양면적 인식의 영향을 받는 군왕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개국시조형 설화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정치적 특성, 즉 지배와 피지배의 대립을 기호사각형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설화 속 왕건은 용왕의 외손자라는 타고난 혈통을 바탕으로 태어날 때부터 개국을 위한 능력과 자질을 어느 정도 보장받은 인물이다. 따라서 그의 자질을 알아본 많은 이들은 자발적으로 스승이 되거나 원조자가 되어 개국을 이루도록 돕는다. 이에 따라 왕건은 무난히 고려를 개국함으로써 지배층에 속하게 되는 상층의 인물로 나타난다. 궁예 역시 마찬가지이다. 궁예가 비록 개국에는 실패했으나 설화 속에서 그의 혈통은 신라의 왕손으로 분명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그의 개국 시도는 결국 원래의 지위로 돌아가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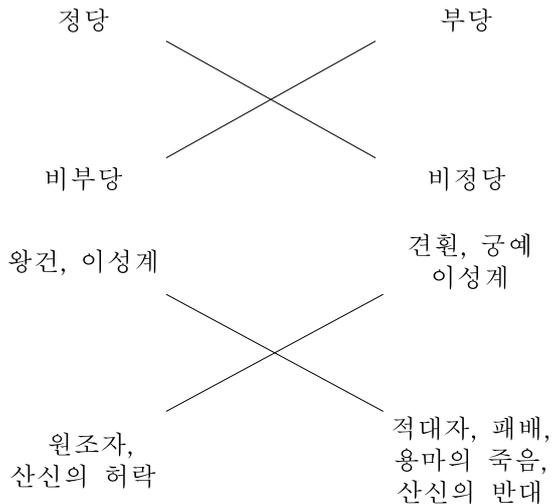
이성계의 경우는 어머니가 용과 결합해 낳은 자식이며, 개국 과정에도 고려의 무장으로서 활약상이 강조된다. 또 민중을 대변하는 아기장수와 대결해 그를 죽이거나, 왕위를 위해 자신을 도와준 소금장수를 죽이는 등 여러 가지 반민증적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철저히 지배층에 속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각 인물들이 보이는 이러한 정치적 특성은 비범한 혈통적 배경을 가진 고대 건국신화의 주인공들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건훤의 경우는 다르다. 건훤은 처음부터 과부와 결합한 지령이의 자식으로 나타난

32) 설화 속에 나타나는 문제 해결 양상과 서사전개 과정은 대립되는 각 가치가 어느 한쪽으로 통합되는 중재적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이는 기호사각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호사각형 속의 모순항은 한 항(S_1)에 대한 사선축에 위치한 항(S_1 에 대한 모순항인 $-S_1$)을 긍정적인 것이다. 그리고 모순항인 $-S_1$ 을 긍정함으로써 다시 S_2 를 정립시키는 조작이 따르는데, S_1 에서 S_2 로의 이행은 $-S_1$ 을 거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변증법적인 중재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 혈통적 우위를 타고나지 못한 피지배층에 가까운 인물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인물의 행위에 대한 가치 평가를 기호사각형에 배치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견훤은 신라에 반역해 후백제를 개국하였으며, 신라 왕실을 공격해 왕을 살해하고 비빈을 겁탈한 흉폭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³³⁾ 또 부하들에게도 비정한 인물이어서 군왕으로서의 덕이나 관용을 찾아보기 어려운 인물로 여겨졌다.³⁴⁾ 결국에는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적이었던 왕건에게 자신을 의탁함으로써 스스로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만다. 궁예 역시 평가에 있어서는 견훤과 마찬가지로이다. 궁예는 견훤보다 늦게 국가를 개국했으나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한 인물이다.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를 개국해 국가의 규모나 체계는 견훤을 훨씬 능가하였다. 그러나 신라를 멸도(滅都)라 부르고, 귀부해 온 사람들을 마구 죽였으며, 마지막에는 광기로 인해 자신의 부인과 두 아들마저 죽인 인물이다.³⁵⁾ 따라서 이들의 행동은 개국시조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견훤과 궁예의 행위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설화 속에도 잘 나타난다. 설화 속 견훤과 궁예의 창업 과정에는 원조자의 도움이나 신령의 가호 같은 비부당에 해당하는 길조(吉兆)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마지막에는 다른 개국시조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비극적 죽음이라는 비정당성을 드러내는 결정적 요소가 나타난다.

하지만 왕건의 행위에 대한 인식은 견훤이나 궁예와는 다르다. 왕건이 고려를 개국할 때 신라는 이미 쇠락하는 중이었으며, 각지에서는 여러 세력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할 때였다. 또 왕건은 궁예의 휘하에 있었지만 실책과 폭정으로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궁예를 물리치고, 고려를 개국한다. 따라서 창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화 속에는 수련과정을 돕는 서산대사, 유화의 아버지와 오달윤, 뛰어난 재능을 지닌 세명의 배우자 등 원조자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해 왕건의 비부당성을 뒷받침한다. 또 창업과정에 별다른 적대자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개국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군왕들과 달리 이성계에 대한 평가는 정당성과 부당성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과도

33) 『三國史記』 卷十二 景哀王 條.

『三國史記』 卷十 列傳 弓裔 甄萱 條.

34) 정상진, 「견훤설화 재고」, 『도남학보』 15집, 도남학회, 1996, 92~94쪽.

35) 『三國史記』 卷十 列傳 弓裔 甄萱 條.

적 양상을 보여준다. 원래 이성계는 고려의 무장으로서 위화도 회군 이후 공양왕을 추대하는 등 정치적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반역으로 조선을 개국한 인물이다. 그러나 실제 고려는 이성계의 반역 이전에도 많은 말기적 문제점을 노출했으며, 이성계가 세운 조선은 500년 동안 존속한 국가이자 전승집단의 역사적 경험과도 가장 인접한 국가이다. 따라서 설화의 전승집단은 이성계라는 인물에 대해 고려에 대한 역적으로서의 인식과 조선을 개국한 태조로서의 인식을 동시에 보여준다. 설화 속에서 이성계는 지리산 산신에게 개국을 쉽게 허락받기도 하지만 제물에 흠이 있어 끝내 허락 받지 못하기도 한다. 또 어렵게 얻은 용마를 자신의 실수로 죽이는 등 능력적 한계를 보여준다. 주원장과의 비교에서는 자질이 부족함을 비판받고, 통두란과의 대결에서는 정당하게 승리하기도 하지만 비열한 방법을 쓰기도 하는 등 이중적 모습을 보여준다. 이성계라는 군왕의 정당성에 대한 설화적 평가는 정당성과 부당성 어느 일면으로 통합되지 못하는 과도적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구비 군왕설화 속에 내재한 인식 양상은 문헌으로 전승되는 건국신화와는 상당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인식양상은 독립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면서 설화의 전체 의미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에 대한 인식 양상을 살핀 결과 왕건과 이성계에게서는 고대 건국신화로부터 이어오는 신화적 흔적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신화적 세계관 아래 군왕 스스로 타고난 것이라기보다 각 군왕의 역사적인 성패(成敗)와 관련이 깊다. 현실적으로 견훤과 궁예는 실패한 군왕이지만 왕건과 이성계는 개국에 성공한 군왕이다. 개국에 성공한 두 군왕에게서는 신성성의 흔적이 여전히 발견된다. 그러나 개국에 실패한 견훤과 궁예에게서는 신성성이 약화되거나 그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고대 건국신화와 달리 구비 군왕설화에서는 인물이 지닌 정치적 특성에 대한 인식은 설화의 의미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지령이와 과부의 자식인 견훤과 마찬가지로 왕족의 혈통을 타고난 궁예 역시 좌절을 겪기 때문이다. 오히려 군왕이라는 절대적 지배자를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특성보다는 인물의 행위에 대한 가치 평가가 설화의 의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 평가 역시 앞서 살펴본 역사적 성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무리 없이 개국에 성공한 왕건은 설화 속에서 그 정당성 또한 충분히 인정받는 군왕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성계는 개국에는 성공한 군왕이지만 개국 이전의 실제 삶과 개국 과정의 문제점, 퇴위 이후의 불행한 삶 등으로 인해 개국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이 엇갈리게 나타난다. 그리고 결국 개국에 실패한 견훤과 궁예는 정당성 역시 인정받지 못한 군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4. 맺음말

구비 군왕설화는 실재했던 역사적 인물인 군왕에 대한 설화이다. 특히 설화의 주인공인 군왕이 한 국가를 지배했던 절대자라는 특성상 대부분 전국적인 전승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전승자들의 의식 또한 명료한 편이다. 역사적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비 군왕설화 속에는 전승집단이 살아가는 현실과 상상의 세계가 항상 서로 대립하고, 인물에 대한 평가 역시 집단이 처한 처지와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한 편의 설화를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승집단이 가진 가치와 인식, 문화적 배경을 찾아내는 길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군왕을 대상으로 한 설화의 연구는 대부분 건국신화

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군왕을 역사적 인물이 아닌 신화적 존재로 다루어왔다. 그러나 여기서는 구비 군왕설화 중 개국시조형에 속하는 설화를 문헌으로 전승되는 건국신화와는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고, 접근해보았다. 구비 군왕설화 속에 등장하는 군왕들은 보통 사람과 같이 실수를 하거나 위기에 처하기도 하며, 좌절과 죽음도 겪는 현실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구비 군왕설화 중에서도 본고에서 다룬 개국시조형에 속하는 설화들은 궁예와 견훤, 왕건, 이성계 등 실제로 국가를 창업한 군왕들이 주인공으로 시조의 탄생이나 신이한 행적 또는 영웅적 활약상을 다루고 있는 설화들을 말한다. 이들은 건국신화로부터 이어온 영웅의 일생 구조에 부합하는 설화들도 상당수 존재하지만 군왕의 신성성이나 초월적 면모가 축소되어 있으며, 군왕을 신화적 영웅이 아닌 현실적이고 역사적 인물에 가까운 모습으로 그리는 것이 특징이다. 설화가 가지는 인식 양상과 의미를 살펴본 결과 설화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적 인식범주는 세계에 대한 인식 양상, 즉 신화적 인식과 역사적 인식간의 대립과 등장인물들이 가지는 정치적 특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등장인물의 행위에 대한 가치 평가, 즉 인물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이었다.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도 세계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군왕의 행위에 대한 윤리적 평가는 건국신화와 다른 구비 군왕설화만의 독특한 의미를 형성하는 주도적 인식범주임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구비 군왕설화 가운데 개국시조형을 중심으로 설화의 전체적 전승양상과 유형적 특징을 알아보고, 설화가 가지는 인식양상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기존에 수집되어 있는 일부 자료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개국시조형 구비 군왕설화의 전체적 실상이 아닌 한 단면만을 다룬 것이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여타 자료나 문헌 설화와의 심도 있는 비교를 통해 설화의 전체적 양상을 밝히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조동일 외. 1980~1984. <한국구비문학대계>. 전 82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나경수. 1993. <한국의 신화 연구>. 교문사.
- 이지영. 1994. <한국신화의 신격 유래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조현설. 1998. <건국신화의 형성과 재편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 서대석. 2001.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 오세정. 2003. <한국 신화의 제의적 서사 규약과 소통 원리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 조동일. 1992. <민중영웅이야기>. 문예출판사.
- 유영대. 1981. <설화와 역사인식-이성계 전승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 박현국. 1991. 견훤설화고. <중앙민속학>3. 중앙대 한국민속학연구소.
- 정상진. 1996. 견훤설화 재고. <도남학보>15. 도남학회.
- 이태문. 1997. 이성계 전설의 인물인식과 특징. <구비문학연구>4집. 한국구비문학회.
- 유경환. 2001. 왕건 신화의 원형적 상징성-영웅 출현 원리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62. 한국국어교육학회.
- 이영수. 2006. '궁예설화'의 전승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민속학>43집.
- 오세정. 2008. 전설의 서술방식과 역사적 상상력. <한국문학이론과 비평>13.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 송효섭. 1999.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 _____. 2003. <문화기호학>. 아르케.
- 박인철. 2006. <파리 학파의 기호학>. 민음사.
- A.J. 그레마스. 김성도 편저. 1997. <의미에 관하여>. 인간사랑.

구비 군왕설화의 유형적 특징과 인식양상 연구

-개국시조형을 중심으로-

서종원(단국대)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과정에서 연구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발표문을 읽는 과정에서 궁금했던 몇 가지 내용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 앞서 건국신화, 문헌군황, 구비군황설화에 대한 개념 정리 작업이 선행돼야 할 거 같습니다. 특히 이들 유형에 속하는 개별 신화·설화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들 세 가지 유형이 상호 어떤 관련성과 차이성을 보이는 지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아울러 건국신화, 문헌구비설화와 달리 구비군황설화는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물을 통해 분류하여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세 설화의 전승양상과 내용을 통해 그것을 밝힐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아울러 구비문화대계에 보이는 61개 설화에 대한 1차 분석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실려 있고, 이들과 기존 문헌시조설화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통해 이들의 전승적 특징을 언급하는 것이 이 글을 읽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떤 인물과 관련된 설화가 구비문화대계에 실려 있는지를 소개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같은 인물을 다루고 있는 설화가 문헌군황과 구비군황설화에서는 각기 어떠한 차이[특히 내용]를 보이고 있는지를 언급해주는 작업도 필요하리가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4. 발표자께서는 현재까지 구비전승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비문화대계에 기록된 자료는 비록 구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추후에는 이들 자료를 어떻게 봐라 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것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된 자료들 역시 당시의 구비자료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볼 때 반드시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5. 발표자께서는 견훤설화를 이야기 하면서, 설화 속 탄생의 과정에서 지렁이는 출생을 통해 견훤에게 혈통적 비범성을 부여하는 존재이며, 과부는 선비로 변한 지렁이를 받아들여 견훤을 낳는 인간적 존재이다. 그러나 과부는 결과적으로 실꾸러미를 지렁이에게

달아 정체를 폭로하는 적대적 존재이기도 하다. 위의 설화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견훤의 탄생담에서는 군왕을 탄생시키는 주체의 지위와 능력이 약화되며, 한계를 지닌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견훤의 탄생에 대해서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도 위와 유사한 이야기가 전한다. 그러나 구비설화에서는 부계뿐만이 아닌 모계에서도 이러한 지위 약화가 나타난다. 위의 설화에서 모계는 홀로 사는 ‘과부’이며, 그 탄생도 사람들 사이에 좋지 못한 소문으로 퍼지게 된다. 이는 군왕의 탄생이 신성함이 아닌 비일상적이고 부정한 것으로 격화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부연설명과 함께, 그러한 특징이 보이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6. 발표자께서는 구비군왕설화의 특징을 “이들은 건국신화로부터 이어온 영웅의 일생 구조에 부합하는 설화들도 상당수 존재하지만 군왕의 신성성이나 초월적 면모가 축소되어 있으며, 군왕을 신화적 영웅이 아닌 현실적이고 역사적 인물에 가까운 모습으로 그리는 것이 특징이다”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마지막으로 목차 구성에 있어 전승양상과 유형적 특징을 명확하게 구분지어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 제 3 부 】

■ 제 2 분 과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의문문 구조 습득 연구

정해권(한국외대)

차 례

1. 머리말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4. 결과 분석
5. 맺음말
- 참고문헌

1. 머리말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어 교육의 연구 분야를 크게 언어(한국어)와 교수, 학습으로 나누어볼 때, 그간 다른 분야에 비해 ‘학습자와 습득(학습) 과정’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한국어 교육이 교사, 교육과정 설계자, 교재 편찬자들의 직관이나 경험에 의지하여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생각할 때 학습자의 학습 및 습득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연구에 바탕을 둔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습자가 접하는 기본적인 문장으로 평서문, 부정문, 의문문 등이 있는데, 한국어 의문문은 일반적인 한국어 교사의 직관과는 달리 외국인 학습자에게 어려운 문법항목일 수 있다(김남길 2010). 예를 들어, 한국어와 중국어의 의문문은 언어 유형론적으로 유사한 점도 있지만 상이한 모습도 많이 나타난다. 우선 중국어는 기본 어순에 의해 격이 표시되어 어순 바꾸기(Scrambling)가 불가능하지만 한국어는 격조사가 그 역할을 하므로 어순 바꾸기가 가능하다. 다음 (1)의 예문과 같이 한국어에서는 의문사 목적어의 위치가 바뀌어도 비문이 되지 않지만 중국어의 경우 비문이 된다.

(1) a.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a'. [무엇]-을 너는 좋아하니?

(김영화 2008:44 수정)

b. ni xihuan shenme ne ?

b'. *shenme ni xihuan ne ?

(Yuan 2007:341 수정)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는 (1a')와 같은 문형이 정문이 되는 것을 배워야 할 뿐 아니라 이런 문형은 초점화에 의해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¹⁾

이와 같이 의문사 의문문의 습득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 의문문의 습득에 대한 연구는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의문문을 어떻게 습득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통사론 연구에서 의문사 의문문과 관련된 논의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제2언어 습득연구에서도 이와 관련된 주제는 중요한 연구대상이었다. 특히 한국어와 영어의 상이한 특성은 습득에 있어서 보편문법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하지만 한국어를 대상으로 의문문의 습득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많지 않다. Song & Schwartz(2009)는 영어권 학습자를 중심으로 부정극어(Negative Polarity Items, NPI)를 포함한 한국어 의문문의 습득을 근본적 차이 가설(Fundamental Difference Hypothesis)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성인 L2 학습자가 입력이 부족하여도 보편문법의 도움으로 부정극어에 대한 제약을 습득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보였다. 중국어에서는 Yuan(2007)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중국어 의문사 의문문의 습득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일본인 학습자는 형태 자질의 차이가 존재하는 중국어에서도 L1 전이를 나타냈다.

2. 이론적 배경

2.1. 한국어와 중국어의 의문문

한국어와 중국어의 의문문에는 (2a)의 영어와 같은 언어에서 나타나는 의문사의 문두 이동이 없다는 점에서 모두 의문사 제자리(*wh*-in-situ) 언어로 분류된다.

- (2) a. Who remembered where we bought what?
b. 너는 [누가 무엇을 샀냐고] 물었니? (최기용 1989:213)
c. Ni xiang-zhidao [shei mai-le shenme]?
you wonder who bought what (Huang 1982:382)

또한 (3)과 같이 의문문에서 의문 접사(*wh*-particle)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 (3) a. 철수가 순이를 만났-니? (최기용 1989:214)
b. Ni xiang chi shenme (ne)?
you want eat what Q_{wh}

1) 초점화는 다중 의문사 의문문에서 더 분명하게 의미가 드러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국어의 특성을 언급할 뿐 이에 대해서 더 이상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는다.

“What would you like to eat?” (Yuan 2007:331)

또한 (4)와 같이 복합명사구에서 의문사의 영역이 제한을 받지 않는 면에서도 동일하다. 반면에 영어에서는 이와 같은 구조에서 의문사는 명사구 영역 밖으로 이동할 수 없다 (CNPC, Complex NP Constraint)

- (4) a. 너는 누가 쓴 책을 좋아하니? (최기용 1989:214)
b. Ni xihuan [shei xie de] shu (ne)?
you like who write THAT book Q_{wh}
“*Who_i do you like the book t_i wrote[]?” (Yuan 2007:331)

하지만 한국어와 중국어의 의문사 의문문의 통사구조에서 몇 가지 차이점도 존재한다. 앞의 예문 (5a)에서 한국어는 의문사 의문문이 아니라 판정 의문문으로 해석되며, 영어에서도 이와 유사한 구문에서 의문사가 wh-절 밖으로 이동하지 못한다. 이를 의문 섬 제약 (Wh-Island Constraint, WIC)이라고 하는데, 한국어나 영어와 달리 중국어에서는 이와 같은 제약이 작용하지 않는다.

- (5) a. 너는 [메리가 누구를 만났-냐고] 물었-니? → 판정 의문문
you-NOM Mary-NOM who-ACC meet-PAST-Q ask-PAST-Q
Did you ask whom Mary met?
b. * Which books did you ask Bill where John bought? (최기용 1989:215)
c. Ni xiang-zhidao [shei lai-bu-lai] (ne)? → 설명 의문문
you want-know who come-not-come Q_{wh}
“Who is the person x such that you wonder whether x will come?”
(Tsai 1994:52)

양화사나 부정극어(NPI)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간섭효과(Intervention Effect)와 관련해서도 한국어와 중국어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6a)와 같이 한국어는 부정극어와 의문사 사이에서 간섭효과가 있어 의문사 의문문이 아닌 판정 의문문이 된다. 하지만 영어와 중국어에서는 이와 같은 구조에서 간섭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6) a. 아무도 무엇-을 사-지 않-았-니? → 판정 의문문
anyone what-Acc buy-CHI not do-Past-Q
* “What did not anyone buy?” (Song & Schwartz 2009:326)
b. * Shei ye kan bu dong na-ben shu? → 비문
who also read not understand which-CL book (Kim 2002:626)
c. Which person did not read which book? (Yang 2007:98)

다음의 <표 1>는 이상에서 나타난 각 언어와 관련된 다양한 통사구조의 현상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1> 언어의 의문문 관련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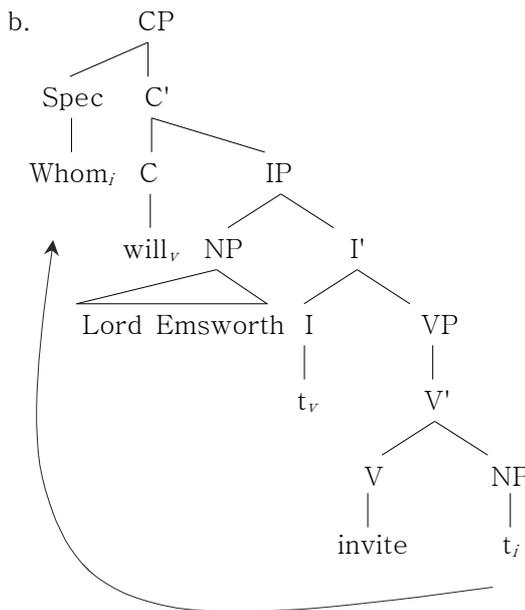
언어	기본 어순	의문 어미	어순 바꾸기 (scrambling)	복합 명사구 제약 (CNPC)	의문 섬 제약 (WIC)	간섭 효과 (intervention effect)
한국어	SOV	+	+	-	+	+
중국어	SVO	+	-	-	-	-2)
영어	SVO	-	-	+	+	-

2.2. 한국어와 중국어 의문문의 통사구조

Chomsky(1977)이 D-구조의 의문사가 S-구조의 문두(C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밝힌 이후 WH-이동은 통사이론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 최근 최소 주의에서도 영어의 문장의 종류를 결정하는 요소인 보문소 C가 [Q] 자질을 가지나 미확정 [wh] 자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강력한 유도에 의해 의문사가 [Spec, CP]로 이동하여 [+wh] 자질을 나타내는 점검, 인허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김영화 2008:23-24, 이숙희 1999).

(7) a. Whom will Lord Emsworth invite?

(Haegeman 1994:371-372)



Huang(1982)는 중국어와 같은 제자리 의문사 언어에서는 눈에 보이는 외현적 이동은 없

2) 중국어에서는 의문사 논항(wh-argument)의 경우 간섭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나, 의문 부사(wh-adverb) 또는 A-not-A 구문에서는 간섭효과가 나타난다(Yang 2007).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의문사 이동을 중심으로 대조 하기 때문에 의문사 논항을 중심으로 다룬다.

지만 논리형식부(Logical Form, LF)에서 의문사가 이동한다는 LF-이동 가설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중국어와 영어의 차이는 외현적 통사부에서 이동하느냐, 논리형식부에서 이동하느냐의 차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의문사 제자리 언어인 한국어에서도 의문사의 LF-이동 가설을 적용한 설명들이 많이 있었다(서정목 1987, 1999, 2008, 김광섭 2008, 김영화 2008).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많이 제기되어 중국어는 의문사가 LF에서도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문사 의문문에 호응하는 [+wh] 자질은 CP에 투사된다고 할 때, 의문사 의문문은 C⁰에 외현적 형태소로 표시되거나 CP에 운용소(operator)가 이동하여 표시된다. 그런데 중국어의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의문접사가 병합되면서 의문사 의문문의 C⁰가 결정되고 따라서 의문사 이동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의문 접사 *ne*에 의해 C⁰는 [+wh, +Q] 자질을 갖게 되고 이는 성분통어하고 있는 의문사의 제자리를 인허하게 된다(Yuan 2007:332-335).

- (8) a. Ni xihuan shei (ne) ?
 you like who Q_{wh}
 b. Ni xihuan ta ma ?
 you like her Q_{yn}

한국어에서도 LF 이동을 인정하지 않는 주장들도 다수 있었는데, 문명옥(1991)은 의문사가 운용소가 아니라 변항이며 보문소 C의 Q 형태소나 [+wh] 자질에 의해 비선택적 결속으로 공지시화된다고 설명하였다. 유은정(1995)도 의문형태소에 의해 의문문이 실현된다고 보았으며, 박홍근(2010)도 결속에 의해 [+wh] 자질과 [Q] 자질이 인허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LF-이동 가설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최기용(1989)은 의문사 섬 제약(Wh-Island Constraint, WIC)이 작용하는 예를 들어 하위인접조건이 한국어 LF-이동에 유효함을 보였다. 서정목(2008:141)은 의문사의 LF 이동을 가정하며 C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한 의문사의 [+wh] 자질과 C의 [+wh] 자질이 일치 점검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김영화(2008:44)는 [+Q] 자질과 [+wh] 자질이 모두 C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지 않고 [+wh] 자질은 C의 지정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즉 C의 [+Q] 자질과 [Spec, C]의 [+wh] 자질이 부합하여 의문사 의문문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Yang(2008:98)은 의문사 의문문에 따라 *wh*-이동 언어(영어), LF-이동 유형 *wh*-in-situ 언어(한국어), 비이동 유형 *wh*-in-situ 언어(중국어)로 구분한다(Tsai 1994, Yuan 2007).

- (9) a. 중국어 : [CP Op_{x[Q]} [IP ... wh(x) ...]]
 b. 한국어 : [CP Op_{x[Q]} [IP ... [PP/DP t_x [... wh(x) ...]]]]
 c. 영어 : [CP [PP/DP wh(x)-Op_{x[Q]}]_k [IP ... t_k ...]] (Tsai 1994:53)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정대호(2000), Watanabe(2001)가 한국어와 일본어의 의문사 의문문의 통사구조로 설명한 의문 운용소(*wh*-operator)의 LF-이동을 가정하며, 중국어와 한국어의 의문사 의문문 구성에 대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상의 다양한 문형들에서 상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3. 연구 방법

앞 장에서 나타난 한국어와 중국어의 기본적인 의문문 구성의 차이로 인해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학습자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실제로 그 습득의 양상을 유도 기법을 통해 확인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도 기법의 한 방법인 적합성 판단 시험(Acceptability judgement test, AJT)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이와 같은 문형들이 실제 발화에서는 수집되기 어렵기 때문이며 문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Yuan(2007)과 Song & Schwartz(2008)에서 사용한 적합성 판단을 통해 학습자가 습득하고 있는 중간언어를 파악하고자 한다.

3.1. 조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학습자 집단인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의문사 의문문의 문형 습득에 대한 통제 집단으로 한국인 L1 화자로 12세 아동 집단과 20세 이상의 성인 집단을 두었다. 12세 원어민 참가자는 서울 소재 초등학교 6학년 1학급의 학생이었으며, 12세는 보통 결정적 시기와 관련된 나이로 본다. 12세 집단과 성인 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면 이미 모국어 문법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모국어의 구조를 습득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표2> 실험 참가자

입문	실험 집단(중국인 L2 학습자)			통제 집단(한국인 L1 화자)	
	초급	중급	고급	아동(12세)	성인
11명	9명	13명	6명	26명	15명

중국인 학습자 집단은 1급과 2급 그리고 중급과 고급으로 나누었다. 입문은 한국어를 학습한지 1달 정도로 거의 한국어 문법에 대한 인식이 적어 초급과 차이가 크다. 각 등급별로 나타나는 구조 습득에 대한 발달 양상이 존재한다면 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는 모두 19세 이상의 성인이었으며 모두 성인이 된 이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자료는 2010년 7월 1주일간 수집되었으며, 중국인 참가자는 모두 서울(2) 및 대전(1) 소재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였으며, 고급의 경우 이와 같은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거주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3.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방법으로 AJT를 사용하며, AJT 질문지의 문항은 모두 의문문으로 구성된 한 쌍의 대화문으로 다음의 <표3>의 예문과 같으며 총 26문항이다. 5개의 리커드 척도로 구성된 선택항 중에서 고르도록 하였으며, 각각 ‘맞다(2)-+ -모르겠다(0)-+ -이상하다(-2)’로 표시되었다. 4 가지 의문문의 유형(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선택 의문문, 부정 의문문)에 7 가지 문형의 종류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형이 임의의 순서로 섞이도록 하였다.

한국인 L1 화자와 중국인 L2 학습자에게 동일한 질문지가 제공되었으며, 시험을 수행하는데 각각 5~10분이 소요되었다.

<표3> 질문지의 구성

의문 유형과 예문(괄호 안은 문항 수)	예상 응답
판정 의문문(4)	
1. A: 너는 중국 사람이니? B: 아니요, 난 한국 사람이예요.	맞다
선택 의문문(1)	
4. A: 한국과 일본 중에서 어느 나라가 크니? B: 중국이 제일 커요.	이상하다
관계절(7)	
24. A: 이것은 영희가 산 책이니? B: '해리포터'예요.	이상하다
23. A: 누가 영화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니? B: 순이요.	맞다
어순 바꾸기(3)	
5. A: 무엇을 철수가 먹지 않았니? B: 피자요.	맞다
의문 섬 제약(3)	
26. A: 모든 사람이 무엇을 보았냐고 물었니? B: 예, 모두 보았어요.	이상하다
주제화(2)	
21. A: 누구는 철수가 좋아하는 것 같니? B: 영희요.	이상하다
양화사(3)	
22. A: 무엇을 모든 사람이 샀니? B: 볼펜이요.	맞다
부정극어(4)	
3. A: 무엇을 아무도 먹지 않았니? B: 김밥이요.	맞다
13. A: 아무도 무엇을 먹지 않았니? B: 빵이요.	이상하다

3.3.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1.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어 의문문 구조에 대한 인식에서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고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원어민과 비슷한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2. 한국인 아동은 한국어 의문문 인식에서 난해한 구조에 대해서는 성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추후에 습득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인 L1 통제 집단과 중국인 L2 고급 학습자 집단은 한국어 의문문 구조 중 대부분의 구조 습득에서는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간접 현상에 관련된 양화사와 부정극어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은 형태-구조적 차이뿐 아니라 의문사 이동에 대한 L1-L2 차이에서 기인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가설을 검증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어 의문문 중에서 습득하기 어려운 구조가 존재하며 각 문형에 대한 수준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4. 결과 분석

4.1. 판정 의문문과 선택 의문문, 관계절, 어순 바꾸기의 습득

판정 의문문과 선택 의문문의 경우 중국인 L2 학습자는 입문 단계에서는 어려움을 겪지

만 초급에서부터 쉽게 원어민 수준으로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 학습수준이 올라 갈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번 문형의 경우, 입문에서 고급으로 평균(M)이 ‘0.18→0.89→1.00→2.00’으로 원어민 수준(2.00)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계절이 사용된 판정 의문문의 경우 고급에서 L1 화자보다 더 정확한 정확도를 나타낼 정도로 습득에 문제가 없었다. 다만 관계절이 사용된 설명 의문문의 경우 고급 학습자의 경우에도 원어민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고, 특히 23번 문항 “A: 누가 영화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니? B: 순이요.”의 경우 중·고급에서 적지 않은 수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형은 관계절과 부정문이 함께 복합된 설명 의문문으로 학습자가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어순 바꾸기는 중국어에는 없는 문형으로 한국어에서는 초점화의 기능을 위해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를 바꾸게 된다. 따라서 고급에서도 원어민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을 나타내며 경우에 따라 한국인 아동들도 ‘이상하게’ 느껴 성인과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특히 5번 문항 “A: 무엇을 철수가 먹지 않았니? B: 피자요.”의 경우, 입문 단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수준이 올라갈수록 난해해 한다. 전형적인 U자형 발달양상을 나타내는데, 이는 입문 단계에서 이와 같은 문형을 덩어리 표현으로 배우다가 초급에서부터 분석적으로 습득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일 것이다.

<표4> 실험 결과1

	중국인 L2 학습자				한국인 L1 화자	
	입문($n=11$) M (SD)	초급($n=9$) M (SD)	중급($n=13$) M (SD)	고급($n=6$) M (SD)	아동($n=26$) M (SD)	성인($n=15$) M (SD)
판정 의문문						
1	0.18 (1.89)	0.89 (1.76)	1.00 (1.63)	2.00 (0.00)	2.00 (0.00)	1.87 (0.35)
19	0.00 (1.79)	-2.00 (0.00)	-1.85 (0.55)	-2.00 (0.00)	-1.92 (0.27)	-1.93 (0.26)
선택 의문문						
4	0.36 (1.75)	-1.00 (1.73)	-1.62 (1.12)	-1.33 (1.63)	-1.46 (0.99)	-1.87 (0.35)
관계절이 사용된 판정 의문문						
24	0.55 (1.57)	-0.33 (1.87)	-0.15 (1.72)	-2.00 (0.00)	-1.69 (0.74)	-1.73 (1.03)
관계절이 사용된 설명 의문문						
2	0.18 (1.89)	-1.67 (0.71)	-1.38 (1.26)	-1.33 (1.63)	-1.92 (0.27)	-1.73 (1.03)
23	-0.18 (1.66)	-0.11 (2.03)	1.08 (1.32)	0.83 (1.60)	1.65 (1.09)	2.00 (0.00)
어순 바꾸기가 사용된 판정 의문문						
14	0.00 (1.55)	0.56 (1.94)	1.08 (1.38)	0.67 (1.63)	0.96 (1.68)	2.00 (0.00)
어순 바꾸기가 사용된 설명 의문문						
8	0.36 (1.96)	0.33 (1.73)	0.31 (1.49)	0.83 (1.83)	1.38 (1.13)	1.67 (1.05)
5	2.00 (0.00)	-0.89 (1.76)	0.31 (1.38)	0.67 (1.63)	0.62 (1.55)	1.27 (1.22)

<표5> 실험 결과2

	중국인 L2 학습자				한국인 L1 화자	
	입문(<i>n</i> =11) <i>M</i> (<i>SD</i>)	초급(<i>n</i> =9) <i>M</i> (<i>SD</i>)	중급(<i>n</i> =13) <i>M</i> (<i>SD</i>)	고급(<i>n</i> =6) <i>M</i> (<i>SD</i>)	아동(<i>n</i> =26) <i>M</i> (<i>SD</i>)	성인(<i>n</i> =15) <i>M</i> (<i>SD</i>)
의문 섬 제약						
26	0.36 (1.50)	-0.11 (2.03)	-0.62 (1.45)	-1.67 (0.82)	-1.69 (0.68)	-2.00 (0.00)
15	0.18 (1.89)	-1.11 (1.54)	1.00 (1.47)	1.33 (1.21)	1.81 (0.80)	1.80 (0.56)
주제화						
21	0.36 (1.50)	-0.44 (1.94)	0.54 (1.33)	1.83 (0.41)	-0.73 (1.56)	-0.67 (1.63)
양화사						
22	-0.55 (1.81)	-0.33 (1.73)	0.85 (1.21)	1.17 (1.60)	0.62 (1.65)	1.13 (1.41)
11	-0.18 (1.89)	-1.11 (1.76)	-0.54 (1.71)	-0.67 (2.07)	0.42 (1.60)	1.33 (1.18)
부정극어						
3	-0.18 (1.66)	0.67 (1.73)	-1.00 (1.47)	0.17 (1.83)	-0.54 (1.77)	-0.20 (1.90)
13	0.91 (1.64)	-0.67 (1.58)	0.62 (1.26)	-0.50 (1.97)	-0.69 (1.62)	-0.13 (1.73)
9	-0.36 (1.21)	0.00 (1.12)	-0.08 (1.55)	-0.67 (2.07)	-0.92 (1.44)	-0.53 (1.60)
16	-0.18 (1.40)	-0.22 (1.79)	0.69 (1.38)	1.00 (1.55)	0.42 (1.53)	1.13 (1.41)

4.2. 의문 섬 제약, 주제화, 양화사, 부정극어의 습득

의문 섬 제약의 경우, 학습자들이 잘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어에서는 의문 섬 제약이 없기에 판정 의문문이 아닌 설명 의문문으로 해석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학습자들은 입문 단계를 제외하고는 판정 의문문으로 해석하며 원어민 수준에 다가갔다.

주제화 의문문의 경우는 한국어에서 비문이 되지만 중국인 학습자는 고급일지라도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즉 21번 문항 “A: 누구는 철수가 좋아하는 것 같니? B: 영희요.”에 대해 정문으로 판단했다.

양화사의 경우 간접 효과 때문인지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였다. 특히 11번 문항 “A: 모든 사람이 무엇을 사지 않았니? B: 기차표요.”를 비문으로 판단했는데, 이는 한국인 화자들과 반대되는 결과였다.

부정극어의 경우 혼란스러운 결과를 나타냈는데, 16번 문항 “A: 어떤 것을 아무도 먹지 않았니? B: 사과요.”과 같이 초점화되어 부정사(아무도)의 영역을 벗어난 경우에만 고급에서 원어민과 비슷한 수준의 발달을 보였다. 하지만 부정극어에 대한 습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은 원어민조차도 80%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본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며 추후 보완 및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5. 맺음말

이상의 연구에서 우리는 한국어 학습자의 습득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단순한 언어 대조나 경험이 아니라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학습자와 습득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 교육의 설계와 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광섭(2008), “의문사 이동에 대한 제약-영어와 한국어를 중심으로”, 『의문사 의문문의 통사와 의미』, 한국문화사, 49-87쪽.
- 김영화(2008), “의문사 구조의 통사론적 특성-이동의 동기와 조건”, 『의문사 의문문의 통사와 의미』, 한국문화사, 1-48쪽.
- 김영화 외(2008), 『의문사 의문문의 통사와 의미』, 한국문화사.
- 문명옥(Myong-Ok Moon)(1991), “Interpretation of *wh*-phrases without LF-movements in Korea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4, pp. 353-363.
- 박홍근(Hong-Keun Park)(2010), “On some properties of in-situ and ex-situ *wh*-phrases in Korean”, 『언어』, 35-1, 89-118쪽.
- 서정목(1999), “국어의 WH-이동과 主題化, 焦點化”, 『오늘의 문법, 우리를 어디로』, 태학사, 255-289쪽.
- 서정목(1987), 『국어 의문문 연구』, 탑출판부.
- 서정목(1994), 『국어 통사 구조 연구 1』, 서강대학교 출판부.
- 서정목(2008), “복합문 의문사와 ‘-고’계 의문 어미 일치 설명의 반성”, 『의문사 의문문의 통사와 의미』, 한국문화사, 133-177쪽.
- 유은정(Eun Jung Yoo)(1995), “*Wh*-phrases and their quantification in Korea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6, pp. 458-473.
- 이영민(1998), 『국어 의문문의 통사론』, 태학사.
- 이숙희(1999), “자질 이론”, 『최소주의 이론의 이해』, 아르케, 43-82쪽.
- 정대호(Daeho Chung)(2000), “On the representation and operation of *wh*-questions”, 현대생성 문법연구, 10-2, 357-388쪽.
- 정혜권(2010), “한국어 의문문 습득의 중간언어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기용(Kiyoung Choi)(1989), “LF movement: the *wh*-island constraint”,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3, pp. 213-233.
- Chomsky, N.(1977), “On *WH*-Movement”, *Formal Syntax*, Culicover, P. Wasow, T. & Akmajian, A. (Eds), Academic Press, pp. 71-132.
- Haegeman, L.(1994), *Introduction to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2nd Ed. Oxford.
- Huang, C-T. J.(1982), “Move *wh* in a language without *wh*-movement”, *The Linguistic Review*, 1(4), pp. 369-416.
- Kim, S. S.(2001), “Intervention effect are focus effects”, *Japanese/Korean Linguistics*, 10, pp. 615-628.
- Song, H. S. & Schwartz, B. D.(2009), “Testing the fundamental difference hypothesis L2 adult, L2 child, and L1 child comparisons in the acquisition of Korean *wh*-constructions with Negative Polarity Item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31(2), pp. 323-361.
- Tsai, W-T. D.(1994), “On economizing the theory of A-bar dependencies”, Ph.D. Dissertation, MIT.
- Watanabe, A.(1992), “Subjacency and S-structure movement of *wh*-in-situ”,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 pp. 255-291.
- Yang, C-Y. B.(2007), “Intervention effect, *wh*-movement, and focus”, *US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3, pp. 95-108.
- Yuan, B.(2007), “Japanese speakers’ second language Chinese *wh*-questions: a lexical morphological feature deficit account”, *Second Language Research*, 23(3), pp. 329-357.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의문문 구조 습득 연구

고경민(건국대)

2009년 말을 기점으로 한국에서 유학하는 중국인 학습자의 수는 6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 교육기관에서도 중국인 학습자가 주요 대상이 되는 만큼 발표자의 말씀처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생각할 때 학습자의 학습 및 습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의문문의 구조를 비교하여 밝히고 유도 기법의 한 방법인 ‘적합성 판단 시험’을 사용해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의문문 구조에 대한 인식과 습득의 양상을 살폈습니다. 이 논문은 적절한 가설과 자료를 가지고 학습자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려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면의 한계 탓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논문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점은 ‘적합성 판단 시험’의 결과입니다. 이는 의문문이 갖는 구조의 차이에 기인하여 학습자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국인 학습자들의 오류(실제 대화를 전사한 자료 또는 작문과정에서 살필 수 있는 자료)와 같은 구체적인 자료가 더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둘째, 연구 방법에서 설정하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통제 집단의 선발 요건에 대해서는 밝히신 바가 있는데 실험 집단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지면상의 이유로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험 집단은 이 논문의 이론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실험 집단의 수준별 구분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실험 집단의 구분과 선발 기준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결과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판정 의문문의 경우 중국인 L2 학습자 중 고급 학습자가 한국인 L1 화자 중 성인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했을 정도로 습득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셨고, 실제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발표자께서 생각하신 고견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넷째, 의문문에 대한 구조를 의문사나 의문문 어미 등을 통해 살피셨는데, 의문문을 성립하는 요소 중의 하나인 억양이나 강세에 대한 부분은 형태적 혹은 구조적 특징으로 볼 수 없어서 발표자께서 따로 설정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의 억양과 강세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신들의 모어에서 나타나는 ‘성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심이 있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발표

자께서는 이후에 의문문의 습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억양이나 강세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 주제로 훌륭한 논문을 발표하시고 이를 읽도록 허락해 주신 정해권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론을 마칩니다.

교수법에 따른 한국어 문법용어에 대한 영어설명 고찰

안주호(순천향대)

차 례

1. 문제제기
 2. 교수법에 따른 한국어교재 분석
 - 2.1 교수법에 따른 교재
 - 2.2 대상교재
 3. 문법 용어 관련 영어 설명의 특징
 - 3.1 체언과 관련된 문법용어
 - 3.2 용언과 관련된 문법용어
 - 3.3 복합구성과 관련된 문법용어
 4. 맺음말
- 참고문헌

1. 문제제기

교재에서의 영어 설명은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어로서 한국어(KFL)를 배우는 해외의 학습자나 혼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영어권 학습자라면 문법 설명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는 학습자(KSL)도 한국어 문법 설명이 자신의 모국어나 영어로 옮겨져 있다면 이해에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언어문화권 출신자들이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는 몰입환경에서는 교재에 나타난 문법 용어에 대한 영어 설명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교재 제작자의 의도는 학습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한국어 문법에 대한 영어 설명이, 부정확하거나 일관성이 없어서 도움을 주기는커녕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 교재가 제작되면서, 교재 제작자들은 한국어 문법에 대한 학습자 모국어의 설명이 한국어 학습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생각 하에 여러 언어권별로 교재가 만들어졌다.(일본어타갈로그어,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등) 그러나 모든 학습자의 모국어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영어만을 옮기는 경우가 많았다. 영어는 다른 언어를 학습하는데, 일종의 보조언어로서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출판된 교재를 중심으로 내용과 제시 단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한국어 교재 내의 문법 설명을 영어로 옮길 때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한국어 교육 시장에서 교재로 채택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몇 교재를 중심으로 교수법의 차이에 따른 영어 설명의 적절성을 알아보려 한다. 교수법의 변화는 직접적으로는 교실 현장에도 영향을 주지만, 교재 편찬의 방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이 글에서는 1990년대 한국어교재를 발간했고, 최근 2000년대 주요한 교수법이 된 의사소통증진법(Communicative Approach)에 따라 새롭게 발간한 두 기관의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법에 관한 영어 설명을 비교해 보려 한다. 국내외에서 교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에서는 세 기관의 교재를 중심으로 교수법의 변천에 따라 교재 안에서 문법 설명이 상세화, 극대화되기도 하며 최소화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최근 의사소통 능력증진법에 의해 쓰여진 연세대(2007)와 고려대(2008)의 1급 교재에서의 문법에 관련된 영어 설명의 방식을 살펴보고, 앞선 교재와 비교해 보려 한다.

2. 교수법에 따른 한국어교재 분석

한국어교육의 본격적인 역사는 1950년 이후로 잡고 있다. 다양한 교재가 개발되었는데, 교수법에 따라 나누어 본다.

2.1 교수법에 따른 교재

이병규(2005)의 보고에 따르면 국내에서 나온 교재는 당시로 20종의 67권에 달하고 있으며, 이후 2010년대에 들어서는 더욱 더 많은 한국어 교재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중 교재에 반영된 외국어 교수 학습 이론에 따라 문법 용어의 영어 설명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언어교육의 가장 초보적인 방법으로, 제2외국어로서의 언어교육에 많이 사용하던 방법은 문법-번역식 교수법 (Grammar-Translation Method)이다. 이 방법은 정확한 번역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문어를 중심으로 하며, 정확한 번역을 위해 문법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문법 교육이 언어 교육의 주목적이 된다. 따라서 목표어의 문법 규칙을 정확히 설명하여 학습자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¹⁾ 한국어교육의 초창기의 방법도 이 교수법을 사용하여 교재에서는 한국어학 전문용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향을 보인다.

외국어교육의 두 번째 방법은 청각구두식(Audio-Lingual Method)로서 상황적 의미나 화용적 의미가 아닌 구조적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목표 언어의 구조를 반영하는 문형 연습을 문법 교육 방법으로 이용하였다. 문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목표어의 문형을 통해서 구조에 익숙해지게 하는데, 이를 위해서 대치 연습, 문형 연습을 집중적으로 반복하게 한다. 문법은 규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문형(patterns)으로 제시되어 이에 대한 반복 연습을 중시했다.²⁾ 이 교수법은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문법 설명보다는 간략하게 이루어지나, 역시 문법 항목에 전문용어가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세 번째로 의사소통 교수법(Communicative Approach)은 1970년대 등장하였는데, 실제

1) 대체로 교재에서 나타난 순서는 "문법/어휘 학습 → 번역 연습 → 테스트(번역을 통해)"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2) 일반적으로 이 수업은 '대화문 → 유형연습(Pattern Drill) → (문법) → 적용 활동'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석하며, 특정 상황 안에서 인간 상호 간의 의미를 전달하고 협상하는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실제적인 발화 상황에서 적절하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언어 사용(use) 위주의 교육을 하며,³⁾ 맥락화된 상황에서의 발화의 이해와 생성을 강조한다. 또한 문법, 구조 등 언어의 형태적 측면을 언어교육의 일부로 보고, 기능, 사회언어학적 요소, 담화 요소 등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삼으며, 정확성보다는 유창성 배양을 중요한 교육 목표로 보고 언어의 형태보다는 의미를 중시한다. 이 교수법에서 문법은 가능한 한 교육하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상황을 통해 제시하여 학습자가 유추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문법 요소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설명만을 하며, 그 설명은 더욱 간이하게 이루어진다.

다음의 교수법은 과제 기반 접근법(Task-Based Approach, 또는 Task-Based Language Teaching)으로서, 이 교수법은 쓰기소통 교수법과 맥이 같은 교수법으로 넓은 의미로는 의사소통 교수법에 속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습자들에게 언어 사용을 위해 자연스러운 맥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학습자가 과제 완수를 위해 일하므로, 그들은 상호 작용할 기회를 충분히 갖게 한다. 그러한 상호 작용은 학습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언어 습득을 촉진시킨다고 여긴다. 이러한 과제 중심의 교육에서는 문법 규칙을 명시적으로 교육하지 않으며 과제 중심의 교수요목을 통해 학습자가 목표 언어를 자연적으로 되풀이 활용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목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⁴⁾ 교재별 영어 설명에서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교수법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드니, 아니면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한국어 교육에 적용되는 교수법을 중심으로 앞으로 어떻게 영어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2 대상교재

한국어교육 기관마다 각 기관의 교재를 편찬하였고, 2010년에는 국립국어원에서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재가 출판되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국내에서 발간된 교재 중 교수법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달리 발간된 대학 기관의 2~3 종 교재를 대상으로 살펴보려 한다.

《표1: 한국어교재의 양상》

표시명	교재명	기관명/출판사명	출판연도
고려1991-1	한국어 1,2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1991년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97년
연세1992-1	한국어 1-3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992년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년
경희2001-1	한국어 초급 I, II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경희대학교 출판부	2001년
서울1995-1	한국어 1,2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1995년
		문진미디어	2003년

- 3)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의 단원 구성은 준비 도입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학습 과정을 중시한 구성이 보편적인데, '도입(warm up) - 연습(practice) - 사용(use, communicative phase) - 마무리(follow up)' 등을 들 수 있다.
- 4) 이외에도 직접 교수법과 침묵 교수법이 있으나 한국어 교육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사용되고, 교재에서는 구현되지 않아서, 이 글에서는 설명을 제외하기로 한다.

서강2003-1	서강한국어1,2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도서출판 하우	1999년 2003년
선문2002-1	한국어 초급 1,2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생각하는 백성	2002년
외대2000-1	한국어 1,2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6년 2000년
한림2003-1	한국어 Korean through English 1,2,3	한림출판사	2003년
연세2007-1	한국어 1,2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년
고려2008-1	재미있는 한국어1,2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교보문고	2008년

이 글에서는 여러 교재 중, 연세1992-1, 고려1991-1, 서울1995-1, 연세2007-1, 고려2008-1를 선택한다. 연세1992-1, 고려1991-1는 주로 청각영상 교수법이 사용되었고, 보조적으로 문법-번역식 교수법이 사용되었다. 서울1995-1의 교재는 의사소통 증진법을 기반으로 쓰여졌으며, 연세2007-1, 고려2008-1은 의사소통 교수법과 과제기반 접근법으로 쓰여진 것이다.

3. 문법 용어 관련 영어 설명의 특징

문법 용어는 크게 체언 관련 문법용어, 용언관련 문법용어, 그리고 복합구성 관련 문법 용어로 나누며, 그 항목에서 세부적으로 나누도록 한다.

3.1 체언과 관련된 문법용어

청각영상 교수법이 주로 사용된 1990년대에 만들어진 교재에서는 다양한 문법에 대한 전문용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고려대(1991)와 연세대(1992)교재에서 모두 subject particle, object particle, locative particle, possessive particle 등의 용어나 subject case marker나 honorific subject case marker, adverbial case particle 등의 전문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 새로 나온 교재에서는 구체적인 명칭을 사용하기보다는 사용법에 주목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의사소통 능력 증진법으로 쓰인 고려대(2008) 교재나 연세대(2007) 교재에서는 사용에 중점을 두었지, 분화된 문법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 (1) ㄱ. **은/는 This particle** is used with a noun to denote the topic or theme of a sentence. When the noun ends in a consonant, use '-은'. When the noun ends in a vowel, use '-는'. (연세2007-1-7)
- ㄴ. **을/를 is the particle** which is attached to a noun to show that it is the object of sentence. (연세2007-1-75)
- ㄷ. 이/가 **This particle** is used with a noun to indicate that the noun is the subject of the sentence. When the noun ends in a consonant, use '이'. When it ends in a vowel use '가' (연세2007-1-38)

- ㄹ. **도** **particle** is used with a noun to enumerate the same thing or similar one (연세2007-1-46)
- ㅍ. **하고** **This particle** is used with a noun to link more than two nouns. (연세2007-1-61)
- (2)ㄱ. **-은/는** is a **particle** that indicates that the noun to which it is attached is the topic of that sentence. Depending on the structure of a final syllable of a preceding noun, -은 or -는 is used. (고려 2008-1-35)
- ㄴ. **-을/를** is a **particle** attached to a noun and specifies the noun as the direct object(the noun that "receives" the action of the verb, so to speak) in a sentence. It is often omitted in daily conversation. (고려 2008-1-52)
- ㄷ. **-이/가** is a **subject particle** attached to a noun to indicate the subject of a sentence. This particle takes two forms depending on the last letter of the preceding noun. If the preceding noun ends in a consonant, -이 is used. If the preceding noun ends in a vowel, -가 is used. (고려 2008-1-99)

《표2: 명사관련 용어 비교》

표시명	명사 관련 용어
연세1992-1	particle, subject case marker, honorific subject case marker, case particle, adverbial case particle, locative particle, possessive case particle, the subject marker
고려1991-1	subject particle, object particle, locative particle, possessive particle, time particle
서울1995-1	subject particle, object particle, particle
연세2007-1	particle,
고려2008-1	particle, subject particle

3.2 용언과 관련된 문법용어

용언과 관련된 문법용어는 크게 종결어미, 연결어미, 선어말어미의 순으로 나누어 살펴보려 한다.

3.2.1 종결어미

청각구두 영상법으로 쓰여진 고려대(1991)와 연세대(1992)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한다. 고려대(1991) 교재에서는 어미를 sentence final ending, conjunctive ending, connective ending, suffix, infix, tense adnominal form, prefix 라는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서울대(1995)에서는 종결어미를 비교적 상세히 sentence endings, verb ending, sentence ending marker로 표기해 놓았다. 연세대(1992)에서는 종결어미를 sentence final ending 혹은 final ending, final verbal ending으로 표기하고, 몇몇의 경우에는 imperative와 같은 기능을 함께 표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연세대(1992) 교재에서는 종결어미를 sentence-final ending이라고 했는데, sentence-final verbal ending, sentence-final question form이라는 설명도 있으며, 하위 영역으로 declarative, interrogative, imperative, hortatory로 나누기도 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만들어진 교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어가 간략해지고, 사용법이 상세

히 설명되었다.

- (3)ㄱ. -으십시오/십시오 This final ending is used with an action verb stem to indicate a command to the listener to do something. (연세2007-1-136)
- ㄴ. -을까요? /르까요? This final ending is used with a verb stem to ask an opinion of the listener about the speaker's action (연세2007-1-136)
- ㄷ. -어요/아요/여요 This informal style final ending is used with a verb stem. Depending on your intonation, this form can express declarative, interrogative, imperative or suggestions. (연세 2007-1-150)
- ㄹ. -지요? This final ending is used with a verb stem. (연세2007-1-158)
- ㄹ. -으세요 /세요 This honorific form results from adding '-으시-', the honorific suffix, to '-어요/아요 /여요' (연세2007-1-158)
- ㅂ. -을게요/-르게요 This final ending is used with an action verb stem to indicate the speaker's intention, vow or promise for the future.(연세2007-1-270)
- ㅅ. -는데요, -은데요/-s데요 This final ending is used with a verb stem to indicate certain situation. (연세2007-1-277)
- ㅈ. -는군요/군요 This final ending is used with a verb to express the fact that the speaker just realized with exclamation remark. Use '-군요' with a descriptive verb. Use '-는군요' with an action verb. (연세2007-1-330)
- (4)ㄱ. -이에요 is a **sentence-ender** that is attached after a noun and identifies that noun as the subject of the sentence. This expression is used in informal situations to people of higher status and/or people you do not know well. Depending on the structure of a final syllable of a preceding noun, -이에요 or -예요 is used. (고려 2008-1-34)
- ㄴ. -아/어/여요 are **sentence-endings** describing the present tense. They are appropriate for most daily and informal conversation with people of higher status and with people you do not know well. Depending on context, -아/어/여요 can be used for all four sentence types: statement, question, command, and propositive. However, it is used mostly for statements and questions. -아/어/여요 The **sentence-ending** is either -아요 or -어요 depending on the vowel in the verb stem. Korean has many verbs and adjectives that end in 하다. Even though the vowel in the stem is ㅏ, these verbs and adjectives take -여요, not -아요. However, in every use, 하여요 is contracted into 해요. (고려 2008-1-51)
- ㄷ. -(으)세요 is used after a verb stem to make a command or request. It is used in informal situations to social superiors and older persons who are close and to peers and social inferiors who are not particularly close. (고려 2008-1-68)
- ㄹ. -(으)르까요 is attached to a verb stem and is used to make a suggestion or used to seek permission by asking listener's opinion. It is used in informal situations when asking questions to familiar social superiors or peers. (고려 2008-1-130)
- ㅁ. -지요 is used after a verb stem or an adjective stem in order to confirm what the speaker already knows with the hearer. (고려 2008-1-146)
- ㅂ. -(으)르게요 to a verb stem, and it indicates the speaker's volition or determination. It is usually used with 제가/내가/우리가 as the subject of the sentence. It is used only for statements and cannot be used for questions. It is a colloquial expression used in informal situations to people of higher status and/or people you do not know well. (고려 2008-1-193)
- ㅅ. -습니다/습니다 is the **formal counterpart to statement ending** -아/어/여요 and -습니까/습니까 is the formal counterpart to question ending -아/어/여요. Both -습니다/습니다 and -습니까/습니까 are more polite expressions than -아/어/여요. (고려 2008-1-240)
- ㅈ. -(으)십시오 is the command form, and therefore, it is only attached to verb stems, not to adjective stems. It is the formal counterpart to -(으)세요. (고려 2008-1-241)

㉠. **-(으)십시오** is the **propositive form** ("Let's ~"), and therefore, it is only attached to verb stems, not to adjective stems. **-(으)십시오** is used in both formal and informal situations. However, in personal conversations, it is considered rude to use **-(으)십시오** to an older person or someone of higher status.(고려 2008-1-241)

《표3: 종결어미 관련 용어 비교》

표시명	종결어미 관련 용어
연세1992-1	Sentence-final ending : declarative, interrogative, imperative, Let's (hortatory) suggestions. imperative final ending, sentence-final verbal ending, sentence-final question form, sentence-final ending, informal style verb-final ending
고려1991-1	declarative sentence ending, interrogative sentence ending, imperative ending negative form
서울1995-1	sentence endings, sentence ending marker, verb endings, exclamatory ending.
연세2007-1	final ending, informal style final ending
고려2008-1	sentence-ender, sentence-endings, command form, propositive form

3.2.2 연결어미

연결어미에 대해서는 고려대(1991)에서는 {- (으)러, -고, -아서/어서, -는데, -면서, -으면} 등이 등장했는데, verb suffix, conjunctive ending, connective suffix, connective ending, conditional ending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suffix와 ending을 구별하지 않았다. 서울대 교재(1995)에서는 연결어미로 connective, conjunctive ending, coordinator, conjunction 등으로 지칭하고 있다. 연세대(1991)에서 제시된 연결어미는 conjunctive ending 혹은 conjunctive verb ending이라고 하여 {-고, -으니까, -어/아/여서, -는데}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새로 나온 연세대(2008)에서는 (5)와 같이 연결어미를 설명하고 있으며, 고려대(2008)에서는 (6)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5) ㉠. **-고** This connective ending is used with an action verb to indicate the order of the action. It is not used with the past-tense marker '-았/였/였-'.(연세2007-1-167)
- ㉡. **-어서/아서/여서** This is a connective ending which attaches to the stem of action verbs.(연세 2007-1-230)
- ㉢. **-으니까/니까** This connective ending is used with a verb stem to indicate the reason or cause of the next clause. When the verb ends in a vowel, use '-니까'.(연세2007-1-246)
- ㉣. **-는데, -은데/는데** This connective ending is used with a verb stem.
- (6) ㉠. **-고** The meaning of '-고' is 'and' and it is used to command two sentences. **-고** is attached to a verb stem in the first sentence and then the second sentence can come after that. When connecting two sentences having past tense, **-고** is attached directly to the verb stem in the previous sentence. That is, the first verb does not need the past tense marker **-았/였/였-**. The tense of the entire sentence is expressed by the tense of the second verb. (고려 2008-1-145)
- ㉡. **-아/어/여서** expresses the reason for something. **-아/어/여서** is attached to either a verb stem or an adjective stem, and it takes one of three forms depending on the last vowel of the stem. If the stem ends in either ㅏ or ㅑ (except 하다), **-아서** is used. If the stem ends in a

vowel other ㅏ or ㅑ, -어서 is used. For 하다, the correct form is 하여서, but the contracted form 해서 is more commonly used. Noun + -이다, the correct form is Noun + -이어서/여서, But in ordinary conversation, -이라서 is more frequently used. When connecting two sentence having past tense, -아/어/여서 is attached directly to the verb stem in the previous sentence. That is, the first verb does not need the past tense maker -았/었/였-. The tense of the entire sentence is expressed by the tense of the second verb. (고려 2008-1-146)

《표4: 연결어미 관련 용어 비교》

표시명	연결어미 관련 용어
연세1992-1	conjunctive ending, conjunctive verb ending, conjunctive ending
고려1991-1	verb suffix, conjunctive ending, connective suffix, Connective ending, conditional ending
서울1995-1	connective, conjunctive ending, coordinator, conjunction
연세2007-1	connective ending
고려2008-1	사용 안 함

3.2.3 전성어미

고려대(1991) 교재에서 다른 전성어미로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ㄴ}과 부사형 어미인 {-게} 등이다. 관형사형 어미는 {-(-으)ㄴ}과 {-는}은 noun modifier ending로 기술한 반면, {-(-으)ㄴ}은 imperfect tense adnominal ending으로 기술하고 있다. 서울대(1995) 교재에서는 전성어미 중에는 관형사형 어미를 제시하였는데, {-는, -ㄴ/은, -ㄴ/을}을 모두 noun modifier로 기능에 대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서울대(1995)에서는 noun modifier suffix라고 한 것을 서울대(2000)에서는 suffix를 생략하고 noun modifier라고만 했다. 연세대(1992)에서 제시된 관형사형 어미는 modifier ending이라고 했으며, 연세대(2007)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7)ㄱ. adnominal form (연세2007-1-39)

ㄴ. **adnominal ending** '-은, -는, -을' It is attached to an action verb stem to modify a noun that follows. When the action is complete, use '-은/ㄴ'. When the action is on going, use '-는'. When making a predication, use '-을/ㄴ' (연세2007-1-212)

《표5: 전성어미 관련 용어 비교》

표시명	전성어미 관련 용어
연세1992-1	modifier endings
고려1991-1	noun modifier ending, imperfect tense adnominal ending, adverbial ending
서울1995-1	noun modifier
연세2007-1	adnominal form, adnominal ending
고려2008-1	나오지 않음

3.2.4 선어말어미

선어말어미에 대해서는 고려대(1991)에서 {-았/었/였-}을 past tense infix라고 했으며, {-겠-}은 intentional infix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연세대(1992)에서는 선어말어미 {-겠-, -시-, -었-} 등에 대해 {-겠-}은 suffix라고 했으며, {-(으)시-}는 honorific suffix라고 했으며, {-았/었/였-} 등은 past tense-aspect form이라고 했다. 이들은 모두 선어말어미인데, 이 영어 용어로는 선어말어미의 기능을 알 수 없다.

- (8) ㄱ. -으시/시- is the **suffix** which is attached to a verb stem. It is used to express respect for the subject (of the sentence). If the verb stem ends with a consonant, insert '으' and use '-시-' If it ends with a vowel, use '-시-' is used along with the honorific subject particle '께서' (연세2007-1-84)
- ㄴ. -겠-1 It is used with an action verb stem to indicate the speaker's intention. In an interrogative sentence, it is to ask the listener's intention.(연세2007-1-128)
- ㄷ. -었/았/였- This **suffix** is used with a verb stem to indicate past tense.(연세2007-1-174)
- ㄹ. -겠-2 This **suffix** is used with a verb stem to express the assumption or supposition based on the situation or the state at moment of speaking.(연세2007-1-315)
- ㅁ. Use '-는군요' with an action verb. **Tense maker '았/었/였' or '겠'** can be used in front of this ending. (연세2007-1-330)
- (9) -(으)시- is a special **honorific form**, and it is inserted into the predicate (verb or adjective) to show respect for the subject of the sentence. It is used to show respect (1) when the subject of the sentence is older or holds higher social status than the speaker and (2) when the interlocutors are not well acquainted with each other. -(으)시- is attached to either a verb or an adjective stem and it precedes the tense marker. For present tense, -(으)세요 is used ; for past tense -(으)셨어요 is used ; and for future tense, -(으)실 거예요 is used. (고려 2008-1- 224)

《표6: 선어말어미 관련 용어 비교》

표시명	선어말어미 관련 용어
연세1992-1	suffix, honorific suffix, past tense-aspect forms,
고려1991-1	past tense infix, intentional infix
서울1995-1	suffix
연세2007-1	suffix, tense maker
고려2008-1	special honorific form, tense marker

3.3 복합구성과 관련된 문법용어

3.3.1 부정법

한국어의 부정법은 ‘안’ 부정과 ‘못’ 부정 그리고 각각의 단형부정과 장형부정으로 나뉜다. 국어 규범문법과 한국어교육 문법에서 부정부사로 취급하고 있는 {안}과 {못}을 고려대(1991) 교재에서는 negative prefix로 보고 있다. {안}과 {못}이 용언에 선행하여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만드는 기능이 있어서, prefix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

는데, 일반적으로 prefix는 접두사로서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형태를 이룬다. 이에 비해 서울대(1995) 교재에서는 부정 표현에 대해서는 {-지}나, {-지 않습니다} 혹은 {안} 등을 모두 negative marker 라고 표기하였다. 또한 연세대(1992) 교재에서는 {안}은 adverb라고 정의했고, {-지 않다}는 form으로 {-지 못하다}는 negative expression이라고 했다.

- (10) ㄱ. 못 This **adverb** is used in front of an action verb, meaning 'not being able to' or 'not having the capability of'. (연세2007-1-360)
- 나. -지 말다 It is used with a action stem to form a negation of an imperative (-으십시오) or a propositive (let's:-읍시다) sentence. (연세2007-1-246)
- ㄷ. -지 못하다 It is used with an action verb to mean 'not being able to' or 'having no capability of' (연세 2007-1-369)
- (11) ㄱ. 안 To change statements or questions where verbs or adjectives are used into negative sentence, the adverb 안 is inserted before the predicate(verb or adjectives) (고려 2008-1-84)
- 나. -(으)면 안 되다 This is attached to a verb stem, and it means that some behavior is not allowed. (고려 2008-1-258)
- ㄷ. -지 말다 This is attached to a verb stem, and it means "Do not do~" . Because this is a command, normally it is attached only to verb stems. However 아프다 (to be sick) is an exception. (고려 2008-1-259)

《표7: 부정법 관련 용어 비교》

표시명	부정법 관련 용어
연세1992-1	adverb, form, negative expression
고려1991-1	negative prefix
서울1995-1	negative marker
연세2007-1	못 adverb
고려2008-1	안 adverb

3.3.2 보조용언

고려대(1991) 교재에서 다른 보조용언으로는 {-고 있다, -고 싶다, -게 되다} 등인데 보조용언을 각각 expression, verb suffix, auxiliary verb라고 표기했는데 이는 보조용언에 대한 일관된 설명이 아니다. 서울대(1995) 교재에서 다른 보조용언으로는 {-고 싶다, -(으) 수 있다, -아/어 보다, -(으)르 수가 없다, -아/어 주다, -고 있다, -어야 /아야 하다, -(으)려고 하다} 등이 있는데, sentence ending, sentence ending marker라고 표시했으며, 몇몇 곳에서는 expression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다. 서울대 교재에서처럼 보조용언 구성을 sentence ending, sentence ending marker라고 한 것은 한국어 기술에서 큰 오류이다. ending 혹은 marker가 상위의 개념이 아니라, 어미나 표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들 보조용언은 다른 어미가 결합되어 활용을 하므로 이 용어를 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연세대(1992) 교재에서 {-아/어/여 주다} 등이 제시되었는데, 이를 auxiliary verb 라고 칭하고 있다. 그런데 연세대(2007)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 (12)ㄱ. **-고 싶다** It is used with an action verb stem to indicate the wish or hope for the action to take place. (연세2007-1-128)
- 나. **-어/아/여 주다** It is used with an action verb stem to show asking favor or the speaker's providing help to someone else. (연세2007-1-204)
- ㄷ. **-으려고/려고 하다** This pattern is used with an action verb stem and express a plan or intention. Verb stems ending in a vowel take '-려고 하다', and verb stems ending in a consonant take '-으려고 하다' (연세 2007- 1-344)
- (13)ㄱ. **-(으)러 가다** is attached to a verb stem, and it indicates the reason why you are going someplace. -(으)러 only goes with the verbs such as 가다, 오다, or 다니다, and other compound verbs which include these verb forms(나가다, 내려가다) (고려 2008-1-116)
- ㄴ. **-고 싶다** is attached to a verb stem and expressions the speaker's want, wish or expectation. Accordingly, in statements, the subject of the sentence must be either 'I' or 'we', not 's/he' or 'they'. In questions, -고 싶다 is used to ask the listener's want or wish. (고려 2008-1-131)
- ㄹ. **-(으)려고 하다** is attached to a verb stem and indicates the speaker's intention. This takes two forms depending on the last letter of the verb stem. (고려 2008-1-162)
- ㄷ. **-아/어/여 보다** is attaches to a verb stem, and it indicates an experience of trying something. In -어 보았어요, the meaning is usually an experience while -어 보세요 is used to make a suggestion. (고려 2008-1-163)
- ㅈ. **-아/어/여 주세요** is attached to a verb stem, and it is used to ask the listener to do something for the benefit of the speaker or someone else(someone other than listener). Strictly speaking, this is a command, but its meaning is closer to "Would you do something?" (고려 2008-1- 192)

《표8: 보조용언 관련 용어 비교》

표시명	보조용언 관련 용어
연세1992-1	auxiliary verb
고려1991-1	expression, verb suffix, auxiliary verb
서울1995-1	sentence ending, sentence ending marker
연세2007-1	pattern
고려2008-1	없음

3.3.3 그 외 복합문항

복합문항이라 한 것은 하나 이상의 문법 형태소가 결합되어 독립된 기능과 의미를 갖는 복합구성을 이룬다. 고려대(1991) 교재에서 복합구성인 구-구성(phrase construction)으로 제시된 {-기 때문에}와 같은 연결구를 casual conjunctive ending 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서울대(1995) 교재에서 나온 구-구성(phrase construction)으로는 {- (으)러 것이다}이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sentence ending, sentence ending marker라는 문법 항목을 제시해 놓고 있다. 그런데 연세대(1992) 교재에서 더욱 특이한 것은 여러 단어들 결합되어 이루어진 구-구성을 'ending'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기 때문에} ending으로 보고, {- (으)러 것이다}와 {- (으)러 것 같다} 등도 ending으로 보고 있다.

- (14)ㄱ. **-을/르 때** This ending is used with an action verb stem and indicates the time when the action occurs.

Verb stems ending in a vowel take '-f 때', and verb stems ending in a consonant take '-을 때'. To indicate the time when the action is completed, '-았(았, 었)을 때' (연세2007-1-352)

- ㄷ. **-을/르 거예요** (1) It is the subject is a first or second person, it indicates the speaker's intention or future fact. In this case, it is used with only with an an action verb. When the verb ends in vowel, use '르거예요'. When the verb ends in the other consonants, use '-을 거예요' (2) If the subject is a third person, it indicate the speaker's assumption or guess. In this case, it can be used with both an action and a descriptive verb. (연세2007-1-291)
- ㄷ. **-을/르 수 있다** **This form** is used with an action verb stem to indicate ability or possibility of an action. If there is no ability or possibility, use '-을/르 수 없다'. If the verb stem ends in a vowel, use '-르 수 있다'. If the verb stem ends in a consonant, use '-을 수 있다'. (연세2007-1-307)
- ㄷ. **-은/니 후에** **It** is used with an action verb stem to indicate ending of the action in the first clause and the subsequent result in the second clause. (연세2007-1- 1-314)
- ㄷ. **-을/르 것 같다** **It** is used with a verb stem to indicate the assumption of the action or state that will take place in the future. When the verb ends in a vowel, use '-르 것 같다'. When the verb ends in a consonant, use '-을 것 같다' (연세2007-1-322)
- ㄷ. **-을/르 때** **This ending** is used with an action verb stem and indicates the time when the action occurs. Verb stems ending in a vowel take '-f 때', and verb stems ending in a consonant take '-을 때'. To indicate the time when the action is completed, '-았(았, 었)을 때' (연세2007-1-352)
- ㅅ. **-기 전에** **It** is used with an action verb stem to indicate one action took place before other actions. (연세 2007-1-368)
- (15)ㄱ. **-에 있다/없다** is used after a location word to state (or ask) whether someone or something is at that location. (고려2008-1- 99)
- ㄷ. **-(으)로 가다** **-(으)로** is a particle attached to a noun to indicate the direction of a movement. It indicates one choice (up/down, right/left side, front/back, this side/that side/that side over there etc.) among various possibilities, and must be used with a verb of movement, such as 가다, 오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들어가다, or 나가다. When asking for directions, the following expressions '어디로/어느 쪽으로 가요?' can be used. (고려2008-1-100)

《표9: 복합문항 관련 용어 비교》

표시명	복합문항 관련 용어
연세1992-1	ending
고려1991-1	casual conjunctive ending
서울1995-1	sentence ending, sentence ending marker
연세2007-1	ending, form
고려2008-1	사용 안 함

4.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 초창기의 교재와 최근의 교재에서의 문법 용어의 영어 설명의 차이를 검토해 보려했다. 한국어 교재 개발 초창기에는 한국어학 전문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한국어 교재의 전문성과 개발자 부재로 인한 것으로, 전문용어라도 영어로 옮기면 된다는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교수원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교재에서는 의사소통 증진법에 근거하여 문법 용어를 최소화하고, 문법용어 자체의 설명보다는 해당 형태소의 의미와 사용에 초점을 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법 용어 설명에서는 교재마다 제 각각의 방법으로 설명되고 있어, 학습자에게 많은 혼란을 준다. 향후, 한국어교육에서도 문법 용어의 통일안이 있어야 하며, 지금은 문법 용어를 영어로 옮길 때 표준화할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 수요 조사 역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재에서의 문법 설명의 적절성의 논의는 학습자들의 메타언어적 인식의 수준을 파악한다는 차원에서 학습자들의 성향 조사를 포함해야 한다. 학습자의 교재 문법 설명 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 학습자가 읽고 이해하는 문법 설명의 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는 향후 논의할 문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6/2002. 《한국어 1》. 서울:고려대학교 출판부.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8. 《한국어 1》』 서울:교보문고.
- 김유정. 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 《한국어교육》(국제한국어교육학회) 9-1, 19-36.
- 김제열. 2001. <한국어 교육에서 기초 문법 항목의 선정과 배열 연구>, 《한국어교육》12-1, 93-121.
- 김호정. 2006. <한국어 교사에게 필요한 교육 문법 지식 내용 연구>, 《이중언어학》(이중언어학회)32, 159-190.
- 남기심·고영근. 1993/2001. 《표준 국어문법론》. 서울:탑출판사.
- 박동호. 2007. <한국어 문법의 체계와 교육내용 구축 내용>, 《이중언어학》(이중언어학회)34, 159-184.
- 백봉자(1999/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00/2005. 《한국어 1》. 서울:문진미디어.
- 안주호. 2003. <한국어 교육에서의 [이유]의 연결어미에 대하여>. 《한국어교육》(국제한국어교육학회)13-2, 159-180.
- 안주호. 2009. <한국어교육에서 복합구성의 영어 설명 검토>. 《언어과학연구》(언어과학회) 48, 63-84.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992/1997. 《한국어1》, 연세대학교 출판부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07. 《연세 한국어 1》,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관규. 2002. 《학교문법론》, 서울:월인.
- 최현배. 1975. 《우리말본》, 서울:정음사.
- 홍윤기. 2006. <메타언어(Meta-language)를 활용한 한국어 문법 교육 방법론 연구>, 《이중언어학》(이중언어학회)32. 381-408.
- Borg, S. 1999. The Use of Grammatical Terminology in the Second Language Classroom: a Qualitative Study of Teacher's Practices and Cognitions. *applied Linguistics 2-1*, 95-126
- Choo, Miho and William O'Grady. 1996. *Handbook of Korean Vocabulary: a Resource for Word Recognition and Comprehensio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Dakowska, M. 1993. Language, metalanguage, and language use : a cognitive psycholinguistic 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3-1*: 79-99.
- Eisentein, M. R. 1987. Grammatical explanations in ESL, *Methodology in TESOL: a Book of Readings*. New York: Newbury House.
- Hall, N. & Shephard, J. 1991. *The anti-Grammar Book*, Longman.
- Halliwell, S. 1993. *Grammar Matters*. London: CILT.
- Hutchinson, T. 1987. *Using Grammar Books in the Classroom*. Oxford; Oxford

- University.
- Ihm, H. B., Hong, K.P., Chang, C.I. 2003. *Korean Grammar for International Learners*, Yonsei University Press.
- King, Ross and Jae-Hoon Yeon. 1999. *Korean: a Foundation Course*. Rutland, Vermont & Tokyo, Japan :Charles E. Tuttle Company, Inc.
- Larsen-Freeman. 2003. *Teaching Language*, Newbury House.
- Martin, Samuel E. 1992. *Reference Grammar of Korean*. Rutland, Vermont & Tokyo, Japan :Charles E. Tuttle Company, Inc.
- Mohammed, a. M. 1996. Informal pedagogical grammar. *Inter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34-4: 284-91*.
- Scrivener, J. 2003. *Teachig Grammar*. OUP
- Sohn, Ho-min. 1994. *Korea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Thombury, S. 1999. *How to Teach Grammar*, Longman.

교수법에 따른 한국어 문법용어에 대한 영어설명 고찰

박석준(배재대)

안주호 선생님의 발표 논문 “교수법에 따른 한국어 문법용어에 대한 영어설명 고찰”은 최근 교재와 예전 교재에 나타난 문법 요소의 영어 설명이 ‘용어’와 ‘내용’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살핀 논문이다.

위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예전 교재가 한국어학 전문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음에 비해 최근 교재는 문법 용어를 최소화하고 문법용어 자체의 설명보다는 해당 형태소의 의미와 사용에 초점을 두었다.
- (2) 교재마다 영어로 된 문법 용어 및 설명 내용이 제각각 달라 학습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문법 용어 통일안이 있어야 하며, 또 문법 용어를 영어로 옮길 때 표준화할 방안이 필요하다.
- (3) 교재의 문법 설명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학습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핵심 주장 내용에 대해 본 토론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언급을 함으로써 부정확하거나 불확실한 점을 확인하고, 이견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한다.

- ① 이 논문에서는 최근 교재의 영어 설명을 단순히 옮겨놓고 있기 때문에, 예전 교재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지, 특히 교수법이 영어 설명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 ② 이 논문에서 집중 비교한 연세대 교재의 경우, 예전 교재와 최근 교재의 문법 설명은 비슷한 것이 많으며, 어떤 문법 항목에 대해서는 예전 교재가 훨씬 더 자세하게 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을/-를 This is a case particle which attaches to noun to show that it is the object of sentence. If the noun ends in a consonant, use -을, and if the noun ends in a vowel, use -를.(연세대 1992. 45쪽)
- -도 This particle attaches to nouns to indicate unity, sameness or identity (English "too, also; even"). Sometimes it can express emphasis, too.(연세대 1992. 45쪽)
- 연세대 1992에서 관형사형 어미 ‘-는/(으)르/(으)르’에 대한 설명은 무려 3쪽에 걸쳐 이루어져 있음.
- ③ 예전 교재가 문법 용어 자체에 대한 설명에 치중하였으며 최근 교재는 용법 설명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 차이가 발견되는가?

- ④ 영어로 된 문법 설명 자체에서보다는 해당 문법 요소에 대한 연습 및 활동 등에서 차이가 발견되는 건 아닌가? 즉 교수법의 차이는, 문법 용어 및 설명에서보다는 연습 및 활동에서 잘 반영되어 드러난다고 판단된다.
- ⑤ 의사소통 중심 교수, 과제 중심 교수에서 문법 용어 사용이나 문법 설명을 최소화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문법 용어 및 문법 설명이 충분히 제공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은가? 실제로 과제 중심 교수법에 기반한 모 대학 교재는 문법 설명이 거의 없어 교사들조차 교재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다. 다시 말해, 문법 용어를 최소화하거나 쓰지 않는 것이 과연 한국어 교수학습에서 효과적인가? 적절한 문법 용어의 사용이 한국어 문법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지는 않을까?
- ⑥ 문법 용어 표준화의 필요성 또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를 영어로 옮길 때조차 표준화가 필요한가? 그렇다면 다른 언어로 옮길 때에도 표준화는 필요한가?

대조분석을 통한 태국인 학습자의 과거시제 습득 연구

박철웅(한국외대)

차 례

1. 머리말
 2. 한국어와 태국어의 과거시제 표현의 대조
 - 2.1 태국어의 특징
 - 2.2 각 언어별 개념 및 표현
 3. 모국어를 통한 전이 검증
 4. 맺음말
- 참고문헌

1. 머리말

태국에서 한국어 교육이 시작된 것은 1986년 국립 송끌라대학교 인문사회 과학 대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 처음 시작하여 현재 18개의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이 진행 중이며 7개 대학에서 전공과목으로 지정되어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증설로 인해 태국인을 위한 한국어의 올바른 교육법과 한국어와 태국어 간의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 발제는 각 언어간 시제 대조분석을 함으로써 한국어의 과거시제 개념에 대한 표현방법과 태국어의 과거시제 개념 표현방법의 공통점과 상이성을 통해 나타난 태국인 학습자의 중간언어양상을 살펴보고 그러한 개념간 전이가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나타내는지 분석해 봄으로써 학습자의 언어습득의 인지적 방향성(language of cognitive affordance)을 찾는데 있다.

특히 태국어 학습자들의 과거형 시간부사의 오류양상을 보면 태국어 화자의 모국어 영향을 통한 부정적 전이를 볼 수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하면 “어제 나는 일합니다.” 등과 같은 형태의 구문을 쉽게 나타내는 것이다. 이로써 태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학습할 때 가장 용이하게 접근하는 인지적 방향성이 모국어의 영향이라는 가설을 입증하는데 논문의 의의가 있다. 먼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대조 언어학의 이론적 가설을 증명하고 이전 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본론에서 태국어의 특징과 한국어의 과거시제 표현 방법과 태국어의 과거시제 표현 방법, 태국인 화자의

중간언어 양상을 보고 태국인 화자가 어떻게 과거시제 형태를 습득하게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면¹⁾ Charles Fries(1945) 와 Robert Lado(1957)의 대조 분석의 가설에서 CAH는 제2언어 습득이 기본적으로 두 언어 체계(native and target languages) 사이의 차이점(differences)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전제아래, 첫째, 제2언어를 배우는데 장애요소가 모국어의 간섭이며, 둘째, 대조 분석을 통해 모국어 간섭 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이론으로 기본적인 문제들은 새 언어의 요소 자체에 있는 본질적인 어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 1언어 습관에 의해 만들어진 일련의 특수 어려움에서 주로 나온다고 했다. 2) Krashen(1982)은 자연습득가설로 습득순서에 따라 외국인 학습자의 유사한 습득 과정을 살펴보는 데 있다. 그리고 3) Gass and Selinker(2008:93)에 의하면 전이란 “이전의 학습이 새로운 학습 상황으로 이전된다는 심리학적 과정을 뜻한다.” 좀 더 자세히 하면 전이는 A라는 과업(Task)을 습득함으로써 이 습득이 다음 단계의 습득에서 B라는 과업에 영향을 줄을 뜻하는데 이는 모국어의 간섭을 통한 전이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순행억제는 특히 제 2언어를 습득 할 때 제 1언어가 이에 영향을 주거나 습득을 방해하기 때문에 제 2언어 습득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¹⁾

최근 들어 시제에 관련한 여러 언어별 대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각 언어권 별 대조 분석만이 논문의 대부분이고 전이를 통한 가설 입증은 부족한 상황이다.

전주대 Prajuap(2000)은 한국어와 태국어의 전체 통사를 대조하였고 한국어와 태국어의 문장구조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간단한 통사적 비교와 함께 속한 어족이 다르고 통사적 차이에 대해서 논하면서 한국어는 교착어이기 때문에 그 형태대로 화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환경에 따라 바꾸어 써야 한다고 했다. Prajuap(2000)의 여러 가지 통사비교 중 문장구조 분석을 통해 시제 부분(과거, 현재, 미래)을 일괄적인 표로써만 제시를 하였고 어떠한 교수방안이나 사용 환경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부재한 상태로 볼 수 있다. 경희대 Boonrit (2009)은 과거시제 ‘있’의 분석으로 한국어와 대조를 하였는데 본 논의와 다른 완료상의 과거완료수식사로 ‘-ᄒᆞᆫ’를 사용하여 과거를 칭했는데 본고에서는 이와 다른 과거형 조동사 ‘ᄒᆞ’를 사용하여 기술 할 것이다. 왜냐하면 ‘-ᄒᆞᆫ’는 완료상이 포함되어 일반적으로 구어체에 주로 사용되고 동사 또는 형용사 뒤에 붙어 ““끝난, 완료된, 마친, 종결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정문의 경우 ‘-ᄒᆞᆫ’는 생략되고 ‘ᄒᆞ’가 다시 출현하기 때문이다. 물론 시제에서 상의 위치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조학적 구분을 두기 위해 본 발표에서는 동사 앞에 위치하는 과거시제 조동사의 역할로써 과거를 표현하고 시간부사에 따른 과거시제 조동사의 출현 유무에 따른 모국어의 영향을 찾아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1) 김남길 (2010: 16-24) 참조

Thammachai(2001)에서는 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나타나는 학습자들의 오류를 바탕으로 하여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작문 지도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 모형은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통제 작문지도 모형으로 받아쓰기, 지시대로 쓰기, 다시 쓰기, 그리고 반 통제 작문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자유작문이다. 이 모형을 통해 태국 학생들의 한국어 쓰기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위의 연구들은 한국어와 태국어의 통사적 표현이 다르다는 평면적 유형의 분석을 주로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평면적 유형의 분석을 완료형과 상을 제외한 초급학습자들을 위한 기초적 단문과거시제에 대한 대조와 전이양상을 살펴 볼 것이고 이러한 분석 이후에 그에 따른 태국인 화자의 시제표현법의 용이성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2. 한국어와 태국어의 과거시제 표현의 대조

2.1 태국어의 특징

태국어는 어족상으로 차이나 티베트어(Sino-Tibet)족에 속하는 언어로 중국어나 미얀마어와 같이 고립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형의 변화가 없다. 방콕을 중심으로 태국의 중앙부 <짜오프라야> 평야에서쓰이는 타이어가 태국의 국어이다.

태국어의 언어학적 특징은 다음 5가지로 간략하게 요약될 수 있다.²⁾

- 1) 태국어는 문법상으로 고립어의 특성을 가지며 어형의 변화가 일체 없고 문법적 관계는 주로 문중의 말의 위치에 따라 표시된다.
- 2) 태국어는 원칙적으로 단음절어이며 차용어의 영향으로복음절어와 다음절어도 적지 않다, 따라서 단음절어가 많은 까닭에 동의어가 많으므로이를 구별하기 위해 모든 음절 또는 단어가 성조를 가진다.
- 3) 타이문자는 남인도계의 언어를 모방한 크메르 문자를 13C말 태국에서 직접 본받아 제정 되었으며44자의 기본자음과 32자의 기본모음, 4자의 성조부호로 되어있다. 자음을 중심으로 상, 하, 좌, 우로 모음을 짝지어 하나의 음절을 구성하며 좌로부터 우로 횡서를 한다.
- 4) 태국어의 기본문형은 [주어+ 자동사], [주어+ 형용사], [주어+ 연계사+ 체언], [주어+ 타동사+ 목적어], [주어+ 타동사+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 [주어+ 타동사+ 목적어+ 보어]이며, 형용사는 보통 한정되는 명사 뒤에 붙고 또 명사에는수량사(유별사, 수량명사)가 따르는 것과 띄어쓰기가 없는 것이 큰 특색이다.
- 5) 태국어휘의 약 2/3는 차용어로 산스크리트어, 팔리어(상류사회 및 종교계에서 흔히 쓰임), 캄보디아어(궁중어로쓰임), 중국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태

2) 이병도(2000) 태국어 첫걸음. 삼지사 p.p. 12~13

국어는 계층 및 지위에 따라 사용하는언어가 다르며 겸양적 표현이 풍부한 것도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요약하면, 태국어는 S+V+O형식의 순서를 가지며 동사나 형용사는 문장 안에서 다른 성분들과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어형의 변화가 없다. 따라서 시제나 상 또는 격과 수 그리고 태 등에 관련된 문법관계는 어순과 특정한 조동사에 의해 표시된다. 예를 들어 시제의 경우 S+ Aux+ V+O 또는 Tense Adv+ S+ V+O 그리고 S+ V+O+ Tense Adv로 표시된다.

2.2 각 언어별 개념 및 표현

시제에 대한 개념은 현재까지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사건시와 발화시의 기준으로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봄으로써 태국어와 한국어간의 시제대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태국어와 한국어의 과거시제의 개념과 실현을 알아보도록 하자.

2.2.1 한국어의 과거시제 개념 및 표현

개념 :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있는 시제

실현 : 대표적인 방법은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을 사용하는 것이다. ‘-았었/-었었-’도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발화시 보다 훨씬 전에 발행하여 현재와는 강하게 단절된 사건을 표현하는데 쓰여 ‘-았-/-었-’과 그 의미 차이를 보인다. 또 ‘어제, 옛날’과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1)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한다.

ㄱ. 어제는 비가 내렸어

‘내리+ 었+ 어’

ㄴ. 나는 태국에 갔다.

‘가+ 았+ 다’

2) 용언에 붙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학교문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관형사형 어미는 ‘-은, -는, -을, -던’ 네 가지이다. 이들 가운데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데 사용 되는 것은 ‘-은, -던’이다. ‘-은’은 동사의 과거 관형사형 어미로 사용되며, ‘-던’은 형용사나 서술격조사 ‘이다’의 과거 관형사형 어미로 사용된다.³⁾

3) 이관규(2005), 국어교육을 위한국어 문법론, p.p. 302-303

최동주(1998), 이익섭 선생 외갑 기념 논총 문법연구와 자료 참조

- ㄱ. 아까 내가 {먹은} 우유는 상했어.
- ㄴ. 그렇게 {예쁘던 / 예뻐던} 순희가 지금 이렇게 변하다니.

3) 시간 부사어를 통한 과거표현

시간 부사어는 선어말 어미 ‘-었-‘이나 관형사형 어미 ‘-은, -던’보다 더 강력한 시간표현이라 할 수 있다.

- ㄱ. 작년에는 태국에 갔었다.
- ㄴ. 전에는 여기에 학교가 있었다.

2.2.2 태국어의 과거시제 개념 및 표현

개념 :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있는 시제

실현 : 태국어의 과거시제는 동사와 과거시제조동사 그리고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구로 과거시를 나타낸다.

태국에서 과거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가 있다.⁴⁾

1) 본동사 앞에 조동사 사용

ผม ๓๑ ไป โรงเรียน⁵⁾

(1) [phom dai pai rongrian]⁶⁾

(2) 나 과거조동사 가다 학교⁷⁾

(3) 나는 학교에 가었다.

(4) 나는 학교에 갔다.

ตำรวจ ๓๑ มา

(1) [Tamruat dai ma]

(2) 경찰 과거조동사 오다

(3) 경찰 왔다.

(4) 경찰이 왔다.

เรา ๓๓ ไม่ ๓๑ ทำ การบ้าน

4) 정환승(2002), 현대 태국어 문법론, 삼지사. p.p. 210-211. 참조

정환승(1996), 태국어와 한국어의 시간 표현에 관한 연구 p.p. 55 재인용

5) 원래 태국어는 띄어 쓰기가 없으나 대조를 위해 편의상 띄어쓰기를 함

6) Thai Romanization(1967, Thai government) 을 사용하여 자, 모음을 표시한다.

<http://www.arts.chula.ac.th/~ling/tts/> 타이어 romanization 변환프로그램 참조.

7) (1)은 타이어 Romanization (2)는 한국어 번역투 (3) 태국인 학습자의 응답 (4) 한국어 정문

- (1) [rao yang mai dai tam kanban]
 (2) 우리 아직 부정사 과거 조동사 하다 숙제
 (3) 우리는 아직 안했다 숙제를
 (4) 우리는 아직 숙제를 하지 않았다.

2)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구와 동사를 사용한다.

เมื่อวาน ฟน ตก หนัก

- (1) [mueawan fon tok nak]
 (2) 어제(시간부사) 비 내리다 많이
 (3) 어제 비가 많이 오다.
 (4) 어제 비가 많이 왔다.

ปีที่แล้ว ผม อยู่ ที่ เกาหลี

- (1) [pithilaeo phom yu thi kaoli]
 (2) 작년(시간부사) 나 있다 관계대명사(장소) 한국
 (3) 작년 나는 한국에 있다.
 (4) 작년에 나는 한국에 있었다.

เมื่อวาน ผม ทำงาน

- (1) [mueawan phom tham ngan]
 (2) 어제 나 일하다
 (3) 어제 나는 일하다.
 (4) 어제 나는 일했다.

เมื่อวาน ไป ไหน

- (1) [mueawan pai nai]
 (2) 어제 가다 어디
 (3) 어제 어디 가요?
 (4) 어제 어디 갔어요?

ไป โรงเรียน

- (1) [pai rongrian]
 (2) 가다 학교
 (3) 학교 가요.
 (4) 학교에 갔어요.

3)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구와 과거조동사 그리고 동사를 사용한다.

เมื่อเช้า เขา ไป พบ หงษ์สื่อ

- (1) [mueachao khao dai phop nangsue]
 (2) 아침에(시간부사) 그 과거조동사 만나다 책

- (3) 아침에 그는 책을 만났다.
- (4) 아침에 그는 책을 찾았다.

เมื่อวาน เขา ไป ดู หนังสือ

- (1)[mueawan khao dai pai du nang]
- (2) 어제(시간부사) 그 과거조동사 가다 보다 영화
- (3) 어제 그는 영화보러 갔었다.
- (4) 어제 그는 영화를 보러 갔었다.

3. 모국어를 통한 전이 검증

이러한 과거시제의 전이 검증을 위해 태국인 초급한국어 학습자 2명과 태국인 노동자 1명으로 파일럿테스트(pilot test)를 했고 태국어를 이용한 한국어 작문 테스트 12문제를 내어 20분간 풀게 하였다. 먼저 시간 부사를 제외한 과거조동사 과거시제 문장을 넣어 테스트 하고 일주일 뒤 시간 부사에 과거조동사를 넣은 시간 부사구를 넣어 어떠한 차이점이 생기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동사를 써서 과거시를 표시하는 태국어에 비해 선어말 어미를 써서 동사를 변형시키는 한국어의 과거시제 표시방법은 태국인 학습자에게 오류를 범하는 것이 도출되었고 관형사형 어미에서 동작동사뒤 과거 선어말 어미인 ‘었’을 다시 사용하는 오류도 예측 할 수 있다.

또한, 가장 많은 오류가 나타난 시간 부사의 경우 한국어는 과거 시간부사어가 오게 되면 반드시 과거선어말 어미가 오지만 태국어는 과거시간 부사어가 나와도 동사의 변화가 없고 현재형을 그대로 사용함으로 오류가 도출된다.

- 예) 나는 학교에 가었다.
- 어제 술을 많이 마시다.
- 니가 가있는 곳은 술집이다.
- 작년에 서울에 가다.
- 이틀 전 축제가 아름답다.

특히 시간 부사구에서 두드러지게 모국어의 전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태국어에서 시간 부사구는 사건이 어느 시간에 발생하였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기 때문에 시간 부사구는 가장 명확한 시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는 태국어의 문장에서 시간부사구를 사용할 때 과거시제 조동사 ไป가 탈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과거시제 표현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 오류의 원인이 모국어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주일의 간격을 둔 다음 두 학생의 실험을 보면 확실히 모국어에서의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다.

- | | | | | | |
|-----|-----|----|------|---------|----------|
| คุณ | คิม | ได | อ่าน | หนังสือ | เมื่อวาน |
|-----|-----|----|------|---------|----------|
- 1) [kun kim dai an nangsue mueawan]
 - 2) 성(씨) 김 과거조동사 읽다 책 어제
 - 3) 김씨는 책을 읽었다. 어제
 - 4) 어제 김씨는 책을 읽었다.

- | | | | | |
|-----|-----|------|---------|----------|
| คุณ | คิม | อ่าน | หนังสือ | เมื่อวาน |
|-----|-----|------|---------|----------|
- 1) [kun kim an nangsue mueawan]
 - 2) 성(씨) 김 읽다 책 어제
 - 3) 김씨는 책을 읽다 어제
 - 4) 어제 김씨는 책을 읽었다.

4. 맺음말

태국인 학습자의 중간언어를 통한 전이 양상과 원인은 다음 표로 나타낼 수 있다.

대상	전이양상	전이원인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	- 가었다, 마시았다, 예쁘았다, 느리았다, 빠르었다 - 만났은, 먹었은 - 어제 가다, 작년에 마시다	- 한국어는 모음조화에 의해 ‘-았’과 ‘-었’의 활용을 하지만 태국어는 과거시제 조동사인 ‘ <u>ได</u> ’만이 사용된다 - 동작성 관형사형 어미에 ‘었’을 다시 사용한다. - 한국어는 과거시간 부사어가 있으면 반드시 과거선어말 어미를 붙이지만 태국어는 필요하다.(현재시제로 대응)

지금까지 다양한 언어권의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대조분석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태국, 필리핀,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권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 학습자들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언어간 대조연구도 서서히 시작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시제의 경우 많은 의견과 주장이 분분하게 대립되고 있지만 태국인 학습자에게 어떻게 가장 용이하게 접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순서로 학습자가 습득을 하고 오류를 나타내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다. 본 발표에서 초급 학습자들이 모국어 전이를 통해 과거시제를 어떠한 식으로 받아들이고 시제 선어말어미 오류를 나타내는지 시

간부사를 사용할 때 어떠한 오류를 발생시키는지를 모국어과 한국어의 대조로 알 수 있었다.

아직 많이 모자라고 진행되어야 할 연구라고 생각한다. 동사의 어휘에 따른 시제 조동사의 생략 분포와 관형사형 과거표현은 현재 진행 중이고 여기서 언급이 되지 않은 상의 대조나 의미에 따른 시제 역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본다. 이는 차후에 이루어질 연구로 미룬다.

동남아권 학습자들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본 발표는 태국어와 한국어의 시제 개념과 모국어 전이를 통한 시제 대조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오류를 미리 예측하고 한국어 교수시 조금 더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김남길 (2010) 대조언어학과 한국어 교육. 제 33차 국제 한국어 교육학회
김봉순 (2007) 국어교육에는 어떤 문법이 필요한가- 시제를 중심으로
고영근, 구본관(2008) 4쇄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노재은 (2001) 중국인 모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시간 표현 교육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송경안, 이기갑외, (2008) 언어유형론 3 . 보고서
이관규 (2005) 국어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 아산재단연구총서
이철재 (2007) 한국어와 태국어의 음운현상 대조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정환승 (1996) 태국어와 한국어의 시간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 태국학회 논총
최동주 (1998) 이익섭 선생 외갑 기념 논총 문법연구와 자료-시제와 상. 태학사
최지영 (2005) 언어 노출에 따른 중국인의 한국어 시제 습득 양상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홍혜련 (2006) 태국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한국외국어 대학교 석사논문
Koheng Boonrit (2006) 한국어와 태국어 과거시제 대조연구 ‘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Muriel Saville, Troike, 임병빈 역 (2008) 제 2언어 습득론, 세진무역
Prajuaap Yinsen (2000) 한국어와 태국어의 문장 구조 대조분석연구, 전주대학교 석사논문
Thamma Chai (2001) 한국어 쓰기 지도에 관한 연구-태국인 학습자의 오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대조 분석을 통한 태국인 학습자의 과거 시제 습득 연구

김병건(춘천교대)

이 논문은 ‘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습득과 관련된 논문’으로 대조분석을 통해 중간언어를 살펴 언어습득의 인지적 방향성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요즘 학습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어나 일본어가 아닌 태국어 사용자를 그 대상으로 한 것이나, 많은 노력을 들여 중간언어를 밝히고자 한 점, 단순한 오류 분석에 그치지 않고 언어 간 (부정적) 전이로 그 원인을 파악, 교육 시 반영하고자 한 점 등은 교육 방법론이나 단순 학습 결과분석과 분류에 대한 논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국어 교육이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지 다시한 번 일깨워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토론자의 얕은 지식이 논문에 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논문을 읽으며 들었던 몇 가지 의문에 대한 질문으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 비교 대상의 문제

모국어와 제2언어 문법의 차이점(‘모국어 문법 - 제2언어 문법 = 차이문법’)이 학습자에게는 학습상의 문제점(부정적 전이)이 된다는 게 대조분석가설(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 CAH)의 전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해당 언어 문법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태국어의 과거를 나타내는 ‘-แล้ว’와 ‘แล้ว’ 중 ‘แล้ว’를 ‘-았/었-’에 대응하는 것으로 설정했는데 이들이 이처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개념적으로 등가인지, ‘-았/었/였-’ ‘-더-’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3쪽에서 ‘-แล้ว’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로 ‘-แล้ว’이 “끝난, 완료된, 마친, 종결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이 형태가 ‘-았/었/였-’에 대응되는 형태인지 궁금합니다. 8쪽에서 “‘แล้ว’가 시간부사구를 사용할 때 탈락할 수 있다.”고 하고 9쪽에서 이것이 전이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이 ‘แล้ว’ 탈락은 필수적인가요? 수의적인가요? 그리고 8쪽의 “mueawan khao dai pai du nang”의 한국어 표현이 “어제 그는 영화를 보러 갔었다.”로 되어있는데 특별히 이 구문만 ‘แล้ว’의 해석이 ‘-았/었/였-’인 이유가 있습니까?

2. 테스트 대상에 대한 문제

초급한국어 학습자 2명과 태국인 노동자 1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했는데 논문이 이 테스트의 결과물인가요?

Corder(1973)에 따르면 “무작위 오류(random error) 단계 → 출현(emergent) 단계 → 체계적(systematic) 단계 → 안정화(stabilization) 단계”로 제2언어가 발달한다고 합니다. 학습자의 중간언어를 관찰하려면 최소 ‘출현 단계’여야 할 거 같습니다. 초급한국어 학습자는 ‘무작위 오류 단계’일 가능성이 높는데 이 점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 테스트 방식에 대한 문제

테스트 방식은 ‘작문 테스트 12문제를, 먼저 시간 부사를 제외한 과거조동사 과거시제 문장을 넣어 테스트하고 일주일 뒤 시간 부사에 과거조동사를 넣은 시간 부사구를 넣어 어떠한 차이점이 생기는지 살펴보았다.’라고 하셨는데 보다 구체적인 방법과 발생한 차이점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차이점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혹 제시된 태국어 문장을 해석하는 방식이었다면 9페이지 테스트 결과처럼 언어 지식보다는 문자에 이끌렸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테스트 결과가 학습자의 오류인지 학습자의 실수인지 구별할 수 있는 장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4. 관형사형 어미와 관련한 문제

8쪽에서 “관형사형 어미에서 동작동사 뒤 과거 선어말어미인 ‘었’을 다시 사용하는 오류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상대동사 뒤에서는 ‘-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데, 이것도 또한 ‘전이’입니까? ‘전이’라면 어떠한 것인지요? 그리고 이에 대한 테스트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괜찮으시면 잠시 소개해 주심이 어떠신지요?

*귀한 논문을 발표해 주신 발표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